

1951년 3월 10일 발행

# 공민 1951

<제120·121합병호>





### 신년 시무식 거행

1월 4일, 공군본부 강당에서는 김두만참모총장을 비롯한 참모 및 전장병이 참석한 가운데 신년 시무식이 거행됐다.

이자리에서 김총장은 "71년도야말로 자주공군의 기틀을 마련하는 전환점이 되는 중요한 해"라고 강조, "언제든지 싸울 수 있는 공군", "싸우면 반드시 이기는 공군"이 될 것을 촉구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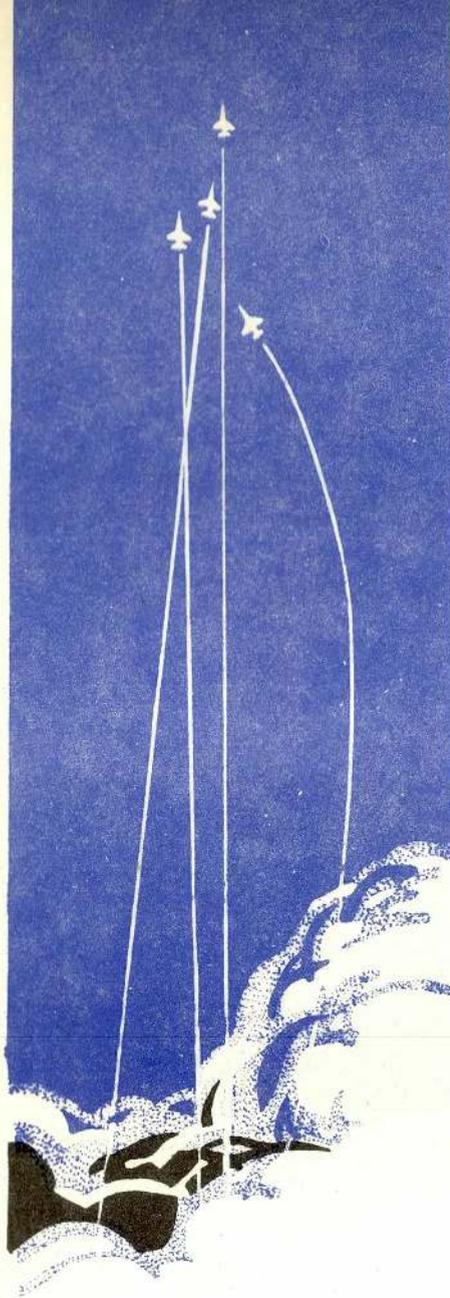
◀ 권 두 언 ▶	정훈감 신 찬 (2)
• 군인과 인격	한국일보 논설 유 광 열 (4)
• 항재 임전태세와 희생정신	전우신문 편집실장 선 우 진 (9)
• 한국사회의 군인관	전우신문 취재부장 마 옥 (18)

① 수	• 온고지신	이 태 극 (30)	• 한해물 보내며 정 상 목 (32)	
	• 생활잡감	유 경 환 (33)	• 광 인 기	김 행 곤 (36)
① 필	• 온고지신	이 상 옥 (39)	• 가을 운동회	이 성 교 (43)
	• 장식의 윤리	이 영 도 (45)		

위치의식 망각과 탈선행위	중앙일보 논설주간 김 승 한 (48)
에고중심의 인생관	독서신문 주간 오 소 백 (55)
우리의 위치를 정확히 알자	황 유 성 (62)
인화단결을 위한 올바른 인간관계와 질서 확립	최 흥 길 (72)
승리의 그날까지	김 영 세 (79)
절약은 최대의 재산	김 성 태 (102)
지휘지침 해설 <지휘각서 제1호>	지휘 관리실 (106)
지원병제 채택에 선행되는 제문제	지휘 관리실 (117)
차량범죄 발생과 우리의 각오	허 왕 (121)
민족중흥과 국민정신의 방향	홍 중 도 (128)

시 사	동남아시아에 있어서의 미 외교정책 추이	경향신문 이 춘 봉 (138)
	문제의 중공과 극동정세	대한일보 나 필 성 (146)
	미·소 우주경쟁의 현황	한국일보 심 승 택 (151)
	미국의 아시아 철수계획	서울신문 외신부장 임 동 수 (159)
	나트세르 이후의 중동	국일보 김 병 무 (166)
	캄보디아 사태 진전과 월남전 전망	조선일보 외신부장 이 남 규 (171)

• 태권도의 올바른 인식	태권도 6단 김 병 운 (175)
• 세계 제트여객기 소개	이 상 인 (187)



표지 화.....임정식  
차 례 화.....김희준  
사진화보.....표지 2,3면, 차례뒤

### 특집 I. 생활인으로서의 군인의 사생활

창의성 있는 생활과 실천적 자기관리	아동문학가 어효선 (194)
군인의 생활철학과 여가선용	시 인 황금찬 (199)
내핍생활과 질서생활	동양통신부장 김차영 (205)
군대생활과 사회생활	국제문제연구소 이한철 (212)

① 시	나의 애송시	박 경 수 (218)
-----	--------	-------------

① 송공교실	시편을 겪는 공산권 경제위기	공산주의문제연구소 이동호 (226)
	최근 북괴의 외교정책	공산주의문제연구소 조성직 (232)

### 항공과학

오늘의 항공병기와 그 전망	윤 범 중 (238)
월남 항공전 분석	김 정 식 (255)
조준·공격시스템	이 종 덕 (267)
미사일의 역사	문 정 식 (277)

### 특집 II. 병영생활 명랑화와 자기완성

합리적 생활태도와 병영생활	이화여대 교수 김은우 (287)
병영생활과 자기미화	현대경제일보 주필 유용대 (293)
상하조직속의 휴머니즘	동양방송 논평위원 봉두완 (297)

너 자신을 알라	군목·김 춘 태 (323)
참된 친구	군목·김 갑 태 (319)
정신교육과 병행되어야 할 문제들	군목·김 득 중 (316)
정신교육의 목표	군목·김 갑 태 (315)
믿음의 실제적 가치	군목·김 선 도 (313)
정신교육의 교안	군목·백 승 진 (310)
정신교육의 성과판단	군목·김 득 중 (304)
정신교육의 방법 비판	군목·정 수 영 (326)
•진 주	청 성 환역 (328)

### ★군중코너★

① 소	•이반·제니쑈비트의 하루	출세니친원작 이철규역 (361)
① 설	•크로오드·규우	이 성 일역 (374)
	•포울의 경우	이 호 영역 (394)
	후 기	(408)

## 국민교육헌장

우리는 민족중흥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다. 조상의 빛난 얼을 오늘에 되살려, 안으로 자주 독립의 자세를 확립하고, 밖으로 인류 공영에 이바지할 때다. 이에 우리의 나아갈 바를 밝히 교육의 지표로 삼는다.

성실한 마음과 튼튼한 몸으로, 학문과 기술을 배우고 익히며, 타고난 지마다의 소질을 계발하고, 우리의 처지를 약진의 발판으로 삼아, 창조의 힘과 개혁의 정신을 기른다. 공익과 질서를 앞세우며 능률과 실질을 숭상하고 경애와 신의에 뿌리박은 상부상조의 전통을 이어받아, 명랑하고 따뜻한 협동정신을 북돋운다. 우리의 창의와 협력을 바탕으로 나라가 발전하며, 나라의 융성이 나의 발전의 근본임을 깨달아, 자유와 권리에 따르는 책임과 의무를 다하며, 스스로 국가건설에 참여하고 봉사하는 국민 정신을 드높인다.

반공 민주 정신에 투철한 애국 애족이 우리의 삶의 길이며, 자유세계의 이상을 실현하는 기반이다. 길이 후손에 물려줄 영광된 통일 조국의 앞날을 내다보며, 신념과 긍지를 지닌 근면한 국민으로서, 민족의 슬기를 모아 즐기찬 노력으로, 새 역사를 창조하자.

1968년 12월 5일



### 시민위안 공군군악연주회 성황

공군 창설21주년을 기념하는 서울시민위안 공군군악연주회가 지난 12월 8일, 시민회관에서 배풀어 저 참석한 시민들의 열렬한 박수 갈채를 받았으며, 군민의 유대를 더욱 공고히 하였다.



### AT-33 화력시범대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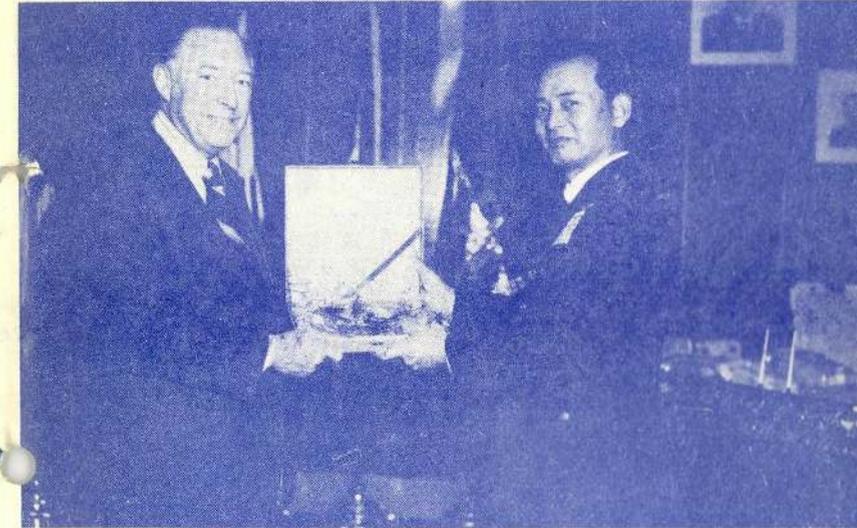
공군 ○○사격장에서는 지난 11월 2일, 정래혁 국방부장관과 김두만 참모총장이 참석한 가운데 「AT-33」 화력시범이 있었다.



### 축진급

1월 1일부로 중장 및 소장으로 영예의 진급을 한 ○명의 장성들이 김두만참모총장에게 진급신고를 하고 있다.

이 자리에서 김총장은 이들의 진급을 축하하고 중책완수에 더욱 정진해줄 것을 당부했다.



### 「월슨」 미 하원의원 공본예방

1월 12일, 「월슨」 미 하원의원이 방한인사차 공군본부로 김두만 참모총장을 예방했다.

〈사진: 김총장이 「월슨」의원에게 기념패를 증정하고 있다.〉

# 공군

<제 120 · 121 합병호  
1971년 제 1호>

<비매품:무단전재금지>

발행처: 공군본부정훈감실  
발행겸편집인: 공군대령 신찬  
인쇄처: 공군교재창  
인쇄인: 공군대령 예종협  
편집실: TEL 206-2204, 69-3511



## 독자에게 알립니다.

이 「공군」지에는 군보안규정에 저촉되는 내용은 게재되어 있지 않으나, 우리의 적 공산계열에서는 이와같은 책자들도 저들의 전략정보자료로서 이용코자 혈안이 되고 있으며, 최근 정부 기타 공공기관에서 발행되는 책자들이 온갖 수단으로써 간첩들의 손에 의하여 공산진영에 유출되는 사례가 발견되고 있음에 비추어 이 간행물의 독자 제위는 이 점에 각별히 유의하여 부지중에 적에게 이용되는 일이 없도록 이 책자의 취급 및 보관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군본부 정 훈 감 실

# 근대화를 향한 우리의 자세

정훈감 공군대령 신 찬

우리는 근대사회화의 3대요건으로 첫째 휴머니즘, 둘째 비판정신, 셋째 과학정신의 발달을 지적한다.

70년대를 향한 우리의 목표가 근대화라고 할진대는 과연 우리가 앞에서 지적한 근대사회화의 3대요건을 어느 정도 충족시킬 수 있을 것인가를 냉철히 반성해 볼 필요가 있다.

일찌기 독일의 유명한 철학자 “야스파스”는 서구사회는 근대화 되었으나 인도나 동양사회는 아직도 전근대사회를 탈피하지 못했거나 그렇지 않으면 점차적으로 근대화를 향하여 전진 중에 있다고 평가한 적이 있다.

경제적인 근대화에 앞서 정신적인 근대화가 선행되어야 하겠고 이로부터 건전한 사회의 근대화가 이루어진다는 것은 재언할 필요조차 없다.

민주주의를 지향하는 현대사회에서는 각자의 타고난 선(善)한 능력을 최대한으로 발휘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사회이어야 할 것이다. 어떤 외국의 저명한 “메이커”의 경영주의 경영목표가 『고용인 각자의 타고난 능력을 최대한으로 발휘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데 있다.』고 한 말을 들었을 때 우리의 실정으로서는 얼핏 남들이 가지 않는 점이 많을 것이다. 아마도 우리나라 경영주에게 경영목표를 물어본다면 어떻게 적은 자본으로 최대한의 이윤을 추구할 수 있을 것인가에 목표를 들것이 당연하다.

이와같이 그 경영목표의 차이에서만 보더라도 우리사회가 어느정도 근대화 되었는가를 알아보는 좋은 척도(尺度)가 될 것이다.

각자가 타고난 선(善)한 능력을 최대한으로 발휘시킨다는 것은 다원적(多元的)인 가치사회를 보장한다는 것이며, 거기에는 피동적이고 소극적이며, 비능률적인 것이 아니라 자발적이고 능동적이며, 적극적이고 창조적,



생산적인 참여자세로서 임한다는 전후자간(前後者間)의 크나큰 차이를 발견할 수 있는 것이다.

서구사회의 근대화는 과학정신에서부터 도래한 것이라고 한다.

과학정신은 첫째 합리적인 사고방식, 둘째 객관적인 가치의 추구, 셋째 실증적인 평가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본다.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 무엇보다도 중요한것은 목적보다는 그 목적을 수행하기 위한 방법에 있어 또는 어떤 이상을 실현하고자 하는 과정에 있어서 단순한 기분이나 감정에 치우치거나 권력에 호소하지 말고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를 상대방에게 이해시킴으로서 합리적인 사고를 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우리를 과거보다는 미래를 생각하고, 보다 창조적이고 건설적인 앞날을 위한 객관적인 가치의 추구에 노력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이며, 모든 되어지는 사실을 타연하고 속명적인 결과로 들릴 것이 아니라 보다 현실적인 실증에 입각하여 평가하는데서 부터 과학정신이 도래되는 것이라고 본다.

낙후된 전근대적인 사고방식을 탈피하지 못한 우리가 시급히 본받아야 할 과학정신이야말로 70년대를 향한 우리의 참다운 자세의 지표가 되어야 할 것이다.

이제 우리 앞에는 새로운 생기가 약동하고 있다. 이 정신적인 변환(變換)은 값싼 체념이 우리의 본성(本性)이 아님을 일깨워 주어야 하겠고 모든 퇴폐적인 원줄기의 명백을 과감히 끊어버릴 그 기백(氣魄)으로 앞을 내다보며 자세를 가누고 중단없는 전진을 계속할 때 머지않은 장래에 한국의 근대화가 이루어 질 것이다.

# 군 인 과 인 격

유 광 렬

<한국일보 논설위원>



군인의 생활이라고 일반 시민의 생활과 별로 다를 것이 없다. 좋은 시민으로서도 고상한 인격을 배양하면 군인으로서는도 좋은 군인이 되리라고 믿는다.

옛날 공자(孔子)라는 큰 성인은 『군자는 그릇이 되지 않느니라』(君子不器)』라고 하였다. 군자는 고상한 인격자이요 『그릇이 되지 않는다』는 말은 그런 고상한 이는 『어떤 국한(局限)된 인격이 되지 않는다』는 말이다.

그의 본뜻은 『먼저 고상한 인격자가 되면 어떤 일을 하든지 합당하게 되는 것이니 구태여 어떤 국한된 인격에 한정하여 생각할 것이 아니라는 뜻으로 한 말인 듯 하다.

이 말을 듣던 다른 제자가 공자의 제자 중에 학식과 재주가 뛰어난 자공(子貢)에 대한 공자의 견해(見解)를 물었다.

『자공은 어떠하가요(賜也何如=賜는 자공의 이름이요 성(姓)은 단목(端木)이다)』  
공자는 대답하기를

『그는 호련(瑚璉)의 그릇이니라(註. 호련의 그릇은 그때 제사에 쓰는 좋은 그릇이다)』

하였다.

이 말은 자공이 아무리 자기의 수(首) 제자로 뛰어난 인물이지만 『어떤 국한된 그릇이 되지 아니하고 아무테나 자유로이 쓰여질 인격은 못된다』고 말했다.

〔자공은 『군자는 못된다』는 뜻이다.

또 『국한된 그릇이 안 된다』는 것은 사회에서 어디든지 자유자재(自由自在)로 적

응하는 인격이요, 『호련의 그릇』은 좋은 그릇이지만 어떤 경우에 국한되고 치중(置重)하는 것이라는 뜻이다.

그러면 필자는 어떤 펜을 제언하고 싶으나 하던 그 두 가지 경우에 다 맞을 수 있어야 하지 않을까 한다. 하나는 일반논이요 다른 하나는 특수론(特殊論)인 것이다.

두 말 할 것 없이 군인은 그 계적 중에는 특수한 임무가 있다고 본다. 이 국민의 한 사람으로 다른 국민을 대신하여 나라를 지키는 것이다. 필자 자신이 군인생활을 못 하였으므로 자세한 것은 모르지만 엄격한 명령계통(命令系統), 희생정신으로 나라를 지키는 정신, 일정한 시간에 자기의 맡은 바 책임을 완수하는 것 등을 상상(想像)하게 된다.

이러한 도덕의 실천은 군인사회 뿐 아니라 일반사회에서도 실천되어야 할 것이다. 다만 다른 일반사회에서 그 도덕이 그 일정한 기간에 성취가 못 되어도 변동하고 고칠 길이 있지만 군인으로서의 그 임무를 실천 못하면 그 소속(所屬)한 부대에만 재해(災害)가 오는 것이 아니라 나아가서는 국가전체에 재화(災禍)가 오게 된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군인의 공(公)적 의무는 그 생활의 위에 쓴 도덕률이 그대로 반영(反映)되는 것이다.

첫째는 복종의 의무가 절대적인 것이다. 다른 일반사회에서도 복종의 의무는 강조되는 것이지만 군인에게서는 이것이 다른 사회에 비할 바 아니다. 대체로 복종의 도덕은 일반으로도 사회의 질서유지의 기본(基本)이 되는 것이다. 사회의 모든 구조(構造)는 한 개의 거대한 기계에 비할 수 있다.

가령 어떠한 복잡하고 미묘한 기계에 자기 자신은 한 개의 치륜(齒輪)과 같은 것이다. 만일 어떤 치륜 하나가 잘 돌아가지 못하면 그 치륜의 파탄은 두 말할 것 없거니와 거대한 기계 전체가 그 기능(機能)을 발휘하지 못하게 될 것이다.

이것은 누구를 위하여 전에 먼저 자기 자신을 위하여, 크게는 사회 전반을 위하여 복종의 도덕이 절대로 필요한 것이다.

둘째는 질서존중의 생각이다. 질서는 그 기계의 크고 작은 모든 치륜이 제자리에

## ◇ 군인과 인격

할 끼어지고 놓여져서 한 개의 동력(動力)이 작용하는 것과 같이 그 수 천의 구조의 각 부분이 제자리에 놓여져서 아니하면 그 기계는 그 기능이 약화(弱化)되거나 심하면 기능을 못하게 될 것이다. 질서는 모든 기계의 부분이 제자리의 위치에 놓이는 것과 같을 것이다.

유교(儒敎)의 중용(中庸)이란 책에는 이 질서와 비슷한 말로 중화(中和)를 말하였다.

『중화를 얻으면 하늘과 땅이 제자리에 놓이고 만사가 잘 되어 나갈 수 있다(致中和, 天地位焉, 萬物育焉.)』

고 하였다.

“그리스”의 옛날 철학자들이 정의(正義)를 많이 말한데 대하여 근년에 작고한 영국 철학자 “버트란드·릿셀”은 『자기로는 그들이 말한 정의를 확실히는 몰라도 질서인 것 같다』고 하였다.

질서를 지키는 데 대하여 유교에서 맹자(孟子)는 도덕의 기본인 오륜(五倫)을 말하는 중에,

『어른과 어린이는 차례가 있어야 한다(長幼有序).』

고 하였다. 그러나 그는 다른 데서 또 말하기를

『어떤 기관에 있으면 그 웃(上)사람의 말에 복종해야 하는 것이요 사생활에서는 나이 더 먹는 이의 말을 존중해야 하는 것이요 세상을 바로 잡고 잘살게 하려면 도덕 높은 이를 존중해야 한다(朝廷莫如爵, 鄉黨莫如齒, 輔世長民莫如德).』

이라고 하였다. 이를 해석하면 향리에서 사생활하는 데는 나이 더 먹은 어른의 말을 존중해야겠지만 공(公)생활, 즉 기관에서 하는 생활에는 지위(職位) 높은 사람에게 복종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일반적으로는 도덕이 있어야 세상이 바로잡히고 모든 사람이 잘 살게 된다고 하였다.

다시 유교에서 도덕에 대한 것을 보면,

『도라는 것은 우리생활에서 잠시도 떠날 수 없으니 생활과 관계 없이 등떨어진 것은 도덕이 아니라(道也者 不可須臾離也 可離非道也)

고 하였고, 이를 해석한 이는,

『날마다 하는 일에 당연히 행해야 할 길(日用事物當行之路)』  
이라고 주석하였다.

군인이 공적(公的)인 생활에서 훈련한 질서준중, 책임완수는 그대로 사회에 나와서도 좋은 시민으로 사회의 일익 할 수 있을 것이다.

필자는 이에 한 가지 강조할 것이 있다. 그것은 자기 가정을 중심한 도덕과 널리 사회생활을 하는 도덕실천의 차이(差異)를 말하려 한다.

현재 우리나라는 급속히 다른 선진국과 같이 시민사회로 나가는 중이다. 종래 우리의 도덕은 가정중심인 경향(傾向)이 농후(濃厚)하였었다.

옛글에도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이 일백 가지 행실의 근원(孝, 百行之源)』이라고 하였다.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은 물론 아름다운 도덕이다. 그러나 시민사회에서 시민의 한 사람으로 살아 나가려면 이전보다는 훨씬 많은 사회적 접촉(接觸)이 있게 된다.

이에는 가정중심의 도덕과 그 경향이 다른 사회도덕 또는 공중도덕에 너 많이 평소부터 교양과 훈련을 쌓아야 한다.

우리는 지금 우리가 원하든지 아니하든지 세계 사람들과 함께 살고 세계 사람이 보는 가운데서 살고 있다.

공중도덕에 제일 필요한 것은 협력이다.

군인이 나라를 위하여 전투를 진행하는 것도 한 개의 국민을 위한 공중도덕인 동시에 큰 범위로 보아 협력인 것이다.

위에서 말한 책임완수나 질서 준중이 도덕의 기본원리라 하면 협력은 그것을 강력히 실천에 옮기는 행동으로 동적(動的)인 것이다.

흔히 세상사람들은 병영(兵營)도 한 개의 학교와 같다고 한다. 그 엄격한 명령제통, 질서지키는 생활, 옳은 일을 위하여, 내 몸을 바치는 희생정신은 훈련을 통하여 배워가져고 제재(除隊)되어 나오면 한 개의 인격을 형성하는 교육의 효과를 평가한 말이다. 그러나 개중(個中)에는 『군인으로 있을 때는 특수사회에서 특수한 생활을 한 것이요, 사회에 나와서도 그래도 할 것은 아니라』고 보는 이도 있는 모양이다.

위에서 공자가 말한 훈련이 그릇이 되는 것을 좋은 군인생활에 비하여 『군자는

## ◇ 군인과 인격

국한된 그릇이 되지 않는다』는 일반적인 인격을 제대한 후에 사회생활에까지 적용하게 되기를 바라는 것이다.

끝으로 군인이라느니보다 군인중 일부의 탈선한 극소수의 사람에게 피로운 말을 한다면 빗해 전에 군인과 어느 지방경찰관과 충돌이 있어서 세론에 오른 일이 있었다.

군인이나 경찰관이 법 앞에는 평등한 것이니 이것을 대립으로 보지 말아야 한다. 어떤 편이 어떤 편에 굴복한다든지 지는 것이 아니라 법과 질서 앞에 복종하는 아름다운 도덕이 실천의 표준이 되어야 한다.

이와는 상반(相反)되는 말로 몇 해 전에 전라도에서 홍수가 났을 때 어떤 군인이 탁류에 휩쓸려 내려가는 인명 10여명을 진저 주었다. 너무도 고맙게 여기는 그 지방 인사가 성명을 물으니 『나의 성명은 아실 것이 없다. 지나가던 어떤 군인이더라』 고만 했다고 그때 신문에 보도되었었다. 이 고상한 협력정신을 사람들은 다 몰라도 종교적 말로 하면 하늘은 알고 있을 것이다.

## △ 고금 소담 △

평양감사가 이방(吏房)의 의견을 떠보느라고 어느 날 대동장으로 끌고 나가서 물에 떠있는 오리를 보고

『저 오리는 십리를 가든지 백리를 가든지 언젠가 오리라고만 하니 무슨 이치인가?』 하고 물으니

『할미새는 어제 나도 할미새 오늘 나도 할미새라 하니 그 이치는 무엇입니까?』 하고 이방은 반문한다.

감사는 이거 맹랑한 놈이라고 생각하고서 『그럼 새 장구는 다 헤어져도 새 장구라 하니 그건 무슨 이치겠는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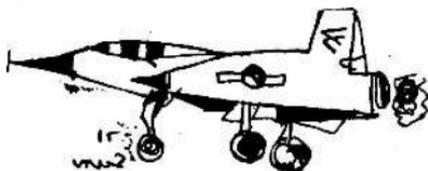
『그러면 사또께서는 북(鼓)은 동에 있으나 서에 있으나 항상 북이라고만 하는 이치를 아시겠습니까?』

『창(槍)으로 창(窓)을 찌르면 그 구멍을 창(槍)구멍이라 하겠는가? 창(窓)구멍이라 하겠는가?』 이방은 지지 않고 또 감사를 쳐다보면서 『그러면 눈오는 날에 눈(雪)이 눈(眼) 속에 들어가 눈물을 흘리니 그것을 눈(雪)물이라 하겠습니까? 눈(眼)물이라 하겠습니까?』

# 항재임전태세와 희생정신

선 우 진

<전우신문 편집실장>



## 병영생활과 청년의 의기

1962년 2월 23일, 박 대통령각하께서 공군 사관학교 졸업식에서의 훈시 한 귀절을 이 원고 앞 머리에서 다시금 되새겨 보므로 하여, 순결과 참신의 상징인 우리 공군의 임무와 책임을 다시 한 번 아로새겨야 할 것이다.

오늘날 공군의 전투력은 전쟁의 승패에 즉각적이고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며 한 번의 실패도 전국 전반에 만회할 수 없는 중대한 타격을 가져 오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전시에 있어서는 물론 평시에 있어서 하루를 게을리한다는 것은 군 전력에 그만큼 약화를 가져 온다는 것을 명심하여야 하며 스스로 연구하고 발전하도록 노력한다는 것은 여러분의 또 하나의 중요한 임무인 것입니다.....

박 대통령각하의 이 훈시 가운데서 우리들이 특히 명심해야 할 것은 <전시에 있어서는 물론 평시에 있어서 하루를 게을리한다는 것은.....>

이 귀절인 것이다.

우리들이 임전태세를 하루라도 게을리한다면 하루를 게을리한만큼의 증파가 군

## 항재임전과세와 희생정신

전력에 나타난다고 경고하신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스스로가 연구하고, 발전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가르쳐 주셨던 것이다.

우리들이 연구하고, 우리들이 노력하는 우리들의 배움터는 두 말할 나위도 없이 우리들의 병영인 것이다.

병영이란 곧 가정인 것이다.

가정에서 입고, 먹고 거기에서 즐겁게 얘기하고 거기에서 여러가지를 배우는 가운데 개개인의 전 인격은 육성되고, 전 생활은 창조되고 뻗어가게 되는 곳이다.

자녀들의 순정도, 모성의 사랑도, 어른의 인자함도, 그 어떤 것 하나라도 가정을 떠나서는 형성되지 않는 것이다. 이렇듯 가정은 장래의 보다 강한 힘의 원동력을 키워주는 인간의 도장인 것이다.

우리들의 병영생활이 내일의 보다 강한 전력을 배양해 주는 것도 실은 이 가정 정신의 발로에서이다.

병영의 선임자들이 부하를 자식이나 동생처럼 보살피고, 부하들은 상사를 아버지나 형처럼 섬기는 그 분위기 속에서만이 순결과 참신의 공군 정신과 공군의 상징이 한결 빛날 것이다.

하나의 순결한 목적을 위해 전국 방방곡곡에서 운집한 보라매들이, 내일의 확신을 위한 하루하루가 어찌 즐겁지 않을 수가 있겠는가?

하루의 분망은 슬픔을 잊게 한다고 「바이런」이 갈파한 것을 우리들은 기억하고 있는 것이다.

청년은 두 번 다시 오지 않는 것이며, 하루는 다시 어제가 될 수 없는 것이며, 춘각을 아껴 먼터하라! 세월은 사람을 기다려 주지 않는다고, 「도연명」이도 일찌기 읊었던 것이 아니냐—.

지니가는 시간을 잡아라.

시시각각을 선용하라.

인생은 짧은 여름이고, 사람은 꽃이다.

그는 죽는다.

아이— 그의 죽음의 빠름이여……

라고 누가 한탄했던가—.

## 임전태세

지난 11월 2일, 북괴 김 일성은 적화통일을 목표로 대한민국에 대한 투쟁정책을 계속 추진할 것이라고 장광설을 늘어놓았다.

김 일성은 북괴노동당 제5차 당 대회에서의 보고를 통해

『북괴 인민들은 누구나 총기(銃器)를 지니고 있으며 침략에 대비하여 모두 총기 사용법을 습득하고 있다.』

라고, 놈들의 본성을 털어놓고

『전 북괴 인민은 모두 무장되고 있으며 북괴 전체가 요새화(要塞化)되어 있다.』

라고, 이티의 독아를 잘았음을 공공연하게 말하고

『북괴 전역에 철용성(鐵瓮城)을 구축했으며 대부분의 생산시설을 요새화 했다.』라고 떠벌었다.

우리가 다 아는 바와 같이 북괴는 61년 12월에 전 인민을 무장화 했고, 전 지역의 요새화 정책을 기본 군사 노선으로 채택한 후 10년 동안에 걸쳐 전쟁준비에 광분해 왔던 것이다.

지금 북괴는 총 국민생산고 30억달러의 24%에 해당하고 7억달러 이상을 군사비로 지출하고 있는데 이것은 우리들의 국방비의 2배 이상이며 전 세계 1백 20여개국 중 총 국민생산고 대(對) 군사비 지출이 최고에 달하고 있는 것이다.

지난 11월 4일 정 래혁 국방부장관은 기자 회견 석상에서 북괴군의 전쟁준비 태세와 대남공작 현황을 다음과 같이 밝힌 바 있었다.

북괴군의 규모를 분석할 때, 북괴 정규군 총 병력 47만 중 41만에 달하는 저상군은 T-54형 중전차 7백 50여대와 9천 여분의 포, 2백 20여개(基)의 SAM 또는 SS 미사일로 장비했으며 2만명의 병력을 가진 해군은 유도탄 적재 경비정 14척과 잠수함 4척을 포함하여 2백 90여척의 함정으로 장비돼 있고 공군은 미그-21을 위시한 각종 전투기 및 폭격기를 포함해서 7백 80여대를 보유하고 있다는 것이다.

우리는 북괴가 이런 무기를 갖고 있다는 것으로 하여 조금도 놀라는 것은 절대 아닌 것이다.

## 항재엄천태세와 희생정신

다만 놈들이 북한 동포들의 고향을 아낌없이 짜 내어, 악랄하게 납치의 기회를 호시탐탐 노리고 있다는데 경악과 연민을 금할 수가 없는 것이다.

하나의 비밀(秘密)은 다음의 허위, 그리고 또 새로운 비밀을 낳아 배반(背反)의 나락으로 산울림을 남기면서 무너진다는 사실을 김 일성 도당들은 감히 알고나 있을는지……

그들이야 말로,

「얼마 남지 않은 물 속의 적은 고기는 먹음을 탐냄으로 하여, 언젠가는 그 마름을 모르고, 뒷간의 구더기는 자리 닦음을 하는 것으로 하여 밖의 맑음을 모르고……」

따위의 적은 고기나 구더기 등에 지나지 않는 것이다.

놈들은 우리들의 평화 통일이라는 민족적 영원을 조금도 이해하려 하지 않는 것이다.

우리는 놈들의 여하한 병력에도, 또한 어떠한 무기에도 결단코 놀라지도 않을 것이며 또한 방심도 있을 수 없는 것이다.

놈들은 59년 이후 노농적위대(勞農赤衛隊)를 창설하여 매일 2시간 이상 연 5백여 시간의 각종 전투훈련을 실시하고 있으며 특히 68년 초부터는 정규군과 협동하여 보전포(步戰砲) 협동훈련, 화생방훈련(化生放訓練)같은 연합훈련을 실시 중에 있는데 그 병력은 현재 1백40만에 달하고 있는 것이다.

이 병력은 북괴군의 편제에 맞도록 도(道)는 군단, 시·군은 연대, 이·동은 대대, 각 직장 및 부락은 중·소대로 구분 편성했으며 총계 1백40여개 사단으로 조직되어 있고 이들의 장비는 북괴정규군과 같이 전원이 기본 보병화기인 아카부 47과 시모노프 소총으로 장비되어 있으며 총기관리, 박격포, 대전차포, 사단포 등 공용화기는 40%가 지급되어 있다. 그리고 68년부터는 T-34형 전차까지를 지급하여 정규군과 동일한 작전훈련을 실시 중에 있다는 것이다.

우리들은 놈들의 정체(正體)를 이제 새삼스럽게 안 것도 아니지만, 놈들의 정체 하나 하나를 안 것이다.

간단한 생각으로는 자기를 아는 것은 쉬운 일인 듯하나 그것도 표면을 아는 정도로는 참으로 아는 것이라고 말하기 어렵고 진정을 알므로써 비로소 안다고 할 것이며 적을 아는 것은 더욱 어려운 일일 것이니 실경 간첩, 정찰 그 밖의 방법으로 적

을 알려고 하더라도 사람의 충성과 간악함을 구별하기 어렵고 말의 거짓과 올바른을 알기 어렵고 일의 유무(有無)도 신용하기 어려우므로 이것을 적정(適正)하게 판단하여 적의 진정을 아는 것은 오직 전지(全智)의 장수가 아니고는 곤란한 일이라 했지만 우리들은 모두가 놈들의 나체(裸體)를 백일하에서 응시한 것이나 다름없다.

흔히들 사람들은 모두 필요에 의해 사는 것이지, 진리에 의해 사는 것이 아니라 했다. 그러나 우리 군인들은 필요에 의해 훈련하는 것이 아니라 훈련에 의해 사는 것이 아닐까—.

박 대통령님께서 하루를 게을리한다는 것은…… 하고 훈시하셨던 그 진의가 실은 여기에 있는 것이 아닐까 생각된다.

하루를 게을리하는 그곳에 우리들의 나태(懶怠)가 자리잡고, 하루를 게을리하는 곳에 우리들의 후퇴가 점쳐진다면 어찌 우리들의 시시각각을 무위하게 지니칠 수가 있겠는가—.

하루하루에 진실하고, 하루하루에 연구 노력하는 것이 곧 우리들의 임천태세인 것이다.

하루는 일순(一瞬)의 연장이고 일생은 하루의 누적(累積)인 것이다.

자고 일어나는 일, 음식을 먹는 일, 사지의 진퇴, 오만가지의 우리들 생활도 결국은 각 일각으로 행동하고 사색하는 여러가지 모습에 지나지 않는 것이다.

덜컾 생각하면 우리들의 생은 단조롭다고 생각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절대로 그렇지는 않은 것이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 인생은 장엄하고 의미 심장한 것이다.

## 희생정신

만인의 심령은 하나이기 때문에, 그와 나의 반응(反應)은 소멸되고, 그는 나의 사람이며 나는 그의 형제이므로 나의 형제는 곧 나인 것이다라고 누가 말한 것을 기억하고 있다.

우리가 병영에서 공동생활을 영위하고 있는 한, 거기에는 약간의 감정이 늘 꼬리를 이을 것이다.

## 항재입천래세와 회생정신

이 약간의 탈생을 해소해 주는 묘약(妙藥)은 회생인 것이다.

사람은 남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므로 나를 교정(矯正)하고, 그렇지 않으면 인용(忍容)해야 될 것이다.

어두운 때 생각나는 빛이 있다.

사랑발림의 빛이 아니고 진정한 빛이기 때문이다.

세상에는 너무나 사랑발림의 빛이 많기 때문에 그 구분을 하기란 꼭 힘든 것이다. 때 속에 사무치도록 고깝게 여겨지는 빛은 우리가 지닌 교너를 가장 잘 이해하고 그 교너의 집(荷物)을 같이 짊어져 주는 사람이어야 할 것이다.

그런 사람은 「예수·크리스도」 한 분이라고들 한다.

그 「크리스도의 정신을 잘 살려온 삶은 가난으로부터 해방을 위해 바친 독일 농업협동조합의 창립자 「프리드리히·빌헬름, 「라이파이젠」이라고 한다.

이 「라이파이젠」이 즐겨한 연설문 가운데 다음과 같은 귀절이 있기에 여기에 인용한다.

『저는 다른 이들이 떠들어 대고 있는 많은 빈곤 구제법 가운데서 꼭 한 줄만 뽑아 내어 여러분에게 보여 드리겠습니다. 그 단 한 줄 밖에 안 되는 간단한 글월 속에는 나의 본 삶을 들여 이룩해 놓은 농업협동조합의 정신이 숨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한 줄은 우리 삶의 목적 전부를 보여 주고 있다 하여도 과언은 아니겠습니다. 그것은 <네 이웃 사랑하기를 네 몸과 같이 하라>는 한 줄입니다.』

라는 것이다.

여기에서 그가 말한 <네 이웃 사랑하기를 네 몸과 같이 하라>는 말은 「라이파이젠」의 온 삶의 내용이였다.

너무나 평범한 말이라고 일소에 부쳐 버릴 사람도 있겠으나, 사실 모든 이론을 떠나, 또 이맛살을 찌푸리고 큰 하품을 하게 하는 학문적 괴변들을 떠나서 말한다면, 이 한 줄의 진리로 충분할 것이다.

이웃을 사랑하고, 빛을 아끼고 존중하고, 가정을 아끼고 사랑하고, 자기 번두리에 있는 모든 인간들에게 연민과 애정을 통한 봉사를 이룩해 나갈 때 그곳에는 가난이 있을 수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것이라고, 그는 역설했다는 것이다.

이웃이 원하는 것을 먼저 해 주고 자기가 원하는 바를 남에게 먼저 해 줄 수 있는

이런 마음— 이곳이 곧 협동조합이며, 회생정신이 아닐까—

협동에는 그림자처럼 회생이 따르게 마련일 것이다.

우리들의 병영생활이 곧 협동생활이라면, 우리들의 병영생활에는 회생정신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이다.

계급보다도, 학문보다도, 재산보다도, 아니 그 무엇보다도 귀중한 것은 개인이 지니고 있는 회생정신일 것이다.

미소는 길거리의 핀 장미꽃이며 누구나도 아름다운 회생으로 자기를 파산한 일은 없을 것이다.

상관을 위한, 부하를 위한 우리들 선배의 장하고도, 눈물겨운 회생 정신은 너무나도 많았고, 또한 너무나도 잘 기억하고 있는 것이다.

내 곁의 김 병장이, 내 뒤의 이 하사가 때에 따라서는 형제육보다 몇 배나 더 소중한 전우애. 그것은 오로지 회생정신에서 배양되는 것이다.

어버이에게, 형제들에게도 말할 수 없는 진정을 전우에게 밝힘으로 하여, 그 전우로부터 진정한 조언(助言)을 얻었을 때의 그 기쁨과 고마움을 경험한 사람들은 많았을 것이다.

나보다 훌륭한 빛을 얻으라고 옛부터 우리들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더한 빛을 얻기란 그다지 쉬운 일은 결코 아닐 것이다.

동고동락의 병영생활에서 회생정신이 없고, 진정한 의미에 있어서의 전우애가 없다면, 우리들의 병영생활은 모태를 씹는 그러한 기분일 것이다.

### 죽음을 불사하는 보라매

사람이 처세(處世)하는데 있어서의 성공과 불성공, 혹은 인격의 값어치를 올리고, 올리지 못하는 것은 당초의 입지(立志) 여하로 결정되는 수가 많은 것이다.

우리들은 타의에서든지, 자의에서든지 공군이 될 것이다.

공군으로 입지(立志)했다면 공군답게 복무를 다 해야 할 것이다.

공군으로서 일생을 다 하거나 또는 그렇지 않거나 간에 인간으로 선택되어 삶을 위하여는 이상은 인간답게 살다가 인간답게 죽어야 될 것이다.

어떤 삶과 죽음이 인간의 참 모습일까.....

수양을 거듭하여 마음의 욕을 갈고 닦으면서 유구한 생명으로 삶과 죽음을 하려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고 눈 앞의 공명에만 집념하여 의리와 인정까지를 무시하는功利 일변도(功利一邊倒)로 달리는 주구(走狗)의 삶도 있을 것이다.

그런가 하면 청루에서 술잔을 비우며 육체의 열락과 육구의 탐닉으로 허송하는 사람의 일생도 있을 것이며, 길을 정하고, 그 길을 닦고 가다듬을 소신(所信)으로 시종(如終)하여, 사회 반상과, 그 고락을 함께 하기를 원하는 달인지사(達人志士)도 있을 것이다. 이렇듯 사람들의 삶과 죽음은 천태 만태인 것이다.

그렇다면 나와 너는 어떻게 살다가 죽어야 할까.....

동서의 성자(聖者)들이 입을 모아 삼계유일심(三界唯一心)이라 했지 않았던가—. 삼계의 삼과 만상이 자기 마음에 반영된 현상이어서 자기의 마음 이외에는 삼계가 없다는 삼계 일심의 경지—.

앞의 임전태세에서 말한,

흔히들 사람들은 모두 필요에 의해 사는 것이지 진리에 의해 사는 것이 아니라 했다. 그러나 우리 군인들은 필요에 의해 훈련하는 것이 아니라 훈련에 의해 사는 것이 아닐까..... 하고 밝힌 바가 있다.

필요에 의해 훈련하는 것이 아니라 훈련에 의해 사는 우리 군인이 일단 유사시에 조국과 민족을 위해 초개같이 자기의 목숨을 희생하는 그 숭고한 자세는 하나의 열반(涅槃)일 것이다.

수도자가 몇 십년을 두고두고 각고한 끝에 얻어지는 하나의 진리는, 어떤 순간에서 얻어지는 것이다.

그 해탈의 경지—. 곧 군인이 죽음을 불사한다는 그 거룩하고 성스러운 진리도 수년 동안의 각고에서 얻어지는 하나의 해탈에서일 것이다.

인간이 개(犬)의 일생처럼 기갈(飢渴)과 평안의 되풀이로 끝날 수는 없지 않는가.

인간은 어디까지나 인간의 삶과 인간의 죽음이 있는 것이지 개의 일생은 될 수 없는 것이 아니겠는가?

<외씨를 심으면 외를 얻고, 콩을 심으면 콩을 얻는다 하는데 그물이 넓고 넓어 보이지는 않으나 새(漏)지는 않으리다.>

셈으면 셈을 수록 의미가 무궁무진한 가르침이 아닌가—.

1966년 10월 1일.

창군 제18주년 기념 국군의 날에, 박 대통령각하께서 하신 유시 가운데

『여러분은 조국의 운명을 두 어깨에 짊어진 나라의 기둥입니다.

여러분은 아시아 최강의 힘이요, 자유 세계 희망의 상징인 것입니다.』

라고, 굳인을 격찬한 바 있었다.

오늘날 북괴 도당이 「미그 21」을 위시하여 각종 전투기가 몇 천대 있다 하더라도  
우리들의 하늘을 침범할 때에는 우리 공군 용사들이 그 전부를 격추시켜 줄 것이라  
고 국민들은 믿고 있는 것이다.

그래야만 나라의 기둥이 될 것이며, 자유 세계 희망의 상징이 될 것이다.

하무를 게을리하지 않는 병영에 나라의 기둥이 더욱 튼튼해질 것이며 하무를 게을  
리하지 않는 병영에 자유 세계 희망의 상징은 더욱 더 빛날 것이다.

죽음을 완사하는 우리의 공군 장병에게 끝으로 박 대통령각하께서 62년 2월 23일,  
공군 사관학교 졸업식에서의 훈시 한 귀절을 더욱 강조하는 것은 주마가면(走馬加鞭)  
의 뜻에서다.

「오늘날 공군의 전투력은 전쟁의 승패에 즉각적이고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며 한번의 실패는 전국 전란에 만회할 수 없는 중대한 타격을 가져 오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전시에 있어서는 물론 평시에 있어서 하무를 게을리한다는 것은  
군 전력에 그만큼 약화를 가져 온다는 것을 명심하여야 하며 스스로 연구하고 발  
전하도록 노력한다는 것은 여러분의 또 하나의 중요한 임무인 것입니다.……」

끝으로 공자(孔子)의

<착한 일을 하는 사람에게서는 하늘이 복을 주고, 악한 일을 하는 사람에게서는 하늘  
이 화를 준다.>

라는 가르침을 여러분에게 선물하고자 한다.

# 한 국 사회의 군 인 관

마                    육

<전우신문 취재부장>



우리 군대 사회를 가리켜 일반 사회에서는 흔히 특수 사회라고 부른다. 그것은 한 마디로 해서 우리 군대 사회의 조직 구성원의 이질성을 말하는 것이다. 그 이질성이란 우리는 적과 직접 싸워야 한다는 전투사명을 띠고 있다는 임무의 특수성을 가리키는 말에 불과할 뿐이다.

때문에 우리는 잘 못 생각하면 군인 사회를 특수 사회라고 생각하기가 쉽고 또, 그 이질성을 과장하여 방중, 다시 말해서 만용을 부리기가 쉬운 것이다. 사실 군대사회의 구성원인 군인은 일반 사회의 정수층이 집결돼 있기 때문에 임무와 사명감에 투철하고 냉엄한 판단으로 격한 감수성을 자제하고 오직 그 특수 사회의 목적을 위해 매진하고 있는 것이다.

여기서 진군 22돌을 보낸 우리 군대 사회를 일반 사회가 어떻게 보고 있으며 또 우리는 어떠한 행동으로 이 나라의 국민된 도리를 다해 국가의 목표에 순응할 것인가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 군대 사회의 목적은 국가이익, 국민옹호

두 말할 것도 없이 일반 사회의 구성원이든 특수 사회의 구성원이든 간에 모두가 이 나라 이 민족의 일원으로 내 조국의 번영을 위해 싸우고 있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모두가 피가 통하는 인간인 것이다. 특수 사회의 군인도 국민이요 인간인 것이다.

인간은 하나의 작은 우주라고 한다. 그러므로 마음 바탕은 저 천체(天體)와 같다. 그 천체에 별이 있는가하면 구름이 있듯이 사나운 비 바람도 섞이고 보면 우리 인간에게도 희로애락이 없을 수 없는 것이다.

그러한 희로애락은 일반 사회의 구성원이건 특수 사회 구성원이건 간에 다같이 느낄 수 있고 맛 볼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희로애락을 같이 느낄 수 있는 인간, 즉 하나의 우주로서의 천체가 집단을 달렸다고 해서 그 목적이 다른 것은 결코 아니다.

다만 말은 바 사명이 다른 것 뿐이다.

사회 집단은 그 집단 구성원의 그 공동이익을 추구하자는데 목적을 두고 있지만, 우리 군대는 군 자체의 이익만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의 이익과 국민의 권익 옹호를 궁극적인 목적으로 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것이 군대 사회의 특수성일지도 모른다.

군인이기 때문에 우리는 국가와 국민을 보위한다는 대사명을 지니고 있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다른 집단 성원들의 최선의 봉사 활동이라면 『힘을 다 한다.』라는 노력에 그치지만 군인의 최선방법이란 그런 것이 아니다.

적어도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힘을 다 한다는 것은 더 말할 나위도 없지만 끝내는 생명까지도 기꺼이 바친다는 「애국」 「애족」의 「충성」을 그 정신의 기본 바탕으로 하고 있는 것이다.

전자를 소극적이라고 본다면 후자는 어디까지나 적극적이요 또 과감무비하다 하겠다.

때문에 우리 군대 사회는 국권을 수호하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킨다는 대명제가 앞서지 않고서는 그 존재가치가 없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국가와 민족을 생각하지 않은 군대는 오합지중에 불과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군인은 국민의 군대라는 것을 잠시도 잊어서는 안 되며 나아가서는 나라의 간성이요, 겨레의 방패라는 것을 언제나 가슴 속 깊이 새겨 두지 않

교서는 군대 내에서의 복무 자세가 올바르게 나타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명심해야 하겠다.

나라와 겨레를 잇은 군인은 안일무시주의요, 무책임과 부주의로 인한 사고자가 될 것이 많다.

군인으로서 갖추어야 할 사명감을 견지하고 우리의 기본정신이 뚜렷하지 않으면 군인 사회는 일반 사회의 지탄을 받을 것이요 나아가서는 이 나라와 이 민족의 안일 마저 위태롭게 하는 결과가 된다는 것은 명약관화한 일이다.

바른 정신자세, 바른 사명감만이 우리 사회의 힘이고 또 역량인 것이다.

그것이 흔히 말하는 군사력이다. 다시 말해서 군대사회의 힘은 곧 이 나라의 국력인 것이다.

군사적 역량, 그것은 또 국민 경제력의 척도로서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에 나라가 부강하면 부강할 수록 국가의 국제적 영향력이 커지며 따라서 군사적 영향권도 그만큼 확대되어 간다는 것은 하나의 상식인 것이다.

현대의 국력 평가는 더욱 그러한 것임을 동서의 세계정세가 더욱 실감케 하고 있다. 현대와 같은 국민 총력전 체제 아래에서는 군과 민의 협동체제 구현이 더욱 절실히 요구되는 것이니만큼 군대와 국민, 즉 일반 사회와 특수 사회는 본질적으로 분리되어 존재할 수 없는 것이다.

또 존재해서는 현대의 세계 조류를 헤엄쳐 나갈 수 없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되겠다.

때문에 우리는 국민의 군대로서 특히 공군으로서의 간성이요, 겨레의 방패로 국가의 이익과 국민의 원익 옹호를 궁극적인 목적으로 삼고 있다는 것이다.

### 군·민의 유대강화, 반공정신이 그 바탕

우리 목적이 정립되었을 때 우리는 우리가 바라보는 사회에 우리를 뚜렷이 부각시켜야 할 것이다.

물론 우리가 우리의 소임을 다하는 때는 사회 즉, 국민의 강력한 뒷받침이 없이는 이룩할 수 없다.

그러나 우리 군대라는 하나의 집단 사회에서 배우고 익는 모든 이론과 기술은 우

리를 해치려는 적을 소탕하는데도 진요한 것이지만 체득한 문명을 제대 이후 자기 농촌에 전파시키는 중계자요 나아가서는 조국 근대화의 주역자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때문에 우리는 국가의 주요한 자산이기도 하다.

제대 후 도시와 농촌에 나가 사회의 기둥으로 일할 자신임을 생각할 때 우리는 군대 사회의 모든 교육과 훈련을 게을리 해서는 안 될 것이다.

왜냐하면 젊은 우리들이 군대 사회를 벗어 날 때 사회의 일원으로서 사회의 기둥이 되어 이 나라 근대화의 기수로 또는 향토 방위의 역군으로 일해야 한다고 생각할 때 오늘을 소홀히 해서 사회로부터 지탄을 받는다면 우리가 나갈 사회가 우리를 어떻게 받아들일지느냐 하는 것이다.

사회인이 보는 군대 생활이 점수 이하로 평가된다면 우리가 제대되어도 사회는 우리를 달갑지 않게 생각할 것이다.

나아가서는 우리가 군대 생활을 하는 동안 적침을 우리의 힘으로 막아 내지 못했다면 우리는 부모 형제 나아가서는 처자들에게 무어라고 할 것인가.

아들은 불효였고 아버지는 처자도 돌보지 못한 사나이로 낙인 찍힐 것이 아닌가.

때문에 우리의 임무는 중하고 사명은 뚜렷한 것이다.

그런데 요즘은 일부 보도에 의하면 몇몇 불지자한 병사들의 군무지 이탈사고는 사회적 불의를 일으키는 것 같다. 평소엔 온순하고 다감하던 사람이 술을 과음하여 일반 시민에게 폭행을 가하는 일이 있는가 하면, 술을 마시기 위하여 상사의 눈을 속여 군무지를 이탈하는 것 등은 먼저 말한 군 본연의 임무와 자세를 망각한 소치라 아니 할 수 없다.

초소 근무병이 자기가 지켜야 할 초소를 무단 이탈했다는 사실은 군대 사회의 규율을 위반했고 국민과 국가가 그에게 맡긴 의무를 저지렀다고 밖에 볼 수 없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군인으로서 국민에게 불안을 느끼게 했다는 것은 군인 사회에서 뿐만 아니라 국가적으로 볼 때도 용납될 수 없는 것이다.

물론 그에는 정열과 청춘의 욕구가 작용할 때도 있으리라.

그러나 인간의 욕념(慾念)이란 곤란한 것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그 병은 고치기 쉬

운 것이다.

이론(理論)에 집착하는 병은 고치기 어려우나 욕구는 쉽다는 것이다.

식자우환이라고 해서 아는 것은 탈이 되지만 사물이 말생의 장본인이 될 때 그 사물의 장애는 인간의 힘으로 제거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론의 장애는 용이하게 제거되지 않는다.

이는 빚을 말해 주는가 하면 술마시고 싶다든가 무엇을 갖고 싶다는 순간의 욕구는 본연의 임무를 되새길 때, 또는 확고한 정신부장 위에선 능히 물리칠 수 있다는 것이다.

먹고 싶은 것, 갖고 싶은 것은 그 순간을 참으면 넘길 수 있는 것이다.

반면 이론적인 차이는 언젠까지나 의견의 대립을 견뎌내고 서로가 균복하길 꾀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병은 고치기 어려운 병이다.

그것이 공산당이 가진 고질적 병이기도 한 것이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군대 사회에서의 사소한 피로움이나 복받치는 열정이 자제(自制)를 잃어 사고를 저지른다고 생각할 때 우리는 좀더 자신을 반성하는 시간을 갖자는 것이다.

원래 사람의 피로움은 불같이 뜨거운 것이다. 그래서 흔히 사람의 피로움을 열뇌(熱腦)라고 하는 것이다.

사람은 뜨거우면 집어던지기 쉬운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우리는 자신에게 지워진 사명감과 책임을 통감할 때 뜨겁다 해서 그것을 어디에고 집어던져서는 안 되는 것이다. 뜨거운 그 순간을 참아 넘기는, 뜨거워 피로와하는 그 마음만을 제하고 나면 몸은 항상 시원하고 고대광실에 앉은 기분인 것이다.

때문에 우리에게 참고 견뎌다는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다.

참고 견딜 줄 모르는 인간에게 태성이란 있을 수 없고 또 소원성취나 안도란 있을 수 없다.

항상 불안과 초조가 있을 뿐이다.

우리의 임무는 하늘에서 땅에서 또는 바다에서 적의 침투를 막는 것이 우리의 기본 임무이며 또한 그것이 우리에게 부과된 국가의 명령인 것이다.

우리는 하늘을 지키는 것이 지상명령인 것이다. 그러한 지상명령을 위배하고 개인의 안일을 충족시키기 위해 탈선행위를 한다는 것은 그 숫자가 비록 한 병사의 소치라 해도 용납되지 않는다. 그것은 우리 국민은 「반공」을 국시로 하고 똥쳤기 때문에 한 사람이 군 전체의 명예를 걸고 작성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외국의 모 신문기자는 한국을 돌아보고 쓴 글에서,

『...세계에서 가장 반공사상이 투철하고 똥쳐있는 민족이 대한민국이었다. 공산당이 이야기라면 서로 말하기도 꺼리고 눈을 부릅뜨고 주먹을 쥐는 민족들이었다.』라고 쓴 것을 읽은 적이 있다. 사실 이기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하다.

사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공산당과 싸워 이길 수 없기 때문이다.

때문에 우리는 세계의 그 어느 민족보다 강하고 투철한 반공정신을 바탕으로 군과 민의 유대를 강화시켜야 하는 것이다.

그 방법으로는 첫째 우리 스스로가 국민들로부터 지탄을 받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

### 막강 공군임을 자부, 기술 담고 출신수범을

장병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 공군은 그 어느 때보다 막강한 전비를 갖추고 보다 투철한 경제임무에 열과 성을 다하고 있다.

돌이켜 생각하면 우리 공군은 1943년 「L-4」기(연락기) 10대 인수로 항공대로 발족, 49년 10월 1일 대통령 영단으로 1천6백명의 병력과 20대의 연락기를 가지고 공군으로 육·해군에 정립된 이래 6·25를 맞았다.

당시도 공군 지휘부는 북괴의 군사력을 정시하고 그들의 남침 기도를 예상하면서도 국가 재정의 빈곤, 우방 미국의 원조가 여의치 못해 그 목표하는 바를 달성치 못했다.

서울에 본부를 두고 불과 22대의 연습기를 가지고 적과 겨누지 않으면 안 되었던 것이다.

병력이라고 해 봐야 장교 1, 문관 1, 하사관 및 병을 합해 1천5백70명이란 보잘 것 없는 존재였다.

그러했던 공군은 6·25를 거쳐 오늘에 이르는 동안 「F-5A」 등 하늘의 요새로

다량하는 「팬텀」기에 이르기까지 그 발전은 눈부신 바 있다.

이는 오늘날 국방에서 공군의 중요성을 입증하기도 하지만 그보다도 우리 공군 장병들이 기술군(技術軍)으로서 그 어느 때보다 전기 연마에 주력했던 결과이다.

아무리 좋은 장비를 갖추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를 구사하는 능력이 결여돼 있다면 신예무기도 한낱 몽둥이에 불과할 것이다.

그러나 오늘날 세계의 최진을 자랑하는 과학 병기인 항공기를 우리 공군 조종사들이 마음대로 구사할 수 있다는 것은 우리 공군 장병들의 피나는 노력의 결실임을 국민은 잘 알고 있다.

우리 공군은 기술군이다. 과학무기를 다루는 기술군임을 우리는 자부해야 하겠다.

그 자부를 우리는 자랑으로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자기가 맡은 직책에서 자기에게 부여된 과학 기술을 충분히 습득하여 자기에게 맡겨진 무기를 완전무결하게 다룰 줄 알아야 하겠다.

여기서 또 우리는 이러한 점을 생각할 수 있다.

군에 입대하기 전 어떠한 기술이나 예비적 상식도 가져 보지 못했던 사람이 공군에 자원 입대, 또는 임관함으로써 하나의 기술자(?)가 되어 공군의 한 모퉁이에서 큰 일을 담당하고 있음을 돌아켜보면 스스로 마음 호뭇함을 느끼게 되리라.

군에 들어와서 익히고 배운 지식이 사회의 그 어느 부면에서 습득한 지식보다 소중한 것을 우리는 이제 다시 깨달아야 하겠다.

전기(戰技)는 곧 개인의 예지와 골격에 뿔뿔히 찢어진 인간을 길러 낸다는 것을 알아야 하겠다.

때문에 군은 청년들을 교육하는 「청년학교」다. 때문에 우리는 사회가 어떠한 곳인가를 잘 안다.

나를 길러 준 부모가 제시고 나를 반길 처자가 기다리는 곳이기 때문에 우리는 말로 듣는 것이 아니라 피부로 느낀다.

그렇다면 우리가 군대라는 특수 사회, 다시 말해 광의의 「청년학교」에 들어와서 무엇을 느끼게 되는가 하는 문제다.

우리는 신문이나 「라디오」보도를 통해 일부 국민 가운데는 병역의 신성한 의무를 저버리고 기피하는 무리가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그럼 왜 그들이 자기 의무를 망각하고 군대에 들어오는 것을 주저하는 것일까? 하는 것을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다.

이에는 여러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우리들의 책임 또한 중함을 깨닫지 않을 수 없다. 군대에 몸을 담은 우리들의 일거수 일투족이 진실로 사명과 책임감에 입각한 행동이었다면 뒤를 따를 그들이 한 사람의 낙오도 없이 대오 정연히 군문에 들어 올 것이다.

그러나 그것이 비록 한 사람의 잘못이라도 사회인의 눈에 띄었다면 그들의 생각은 친태만상일 것이다.

더우기 사람의 마음이란 임 없고 한가할 때일 수록 흐려지고 어두워지기 쉬운 것이다.

사회인이란 아무래도 군인들보다는 한가한 사람이다.

우리는 존과의 여유가 있을 수 없지만 여유가 있는 사람이 생각할 때는 형님이나 동생, 나아가서는 아들의 군대 생활을 주시하게 된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

뿐만 아니라 전혀 혈연관계가 없는 사람도 민족의 방패요 나라의 간성인 우리들의 위치며 거동을 언제나 주시하고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

그것이 우리의 뒤를 따를 다음 세대의 본 보기가 되기 때문이다.

여기서 필자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사명과 임무를 충실히 하는 것이 나라를 지키는 일이고, 민족을 위한 일이고, 내 부모 형제에게 사랑을 다 하는 길이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것이다.

모두가 그러한 우리 군대라면 이 사회도 그 뒤를 따라 정화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하겠다.

「충성」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내 맡은 일을 성실히 완전무결하게 수행하는 데서 얻어지는 것이다.

교육과 훈련에는 실전을 생각하고 정열을 다 할 것이고 적은 겨누면 훈련에서 얻어진 전기로 적을 무찌르면 되는 것이다.

전방에 근무하건 후방에 근무하건, 하늘을 지키는 바나를 지키든가 국가가 우리 각자에게 준 임무를 다 하는 데서 우리는 내 조국에 대한 영광된 보답을 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한 우리의 의지가 충렬되어 온 국민이 한 덩어리가 되었을 때는 나라의 부름에 순응하지 않은 불지각한 사회인은 자연 없어질 것이다.

이러한 뜻에서 필자는 우리 군인의 각성부터 촉구하고 싶다.

다음 우리 사회에 긴요한 것이 방공교육의 체계화다.

우리는 이 땅에서 공산당을 쳐 부시든가 몰아 내지 않으면 살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그렇다면 누가 군인이 되는 누가 사회인이 되는 관계할 바 없다.

그것은 일단 유사시 짧은 혈기의 집단인 군인이 민족의 방패로 앞에 서기는 하지만 그 뒤는 군인 못지 않은 국민이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체계는 5·16혁명 이후 점차 체계화되어 가고는 있으나 아직 불비한데가 적지 않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이 나라가 통일을 보기 이전에는 온 국민의 군대가 될 기분이 왜야만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국민학교 시절부터 반공에 대한 철저한 교육이 필요하다. 국민학교, 중학교에서 공산당이 어떠한 것인가를 개념적으로 이해했다면 고등학교, 대학에 와서는 그것을 체계화하여 공산당과 싸우는 진이라면 공부에 앞서야 한다는 글은 약지, 다시 말해서 승공사상으로 충렬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한 정신으로 충렬된 청년들이 고등학교와 대학교를 나온다면 군문을 기피하는 사람이 있을 수 없고 전진하는 대오에서 낙오되려는 사람이 있을 수 없을 것이다.

비록 지금은 가난 때문에 마음 괴롭게 생각하는 사람도 내일엔 반드시 행복이 온다면 참고 견디어 나갈 것이다.

내일의 행복을 기다릴 수 없다고 해서 당장을 저버릴 수도 없을 것이지만 구태여 버릴 필요도 없는 것이 인간의 심리이다.

당장의 괴로움을 견디고 나면 마음은 언제나 안락하고 평정된다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되겠다.

원래 옛부터 욕심이 많은 자는 금명어리를 쥐어 주어도 옥(玉)을 얻지 못해 불평한다 했듯이 인간 바탕이 워낙 고르지 못하면 그것은 군대가 아니라 사회에 나가서도 대오에 질 수 없는 존재가 되고 마는 것이다.

세계로 말하고 싶은 것이 「나」라는 자기 자신을 너무 경시하지 받아야 하겠다.

「나」하나 꼽아야 하는 것이 경거망동의 원인이 될 때가 있기 때문이다.

그것은 왜 그러냐 하면 「나」를 군대라는 관점에서 볼 때는 개체로서 보잘 것 없다고 생각할는지 모르지만 국가적 견지에서 볼 때는 개체로서의 국민이므로 「나」는 군인인 동시에 국민이며 국민인 동시에 군인인 것이다.

좀 늦은 감이 있기는 하지만 이제부터라도 우리의 반공정신을 체계화하는데 우리가 선두적 역군이 되어 우리의 의무를 다 하는 길이 나라와 겨레에 충성하는 길이요 승리의 길인 것이다.

반공, 승공의 정신적 밑 바탕이 없이는 내 조국을 지킬 수 없고 내 부모 형제를 번영의 길로 인도할 수 없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

### 우리는 조국근대화의 주역, 농·어촌 개발의 선도자

그러면 이제 우리 사회에서 우리 군대를 특히 공군장병을 과연 어떻게 보는가 하는 문제만이 남아 있다고 본다.

먼저도 잠깐 언급한 바 있지만 현대는 총력전이라고 해서 군·민 협동체제 없이는 국가의 부흥이나 적침을 막아 낼 수 없다.

때문에 군대와 국민은 본질적으로 분리되어 생각할 수 없는 것이다.

이러한 사실은 동서의 역사와 공산권 내의 군사조직을 보아서도 짐작할 수 있는 것이다.

하나의 군사집단이 사병(私兵)으로 존재하거나 또는 당군(黨軍)으로 전락되었을 때 얼마나 참혹한 민족적 비극이 벌어지고 있으며 외세의 농락에 조정을 받고 있는 가는 더 아상 재론할 여지가 없다.

봉건영주에게 충성을 맹세했던 사병은 동족끼리의 혈투도 불사했으며, 김 일성이란 개인에게 생명을 바치겠다고 입당한 공산피괴군이 북한의 선량한 주민들까지도 노예처럼 취급한다는 것은 좋은 본보기가 아닐 수 없다.

뿐만 아니라 그와 같이 일개인의 용됨을 위하여 존재하는 군사 집단은 국가를 위한다는 인간 최고의 가치관념을 체득하고 있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운명 공동체적인 국민 의식이 거의 없는 것이다.

또한 그들은 자신의 지위를 국민이라는 개념 속에서 찾으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자기 자신이나 자기가 속한 당파에 유리하다고 판단되는 일을 위해서는 외세의 조정도 서슴치 않고 받아들인다는 것은 명약관화한 일이다.

이것이 김 일성도당의 조직 생리가 전형적인 표본처럼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오늘날 자유세계의 모든 국민들이 공산당을 가리켜 인류의 적이라고 규탄하는 것도 바로 이리할때 그 원인이 있는 것이다.

이러한 각도에서 우리 군대를 볼 때 그 생성 과정이 국민이라는 모체 속에서 태어나 국민의 일원으로서 조국과 함께 자라고 있다는 것을 더욱 뚜렷이 알게 될 것이다.

자유세계의 군대는 국민을 떠나서 존재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 군인은 국민의 자제로서 형성된 국민의 군대라는 것을 더욱 분명히 할 수 있으리라.

여기서 군대와 사회의 연결점을 몇가지 예를 들면,

첫째, 우리는 공군 생활에서의 교육이나 훈련에서 만지는 장비의 정밀성, 정확성, 규정성 등을 사회생활의 의식 구조를 합리화하는데 직접 작용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자신의 정확한 규정성은 먹는데, 입는데, 사치를 모르고, 여유는 저축한다는 습관과 자신이 갖고 있는 모든 집기에 대한 손질, 보관을 그 어느 누구보다도 합리화하여야 되는 것이다.

두번째, 군인은 전투에서는 시행 착오라는 것이 있을 수 없다. 이것을 체득한 군인은 제대 후 사회의 일원으로서도 침착하고 치밀한 계획의 전제 아래 모든 일을 처리한다는 것이다.

이는 시행착오 없는 생활화 관습, 바로 그것이다.

무모한 계획, 무기력한 추진력, 무의미한 일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 몸에 배일 때는 사업의 성과와 공과 사를 분명히 할 수 있다는 결론을 내리게 되는 것이다.

세째로, 완성한 책임감은 일을 수행하는 능력과 의무의 소중함을 느끼게 될 것이다.

이러한 생각은 사생활이나 공적 일에서 자기의 성실을 다 하게 되는 것이다. 끈덕진 노력, 도중에서 패할 줄 모르는 의지력이 합쳐 어떠한 일을 밀고 나갔을 때 그것이 성공으로 이끌어지는 마당에서 얻는 희열이란 두 말할 것도 없을 것이다.

그러한 노력으로서 자기의 책임을 다 한다는 것은 역시 「청년학교」로 불리우는 군대 사회의 단련이 무엇보다도 큰 바탕이 될 것이다.

내재, 정신적 기저(基底)에는 언제나 긴장이 해이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모든 일에 박력과 용기를 가지고 임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일을 시작도 해보기 전에 평가하여 기권하거나, 수행하다가도 비참에 못이겨 그만두는 정신력을 가지고는 살아 나갈 수 없는 것이다.

적어도 군인정신은 그 밑바탕이 언제나 투철한 승공사상에 긴장이 풀리지 않는 것이다.

그것은 곧 사물을 판단하는데 큰 힘이 될 것이요, 원동력이 되기도 하는 것이다. 이렇듯 군대라는 조직 사회의 원리는 사회생활면에서 큰 영향력을 주고 있는 것이다. 그동안 여러분이 군에서 배우고 닦은 기술을 사회는 기대하고 있다는 사실을 항상 염두에 두고 오늘을 알차게 보내야 하겠다.

사회의 낙오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도 그것은 절실한 것이다.

또 장병 여러분은 이 나라의 문명을 전파하는, 다시 말해서 조국군대의 기수로써은 국민의 앞장에 서야 하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군대 생활을 훌륭히 수행했기 때문에 사회는 여러분을 본받으려고 기대하고 있는 것이다.

안일 무사주의에 빠졌고 책임감이 없고 진취성이 없는 여러분이라면 사회는 냉대와 멸시를 서슴치 않겠지만 여러분은 군이란 특수 사회에서 아니 청년들만의 집단인 「청년학교」에서 단련된 사람이기 때문에 사회는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다.

조국군대화의 선도역자로서 기대하는 것입니다.

군에 체득한 모든 문명, 기술, 정신자세를 본받자 하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자세를 가다듬과 동시에 국가의 중요한 자산임을 깊이 인식하고 사회의 역군이 되겠습니다.

우리는 군대란 특수 사회에서 귀중한 이 나라의 자산이 된 것을 자부해 그치지 말고 사회에 나가 솔선 수범하는 것만이 군대 사회에 대한 보은(報恩)이요 또 국민된 도리인 것입니다.

이렇듯 오늘의 공군은 사회가 바라는 새 문명의 중재자요, 조국군대화의 역군이 모인 사회라고 하겠다.

그것이 오늘의 한국 사회가 보는 군인관이요, 공군관이기도 하다.

은  
고  
지  
신(溫故知新)

이 태 극  
<시조작가>

은고지신이라는 말의 뜻은 옛 것을 익혀서 새 것을 안다는 것이다. 이 말은 공자의 말로서 논어 위정편(爲政篇)에 나오는 것인데 그 원문은

은고이지신 가이위사의(溫故而知新 可  
以爲師矣)

라 있어 「은고지신은 가히 스승이 된다」  
고 하였다.

이에 대학역 갈관자(갈冠子)는  
「을 것을 알고자 하면 간 것을 살피고  
옛 것을 알고자 하면 지금을 살핀다.」  
욕지래자찰왕 욕지고자찰금(欲知來者

察往 欲知古者察今)」

고 부연하였고 관자(管子)도

「지금울 의심하면 옛을 살피고 을 것  
을 모르면 간 것을 보라」의금자찰자  
고 부지래자시지왕(疑今者察之古 不知  
來者視之往)

고 해명하였다. 즉 과거와 현재와 미래  
에 대한 상관성을 말한 것이다. 과거의  
계승이 현재요 미래인 것이요, 현재의 연  
원(淵源)이 과거요 그 전개가 미래인 것  
이다. 이는 불가분의 관계에 있어 항상  
상호작용을 이루고 있다.

그런데 우리 인간들은 왕왕 현재는 알  
면서 과거를 잊고 산다. 또 그것이 옳은  
지도 모른다. 과거 잘 살았던 집 자손이  
현재의 불우함에 울면서 과거만 회상하  
여 연연(戀戀)해 한다면 그들에게는 현  
재도 장래도 희망을 가져지 못하게 된다.  
희망을 잃은 자는 현상유지는커녕 오히  
려 퇴보가 있고 멸망이 따른 뿐이다. 그  
러나 그 사람이 과거의 행복을 거울삼아  
현재의 불행을 타파하고 노력 친취한다  
면 그는 다시 과거의 행복 이상의 행복  
한 장래를 이룩할 수 있지 않겠는가?

우리는 오랜 역사 속에서 사대와 모방  
의 습관을 지녀 와서 그런지 남의 것을  
무조건 흉내내고 또는 숭상하고 추종하  
는 경향에 살고 있다. 물론 후진지역의

사람은 어느 나라나 마찬가지로 요즈음 우리 사회의 현상을 보면 참으로 한심한 일면을 노출하고 있는 것이다. 일상회화에서도 외래어 투성이로 특의양양하고 일상생활품에서도 미세나 일제면 무조건 환영한다. 남녀평등이 지나쳐서 여성상위시대를 빚어내고 예의도덕관에서도 우리의 재래식은 거의 파기하다시피 되어 버렸다. 청소년을 존중하지는 나머지 존장이나 족친을 무시 반항하는 풍조를 자아내고 있다. 음악도 무용도 영화도 외국 흉내내기에 바쁘다.

그렇다고 배타나 국수주의를 내세우자는 것은 물론 아니다. 오늘의 세계는 담을 높이 쌓고 철조망을 둘러친 이웃 집보다도 더 빨리 서로 얘기하고 알고 살게 되어 있지 않는가? 더우기 과학문명은 날로 발달되어 신비의 광명체였던 달에까지 다녀왔고 거미줄 이상으로 파급되어져 있는 전파의 힘은 세계 방방곡곡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사실들을 시시각각으로 상호 보도하고 있으니 어찌 옛날에만 매달려 있을 수 있겠는가? 그러나 세계가 일가 이상으로 가까워졌다 해도 한 국가나 한 민족의 고유성마저 저버릴 수는 없는 것이다. 저번 다녀간 세계 펜 대회원들도 「서울 거리에 고층빌딩이 늘어나고 자동차가 범람해졌다는 사실은

구미에서도 볼 수 있는 현상들이다」라고 하여 의미심장한 말을 남겼다. 그들은 우리의 민속무용과 청자 백자와 경복궁 풍경에 더욱 관심과 찬사가 많았다. 우리는 과거의 문화유산을 안고 그것을 그 이상으로 발전시킬 현재의 노력의 불멸하는 지속이 있어야만 되겠다. 현실은 너무나 지나친 현금주의와 개인주의로 기울어 가고 있는성싶다. 「주고 받는」(Give and Take) 것이 생활의 전부 같다. 그러나 우리의 선인들은 소위 「이심전심」이었다. 마음과 마음의 결합에서 인정의 뜻이 피었고 사랑의 향기가 풍겼다. 예술도 인격의 반영이요 정신의 개화이었다. 향공의 분야는 우리에게 없었다. 그러나 향공의 지식을 얻고 그 기능을 연마하는 도정에서는 과거 우리 선인들이 가지고 살던 정신의 자제와 태도를 되찾아 가지는 데에서 더욱 정확하고도 치밀한 습득의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 믿어진다.

오늘의 우리는 너무나 우리의 옛 모습을 모르고 살아 간다. 앞으로의 한국은 한국적인 세계성을 지향하고 우리의 옛것 중의 독특한 것을 되찾고 되살려서 그것을 바탕으로 한 더욱 새롭고 훌륭한 문화 예술과 과학기능을 창건하고 양달해 나아가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 한 해를 보내면서

정 상 목

이 해도 저물어 가니 올해에 한 일을 되돌아 봐야 되겠다.

이렇게 우리는 해를 보낼 때마다 자신을 반성하는 좋은 기회를 갖게 된다. 자신을 모르고 살아간다면 그 얼마나 슬픈 일이겠는가.

먼저 자기를 알고 나서 그 다음에 다른 일들을 생각하는 것이 통쾌라고나 할까.

올해는 뭐가 잘못되었으니 다음 해는 이런 점은 이렇게 하고 그런 일들은 아예 하지 말아야 되겠다는 등.

어른들은 어른들로서, 학생은 학생들로서, 어린이들은 어린이들로서의 제자기 제나름대로 회고하는 것이다.

이와 같이 우리는 해를 거듭할 때마다 자기 자신을 재평가해 왔던 것이다.

이로 인해 우리의 생활이 차츰 안정되어 가는지 모르겠다.

그러나 지금까지 우리가 반성해 온 것은 자기를 위주로 하여 모든 일들을 생각해 왔던 것이다.

이 해를 보내면서 좀 다른 각도에서 생각해 보고 싶은 것이다.

우리는 국민학교에 입학하여 많은 우화를 배워왔다. 그 중에서 「토끼와 거북이」의 우화는 일생을 두고도 잊혀지지 않는다. 산 봉우리에 오른 거북이가 승리의 깃발을 날리면서 산 중턱에서 아직도 잠이 들고 있는 토끼를 조소의 눈으로 훑어보는 그림.

게으름을 부리지 않고 착실히 일해 나가는 것은 참으로 중요한 일이다. 나도 이 우화의 의미를 아이들을 타이릴 때마다 가끔 이용하기도 한다. 우리가 성공하는 길이 교묘한 사기를 하는데 있고 간사하게 범망을 짚는데 있다고는 차마 어린이들에게 가르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노력을 강조하는 이 우화는 대단한 이기주의자의 표현같기도 하다. 여기에는 협동정신이 결여되어 있기 때문이다. 하기가 자신이 넘쳐 흘러서 도중에 잠을 자야만 되는 토끼보다는 느릿

느릿 걸어서라도 산봉우리에 기어오르는 수효가 더 많아야만 했기 때문일 것이다. 그렇지만 산 중턱에서 잠들어버린 토끼를 거북이가 깨우지 않고 혼자서 살금살금 복적저에 올라버렸다는 것은 생존경쟁에서의 무서운 이기주의와 패자에 대한 멸시를 나타내는 것이다. 물론 거북이와 토끼를 함께 경주를 시킨 자체부터가 부당하지만 한참만에 뒤따라 온 거북이가 잠들어 있는 토끼 곁을 지나가다가

『애, 토끼야, 경주를 하다가 잠만 자고 있으면 어떻게 하니? 어서 일어나 함께 뛰자.』

이렇게 하여 토끼와 거북이는 서로 사이 좋게 같이 일등을 했다고 하면 얼마나 좋겠는가. 토끼는 자기를 깨워 준 거북이의 정정 당당한 행동이 부끄러워져서 자기의 게으름을 스스로 나무라면서 느린 거북이를 부축해 주었을 것이다.

자기에게 오는 기회와 영광을 남과 같이 누리보자는 것은 바로 여기에 있다.

공동 사회에 있어서의 연대성보다는 생존경쟁에 있어서의 개인적 노력이 강조되어야 할 시대는 벌써 지났다.

하루 세 끼도 못 끓이는 서민층이 있는가 하면 개에게 금니를 박아 주어야 지 적성이 풀리는 부유층도 있다하니 이

얼마나 개인주의의 슬픔인가. 서로 만난다는 것은 상거래를 뜻하고 권력과 처부를 위해서는 양심을 저버려야만 하는 요즈음 사회에서 무엇보다 두려운 것은 젊은이들이 꿈을 가질 수 없다는 사실에 직면하고 있다는 점이다. 눈앞에 보이는 시험이니 취직이니 하여 동분서주하니 낭만적인 꿈을 가질 수 있으랴.

그러나 우리는 앞에서 말한 토끼와 거북이의 협동정신을 되살려 금니를 박은 개는 잃어도 좋으니 양심과 꿈을 되찾아 소아를 죽이고 대아를 위해 배진해야 되겠다.

이것이 곧 오늘날의 우리들의 사명이라 하겠다.

## 생활잡감

유 경 환  
 <시인·조선일보 사회부차장>

1

아침 출근 때 열 두살, 열살, 다섯살

차리 아이들이 『아빠 지금돈!』하고 손을 제각기 내미는 적이 많은데, 그 순서는 언제나 나이 순서와 정 반대이다.

일단 거절을 하고 돌아섰다가 주머니에서 십원짜리 한 장씩을 꺼내 나눠주고 골목을 돌아서면 그나마 걸음이 조금 가볍게 느껴진다. 저금을 하든, 군것질을 하든 마음대로이겠지만 아마 누구나 아버지인 경우엔 마찬가지로 이런 흐뭇한 느낌을 가지리라 생각한다.

불과 돈 30원. 그 단위가 십원일테도 봉급생활이고 보면 일단 거절부터 하려는 것이 당연하리라(그렇지 않은 사람이면 웃을 일인지도 모르겠다.).

그런데 어찌된 노릇인지 아침에 집 문밖을 나서면 이 단위는 십배, 백배로 뛰게 되는 것이다. 합승 버스에서 친지를 만나 같이 내리게 되면 앞장서 「잔돈」하며 요금을 내려 하는 것부터에서 차 한 잔 같이 하게 될 때 서로 다투어 내려고 하는 것까지 그렇다. 나 자신이 그렇게 행동을 하면서도 집 밖에서는 「그게 사회생활인데…」 하고 쉽게 자위하고 만다. 점심 때 같이 나가 식사값을 치루는 것이나, 차 몇 잔 동료들과 같이 마시는 것이나, 담배를 사서 늘 절반 정도나 나눠 피는 것이나, 퇴근 때 「딱 한 잔만」하고 들어서선 몇 천원 단위까지 아무렇

지도 않게 술값을 긋고 마시는 행동이 다반사로 이루어지는 것이 모두 그렇다.

다시 합승버스를 타고 돌아오면서 애써 하루 생활을 합리화시키려 든다. 아내가 시장에 가서 콩나물 몇 십원어치를 살 때, 찬거리 연마를 살 때 십원을 깎아 주고 들었다면 밖에서의 나의 이런 행동을 어떻게 생각할까 하고 혼자 회색 옷이 가며 어느새 어두어진 차창에 비춰진 스스로의 얼굴을 바라보는 것이다.

아마도 이것이 서민생활 속의 소시민다운 고민인지도 모르겠다. 하지만 이런 이윤배반기 서민생활 속의 소시민으로서 하나의 벗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아내의 입장에서 본다면 저극히 모순되는 생활태도이겠지만, 남편의 입장에서선 오히려 평범한 정신건강책일 수도 있는 것이다.

집 문밖과 안에서 이렇게 돈의 단위기준이 달라지게 되는 것을 가지고 심자란 고민거리로 생각지 않은 것부터가 충실한 가장(家長)이 못 된다는 증거일까?

정부가 새로 실시하는 이종곡가제로 해서 생산자인 농민이 다소나마 생산비를 제대로 받을 수 있게 되었다면 나도 가장의 책임을 느껴 이 세모에나마 그 격차를 현실화(?)시켜야 되지 않을까 생각도 해 본다.

## 2

공동생활이란 것은 어떤 것일까 하는 것을 저녁상을 물리고 나서 길게 누워 생각해야 할 때, 그런 소시민의 멋이라는 것이 또 한번 내게 회죽 웃음을 준다. 생활비의 한달 가계가 어떤 형편이란 것을 한쪽 귀로 담아 한쪽 귀로 흘리는듯 듣고난 뒤에 남는 문제—이것이 한 해 동안 계속되었다.

채면과 위선이란 것이 집 밖에서는 문제가 되고 집 안에서는 성립 안 된다는 해석이 사실은 소시민을 괴롭히는 발단점인 것이다. 밖에서는 성립시켜야만 하고 안에서는 성립시키지 않아도 된다는 것은 남편과 가장의 입장에서 볼 때 하나의 위선인 것이 분명하다.

이런 위선이 나만이 아닌 만인에게 그 대로 허용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위선이 아닌듯 통용되고 있는 것이다.

「잘난 척」한다든지 「아는 척」한다는 것은 비웃음의 대상이 되어도, 「있는 척」하는 것은 오히려 「사나이다운 것」으로 말하게 되는 사회라면 이진 확실히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왜 이렇게 되었을까? 아니라면 벌써 그 누구라도 이런 문제를 이야기했을 것이다. 그러나 난 아직 듣고 읽은 적이 없다. 어째서 서구풍조에 서 많은 것을 그냥 받아들이면서 이런

생활태도는 고치지 못하는 것인지 이상한 일이다.

「없던」사람이 하루 아침에 「있는」사람이 되었다든가, 적당한 댓가로서 번 것이 아닌 것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결코 건부는 아닌 것이다. 집 안에서 쓰는 돈은 내 돈이고 집 밖에서 쓰는 돈은 내 돈이 아닌 것이라면 또 모른다. 자기 분수에 맞지 않는 생활태도를 구태여 자기 스스로에게 강요하는 그 위선이 퇴근길의 소시민들을 비좁은 버스 안에서 우울하게 만드는 것 같다.

『직장생활(공동생활)을 하자면 그럴 수도 있지 않아?』 이렇게 말하면서도 사실은 남편들이 올바른 사회생활을 못하고 있다는 것을 나 자신 자신 안 할 수가 없다.

「공금횡령, 유용, 착부」 등등의 기사가 내 직장의 데스크에 들어올 때마다 난 공연히 담배 한 개비를 더 피워 물게 되는 것이다. 내 가슴 속을 한바퀴 돌아 내뿜어지는 연기 속에서 난 이그러진 내 모습을 한 번 더 그려 보게 된다.

지켜야 할 위신을 자기 위선으로 세워야 한다는 것은 사실상의 희생이다. 그러나 이 뜻난 희생을 채면이란 것을 위해 감수해 나가는 남편들의 오늘날 고심이 안타깝다. 아내들이여 「알아 줘야」만

한다. 이 세모에 아내들이 남편에게 꼭 해야 할 선물이 있다면 알아 줘야 하는 마음일 것이다. 그러나 또 한 해가 간다. 새로 오는 새해엔 이런 생활 서민의 멋(?)이 살아질 것인가?

3

사회생활을 한지 내겐 만 10년이 된다. 그러니까 이런 세모를 열 번 이상 보냈다. 가정을 가진지도 10년이 넘었다. 그러나 때로 가정생활에서 미치 못 느낀 「산다는 것」의 보람을 친구나 선배, 동료들에게서 그 얼마나 호뭇하게 느끼었던가. 그전 사실 차 한 잔 같이 나눈 입김에서, 점심 한 번 흥흥하게 같이 먹는 자리에서 킬킬하게 다룬 것 다 있으며 비우는 술잔에서 가고 온 정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나중에 돈을 지를 때는 착살해도 우선 마시고 먹고 할 때엔 소시민의 멋을 낼 대로 내고 즐긴 것이다. 그것마저 없다면 정말 「생활전선」이란 신문기사용어가 전부이어야 할 것이 뻔하다. 이렇게 생각해야 마음이 편하고 내일 아니 새해에 다시 만나는 친구마다가 반가울 것이다. 나만이 아니고 모두가 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서구인의 현실생활 태도는 이 땅에서 받아들여지지 않는지도 모른다. 아니 「나 먹은 것만 내가 낸다」는 계산이 서구풍조에

방과제 없는 한국을 못 넘는다는 것도 잘못된 생각인지 모른다. 우리나라의 남성들이 겪는 고민의 방과제가 점점 심해지는 물결에 시달리고 있는 것일 것이다. 새 풍조의 격랑을 버티어야 하는 남편과 가장들에게 조용한 세모가 지나가길 나부터 바라고 싶다.

광  
인  
기(狂  
人  
記)

충 위 김 행 곤

기(其). 29. 삶

인간적 삶의 본질은 초월이라고 한다. 그것은 즉 자기를 부정하거나 자신에게서 벗어나려는 행위 <부정과 탈선의 끊임없는 모색→아웃사이머>인데 적응을 거부했던 나에게 있어서 광인이란 그것

의 한 표현 <설명개념>이었다. 그런 나는 평인이 탈복하려는 인간에의 의지로 고행을 해온 셈이다. 그러므로 참회하고 고해하는 순례자의 자세와 같이 나는 늘 상생사에 잠기고 그 생각을 정리해 왔다.

적어도 내가 왜 살아야 하는가를 알기 위해서라도 살아야 했기에 말이다.

### 기(其). 30. 목적

당신은 목적이 있습니까. 또한 당신은 그 목적을 실현하고 있습니까. 나는 잘 모르겠습니다. 나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은 하지만 이것이 목적입니까. 그러나 나는 목적을 모른다고 방황하지만은 않습니다. 나는 인간으로서 살며 끊임없이 목적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목적을 모르면서도 목적을 갖게 되고 그 목적에 가까워지게 살고 있는 것입니다.

### 기(其). 31. 종교

사람은 신앙생활을 통하여 진·선·미의 정신을 배울 수 있다. 그러므로 종교는 사람을 인간되게 하기 위한 한 수단이고 방법이지 그것 자체가 목적일 필요는 없는 것이다.

### 기(其). 32. 인생

산다는 것은 재미있어야겠다. 인생에

대한 윤리적 태도보다 하나의 작품을 생각하고 열심히 살아 자기 인생을 만들어야겠다.

먼저 아름다운 사람이 되어야겠다. 마음이 맑고 얼굴은 밝아야겠다. 마음이 밝은 것은 찬되고 작하며 얼굴이 밝은 것은 슬기롭고 명랑한 것이겠다.

아름다운 사람이 재미있게 사는 인생은 멋있는 창작이어야겠다. 바른 구상과 좋은 솜씨로 정성을 들여 영원한 것으로 만들어야겠다.

### 기(其). 33. 성실

현재 위치의 생활을 달리할 수 없는 것이라면 그것에 충실함이 진보의 시초이다.

### 기(其). 34. 사랑

당신은 왜 저를 시험하시렵니까.

실험이 되고 만 「바르」와의 계약, 우정일 수 밖에 없는 어느 여선생, 그리고 소유했어야 할 동성동본……

궁홀(矜恤)히 살피소서, 당신 안에 있고 싶습니다. 당신이시여, 당신은 왜 저를 버리지도 않으시나이까.

### 기(其). 35. 「아웃사이더」

참여를 부정하고 동화될 수 없는 본질

을 아웃사이드라고 하면 나는 사실 아웃사이드는 아니다. 또 그렇다고 인사이더도 아니다. 내게는 인사이더의 생활세계와 아웃사이드의 작품세계가 병존하고 있다. 그런데 이 상반된 생각은 조화될 수 없는 성질의 것이긴 하지만 내 의식 세계에서 이것이 균동을 이루지 못할 때 나는 때때로 심한 고민에 빠지게 된다.

기(其). 36. 회상

두 개의 철길이 나란히 뻗어있고 방금도 달려 온 지쪽 끝에서는 하나로 합쳐진다. 그리고 그곳에 비는 내리고 나는 점점 사라져 간다.

기(其). 37. 취사(醉辭)

어느 요령없는 친구의 변.

그는 고등학교 다닐 때만 해도 진축가가 되길 희망했다. 그의 성격이 그랬고 그의 소질이 그랬지만 굉장 수려한 작품을 그도 설계해 보고 싶었으니 말이다. 그러나 입시에 실패한 그는 뱃해간의 낭인 시절에 혁명이 일어나 급진적으로 변모하는 가운데 사회의 눈을 뜨게 돼 법대에 진학했다. 하지만 법학은 적어도 그에겐 재미없는 학문이었고 고시를 준비할 여건이 돼 있지 않았으며 그에겐 법관이 되려는 욕망조차 없었다. 그런 그는 행정학을 공부했고 문학이나 철학

을 더 좋아했다.

그리하여 먼저 인간이 되려는 소박한 마음에서 그는 전문가 아닌 교양인으로 대학을 마치고 입대하였으며 배운 이론에 실제 경험으로 능력을 제발하고자 일선 행정 업무를 지원했고 이제 부대개편에 따라 후방기구를 인수(?)한 그는 본연의 행정관 직무를 수행하게 됐다. 그가 소속한 부대는 그의 고향에 주둔하고 있으며 규모는 작아도 독립예산으로 공군 전 분야의 일을 담당하고 있다.

그리고 그는 「실력자」라는 조소를 받아가며 부대를 위하여 쏘다니고 기획하고 설득하고 합리적으로 일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자 바쁘고 피로한 생활을 감수하고 있지만 한 조직체의 운영이라는 이 작업에 대하여 그는 보람을 느끼고 있다. 그는 비행기를 탈자도, 만질지도 모르는 공군이지만, 또 그에겐 얼마 남지 않은 군 생활이지만 그는 행정이 단순한 시어비스가 아닌 무형의 가치창조라는 훌륭한 생산의 궁지, 즉 Good Manager가 되기 위해 소신껏 일할 것이다. 그것은 곧 그를 한 사람의 행정가로 양성하고 있는 셈이니 말이다. 그는 이젠 더 운명을 거부하지 않을 것이며 기회를 그의 것으로 하여 유감없는 인생으로 하여 사회에 도전할 것이다. 그러

므로 그의 길은 결코 외도일 수 없으며  
당비여서도 안 될 것이다.

내일도 분명 활주로 저쪽 바다에 저는  
낙조는 그를 고독하게 할 것이다. 그러  
나 평인의 무상이 숙명일지라도 그는  
탈각을 재촉할 것이다.

온  
고  
지  
신  
(溫故知新)

이 상 우  
<우석대 교수>

옛 것을 다시 복습하며 새로운 것을  
알라는 말로써 경서(經書)에서 나왔다.  
예기 중용편(禮記 中庸篇) 속에 「온고이  
지신 돈후이숭례」(溫故而知新, 敦厚以崇  
禮)라 하여 옛 것을 생각하며 새 것을

알고 돈후하여 예를 숭상하라는 말로  
되었다. 여기서는 예를 더욱 중요시 하  
는 경귀가 되겠다. 또한 논어에서는 온  
고지신하면 스승이 되겠다 하여 여기서  
는 사도(師道)를 말하고 있다.

어느 것을 막론하고 유교적인 사회에  
서는 이 말이 가장 중요한 말로서 널리  
애용되고 있다. 학문을 하는 입장에서  
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사회를 경험하는  
때도 항상 필요한 말이다.

우리는 우리의 옛 사회를 봉건적이라  
하여 모두 버리려고 하지만 역사가 있는  
민족은 항상 자기 조상들의 행적을 되돌  
이 해 보고 때로는 옛 것을 알므로써 새  
로운 발견을 하게 된다.

모든 학문이나 또는 발명은 별안간 튀  
어 나오는 것이 아니다. 거기에는 옛날  
의 역사를 알므로써 새로운 시대를 전망  
할 수 있다.

남의 것을 그대로 흉내내거나 모방해  
서는 참된 것은 되지 않는다는 뜻이 된  
다. 근래 우리의 사회는 과연 「온고지  
신」 하고 있는지 걱정스럽다.

여러가지 일을 남이 하는 것을 보면  
나도 넉넉히 할 수 있다고 자신하고 서  
투르게 덤비었다가 대개 실패한다. 근래  
에는 가끔 「남의 것을 표절한다」는 말이  
많이 유행하고 있다. 그야말로 표절은

쉽다. 선진국의 것을 보고 그대로 모방이나 표절하라는 것은 아니다. 자꾸 모방함으로써 자기의 것이 되어야 한다는 말이다.

글을 쓰는 사람도 남의 책만 보고 쓰다가는 자기의 새로운 사상이나 발표는 되어가지 않고 전부 그곳으로 끌리어 결국은 표절하고 만다.

남의 나라의 유행가를 그대로 번역만 하여 가져고 창작이라고 내 놓는 것이 타든지 또 남이 지어놓은 책을 보고 요리조리 베껴먹은 「드라마」타든지 처음부터 자기의 주안을 내놓지 않고 그대로 순종해 가며 기교만 부리면 이는 아무 것도 되지 않는다.

이러한 때 여러 책을 보며 다시 「온고」하고 연구해야만 새것을 알 수 있다. 즉 「이적고잉」코자 하는 자들 때문에 「온고지신」이 아주 망신만 당하고 만다.

학문의 길은 「온고지신」이라 한다. 고전을 배움으로써 새것도 알아진다는 말이다.

지금 우리의 「고전」은 완전히 없어져 간다. 옛사람들은 어려운 한문글자로서 우리의 사상을 표해 놓았다. 이런 것은 우리말로 번역한다 해도 그것은 꼭 맞아 들어가지 않는다.

세종은 우리나라의 악악을 다시 만들

고 악기도 중국에서 항상 들여올 수 없으니 우리 손으로 만들코자 하였다. 중국의 옛 악기를 국산품으로 대체코자 한 생각이다. 참으로 창조적인 정신에서 나온 실기원이라 하겠다.

악기는 음색 여운 등 여러가지를 살피가며 만들어야 한다. 우선 경석(磬石)이라 하여 돌로 악기를 만들어야 한다. 같은 물이라도 그 지방의 석질 여하에 따라 소리가 달라진다. 이것을 만들기 위하여 세종은 음악을 잘 아는 박연을 시켜 각지의 돌을 갖다가 중국에서 전해 내려온 「경석」을 그대로 만들라 하였다.

여기서 똑같이 만들어 보았다. 과연 형체는 그대로 되어 조금도 틀림이 없다. 그러나 소리는 각각 다르다. 아무리 석질이 같아도 하여도 만들어 내 놓고 보면 다르다. 이것이 큰 고민이었다. 나중에는 남양에서 나오는 돌을 갖다가 만들어 보았다. 소리가 매우 가까워졌다. 그래도 똑같지는 않다. 또 다시 다듬고 깎고 해서 만들어 보았다. 그래도 여전히 조금 다르다. 이러한 차이를 없애기 위하여 남양의 돌을 여러개 갖다가 만들어 보았다.

나중에는 만드는 것도 귀찮다. 또 쉬운 일이 아니다. 여러 번 시험조로 만든 돌을 전부 놓고 최후로 심리하였다. 어

면 것이든지 가장 가까운 소리를 내는 악기를 골라 만들게 하였다.

이제는 더 이상 만들 수 없어 세종은 박연에게 이러한 말을 하였다.

『경석의 소리를 구별한 사람은 너와 나 두 사람 뿐이다. 어찌할 수 없다. 그대로 두자.』

이리하여 오늘날 내려오는 경석은 송나라 본고장의 것과 조금 다르다고 한다. 그러나 그 차이를 아는 사람은 세종과 박연 뿐이라고 하였다.

이렇게 몇번이고 다시 만들어 국가의 악악을 만들었으니 그 악기는 과연 정중한 것이라 하겠다.

어떠한 것이든지 외국 것을 옮겨오는 때는 그만큼 힘이 든다는 말이다. 남은 이와같이 심혈을 기울여 가며 만들어 놓은 것을 하루 아침에 슬쩍 해먹어 치우니 분화고 무엇이요 발달될 수 없다.

지금은 전날보다 무엇이든지 만들기 쉬운 시대이다. 여러 사람이 오랜 세월을 두고 만들었으므로 이해하기가 쉽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신기한 것은 발명해 놓으면 뒷사람들은 아주 쉬웁다. 그래도 그것을 아주 자기의 것으로 만드는 때는 또 여러 해가 간다. 이러한 곳에서는 옛 것을 알고 새것을 발견해야 하겠다.

우리는 그동안 중국문화권 내에서 수 천년 자라왔다. 그런 중에도 아직도 우리의 손으로 된 한문화의 업적은 아주 드물다. 실라가 번창하고 있을 때 당나라로 가는 우리의 유학생은 그 수가 수 천명이나 되었다. 그러면 그 중에서 성공한 사람이 몇 명이나 되나. 저금 남아 있는 것은 허 치원의 「제원월경집」뿐이다.

최 치원은 아주 당나라 사람은 되지 않았다. 귀국한 후 국가에 봉사한 일도 있었으나 뜻에 맞지 않아 산속으로 들어가 여생을 흐지부지 마치고 말았다. 위대한 생각은 띄보지도 못하고 그대로 떠난 셈이다.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라 하겠다. 소위 청운의 뜻은 일말의 찬봉으로 화하고 말았다.

그때도 그의 저서만은 남아있어 후인들에게 그의 시와 글의 일부만을 가르쳐 주고 있다. 쓸쓸한 일말의 감회를 겨우 지 못할 저경이다.

그 후의 많은 후생들이 「은고저신」을 게을리하여 그의 후계자가 아주 자취를 간추고 말았다.

현대의 학문도 이와 같다. 우리의 유학생들이 선진 자국으로 나아가 새로운 학문을 배우며 그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여 경쟁하고 있다. 그 수도 수 천명 될

다고 한다. 그러면 이 속에서 몇 사단의 최 치원 같은 인물이 나올지 의심스럽나.

「온고저신」은 공자의 말씀이다. 옛 것을 찾아 아저 못하는 것을 알도록 하는 곳에 스승된 사람의 보람이 있다고 하였다. 현대적인 모든 과학에서는 우리도 옛날에 이미 그러한 것이 있었다는 것을 찾는 곳에 큰 뜻이 있다.

자고로 과거의 역사를 되돌아보며 지난 일에 대하여 잘 하였으면 그것은 배우고 또 그것을 모범으로 하여 더 잘해 나가라고 하였고, 만일 잘못될 일이 있으면 이것을 경계로 삼아 다시는 그러한 잘못은 저지르지 않아야 한다고 경계하고 있다.

이러한 까닭에 우리는 항상 옛날 과거의 일에 대하여 더욱 더 충실히 알아야 하겠다. 반만년의 문화를 가졌다고 자랑하지만 자랑이 나오기 전에 먼저 알아야 한다.

마치 우리의 과거의 문화는 추상적이고 봉건적이고 아무런 발전이 없다고 때로는 「자조」하거나 「자학」하는 수가 있다. 이것 역시 옛 것을 바로 파악하지 못한데서 나온 말이라 하겠다. 선인들의 학문은 언제나 그 근본이었다. 이 근본

을 캐내야만 알 수 있다.

시대와 바뀌어 모든 역전이 달라진다 하더라도 이치는 불변이라 하였다. 항상 그 시대와 조건을 맞추어 해석해 나가면 올바르게 알 수 있다. 그러므로 학문하는 길에 대하여 공자는 학문하며 생각지 않으면 망하고 또 이와 반대로 생각만 하고 학문하지 않으면 위태롭다고 하였다. 일종의 좋은 격언이다.

「온고저신」이란 말은 간단하지만 그 뜻은 아주 광대하다. 학문하는 길에 대하여 한 말만이 아니다. 무엇이든지 행해 나가는 곳에 이 격언이 필요하다. 특히 공자는 이 말을 정치하는 사람에게 위하여 한 것이다.

사람을 선도해 나가는 정치인들은 더욱 적절한 말이다. 그뿐 아니라 남을 지도하는 사람들에게도 필요하다.

등양적인 격언은 새로운 세대로 넘어갈수록 더욱 필요해 진다고 한다. 이것은 그 속에 많은 함축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나온 말이다. 과학적 만능시대로 들어가 「컴퓨터」에 의존해 가는 경향이 있지만 그것은 「소스」가 잘못 들어가면 「난센스」에 지나지 않는다. 그러나 「온고저신」은 언제나 어디서는지 필요한 말이다. 또한 이를 행하려고 하는 곳에 더욱 큰 뜻이 있다.

가  
을  
운  
동  
회이 성 교  
〈성십여대 교수〉

은 들판에 곡식이 누우레지고 나무 위에 배달된 열매가 빨개지면 내 어릴 때의 꿈이 가을벌과 함께 일던 운동회날을 생각한다.

당시만 하더라도 국민학교는 오늘날이 그리 많지 못했다. 그저 한 년에 불과했 안 되었던 시절이니 격세지감을 아니느낄 수 없다.

그때의 운동대회는 일종 산골의 축제 같은 분위기를 자아내어 주었다.

일년 열 두달 술한 명절이 많지만 이때처럼 풍성하고 즐거운 때는 다시 없었다. 말하자면 달력에 없는 이색적인 명절이라고 할까?

너부도 단조롭고 너부도 한가한 이 산

골에 운동회날이 아이들 입에서 썩 퍼지던 사람들의 마음은 저절로 들뜬다. 들판에서 일하는 농부들도 이날만을 가슴에 새기고 열심히 일한다.

막상 구경보다 술과 국밥과 그리운 사람이 자꾸만 머리 속에 아른거려 연신 담배를 피우기도 했다.

모든 약속은 이날에 정해진다. 남의 빛 짚음은 물론이요, 혼담같은 것도 이날로 뒤틀거태되는 수도 있다.

뜰 앞에 아직 덜 익은 옥수수랑, 감이랑, 밤이랑, 대추 등은 이때를 놓치지 않기 위하여 더욱 색깔이 달라진다.

그런가 하면 집안식구끼리 평소에 잘 못 먹다가도 이날을 두고 이야기하면 절로 입맛이 돌아서기도 한다.

아이들도 이 무렵쯤은 공부가 잘 안 된다. 눈은 칠판에 가 있지만 마음만은 늘 운동장에 가 있었으니 말해 무엇하겠는가? 학교에서도 이 기미를 알아차리고 오후엔 대대적인 연습을 시켰다.

성급한 아이들은 아직 학교에서 〈청군〉 〈백군〉도 안 나누었는데 벌써 머리머를 띠고 기세를 올린다.

운동회날을 며칠 앞두고 맹연습을 하는 날은 출석률이 백퍼센트다. 평소에 배가 아프던 아이들도 신기하게 이 무렵은 다 낫게 마련이니까.

또 가정에서도 아이들은 이 운동연습을 핑계로 학교 갔다 오면 늘 하던 소꿉배기, 소먹이기 등은 당분간 면제받는다. 그래서 이때가 아이들에게 제일 입맛이 달 때요, 키가 또 제일 클 때다.

그러다가 운동회의 대목이 바싹 다가와 마지막 총 연습을 하는 날은 아이들의 목소리도 제법 영글어 학교마을은 축제의 물결이 넘친다.

벌써 2, 30리 떨어진 인근마을에선 노인들과 아이들이 미리 친척집을 찾아 학교 마을로 들어온다.

이날만은 누구집 할 것 없이 밤새도록 등불을 밝혀놓고 푸짐한 전야제를 지내는 것이었다.

드디어 운동회날—

아이들은 잔반 아름다운 꿈담 꾸다가 새벽같이 일어나서 아침밥을 떠들 만붕하고 등무들과 함께 학교로 간다. 학교에는 벌써 구경꾼들이 미리 물려와 자리 다툼하느라고 봄빈다.

등등 북이 울리자 만국기가 찬란한 아침바람에 자못 명쾌하기도 했다.

이날은 등티 사람들은 불가피한 사정이 없는 한 모두 여기로 물려오기 때문에 마을은 텅텅 빈다.

다만 빈 집에 해바라기만 웃고 있고 그결에 소가 누워 권태로운 하품을 토

하고 있을 뿐이다.

해가 차츰 머리 위로 올 때면 학교 주변은 일대 소동이 일어난다. 어디서 사람이 그렇게 많이 모였는지 비켜설 곳이 없을 정도로 인산인해를 이룬다. 그러나 화단이고 나무 위고 어디 빈 곳이라고는 찾아 볼 수 없다.

더구나 그 비좁은 틈바구니에서 맥장수, 과일장수, 셋장수들이 한 뭉치 대목을 보기 위하여 갖은 꾸밈을 띠는 것도 또한 가관이었다. 확실히 돈만 있으면 먹고 싶은 것은 다 먹을 수 있다.

그래서 온 길바닥엔 먹다 버린 술한 과일조각이 버려져 있는 것을 보면 정말 푸짐한 잔치임에는 틀림이 없다.

<청군 이겨라, 백군 이겨라>하고 서로 다투어 응원하는 소리, 울발을 알리는 신호탄소리, 격려하는 북소리, 나팔소리 등은 한때 조용한 산골마을을 뒤흔들어 놓는다. 부모보다 먼저온 아이들은 운동장에서 게임을 하면서도 부모의 소재를 파악못해 노상 두리번거리는 꼴도 그렇지만 더 힘있게 달려보라고 짜증을 섞어 격려하는 어느 부형의 목소리는 여간 우습지 않았다.

특히 운동회날의 흥취는 점심시간에 있다. 점심시간이 예고되고 한참 혼란한 틈을 타 용케 식구들을 만나 한쪽 구석

에 자리를 잡고 점심을 먹는 시각은 참으로 흐뭇하고 아름다운 것이었다.

그러나 아이들은 여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다. 눈이 닿는대로 무엇을 자꾸 먹으려고 한다.

대개는 소화불량중에 걸려 하품을 싹 싹 하게 마련이다.

이럴 때 하얀 포장이 쳐져 있는 국밥집에선 으레 술꾼들의 주정이 일어나기도 한다. 주로 오후엔 지역사회에 관련된 게임이 많이 진행된다.

특히 각 마을의 릴레이 경주는 정말 불만하다. 자기 마을의 영예를 진 선수들을 위하여 열렬하게 응원하는 모습도 눈물겹지만 때로는 폭소를 자아내기도 한다. 그것은 가뜩이나 뛰기 힘든 험바지에 한쪽 모로 비스듬히 넘어져 뛰는 모습은 웃기는 것일까? 울리는 것일까? 이리하여 산골마을은 움직이는 물결 속에 안타까이 하루해를 보낸다.

그러니까 모든 게임은 해가 서산에 폭삭 져야 끝나게 마련이다.

지금은 어떤지 모르지만 내 어릴 때의 운동회는 온 마을 사람들이 한데 모여 진짜 순수한 가을의 디각을 딱 한 번만 찍히는 큰 축제였던 것이다.

## 장식의 윤리

이 영 도  
<시조작가>

남편의 벼슬이 높아진 친구가 새로 집을 마련해 읍꼴나면서 꼭 놀러오기를 부탁해 왔으므로 수련 한 포기를 신축 기념으로 들고 방문한 일이 있다.

넓은 정원에 잔디가 깔려 있고 조촐히 상복수들도 세자위를 가려 알맞게 선 주택이 수척 「도독놈촌」의 호화저택들에 비할 바는 못 되지만 그런대로 우리네의 경제수준으로선 멋과 사치를 갖춘 아담하고 쾌적한 생활터전이 아닐 수 없었다.

가난한 농부의 자녀로 태어나 일정 때 번사무소의 고원으로 출발한 관직이 그

문의 사무적인 역량과 꾸준한 노력과 성품으로 하여 오늘날의 벼슬자리가 보답되고 생활의 여유를 얻게 되었음은 당연한 귀결이 아닐 수 없었지만 그들의 주택이 보여준 조화의 빛을 앞에 두고, 인간에 있어 연륜에 감가는 식견의 발전이 얼마나 큰가를 새삼스럽게 느끼게 되어 절로 마을 흐뭇할 수 있었다.

더우기 응점실엔 피아노에서 탁자의 자에 이르기까지 거기에 놓인 골동 미술품과 아름다운 가구들이 정연한 배치는 높은 문화의 향기가 감돌기까지 했다.

벽에 걸린 한 폭의 그림이나 서가에 꽂힌 책의 종별로도 그 방 주인의 교양과 생활 취미를 짐작할 수 있고 나아가서는 그의 전공분야와 성품까지도 척도 되는 것인데 이 집의 응점실과 뜰의 정돈된 장식이야 말로 주인 부부의 교양과 고전에 대한 높은 안목이 증명되므로 그들의 고도한 정신의 발전상이 고맙기만 했다.

삼십여년의 적조했던 세월이 서로 겪어 온 생애를 얘기로 꽃을 피우다가 화제가 골동품에 미치지 문득 주부가 내게 묻기를 우리집 응점실에 놓인 청자기들의 값이 얼마만큼이나 되겠느냐는 것이었다.

고려 청자의 아름다움을 보려고 덕수궁 미술관에 때때로 가 보지만 그 값에 대해선 전혀 모르는 나 자신만큼은 얼마씩이나 주고 샀느냐고 되물지 않을 수 없었다.

그랬더니 그때 주부의 하는 얘기가 우리가 무엇을 알거나 하느냐고...

바깥 사람의 지위가 지위이니만큼 옛날처럼 초라하게 살 수도 없고 해서 집을 큰 것으로 넓히고 보니 장식이 문제라 정원은 정원사에게, 응점실은 실내장식가에게 모두 맡기기로 했는데 나무나 골동, 가구 값이 집값과 맞먹어만 것이었다.

아무 것도 생기지 않는 물건들에다 밀천을 털어 넣고 나니 여간 바보짓을 한 것 같지 않다고.....

그때 주부의 얘기를 들으며 나는 D출판사의 젊은 친구 얘기를 회상했던 것이다.

요즈음 출판계에는 내용이 좋은 책보다 장정히 호화로운 전집들이 많이 팔리는데 그것은 책을 읽기 위해 사는 사람보다 시재의 장식용으로 사 가는 사람이 더 많아졌기 때문이라고.....

직위의 체면을 심겨 부득이 응점실 장식에 밀천을 넣기는 했어도 그들을 감상

하며 즐거움을 느낄 수 없는 한 아무리 값진 미술품들일지라도 한쪽의 보석반저보다도 그 주부에겐 밋 없는 것들이 아니겠는가?

진실로 하나의 손때 묻은 가구나 장식품에서도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주인공의 인생을 말코 느낄 수 있어야 하는 것이 아닐 요즘은 취미마저도 돈으로 가장하는 세월이요 보니 예술품이 예술적 감상의 대상이 아닌 돈자당패들의 허영의 이용물이 되고 있음을 생각할 때 서글프지 않을 수 없는 일이다.

지난 자유당 시절, 어느 장관에게 초청을 받아 갔던 일이 있었다.

화려한 응접실 정면 벽에 큼직한 동양화 한 폭이 걸려 있는데 그림의 내용이 저 요(堯)나라 선비 허유(許由)와 소부(巢父)가 영수(潁水)에 귀를 씻고 송아지를 상류로 물고 가는 풍경을 담았던 것이다.

그 벽의 전체 분위기와는 너무나 먼 거리의 화폭 앞에서 나는 옛 성대의 높고 바른 정치이상과 그 시대의 사람들의 청렴을 숭상하던 품격을 오늘의 사회상위에 겹쳐 보면서 감회에 젖지 않을 수 없었다.

요지에 앉아 권력을 누리기에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는 그 맥 주인의 거실에 하필이면 청렴의 상징인 허유와 소부의 귀 씻는 풍경이 걸려 있는 것이었을까?

진정 그 맥 주인이 고결하기 청수같은 옛 선비들의 자세를 흠모하여 그림을 걸어두었으리라고 누구도 믿을 수 없는 그때의 그분의 위치가 아니었던가? 어쩌면 영욕을 탐하는 욕심과 고결을 이상하는 정신의 갈등을 그 그림 앞에서 스스로 가늠하며 다스려왔는지도 모를 일이다.

친구의 집 응접실 골동 가구들과 미술품의 조출한 향훈에 젖어 앉아 있으면서도 생각은 십년 전 어느 장관벽 응접실에 걸려 있던 그림 위로 달리고 아직 인쇄술이 발달하지 못한 그 옛날 붓으로 베껴 쓴 책 한 권을 두고 천득 만득하면서까지 경서 읽기를 생명같이 숭상하던 선비들의 진리 탐구의 깊은 눈빛이 오늘날 거리를 매운 서점 안에 산디미처럼 먼지 쌓인 책들 위로 겹쳐 떠오르기만 했던 것이다.

# 위치의식의 망각과 탈선행위

김 승 한

<중앙일보 논설주간>



## 1

위치의식(位置意識)이란 용어는 비교적 생소한 말이지만, 매우 재미있는 조어(造語)의 하나라고 생각된다. 자기가 차지하고 있는 현재의 지위라든가 또는 자기에게 부여된 임무의 성격을 똑바로 인식했을 때 경험하는 일종의 심리상태(心理狀態)를 위치의식이라 정의한다면, 이 말은 사명감(使命感) 또는 책임감(責

任感)이라고 하는, 인간만이 갖는 독특한 심리상태요, 하나의 덕목(德目)이라 할 수 있는 것이다.

일반적 덕목으로서의 사명감 내지 책임감의 본질을 논하기보다는 그 범위를 한정해서 대한민국 군인, 그 중에도 특히 대한민국 공군으로서의 위치의식이 무엇이며 그것을 망각함으로써 빚어지는 결과에 대해서 몇 가지 사건을 피력해 보려고 한다.

## 2

위치라는 말을 가장 정확하게 표시하기 위해 수학에서는 흔히 좌표(座標)라는 개념을 쓴다는 것은 누구나 잘 알고 있을 것이다. 「그래프」용지에 그려진 X축(軸)과 Y축을 중심으로, 이를테면 세계의 점(點)이 어디에 위치하는가를 가리키기 위해 좌표 a, b, c, ……로 표시하

는 따위이다. 그런데 수학이라는 학문은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사물의 존재양식을 가장 추상적(抽象的)인 논리적 관계로 종합 정리해서 기술하려는 학문이기 때문에 수학에서의 좌표개념은 우리들이 지금 다루려고 하고 위치의식문제에 관한 사색에 있어서도 매우 귀중한 사사를 던져준다는 것을 끝 깨달을 수 있다.

대한민국 공군에 속하는 모든 군인들이 차지하는 위치 a, b, c, d, .....를 「그래프」용지에 그려 넣기 위해서는 그에 앞서 먼저 그러한 좌표를 결정해 주는 요건으로서 좁은 줄로 X축과 Y축을 그려 놓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다시 말해서 장교나 사병을 막론하고 대한민국 공군 군인 각자가 갖는 위치 a, b, c, d, ..... 라는 것은 위에서 말한 그 순간으로서의 X축과 Y축이 어떤 것이며, 또 그것은 상호간에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는가를 알아야 한다. 더 말할 것도 없이 대한민국 공군은 육·해·공·해병대 등과 같이 대한민국 국군의 일부로서 그것은 종적(縱的)으로 위로는 참모총장으로부터 아래로는 일개 사병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같은 목적의 달성을 위해 존재하는 특수한 사회집단이요, 따라서 그들의 위치는 우선 X축을 중심으로 일직선을 이루고 정해져 있다 할

수 있다. 한편 대한민국 국군은 대한민국이라는 넓은 동질적 사회 안에서는 그 밖의 다른 여러 국가기관(國家機關) 또는 사회기관(社會機關)과 마찬가지로 헌법 또는 기타 법령에 근거하여 설치운영되는 기관의 하나에 불과한 것이요, 그것들은 절대적 국시(絕對的 國是)라 할 수 있는 민주주의적인 가치의 실현을 위해 존재한다는 점에서, 이를테면 Y축을 중심으로 병렬적(並列的)으로 존재한다고 할 수 있다.

이제 이와같은 관계를 도표로 그리다면 대략 다음과 같은 표시를 할 수 있을 것이다.

X A 축	· a	· a'	· a''	· a'''	· a''''		
	· b						
	B		· b'	· b''	· b'''		
	C	· c	· c'	· c''	· c'''	· b''''	
	D	· d	· d'	· d''	· d'''	· c''''	
	E	· e	· e'		· e''	· f''''	
	F	· f	· f'				
G	· g	· g'	· e''	· f''''	· g''''		
Y 축	A	A'	B	C	D	E	F
	육군	해군	국외	법원	화교	병원	

여기서 점의상 예전대 공군참모총장 김 두만 대장의 위치를 a, 제○전투비행단장 신 모 장군의 그것을 b, 공군전투조종사 박 모 대령의 그것은 c, 공군기지창 정비주임 이 모 중위의 그것을 d, 공군본부 근무 사병 강 모 상병의 그것을

## <위치의식의 망각과 탈선행위>

e 등으로 각각 표시한다고 하면, 점 a, b, c, d, e, …… 등의 좌표는 모두 Y축상의 점 A에서 직각으로 그어진 X축에 대해서는 엄격한 상하관계의 서열이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렇지만 점 a, b, c, d, e, …… 등의 위치를 좀더 정확하게 알기 위해서는 단순히 Y축 및 X축상에 그어진 직선 하나만의 접점(接點)만을 가지고서는 불충분하고, 예컨대 같은 「그래프」 위에 표시된 a'(국회의장), b''(고등법원 판사), f'''(국민학교 교사) d''''(보전소 소장) 등과의 관련을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위치의 확인에 있어 중요한 것은 이렇게 해서 정해진 a, b, c, d, e, …… 라는 좌표를 그것만으로 필요·또한 충분한 것으로 착각하여, 같은 「그래프」상에 나타난 그밖에 일체의 좌표들과의 관계를 사상(捨象)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배우 추상적인 말 같지만, 박 모 공군대령의 위치 c는 Y축상의 공군이라는 점 A와의 관계나, 그 서열을 표시하는 X축상의 점 c와의 관계만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같은 「그래프」상의 X축 및 Y축이 표시하는 무수한 점들, 예컨대 국회의원·판사·의사·국민학교 교사·면사무소 서기 등등 대한민국의 모든 국가기관·사회기관에 봉직하고 있는 사람들이 차지하는 좌표와 연관해서 생각했을

때면 비로소 정확한 것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군인으로서의 위치의식, 즉 군인의 사명감이나 책임감을 논하면서 흔히 저지르기 쉬운 과오는 그 문제를 군대 이외의 국가기관원이나 다른 일반 사회 집단 성원의 위치문제와 유리시켜 전혀 독립적인 차원에서 논의하려는 태도라 할 수 있는 것이며, 또 한 가지 과오는 전기한 a, b, c, d, e, …… 등 대한민국 군인 자자가 차지하는 좌표가 결정되기 위한 전제조건으로서 존재하는 X축 및 Y축의 의미를 흔히 망각하기 쉽다는데 있다.

이상에서 필자가 지적한 취지를 요약한다면 군인으로서의 위치의식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먼저 대한민국 국군의 장군이념과 국가이념, 민주주의 사회의 사회집단이 갖는 일반적 성격으로서의 조직원리, 군대 사회의 특유한 질서의식 등이 함께 고려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안에서 움직이는 곳 사회집단의 하나로써의 군대가 다른 사회기관과의 사이에 어떠한 관계를 가졌는가를 깊이 생각하고 넓게 파악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제 몇 가지 실례를 들어가면서 필자의 의견을 좀더 자세히 설명해 보기로 한다.

### 3

해방 직후인 1946년 필자는 대학생으

로서 국군창설 당시의 경비대사관학교와  
숨은 인연을 가지고 있다. 그때, 필자가  
유숙하고 있던 학교 선배 K모씨 집에는  
당시 K중학교(오늘의 경기고교)를 갓  
졸업한 외아들 한 분이 있었는데, 그는  
지원에 의해 사관학교에 입학하고 곧 이  
어 육사교관이 되었다. 젊은 육군 소위  
가 된 그는 미군이 쓰는 「인팸트리·마  
뉴얼」(보병교본)을 가지고 사관후보생들  
에게 일반전술학을 강의한다는 것이었는  
데 그때만 해도 우리 말 번역본이 없었  
때였었기 때문에 필자는 종종 그 원문  
을 우리 말로 번역하는 일을 돕게 되었  
던 것이다.

그런데 필자가 지금도 잊혀지지 않는  
기억으로 간직하고 있는 것은 이러한 사  
관학교 교과 과정의 일부가 필자의 조그  
마한 도움에 의해서 움직여지고 있었다  
는 사실보다도, 그것을 가르치는 젊은 교  
관 김 소위의 복장 또는 몸가짐에 대한  
남다른 집착이었다. 육사에 입교하기 전  
까지만 해도 그 당시에 학생들이 대체로  
다 그랬듯이 복장 따위는 거의 관심이  
없던 그가 일단 국군 소위로 임관하여  
교관으로 부임한 이후부터는 그 태도가  
180도 달라졌던 것이다. 매일 매일 아이  
론질을 해서 제복에 칼날같은 주름을 세  
우고 다니는 것은 물론, 그 당시만 해도  
좀처럼 구할 수 없던 「포마드」 등 머

리기를 대용품으로 일본군대 재고품인  
보혁유(保革油=가죽에 바르는 유지)를  
머리에 발라, 단정한 용모를 갖추느라고  
애를 쓰던 모습이 지금도 눈에 선하다.  
그는 이와 같은 단정한 복장과 용모를  
유지하는 것이 사관(士官)으로서의 매우  
중요한 의무라고 확신하고 있는 듯 하였  
고, 필자에게는 그보다도 더 중요하다고  
생각되었던 대한민국 국군의 창군이  
념을 그의 공사생활에서 구체화 시키려는  
내적 충실(內的充實)에 대해서는 항상  
일종의 갈등을 느끼고 있는 듯한 인상을  
말았었다. 진군 초창기였던 당시, 그  
는 수 년 내에 대위까지 승진하였으나  
1948년 물의의 사고로 죽었지만 소위 임  
관에서부터 대위(죽은 뒤 소령으로 추  
서)승진에 이르기까지의 3년여 대한민  
국군인으로서 그가 나에게 보여주었던  
내적 성장의 발자취는 지금까지도 잊혀  
지지 않는 꽤 인상적인 기억으로 남고  
있다.

그는 해방 직후의 혼란기를 통해서 그  
당시의 일부 청년층들이 공통으로 느끼  
기 시작했던 민주주의에 대한 회의를 심  
화해 가는듯 했으며, 군대 사회가 민주  
사회에서 차지하는 위치를 심사숙고함이  
없이, 점차 군대가 주동이 될 과거한 사  
회 개혁에의 집념에 사로잡혀 가는듯 했  
다. 이리하여 필자의 눈에 비친 그는 그

## <위치의식의 망각과 탈선행위>

의 의학적 행동[패턴]에 있어서는 민주주의국가 군대인 미국군대 장교의 단정을 못에 익혀가는 한편, 그 내면적 정신세계에 있어서는 한국사회를 휩쓴 혼란에 빠져들어 왜정시대(倭政時代)의 전체주의적 군대 통솔의식과의 갈등을 끝내 이겨내지 못하고 있는 듯 하였다.

이 이야기는 국군의 초창기 내가 아는 한 젊은 장교, 그것도 이미 세상을 떠난 사람에 관한 아득한 회고담에 불과하지만, 오늘날 우리 군국의 위치의식을 문세삼는 이 마당에서도 필자의 머리를 떠나지 않는 상념의 하나를 이루고 있다.

대한민국 국군으로서 장병들이 항상 뚜렷하게 자각하고 있어야 할 가장 직접적인 위치의식은 물론 상사와 부하, 즉 통솔자와 피통솔자 사이의 위계질서(位階秩序)라 할 수 있고, 다음으로 각군(各軍) 사이의 연대의식(連帶意識)일 것이다. 어느 나라의 군대를 막론하고 군대 사회의 명백을 이루는 것은 엄격한 상명하복(上命下服)의 군기임은 더 말할 것도 없지만, 민주주의국가의 군대와 그렇지 않은 나라의 군대 사이의 근본적인 차이는 이 상명하복의 질서유지가 전자에 있어서는 보다 큰 민주주의적 가치를 실현하겠다는 이념적 자각 아래 피차간에 이해와 신뢰를 기속으로 해서 이루어지는 데 반해서, 후자의 경우엔 있어서는

자기 나라의 전국이념 또는 장군 목적과는 관계 없이 오직 상급자와 하급자 사이의 위압적 복종관계로써 이루어진다는 점을 들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므로 민주국가인 대한민국 국군장병의 위치의식을 형성하는데 있어 잠시도 잊어서는 안 될 핵심적인 요소는 대한민국의 전국이념이요, 국시인 민주주의적 가치질서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를 위시로 하여, 장병 상하 사이에 맺어지는 위계질서가 상호간의 우애와 신뢰를 기속으로 하는 인도주의적인 인간관계 그리고 옆으로는 각군(各軍)과 그밖의 다른 사회집단과의 병렬적(並列的) 유대관계에 대한 투철한 자각 등 세 가지라 할 수 있다.

만일 군인의 위치의식, 즉 군인으로서의 특유한 사명감이라든지 책임을 생각하면서 위에서 지정한 세 가지 핵심적인 요소를 등한시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의 행동은 필경 상급자의 지위를 내세운 무리하고 부당한 요구를 부하에게 강요하는 것이 되거나, 아니면 사회나 일반국민과의 사이에 마찰을 일으키게 하는 일종의 특면의식을 수반하고야 말 것이다. 이런 경우, 그는 제아무리 군인으로서의 외형적 용모가 단정하고, 제반 군사기능에 있어 우수한 성적을 올렸더라도 그 자신의 내면생활에 있어서

는 항상 심리적 갈등을 금치 못할 것이요, 그가 일반사회인과 섞였을 경우에는 견잡을 수 없는 이화감(異和感) 때문에 자칫 사고를 유발하기 쉬운 것이다. 앞서 필자가 국군창설 초창기에 사고로 죽은 고(故) 김 대위의 죽음을 언급한 것도 이와 같은 심리적 갈등이 빚은 비극이었다고 생각되기 때문이다.

4

대한민국 국군의 창군이념은 헌법전문(憲法前文)과 동 제 4조(구헌법 제 6조)에 명시된 바와 같이 「정의와 인도와 동포에로써 민족의 단결을 공고히 하며, 모든 사회적 폐습을 타파하고 민주주의적 제도를 확립하여…… 안으로는 국민생활의 균등한 향상을 기하고 밖으로는 항구적인 세계평화에 이바지」할 목적 아래 창군된 것이며 따라서 우리 국군은 외국에 대한 일체의 「침략적 전쟁을 부인」할 뿐만 아니라, 「국토방위의 숭고한 의무를 수행」하는 것만이 그 소임인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국군의 조직과 편성의 원리는 이 헌법이 정한 바 법률, 즉 국군 조직법에 의해 엄격히 부여되고 있으며, 이 가운데서 공군장병의 위치의식의 근원이 미리 정립(定立)돼 있다고 할 수 있다.

다시 말하여 우리 공군은 국민이 누

구나 부담해야 할 숭고한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기 위한 헌법적 요청에 따라 조직된 국군의 일부로서 그 주 임무가 기타의 육·해군·해병대와는 달리 항공작전에 있다는 점을 제외하고서는 우리나라 헌법과 헌법질서를 유지하는 것이 궁극적 목적임을 깨닫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여기서 필자는 앞서 게재한 X축, Y축을 중심으로 한 공군장병의 개별적일 좌표 a, b, c, d, e, …… 등에 대해서 다시 한번 주의를 환기시키고 싶다. 그 「그래프」에 그려진 a, b, c, d, e, …… 등의 위치는 앞서도 지적한 바와 같이 편의상 위로는 공군 참모총장으로부터 아래로는 일개 사병에 이르기까지를 표시한 것이지만 이 상하 질서를 표시하는 X축의 정점에는 그 위로 각군의 통수권자인 대령이 있고 또 그보다 위로 우리나라 헌법이 있음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한편, 동 「그래프」의 Y축 선상에 표시한 A', A, A'', B, C, D, E, F(육군·공군·해군·국회·법원·학교·병원 등) 등도 편의상 구분일 뿐 사실은 Y축 선상에 무한량( $\infty$ )으로 찍어질 점이 있음을 간파해서는 안 된다.

다시 말해서 대한민국 공군장병들이 차지하고 있는 개별적 위치는 그것을 대한민국 국군 또는 대한민국 공군이라는

## <위치의식의 망각과 탈선행위>

좁은 사회에서의 직각적(直角的)인 상하 질서 속에서만 파악될 것이 아니라, 종적으로는 그 위계질서의 최고정점에 있는 헌법이념과, 그리고 또 횡적으로는 우리 국가 안에서 움직이는 모든 사회집단 및 국민 개개인과와의 관계를 임무에 두어서 비로소 뚜렷한 좌표의식이 설 수 있음을 깨닫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것이다.

일부 군인들이 군대 내에서의 군기 이탈사고를 저질른대거나, 군대 밖의 민간인 사회에 대해서 탈선행동을 감행했다면 그 중극적인 원인은 요컨대 우리 국군장병 등이 가진 이와같은 좌표의 성격을 증적, 횡적으로 넓게 검토하고 파악하지 못했기 때문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어떠한 사회집단에도 그 집단에는 반드시 그들이 추구하려는 기본적인 목적이 있게 마련이고, 이러한 목적달성을 위해 각 집단은 가장 효과적인 방법을 연구개발해 나가는 것이 보통일 것이다. 대한민국 국군이라는 사회집단의 경우에도 이것은 마찬가지로 그들은 앞서도 말한 바와 같이 외적의 침략에 대하여 국도를 방위하고 국민의 안전과 생명 재산을 보호한다는 기본목적이 설정돼 있고, 그와같은 창군이념의 구현을 위해 엄정하고 일사불란한 군기를 통한 군인생활이 영위되는 것임은 더 말할 것도 없다. 만일 지위의 교하를 막론하고 군인이

위에서 말한 자기의 좌표를 망각하고, 각종 군기이탈사고를 저질렀다면 그것은 위에서 말한 X축과 Y축을 따라 엄격히 설정된 자기의 위치를 떠났다는 점에서 문자 그대로 탈선행위인 것이다.

군인에게서는 물론 특히 군인으로서 요구되는 몇 가지 특유한 「모텔」이 있는 것이다. 상사의 명에 대한 절대적인 복종심, 어떠한 곤란과 위험에도 불구하고 주어짐 임무를 수행하려는 의지력과 용기, 전우와 동포를 위해서 또는 부대 전체를 위해서 기꺼이 몸을 던지려는 희생정신과 협동심 등이 필요할 것이요, 또 적과 싸워서 태전백승을 기할 수 있는 전투기량의 배양 등이 특히 요청된다는 것은 더 말할 나위도 없다. 그러나 이와같은 군인다운 태도를 배양하는 기간은 어디까지나 우리 국군이 조직편성되고 존재하는 근본목적이 어디에 있는가를 넓고 큰 안목 아래서 두철하게 인식하고 자기에게 주어진 개별적인 좌표가 이러한 전체와의 관련 속에서 얼마나 중요한 일부인가에 대해 자랑스런 마음을 갖게 해 주는 평소부터의 교육이라 할 수 있다. 공군은 공군장병으로서의 특수성을 고려하면서 우리의 창군이념에 대한 이와같은 실천적 파악을 촉진시키기 위해 공군으로서의 독특한 정훈교육방법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 「에고」중심의 인생관



오 소 백

<독서신문 주간>

나는 인간은 역시 궁극에 가서는「에고 이스트」라고 본다.

자기 이익을 뺄고치고 산다는 건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이론적으로 어찌 됐건 실제에 있어서 그런 것 같다.

개인주의라는 말이 있다. 이걸 역시 이기주의와는 뚜렷이 구별해야 할 줄 안다. 개인주의는 인간의 존엄성을 저마다 지니고 있으며 다른 뉘과도 바꿀 수 없다는 뜻이기도 하다. 그러나 개인주의가 이기주의와 판이한 건 자기의 이익만을 중심으로 살아가지는 않는다는데 있다. 개인주의는 「너와 나」, 「그와 나」, 「여러사람과 나」, 「……나와 너의 조화」, 「그와 나의 이해」, 「나와 당신의 대화」를 의미한다.

「나만을 위해」, 「나는 나·너는 너」, 「그는 그·나는 나」, 「나 이외는 모르다」는 것이 곧 이기주의라고 생각한다.

사람은 이기적이다. 이 이기적인 것을 어떻게 남과 협조할 수 있도록 자제하는냐는 것이 문제이다. 인간에게서 자제의 힘이 없다면 그건 흔들흔들하는 허수아비나 매 일반일 거다.

민주주의는 개인주의에 바탕한 것이지 이기주의에 바탕한 건 아니라고 본다. 나는 늘 「핑켄」의 다음과 같은 말을 함축성있게 이해하고 있다.

『밟지도 밟히지도 않는 게 민주주의의 근본 바탕이다.』

간결한 이 말이 주는 깊이는 천 가지 만 가지의 이론보다도 실감적이고 피부

로도 받아들일 수 있다.

내 것을 내 것이라는 건 당연하다. 네 것을 네 것으로 인정해 주는 것도 마땅하다. 그러나 네 것도 내 것이라고 나온다면 그건 이미 개인주의나 민주주의 뜻과는 판관이 된다. 분명히 「에고」 중심이 된다. 개인주의는 늘 「너와 나」라는 연대의식을 지니는 특징이 있다. 이 특징이 없다면 그 개인주의는 이미 낱아빠진게 된다. 다시 말하면 나 개인은 사회 속의 개인이기 때문이다.

적지 않은 사람들이 개인주의를 곧 이기주의로 오해하는 것 같다. 개인주의라는 「개인」의 한자(漢字) 낱말이 주는 이미지가 때문인지도 모른다. 개인주의는 날 개가 아니고 오히려 상대적이다. 날 개는 날 개지만 다른 날 개와 서로 거래를 하고 있다. 물론 그 거래에 있어선 늘 1대 1의 자격을 지닌다.

날 개와 다른 많은 날 개들은 사회라는 큰 테두리 안에 들어와 서로 대화하고 서로 돕고 서로 보강하며 서로의 생존을 의지해 간다. 날 개들은 입이 끝나면 역시 제 각기 날 개의 자격으로 돌아간다. 이런 되풀이가 곧 인간생활이며 사회생활이 아닐까? 이런 개인주의는 자유주의(自由主義)라 해도 무방할 것 같다. 이 자유(自由)란 해도 무척대고 확는 자유가 아니다. 어디까지건 자유이

라는 자기 책임이 늘 붙어다니고 있는 거다. 무질서한 건 자유가 아니라고 본다. 그렇다고 획일적이고 통제적인 것도 자유가 아니라고 본다.

사회를 생각할 때—개인주의나 자유주의는 무인도 같은 태선 소용이 없을 거다. 역시 사람들이 상대성과 상관성을 떠는 태서 개인주의가 싹을 계다. 무인도에서는 제멋대로 주의진 뿔이진 필요 없을 거다.

「아이크」가 죽었을 때 나는 재미있는 기사를 읽었다. 「아이크」는 두드러진 유언이 없었다. 다만 유언 비슷한 건 있었다. 죽기 며칠 전 가장 가까운 친구에다 전한 말이 유언에 대신하는 걸로 되었다.

그는 말했다.

『나는 내 아내를 사랑한다. 내 자녀를 사랑한다. 그리고 미국을 사랑한다.』

참 아무렇지도 않은 평범한 말이다. 이태한 「아이크」의 말은 정말 비범한 것 같다.

어떻게 보면 거꾸로 될 것 같다. 나라가 먼저 나올 것 같은배 가정이 앞섰다. 이런 사고방식이 곧 민주주의적인 거라고 나는 생각한다. 또 개인주의로 생각한다.

이번 죽은 「드폴」장군의 경우도 참 재미있다.

『내가 죽거든 내 고향으로 보내다오. 뼈들석한 국장같은 건 원치 않는다. 간소하고 걸치께 없는 가족장으로 해다오. 내 딸의 무덤 옆에 묻어다오. 묘비를 간소하게 이름과 연월일만 기록해다오. 무슨 찬사나 그 밖의 것은 아예 말아다오. 프랑스 건 외국에서 건 나를 위한 공훈인정, 승진, 포상, 훈장 수여를 거부함을 미리 밝혀둔다. 프랑스의 3군이 공식적으로 참석하는 건 좋을지 모르겠다. 그러나 그들의 참석도 밴드, 광파르 등이 울리지 않는 아주 간소한게 좋다. 대통령, 자로, 정부기관 대표들이 참석하는 것도 바라지 않는다.』

「아이크」와 「드폴」두 장군의 입장에서 공통점을 보인 건 모두 가정적이라는 데 있다. 민주사회에서 뼈대가 끊어졌고 민주사회의 상징적 두 지도자로 알려진 두 사람의 종말을 볼 때 우리는 민주주의며 개인주의며 자유주의가 어떤 것인가를 여러모로 짐작할 수 있을 것 같다.

「드폴」과 「아이크」의 경우, 그들의 발언과 개인의 존엄성은 선명하게 그려져 있는 걸 볼 수 있겠다.

언젠가 전방의 사병이 후방을 돌아보고 방카로 돌아간 뒤의 감상을 들은 일이 있다. 후방의 꿈틀거리는 모습이 사

병으로 하여금 뺨이 힘을 쥐야 할때에 실정은 반드시 그렇지도 못했다는 것이었다. 후방의 무질서와 사치, 소비성향 등은 사병의 눈에 뚝뚝 던져 주었을까.

외골수보만 흐르는 물량주의는 사람의 마음을 갈팡질팡하게 만들었다. 수단과 방법을 분별없이 물질에 눈을 팔리게 한 흐름을 어떻게 보아야 할까. 잘 살고 잘 먹고 잘 입는 건 물론 좋다. 그러나 거기엔 보람이 있어야 하고, 분수가 있어야 한다. 또 거기엔 정상적인 거래가 있어야 하고 바른 질서가 있어야 한다. 또 거기엔 서로의 믿음이 있어야 하고 따뜻한 감정의 교류가 있어야 한다. 그뿐만 아니다. 거기엔 「너와 나」의 협동정신과 서로 조화를 이루는 건전한 양식이 통해야 한다.

골프가 어떻고 사냥이 어떻고 다 좋다. 그러나 이런 것들이 분수에 지나치게 될 때 사회에 미치는 해독은 적지 않을 것 같다. 또 때와 곳을 제대로 가려 내야 한다.

등교와 하교 때가 되면 학교 앞길에 자가용차며 일부 공용차가 물러드는 것을 어떻게 보아야 할까. 이것도 자유고 이것도 개인주의일까. 이런 건 「에고」 중심이라기보다는 일종의 퇴폐한 끝이라고 볼 수 밖에 없다.

이런 일을 하는 사람들은 아무렇지도

얕게 생각할지도 모른다. 말하자면 아무렇지도 않게 이런 일을 한다는 그 자체가 더욱 한심스럽다. 여기서는 「너와 나」의 개인주의가 없고 「나만이 나」는 「에고」 중심 이전의 일방적 욕심만이 판을 친다. 우리보다 훨씬 잘 사는 외국의 특파기자 한 사람이 이런 걸 정면으로 충고해 준 기사를 읽고 얼굴이 붉혀졌다. 교통질서만 해도 그렇다. 신호등을 지키는 생각보다 어떻게 교묘히 피해나갈 구멍만 생각하는 것 같다.

해외여행자로부터 들은 이야기다. 유럽에서는 자동차들이 야간운행을 할 때 누가 뭐라고 안 해도 자율적으로 자동신호를 지킨다. 신호등이 있는 곳에서는 무슨 일이 있어도 신호에 따른다. 물론 야밤이니까 무인신호가 교통질서를 맡고 있다. 우리의 경우라면 어떻게 될까. 교통순경이 없다면 야밤의 신호기쯤은 문제도 안 될 거다. 문젯점은 여기에 있다. 교통신호를 지킨다는 것이 누구를 위한 것이 아니고 「나와 너」, 나아가서는 당신의 가족과 우리 가족의 안전을 위한 것임을 제대로 인식한다면 누가 뭐라고 하지 않더라도 으레 규칙을 지키게 되지 않을까.

이 뿐만 아니다. 선진국 사람들은 거리를 달리는 자동차가 속도위반을 하면 그걸 본 행인은 가까이 있는 팔박스로

들어가 인근 교통경찰에 지체없이 고발한다. 속도위반으로 달리던 자동차는 얼마 못가서 교통경찰에 걸리게 된다. 물론 모략이라거나 중상으로 문박스를 이용하는, 사람은 없다. 이쯤 시민들이 자기네들의 안전을 스스로 감시하고 있는 셈이다. 이렇게 되니 감시의 눈은 어디에나 깔려있는 셈이다. 그들은 공익을 위한 고발정신이 왕성하며 그것이 곧 「너와 나」, 「당신네 자녀와 나의 자녀」를 위한 안전으로 생각하고 있다.

중국 말에 메이유관심(沒有關心)이란 게 있다. 내 알바 아니라는 뜻이다. 어떻게 보면 그럴사한 얘기같지만 이걸 「에고」 중심에 가까운 말이다. 공익에 관계되거나 공동의 관심사가 될 때 이런 메이유관심이야 말로 위험하기 이룰때 없다.

공익은 명백히 「너와 나」의 안전과 이익을 위한 거다. 내 안전도 되고, 네 안전도 되고 또 수많은 개인의 안전도 되는 거다. 말하자면 고발정신이다. 민주사회에선 고발정신이 왕성해야 한다. 고발정신을 멍게치는 건 개인의 권리와 이익을 내동맹이치는 거나 똑같다. 버스 공해(公害)문제만 해도 그렇다. 시민들이 병어리쳐질 있을 때 공해문제는 해결되기 어렵다.

우리들은 고발하면—무슨 귀찮은 것으로 여기고 메이유관심이 돼 버리려고 한

다. 살기가 바쁘게 고발할 거물이 있을  
소냐고 아예 의면하기 일쑤다.

두형군 유괴사건 뒤에 있는 진주 어린  
이 유괴사건을 다시 한번 생각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

어린이 유괴사건에 있어서는 매스컴의  
각각도 문제가 되었다. 유괴된 어린이를  
안전하게 구출하는데 중점을 뒀다. 한  
는 건 더 말할 나위도 없다. 진주 어린  
이 유괴사건의 경우—어린이는 범인한테  
유괴당해 가면서 버스 속에서 살피달라  
고 애처롭게 외쳤다. 버스차장도 이 광  
경을 목격했고 승객들도 목격했으나 모  
두를 의면하고 말았다. 「귀찮다」, 「나와  
관계 없다」—이러한 생각이 결국 어린  
이를 무참히 살해당하게 만들었다. 시민들  
의 고발정신은 엉망이었다. 「나와 너」의  
연대의식은 끊어져 있었다.

남의 어린이를 자기 어린이처럼 대하  
지 않으려는 극도의 「에고」 중심이 고발  
정신을 멍들게 했다. 만일 이렇게들 나간  
다면 많은 어린이들은 어디서 어떻게 당  
할는지 누구도 예측할 수 없을 것이다.  
참 매마르고 서글픈 이야기다. 어린이들  
은 모든 면에 있어서 보호받을 권리가  
있다. 무력무력 구집살 없이 자라날 권  
리가 있다. 어른들은 어린이들을 보호할  
책임이 있다. 사회는 그들을 보호할 연  
대책임이 있다. 그러나 어린이들은 어른

들의 의면 때문에 무방비상태에 놓여있  
다. 어른들은 어린이들을 무슨 도구나  
장난감이나 부속물처럼 생각하는 낡은  
버릇을 지니고 있는 것 같다.

『내 자식이니까 내 마음대로 할 수 있  
다』는 사고방식이 아직도 많은 어른들의  
머리 속에 잠겨 있는 것 같다.

몇년 전 부산에서 일어난 일은 잊을  
수가 없다. 어떤 까닭으로 한 가족이 자  
살한 사건이 있다. 실상 가족들이 함께  
자살한다는 말도 모순이 있다. 나이 어  
린 애들까지도 부모들이 강제로 죽음으  
로 몰아넣는다는 건 일종의 학살이나 다  
름 없다.

지역적인 걸 따지는게 아니다. 자살이  
란 타의에 의해서 이뤄지는게 아니기 때  
문이다. 이런 경우도 「내 아들이니까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일방적 해석을  
내리고 있다. 어린이들을 보호하기는 커  
녕 죽음까지 강요한다는 건 어버이들의  
명백한 횡포가 아닐까.

부산 가족 자살사건의 경우 아버지는  
문을 모조리 잠그고 불을 질렀다. 살피  
달라고 애걸하는 식모소녀까지 방으로  
끌어들여 숨지게 했다. 물론 자살을 피  
하는 사람의 심정이 정상될 수 없다는  
걸 어느 정도 이해하면서도 참을 수가 없  
다. 자기가족들을 죽음으로 이끌고 들어  
가는 것도 문제이지만 한 걸음 더 나아가

남의 자녀까지도 끌고 들어갔다는 것은 완전히 든 것이 아닐까? 「내 식구니까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데서 뛰어넘어 「내가 쓰는 사람이니까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말이 된다. 이쯤이면 「에고」 중심도 아무 것도 아니다. 상식 이전의 이야기에 속한다. 생명의 존엄성이 뛰고 모든게 파탄이다.

어린저 우리들은 어수룩하고 구멍 뚫린 곳이 많은 것 같다. 올바른 공익이 됐인지 잘판질판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공익을 위한 정당한 권리행사가 있었는지 있고 있는 건 아닐까. 권리를 버린다는 건 스스로의 무덤이나 함정을 만드는 어리석음이 아닐까.

우리는 교과서대로 할 수 만은 없다. 교과서가 사회정의와 정비해해야 한다는 때는 거의 이전이 없을 것 같다. 어린이며 젊은이들이 교과서에서 배운 것과 사회의 움직임이 너무 궁합이 맞지 않을 때는 교과서마저도 불신하게 된다. 교과서는 먼 후일까지를 대다보는 거시적인데서 다뤄져야 할 것 같다. 물론 오늘날의 세계며 사회의 변화 템포가 빠르다는 걸 생각하면서—

불신이란 건 특별한데서 생기는 게 아니다. 교실에서 배운 것과 사회에 나타난 것이 양식의 선을 벗어나 뽕뽕이 달릴 때 생기기도 한다.

진정한 양식이 통해야 한다는 건 너무도 당연한 말이 아닐까. 다른 말로 바꾼다면 원칙의 선이 뚜렷이 그어져 있어야 한다는 말이기도 하다. 원칙의 선이 잘 판질판해 지면 기준이 없어도 질서가 무너지게 된다. 제2차대전 때—영국은 엄청난 독일군의 공습을 받아가면서도 시민은 시민대로 질서를 지켰고, 국회는 국회대로 질서를 지켰던 것으로 알고 있다. 지력이란 바로 이런 것이 아닐까. 영국시민들의 이같은 저력은 국민의 자주성도 굳건한 데도 있지만, 한편으로 생각하면 원칙을 지키는 마음가짐이 굳센 데도 있었던 것이다.

원칙이란 「너와 나」, 나아가서는 모든 사람의 행복과 안전을 가져다 주는 식로의 상식적 공약이라고 해도 무방할 것 같다.

얼마 전에 있었던 징병기피사건만 해도 그렇다. 어찌서 이렇게 공교로까지 신문에 나와야 했을까. 공교에 나온 기피자들은 적어도 유력(?)층의 자녀들이었다. 해외여행이건 유학이건 간에 이런 사실이 있다는 건 하나의 원칙이 흔들리고 있다는 증거이기도 하다.

국민의 기본의무 중의 하나인 징병에 있어서 이런 무질서가 있다는 것은 어느 모로 보나 많은 사람들에게 충격을 던져 준 것이다. 지도층이나 유력층의 자제들

이 이렇게 나온다면 그밖의 사람들은 어떻게 될 것인가. 원칙을 가장 잘 지켜 모범이 되어 할 층이 반대로 사회질서를 무너뜨린 셈이다. 그들이 입으로 뱃을 부르짖건 실제 행동에 있어 반비례되는 일을 저지른다는 건 결국 사회의 불신을 가져오게 한 것이나 다름없다. 불신은 장벽을 만들고, 대화의 통로를 끊게 한다. 원칙의 선이 집행당할 때 협력은 일그러지고 「너와 나」의 믿음은 사라진다.

「밟지도 밟히지도 않는다」는 민주주의의 평범한 진리는 공수표로 번덕을 부리게 된다.

자기네 자녀들을 해외로 보낸 유력층의 사람들이며 당사자들은 뭐라고 변명할 것인가? 그들은 영하의 추위 속을 무릅쓰고 교지의 방카를 지키는 병사들

을 어떻게 보고 있는가? 많은 사병들이 전선을 지키고 있을 때 일부 유력층의 자녀들은 뱃을 하고 있었는가?

「너와 나」의 개인주의는 무너지고 국도의 「애고」 중심으로 분열될 것이 아닌가. 나는 애국이라든가 그런 말을 거창하게 말하고 싶지 않다. 적어도 헌법에 밝혀 있는 국민의 기본책임만은 제대로 지켜야 하지 않을까 한다. 이게 바로 나라를 아끼고 사랑하는 것이 아닐까.

「너와 나」는 1대 1이다. 「당신네 자제와 우리 자제」의 관계도 1대 1의 연관적 개인주의의 바탕 위에서 대화하고 돕고 살아나야 하지 않을까.

「너와 나」는 분명히 날개이면서도 또 분명히 연결되어 있다.

### 박 대통령 문언록에서

◆ 국가가 잘 되는 것은 결국은 내가 잘 되는 것이며, 민족이 잘 되는 것도 결국은 내가 잘 되는 것이며, 국가를 위해서 내가 희생을 하고 봉사를 하는 것은 크게 따지면 내 개인을 위해서 봉사하는 것이고 우리 자손을 위해서 희생하는 것입니다.

◆ 전 국민이 일치 단결해서 만약에 북피가 침략을 해왔을 때에는 전 국민이 좋 켈기해서 조국을 수호하겠다는 비상한 각오와 결심을 가지고 우리가 현재 추진하고 있는 건설과 국방에 대해서 총력을 경주해 나간다면 우리는 아무 것도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 우리의 위치를 정확히 알자

황 유 성



## • 군인과 사회

### — 그 행동 양식의 고찰 —

전쟁이 있는 곳에 반드시 군인이 있음은 두 말할 필요가 없는 것이다.

어떤 사회학자는 역사시대에 일어난 전쟁의 빈도와 연수를 조사하여 인류역사의 파란수 이상이 전쟁이었다고 결론지은 일이 있다.

물론 그 결론에 대해서는 여러 각도에서 재검토할 필요가 있겠으나, 인류사회에는 전쟁이 많다는 점만은 부정할 수 없는 일이다.

일반적으로 말한다면 사회가 원시 내지 미개의 단계에 소급하면 소급할 수록 전쟁 내지 투쟁이 경미 또는 소규모의 것이었으나 사회가 근대화 할 수록 더욱 가혹 또는 광범위해지고 있다.

인류사회가 군족, 씨족, 부족의 단계를 거쳐 민족사회의 이름에 따라 전쟁은 광범위해지고 가열해졌다고 볼 수 있다.

또한 그에 따라 사회에 있어서의 군인의 필요도가 높아졌다고 볼 수 있다.

또 사회가 협소, 미개의 단계에서 점차 광대한 민족, 국민사회로 확대됨에 따라 자위공격, 용병, 직업군인, 국민개병의 단계를 밟게 되었다.

한편 전쟁발생의 과정에서 본다면, 약탈과 방어, 이민족에 대한 물 이해, 이해, 충돌 등 여러가지 단계가 생각된다.

현대는 이해관계의 충돌과 사상적 대립에 점차 내용이 변화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특히 현대와 같이 국제적 긴장이 고조되어 있는 시기에 있어서의 군인의 존재의의가 증차대함은 두 말할 수 없는 것이다.

그러면 오늘날과 같은 전시 혹은 준전시대에 있어서의 군인이 사회에 대해서 갖추어야 할 바는 무엇인가?

우선 군인의 사회적 지위로부터 말한다면 일반적으로 군인 뿐만 아니라 사람의 사회적 지위는 그 사람이 그 사회의

존립 발전에 대해서 어떠한 직무를 수행하고 있는가에 따라 결정되는 경우가 많다.

전시하에 있어서의 군인의 직무 혹은 기능은 사회의 존립 발전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다.

그 사회의 성패를 결정하는 것이 곧 군인인 것이다.

그러므로 사회가 전쟁의 위기에 처하게 되자 군인의 위치는 중요시되는 법이다.

그러나 현재와 같이 전쟁이 단지 군인대 군인의 싸움이 아니고 민족과 민족, 혹은 국민과 국민과의 싸움으로 변천한 시기에 있어서는 군인은 국민 전체와의 통합관계를 잊어서는 안 된다.

전쟁이 근대화하기 때문에 일선과 후방과의 차이가 없어졌고, 국민 전체의 총력에 의하지 않고서는 전쟁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매우 곤란하다.

즉, 군인과 국민 전체가 혼연일체가 되어야만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으므로 전쟁으로 사회적인 지위와 중요도가 높아진 군인은 자기 입장 내지 지위에 대하여 자각하고, 국민의 지표가 되어 존경 애호의 대상이 되도록 항상 유의하여 행동하여야 한다.

다음 유의할 점은 국방을 담당하는 군인은 항상 전력을 양양할 처지에 있으며

로 승리를 위한 힘의 양진은 정신면에 있어서 존재하지 않는 새로운 가치를 발견하게 된다. 그러한 새로운 가치가 곧 전투력을 고양시키는 것이다.

그것은 새로운 문화의 창조를 의미하기도 하지만, 극히 그를 전투력 고양에 한정해서 말한다면 그러한 인소로서 적에 대한 중요성이 있다.

일반적으로 적개심 내지 적에 대한 중요성은 전투력을 양양시키는 인소가 된다.

그런데 중요성은 반 가치적인 것, 즉 적에 있어서의 악을 발견하면 발견할수록 적에의 중요성은 높아지는 것이다.

또 적보다 자기가 가치높은 존재라고 의식하면 할수록 자기를 위협하는 적에의 증오는 커지는 것이다.

그러므로 적의 악을 발견하고, 자기의 선을 자각하는 것은 중요성을 양양하여 전투력을 강화하는 결과가 되는 것이다.

여기에서 전쟁에 대한 자기의 정상화가 성립하여 악에 대한 선의 투쟁으로서 적에 대치하는 관계상 전쟁이 장기화하면 할수록 적에 대한 악과 자기에 있어서의 선을 발견하는 태도를 강화하게 된다.

이러한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하겠으나 그의 결과로서 적에의 증오와 자기 찬미를 상승 강화하여 냉정한 객관적 태

★ 우리의 위치를 정확히 알자 ★

도를 상실하게 된다.

즉, 적을 냉정히 또한 정당히 관찰 혹은 평가하는 태도를 잃고, 그 위에 자기 자신을 정당하게 판단하는 힘조차 잃기 쉬운 것이다.

그러하여 자기의 일을 무조건 정당시하고 적을 무조건 양잠게 되기 쉽다.

그 결과 객관성을 잃은 무모한 인행과 행동이 사회 내부에 성행하게 된다.

그러나 그러한 일은 전쟁에 불리한 결과를 가져오는 두 말할 필요도 없다.

또 그러한 태도는 제 3자의 반감을 사서 적의를 유발할 가능성이 농후해지게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냉정한 태도를 잃지 말고 적을 알고 자기의 정당성을 국내외에 널리 알려 자국민과 제 3국인의 시인과의 동감을 얻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또 한편 전쟁은 민족 혹은 국가가 대외적으로 어떠한 목적을 이룩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에 불과한 것이다.

그러므로 전쟁으로 말미암아 결과되는 비전설적인 희생과 전쟁의 의의를 항상 비교 검토하는 태도가 군인에게 필요한 요소의 하나인 것이다.

군대는 사회집단의 하나이기는 하나 전쟁에 있어서는 사회집단 내부가 일체 단결하여 대립 반목으로 소비되는 힘을 절약하여 그를 가장 유효적절하게 전쟁

에 사용하여야 한다.

그런데 '사회 내부 일체의 힘을 외적과의 투쟁에 유효하게 사용하기 위해서는 사회 내지 사회집단 내부를 명령계통적으로 체통을 세우고, 상부명령에 사회성원 전원이 일사불란 그 명령에 복종하여 내부의 힘이 임기응변적으로 활용되어야 한다.

명령계통적으로 체통을 세운다는 것은 명령자 상호간에 대립이 있어서 명령이 분열되어서는 안 된다는 뜻이며, 그러한 경우에는 내부질서는 문란해져서 전체의 단결력은 약화되는 것이다.

이러한 결점을 보충하는 방법으로는 명령계통이 단일화 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군대의 군기는 엄정하여야 하며, 군인은 상부명령에 절대 복종하여야 한다.

특히 군인은 전·병시를 막론하고 항상 승리에 필요한 정신적인 요소를 평소로부터 함양하여 유사시에는 그를 최고도로 발휘하여야 하는 것이다.

그러면 그러한 승리에 필요한 최고위의 정신적 덕은 무엇인가?

그는 다름이 아니라 용감, 심용, 과감, 강의의 덕이다.

그러한 덕을 결핍한 군인은 여하히 지식이 있고 호인이라 할지라도 군인으로서는 충분지 못한 것이다.

에컨대 고대 이집트에서는, 용맹이 국민 최고의 덕이었으며, 로마에 있어서서는 용맹, 애국이 최고의 가치였다.

또한 거기에는 전쟁에 용기 없는 자는 가치 없는 자로서 열사의 대상이 되었다.

또 구라파 중세의 전란시를 보아도 기사들의 최고의 덕은 어떠한 일에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이러한 예를 보아도 분명한 바와 같이 생명을 걸고 싸우는 마당에 있어서는 무엇이든지 두려워하지 않는 용기가 필요한 것이다.

용기 없는 자가 어찌 잘 싸울 수 있겠는가, 그러므로 군인은 항상 용기 있는 자라야 하며, 평소 그러한 요소를 함양하는데 전심하여야 함은 논할 필요가 없으나, 용기 있는 군인이 되기 위해서는 정직, 자신, 소박, 검소한 면이 있어야 하는 것이다.

또 군사훈장이 철저한 군인은 전투에 자신이 생기고, 용감해지는 것은 당연한 이치이다.

군인은 그러한 정신적 요소를 견지함으로써 국민의 존경대상이 되어야 한다. 또 군인에게 있어서는 상관과 하위자가 서로 일심 협력할 필요가 있으므로 상관에 대한 하위자의 복종이 강조됨과 동시에, 하위자에 대한 상관의 은혜가 강조된다.

그러한 관계상 군인에 있어서는 신의 충절, 은혜의 덕이 지켜져야 한다.

국민 총력전이라고 하는 현대전에 있어서는 국민 전체의 생활영역 내지 활동영역이 직접 혹은 간접으로 전쟁에 관계 없는 것이 없나시피 되어 있으므로 군인으로서서는 사회전반에 걸친 연관성을 무시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될 것이다.

## ● 책임완수

### —나라 사랑의 제 1보—

다시 우리 자신들의 문제로 눈을 돌려 우리에게 부여된 임무를 여하히 수행해야 하며, 그 부여된 바의 임무완수는 궁극적으로 어디에 귀될되는 것인가 하는 점을 살펴보기로 한다.

다 아다시피 군대는 국토방위를 위해 뭉친 고도로 조직화된 집단이다.

무릇 집단의 존립과 존속이 그 집단을 형성하고 있는 구성원 각개의 유기적 상호작용에서 가능한 것과 같이, 군대라는 하나의 힘의 집단의 성립과 존속 그리고 그 집단이 지니는 목적 실현은 각개 장엄한 사람 한 사람의 유기적 상호작용 속에 이루어지는 것이다.

전쟁이란 전술한 바와 같이 집단과 집단 사이에 벌어지는 투쟁인 것이며, 따라서 집단적 반응으로 피하여 지는 투쟁

## ★ 우리의 위치를 정확히 알자 ★

이라고 할 수 있으나, 이는 결국 그 집단 내의 각 구성원의 행위에 기초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하여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바 전투에 있어서 승리를 기하기 위한 힘의 축적은 모든 각개 장병의 역량의 제고로서 이루어 지는 것이며, 군대가 지니는 바 국토방위의 의무와 이에 따르는 책임의 원수는 군대를 형성하고 있는 각개 장병의 책임에 귀결되는 바이며, 국가를 보호하고 민족을 수호하는 애국적 행동은 모든 장병 개개인이 맡은 바 책임을 다 하는 곳에서 이루어진다.

전술한 테에제에 관하여 「군인의 길」 제 3항은 우리에게 올바른 지표를 제시하여 주고 있다.

즉 『우리는 숭신수법하여 맡은 바 책임을 완수하고 명령에 복종하여 엄정한 군기를 확립한다.』라고 하고 적극적 책임 완수에 대하여 명시하고 있다.

군대는 국토방위를 위하여 있고, 군대를 이루고 있는 우리 군인은 이에 대한 책임을 다 하기 위하여 있다.

군대가 지니는 임부의 수행은 그 군대가 포괄하고 있는 각 개개 장병들의 책임성 있는 행동에 의하여 가능하여 진다.

## ● 책임완수

책임이란 각자가 맡은 바 임무를 충취

이르는 것으로 책임완수란 자기의 맡은 바 임무를 완전히 다 하는 것을 가리켜 말한다.

개체가 모여서 전체를 형성하고, 개체는 전체 속에서 생존하고 있다.

개체를 떠난 전체를 생각할 수 없고 전체를 떠난 개체를 반대로 생각할 수 없다.

즉 개체는 전체에 의존하여 있는 것이며, 전체는 개체에 의존하여 있게 되는 것이다.

군대의 존립은 개체와 전체와의 유기적 상호작용과 전체 속의 개체와 개체와의 유기적 상호작용 속에서 가능하여 지는 것이니, 군대를 형성하고 있는 장병 한 사람 한 사람의 맡은 바 책임의 완수 여부는 군대의 임무수행에 역동적(力動的) 영향을 미치게 됨을 인식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인간의 생존에 있어서 머리는 사고기능을 다 하고, 눈은 시각기능을 하고…… 각기 제 기능을 다 하는 곳에서 그 생명이 가능하여 지는 바와 같이 군대도 위로는 지휘관으로부터 아래는 말단 보초로 근무하는 사병에 이르기까지 각자에 응분한 책임이 있고, 책임과 책임과의 종합된 결과에 의하여 임무수행이 가능하여지는 것이다.

군대의 책임에 있어서는 그 가치의 높

고 낮음이 있을 수 없고, 질서의 차례나 성능의 구별이 결코 가치의 높고 낮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닌 것이다.

책임의 가치는 그 경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책임 스스로에 자기의 가치가 있는 것으로 이를 자랑스럽게 여겨야 하는 것이다.

사와 한 토막을 소개한다.

서양사상 유명한 「볼베이」 최후의 날 불비 속에서 끝끝내 보초의 책임을 다 하다 그대로 화석이 된 한 이름 없는 로마의 병사가 구라파 군인의 귀감이 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으며, 승리의 피보를 전달해 주기 위해 아메네의 한 병사가 마라톤의 먼 길을 끝까지 달려 책임을 다 하고 숨을 거둔 군인 정신은 아직까지 마라톤 경기 속에 불멸의 빛과 생명을 이어 주고 있는 것이다.

나 하나가 책임을 소홀히 함으로써 전체가 망하게 되고, 나 하나가 책임을 성실히 함에 전체의 승리와 안전을 찾을 수 있다 함을 항상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우리 모두가 나에게 맡겨진 책임을 성실히 다 하고, 나의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는 것이 곧 내가 속해 있는 군대를 위하며, 나아가서 나라와 겨레를 위하는 길임을 깊이 명심해 주기 바란다.

## ● 출선수범

그러면 우리들은 우리에게 부여된 책임 그것의 완수만으로 족할 것인가 하는 문제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전제 속의 나에게는 선후배 관계 외에 상관과 부하가 있으며, 가까운 전우와 동료가 있다.

이러한 중첩의 관계를 뺀고 내일의 병영생활을 영위하고 있는 우리들에게 맡겨진 임무, 책임의 수행을 좀더 창의적으로 쉽게, 빠르게, 의기롭게 사기가 양양된 가운데 이룩하게 하는 것이 바로 나와 남의 출선수범에세일 것이다.

부하가, 후배가 나 보다 먼저 무엇이든 출선할 때 나는 어떻게 행동해야 할 것인가 깊이 생각해 봐야 할 것이다.

능동적인 행동은 단체 또는 조직 속에서 생활을 하는 군인에게서는 무엇보다 필요한 것이라 하겠다.

책임의 성질이 동일한 것이라 해서 자기 책임을 돌보지 아니하고, 남에게 전가하고 남의 책임의 그늘에서 행동하려고 하는 행위는 특히 단체행동에 있어서는 단호히 배격되어야 하는 것이다.

만약 자기의 책임을 회피하고 남에게 이것을 전가시킨다면 그 결과와 여파는 무시운 것이다.

## ★ 우리의 위치를 정확히 알자 ★

이러한 결과를 방지키 위해 지휘관 자신의 솔선수범된 행동을 통한 감화가 특히 기대되는 것이다.

그리하여 지휘관은 모든 부하로 하여금 지휘에 따르게끔 자극하고 또 무엇을 행하여야 할 것인가에 대하여 구체적 사례에 접하게 할 수 있도록 행동상의 수범자가 되어야 한다.

병서 3락에 이러한 구절이 있다.

『군정(병사용 우분)을 아직 파지 못하면 상급자는 무마름을 이르지 않고, 군박이 아직 완성되지 아니하면 상급자는 피로함을 말하지 아니 한다.

군 취사가 아직 익지 않았으면 상급자 된 자 배고픈 것을 말하지 말고, 추위에 가속 옷을 입지 말고 여름에 부채를 쓰지 말며, 비가 와도 우산을 쓰지 말라.

이를 예장(禮將)이라 한다.』

남의 인격을 존중하여야만 자기의 인격도 자연 존중을 받을 수 있음과 같이 남에 앞서 스스로 행동함에 아름다운 기풍이 조성되는 것이고, 모든 사람의 적극적 참여가 이루어져 전체 군의 사명과 의무를 다 할 수 있는 것이다.

## ● 명령과 복종

그러면 이제까지 우리가 흔히 들어 알고 있는 명령과 복종의 본질은 무엇인가 살펴보자.

그리고 우리 군의 명령과 복종은 왜 엄정히 이루어지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인가?

첫째, 군대는 국가방위와 민족수호를 위하여 있고, 위로는 지휘관으로부터 아래로는 발단 사병에 이르기까지 엄정한 계통적 조직으로 구성되어 있는 조직체인 것이다.

이러한 막중한 사명을 수행하기 위하여 모든 개개의 장병에게 책임과 의무가 주어지고 명령이 존재케 되며, 나아가 그 명령의 절대성이 요구되는 것이다.

그리하여 피명령자는 집단적 행동으로써 군대의무를 다 하기 위한 상기한 바의 명령에 복종할 의무를 지게 되는 것이다.

『軍令如山』이란 말이 있다.

군대의 명령은 그 자체가 명령을 지휘관 개인의 자격으로서 발령하는 것을 초월하여 이것이 국가와 민족이 명령하는 소이이기 때문이다.

여기에 바로 명령의 저연성이 있는 것이다.

한편 명령에 있어서는 명쾌 과단한 판단과 신속한 조치가 따르는 명령이어야 하나, 그렇다고 하여 그것이 소홀한 것이 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반약 이러한 것을 소홀히 했을 때 명령에 대한 도피구실과 불이행의 상태가 결과로 따르게 되며 이런 악형식은 널리

과급되어 큰 일에 부딪혔을 경우 인무수행을 불능케 하는 결과를 낳게 되기 쉽기 때문인 것이다.

따라서 어떠한 상급 지휘관도 부당한 명령, 저시를 내리시는 안 되는 것이다.

이는 명령의 절대성을 부여키 위한 절대적인 조건인 것이며, 어떠한 부하장병도 일단 명령, 저시가 내리면 절대 복종할 의무가 있는 것이다.

다음으로 지휘관의 명령은 곧 조국과 민족의 명령이다.

동시에 나의 의무와 책임을 다 할 수 있도록 내려지는 명령인 것이다.

따라서 명령이 일단 내리면 곧 실천에 옮겨야 하며 이의 복종 수행에 만전을 기해야 하는 것이다.

요컨대, 군인은 조국을 위하여 있고 민족을 위하여 있으며, 명령은 군인의 이런 사명을 보다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있는 것이다.

자칫하면 소홀히 생각하기 쉬운 것이 집단 속의 나인 것이다.

군대는 개개인으로 구성되어 있고, 따라서 개인이 차지하는 지위가 중요함을 인식해야 한다.

나 하나의 책임의 결과가 전군, 아니 온 겨레의 안위를 좌우하게 됨을 굳게 명심하고, 명령에 복종하여 적극적으로 책임을 완수해야 할 것이다.

이것이 바로 나와 나라 사랑의 「알파」요 「오메가」인 것을 잊지 말자.

## • 전력증강과 정신무장강화

끝으로 그 중요성이 점차 높아가고 있으며 강조되어가고 있는 정신무장과 장병 개개인의 올바른 자세는 어떠한 방향에서 정립강화되어야 할 것인가.

그렇다면 정신무장이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며, 또 정신무장은 왜 필요한 것이며, 무엇 때문에 정신무장은 그다지 어려운 과제로 대두되고 있는 것일까.

주지하는 바와 같이 정신은 물질처럼 유행의 것이 아니다.

따라서 물리적 현상처럼 어떤 공식성을 부여할 수 없는 것이 정신의 영역이라고 하겠으므로 정신은 어떤 의미에서는 무한한 장폭을 가진다고 볼 수 있다.

어쨌든 어떤 공식성을 부여할 수 없는 무형의 작용을 하는 것이 정신이라고 하겠으나 이 정신은 그때 그때의 객관적 여건에 매우 민감하게 영향을 받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정신이 나약한 단점일 수도 있고 또 이것이 강인한 장점일 수도 있는 것이다.

「에머슨」은 이렇게 말하고 있다.

★ 우리의 위치를 정확히 알자 ★

즉 위대한 시대는 모두 신념의 시대였다고 한다.

이 말은 바로 신념, 즉 정신적 자세 여하에 따라 시대의 양상이 좌우될 수 있다는 것을 이튼 것이다.

우리는 전쟁사를 통하여 치절한 전란을 공고한 정신적 자세로 만미암아 승리로 이끌어 간 통쾌한 사례들을 수 없이 볼 수 있다.

이러한 정신사상의 사례들을 볼 때 정신무장의 소치는 결국 전쟁의 승패를 좌우한다는 논리가 성립되기도 할 것이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명심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은 정신무장의 소치가 전쟁의 승패를 좌우하는 전력으로 직결되는 것이 사실이라고 하겠지만 그와 같은 정신무장의 소치는 그때의 객관적 여건, 즉 정신적으로 강인할 수 있는 요건이 구비되어 있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정신무장이 공고한 군대는 그 별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다는 것을 무엇보다 중요시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다. 가까운 예로, 과거에 무적을 자랑했던 나치스 독일의 군대나 제국주의 일본군이 왜 그토록 강대했었는가 하는 것을 분석할 때, 물론 여러가지 원인을 들쳐낼 수 있을 것이다.

그 원인은 정신이 강인했기 때문이라는 것은 두 말할 필요도 없는 사실이지

만 도대체 그 강인했던 정신의 원천은 무엇이었는가 하는 것이 바로 문제가 아닐 수 없는 것이다.

일본군의 경우만 보더라도 그들은 어떠한 역경 속에서도 입전부퇴하며, 그럼으로써 신병까지 기꺼이 바치는 것을 최대의 영예로 생각하여 그 영예를 철저히 하기도 천황에게로 물리기를 사양치 않았던 것이다.

이와 같은 사고방식은 당시의 일본군에게 있어서는 하나의 신앙과도 같은 절대적인 신조로서 정신을 지배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육탄이 되어 희생되더라도 아무런 고통도 느끼지 않은 듯 죽음을 택할 수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이와같은 정신무장 강화책은 어디까지나 비인도적이며, 윤리성을 상실한 전근대적 방식이라고는 하겠으나, 그러나 여기서 철저한 신념의 소유 여부가 정신의 강약을 좌우한다는 진리를 보여준 것만은 어쩔 수 없는 사실이라고 하겠다.

그러므로 우리들에게 있어서 정신무장을 강화하는 데 무엇보다 전체적 요건이 되는 것은 민주주의를 신봉하는 이유와 공산주의와 싸우는 까닭이 어디에 있는가 하는 데 대한 철저한 신조를 교도하여야 된다는 점이다.

현재 우리는 공산 적피들과 엄연하게

대치하고 있으며, 6·25 전란과 같은 앞날을 예측할 수 없는 전란이 언제 어디서 야기될지 모르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무엇보다 대적 경각심에 투철하여야 할 것이며, 이른바 정신무장에 철저를 기하고 있어야 하는 것이다.

그러면 정신무장은 어떠한 분위기 속에서 기대할 수 있으며 또 이를 지속시킬 수 있는 것일까.

다름 아니라 정신무장은 쉽게 표현하여 내무생활로부터 파생되고 조성되어야 하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군 전체의 분위기가 정기(正氣)를 조성할 수 있고, 복무의욕을 북돋아 줄 수 있는 명랑하고 안정된 분위기를 갖추어야 하는 것이다.

즉, 무엇보다 중요한 상하간의 단결심과 전우애 정신의 교류가 있어야 한다.

이 상하간의 단결심과 우애정신이 최고 지휘관으로부터 말단 사병에 이르기까지 서로 인간적인 바탕 위에 교차되었

을 때 비로소 진정한 의미의 정신무장을 기대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여기에 지휘관의 인격적 통솔과 지휘로 말미암은 직접적인 교도가 보다 긴급하고 절실한 정신무장 강화의 요체가 된다는 것을 언급치 않을 수 없다.

지휘관의 현명하고 슬기로운 통솔이 있음으로 자율적인 군기확립이 형성되는 동시에 공고한 정신무장도 기할 수 있는 것이다.

정신무장에 대한 강화는 단지 구호로 떠들거나 벽의 '장식물로' '생각하기' 쉬운 전물처럼 생각할 시기는 이미 구세대에 속하는 이야기이다.

공산 괴뢰군과 대치하고 있는 현실에서 승공통일의 성업을 완수하는 그 날까지 우리들의 '지상과제'로서 확립되어야 할 가장 절실하고도 긴급한 명제가 정신무장임을 깊이 명심하고 나, 나 없이 모두 정신무장을 강화하는데 항시 끊임없는 노력을 집중하여야 할 것이다.

빈틈없는 임전태세

복피야욕분쇄하자



인화단결을 위한

올바른 인간관계와 자세 확립

— 최 홍 길 —

군대라는 하나의 집단이 지니는 역량은 그 구성원을 결속시킬 수 있는 기구조직의 상태, 구성원의 심리적 동향, 구성원간의 올바른 인간관계의 유지 등 여러 요인에 따라 달라지게 되므로 지휘관은 부대라는 하나의 집단현상의 연구에 기울리 하여서는 안 될 것이다.

특히 군대라는 하나의 집단이 지니는 성격, 구성원간의 교호작용에 있어서 자칫하면 아늑한 인간관계가 결렬되기 쉬운 것이 상례이며, 복잡미묘한 감정의 「뇌양스」로 얽혀 집단 자체의 역량을 감소시키는 예가 흔히 있다.

반면 지나친 인간성의 편중으로 말미암아 집단의 기강을 해치고, 집단의 존립자체를 위태로운 경지에까지 몰아넣는 예 또한 적지 않다.

그러하여 이 양자의 경우를 적당히 지양 조화시켜 어느 편에도 편중됨이 없는 방도를 택하여 하나의 목적하에 귀일시킴으로써 그 집단의 역량의 확보를 가능케 하리라 보는데, 군인의 길' 제 5항은 이 점에 대해 좋은 지표를 제시하여 주고 있다.

즉 「우리는 존경과 신애로 예절을 지키며 공과 사를 가리어 단결을 굳게 하고 생사고락을 같이 한다」라고 명시하고 집단생활 속에 있어서의 올바른 인간관계의 유지에 대해서 밝히고 지나치게 아늑한 인간관계의 유지로 자칫하면 빠

저기 쉬운 폐단을 지양하기 위해 지나지 않으면 안 될 관계에 대해서 올바른 지표를 제시하여 주고 있다.

이하 「군인의 길」 제 5항을 들어 군대의 역량을 최고도로 발휘할 수 있게 하는데 하나의 요인이 되는 집단 내의 인간관계의 유지에 대해 언급코자 한다.

인화단결은 누가 누구에게 희생되거나 지배받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하나의 대국적 중심을 향하여 선에서 점으로 일체가 집결하는 이른바 원심에 응결하는데 그 궁극의 목표가 있으므로 인화단결은 차원을 달리한 자신의 봉지와 안정을 가져오기 위한 기저가 아닐 수 없다.

그러나 인화단결은 계급의 상하를 가릴 것 없이 서로가 상부상조적 정신을 발휘하고 표현할 때 비로소 실현될 수 있는 것이다.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라고 한다.

고립된 독자적 생존을 영위할 수 없는 것이 사회적 동물이라는 개념의 내용일 것이다.

큰 사회는 큰 사회대로, 작은 사회는 작은 사회대로의 사회성이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것이 사회의 생리 그것인 것이다.

따라서 사회성에 대한 욕구가 사회의 테두리가 넓으면 넓을 수록 보다 적극적으로 보다 왕성하게 요구되는 것이다.

왜냐하면 작은 사회이든 큰 사회이든 사회는 개개인을 구성요건으로 하는 집단체라고 하겠으므로 작은 사회는 작은 사회대로의 사회성이, 큰 사회는 큰 사회대로의 사회성이 형성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이다.

더군다나 사회의 테두리가 넓으면 넓을 수록 개개인으로서의 각양각색의 독자적 생리가 상호작용함으로써 필연적으로 착잡한 양상을 띠우게 되므로 사회의 장폭이 넓으면 넓을 수록 균형과 안정을 위한 사회질서를 필요로 하게 되는데 이것이 이른바 사회 규범인 것이다.

그러나 사회 규범에도 인위적인 통제로서 형성되는 규범과 자연발생적인 규범이 있는데 전자는 곧 타율적인 규범이며, 후자는 즉 자율적인 규범인 것이다.

대체로 현대 사회는 문명수준의 정도를 가릴 것 없이 타율적인 규범과 자율적인 규범이 공히 병행되고 있으며, 문명수준의 정도가 낮으면 낮을 수록 타율적인 규범

## • 인화단결을 위한 올바른 인간관계와 자세 확립 •

이 강행되고, 문명수준의 정도가 향상됨에 따라서 점차적으로 자율적인 규범으로 이 향하는 것이 현대사회의 구조적 성향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어쨌든 사회는 개개인의 유기적 상호작용을 바탕으로 형성되는 것이므로, 전술한 바 자율적인 규범이든 타율적인 규범이든 하나의 규범적인 체도를 토대로 영위되고 있는 것이 사회구조의 어쩔 수 없는 현상이라고 하겠다.

그러나 이상에서 논술한 두 가지 형태의 규범은 본질적으로는 상반되는 것이라고 하겠으나 기실은 두 가지 규범은 다같이 인간 개개인의 자발적인 규범준수를 최구하고 있는 것이다.

요컨대 사회규범의 궁극적인 목적은 전체사회의 건전한 균형과 안정을 기도하는데 있으며 또한 그 규범의 [방편이 자율적인 것이든 타율적인 것이든 인간 개개인의 자발적인 준수에 의존하는 것을 이상으로 하고 있다.

그런데 인간 개개인의 자발적인 규범준수를 추구하는데 필요 불가결의 요인은 무엇보다도 개개인 상호간의 협화인 것이다.

어떠한 의미에서는 개개인 상호간의 협화 여부가 사회적 풍조를 형성하는 주요 여전이라고 할 수 있으므로 개개인 상호간의 협화 여부는 즉 사회성을 결정짓는 관건이기도 한 것이다.

소규모의 집단이나 단체가 조직성에 있어서 아무리 조밀하게 짜여져 있다 하더라도 그 집단과 단체의 구성원인 개개인의 협화가 결여된다면 응분의 조직력을 발휘할 수 없듯이 사회체제의 구조 역시 이와 같은 존재의 적용을 받게 된다.

물론 사회성의 형성요인을 광의의 시점에서 분석한다면, 정치체제와 경제적 환경에 민감하게 영향을 받는다는 것은 명백한 사실일 것이다.

물과 몇 식구 밖에 살지 아니 하는 가정에서도 은연중 관습적으로 행위상의 규범과 질서가 서 있어 가정이라는 하나의 소집단이 유지되고 있는 것이다.

하물며 군대와 같이 다수 인원이 한 곳에 모여 집단을 이루고 있는 곳에 질서가 없을 수 없는 것이다.

상하의 순서적 시열로서 그 조직이 이루어져 있는 군대는 이로 인하여 지휘-추종, 명령-복종의 관계를 규정하고 그 조직체를 강화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상급자와 하급자가 존재하게 되어 상급자는 상급자의 응분한 지능과 권능이 있고, 하급자는 하급지에 대한 응분한 지능과 책임이 있는 것이다.

이 상기한 직분을 그대로 인정하고 집단 전체의 임무수행을 위하는때 하나의 윤리가 세워지는 것이니, 이렇게 하여 세워진 윤리를 부정함은 군대라는 일사회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 것이다.

어떠한 소집단에 있어서도 이러한 질서가 존재하는때 하물며 군대와 같이 고도로 조직화된 대집단에 질서라는 것이 없을 수 없는 것이다.

그런데 가끔 기타 여러 곳에서 상당한 지위에 있던 사람들이 군기라는 하나의 집단에 소속하고 있으면서도, 이전의 상태만을 중시한 나머지 군기 지니는 질서를 무시하는 예를 찾아볼 수 있는데 이는 용납될 수 없는 문제라 할 것이다.

그러나 질서유지를 중시하고 지휘-추종, 명령-복종관계의 확립을 위하여 일방적으로 이를 강조한 나머지 비 인간적인 면으로 상하관계가 맺어지도록 하여서는 결코 안 된다.

한편 정치체제와 경제적 환경의 여건이 반드시 절대성을 지니는 것은 아닌 것이다.

도시 현실적으로 부유한 국가의 성장과정을 보더라도 애당초부터 정치체제나 경제적 환경이 건전하고 완비된 국가는 거의 드문 것이다.

오히려 혼미한 정치체제와 불비한 정치제도나 고르지 못한 경제식 빈곤 속에서 부강한 이상적 복지국가로 성장한 예가 허다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구미의 선진국들이 바로 이와 같은 사실을 웅변으로 증명하고 있지 않은가.

따라서 여건의 미비를 부릅쓰고, 조건의 빈곤을 넘어서 그토록 부강한 복지국가로 번영한 사례는 정치체제나 경제적 환경이 기필 부강한 이상적 국가를 형성하는 우위의 요인이 아니며, 절대적 요인이 될 수 없다는 것을 반증하는 좋은 표본이기도 한 것이다.

그렇다면 건전한 사회성을 형성하는 요인은 과연 어디에 있을까?

두 말할 것도 없이 사회구성의 단위는 어디까지나 개개인인 것이다.

개인과 개인의 복합적인 집체가 즉 사회를 형성하고 있는 까닭에 사회성의 발상적 인자는 어디까지나 개인이 아닐 수 없는 것이다.

따라서 개인의 사고, 행동은 곧 사회성을 결정짓는 단위가 되는 것이다.

다만 수많은 각 개인의 사고 행동이 연쇄적 복합체를 이루는 가운데 다수에게 공통하는 사고, 행동의 주류가 스스로 정리되어 등장하는때 이것이 이른바 사회성인 것

• 인화단결을 위한 올바른 인간관계와 자세 확립 •

이다.

이와 같이 규명하여 볼 때, 각 개인의 사고 행동은 물론이거니와 개인과 개인 상호간에 교차되는 배계적 성향이 매우 중요하다는 귀결점에 도달하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개인과 개인의 배계적 성향을 순화시키고 건전한 풍조를 조성시키는데 없어서는 안 될 것이 협화정신 곧 인화단결인 것이다.

그러나 협화정신 곧 인화단결은 스스로 마련되는 것은 결코 아닌 것이다.

어떠한 의미에서는 인화단결이 안이하게 형성될 수 없는 까닭에 인화단결의 치수가 높이 평가되고 더욱 더 결실한 육구의 농도를 절제 하고 있는지 모른다.

본래 인화단결의 필요성은 평상시보다 비상적 사태 하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요구되고 갈망되는 것이다.

그럴 수 밖에 없는 것이 개개인의 독자력으로서의 좀처럼 성취할 수 없는 어떤 비상적 상황 아래 있을 때, 다수의 더 나아가서는 전체의 공통력이 집중됨으로써 비로소 소 소기의 목적을 성취할 수 있으므로 협화정신 즉 인화단결을 필요로 하는 것이다.

제2차 세계대전에서 패배한 독일이나 일본이 단기간 내에 전쟁 전의 상태나 수준을 능가한 신흥국가로 번영한 주요원인의 하나는 전체국민의 협화정신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을 보아도 협화정신이 그 얼마나 중요한 영향력을 가진다는 것을 추궁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이 어떠한 당면된 난국을 급속하게 타개 극복하는 데는 협동적인 인화단결의 역량이 절대적 요건으로 등장하는 것이다.

그러면 인화단결은 어떻게 하면 가능할 수 있으며, 협화정신의 열매를 맺기 위한 접경은 과연 무엇일까?

협화정신이란 결코 희생정신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인화단결은 누가누구에게 희생되거나 지배받는 것을 뜻하는 것은 아닌 것이다.

다시 말하면 하나의 대국적 목표를 중심으로 하여 일체가 집결하는 것을 요구하는데 인화단결이 뜻하는 바 목적이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단결이나 협화의 모는 유아독존적인 자기중심 의식을 피하고 상호간에 점양함으로써 해결점을 모색하는데 그 궁극의 목표가 있다고 보아야 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인화단결이란 결코 어렵게 여길 아무런 근거조차 없는 것인지도 모른다.

어렵게 여기는 그 자체는 타협을 거부하려는 자기 중심주의적 배타의식에서 파생되는 불저각한 사고방식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것이다.

요는 선에서 점으로 집결하는 이른바 원심에 응결하는 자체가 곧 인화단결의 묘라고 하겠으며

인화단결의 양상은 그 속에 참여한 개개인의 소재를 보다 건전하게 다듬어 놓는 결과가 된다고 보아 무방할 것이다. •

전술한 바와 같이 인화단결은 하나의 대국적 목표를 중심점으로 하여 일체가 집결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인화단결은 어느 집단, 어느 사회, 어느 국가를 가릴 것 없이 요망되는 명제가 아닐 수 없는 것이다.

왜냐하면 군대란 본질적으로 강력한 통제력과 기동성을 명백으로 하고 있는 까닭에 군대에 있어서는 명령체통의 확립, 즉 지휘권의 확립이 절대성을 지니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군대는 지휘권의 확립을 토대로 한 강력한 통제력과 기동성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엄격한 계급제도의 응립이 불가결의 요소로 등장하지 않을 수 없으며, 이것이 또한 다른 집단과 다른 군대의 특성이기도 한 것이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명심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은 엄격한 계급제도의 응립을 통한 지휘권의 확립을 보다 건전하고 완전무결하게 하기 위해서는 제도 이전에 각 개인의 자발적 정신을 거점으로 한 인화단결이 가장 중대한 요소가 된다는 점인 것이다.

아무리 훌륭한 제도와 조직력을 가진 군대라 하더라도, 전체의 인화단결이 결여되어 있다면 그 제도와 조직력은 결코 올바른 구실을 할 수 없게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계급 그 자체에 존엄성이 있다고 생각하기 이전에 계급에도 거기에 상당하는 책임과 덕망이 수반됨으로써 비로소 계급의 존재 의의가 있다는 것을 시인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계급의식에 지나치게 집착함으로써 계급은 하급자에 대한 철저한 지배를 의미하는 것으로만 간주한다면 이는 결코 올바른 계급관념이라고 볼 수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상급자는 그 계급의 의의가 하급자에 대한 지배적 존재라는데 있다는 관념을 갖기 이전에 하급자에 대한 일체의 보호자적 책임과 선도의 덕성을 지녀야 할

• 인화단결을 위한 올바른 인간관계와 자세 확립 •

다는 것을 제1차적으로 생각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다.

물론 군대라는 하나의 집단이 지니는 성격상 자칫하면 상하의 관계가 비인간적인 면으로 치우치기 쉬운데 이러한 난점은 믿음과 사랑의 원리로서 지양시킴으로써 인간적인 것으로 되돌릴 수 있는 것이라 하겠다.

상급자는 하급자를 신뢰하고, 하급자는 또한 상급자를 신뢰하고 뿐만 아니라 동급자 간에 있어서도 서로 신뢰하는 호신의 기풍이 세워져 있는 곳에 또한 상급자는 하급자를 아끼어 사랑하고, 하급자는 상급자를 스스로 존경하는 곳에 마음의 두터운 장벽은 무너져, 아늑한 인간관계가 유지될 것이다.

자코와 같이 따뜻한 지휘관의 사랑의 빛이 모든 부하들에게 비치었을 때, 그들의 감자고 있던 심정은 일깨워 질 것이며, 부하는 진정으로 감격한 나머지 명령에 절대 복종으로 자기의 생명까지도 스스로 건질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그리하여 명령복종이 강요와 압력에 의한 형식적인 것으로 흐르지 아니 하고 자율적이고도 강력한 것으로 진화되게 되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이렇게 인간적 덕성을 통해서 하급자를 통솔하고 지휘함으로써 하급자는 스스로 상급자에 대한 의존심을 품게 되고, 상급자에 대한 복종과 아울러 상급자에 대한 존경심을 갖게 되는 것이다.

이와 같이 계급의 상하를 가릴 것 없이 서로가 인간적 정분에 입각해서 상부상조적 정신을 발휘하고 표현할 때 비로소 인화단결이 형성되고 계급의 존엄성이 옹립되고 더 나아가서는 지휘권의 확립을 기대할 수 있는 것이다.

앞에서도 이미 지적한 바와 같이 협화나 단결이란 결코 자기의 굴복을 의미하는 것은 아닌 것이다.

전체의 안정과 전진을 위한 대국적인 원심에 집결되는 것이 인화단결과 협화의 궁극이라는 것을 생각할 때 인화단결이란 글자 그대로 자원을 달리한 자신의 복지와 안정을 모색하는 길이라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명심해야 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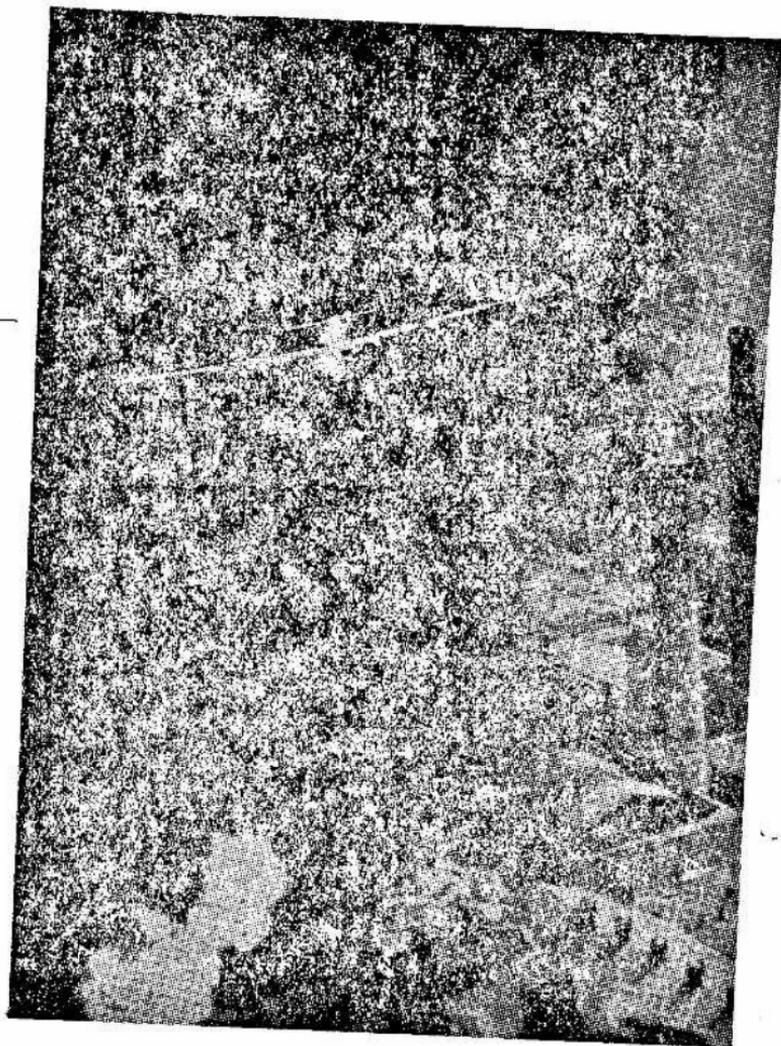
우리는 어느 군보다 국민의 신앙과 신뢰를 두터이 받고 있는 정예군이라고 자처하며 또 이와 같은 사실을 타로부터 아무런 차이없이 인정받고 있는 터이다.

그러나 이와 같은 명예스러운 평가를 영원토록 지속하기 위해서는 인화단결을 통한 공고한 정신태세의 기반 위에 구축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 승리의 그날까지

— 영국국민의 투지와 영·독 방공작전 비화 —

김 영 세 -역-



돌연 영·불 해협 상공에 새까맣게 나타난 나치스 독일 공군 전폭기 대 편대에 단 3대의 영국 공군의 하리케인기가 용감히 응전함으로써 영국본토를 둘러싼 하늘의 공방전은 개시되었다.

조국의 위기에 직면해서 영국 국민이 얼마나 용감하고 끈덕지게 싸웠던가?

여기 당시의 생생한 전황과 그 배경을 더듬어 조국과 자유와 평화를 위한 불굴의 투혼을 더듬어 본다.

제 2차 세계대전의 분수령은 영국본토 공방전이 었다.

1940년 7월 부터 10월에 걸친 불과 12주간의 싸움이 그 후의 전국 그리고 영국과 전 세계의 운명을 바꾸어 놓은 전기가 되었던 것이다.

1940년 4월 덴마크, 노르웨이에 침입한 나치 독일은 다음 달 5월에는 남쪽으로 전진하여 벨기에, 화란, 룩셈부르크 3국을 침공하여 불란서로 진격을 개시하였다. 그리고 한 달 후인 6월 10일에는 이태리가 참전하고 22일에는 불란서가 항복하였다.

유럽의 거의 전 지역이 독일군에게 석권되었으며, 미국은 아직 참전하지 않았을 때라 나치 독일군의 중앙은 총체적으로 영국에 향해져 독일군의 진격을 저지하는 것은 다만 영·불 간에 가로 놓여 있는 도버해협 뿐이었다.

실로 대영제국의 운명을 건 초비상전국이었으며 그것은 또한 영국인들이 직가를 발휘한 시기이기도 하였다.

1940년 7월 10일

오전 1시 40분

영국 공군 제 32중대의 하리케인 전투기 6대는 고도 3천 미터에서도 도버해협 상공의 초계선으로 진출하려고 하고 있었다.

도버의 흰 언덕이 흐린 태양벌에 눈부시게 빛나던 이 날 계기가 가뜰 찬 좁은 조종석 안에서 파일럿들은 분주하게 눈을 빛내고 있었다.

시계는 좋져 않았으나 그래도 왼쪽에는 영국, 오른쪽에는 불란서의 푸른 들판이 파노라마 처럼 펼쳐 있는 것이 보였다.

좁은 해협 한복판 즈음에는 영국 해군의 수송선단이 흰 항적을 남기며 대소 선박 전부가 식량과 보급품을 만재한 채 서서히 복상을 계속하고 있었다.

6대의 하리케인 전투기는 비와 구름에 부딪쳐 편대가 이산되어 3대씩 비행을 계속하고 있었다.

구름을 뚫고 시계를 다시 유지하자선 단 상공 도처에서 백색 탄막이 피어 오르고 있었다.

독일 공군의 공격이 분명하였다.

이 때 구축함은 대공포화의 포문을 열

어 삼시간에 탄막이 창공에 번져 나갔다.

『직 편대 4시 방향!』

여섯 집단으로 내습.』

이렇게 최우익기가 모교해 왔다.

하리케인은 즉시 급강하, 공격자세로 들어 갔다.

기지에서는 스피드화이어 전투기와 하리케인 20대가 요격 차 떠올랐다.

그런데 해협 상공으로 단력 올라간 스피드화이어의 조종사들은 이제까지 보지 못 했던 광경을 목격하게 되었다.

독일 공군의 100대의 전폭 연합편대는 3층으로 나뉘어져 완전히 영국 수송선단 위를 뒤덮고 있었던 것이었다.

최상층엔 뱃사슈미트기,

중층엔 쌍발 중전투기, 최하층엔 도루니에 폭격기가 날고 있지 않은가.

스피드화이어는 4000미터 까지 상승하여 최상층에 있는 뱃사슈미트 보기도 300미터 높은 위치에서 비스듬히 내리곤 지며 공격을 가 하였다.

이 때 기관총의 방아쇠는 잡아당긴 채로 최하층의 도루니에 폭격기군의 한부 판을 뚫고 나가 해면에 탄막 말막 한때 까져 강하하였다가 애기의 기수를 상승시킬 때는 탄창이 텅텅 비도록 총탄을 퍼부었던 것이다.

이렇게 해서 총탄 보급차 기지로 돌아갈 때면 스피드화이어 공부니에 뱃사슈

미트가 많을 때는 한 대에 6대씩이나 달려 들곤 하였다.

프랑스가 항복하고 영국의 싸움이 개시되기 까지 2주일 남짓한 사이에 독일 공군은 휴양과 부대 재편성을 끝내고, 프랑스와 벨기에의 각 전진기지에 전개를 시작하고 있었다.

당시 배치된 독일 항공기는 2669대인데, 독일군으로서 유리하였던 것은 광대한 지역에 산재하는 많은 기지를 자유로 사용할 수 있었던 점이였다.

한편 영국측도 전략적으로 불 배 이점이 없었던 것은 아니었다.

프랑스나 벨기에에서의 전투조건에 비교해서 십 나라인 영국은 확실히 이질적인 전쟁이였다.

도버해협 상공이나 해협을 넘어서 영국 본토 상공에서의 공중전의 볼리를 독일 측도 의식은 하고 있었으나 날이 갈수록 이것을 빠져리게 느끼지 않을 수 없었다.

독일군은 화란 항구에서 유럽 해안선을 끼고 북프랑스에 있는 여러 항구에 몇 백척이나 되는 대형선정을 이동시키고 있었다.

당켈크에서 부레스트 일대에 걸쳐, 또 부레스트에서 비스케만에 있는 여러 항구에 걸쳐서 이들 함정은 계속 집결되고 있었다.

그리고 다시 10척, 12척 단위의 대형 상선이 독일 해군의 엄호를 받으며 항구에서 항구로 은신을 해 가면서 도버해협 쪽으로 하행하고 있었다.

북은 함볼크에서 남쪽은 부레스트에 이르기까지 독일, 네덜란드, 벨기, 프랑스의 세 항구는 상당 수의 선박 집결이 보이고, 또한 놀웨이에서도 상륙용 주정의 준비가 진행되고 있었다.

독일군의 상륙작전을 예상한 영 본토의 방위는 징유군 만으로는 병력이 태반 부족하였다.

그래서 영국민들은 본토 방위대를 결성하여 시민들은 여기에 적극적으로 자진 참여 하였던 것이었다.

휴양지로서 범석래던 해안 모래바닥에 는 지뢰가 불여지고 바다에는 지뢰가

부설되었다.

도로 위에는 엄체호가 축성되어 예상되는 독일의 상륙작전을 맞아 거족적으로 싸울 준비를 단단히 하였다.

영국의 신문들은 연일 『어떻게 하면 영총을 유용한 병기로써 활용할 수 있을까?』를 해설하고, 또는 『어떻게 하면 자동차의 불 배아팅을 총탄으로 사용할 수 있을까?』를 보도 하였다.

미국 톰프슨회사로 부터 자동단총이 매주 선편으로 들어오기 시작한 것도 이 때였다.

그것들은 우선 육군에 보급되고 본토 방위대에도 양도되었는데, 우선권은 군에 있었기 때문에 본토 방위대의 무기는 상당한 기간 통일되지 못하고 잡다하기 짝이 없는 것이었다.

## 고 금 소 담

▲ 공평무사하게 모든 사실을 종합해 보자. 종이에다 요령을 써보는 것도 좋다. 기록은 체계를 세워주는 힘이 있다. 그리고 문제를 능히 해결할 수 있다는 신념을 반드시 갖자.

「아 나는 어찌할 도리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라, 쇠배의식에 몸과 마음이 풀리면 떠내려 가고 만다.

모든 생명이 빛을 향하듯 희망적인 방향으로 생각을 돌리자.

희망을 바라보고 희망에 대한 신념을 잃지 않는다면 무슨 문제나 해결할 수 있다.

(노만 필)

7월 10일 아침이 되었다.

행운의 뉴스가 전해졌다.

각 신문은 1면에 특호환자로 다칼작전의 대 전파를 보도하여 런던 시민들을 기쁘게 하여 주었다.

독일에 항복한 프랑스 전함 리슈리호를 영 해군이 다칼항에서 격침시킨 뉴스였다. 이와같은 회보와 함께 각 가정주부에게 호소하는 정부담화가 실려 있었다.

『주부 여러분,

항공기 생산성에 알미늄을 헌납해 주십시오. 우리는 가정에서 쓰고 있는 냄비나 솥을 가지고 비행기를 만들어 냅니다.

우리는 여러분이 알미늄제의 냄비, 솥, 주전자, 진공소제기, 그 밖에 무엇이냐 알미늄제품을 가지고 계시면 지체말고 부인 의용군 지방정부에 헌납해 줄 것을 바랍니다』

일반 대중은 이러한 담화를 읽고, 또 듣자마자 폐품 회수에서부터 현재 사용 중인 알미늄제품의 자진헌납에 적극 협력하였다.

비행기의 설계 및 생산을 항공기 생산성에게 빼앗긴 영 공군성의 불만은 컸다. 그러나 그와 같은 불만을 공군 최고 수뇌 가운데서 공격적인 면에서 반영시키지 않은 인물이 있었다는 것을 영국으로서

다행한 일이었다.

공군성의 수뇌는 별도로 하더라도 제 일선 지휘관들은 드디어 이 혁명에 찬의를 표하였다.

전투기 생산 우선방침은 필연적으로 다른 기종 생산을 압박하는 것이었으나 그들은 전투기에 의한 이 싸움에 승리하지 못 한다면 폭격기를 사용할 만한 전투는 있을 수도 없다는 사실을 연일의 격심한 공중전을 통해서 절감하였던 것이다.

전투기 대사령관 「다우딩」 대장은 실패가 싫어 드는 것 같은 조조감에 휩싸여 있었다.

프랑스가 항복한 이상, 독일 공군의 공격이 영 본토를 목표로 할 것은 명약관화한 일이었다.

영국 전투기대는 당켈크 철수작전과 프랑스 원조로 해서 전력이 늘어 숫적으로는 독일 공격에 비해 열세를 면치 못했다.

오늘 공격해 올지 내일 침공해 올지 영 국민들은 독일 공군의 내습을 불안에 찬 가운데 기다리고 있었다.

이때 독일군 자신이 휴양과 부대 재편성, 그리고 여기에 따른 전개를 위한 시간을 필요로 하였다는 것을 영국으로서 는 천우신조의 기회가 아닐 수 없었다.

미욱 「다우딩」 대장에게는 커다란 구원이 아닐 수 없었다.

당켈크에서 7월 10일에 이르는 동안에 비교적 완만한 전군의 추이, 그리고 7월 10일의 공격개기 부터 본격적 내습이 시작된 8월 13일 까지의 소강상태 등이 어느 의미에서는 이 기간의 공중전이 영 전투기대로서는 결호의 실무교육 기간이 되었던 것이다.

전투기로서의 공중전에서는 적기를 자국 영토에 끌어들이 싸우는 것과 적지에 출격해서 싸우는 것과는 질적으로 틀리는 것이다.

그 당시의 공중전만 하더라도 자국 영토 상공에서는 마음껏 활약하다가도 몸을 보아서 탄환보급, 연료보급 같은 것을 손쉽게 할 수 있었으며, 조종사를 교체시키고, 새로 항공기를 투입할 수도 있는 것이었다.

그리고 가령 피난하였다 하더라도 조종사만 부상당하지 않으면 낙하산을 타고 귀환할 수도 있는 일이었다.

본격적인 공중전을 수반하지 않는 소규모의 전초전에서 영국 공군은 이와 같이 본국 영토 상공에서의 전투 이득을 체득하였다.

그럼으로써 수의 열세로 그다지 문제꺼리가 안 되었으며, 오히려 자기들의 역량에 대한 자신을 더욱 굳게 하였다.

최전선에서 떨어진 곳에서는 공습경보의 사이렌도 듣지 못하고 적기 내습의 불

안파는 별도로 현실적으로 전쟁을 긴박하게 느끼지 않는 하루가 계속되었다.

이와 같은 소강상태는 「히틀러」가 영국과의 강타를 은밀히 생각하고 있었는데도 원인이 있었다.

불론 강화라고는 하더라도 「히틀러」가 구상한 엉뚱한 조건을 자의로 제시해서 즉, 영국 본토 공격이라는 출혈을 하지 않고서 적당히 전쟁을 종결시키려는 태도가 있었던 것이었다.

7월 19일, 「히틀러」는 군수처의 새로운 인사를 발표하였다.

즉, 「피팅」은 공화국 원수로, 「스파레」는 육군 원수로 자기 승진시켰다.

이들은 전쟁에서 눈부신 전공을 수립하는 것으로서 「히틀러」가 이 승진을 통해서 그들에게 표시한 기대에 보답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

「제공권의 완전확보」. 이것은 독일군 수뇌에게 부여된 모든 기대를 요약한 말이었다.

그러나 「피팅」 원수는 『우리 우수한 독일 공군은 9월로 예정된 영 본토 상륙까지는 이 목적을 달성할 것이다.』라고 자기 때에는 단단히 믿고 있었다.

그러나 독일 육군이냐 해군의 일선 지휘관들 까지 「피팅」의 이러한 망상에는 모두 등을 돌리고 있었던 것이다.

독일 해군은 공군 보다는 현실적이며

과장적인 것도 아니어서 당켄크 이래의 작전 지연이 항공전에서 조금씩 승리를 획득할 기회를 적게 하고 있음을 인식하고 보다 장기에 걸친 작전준비를 전력을 기울여 진행시키고 있었다.

『9월 15일을 영 본토 상륙작전의 DDay로 정하고 모든 준비를 진행시키라』 이와 같은 「히틀러」의 지상명령이 드디어 떨어졌다.

이와 같이 해서 독일 공군은 해양의 패자인 영국에 대해서 공전사 상 가장 대담하고도 당당한 임무가 부여되었다.

독일 공군은 비행기도, 파일롯들도 모두 도양작전으로서는 설계도, 훈련도 되어 있지 않는 영국전쟁에 투입하게 된 것이다.

이 뉴우스가 전해져자 독일군 장성들 사이에는 커다란 불안이 소용돌이 치기 시작하였다.

그 중에서도 가장 이러한 불안을 절감한 사람은 「엘하르트 미루히」 원수(육군)였다.

그는 전쟁이 시작되기 1년 전에 영국 공군을 시찰하고 그 우수성을 직접 보았던 것이다.

그래서 그는 「히틀러」에게 독일 공군은 영국에 대한 전쟁에는 충분한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고 경고하고 있었다.

더욱 독일 공군이 영국에 대한 공격준

비가 완료되는 것은 팔라도 1942년 경이 될 것이라는 것이 「미루히」의 주장이었다.

그러나 그렇던 「미루히」 원수도 구라파 대륙에서의 전격전이 눈부신 성공을 거두자 「히틀러」에게 지체 말고 영국 공격으로 옮겨야 한다고 요구하기에 이르렀다.

제 1차 대전 때 무공을 세운 「미루히」 원수 마음 속에 싹트고 있었던 불안은 영국을 향해 날아가고 있는 젊은 파일롯트들에게는 전혀 관계가 없는 것이었다.

그들은 자신만만하게 버기고 있었으며 또한 실재 그 당시에는 아직도 독일 공군의 황금시대이기도 하였다.

독일 공군의 파일롯트들은 활군의 전사들이었다.

그들은 영국 공군의 예비전투기대 보다 훨씬 규율 있는 군인들이었다.

그들은 자신을 가리켜 저희들끼리 강철같이 세고 굳세다고 떠들어 댔다.

그러나 그들은 너무나도 융통성이 없는 군인 기질에 가득차 있었으므로 사고 방식에 있어서 유연성이 있는 영국의 예비역 사관들의 머리를 길게 깔고, 군인 정신과는 양립할 것 같지 않는 자유주의 신봉자들과 맞부딪혔을 때는 물리한 입장에서 있었다.

이 사실은 전쟁에서 생존한 독일인도 아직껏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사실이였다.

그렇지만 영국 전쟁이 개시되었을 때 독일 공군의 사기는 절정에 달하고 있었다.

독일 공군이 수 년에 걸쳐 비밀리에 훈련을 쌓고 그와 같은 사실에 관해서 다른 나라에서 적당히 어물어물 넘기느라고 애를 쓴 독일의 노고는 결실을 거두었다고 할만 하였다.

영국에서 수 백만의 실업자를 전체 문해협정에의 파괴의 길을 머슴고 있을 때 독일은 장래의 세계 정복을 꿈꾸어 착착 공군 육성에 힘을 기울이고 있었던 것이였다.

그 때 프랑크, 화란, 룩셈부르크, 벨기, 룬웨이, 덴마크에서 방향을 바꾸어 영국에 넘버든 독일 공군은 작은 모체에서 20년이라는 세월에 걸쳐 육성된 것이였다.

지난 날의 이와 같은 실례는 오늘날에도 일부 사람들에게 독일의 재군비에 불안감을 느끼게 하는 원인이 되고 있었다. 1919년에 조인된 벨사이유 조약에 의해서 제 1차대전 시의 독일 공군부대는 해체되었던 것이다.

그러나 벨사이유 조약은 독일 민간항공공제의 장래까지는 규제하지 못했다.

그 당시 독일 항공의 장래에 대한 연합국의 유일의 거부권은 항공용 엔진, 항공기의 수입, 제작을 불과 6개월간 구속

하는 조항 뿐이였다.

이와 같은 조항에 의해서 장래된 6개월간의 침묵은 독일의 항공기 공업에서 항공기 제작을 개시하는데 있어서는 거의 아무런 장애도 되지 못했다.

그들 민간항공의 명칭은 도루니에, 하인켈, 융카스, 뱃사슈미트 등 흡사 1940년에 영국과 인연이 깊게 된 독일 군용기 명부름 보는 것 처럼 느려서 있었다.

특히 뱃사슈미트는 유명한데, 벨사이유 조약 이후 등사는 스포츠용 특종기 제작에 전념하였다.

이것은 1925년에 출현한 저 유명한 뱃사슈미트-109형 전투기의 모체가 되었다.

독일 공군은 장래의 비약을 은밀히 기약하면서 제 1보를 내디디기 시작하였다. 전쟁에 휘말려 들어간 영국은 벨사이유 조약 체결 직후에 시작된 이와 같은 사회발전이 전혀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다. 그 한 예는 얼핏 보기에 별로 의심할 여지가 없었던 독일 민간 항공구락부의 결성이 그것이다.

이 구락부는 조약에 서명한 잉크도 체마르저 많은 불과 6개월 후에 「레사」대위에 의해서 창설되었다.

그런데 그때로부터 20년 후 「레사」대위는 대장이 되고, 사섹스스주를 휩쓴 「켓셀링크」 휘하의 제 2항공함대를 지휘

하고 있었다.

「히틀러」가 정권을 잡기 까지의 13년 동안 항공기 공업의 전문가들은 항공기 생산을 계속하고 있었다.

「히틀러」가 이끄는 나치스당은 이 무기로서 구라파를 자기들 마음대로 굴복시키려 하였다.

서서히 쌓아 올린 독일항공기 전문가들의 노고는 이때 독일 공군력을 급진적으로 발전시켰다.

이와 같은 전력으로 제 1차대전의 승리자들은 힘의 입장에서 내려다 보려고 한 나치스 정권의 사고방식은 확실히 선경지명이 있었다고 하겠다.

영국 전쟁이 개시되기 6년 전, 전문가들은 「히틀러」와 「피팅」에게 영업주의 사업으로서의 공군을 제공한 것이었다.

그 당시 아직도 민간 항공회사 사장이었던 「미루히」 원수가 항공성 차관에 취임함으로써 민간항공의 통합은 더욱 촉진되었다.

이와 같은 통합에서 이루어진 위험하기 짝이 없는 망만이 자식이 그 모습을 세상에 드러내기 시작하였던 것이다.

영국이 대독 선전을 포고하기 5년 전 민간 항공기에는 후일 영국 개전 초기에 사용되었던 형이 이미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그 최초의 것으로는 융카스 52형 폭격

기였다.

스페인 전쟁에서 활약한 바 있는 이 융카스 52형 폭격기는 만능 수송기로서 등장하였다.

1935년, 영국의 「다우딩」 원수가 전복기대 사령부로서 알려진 새로운 방위조직을 만들 것을 명 받기 1년 전에 독일 공군은 공공연히 그 모습을 나타낸 것이었다.

독일 공군사령관에는 「헬만 피팅」이 취임하였다.

스포츠기를 생산하고 있던 뱃사슈미트 회사는 뱃사슈미트 109형 전투기를 독일 공군에 제공하였다.

바야흐로 공공연히 모습을 나타낸 독일 공군은 세계에 그 검은 그림자를 제시하여 차단되고 드디어 「히틀러」가 바란바와 같이 경외의 대상이 되었다.

그리고 독일 공군의 능력은 스페인 내란의 피비린내 나는 싸움터에서 처음으로 등장하는 투우사와도 같이 실지 시험으로 들어갔던 것이다.

영국 전쟁이 개시되기 4년 전, 독일이 스페인 내란에 개입한 것은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이 이야기에 큰 영향을 주었다.

스르카 급강하 폭격기가 공저협동작전을 실행에 옮긴 것이 곧 스페인 내란에서였다.

이것은 그 뒤 1940년 4월 뮤즈강에 연한 프랑스군 진지에 공격하여 폰크라이스트로 하여금 전 지상군을 도하작전에 성공시킨 급강하 폭격기에 의한 공군 공격의 예행연습이라고도 할 수 있는 것이었다.

뮤즈강 도하작전이 있은지 2개월 후 독일군은 이와 같은 싸움을 영국과도 최후까지 관철해 나가지 않으면 안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다.

독일은 영·불해협을 다만 뮤즈강을 났던 것에 불과하다고 생각한 과오를 범한 것이다.

영국으로서는 다행히도 독일의 급강하 폭격기나 고속 중형 폭격기의 성공이 기상이라는 훌륭한 비밀무기와 함께 전투기로서 결사적인 방공을 좁은 국토 위에 둘러칠 수 있는 섬 나라 영국에는 적용되지 않았다.

영국의 이 변화 많은 천후에 대해서 독일 공군은 거의 경험한 바가 없었으며 훈련도 또한 받은 바 없었다.

그 덕분에 영국 공군은 7월 한달 동안 전투기에 의한 방공이라는 해군 국으로서는 새로운 전투훈련에 몰두할 수가 있었다.

그야말로 영국으로서는 그 이상의 행운이 없었던 것이었다.

아득한 상공을 전투기 엄호 아래 독일

폭격기 대 편대가 영·불해협을 건너 올 때 이와 같은 대 편대의 목적은 선박을 공격함과 더불어 선박을 엄호하고 있는 영국 전투기를 격추시키려는 데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영국 측의 디렘마는 적의 공격에 대하여 영국본토의 다른 방위를 소홀히 하는 한이 있더라도 전력을 기울여 대응할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항공 평의회에 의해서 전투기 부대에 부과된 첫째 임무가 호송선단의 안전한 통행보장이나 호위가 아니고 항공기 공장 의 우선방위에 있음을 생각하여 전투기나 조종사를 해협상공 전쟁에 내보내지 않을 것인가 하는 것이었다.

7월 10일에 이르는 며칠 동안에 「다우딩」 원수가 지휘하는 방공전투기대는 전투기 15대 파일럿 9명을 잃었다.

「다우딩」 원수는 그의 지휘하에 있는 전투기가 영 본토 내에 들어온 적기는 공격한다고 하는 본래의 임무가 시작되기 전에는 조금씩이라도 소모되는 것을 두려워 하였다.

해상에서 독일 공군에 용간이 도전하고 영국 본토 상공에서 본래의 역할을 충분히 발휘하기 전에 커다란 손해를 입는다는 것은 결코 그가 원하는 바는 아니었다.

그러나 당시의 상황에서 볼 때, 우군 기 1대에 대하여 독일의 뱃사슴미트 101

9대가 뒤를 쫓는 형편에서는 영국 공군 조종사들은 이와 같은 사령부의 견해에 불만이 많았다.

전투가 시작된 이 단계에서 병력을 아끼는 방침을 내진다는 것은 잘못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고 해도 그것은 무리가 아니었다.

기왕에 해상에서 해군함대끼리의 전투와 마찬가지로 독일 공군의 대 편대를 대함에 있어 영국도 대 편대 전투기로서 이에 대항 하였다면, 독일 공군은 해상이나 연안지구에서 격파되었을 것이 아닌가 이렇게 의문을 품는 사람은 영국 전쟁에 있어서 중요한 전술상의 문제점을 건드리는 것이라 할 수 있었다.

영국 공군은 유례 없는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서 여러가지 곤경을 극복해 가면서 훈련을 쌓아 갔다.

영국 공군이 너무나도 맹훈련을 쌓아 가고 있음을 본 독일은 영국으로서는 천 우신조의 이 2개월 사이에 반드시 영국이 공격으로 나올 것이라고 믿을 정도였다.

그 당시 레이다는 그야말로 초보적인 발견단계에 있었다.

어쨌든 그 당시 레이다는 저공을 비행하는 비행기에는 아무런 역할을 못했으며, 고공을 날르는 비행기라 할지라도 정확한 산출은 불가능한 것이었다.

8월로 접어 들었다.

영국 본토 공격 준비명령이 내린 독일 공군은 그날이 오기만 고대하고 있었다. 『전투가 순조로우면 4일 후에 공격을 개시하라!』

「피링」은 8월 6일 이렇게 명령하였다.

8월 14일 까지 모든 영국 공군 전투기를 영국 남부에서 구축하라는 엄명이 「갯셀링크」와 「스파레」에 내려졌다.

8월 한 달 동안 영국 공군의 조종사들은 하루에 4·5회씩 적기요격을 위해 이륙하였다.

독일이 호연한 대거 공습일까지는 앞으로 5일 밖에 남지 않았으므로 적의 공격은 날로 격렬해 갔다.

대낮에는 약 400대의 독일 폭격기와 전투기가 도버해협 상공에서 수송선단을 공격하였다.

그 뿐 아니라 날이 밝기 전 즉 공습이 시작되기 전에 적은 쾌속 어뢰정으로 수송선단에 공격을 가해 왔으나 피해는 경미한 것이었다.

그러나 독일 공군의 목적은 수송선단의 선박을 침몰시키는 것이 아니었다.

해상에서의 공군전에 영국 전투기들을 유인해서 압도적인 수의 우세로 이를 무찌르려는 데 있었다.

8월 6일, 영국 공군의 사기는 충천하고 있었다.

독일군의 압도적인 수의 우세에도 불구하고 영국군이 용맹스럽게 싸워 독일 공군의 손해는 상당한 것이었다고 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당시의 전황을 정확히 알게 된 것은 전후 독일 공군의 기록문서가 발견되어서 비로소 판명된 것이다.

### 『독일의 대승리』

이러한 방축을 독일 국민은 똑똑히 들었으며, 영국 국민들은 이 전쟁이 공동 전으로 결정될 것이라는 것을 뼈저리게 느꼈던 것이다.

이와 같은 신비로운 예언은 적중하였다 그러나 이 진실을 받아 드림에 있어서 영국이 제공권을 확보하지 않으면 안 되었을가를 잊어서는 안 되었다.

그것은 영국 전투기부대가 존재하는 한 상륙작전을 감행한다면 반드시 영국 해군으로부터 강대한 반격을 받을 것이라는 것이다.

다음 2일 간은 비교적 평온하였다. 영국 공군은 8월 8일에 선진한 부대에 보내온 위문 축하편지로 해서 기쁨에 쌓여 있었다.

8월 12일,

일기가 맑아짐과 더불어 「다우딩」 원수의 준비기간의 제 2막은 끝났다. 「다우딩」 원수의 방위진에 대하여 제 1격이 가해졌으나 원수는 이 공격에 끈기

있게 견디어 전력 보전에 힘써왔다.

독일 공군은 레이다 정보망과 켄트주 안의 만스톤, 호킨지, 등지에 있는 기지에 쇄도하여 왔다.

8월 12일 포스마쓰 군함과 레이다 기지가 공격의 주 목표가 되었다.

시민들이 성서를 읽으며 기도하고 있을 때,

해군 병영이나 함정에서 「넬슨」계독의 피라는 램 주를 수병들이 호기있게 마시고 있을 때, 영국 전쟁에서 가장 가공할 만한 독일 공군의 내습경보가 울려 퍼져 나갔다.

8월 12일 포스마쓰 군함을 휩쓴 독일 공군의 급강하 폭격기대의 공격은 맹렬을 극하였다.

움카스-87, 움카스-88형은 항구로부터 침입하여 반복 급강하 폭격을 계속하였다.

그러나 독일 공군의 실제 진파는 별 것이 아니었다.

급강하 폭격기는 도버와 화이트 섬 사이에 있는 여섯 개의 기지에 공격을 가했으나 그중 다섯 개는 복구에 한 시간에서 다섯 시간 남짓한 시간이 걸렸고 한 개가 복구불능의 손해를 입었을 뿐이다. 레이다 사이트는 무방비 상태였기 때문에 곧 바로 공격을 받으면 전멸도리가 없었다.

물론 싸이트의 작전실은 견고하게 되어 있었지만 레이더의 급소인 안테나는 별거벗은 채로 었다.

독일 공군의 공격은 8월 8일 이래 압력의 도를 더해 갔으나 전면 공격일(이글·메이)은 약전후로 해서 지연되었다.

이것이 영국으로서는 두번째의 천우신조의 기뢰가 되었던 것이다.

제공권을 잡거나 못잡거나 저울척의 영·불협은 대규모의 상륙작전이란 생각할 수 없게 되어 있는 것이다.

독일 공군의 파일룟트들도 영 본토로의 낮은 출격경험을 통해 영국의 기상이에 상 이외로 번덕스러움을 너무도 잘 알게 되었다.

출격하기 좋은 날씨가 먼저간 정찰기의 통보로 막상 공격대가 출격하면 느닷없이 폭풍을 만나 어쩔 수 없이 도중에서 돌아오기 일쑤였다.

번신이 빨라 다루기 힘든 적이 바로 영국 상공의 천기였다.

그래서 독일군은 영국의 기상을 암호로 4B라고 하였다. 즉 상대방에게 있어 4배나 다루기 힘들다는 얘기였다.

독일군은 기상정찰기의 보고, U-보트의 관측보고, 거기다 영국의 기상 암호보고를 해독하여 기상을 판단하고 있었다.

독일 제 2공군과 제 3공군의 참모들

은 영 본토 상공의 기상판단으로 의견이 대립되어 있었다.

그래도 대부분은 작전발동에 지장이 없으리라는 의견이 었으나 시계불량을 이유로 강경하게 작전중지를 요구하는 일파도 있었다.

그 때문에 작전발동이 발령된 뒤 금방 중지명령이 내려졌다.

그러나 이때 중지명령이 제 1선 부대에 하달되었을 때는 공격부대가 이미 발진한 뒤였다.

이 날의 공격목표는 영국의 남부지구로서 독일의 급강하 폭격기는 하늘을 뒤덮을 만큼 대 편대를 지어 침입해 왔다.

독일 공군이 즐겨 사용한 전법에 원형진이라는게 있었다.

이것은 제 1차대전 중 서부전선에서 쓰여진 전법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즉 적을 아방의 원형진에 끄집어 들여 녹초가 되도록 지치게 만드는 전법인 것이다.

독일 공군기들은 고공에서 아침 안개를 연막삼아 해도 뜨기 전에 탬즈 강변에 다달았다.

독일기들은 방향을 똑바로 잡은채 목표로 진격하였다.

이스트 처치의 해안사령부가 적지않은 피해를 입게 되었다.

한편 제 2의 독일 편대는 훨씬 강한

영국 전투기들의 요격을 받았다. 즉 뎀즈 강구 앞에서 마침 선단호 위에 임하고 있던 노스 월드 기지의 1개 중대가 급보를 받고 달려 왔으며 크로이든 기지의 하리 케인 1개 중대가 시간을 대서 달려왔다.

이렇게 해서 격렬한 공중전이 한참 벌어지고 있는데, 서쪽에서 돌연 독일 병동 편대가 들어 닥쳤다.

그것은 진폭연합으로 된 2개 편대로서 각기 팬불의 비행기 공장과 오디함의 공군기지를 공격하려는 것이었다.

이들 적 편대에 사색스 상공에서 스피드 화이어 1개 중대가 뚫고 들어갔다. 독일이 이 날 목표로 한 것은 영국 남부 저구의 방위선을 베스트 하려는 데 있었다. 이 날 방위선을 탐색 당한다는 면에서 볼 때는 영국 전투기들의 요격상은 그다지 칭찬할 만한 것이 못 되었다.

영국 공군의 손실은 날이 갈수록 증대되어 갔다.

8월 8일에서 18일 까지 만 10일간 183대를 공중전에서 잃고, 30여대를 지상에서 파괴되었다.

항공기 생산상 「비바브룩크」경은 매주 100대 이상의 비행기를 제조하고 또 수리해서 임선기지에 배치시켰다.

그러나 보급 대수는 손실 대수를 따라가지 못했으며, 더욱 심각한 문제는 파일롯이었다.

조종사를 기계 만들듯이 할 수도 없었고, 그렇다고 훈련교육 중의 조종사에게 구실을 할 때까지 기다린다는 진국이 용서치를 않았다.

전투사령관인 「다우딩」대장은 독일 공군의 공격이 본격적으로 개시된 8월 13일에서 3일 후 파일롯트 보충을 위해 파견한 조치를 취하였다.

그것은 터무니 없는 노릇이라고 할 만한 것이었다.

그러나 이와 같은 결단이 영국을 구하였던 것이다.

「다우딩」대장은 해군함대, 항공기, 공군 폭격기대, 연안방위대에게 파일롯트 차출을 요구하였다.

그들 대부분의 조종은 한 몫을 하지만 전투조종사로서는 아무런 경험도 없는 사람들이었다.

그러나 그들을 제외하고는 누구를 이 위난에 대처시킬 수도 없는 노릇이었다. 「다우딩」대장과 제 11사단의 「파크」소장은 「비바브룩크」경의 본을 따서 필요한 일을 전화로 해결하는 방식을 취하였다. 그렇지 않으면 급한 불을 끌 수가 없었다.

「다우딩」대장과 「파크」소장은 13일 밤 지체없이 런던에 전화를 걸었다.

런던에서 전화를 받은 「비바브룩크」경의 답변은 두 사람에게 용기를 북돋아 주었

다. 그는 비행기 보급을 확약하였다. 「비바르크」 경이 비행기 보급 대수가 몇 대라고 약속하면 반드시 기한까지 도착하여 한 번도 약속을 어긴 적이 없었다.

그렇지만 파일롯트는 손쉽게 보충되지 않았다.

「다우딩」 대장은 공군성에 몇 번이고 전화를 걸었으나 동 참모부는 이에 그다지 신경을 쓰려 하지 않았다.

공군성 참모부는 적의 상륙작전을 예상하고 폭격기, 파일롯트를 최대한 확보하려는 심산이었다.

그래서 「다우딩」 대장의 요청은 들어진 않았고, 이래서 시방은 타협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

「다우딩」 대장은 폭격기대에서 20명, 공저협동 비행대에서 33명의 파일롯트를 확보하여 놓았다. 이들 폭격기 조종사들은 불과 6일 간의 숙성훈련을 마치고 방공 최일선에 나가게 되었다.

8월 15일, 이 날 독일 공군은 무려 영국에 1,786회나 공습을 감행하였다.

불과 하루 동안에 이만한 공격을 가해 온 것은 전 전쟁기간을 통해서 그 예를 볼 수 없는 일이었다.

독일 공군은 동부전선의 몇 개 부대를 예봉고는 모든 작전병력을 이 날 전투에 투입하였다.

영국 공군에게는 이미 낮이 익은 제 3

공군과 제 4공군, 그 밖에 놀르웨이, 덴마크에 주둔하고 있는 제 5공군 까지 동원된 것이다.

이날 날이 밝자 전일과 마찬가지로 적기가 정찬 차 날와 왔다.

그들은 판에 박은 듯 매일 그 시각에 찾아 왔다. 이 날도 전일과 마찬가지로 별다른 기색을 찾아 볼 수가 없었다.

오전 11시 반, 급강하 폭격기와 전투기의 혼성부대가 켈트주 해안 상공에 그 자태를 나타냈다.

적의 급강하 폭격기대는 매우 정확한 폭격으로 호킨지 기지와 솜 기지를 맹타하여 48시간 동안 작전불능 사태로 빠뜨렸다.

「파크」 소장이 지휘하는 제 11사단으로서는 타격이 아닐 수 없었다.

비행기에 몸을 싣고 허둥지둥 이륙해서 한판 싸우고 돌아오면 또 적습이 있곤 하였다.

이런 경우를 몇 번 되풀이 하였는지 모른다.

지상 근무자들도 마찬가지로였다.

눈이 돌 정도로 땀이 내렸다 하는 틈을 봐서 연로나 탄약보급을 하기에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하였다.

이제까지 비교적 평온하였던 북부영국에 까지 독일 공군의 손이 뻗기 시작했다.

정오가 조금 지나서였다.

영국 공군의 레이다는 뤼스만 밖 160 킬로에 독일 편대가 접근해 오는 것을 탐지 하였다.

이리하여 즉시 경보가 발령되어 제 13 사단 제 72중대의 스피드 화이어 5대가 출격하였다.

이 때 레이다의 추정으로는 적기 20대에 불과했다.

영국 공군의 레이다는 상당히 정확히 적기의 내습을 캐치하였으나, 안타깝게도 그 당시의 레이다의 정도로는 내습해 오는 적기의 대수까지 정확히 판단할 수는 없었다.

제 72중대의 스피드 화이어 전투기는 예상보다 엄청나게 많은 근 백 여대의 하잉켈-111형 폭격기와 70대의 멧사슈미트-110형 전투기 틸바구니에 끼어 들었다. 5대의 스피드 화이어는 삼시간에 적의 포화를 받아 깊은 인기를 품으면서 추락되었다.

그러나 이 분수 없는 공격으로 적의 대 편대는 두 갈래로 갈라졌다.

그 갈라진 틈새를 겨누어 이번에는 제 79중대와 뒤이어 제 41중대, 나시 혼쳐치 기지에서 응원 차 달려온 제 605중대, 제 607중대의 각 전투기가 연달아 달려 들었다.

연달은 영국 전투기들의 대들기 전법

에 언제까지 상대하였다가는 몰아갈 엔료가 없어지기 때문에, 멧사슈미트기들은 적당히 기회를 봐서 일제히 기수를 돌려 쾅무니를 빼기 시작하였다.

그 다음 날 부라이스·노트에 내습한 독일 공군의 공습으로 지상에 준비하게 늘어서 있던 옥스포드 연습기 46대가 완전히 녹아 버렸다.

폭격기 2대가 두 개의 격납고에 직격탄을 퍼부어 그 안에 있던 46대의 비행기가 완전 파괴된 것이다.

비행기를 분산시키지 않은 것을 뼈저리게 절감시킨 좋은 예가 되었다.

「비바부룩크」경이 옥스포드기를 분산시키지 않은 이유를 조사하였을 때 관계관의 답변은 다음과 같았다.

『옥스포드기는 목제이기 때문에 습기가 차서 격납고에 넣어 건조 중이 있습니다.』

8월 24일 밤, 런던시 서단 어둠 속에서 시민들은 불길하고도 비명과 같은 음향을 들었다.

공습경보의 사이렌이 날카롭게 울려 퍼졌다.

런던 공습의 뉴스는 런던 시민은 말할 것도 없거니와 「헛틀러」까지도 놀라게 하였다.

그 이유는 「헛틀러」는 불과 수일 전 독일 공군의 일부가 런던 중심부에 가까운

크로이튼에 폭탄을 투하하였다는 보고를 받고, 그 부대 지휘관을 검색처분한 직후였다.

그러나 이와 같은 파오가 전국의 귀추를 크게 변동시킨 결과가 되었다.

영국이 다음 날 81대의 폭격기로 백림 야간 보복폭격을 결행하였기 때문이다.

이 영 공군의 보복출격은 전쟁이 시작될 이때 최대 규모의 것이었다.

이때 출격 폭격대원들은 『만약 목표가 발견되지 않으면 폭탄을 투하하지 말고 귀환토록 하라』는 조심성 있는 배려에 의한 지시령 받고 있었다.

「히틀러」는 독일 공군에게 즉시 보복폭격을 연일연야 감행할 것을 명령하였다.

이 이야기에서는 많은 미묘한 가정이 성립될 수 있는데, 영국 전쟁을 둘러싼 가정 만큼 취급하기 힘들고, 많이 생각하게 하는 것은 달리 없을 것이다.

만약 독일 공군이 이 작전을 계속하였다면, 그리고 만약 독일 공군의 보급이 끊어지지 않고, 조종사의 사기가 유지되어 있었다고 한다면 영국은 언제까지 견디어 낼줄지 모를 일이다.

이와 같이 심각한 문제에 처한 「다우딩」 대장은 지휘상에 있는 전투부대를 부득이 분산 배치 시켰다.

그리고 「비바부르크」 경은 흡사 마법의 힘이 파도 밀린 것 처럼 「다우딩」대

장 앞으로 전투기를 보내 왔다.

이러한 수성보급을 받은 영국 전투기대가 거둔 전과는 「독수리의 날」이 지난 직후 파일 대장이 말한 것 처럼 진짜 기적이었다.

「독수리의 날」 부터 9월 6일에 걸쳐 영·불해협을 건너 내습하는 독일 공군의 격심한 공격에 내맡겨진 이들 기저는 반신불수에 가까운 타격을 받아, 기저전투기대의 후퇴도 불가피하다는 상황에까지 빠져 있었다.

그리고 독일 공군은 9월 7일 기적적으로 그 공격의 중심을 이들 전투기대까지로 부터 비군사적인 런던을 목표로 공격의 방향을 돌렸던 것이다.

독일 공군의 제공권 획득에 대한 도전이 영국 공군이 전술적으로 취약성을 지닌 이들 기저에서 응전할 것을 결정하고 더구나 독일 공군의 공격을 만신에 받은 이들 여러 가지의 운명이 아슬아슬한 판국에 독일 공군의 압력이 일전하여 광막한 런던으로 향해진 것은 그야말로 영국 전쟁생 동태서 최대의 기적이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전투기대에 대한 공격이 앞으로 2주간만 더 계속되었다고 하면 제 11전투사단은 술이 끊어졌을 것이다.

「독수리의 날」에서 6째 되던 날 독일의 「피링」 원수는 공중전투를 런던에서

진 영국 본토로 났힐 것을 명령하였다.

독일 공군이 노린것은 공습경보의 싸이렌을 발새도록 울리게 해서 영국사람들을 잠을 못 자게 하고, 항공기 공장의 야근 공원들로 하여금 긴장 끝에 녹초가 되도록 만들자는데 있었다.

또한 독일 공군의 야간폭격은 영국 방공조직의 가장 큰 약점을 노정시켰다.

그것은 야간 전투기와 대공화력의 문제였다.

야간 전투기의 활약에도 불구하고 4 일 간의 전투에서 독일 폭격기의 격추는 불과 4대에 불과했다.

이 시대의 고사포라는 것은 거창한 소리에 비해서 성능은 형편없어 시민들에게 안도감만을 줄 뿐이었고, 야간 전투기만 하더라도 당시는 아직 수색용 레이더 설비가 없어 그저 만일의 행운을 바라고 날아 다닐 뿐, 고사포가 그대로 민을 만한 형편이었다.

유일의 민을 만한 것은 완전한 등화관제와 영국의 기상, 그리고 야간폭격에는 서투른 독일 공군의 기술 뿐이었다.

그렇지만 영국 공군이 독일 공군의 라디오·비콘 전파를 반사하는 신발명의 방해장치를 완성함으로써 피해를 극한시킬 수 있었다.

독일 제 3공군의 야간공격이 활발해진 것은 런던 주변에 전개하고 있는 「파

크」 소장 지휘하의 제 11사단을 위기로 몰아 넣었다.

독일 공군의 슈파르 부대의 멧사슈미트 109전투기는 중폭격기 부대의 활약으로 손이 놀게 되어 「켓세링크」 휘하인 제 2공군 증원에 전전해 갔다.

「켓세링크」가 그들을 크게 환영한 것은 말할 것도 없다.

「켓세링크」는 그야말로 폭격기를 목까지 보내고 귀환하는 것은 물론 상한 비행기가 있으면 해턴 상공에 전투기망을 퍼서 보호할 수도 있게 되었다.

전투기에 의한 서비스는 이것으로 완전한 것이 되었다.

그러나 「슈파르」 지휘하에 있는 전투기를 손에 넣은 기쁨은 오래 가지 않았다. 「켓세링크」에게는 새로운 고민거리가 생겼다.

멧사슈미트 110형 쌍발 증전투기의 성능의 결점이 그에게 가공할 사실을 알린 것이다.

그것은 영국 본토 상륙작전을 간행한다면 맹렬한 공중작전을 어느 기간 계속하지 않으면 안 되는데, 멧사슈미트 110은 빈약해서 연속적으로 쓰기에는 견딜 수 없는 것이었다.

더구나 대작전에 써 먹기 위해서 제 1선용 전투기가 가까운 장래에 보급될 가능성이 없는 것이었다.

전후 독일 측의 전사를 연구한 어느 전문가는 영국이 결정적인 공중전에서 승리를 거둔 전기를 어디서 구할 것인가 라는 명제에 대하여 참으로 이 사기가 그 전기였다고 생각하고 있다.

오늘 날 서독 공군의 고급장교로 있는 전 독일 공군의 파일롯트 한 사람은 『영국은 지리적으로 공군 공격에 대해서 견호의 지리를 점하고 있다』고 전제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맑은 날씨라고는 볼래야 볼 수 없는 그 악천후는 말할 것도 없고, 발이 정연하게 구획되어 있어 공중에서 언뜻 보기에는 꼭 비행장만 같아 자연의 위장을 잘 갖추고 있었다.』

자연적인 악조건, 영국 공군의 전투기, 영국 본토에 흩어져 있는 레이더 동능만 생각 하더라도 제공권을 잠을려고한 독일 공군의 기도는 처음 부터 희망이 없는 것이었다고 그는 말하고 있다.

서독 공군에서는 다음과 같이 가르치고 있다. 즉,

「다우딩」 대장은 좌오를 범하였다.

그는 해안에 연한, 그리고 독일 공군 기지로 부터 공격을 받기 쉬운 남서 잉글랜드의 제 기지 방위에 몰두 하였다.

이제서 비교적 안전한 런던 후방의 기지에서 대 편대로 런던 상공을 지키지를 앓았을까?

그렇게 하면 시민들에게 불안감을 덜어 주었을 것이고 그런 연후에 전투기 때는 전쟁에 나섰으면 좋았을 것이 아닌가』

또 다음과 같은 논평도 있다.

『이들 후방 공군기지는 독일 공군으로부터 결코 피면적인 타격을 받을 염려는 없었다.

왜냐 하면 독일 공군의 쌍발 폭격기군 영국 상공작전에는 부적당한 것이었다.

더구나 단발 전투기는 항속거리가 짧으며, 쌍발 전투기는 성능이 나쁘다.

영국 공군 후방기지를 철저히 지키 수 있는 비행기는 그 당시 독일 공군에는 없었다.』

전시 중이거나 전투를 통해서 영국 국민들이 영국 전쟁에서의 자람은 양적으로나 질적으로나, 열세의 위치에서 적을 무찔렀다고 하는 말하자면 [거인 골리아드와 다비드]의 신화적인 것에 있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9월 7일 점심때쯤,

독일 공군은 「히틀러」가 명령한 런던 주간목적의 준비를 서둘고 있었다.

그리고 그날 오후 늦게 독일 공군은 런던 상공에 쇄도해 갔다.

목표는 템스강 연안에 늘어서 있는 제 유시설과 왕립 병기창이었다.

이 런던 공격에는 폭격기가 연 6백대

전투기가 3백대나 참가하였다.

런던에 도달하기 까지 그들은 거의 저항다운 저항을 겪지 않았다.

불 붙는 런던은 사람의 슬수로는 도저히 구제할 길이 없을 것 같았다.

그 뿐 아니라 야간폭격에 대한 자위조치는 없는 것이나 다름 없었다.

그러한 가운데 9월의 하루 하루는 지나갔다.—

9월 7일 이래 위기에 처한 런던을 구할 수 있었던 것은 영국전쟁 초기에서와 마찬가지로 영국의 독특한 악천후와 어떤 난경에서도 굴하지 않는 영국인들의 용기와 적응 능력이었다.

9월 11일, 「파크」소장은 제 11일 전투기사단 지상관제관에게 새로운 지령을 내렸다.

『대거 내습에 대처하는 전술에 관하여』라는 제목하의 지령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음 지령의 목적은 제 11사단의 전투기 증대를 가능한 한 항상 2개 중대씩 한배 합쳐서 최대의 전투력을 발휘코자 하는데 있다.

1. 스피드 화이어 중대는 저 전투기대에 배치한다.

2. 하리케인 중대는 적의 폭격기 내지는 근접 업호기에 대처한다.』

아니나 다를까, 9월 15일 아침 독일 공군은 해협미안에서 대 편대를 짜기 시

작하였다.

그러나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렸다. 이 시간을 이용해서 영국 제 7사단에 속하는 지상관제관은 눈코 뜰새 없이 사단예하에 있는 각 중대의 합작편성을 서둘러 그것을 유리한 지점에 배치하였다

런던 후방에서는 가장 시간적으로 여유가 있었던 제 12전투기사단의 사령관 「레이·마토리」가 빈틈없는 태세로 기다리고 있었다.

오전 11시, 그 동안 독일 공군의 공격을 면한 영국의 레이다망은 불란서 연안 상공에서 『공중 무적함대』라고도 할만 한 독일 공군의 대 편대가 이루어져 가고 있음을 쫓아내었다.

영국 전투기 17개 중대는 지체없이 떠올라 유리한 고도에 배치되었다.

항공기공장 방위는 언제나 최우선 되어야 할 임무였다.

독일 제 2공군의 제 1진을 맞이한 것은 도버해협 상공의 초제인무를 맡은 스피드 화이어 전투기대였다.

이 요격전에 잠시 후 매이트·스톤 상공에 있던 하리케인 전투기대가 합류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독일 편대는 그대로 전진을 계속하였다.

그 동안 다시 4개 중대의 하리케인이 달려왔다.

저시대로의 편대로서 독일 공군의 소

위 『무적함대』에 공격을 개시하였다.

그래도 독일 공군의 대 편대는 런던 상공에 도달하였다.

탄창이 열리면서 기분 나쁘게 번뜩이는 폭탄이 전통을 자랑하는 런던시에 마구 떨어졌다.

기수를 돌려 독일 편대들이 기로에 접어들려고 할 때, 이 날 최대의, 아니 영국 전쟁을 통해서 최대의 영 공군 반격이 시작되었다.

맨 처음 공격을 시작한 것이 제 12사단 전투기 60대 였다.

조종사들은 영국에 망명하고 있던 폴랜드, 캐나다, 영국 등의 혼성 전투부대로서 선봉과 같이 독일 편대에 덤벼든 것이다.

기수를 돌리기 시작한 독일 편대는 이 일격으로 간담이 서늘해 졌다.

허둥지둥 간신히 편대를 유지하면서 일제히 도주하기 시작하였다.

그래도 독일 공군은 싸움을 포기하지 않았다.

3시간 후 제 2진이 런던 상공에 도달하였을 때, 영국 공군의 방공 전투기대는 또 다시 태세를 완벽해서 멸적의 기도 왕성하게 대기하고 있었다.

런던의 전면에는 200대의 전투기대가 각기 빈틈없는 편대를 짜 가지고 잔뜩 버티고 있었다.

그 한 복판으로 독일 편대를 쫓고 들어 왔다.

독일 폭격기들은 1대당 거의 3대 꼴의 호위 전투기가 붙어 있었다.

9월 16일, 영국 공군성은 이날의 전과를 발표하면서 다음과 같이 적고 있다.

『공중전에서 격추한 적기 185대, 그 중 7대는 지상포화로 격추』라고 발표하였다.

전후 독일 공군의 기록과 독일 공군장교에게 확인해서 정확히 집계한 결과는 56대였으나, 그 당시 56대 만이라도 충분한 전과였다고 말할 수 있다.

일요일 즉 9월 15일에 영국 공군은 독일군의 영 본토 침공 가명과, 평화 교섭의 기를 풀어 올리려는 「헛물러」의 야망을 완전히 절단시켰던 것이다.

이제 독일은 12주간에 걸친 영국과의 전쟁에서 모든 공군 병력을 동원할 대로 동원한 것이었다.

그것도 그럴 것이 「헛물러」를 위시한 독일 수뇌들의 의견은 어쨌든 하루 빨리 영국으로 하여금 평화교섭에 응하도록 만들기 위해서 였다.

그러나 7월에 영·불해협 상공에서 전개된 독일 공군력의 과시에도 불구하고 영국은 조금도 당황한 빛을 보이지 않고 교섭 유인에도 하등의 반응을 나타내지 않았다.

그래서 8월에 독일 공군은 영국의 전투기 전력을 때려 부숴려고 대들었으나 오히려 무참한 실패만 맛 보았다.

그러다가 9월도 다 갈 무렵, 독일 공군은 런던 상공에서 강력한 영국 공군 전투기의 저항을 받은 것이었다.

이와 같은 새로운 국면의 전개는 「히틀러」를 중대한 디렘마에 빠트렸다.

즉, 영국과의 전쟁이 끝나기 전에 소련과의 전쟁이 시작된다고 하면 그야말로 그 중의 전면작전을 전개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

그렇게 된다면 앞 뒤로 공격을 받아야 한다는 불리한 결과로 될 가능성이 있었다.

「히틀러」는 영국과의 전쟁이 끝나면 계속해서 다음 해에는 모스크바로 노도와 같은 진군을 개시하려 계획하고 있었다.

10월에 접어들어 독일 공군은 영국 본토의 항공기 공장에 집중공격을 가해 왔다. 이 공격은 영국으로서 유례없는 타격이었다.

런던시에 대한 가치없는 보복공격 보다도 훨씬 깊은 치명상을 줄 수 있는 위협한 최후의 반격였다.

이 공격과 병행해서 독일의 자령인 보드에 의한 해상 봉쇄작전도 더 한층 강화 되었다.

U-보트의 해상 봉쇄 강화로 영국은 공

업용 원료 수입에 커다란 위협을 받았다. 그러나 이미 수입되고 저장된 재대로 지체없이 신품 비행기가 생산되었으며, 수리되고 정비된 비행기가 공장에서 쏟아져 나왔다.

독일이 이것을 절단시키기는 이미 때가 늦었던 것이다.

비구나 영국은 전 항공기 공장을 분산시킬 계획을 벌써부터 행동으로 옮기고 있었던 것이다.

「비바부르크」 경이 생산상에 취임한 것은 그 해 5월 중순이었다.

그러나 그때로부터 그는 자기 직책을 통하여 조국에 눈부신 공헌을 하였다.

그의 책임원수는 타협을 허용치 않는 철저한 것이었다.

여러가지 면에서 눈부신 개선이 이루어져 나갔다.

그는 그때의 긴급한 요청을 분명히 계산하여 자기 임무의 분수를 명확히 알고 있었다.

이와 정비례해서 그는 미움과 다툼질을 많이 하게 되었다.

그 하나는 당사가 전성이었던 전투기용 부로닝 기관총을 20미리 기관포로 바꾸자는 그의 주장이었다.

그러나 기관포를 장비한 하리케인형 전투기가 지체없이 전쟁에 투입된 것은 먼 목 약역한 「비바부르크」 경의 즉시 행동

주의를 응변으로 말하는 좋은 예였다.

어느 때는 이런 일도 있었다.

기관포를 장비한 하리케인 주익부분만 2백대분을 생산하였다.

다음은 등재 신품이 도착할 것을 기다릴 뿐이었다.

그러나 그는 기다리는 것을 거부하였다.

그는 이미 생산되어 사용하고 있는 2백대의 하리케인 전투기에서 주익을 떼어 내도록 명령하였다.

즉, 목은 기체에 새로운 기관포를 장비한 주익을 달려는 것이었다.

이렇게 해서 예정 보다는 몇 주일이나 빨리 기관포를 장비한 하리케인기는 전쟁에 투입될 수 있었다.

영·독 전쟁은 10월 31일에 끝났다. 그러나 제 2차 대전의 규모는 점점 확대

될 징조를 보여주고 있었으며, 전 세계적 전쟁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다가가고 있다.

그러나 어쨌든 영국 전쟁은 끝나고 영국민들의 생활에는 직접적인 위협은 사라졌다.

BBC방송의 여섯 시 뉴스는 다시 경마 중계를 시작하였다.

대포에서는 전쟁과 공습의 참화를 말해주는 온갖 처참한 잔해들을 말끔히 치워 나가기 시작했다.

당시 수상 [처칠]은 이 전쟁에 다음과 같은 찬사를 바쳤던 것이다.

『이와 같은 제 기구의 정상에서 우리 전투종중사들의 정력과 용기는 시종일관 정복될 수 없는 것이었다.』

이렇게 해서 영국은 다시 살아났다.

## 고 금 소 담

※ 성공에 대한 욕심의 하나는 이기심인데 이기심이 강한 사람은 그 이기심에 걸리어 결코 성공하지 못 한다.

실사 조그만 성공은 거들지 모르나 그나마 잠정적인 것이며 결코 지속하지 못 한다. 대체로 승리의 조건은 정직, 공정에 있지 이기심에는 없다.

<칼 힐티>

# 절약은 최대의 재산



김 성 태

물자소비에 있어서 물자문 아끼고 이를 값지게 사용해야 한다함은 비단 근대에서만이 적용되는 문제가 아니라 전 국민이 다 같이 실천에 옮겨야 될 범국가적인 대 명제인 것이다.

우리나라의 경제 실정이 외원 의존적 성격을 완전히 불식하지 못하고 있고 더욱 점차적인 외원의 삭감으로 인하여 자금자족적 경제성장으로 옮겨가는 과정에 처해 있기 때문에 긴급제정과 아울러 물자 절약의 긴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도 절실히 요망되고 있다.

이러한 국가 전반에 걸친 경제적 상황은 근대에서도 그 영향이 미치게 되어 바야흐로 군수물자의 선용과 절약이 시급한 문제로 등장되고 있는 것이다.

더군다나 우리나라 경제형편에 비추어 볼 때, 60만이라는 대군을 유지하고 있다는 의미에서 군수물자의 절약은 필요물가결의 요건이 아닐 수 없을 것이다.

본시 물자소비에 대한 절약은 결코 물

자소비의 억제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다시 말하면 물자소비에 대한 절약이 긴요하다고 하여 필요소비에 대한 억제를 의미한다고 하면 이는 기능의 제약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억제와 절약은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것을 우선 알아야 할 것이다.

그러한 의미에서 절약은 효율적인 소비를 뜻하는 반면에 억제는 소비에 대한 무조건적 제약을 의미할 수도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억제와 소비에 대한 올바른 판단을 함으로써 절약이 목적하는 바 참 뜻을 살리는 데 유의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그렇다면 물자 절약은 어떻게 하여야 하며, 물자의 선용을 위해서는 어떠한 자세가 필요하겠는가 하는 것이 문제점이 되어야 할 것이다.

얼른 생각할 때, 물자의 선용이나 절약의 필요를 느끼는 것은 물자가 풍부하

저 못한 경우에 한해서 제기되는 명제처럼 생각하기 일쑤이다.

그러나 물자의 선용이나 절약은 반드시 그러한 환경과 조건에 정비례되는 것은 아니다.

다시 말하면, 물자가 풍부하면 풍부한 수록 물자에 대한 가치가 저하되는 것처럼 생각하기 일쑤이지마는, 그러나 다른 의미에 있어서는 물자가 풍부하면 풍부할 수록 물자에 대한 이용 가치관이 보다 고차적이 된다는 것을 간파할 수 없을 것이다.

한 예를 든다면, 세계에서 부유한 국가로 손꼽히는 미국의 경우를 볼 것 같으면, 것처럼 국민소득률이 높고, 부유한 생활을 하면서도 그들은 매우 검소 검박한 생활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러한 예는 비단 미국 뿐 아니라 독일이나 영국이나 그 밖에 부유한 선진 국가의 국민들이 거의 공통적으로 나타내고 있는 현상인 것이다.

이처럼 부유한 생활을 하는 선진 각국의 국민들이 얼른 생각하기에는 호화스러운 생활을 하고 있는 것같이 보이면서도 실상은 매우 검소한 생활을 하며 소비의 절약을 하고 있는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

그들이 물자의 부족으로 내림생활을 하고 있는 것일까?

결코 그런 것은 아닌 것이다.

그들은 물자의 이용가치관에 있어서 는랄만큼 타산적이고 분석적이라는 것을 반증하고 있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필요 이상의 소비를 극도로 억제하고 필요부분의 소비만을 일삼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단 하나의 물자라도 효율적이고 값지게 이용하므로 생활은 검소한 것 같으면서도 매우 윤택하고 여유있는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것이다.

맹목적인 소비억제가 아니라 공리적이고 타산적인 안목으로 물자를 이용함으로써 물자의 가치도를 높이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다.

이제 논저를 우리들의 처지로 돌려서 생각한다면, 우리의 경우는 이와 같은 경향과는 정반대의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는 인상을 주는 것이 엄연한 사실인 것 같다.

우리의 처지가 물자면에 있어서 곤궁한 경우에 있다는 것은 자타가 공인하는 사실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물자의 소비면에 있어서 지나치게 낭비적인 경향이 농후한 것이다.

정부에서 국민 전체에 대한 내림생활을 강조하고 있는 소이도 우리들 자신이 낭비적인 경향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면서 비롯되고 있음을 알아야 할 것이다.

## <절약은 최대의 재산>

축자는 말하기를 국민소득들이 타국에 비해서 현저히 낮은 우리의 처지에 있어서 더 이상의 내핍생활이란 있을 수 있느냐고 말한다.

그러나 냉정히 우리의 생활자세를 과다하게 볼 때 우리가 내핍해야 될 여지는 너무나 많이 있음을 쉽사리 살필 수 있는 것이다.

그러한 의미에서 우리는 근본적인 문젯점에 있어서 생활자세를 시정하는 것이 무엇보다 선결문제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러한 문젯점에 입각해서 생각할 때 군대에 있어서의 소비절약은 더군다나 중요한 과제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 . — . —

앞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군사 국방비의 지출은 우리나라의 경우에 있어서는 거의 천문학적인 액수를 나타내고 있으므로 군사비의 규모 여하가 우리나라 국가 재정면을 크게 좌우하는 것은 재언을 필요로 하지 않는 바이다.

그러므로 소비의 절약, 물자의 절용은 무엇보다도 군대에서부터 비롯하여 우선 시범되어야 마땅한 것이다.

한 예를 든다면 장병 각자가 하루에 단 1원에 해당하는 종이 한 장을 절약한

다고 치면, 하루에 총액 60여만원이 절약되고 이것을 1개월 실천에 옮긴다면 1,800원이 절약되고, 1년 간이면 놀랄게도 2억1,600만원이라는 거액의 절약을 가져올 수 있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되는 것이다.

이와 같이 단 한 장의 종이를 절약하는 결과가 국가 재정상에 엄청난 영향을 끼친다는 것을 생각할 때 물자절약의 필요성을 더욱 절감케 하는 것이다.

그러나 물자절약에 있어서 무엇보다도 핵심적인 문젯점이 되는 것은 물자를 다루는 마음가짐이라고 할 것이다.

왜냐 하면 물자를 다루는 본거가 어디까지나 인간 개개인이며, 한 사람 한 사람의 자 개인이 곧 물자소비의 단위가 되고 있기 때문에 물자절약의 효율성은 곧 사용인의 심리적 태도에 전적으로 달려있다고 할 수 있는 것이다.

미군의 경우를 보면 중요한 물자에 그 물자의 가져표를 붙이고 있다.

그 이유는 그 물자의 가격을 표시함으로써 그 물자의 소중함을 인식하게 하고 그럼으로써 취급상의 조심성을 유발하게 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한다.

어떻게 생각하던 이러한 방법은 우수 팽스럼기 짝이 없는 부질없는 방법같이 생각될 수도 있겠으나, 그러나 귀중한 물자에 대한 취급상의 조심성을 유발하

는데 그와 같은 방법이 실질적으로 좋은 성과를 거두고 있다는 것을 생각할 때 이를 결코 부질없는 일이라고 웃어 넘길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다.

이와 같이 물자의 선용이나 절약은 어디까지나 그 물자를 취급하는 사용인의 정중하고 진저한 자세에 의해서만 기대될 수 있는 것이므로 이는 우리가 본받아야 할 좋은 점이라 생각되는 것이다.

아름은 물자를 절약, 애호하는 것은 누구에게나 있어야 할 생활자세의 기본인 것이며, 이는 더군다나 군대에 있어서 절실히 요망되는 당면된 과제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나라는 바야흐로 자주 자립경제의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 범국민적인 총역량을 기울이고 있으며, 이를 위하여 내핍과 물자절약에 애진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는 국제적으로는 공산세계와 접경하고 있고, 언젠가는 반드시 민족의 숙원인 국토통일을 성취해야만 하며, 국내적으로는 산업개발에 총력을 경주하여 국가재정과 국민의 생활향상을 기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다.

이러한 중대과업에 당면하고 있는 우리들로서는 내핍생활과 아울러 물자를 애호 절용하는 것을 그 제일의적 요건으로 삼아야 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물자 선용의 정신은 범국민적으로 충만되어야 하겠으나 국가 재정에 막중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군사비의 절용이 무엇보다도 긴요하다는 점에서 우리들 각자의 물자 애호정신과 절용 절약정신은 절대적인 요건으로 간주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우리는 여러가지 점에서 넉넉지 못하다.

그러나 이 넉넉지 못한 빈곤은 영원히 구제될 수 없는 빈곤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우리에게도 보유했을 수 있는 소지는 얼마든지 있다.

나만 부유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우리들 각자의 마음가짐에 달려있을 뿐인 것이다.

그러므로 현재의 빈곤에서 하루 속히 탈피하고 이 빈곤을 극복할 의향이 있다면 우리는 당면된 빈곤에 단식하기 이전에 하나의 물자, 한 개의 물품이라도 아끼고, 값지게 사용함으로써 산업개발과 자립경제 진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재정의 여지를 마련해야 하는 것이다.

절약은 최대의 수입이며, 절약은 최대의 재산이라는 말은 그러한 의미에서 우리들의 행동 지표가 될 수 있는 하나의 진리이며 교훈이 아닐 수 없는 것이다.

★★★★

지휘 지침 해설

지휘각서 제 1호

—지휘관리실—

★★★★

1. 전통적인 통솔방침 방식의 지양

일반적으로 목표와 방침이 혼용되고 있으나 공군이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가 핵심이 되고 이를 성취하기 위한 정신가조 또는 방법의 선택 기준이라는 의미의 지침(방침)을 좀더 광범위하게 제시함으로써 요는 목표 추구에 귀일시키려는데 있다.

물론 같은 목표라도 그 달성을 위한 지침에 따라 업무의 양상이 달라지는 것임으로 지침의 중요성 또한 저대하다. 이렇게 보면 지침이란 다분히 개성적인 것으로서 리이더쉽의 인격적인 표현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공동목표의 추구라는 차원에서 최고지휘관이 제시하는 방향감각과 역점을 살리면서 각급지휘관이 취할 수 있는 독단 활용의 여지를 분명히 하려는 것이 방침의 의도이다.

엄밀히 말해서 목표와 방침이 명확히 구분되어야 한다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2. 공동목표의 설정

따라서 누구나 알 수 있는 명확한 목표를 내걸고 의욕적으로 이를 추구하게 함으로써 각자의 능력을 개발하고 정예화하여 그것이 결집한 힘으로 작용할 때 의적 변화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실

1. 전통적인 통솔방침 방식의 지양

2. 공동목표의 설정

가. 정병강군

나. 임전태세 확립

3. 목표 달성을 위한 지휘지침

가. 기본지침

나. 운용지침

다. 행동지침

라. 시행지침

4. 결 론

질적인 전력화가 가능하다고 볼 수 있다.

한편 소위 5개년 계획상의 계획목표(PO)나 연도별 운영계획상의 목표가 없는 바는 아니나 이를 좀더 보편화 시킨(비밀구분이 안 된 상태) 내용의 객관적인 목표의식이 장병 개개인에게 아필할 때 임무 수행면에서 좀더 구심력 있는 강한 군대가 형성된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 가. 정병강군

정병이란 「우수하고 강한 군사」를 말하며, 강군이란 「싸우는 힘이 강한 군대」를 의미한다.

첫째, 공군의 장병이 일반적으로 우수하다는 것은 객관성이 있는 타당한 말이다. 왜냐하면 비교적 경쟁률이 높은 지원제를 창군 이래 적용해 왔고 학력으로는 신체적으로 볼 때 대체로 고르기 때문이다.

따라서 공군의 구성 요원이 각각 우수하니까 강하다고 주장할 수 있음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다.

그러나 한편 생각하면 개개인이 우수하지만 그러기 때문에 약한 군사로 전락할 가능성이 또한 얼마든지 있다는 면을 경계해야 한다는 것이다.

즉 공군에 입대한 동기나 복무자세에 있어서 지나치게 자기중심적이거나 이기적일 때 개개인이 우수하다는 요인 때문에 오히려 강군의 요소에서 결격되게 마련인 것이다.

즉 블루유니폼이 좋고 훈련이 심하지 않고 비교적 취미에 따라 공부할 수 있으니 공군에서 병역의무 기간을 배우는 것이 Plus라는 견지에서 군복무를 하나의 수단으로만 생각하게 될 때 약졸이 되고 마는 것임을 알아야 한다. 이는 비단 사병뿐만 아니라 장교의 경우도 대동소이한 점이 없지 않을 것이다.

요는 공군에 복무하는 목적이 곧 강군으로 기여하는데 있음을 한시라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더구나 공군이라는 임군의 특성을 바로 이해하고 유감없이 전력화하는 일에 적극 참여하고자 하는 자세로 엄정한 군기와 높은 사기를 유지하지 않으면 강한 군대란 존재할 수 없는 것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 나. 임전태세의 확립

임전태세 확립이란 「전쟁에 나아가는 상태와 형세를 바로 잡는다」는 뜻이다. 현대전에 있어서 우리 공군이 치루어야 할 역할은 첫째 전쟁역제력으로서의 효능이 있어야 하고 각종 공중작전에 즉각 적용할 수 있는 작전수행능력을 전지하는 일방 여하한 기습공격에도 살아 남을 수 있는 고도의 임전태세를 바로 잡는데 있음을 특히 강조하지 않을 수 없다.

왜냐하면 고가한 장비와 이를 다루는 국보적인 조종사와 각종 정비사 및 기술자들을 확보하는데 필요한 선행기간이 길 뿐 아니라 후방지원과 기지건설 등에 막대한 비용이 소요되는 반면 적의 신계공격을 허용했을 때 취약성이 크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전국 각지에 산재해 있는 Rader Site를 비롯한 각 기지의 보안과 자체방어 문제 등 고도의 임전태세를 유지하려면 아직은 기본적인 일이 너무나 많다.

그러나 요는 공중경계태세를 들쭉날쭉이 유지하면서 각종 장비를 운용하는 가운데 예상할 수 있는 모든 작전에서 이길 수 있도록 전술전기를 연마해야 하는 것이며 일차적으로 현존 전력의 극대화를 성취하는 가운데 비로소 궁극적인 자주방공을 위한 증강책도 실효성있게 마련될 수 있다고 보는 것이다.

따라서 전술한 두 가지 목표는 상호 불가분리의 관계가 있음을 알 수 있다.

## 3. 목표 달성을 위한 지휘지침

기본적으로 창의력을 발휘하여 임무를 완수할 수 있어야 함을 강조하고 그 중에서도 향후 2, 3년간 공군이 지향해 나가고자 하는 방향과 역점을 무고자 하는 부분을 지적함으로써 힘의 결속을 호소하고 과잉의욕도 좋지만 근내외에 주는 Image를 고려한 지각있는 행동을 촉구함으로써 불필요한 부작용을 지양하려 했다.

또한 이 모든 일의 시행 단계와 계획 집행 평가의 관리체제를 살릴 수 있는 인사균기의 배신책을 제시했다.

### 가. 기본지침

목표달성에 필요한 기본요소인 공군의 임무와 역할에 대한 바른 이해를 추구하고 부대성격에 따라 창의적이고 발전적으로 임무를 완수하는 일에 전력을 기울이도록

하기 위한 기본적인 지침이다.

① 공군의 공격적 특성을 고도로 유지한다.

공군의 특성을 한 마디로 표현하면 공격적이라 할 수 있다.

즉 활동범위로 보아 공격적이며(멀리 있는 적지에서 행동가능) 기동성이 좋고, 유통성이 있으며 속도가 빠르다.

따라서 침투능력이 비상하며 화력운반 또한 가공할 만하다.

그러나 이와 같은 잠재력을 화력화하면 방공경보망의 기능유지 출동 및 재동시 간의 단축, 조종사와 정비사의 상시 대기, 공격목표물의 연구, 전술 전기의 연마, 기지보안, 전력보호 등 그 밖에도 의식주에 따르는 제반 지원업무가 원활히 움직여야 함을 의미한다.

② 제 작전능력을 빈틈없이 수행할 수 있는 전비태세를 갖춘다.

공군의 공격적 특성을 살리는데 그칠 것이 아니라 실력행사에 들어갔을 때 그 실효를 거둘 수 있는 확증이 가능해야 한다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똑같은 공격적 특성을 자랑하는 적의 공군력으로부터 허를 찔려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그리고 대간첩작전에서 요구되는 협동작전시 결정적인 실력행사가 가능해야 한다는 것이다.

③ 자주 방공 능력을 증진한다.

지금까지 북괴의 공군력에 비해 아축이 열세임을 면하지 못하고 있으나 적어도 자주 방공할 수 있는 수준까지 공군력을 증강하는 각종 계획을 활발히 추진해야 한다는 것이다.

현재는 지원공군 세력(미 공군)에 의해 이 GAP이 Cover되고 있으나 정작 전쟁이 발발했을 때 피해를 입을 곳은 우리 국토이므로 좀더 거시적인 안목에서, 우리 스스로의 힘을 기르고 자위할 수 있는 수준까지 증강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소위 현대화 계획의 일환으로 우리가 받아야 할 장비와 인질을 즉각 전력화 할 수 있는 태세를 갖추어 나아가야 하는 것이다.

④ 국가안보상의 공군의 역할(억제력 공중우월에 의한 제 영향력)을 감당할 수 있는 내외적 여건을 조성한다.

현대전의 특성은 공격이 방어보다 우위를 차지한다는 점이라 할 수 있다.

특히 공군력에 의한 파괴수단과 정밀공격의 과학화에 따른 공격의 절대우위성은 방어개념의 성립을 곤란케 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복피에 의한 공중위협을 고려하여 지위권 행시에 충분한 능력을 갖추어 나가는 일에 어떠한 진전이 있어야 하겠다. 즉 목표지향적인 군대의 성립을 위한 전력의 크기나 힘의 형태를 재 조정하지 않으면 안 된다.

요는 여하한 기습공격도 이를 저지할 수 있고 살아남을 수 있는 단계까지는 공군을 증강하고자 하는 내외적 여건을 조성하여 국민적 합의를 얻어서 단시일 내에 해결해 나가는 일이 병행되어야 공군으로서의 임무를 다하는 바 된다는 것이다.

## 나. 운용지침

임무수행과 역활을 다함에 있어서 운용상 필요한 지침의 취지는 같은 일을 하더라도 역점을 머리에 두느냐에 따라서 그 장래성이 매우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하다.

더구나 주한미군감축을 둘러싼 국군 현대화 문제와 같은 국방상의 전환점에 처해 있는 현실임을 감안할 때 좀더 독자적인 실질본위의 대비태세를 재정비 강화하는 단계라고 보아야 하겠다.

다시 말하면 현존전력의 극대화를 바탕으로 보다 새로운 장비와 병력과 기술을 확보하여 효율과 능률을 기하자는 것이다.

또한 대내적인 사기를 높일 수 있는 시책을 내외로 강구하려는 것이다.

① 작전운용 체제 및 태세를 강화하기 위하여 전락전술 개념을 조정하고 기구개편, 부대 개 전개 그리고 제 지원분야의 연구발전과 관리개선에 힘쓴다.

조격의 피해를 극소화하고 즉각 대응할 수 있는 태세와 능력을 갖추므로써 실질적인 전쟁억제력이 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우선 실시 가능한 전락개념의 조정, 기구개편, 부대개전개 등을 비롯하여 제지원분야의 연구 발전과 비용대 효과를 높일 수 있는 관리개선에 힘쓰자는 것이다.

② 증강계획을 촉구하고 조종사 양성을 증대한다.

증강계획을 촉구하되 그 선행기간을 고려하여 정기적인 조정을 가하는 한편 당장 우리가 할 수 있는 조종사 양성에 있어서는 미리부터 인원을 증대시킨다는 것이다.

그러려면 훈련비행기의 확보를 비롯한 조종장교후보생의 선발, 교육, 임용, 활용 등 외에도 병력수준조정(T/O) 시설 기타 고려 사항이 적기에 해결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그리고 증강계획의 순조로운 실행을 도모할 수 있는 기존기지의 확장과 신기지 개발 등에도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려는 것이다.

③ 정신력에 중점을 두어 지휘하고 능력과 실질을 숭상하는 교육과 훈련에 입한다.

순자는 전략의 기본적인 요소로서 정신력(도)을 말하고 크라우제비츠는 정신적 요소라 하여

가. 지휘관의 자질

다. 문화의 사기

라. 정신력

라. 국민의 단결 등을 지적하였다.

한편 나폴레옹도 「전쟁에 있어서」 정신력과 물질의 비율은 3:1이라고까지 극언하여 정신적 요소가 제 요소 가운데서 결정적으로 우월하다는 것을 말하였다.

정신력과 유사한 표현으로는 일치단결, 전의 사기 적개심 상하일체 영 등이 있다.

정신력이란 장·사병이 지휘관과 같은 뜻을 가진 상태를 말한다고 한다.

장·사병이 장관과 더불어 뜻을 같이 한다는 것은 그의 상관의 의도와 공적인 욕구에 가장 가깝게 사고하고 행동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더구나 강압에 의한 타율적인 것이 아니라 자율적으로 순응하고자 할 때에 비로소 군대에서는 진정한 정신력이라는 것이 발생하고 존재하는 것이다.

예컨대 오늘날 이스라엘 군대의 강점으로 그것이 예찬되고 있지만 우리 공군도 특히 이 점에 착안하여 대사에 능력과 실질을 숭상하는 교육과 훈련을 병초에 쌍도록 중점을 두어 지휘하려는 소위가 여기에 있는 것이다.

④ 장기적인 안목에서 우수한 인재가 공군에 집결하게끔 군내부의 사기를 향상시

키고 아울러 대외적인 시책을 강구한다.

궁극적으로 전쟁은 사람이 하는 것이므로 우선 우수한 인재들이 계속 공군에 매력  
을 느끼고 일하기 위해 남고자 하는 분위기가 되어야 하겠고 한편 계속해서 우수한  
인재들이 공군을 선망하고 지원 해오게끔 힘써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대내적으로는 일선 조종사를 비롯한 직접 작전지원 요원들의 처우개선과  
기저촌 건설 등 기본적인 작전 요구량 충족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되 대외적으로는  
CAP 운영에 대한 적극지원으로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항공사상 양양면에 힘쓰고  
민간 항공업체와의 유대도 강화한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군이 일반으로부터 천시되거나 비난을 받거나 냉담한 반응을 받게 될 때  
에는 군이 필요로 하는 장병들을 유치할 수 없기 때문이다.

#### 다. 행동지침

공군이 군내외에 주는 이미지에 대해서는 세심 강조할 문제가 못되지만,  
그러나 일을 제아무리 잘 해도 좋은 이미지를 주지 못했을 때의 폐단을 아울러 피  
하는 것이 군부의 사기를 올리는 결과가 되며 더 잘 하고자 하는 격려가 됨으로 장  
병의 일거수 일투족이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것이다.

실로 민주군대의 강점은 국민과 군이 밀착하여 있다는 감정에서 비롯된다고 해도  
과언은 아닌 것이다. 따라서 요는 신뢰할 수 있는 공군이라는 이미지는 장병 자자가  
국민들 마음 속에 심어줄 책임을 느끼고 행동하라는 것이다.

#### ① 정예공군이라는 강한 이미지를 내외에 과시한다.

승리의 역사는 정병주의에 의해 이루어진 예가 허다하다.

최근에는 이스라엘의 승리로 돌아간 6일전쟁의 교훈이 그것이다.

특히 불과 250대의 비행기를 가지고 무려 3배에 해당하는 아랍측 공군력을 단시간  
내에 무력화시켰던 이스라엘 공군의 위력은 높이 살만하다.

더구나 오늘날 북괴의 공군력이 상대적으로 우세하게 평가되는 상황하에 있는 우  
리 공군이 당면한 방공상의 역할도 수적으로는 적을지 모르나 실전에서 이겨낼 수  
있는 두뇌의 전쟁을 구사할 능력만 갖추어 나간다면 오만한 북괴의 망동에 부딪친다  
하더라도 능히 제압할 수 있으리라는 것이다. 예를 들면,

공산치하에 있는 조종사들의 융통성 없는 획일주의란 그 나름대로 사고능력상의 취약성을 내포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정예공군이라는 강한 자부심과 전의에 불타는 정열을 우리 장병들이 소유할 때 그와 같은 좋은 이미지를 풍길 수 있다고 보는 것이다.

② 장병의 복지를 향상하되 동고동락할 수 있는 일체감을 형성한다.

장병의 복지향상에 대해서는 조종사를 비롯한 직접작전지원 요원에게 우선권을 주고자 하는 시책을 쓰고 있는 관제로 일반화되지 않은 감이 있으나 부대별로 각급 지휘관이 해결할 수 있는 건강관리를 위한 세 시책이라든가 정서나 오락활동을 위한 지원이 적절히 요구된다.

또한 일체감 조성의 방법으로는 각급 지휘관들이 먼저 부하들에게 상당한 대가를 치르는 방향으로 힘써야 함을 의미한다.

즉 각부대 간부들끼리의 단결을 선행시키는 일이라든지 때로는 사병들과 같은 병식을 나누며 불편한 잠자리에서 자며 고된 근무현장을 살피는 등의 동고동락을 몸소 보여주는 일이 선행되어야 하는 것이다.

③ 공군증강에 대한 거족적인 지원과 호응을 얻도록 한다.

공군증강에 대한 필요성은 현존전력이 주한 미공군의 지원세력에도 불구하고 매우 미흡하다는데 있음은 전술한 바와 같다.

따라서 핵무기를 비롯한 공격용무기는 계속 미 공군력으로 보완해 나간다면 하더라도 독자적인 자주국방개념하에서의 삼군의 균형조정상 공군의 증강이 불가결함을 공인할 수 있게 작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즉 장비현대화 또는 기지건설에 따르는 제반 사전 계획의 수립과 추진에 상부한 국고지원 또는 인력지원면에 거족적인 호응과 관심을 물리치게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행정부와 국회 그리고 사회의 협조를 얻을 수 있는 방편까지도 마련해야 하는 것이다.

요컨대 공군의 증강이란 거족적인 문제임을 인식하게끔 공군의 모든 구성원이 한마음으로 활동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④ 국민에게 신뢰감을 줄 수 있는 공군이 된다.

우리가 바라는 또 하나의 공군의 이미지는 국민에게 신뢰감을 주는 일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미 명분화되어 있는 군인복무규율을 거울삼아 요는 이기적인 또는 개인 중심적인 소아에서 탈피하여 국군의 이념과 사명을 자각하되 현재 우리공군이 처하고 있는 현실을 적시하고 앞으로 지향하고자 하는 목표를 적극 추진하는 역군으로서의 사명감이 우선 투철해야 하겠다.

뿐만 아니라 엄정한 정치적 중립을 지키며 각자 맡은 바 임무를 완수하여 국가와 국민에게 충성을 다 하셔야 한다.

비록 일상업무의 범위나 내용은 다르더라도 지향하는 목표는 동일하므로 서로 도와서 업무를 유기적으로 수행하여야 하며 항상 창의력과 진취성을 발휘하도록 힘써야만 소기의 신뢰를 얻을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 다. 시행지침

끝으로 진술한 제 지침을 여하히 실천에 옮기느냐에 대한 시간계획적 성격을 띤 것이 시행지침이다.

현 총장님이 지휘 통솔하시고자 하는 기간은 1970년부터 1973년에 이르는 기간 위에 있는 것이므로 목표설정에 따르는 모든 지침에 대한 구현도 단계를 설정하여 절도있게 시행해 나가는 것이 보다 효과적이라는 취지이다.

① 운영목표 달성을 위한 모든 계획은 70년도를 준비단계, 71년도를 집행단계, 72년도를 발전단계로 역점을 두고 실시하되 완전무결운동을 병행해 나간다.

여기서는 신임 총장님의 시간적인 의도를 표현한 것으로서 70년도를 준비단계, 71년도를 집행단계, 72년도를 발전단계로 구분하여 역점을 두고 일해 달라는 내용이다.

즉 명확한 목표설정에 따르는 주요 지침이 제시되었으므로 창조적 직무담당자라 할 수 있는 지휘관리청은 전체목표에 부합되는 부대별 또는 분야별 목표를 지향케 하되 나아가서는 개별목표를 설정하여 구체적으로 추구해 나가게끔 하라는 것이다.

한편 정상적인 업무에 대해서는 완전무결운동을 적용하여 최종적으로는 Zero를 목표함으로써 중간 목표를 설정하고 그 목표달성에 노력하게 하는 한편 차차 목표의

개선을 유지하게끔 완전무결을 기하자는 것이다.

② 공본 참모부는 각종 현행계획의 보완 또는 신규계획 수립으로 적기에 시달하고 통제한다(PLAN의 개념).

계획부서인 공본 참모부급에서는,

첫째, 현행계획의 보완 필요성 여부를 검토하여 상기 지침에 일치시키는 일방 신규로 발생한 일을 연구 검토하여 결정된 것을 시달하고 통제하는 일이다.

또한 모든 일은 시기를 잘 고려하여 적기에 행하도록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는 것이다.

전략적으로 작전운영체제를 강화하는 일이라든지 부대개편 또는 이동 등에 대한 시효를 알맞게 거두라는 것이다.

③ 예하부대는 특성에 맞는 자체목표를 추구함으로써 본 지휘지침을 효과적으로 구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과업을 수행한다(DO의 개념).

한편 예하부대의 경우는 각 부대별 임무성질에 따라 수립된 연도별 자체목표를 추구하되 본 지휘지침을 효과적으로 구현할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해 나가면서 좋은 성과를 거두라는 것이다.

예컨대 군생활에 대한 불필요한 자극이나 어두운 면을 제거하는 일도 필요하지만 헌신적인 직업 의식, 충성심, 개성의 일체성 그리고 희생정신과 같이 잘 훈련되고 책임성있는 정예군의 징표라 할 수 있는 말년의 원리들을 존중하는 기초 위에서 모든 과업이 실시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또한 인습적이고 관료적인 틀에서 탈피하여 실질적인 전력화를 기하는 일에 힘을 집중시키자는 것이다.

④ 결적분석에 의한 평가결과는 인사문제와 직결되게끔 운영한다(SEB의 개념).

목표에 의한 지휘관리가 실적주의적인 의도에서 온 것인 이상 최종적으로 어떠한 형식에서든 업적의 평가가 이루어지고 그것이 인사면에 영향을 미치게끔 하는 인사군기상의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따라서 자급 지휘관이나 참모 역시 직속부하의 목표 달성을 원조해야 하지만 최후에는 달성한 성과에 대한 평가를 소속장이 직접 새

리고 인사문제에 직결하게끔 운영함으로써 요는 공동목표 달성에 귀일하게끔 전력을 다하자는 것이다.

#### 4. 결 론

결론적으로 한국의 안보의 군사적 측면이라는 시점에서 실으나 좋으나 주한 미군이 점차 감축되어 나가는 과정에 처하여 상대적인 복피에 의한 위협증대를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절박한 현실에서 우리 공군이 차지하고 있는 현 전력으로 보아 「정병장군」과 「임전태세 확립」이 초미의 과제임을 부인할 수 없다고 본다.

또한 현대전의 특성이 공격의 절대 우위성을 공인하고 있는데 비추어 우리 공군의 현존전력으로 보아 복피 공군력에 의한 기습공격을 여하히 억제할 수 있는냐에 대한 현실적인 최선의 대비태세를 갖추는 일방 보다 장기적인 대응책을 마련함에 있어서 적극적인 투쟁이 있어야 하겠다는 것이다.

물론 미 공군 지원세력에 의존하는 현실을 부인할 길은 없으나 그러나 우리의 잠재 능력을 축적해 나감으로써 적시적절한 증강을 기할 수 있도록 장기적인 안목에서 절근해 나가야 하겠다는 것이다.

또한 군사력의 역할을 전쟁 억제력에 두는 기본 원리를 적용해 나간다 하더라도 자위권 행사에 충분한 능력을 보유하려는 수준에서 3군의 불균형을 시정하는 방향으로라도 공군증강 문제는 기필코 달성시켜야 한다는 것이 우리의 사명임을 알고 유능한 공군 정예공군의 이미지를 살리게끔 보다 앞찬 전진이 있기를 다짐하고 있는 것이다.

흔히 우리는 단기면에 미온적이라는 외부로부터의 평을 받아온 것도 사실이지만 불과 1개 사단 남짓한 병력을 가지고 수 10개의 군소 부대로 세분할 수 밖에 없는 실정이고 보면 각급 지휘관의 책임이 막중함을 알 수 있다.

더구나 기술군으로서 임무가 다양하고 직종이 전문화되어 있을 뿐 아니라 기술정도가 매우 깊으므로 동일 개념으로 통솔하기 어려운 대상이 되어 왔으나 본 지침이 하달됨으로써 좀더 개념을 통일하는 일에 간부급이 힘을 기울이고 정신자세를 전환하여 전장병이 같은 목표를 향해 자기 할 바를 찾아서 다 하는 적극적인 전진을 이룩해 나가게 하려는 것이다.

# 지원병제 채택에 선행되는 「제문제」

미 육군참모총장 「웨스트·모어랜드」대장 연설문 요지

미 육군 참모총장 「웨스트·모어랜드」 대장은 지난 10월 13일 와싱턴에서 개최된 미 육군협회 연례 오찬 석상에서의 연설을 통해 「육군은 징병제를 완화하여 지원병제를 채택하기 위한 작업을 저지 받았으며 이에 모든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그러나 여기에는 행정부와 의회, 그리고 시민의 저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징병제를 폐지해 감에 있어서 다음과 같은 문젯점들이 있을 것이라고 그는 말했다.

★ 150만이 넘는 현 병력 수준을 어떻게 보다 소수의 징병 수준으로 바꿀 것인가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 만약 이미 실무경험을 쌓고 능력을 갖춘 -그 중에는 2년 이상의 실전경험을 쌓은 자들도 있는- 상당 수의 장·사병들을 세대시킴으로써 현 병력을 간축한다면 앞으로 더 많은 실병을 유지하는데 심히 어렵게 될 것이다.

★ 반면에 젊은 하사관과 초급장교들에게 장기적인 진급의 기회가 부여되지

- ..... 미 국방성은 징병제를 단계적으로 완화하여 나갈으로써.....
- ..... 七三회계연도까지는 전면 지원병제를 갖추려 한다.....
- ..... 레어드 미 국방장관은 각군 장관과 합동참모회의 의장에.....
- ..... 게 보내는 一九七〇・一〇・二일자 각서에서 「지원병제.....
- ..... 도 「국무위원회」의 보고서를 검토하고 징병제 완화의 순차.....
- ..... 적인 단계 조치를 강구토록 요구하며 이에 관해 인력담당.....
- ..... 국방차관보 켈리와 중종 협의의 토록했다.....

않는다면 군은 유능한 젊은 리더들을 잃게 되고 또 우리의 바람직한 지원자들에게도 군 생활에 관한 진말을 흐리게 할 것이므로 재능이 있는 젊은이들을 유망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적절한 승진의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

「웨스트민스터」 장군은 국가가 군을 유지함에 있어서는 수적 양면의 서와 마찬가지로 필요로 하는 기능을 갖춘 질적으로 우수한 장병들이 요구되며, 이는 가장 우선적이고 중요한 기본과제라고 말하고,

이는 다음 4가지 면에 동시적으로 노력을 집중함으로써 성취될 수 있다고 한다.

첫째: 군 상위층에 있는 우리가 가능한 모든 정력과 장의력을 동원하여 현실적으로 집중적인 노력을 해야 할 것이다.

둘째: 군 생활에 있어 불필요한 자구이나 좋지 않은 면을 제거해 버려야 한다. 그러나 현실적인 직업의식, 충성심, 개성의 일체성, 그리고 희생정신과 장이 관 후련되고 책임성 있는 징에군의 징표라 할 본문의 원리들을 계속 유지할 나할 것이다.

우리는 수많은 도전과 고차적인 면을 지향하는 젊은이들을 하여 군의 제반 조치는 그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필요성에 의한 것이며 단순히 무를 내몰라는 것을 합리화할 목적에 따른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확신토록 해야 한다.

셋째: 재정적인 뒷바침이 있어야 한다. 급어를 인상해야 할 것으로 보되 이는 힘들고 또 민간인으로 대체키 어려운 보병, 포병, 기갑분야에 우선적으로 적용되어야 할 것이며, 월남전 수행상 경비정들을 유예해 온 주택 문제와 해천, 즉 기준 시설의 유지 보수와 현대적인 병동의 건축을 위한 비용이 필요하다.

또한 예컨대 헬리콥터 정비사들이 잔디를 깎는다는 게 배이다 기술자들이 접시를 닦는 등 잡역을 하지 않도록 민간 고용계약을 체결할 비용도 필요하다.

예제: 시민들과 산업계, 산업계, 종교계, 교육계 및 언론계 지도자들의 지지가 필요하다.

군이 일반적으로부터 천시되거나 비난을 받거나 생담한 반응을 받게 될 때에는 팔요로하는 장병들을 유치할 수 없기 때문이다.

민약 군 부부가 대가여하를 불문하고 기피되는 경향이 있거나 재질이 변변치 못한 자나 치를 것이라고 생각될 때 또는 사회의 지도층이나 공동사회로부터 적극적인 협조를 받지 못할 때에는 아무리 재정적인 뒷바침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과업을

성취할 수는 없는 것이다.

이상의 4가지 면 중에서 첫째와 둘째점은 즉각적이고 정력적인 우리의 노력과 젊은 이들이 군 생활에 배력을 느낄 수 있게 개선함으로써 우리 군 자체에서 해결할 수 있으나 나머지 두 가지 점에 있어서는 행정부와 의회 그리고 사회의 협조가 있어야만 할 것이다.

그는 위의 두 가지 점을 육군이 해결하도록 촉구하면서 이미 지휘관들에게 「쓸데 없는 일거리를 만들어 내는」 따위는 피하도록 지시했다고 한다.

즉 보다 많은 시간을 훈련에 전념할 수 있도록 검열 등을 피할 것.

★ 소요시간에 상당하는 성과를 거두지 못하는 비현실적인 훈련을 피할 것

★ 주중에 동일한 성과를 거둘 수 있는 일이라면 토요일 오전일과에서 피할 것.

한편 다음과 같은 면에서는 상당한 성과를 거두었다고 말하고 있다.

★ 성공적인 모병과 그들의 교육진행 과정체계의 확립

★ 어떤 기술분야에 있어서는 개인 지향적으로 행해지는 개성적인 교육을 보완함으로써 군 기술을 개선

★ 부양가족을 위한 광범하고 공평한 장학금 제도의 설치

★ 세탁이나 구배사업과 같이 장병과 그 가족을 위한 제반 서비스의 개선

또한 그는 장병들의 자기개선을 위한 광범위한 교육의 기회가 주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교육이란 개인에게는 물론 군과 국가를 위해서도 큰 역할을 하는 것으로 군이 부가적인 교육기회를 제공하고 있다는 것은 잘 알려져 있지 않으나 상당히 중요한 것이며 이에 관해서 다음과 같은 자료를 제시했다.

한 군은 17개 주에 있는 두 개의 대학과 20개의 분교와 11개의 특수교육학교에 900 이상의 교육과정을 갖고 있다.

당 회계연도 말까지는 매일 6,700 학급과 35,000명 이상의 서비스맨을 쓰게 될 것이며, 이 과정들은 광범위한 학술적인 과제 뿐만 아니라 실제적인 생업면도 취급하

## <지원병제 채택에 선행되는 「제문제」>

고 이의 대부분은 민간직업으로 즉각적인 전환이 가능한 것이다.

70회계연도에 있어서는 육군 일반 교육계획에 의거하여 55,000명이 고등학교를 마치고나 이와 동등한 자격을 취득하였으며, 500명 이상이 학사 또는 그 이상의 학위를 취득하였는데 이는 초급에서 대학에 이르는 군 지원 교육기회를 이수한 200,000명의 일부인 것이다. 게다가 같은 기간 중에 필수적인 정신요건을 갖추지 못한 3,800명 이상이 입대하여 군이 요구하는 최저한도의 수준에 도달키 위한 기초교육을 받았다.

또 이와 같은 광범한 교육개선택으로 2,000명 이상의 장교가 육군 고등교육기관이나 학위과정에 입학되어 있다.

우리는 장기적인 안목으로 장병들의 교육수준과 시민으로서의 자질향상을 위해 이와 같은 교육기회를 더욱 개선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웨스트·보어랜드」 장군은

★ 현역과 예비역에 소집 또는 재소집 될 병력을 최대한으로 고려하여 자기와 육군 장관 레저에게 직접 보고할 담당관으로 한 고위장성을 임명하고

★ 군은 모병의 규모와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한 노력을 계속할 것이며

★ 군 고위 장교들은 휘하 장병과 그 가족의 생활수준을 향상시키고 또 군복무가 매력적이 되도록 집중적인 노력을 가함으로써 우수한 병력을 확보하도록 할 책임이 부여된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군이란 젊은이의 조직체로서 평균 연령은 23세에 미달하고 3/4 이상이 3년 이하의 단기복무를 하는데,

우리는 기존의 제도를 고수하려 하지 않는 것이며 더 이상 생산적이고 유용하지 못할 때에는 기꺼이 바꿀 용의가 있다고 말했다.

이제 우리는 군의 모든 정책과 집행과정을 재검토할 것이다

전승을 보장하는 정수라 할 군의 질서와 교리가 침해되지 않는 한에서는 신성불가침한 것은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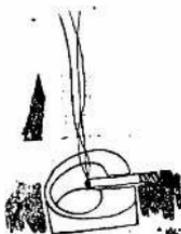
다만 질서와 교리가 침해되는 것은 용납되지 않을 것이며 전통적으로 중용스런 육군을 보장해 온 제 원칙들은 지켜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Commandar Digest 70, 10, 17일자)

—지휘관리실—

# 차량 범죄 발생과 우리의 각오

증명 허 왕



## 1. 서 설

20세기에 있어서의 과학의 발달과 산업의 발전은 급진적인 교통량의 격증을 가져오고, 그로 인한 교통사고의 증가는 달리는 흉기라고 까지 호칭되고 있는 실정에 있다. 더구나 군에 있어서는 병력과 각종 불자의 신속한 수송을 위하여 차량은 필요불가결한 장비로 되고 있으나 이의 남용으로 인하여 인명의 사상과 군용물의 손실은 물론 이에 따른 민간 피해자들이 당군에 국가 배상금 지급 신청을 하거나 국가를 상대로 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함에 따라 지급되는 국고금이 막대한 실정에 있으며 군법회의 처

리결과를 보더라도 당군 각종 범죄 가운데서 군무이탈범 다음으로 다수를 점하고 있는 것이 교통범죄로 되고 있다. 따라서 이같은 교통범죄의 근절을 위하여는 그 사고원인이 근본적으로 파헤쳐져야 할 것이나 과학적인 수사의 미비로 아직도 제대로 깊이 분석되지 못하고 있음은 지극히 안타까운 일이라 아니 할 수 없다. 거기다 이에 대한 형사처분을 살펴 보더라도 그 양형의 기준이 사고의 원인이 누구에게 있으며 어느 정도인가에 있다기 보다는 피해자의 피해의 다소에 대부분 좌우되고 있다 할 것이며 극단한 예로 차량을 이용하여 계획적인 살인을 감행하였다고 하여도 과실범으로 처리 될 가능성마저 많은 것이다. 이에 최근 3년 간에 군법회의에서 처리한 차량 범죄 통계를 중심으로 하여 그 일반적인 원인분석과 대책을 살펴보고자 한다.

## 2. 차량범죄의 현황

### 가. 차량범죄의 개념

차량범죄란 차량과 차량 또는 차량과 인간 또는 물건의 충돌점착으로 인하여

## ◎○차량범죄 발생과 우리의 각오◎○

발생되는 범죄라고 말할 수가 있겠으며 그 대부분이 과실범인 점에 특색이 있다고 하겠다.

### 나, 차량범죄의 범죄 구성비율

당 군 군법회의에서 처리한 범죄별 구성비율을 보면 그 수위를 점하고 있는 것이 군부이탈범으로 67년도에 군법회의

에서 처리한 범죄 건수 247건에 군부이탈범이 132건으로서 전체 범죄의 53%를 점하고 있으며 68년도에는 총 240건 중 군부이탈범이 139건으로서 58%, 69년도에는 총 252건 중 군부이탈범이 134건으로서 53%로 압도적 다수를 점하고 있으며 그 다음이 차량범죄인 바 그 건수와 범죄 구성비율은 다음과 같다.

차량범죄 범죄구성 비율

년도	범죄	총 범죄 건수	차량범죄 건수	차량범죄 구성비율
67		247	45	18%
68		240	39	16%
69		252	39	15%

### 다. 차량범죄 피해 유형

차량범죄의 피해 유형을 살펴 보면 손해가 가장 많고 그 다음이 사망이고 재물 손피가 가장 적다. 재물사고가 가장

적은 이유는 사소한 접촉사고는 군법회의 까지 회부되지 않거나 입건되기 전에 미리 이를 수습하는베도 그 이유가 있겠다고 보겠는 바 그 구체적 내용은 다음과 같다.

차량범죄 피해 현황

년도	피해유형	사망	상해	재물 손피	계
67		18	23	4	45
68		12	25	2	39
69		14	25		39

○○차량범죄 발생과 우리의 각오○○

라. 차량범죄 계급별 현황

다음 차량사고를 계급별로 살펴 보면  
 벌금 가운데는 고한적인 병장이 가장 많

으며 그 다음이 상등병, 1등병 등의 순  
 으로 되어 있어 사고 발생은 운전미숙 보  
 다 주의 의무 미만에 도 큰 원인이 있음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고 하겠다.

차량범죄 계급별 현황

년도	계급	대위	상사	중사	하사	병장	상병	1 병	2 병	계
67		1			1	14	11	14	4	45
68				1		15	11	10	2	39
69			1	4	3	13	12	5	1	39

마. 차량범죄 처벌별 현황

차량범죄에 대한 처벌결과를 살펴 보면

집행유예가 가장 많고 그 다음이 실행이  
 며 벌금과 형집행 면제 및 선고유예의 순  
 으로 되어 있다.

차량범죄 군법회의 처벌별 현황

년도	종류	벌 금	선고유예	집행유예	실 형	집행면제	계
67		3	1	20	15	6	45
68		3	1	14	18	3	39
69		7		16	16		39

바. 차량범죄로 인한 국가배상  
 금 지급 현황

끝으로 차량범죄로 인하여 민간인에  
 게 지급된 국가배상금은 다음과 같다.

**국가배상금 지급현황**

년도	내용	국가배상 십의회	법 원	계
67		7,068,711		7,068,711
68		8,243,930	20,837,664	29,081,594
69		6,127,066	11,381,414	17,508,480

**3. 차량범죄의 원인**

**가. 운전자의 과실**

차량범죄 발생에 대한 과학적 원인은 아직도 완전무결하게 나와 있지 못하므로 전체적인 면으로 그 원인을 살펴 본다면 차량범죄의 원인은 운전자의 과실, 피해자의 과실, 차량고장 등으로 분석할 수 있는 바 이러한 원인 이외에도 도로조건, 인구밀도 등도 그 영향이 미치는 것으로 보겠다. 당 군 차량사고의 대부분이 쏠차사고인 바 미·영국에 있어서는 차량내용(耐用)년도를 2년, 일본에 있어서는 6년임에 비하면 당 군은 10년 이상의 노후차량에다 부속 지원도 제대로 되지 못하고 있는 것을 운영한다는 것 자체가 살인차량을 운영하고 있다고 하여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따라서 노후차량의 교체는 극히 시급하다고 아니 할 수 없으며 교통범죄 발생원인을 세부적으로 살펴 보면 다음과 같다.

차량을 운전하는 자는 추상적인 의미에서 도로교통 및 적재상황에 따라서 공중에게 위해를 가쳐오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적정한 속도와 방법으로서 차량을 운전할 주의 의무가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도로 폭의 넓고, 좁음, 교차로, 철도선 횡단, 장애물 유무, 위험한 곳의 유무 등의 도로상황, 교통량의 많고 적음, 통행인, 차량의 유무 등에 따라서 구체적 사정 아래서 상당한 한도에서 요구되는 주의 의무가 과하여지는 바 그 대부분이 도로교통법, 동 시행령, 기타 관계법규에 의해서 결정되고 있는 바 이러한 법적 주의 의무는 운전자로서 위해방지를 위하여 요구되는 최소 한도의 분량으로서 이외에도 조리상 사회통념상 요청되는 주의 의무가 있는 것이다. 이러한 주의 의무 중 운전 중 준수하여야 할 중요한

주의 의무는 전방 주시와 완전한 속도진로관제의 범주 준수로서 이와 같은 세 가지 주의 의무가 모든 경우에 있어서 차량운전자로서 취하여야 할 행동의 핵심인 동시에 구체적 상황에 따라서 천차만별의 「뉴앙스」를 가지고 조직되어 있기 때문에 그 경우에 따라서 구체적 주의 의무가 형성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운전에는 신중 침착한 태도로써 임해야 될 것이며 그로 인해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될 것이다.

## 나. 안전속도 위반 사고

공중(公衆)에 위해를 주지 않도록 속도를 구체적 경우에 따라 제한하여야 될 것이고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 8조에는 제한속도가 명시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당군 차량에 대하여는 사고예방과 그 노후된 점에 비추어 매 시간당 40킬로미터 이내로 까지 속도제한을 하고 있으나 운전병들이 아직도 경험이 미숙하고 혈기왕성한 젊은이들이란 점과 군입이기 때문에 교통경찰관의 제지와 단속을 제대로 받지 않고 있는 점을 이용하여 많은 과속 사고가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아무리 복잡한 서울 길이라도 최대 속도를 40킬로미터 이하로 줄이고, 필요 시는 더욱 속도를 주린다는 마음의 자제만 제대로 가지고 있다면 차량범죄의 과반수는

충분히 예방이 되리라고 생각되므로 과속이야 말로 가장 사고발생의 요인을 많이 내포하고 있는 행위라고 하겠다.

## 다. 음주운전

운전자가 음주운전을 할 수 없는 것으로 교통법 제 39조에 의하여 명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커다란 사고의 발생은 음주나 수면 등에 의한 경우가 많다. 음주운전은 주로 운전병들의 일시적 방심에서 나온 부주의인 것으로 그 위험도는 다른 사고 보다 높은 것은 말할 필요도 없는 것이다.

## 라. 수면운전

과로 시의 운전도 도로교통법 제 40조에 금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당군 실정을 보전해 운전병의 절대 수 부족과 차량의 과용 및 운전병들의 정신적인 이완 등으로 수면운전자가 여러 건의 큰 사고가 있었음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다. 이는 앞으로 다게 되어야 할 커다란 문제가 아닐 수 없다.

## 마. 대행운전

당군 실정을 보전해 면허증을 소지하고 있는 자도 군에 입대할 당시는 경험이 미숙하여 실제 운전하는 것을 볼 때 많은 불안감을 금할 수 없는데 하물며 면허증도 없는 자가 단순한 호기심으로

운전하거나 사용자가 음주하여 강제적으로 저지 교육 시킬 것이고  
해행운전하는 등으로 사고가 발생한 것  
도 더러 있었음을 부인할 수가 없다.

### 바. 피해자의 과실

차량범죄의 피해 대상이 되는 피해자가 도리어 과실로 인하여 사고를 이르게 하는 수도 꽤 많다. 그 내용은 보행자가 횡단로 아닌 곳을 건너거나 15세 미만의 미성년이나 노인 층이 교통법예 의하여 금지되어 있는 장소에서 휴식을 취하려다가 사고를 발생케 하는 건수도 꽤 많다.

### 사. 차량 고장

차량의 정비불량, 기계장치의 노후화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고도 극히 많은 실정에 있는 바 이는 운전수나 정비 담당자들의 정비태만에도 원인이 있다고 보겠으나 실제 나쁜 곳을 알고도 부속품 지원은 안되고 차량은 운행치 않을 수 없는 딱한 경우가 허다한 바 이러한 겹은 운전병이나 정비 담당자들에게만 그 책임을 물을 수는 없을 것이다.

## 4. 차량범죄에 관한 대책

### 가. 일반 주의사항 교육

각 부대 수송대장은 운전병들이 운전시에 유의하여야 할 일반 주의사항을 철

### 나. 과속 방지

군용차량의 특수성을 이용한 제한된 속도를 위반하는 사례가 없도록 할 것이며,

### 다. 사용자의 감독 철저

차량 운행시 차량사고의 책임은 사용자의 평소 감시 태만에 있다는 것도 철저히 주지시킬 필요가 있다.

### 라. 운전 미숙자의 장거리 운행 금지

장거리 운행에는 운전이 미숙한 병들은 운전시키지 말 것이며,

### 마. 음주운전 금지

음주운전은 차량사고의 근원임을 깊이 인식시킬 것이며, 사용관이나 수송대장은 운전병이 자유로이 차를 몰고 다니는 일이 없도록 항상 감독 확인 할 것이 요망된다.

### 바. 병급 운전병에 대한 철저한 교육 실시

병들 중에도 비교적 계급이 높은 병장들이 가장 사고를 많이 낸다는 것은 자기 운전기술의 과신 등으로 인한 주의태만 등으로 사고가 나는 것 같으므로 이

에 대하여는 운전 자체 보다 정신면에 더욱 철저한 교육이 요망되고, 이와 반면에 병장이 아닌 병급들의 사고는 기술의 미숙이 사고의 원인이 된다고 생각 되므로 근무의 시간을 이용한 이들에 대한 특별 운전교육도 필요하다 하겠다.

### 사. 처벌의 강화

(1) 차량 사고예방이란 견지에서 입건 되면 반드시 처벌하고 불문 처리하는 사례가 전무토록 할 것이 요망되며

#### (2) 벌금형의 활용

차량사고가 징계위원회에 회부되는 경우 운전병 부족 등의 이유로 그 처벌이 너무도 가벼워 실효를 견우지 못하고 있는 실정에 있음을 감안하여 앞으로는 극히 경미한 사고 이외는 일단 기소하여 사안에 따라 벌금형을 광범위하게 활용 해봄이 타당하다.

#### (3) 중한 차량범죄의 엄벌

사망 또는 2주 이상의 상해를 입히거나 균용물 피해가 10,000원 이상 되는 사건은 이미 지시된대로 구속 처리토록 할 것임은 더 말할 필요도 없다.

#### (4) 차량구류의 강화

그리고 개정된 규정대로 위반차량에 대한 구류를 강화함도 사고예방에 크게 이바지하리라 생각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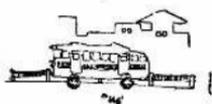
### 5. 교통범죄에 대한 우리의 각오

음식물이 있는 곳에 부패균이 따르듯이 사회가 있는 곳에는 반드시 범죄가 있기 마련이며 역사상 범죄가 없는 완전한 사회란 일찍이 존재 해 본일이 없다.

우리 공군은 확실히 이 시점에서 차량범죄에 대한 과거의 관념을 일소해야 하겠다. 과거에는 중과실로 인명을 사상(死傷)하여도 운전병만 불과 몇 달 형만 살리면 되고, 살면 된다는 그릇된 관념에 젖어 있었던 것은 사실이다. 그런 관념으로 취중운전, 수면운전, 과속운전을 합은 결과에 대하여 미필적 고의(未必的 故意)가 있는 군인들의 방약무인한 범행이라고 국민들이 비난하여도 변명의 여지가 없는 바이며 그런 정신으로 그리고 사고가 날 것을 보통인이 예측할 수 있는 상태와 방법으로 운행하여 파실치사케 합은 도덕적으로는 살인을 했다는 양심의 가책을 받아야 할 것이며 이것을 철저히 감독하지 못한 각 지휘관과 전장병의 책임 또한 이에 못지 않다고 할 수 없는 것이므로 총장님의 특명으로 차관관계 담당 해당부서에서 차량사고 방지를 위하여 부심하고 있는 이때 전장병은 이 취지를 깊이 명심하여 사고방지에 최대의 노력을 경주 할 것이요망된다.

# 민족중흥과

## 국민정신의 방향



중 위 흥 중 도

### 1. 서 론

민족 중흥이란 저개발 국가나 또는 개발 국가라 하더라도 외세의 침략 또는 전쟁 등으로 황폐하고, 국내적으로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가 안정되지 못하고, 국제적인 지위가 향상되지 못한 상태에서 국가의 부강과 정치의 안정, 국제 무대의 활모를 개척하여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기타의 부를 누리코자 하는 것을 민족중흥이라 할 수 있다.

그리고 국민정신이라 함은 그 민족의 고유한 민족성을 말함인데, 민족성이란 역사적인 배경, 지리적인 배경, 정치적 경제적인 환경 등에 의해서 형성되며, 그것은 사회의 변천에 따라서 개군할 수 있는 가능성을 내포한 것으로서 민족성과 그 민족의 흥망 성쇠는 밀접한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 민족은 어떠한 민족성을 가지고 있으며, 민족성이 국민정신

에 끼친 영향은 무엇이며, 어떻게 하면 우리도 잘 살 수 있는 나라가 될 수 있으며 우리의 국민정신은 어떠한 방향으로 이끌어 나가야 할 것인가를 살펴 보기로 하자.

### 2. 본 론

#### 가. 한국민의 민족성과 그 장 단점

우린 어릴 때부터 우리 민족은 반만년의 유구한 역사와 전통을 이어받은 문화민족이며, 역사를 가진 민족이며, 단일민족이며, 태의 민족이며, 문명국으로서의 자부심을 가지라는 이야기를 들어왔다. 그런데 왜 오늘날에 있어서 반만년의 유구한 역사와 전통은 송두리채 외래 문명에 억눌리고, 정치적인 약소국, 경제적인 저개발국 등 울분을 참지 못하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는가?

우리 민족이 이렇게 근대 사회에서 그

리고, 현대사회에서 서구의 선진국들에게 뒤떨어져 있는 것은 우리의 민족성에 어떤 결함이라는 것은 여의치 못한 환경에 처하여 있었음을 알 수 있는 것이다.

누구나 지도를 펴 놓고 보면 알 수 있지만, 거대한 아시아 대륙의 동쪽에 조그마한 반도를 우리들의 조국으로 하여 우리 선조들은 살아 왔다.

비록 땅은 좁지만, 자연적인 환경은 세계의 어느 나라 보다도 아름답고, 비옥하며, 살기좋은 삼천리 금수강산인 것이다.

우리 민족의 비극은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되었다. 주위엔 거대한 대국들이 있어 항상 조그맣고, 살기좋은 금수강산에 침을 흘려 틈만 있으면 피뎠어 왔고 억눌러 왔고, 우린 또 그들에게 시달려 왔고, 싸워도 보고, 받들어도 왔다.

이러한 외적인 환경과 여건에 의하여 단군의 자손들은 단군의 뜻과는 다스들리게 우리들의 민족성을 형성하여 왔고 또 타의에 의해서 형성된 민족성은 오늘날의 우리들을 낙후하게 만들어 버렸지만, 우리 민족성의 장단점을 살피 앞으로의 좌표로 삼았으면 한다.

### (1) 우리 민족성의 단점

역사책 첫장을 넘기면 첫머리부터 우

리 민족은 단일민족이며, 홍익인간이며 동방예의지국이란 말이 있다.

더우기 우리 조상인 단군은 환인-환웅-단군을 잇는 하늘나라 사람인데 그 하늘나라 사람이 우리의 땅을 고르고, 사람을 다스리고, 국가를 키우고 하였으니, 우리 민족은 하늘에 의해 선택된 선민임은 말 할 것도 없다.

그런데 왜 땅에서 태어난 「예수」는 하느님처럼 받들고 하늘이 백해준 단군은 도외시하고 있는가? 이런 것은 종교적인 「문제」이기 는 하나 대체로 우리 민족은 주체의식이 약하고, (1) 사대주의의 모화사상에서부터 비롯된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역사적으로 살펴 보아도 고려 말기 친명파의 거두 「이 성계」가 위화도 회군시 들어놓은 명부 중에 「이소사대」론을 펴서 사대주의 사상을 주장하고, 이씨조선 500년 동안 거의 친명, 친청, 친러, 친일로 이어지는 사대주의 사상은 깨어질 줄을 몰랐던 것이 아닌가?

그것은 지리적인 배경, 정치적, 문화적 그리고 경제적인 배경과 국제 무대에 있어서 약소국적인 위치를 강대국에 붙어 더부살이로 행세하려는 생각이었고, 공자, 맹자 사상 등을 천리로 알던 조상들의 (2) 봉건적이고, 배타적인 사상이 우리들을 낙후하게 만든 것이다.

조선 말기, 국제적으로는 서구의 열강



들 움켜쥔 선량들로부터 개인의 사리사욕에 광분한 것이었으며, 99원을 가진 자가 1원을 가진 자를 도와줄 생각은 아니하고, 그 1원을 빼앗아 100원을 채울려는 생각으로 권력층과 무식한 백성과는 그 얼마나 큰 원심과 격리 속에서 살아야 했던가를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들의 선조가 살아온데서 나무랄을 받아야 할 것은 수 없이 많지만 또 몇 가지 점은 칭찬하지 않을 수 없는 것도 있다.

## (2) 우리 민족성의 장점

우리 민족이라고 해서 꼭 단점만 있는 것은 아니다. 우리 민족은 반만년을 살아오는 동안 남에게 자랑할 수 있는 역사적인 업적과 인물들이 나왔으며, 위대한 문화적인 유산도 남겼다.

우리 민족은 예로부터 동방예의지국으로 (1) 예의범절이 있는 나라다. 국가적으로 볼 때 결국 사대사상과 통할 수 있기도 하나, 개인적으로 볼 때 서로의 존경과 이해를 가지며, 국가에 대한 충성, 부모에 대한 효도, 친구 간의 우정 등은 높이 평가한다. 그리고 사치와 허영을 떠난 (2) 순박성과 착함은 어느 민족에게서도 찾아볼 수 없는 것이다.

농촌의 풍경이나 도회지의 풍경도 율타리 없이 살던 우리들 선조.

아름다운 자연 속에서 낭만적이고, 조용하며, 자연 그대로의 생활을 즐기던 모습은 평화 그 것이었다.

그러한 속에서도 문명의 이기들을 만들고, 국가적인 자랑거리를 만들어 낸 (3) 창의성은 정말로 자랑할 것이다.

세계에서 가장 훌륭한 말과 글을 만들었으며, 팔만대장경, 고려자기, 금속활자며, 측우기, 거북선, 화포, 침상대 등 과학기구, 병기, 문화예술품 등 우리 민족의 독특하고, 특이한 독창성은 세계 어느 나라에도 뒤지지 않는 것이다.

그런가 하면 그렇게 많은 외국의 침략 속에서도 자주독립을 생각하던 (4) 자주정신은 피와 생명을 아끼지 않고 끝내는 죽음을 택하던 여러 선군들에게서 얼마든지 볼 수 있는 것이다.

## 나. 민족성이 민족중흥에 미친 영향

우리 민족성의 단점에서도 지적한 바와 같이 계급의식에 의해서 가장 희생된 계급이 친인들인데, 친인들이란 주로 경제건설에 주축이 될 수 있는 상, 공인들인 것이다. 상, 공인이라고 하면 2차 산업과 3차 산업을 담당하는 사람들로서 1차산업인 농업, 임업 보다 실질적인, 경제적인 부와 국제관계에 있어서도 공업과 상업으로 선진대열에 설 수 있게 하

는 주된 일꾼인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사람들을 천인이라 명하고, 이들을 천대했다는 것은 국가건설이나, 사회복지, 경제건설을 억제한 것으로 단념이 가도 땅이나 파먹고 원시적인 상태에서 헤어날지 못하도록 한 것이나 다름이 없는 것이다.

서구의 열강국인 영국, 스페인, 플루칼 등은 상업 위주로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정치, 경제의 주도권을 장악하고, 해가 지지 않는 나라가 되었으며, 독일 등은 공업국으로서 기계문명을 발달시켜 세계 공업의 중심지가 됨으로써 정치, 경제, 군사적인 면에 있어서 일등국이 되지 않았는가?

멀리 찾아갈 필요도 없다.

가까이 일본만 하더라도 우리의 삼국시대엔 그들에게 모든 문화와 문명의 이기를 가르쳐 주고, 그들을 왜놈이라 하여 봉매한 민족으로 보았지만, 그들이 서구의 문명을 받아들여 과학화된 생활이 되었을 때, 그들은 세계의 강국이요 또 우리들은 그들의 지배를 받지 않았는가?

이렇게 선진국이나 미개국이나를 막론하고, 2차 산업과 3차 산업에 먼저 눈을 뜬 민족은 세계의 부를 누리고 있으며, 아무리 민족이 거대하고, 국토가 넓다 하더라도 생활에 과학화를 갖지 못한 나

라는 아직까지도 허덕이지 않는가?

이것은 비단 사회적인 문제에 있어서 제급제도의 희생 탄으로 보는 것 보단 위정자들이 국제정세에 어두웠고, 사회의 변천에 무감각했던 까닭이 아니겠는가?

19세기는 세계가 모두 과학기술을 발달시키고 있을 때에 우리는 쇠국정책으로 서구의 과학기술을 배척했으며, 외국과의 관계는 오직 청나라 만에 의존했던 것이 아니었던가? 이때 우리도 서구에 눈을 돌리어 그들의 과학기술을 받아들였다면 우리들의 민족중흥도 보다 빨리 이루어지지 않았겠는가? 이때까지만 해도 희생하고 양보해 줄 수 있다.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패전국이나 승전국이나를 막론하고, 모두가 정치, 경제적인 문제로 허덕일 때 우리 민족이 다소 통일되고, 단결만 되었다면 6·25의 쓰라린 상처는 받지 않았을 것이고, 패전국인 독일이나 일본처럼 세계의 문명국으로 발전하지 않았겠는가?

독일의 경우를 보아도 분단된 국가, 그들도 자의에 의한 분단이 아닌 것처럼 우리들도 자의에 의한 분단이 아니다. 그리고 비록 6·25의 쓰라린 상처를 받았다 하더라도 그 다음의 정신적인 문제가 우선 중요한 것이었다.

폐허의 황망 속에서 우리도 잘 살아보

겠다는 염원이 있었다면, 안일무사주의적으로서는 남들이 그냥 가져다 주는 사랑과 파자와 초콜렛에만 맛을 붙일 수는 없는 것이다. 우리는 그 때부터라도 소비적인 생각 보다는 오늘은 허리머를 즐라 매더라도 내일은 마음 편하게 살기 위하여 용약 건설의 대열에 섰어야 했을 것이다. 6·25가 저질러 준 민족의 비극과 공산당의 만행으로 항상 반공, 반일, 승공, 방첩 만을 부르짖고, 실질적으로 그들을 이길 수 있는 경제건설에 눈을 돌리지 않았다고 하는 것은 우리를 전개발국의 수령이로 쓸어넣은 것이 아니고 무엇인가? 근래엔 다소 좋아졌지만 항상 하늘만 쳐다보고 지내는 우리나라의 사람들이 조금만 머리를 돌렸다면 가뭄에 대한 원망과 홍수에 대한 쓰라린 상처는 받지 않았어도 좋았을 것이다.

매년 콩 심은데 콩 나는 것처럼 씨를 뿌리고, 낱알만 받아 먹던 습관이 자연을 이기지 못한 문명을 낳지 않았는가?

일전에 내한했던 이스라엘의 모 장관은 한국의 농업 방법에 대한 평을 부탁 받고, 한강 줄기로 밀려 내려가는 저물 줄기를 왜 그냥 보내는가 하는 의아심을 표했다 한다.

자고로 자연을 지배하는 자는 세계를 지배한다는 말이 있다.

고대 중국은 황하를 지배하면 황제가

되었다고 하지 않았는가?

이스라엘도 그 모진 사막에서 지금까지 잘 살고 있는 것도 자연을 지배하고 있기 때문이 아닌가? 시련을 이긴 민족은 잘 살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 볼 때 우리 민족은 시련을 두려워 했고, 어떻게 하면 꼼짝 않고 잘 살 수 있는가 하는 불노초특적인 생각 때문에 잘 살 수 있는 길을 가지 못했으며, 공익을 위한 개인의 희생정신이 부족하고, 너무나도 이기적이며, 나태했었고, 『내가 차마 땅 파고 지게 지는 일을 어떻게 해』하는 썩어빠진 체면이 밥을 굶고, 냉수를 마신 뒤 의젓하게 앉아서 이를 쐬시는 가엾은 모습을 만들지 않았겠는가? 우리 민족에게 지나친 체면만 없었더라면 반만년의 역사와 찬란한 민족문화를 자랑하던 우리가 과학 준명이 발달한 서구의 선진국들을 숨가쁘게 뒤따라 가는 오늘날과 같은 고역은 치르지 않아도 좋았을 것이 아니겠는가?

## 다. 외국의 예

제2차 세계대전에서 패망한 독일이 오늘에 이르기까지를 살펴 보아도 안다.

그네들은 철혈재상 「비스마르크」에 의해서 건설에 박차를 가하고, 「히틀러」가 주창한 독일민족 지상주의에 힘입어 정신

력을 통일하였기 때문에 2차 세계대전에서 것처럼 강력한 힘을 보일 수 있었다.

결과적으로 패전한 독일이지만, 패전 후 그네들의 정신력과 건설의욕은 참으로 위대한 민족임을 보여 주었다. 그것은 외국으로부터의 원조에도 소비제품보다는 건설제품을 필요로 하고, 소비품이라면 차라리 원조를 받지 않았다는 정신상태, 그것은 국내 생산력을 키우고, 중소기업을 육성하려는 강력한 정신력이 모인 것이다. 물론 독일민족은 세계 어느 나라 사람들보다 검소하고, 부지런하고, 주체의식이 강한 사람들이란 것은 잘 알려진 이야기인 것이고, 전후 그들 국민이 어느 정도까지 절약했는가를 예를 들자면, 담배를 피우게 될 때, 성냥개비 하나를 절약하기 위해서 혼자 있을 때 담배불을 붙이지 않고, 여러 사람들이 모인 뒤라야 담배불을 붙였다는 것은 너무나도 유명한 이야기가 아닌가?

그 뿐인가?

영국의 예를 들어 보아도 알 수 있다. 우리 외교관이나 고관대작들이 외국에 나아가거나 또는 영국에 갈 때 영국 제품의 훌륭한 양복을 입고, 그네들 나라에 가서 보니 그들은 상상 외의 검소한 옷을 입고, 심지어는 떨어진 옷인 가죽으로 기워입고 있는 모습을 보았다고 한다. 우리도 그들처럼 좋은 것은 수출하

고, 나쁜 것은 국내에서 소비할 줄 아는 국민이 될 때, 국가는 좀 더 발전하지 않겠는가?

멘마아크의 경우를 살펴 보자.

1차 대전 후 비옥한 남부를 프리시아에게 빼앗기고 허덕이는 국민에게 『밖에서 잃은 땅은 안에서 찾자』라는 구호 아래 황폐한 국토를 개척한 「달가스」의 경우가 있다. 그는 혹독한 북서풍과 눈보라를 강인한 나무를 심어 모든 천재들이 되고, 자연을 지배하지 않았는가?

인간의 의지로 자연을 지배하고, 이윤한 멘마아크의 경우와 우리를 비교하면, 우리는 한 그루의 나무를 심기는 커녕 사리사욕에 눈이 어두워 꺾어가고, 베어 가서 기름과 홍수로 부터의 계약에 시달리고, 스스로 자연의 황포에 말려들지 아니하였는가?

또 있다. 중동의 이스라엘을 보자.

황폐한 사막에서 농사를 짓고, 부를 누리는 그들을 보라.

물 한 모금 귀한 사막을 비옥한 농토로 만들기 위해 호수로부터 강을 파서 사막에 물을 때는 그 인내와 노력을!

이렇게 여러 나라의 경우를 보고, 우리의 현실을 생각해 보자.

봄, 여름, 가을, 겨울의 아름다운 금수강산에 사는 우리 민족은 수시로 바뀌는 계절, 자연의 영향을 받아 수시로 그

환경에 적응해야 하는 어려움도 있으나, 다시 생각해 보면 규칙적인 사계절을 장기 계획에 따라 적절히 이용하고, 또 자연을 정복할 수도 있는 것이다.

그런데 왜 우리는 자연을 정복하지 못하고, 있는가? 그것은 우리 민족이 너무나도 게으르기 때문에 우리 주위를 개척하고, 발전시키지 못했으며, 허영과 사치성 때문에 절약과 검소한 생활을 할 수 없었고, 인내심과 투쟁력이 없기 때문에 자연과 맞닥뜨려 싸우지 못했으며, 우리는 시련을 두려워 하고 있기 때문에 불행한 현실에서 부터 탈피하지 못 하고 오늘날에 이른 것이 아니겠는가?

## 라. 국민의 자각

그러나 세상이 변하고, 기후가 변하고 겨울이 가면 봄이 오고, 봄이 오면 꽃이 피는 것 처럼 우리도 오랜 동면에서 깨어나 눈을 뜨기 시작했다.

우물 안의 개구리가 바깥세상을 보면 우물 밖이 더 넓다는 것을 아는 것 처럼 우리도 이제 이대로 머무를 수 없으며, 또 이대로 머물러서는 아니 된다는 것을 알았다. 그래서 늦게나마 우리는 국민정신의 개조문제가 나오고, 국토의 개발 문제가 나오고, 국제 사회에서의 처우 문제가 나와서 활발이 움직이기 시작한

것이 아닌가? 우리는 이제 풍우한설에 깔려 바래버린 돌더미를 새로이 깔고, 다듬기 시작하는 것이다.

국내적으로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안정을 찾으며, 국토의 효율적 이용으로 무진장한 지하자원을 개발하고 국토의 종합 개발을 실시하며, 네델란드 이상으로 간척지를 개발하여 지도의 모양을 바꾸고, 지하자원, 수산자원을 개발하고, 나무를 심고, 자연을 연구하여 자연과 투쟁하고 있으며, 상·공민을 찬시하던 습관을 씻고, 누구나가 상·공업에 종사하여 국가건설과 경제적인 부를 얻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절약과 저축의 필요성을 역설, 민간자본을 형성하고, 검소한 생활 풍토를 조성하고, 너와 내가 아닌 우리들로 공동운명체로서의 인식이 높아 가고, 개인을 위한 것 보다 공익을 위한 희생정신이 높아져 남에게 기대고만 살던 우리가 이제는 남을 도와 주며 살고 있는 현실이 오지 않았는가?

이렇게 희망적인 오늘이 오고, 내일이 온다고 해서 우리는 방심할 수 없는 것이며, 보다 나은 내일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들은 강하고, 실질적인 국민정신을 가져야 함은 말 할 필요도 없다.

그러면 우린 어떤 정신을 가져야 할 것인가.

### 3. 결 론

#### 가. 민족 중흥을 위한 국민 정신의 방향

근대 우리 정부에서는 3자운동을 벌이고 있다. 3자운동이란 자조정신, 자립경제, 자주국방을 일컫는 것으로서 이러한 운동은 어떠한 특정인들만이 하는 것이 아니라, 전국민 전체가 혼연일체가 되어서 하자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앞으로의 국가 건설과 세계 선진 대열에 서기 위해서는 몇 가지 점을 깊이 인식해야 할 것이다.

#### (1) 주체의식의 확립이다

『나를 확대한 것이 곧 국가다. 그러므로 국가의 일이란 곧 나의 일임을 깨달아야 할 것이다』라고 말한 대통령의 말씀처럼 국민은 모두가 국가의 일원으로서 자신에게 맡겨진 책임을 다해야 하며 확고한 민족정신의 함양과 국가관을 확립하여 우리들의 일을 우리들의 뜻에 의해서 우리들 스스로가 해결하며, 우리들 스스로가 책임질 수 있는 마음운을 가져야 하겠다는 것이다.

현 시점에서 볼 때 우리의 역사 중 너무나도 많은 시간동안 사대사상에 물들어 왔기 때문에 아직도 의타성이 남아 있는 경우가 있긴 하지만, 새로운 국가

건설과 발전의 도약단계에서 새로이 국민정신의 재 무장을 한다는 것은 중요한 것이며, 종주국으로서의 피동적인 행동에서 스스로 주인이 되어 주체성을 가지고, 스스로를 위해 일하며 살아감은 민족중흥을 다짐함이 아니겠는가?

#### (2) 긍정적인 자세를 가져야겠다.

과거 좋지 못한 상호 불신과 『내가 아니면 안 된다』라는 생각 그리고 무조건 상대방을 힐뜯고, 부정해 버리던 사고방식을 버리고, 자기가 인정 받고져 하는 것 처럼 그 상대방을 인정하고, 개인을 인정하는 것처럼 전체를 인정하며, 어떤 일이라도 『할 수 없다』는 생각보다 『하면 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어두운 면을 보는 것 보단 밝은 면을 보면서 살아 갈 때 우리들의 내일은 밝은 서광이 비치지 아니하겠는가?

#### (3) 창의성의 개발이다.

우리 민족의 머리는 세계 어느 민족 보다는도 우수하다는 것은 너무나도 잘 알려진 바 있다.

세계 최초를 헤아리는 과학 기구의 발명 등은 이미 알려진 것이다. 그런데 지금에 와서는 고도의 과학 문명이 판치고 있는 서구의 것을 모방이나 하고 그 대로 수수 받기에 급급한 것은 무엇 때 문인가? 우리는 좋은 우리 민족의 두뇌

를 적절히 개발하고, 이용하며 선진 외국의 것을 우리 민족에 맞도록 개량하거나 새로운 과학 문명을 발전시켜 과학을 생활화 시킬 수 있도록 민족의 창의력을 개발해야 할 것이다.

#### (4) 성실해야 한다.

동화에 나오는 토끼와 거북이의 경주 이야기는 너무나도 유명한 것이다.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침착하고, 끈기 있는 인내심을 가지고 추진할 때 무엇이던지 이루어 낼 수 있는 것이다.

국내적인 추세나 국제적인 장단에 흠탄을 추게 된다면 우리는 실속이 없는 민족이 되는 것은 말할 것도 없다.

그렇기 때문에 우린 좀더 계획적이고 섬세하며, 우리들 개성에 맞는 환경에서 서로가 동화되어 성실한 삶을 영위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할 것이다.

#### (5) 검소, 근면, 절약

인간의 본능 자체에 허영심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무조건 검소한 생활만을 하라는 것은 아니다.

사람이 자기의 분수에 넘치게 살려고 할 때 어떤 병적인 상태가 나타나기 마련인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나 자기의 처지를 알아 능력에 맞도록 살아야 할 것이며, 현실에 대한 불만이 많을 때 그 불만을 해소하기 위한 자기희생과 노력으로 남보다 더 노력하고, 노력한 댓

가를 적절히 절약할 때 우리들의 생활은 여유를 갖게 되고, 또 밝은 내일을 기약할 수 있게 되는 것이 아니겠는가?

#### (6) 포용력을 가지는 것이다.

기분이 언짢다고 해서 때리고, 부수고, 배척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모함하는 악습을 버리고, 한 민족, 한 국민으로서 따뜻한 동포애를 발휘하며, 모두가 공동운명체임을 자각하여 서로가 돕고, 이해하여 즐거운 이웃이 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자고로 이웃사촌은 먼 친척보다 좋다고 하던 말들이 지금은 어디로 갔는지, 집과 집 사이엔 담벽을 쌓고, 거기다가 철조망을 두르고, 1년이 지나도 이웃집과 인사 한 번 없이 지내는 자박한 마음으로는 도저히 사회의 발전이 있을 수 없는 것이다.

서로가 생활의 차이, 사고의 차이, 습관의 차이가 있지만, 이러한 것을 서로가 이해하여 주고, 받을 때 우리는 웃고 살 수 있는 것이며, 진정한 사회의 발전을 가져올 수 있는 것이다.

이상에서 살펴본 것 처럼 우리는 우리 민족의 장단점을 알고 있는 이상 장점은 더욱 장려하고, 단점은 빨리 시정하여 민족이 갈 바를 알아 줌다운 국민의 정신적인 지주를 설정하고, 정진하게 되기를 바란다.

## <미국과 아시아의 혈연관계>

미국은 20세기에 들어와서 동남 「아시아」지역에 세 차례에 걸쳐 군대를 보내어 개입함으로써 이 지역에 대해 커다란 영향력을 행사해 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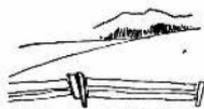
첫번은 2차대전중 진주만을 공격한 일본과 싸우기 위해서 파병했고, 두번째는 2차대전이 끝난 후 3년되는 1950년 발발한 한국전쟁에서 한국을 도와 북괴와 싸우기 위해서였고, 세번째는 61년부터 시작된 월남전쟁에서 월남을 도와 공산군을 격퇴하기 위해서였다.

그러나 미국은 이 세 개의 대전쟁에서 모두 수 십만명의 생명을 잃고 68년 「닉슨」대통령이 취임한 후 소위 「닉슨·독트린」에 의해 점차 월남을 비롯해서 한국, 일본, 「필리핀」, 태국 등 「아시아」의 모든 지역에서 미군을 철수하기 시작하여 적어도 72년까지는 형식적인 숫자의 병력만 남기고 거의 전면 철군을 단행하면서 군사·경제원조도 삭감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세우고 있다.

따라서 여태까지 미국의 원조에 의존해 오던 동남아제국은 이와 같은 추세에 대처, 전후 20여년 동안 굳어온 내미 일변도에서 벗어나서 독자적인 외교정책을 추구해야 할 절박한 입장에 놓이게 됐다.

## <초기 「아시아」 정책>

미국은 2차대전 종전 직후 수년 동안



동남「아시아」에 있어서의

미외교정책 추이

● 「닉슨·독트린」을 중심으로

이 춘 송

<경향신문 의신부 기자>

「아시아」지역에서 서방식민지제국의 부활을 지지한다는 인상을 주는 행동을 일체 삼가해 오면서 합법적인 민족주의 국가의 건설을 지지했다.

1946년 미국은 「필리핀」에 주권을 이양했으며 동남아의 신생국들인 「버마」, 「인도」, 「파키스탄」, 「세일론」 등의 독립을 누구보다도 빨리 승인했다. 또한 미국은 그의 영향력과 유엔을 통해 「인도네시아」를 점령하고 있었던 화란과 「인도네시아」 간의 전쟁종결에 노력하여 「인도네시아」의 독립을 지원했고 태국과 「프랑스」 사이의 분쟁해결을 위해서도 노력했다.

그러면서 미국은 외교정책의 중점을 「아시아」보다는 전후 「유럽」의 재건에 중점을 두고 「트루만·독트린」·「마샬」계획,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구성 등의 단계를 거치면서 소련봉쇄에 더 큰 관심을 쏟았다.

그러나 「아시아」대륙에 중공이 수립되어 「버마」, 「라오스」, 「베트남」 등과 국경을 접하고 침략적, 호전적 정책을 취하고 있다는 징조가 불어남에 따라 그리고 서구식민 지배에서 벗어난 지역에 공산주의자들의 좌파혁명이 이 지역의 민주 독립국가건설에 큰 위협이 됨에 따라 미국은 우선하여 중공, 소련의 팽창 그리고 공산주의자들의 파괴활동을 막기 위

해 강력한 반공십자군으로 전면에 등장 그 이후 동남「아시아」는 미·중공 간의 항쟁의 대상이 되기 시작했다.

1950년 터진 한국전쟁은 미국의 「아시아」정책에 큰 영향을 주었다. 이 전쟁으로 말미암아 공산주의자들의 침략성과 자유국가에 주는 위협을 자신의 이익의 위협이라고 생각한 미국은 즉각 군대를 파견, 3년간에 걸쳐 북괴와 중공군과 직접 싸움으로써 미국의 이해관계가 있는 지역이 침략을 받았을 경우 단호하게 싸울 결의를 실증했다.

이후 미국은 「유럽」과 마찬가지로 「아시아」에 큰 관심을 가지고 대 공산진영 봉쇄를 위한 적극정책을 추진했다. 「아이젠하워」대통령 재임시 미국은 53년 「롤백」(Roll Back Policy)을 강력히 실시하여 소련을 비롯한 공산주의 진영의 내부 붕괴를 조장하는 대 소 적극정책을 감행하기 위해 소련을 둘러싼 미국 전초기지로부터 미국을 비롯한 「유럽」 자유민주주의의 자유 의식을 고취하였다. 롤백정책에 의한 대소 군사력 우위와 자유진영의 단합을 촉구하기 위해서 미국은 한국전쟁서 얻은 귀중한 교훈을 살려 소련과 중공을 둘러싼 세계 각 지역에 지역적인 집단안전보장체제를 확립하였다 「아시아」, 태평양지역에 있어 그 첫 조

치로서 미국은 한국전이 한창 진행되고 있는 51년 「오스트레일리아」, 「뉴우지일랜드」와 3국 안전보장조약(ANZUS)을 체결했고 54년 동남「아시아」조약기구(SEATO)를 구성하고 이를 보장하기 위해 한국, 「필리핀」, 일본 등 각기 상호 안전보장의 쌍부조약을 체결했다.

이와같이 50년대 미국의 동남아정책은 공산국가 특히 소련과의 대전을 예상한 군사력 우위를 확보하기 위한 집단적인 군사체제를 확보하는데 중점을 두어왔다

### <월남전과 미국의 개입>

60년대에 들면서부터 간접침략에 의한 게릴라전쟁을 「인도차이나」 특히 월남에서 강화하여 내부로부터의 전복을 기도하였다. 따라서 소·중공과의 직접 대결을 예상했던 집단안보체제는 이 국지전에서는 사실상 힘을 쓸 수 없었다. 「도미노」이론에 의한 인접국의 계속적인 공산화를 막기 위해 미국은 월남을 내버려 둘 수 없는 입장에 놓이게 됐다.

월남 내의 공산계릴라들은 「베트남」 민족해방전선을 결성, 테러행위를 자행하자 61년 미국은 군사고문단을 파견하여 월남정부군을 지원했다.

그러나 월남전의 결정적인 계기가 된 것은 64년 8월 「퐁킹」만 사건이었다.

월맹은 제7함대소속 「구축함」 「매루스」호를 공격함으로써 미국에 정식 도전하였으며 미국의회는 이 도전에 대응하기 위해 「존슨」대통령에게 월남전에 병력을 투입할 수 있는 비상대권을 주었다.

이 비상대권에 의해 미국은 65년 초부터 대규모병력을 투입하고 북쪽을 단행하는 등 본격적인 월남전에 돌입했고 따라서 미국의 외교정책의 중점은 서구로부터 「아시아」지역에 놓이게 되었다.

그후 69년 6월 「닉슨」대통령이 「팜」도에서 「닉슨·독트린」을 발표할 때까지 53만 4천4백명의 미군이 월남에서 싸웠다.

### <「닉슨·독트린」>

미국의 대「아시아」정책의 큰 전환을 의미하는 이 「팜」도 선언(「닉슨·독트린」)의 내용은 ① 앞으로는 「아시아」 국가가 외침(外侵)을 받더라도 미지상군은 투입치 않는다 ② 「아시아」 국가의 내란에는 미국이 개입하지 않는다 ③ 미국은 근본적으로 테평양국가임을 강조한다 ④ 미국은 「아시아」에 무상경제원조를 줄이고 「아시아」 각국이 자립경제를 달성하는데 최대의 지원을 아끼지 않는다 등 4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닉슨·독트린」이 보여주는 「닉슨」외교의 기본은 「아시아」에 중점을 두었던 중태의 「존슨」행정부의 정책에서 「유럽」으

로 중점을 옮겨 「아시아」에서는 점진적으로 손을 떼려는 것이다.

「닉슨」대통령은 68년 대통령선거에서도 이와같은 내용의 발언을 되풀이했고 취임 후 월남에서의 명예로운 철군을 통해 「아시아」 태평양지역에서의 미국의 역할을 줄이려 시도했다.

물론 이와같은 미국의 외교정책전환은 50년대의 미·소 양극화에 의한 냉전체제에서 60년대 「아시아」, 「아프리카」지역의 제3세계 등장에 의한 역관계(力關係)의 다원화와 동서화해부드에 따라 협상의 시대로 들어온 시대적 변천의 소산이라고 할 수 있으며 「닉슨」대통령도 취임사에서 「『대결의 시대에서 협상의 시대』라는 말로 상황의 변화와 정책변경을 잘 설명 해주었다.

그러나 미국이 해외공약을 줄이지 않을 수 없었던 배경에는 보다 심각한 미국 내의 문제들이 있다.

첫째, 경제적인 문제다. 미국은 2차대전 후부터 67년 말까지 「마샬」계획을 비롯하여 세계의 경제부흥, 저개발국원조를 위해 1천 1백 5억달러의 해외원조를 제공해 왔으며 월남을 비롯한 「인도차이나」에 있어서의 전비(戰費)만해도 69년에 23억달러에 달했다.

게다가 미국의 국제수지가 해마다 적자를 내기 시작하여 금의 유출이 계속되

어 달러의 가치가 위협을 받고 있는 이른바 「달러위기」에 봉착했다.

또한 미국은 국내의 재정수요가 역사상 가장 많이 필요한 때에 당면했다. 경기의 후퇴, 도시개발, 주택, 공해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해 해외원조와 군사비를 줄이지 않으면 안 되었다. 「닉슨」대통령은 71년 회계연도에 국방비를 70년 회계연도보다 58억달러를 삭감한 7백 36억달러로 책정했다. 이러한 국방비 삭감은 「닉슨」대통령의 해외파견군의 전비가 전적으로 이 국방비에 의존하기 때문에 해외로부터의 미군 철수를 불가피하게 만들고 있다.

둘째, 월남전의 악화이다. 월남전에 있어서의 미군 전사자수는 66년 매주 96명이었던 것이 67년 평균 1백 80명으로 2배가 늘었으며 68년에 2백 80명으로 증가한 숫자를 보이고 있으며 월남전이 실제로 격화된 11월 초에도 매주 2백 16명이 사망했으며 61년부터 현재까지의 미군사망자수는 4만 3천 9백 59명에 달한다. 이와같은 전사자 숫자의 증가는 당초 미군이 개입함으로써 공산군의 공세를 쉽게 막을 수 있을 것이라는 예상과는 달리 상대적으로 베트남 및 월맹군이 공세를 강화하고 있음을 뜻한다.

셋째, 미국 국민들의 반전(反戰)사상이 강하게 나타나고 있는 점이다. 미국

인들은 전통적으로 자기 이해가 직접 위협당하지 않는 한 외국문제에 관여하지 않으려 하고 있다. 특히 병역과「직접 관계가 깊은 젊은층 및 학생들은 월남전 반대를 부르짖고 대규모 반전대모를 벌였다. 69년 10월 미국 각지에서 벌어진 반전대모에는 수 백만이 참가하였고 지난 5월 미군의 「캄보디아」진격 후 벌어진 대모로 인해 대학생 4명이 죽고 전국 대학이 무기휴업에 들어가는 등 심각한 사태를 빚어냈다.

이와같이 국제적 정세와 국내적 반발에 쫓긴 미국은 「닉슨·독트린」에 의해 철군을 감행하면서 월남전의 평화해결을 일층 강화했다.

### <월남 미군철수 상황>

69년 54만 3천 4백명으로 피크에 달했던 주일 미군병력은 이후 4차례 감축으로 지난 10월 38만 4천명으로 16만명이 감축됐고 예정된 목표연도인 71년 5월까지 28만 4천명으로 줄어든 것이다.

「닉슨」대통령은 지난 5차 철군계획을 발표하면서 71년 6월 이후 미군 철수는 월맹측의 태도에 달려 있다고 경고한 바와 같이 월남전이 계속되는 한 15만 내지 20만명은 그대로 남아있을 것이 예상되며 철군계획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서 미국 내의 여론, 월남전투능

력, 평화협상진전, 평정계획진전사항을 들 수 있다.

이와같은 감축계획은 월남 및 「아시아」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미국은 이미 NATO를 지원키 위해 서독 등 구라파지역에 파견한 30만명의 미군 중 내년까지 10만명의 감축을 진행하고 있으며 한국에서 2만명을 내년 6월까지, 그리고 태국·「필리핀」에서 상당한 숫자를 철수하고 72년 「오끼나와」기지를 일본에 반환키로 되어 있다.

지난 9월 말까지 극동지역의 미군병력은 육군 40만, 해군 및 해병대 35만명, 공군 17만명 등 모두 92만명으로 35만 6천명이 월남에 있다. 그 외에 한국에 5만 5천여명, 태국에 4만 2천명, 일본에 4만 9천명, 「필리핀」에 3만명 그리고 나머지는 「오끼나와」, 「괌」, 제7함대 등에 배치되어 있으며 극동지역 미군 병력은 전 미병력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숫자이다.

### <명예로운 철수를 위한 협상>

월남전이 군사적으로 해결될 가망성이 없고 미국내 사정에 얽힌 미 외교정책이 해외 불개입이란 노선으로 굳어져 가고 있기 때문에 월남분쟁의 해결방식은 정치적인 해결 즉, 협상을 통해 해결될 수밖에 없다.

미국과 공산측은 이미 69년 1월부터

「파리」에서 월남평화를 이룩하기 위해 평화회담을 벌여 왔으나 아무런 진전도 보지 못했다.

협상에 입하는 미국의 입장은 월남서의 명예로운 철수를 할 수 있는 방도를 모색하는 것이었다. 「닉슨」대통령은 지난 2월 대의회(對議會)보고서 가운데 「협상이 전쟁의 급속한 해결의 최선의 희망을 제공해 준다는 것을 확신하고 있다. ... 또한 우리가 월남에서 어떤 기지나 군사적인 유대도 구하지 않고 있으며 만약 월남국민이 선택하는 것이라면 월남의 중립이든 통일이든 동의할 용의가 있다」고 말하고 69년 4월 월남평화조건으로 제시한 모든 비월남군의 상호적인 철수와 국제감시하의 자유선거를 위해 협상할 것을 주장했는데 이는 월남평화협상에 대한 미국의 기본적인 태도라고 할 수 있다.

이와 동시 미국은 「닉슨·독트린」이 시사하는 바와 같이 월남의 안보에 있어 월남 스스로 책임을 질 수 있는 기반조성을 위해 월남군의 강화와 월남화계획을 강력히 추진하고 여하한 형태의 선거에 대비키 위해 현 월남정부의 입장향상에 노력했다. 지난 4월 31일 미군의 「캄보디아」진격은 「닉슨·독트린」이 일년도 못되어 중대한 위기에 빠지게 않는가 하는 인상을 주었으나 곧 취해진 작전상황과

철수는 「닉슨·독트린」의 단계적 실현과 평화협상을 위한 조처였음이 밝혀졌다.

미국은 「캄보디아」진격을 월남에서의 미군철수를 위한 측면적인 안전확보책으로 이용했으며 또한 월남전을 「인도차이나」전쟁으로 확장함으로써 월남협상을 새로운 차원으로 유도하려는 속셈이었다. 그 증좌로 「닉슨」대통령은 「캄보디아」작전을 끝마친 6월 30일 성명을 통해 「캄보디아」작전이 평화의 전망을 밝게 해주고 미군철수를 촉진시켜주는 데 성공적이었다고 주장하고 「인도차이나」전의 협상해결을 위해 「파리」평화회담의 수석대표를 노련한 외교관인 「부르스」를 임명, 협상노력을 강화했고 지난 10월 다시 평화 5개항을 제시하고 인지(印支)전의 즉각휴전과 인지 3국의 현 분쟁을 다루는 인지평화회의 등을 요구함으로써 「파리」평화회의에 활력소를 불어넣어 주었다.

따라서 월남전에 대한 미국의 견해는 월남전을 「인도차이나」사태의 하나로 보는 경향이 있으며 이러한 미국의 태도 때문에 현 월남정부는 「파리」평화회담과 미국측 태도에 못마땅하게 생각하고 있다.

앞으로 미국은 평화협상의 진전을 위해 월남정부지도자를 설득시키지 않으면 안 된다. 「닉슨」은 대 의회보고서에서 「하

나의 과제는 월남정부에게 월남국민의 자결권을 보장하고 또한 「라오스」의 계속적인 중립을 보장할 타협적인 해결을 결과할 수 있는 참된 협상에 우리와 함께 참가하도록 설득하는 것이다』라고 말한 것은 이것을 잘 설명해 준다.

### <「닉슨독·트린」의 장래 >

최근 중공의 영향력과 국제적인 위치가 급격히 높아지고 있다. 금년들어 「카나다」, 「이태리」 적도 「기니」 등이 중공을 승인했고 앞으로 구공시(歐共市) 및 나토가맹국 그리고 「칠레」, 「볼리비아」 등 미주국가들이 중공을 승인하고 국교를 맺을 것으로 기대되며 중공의 「유엔」 가입도 가까운 장래에 실현될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경제적인 성장을 바탕으로 한 일본의 영향력 증대는 장차 「아시아」지역의 세력관계를 종래의 미·소의 양극체에 미·소·중공·일의 4각체제로 전환시킬 것이 예상된다.

「닉슨·독트린」은 이미 이와같은 중공과 일본의 늘어나는 역할을 전제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미국은 지난 봄 대중공무역 규제 완화와 언론인 여행자의 중공입국을 승인하는 조치를 취했으며 지난 11월 12일 「필립스」 주 「유엔」 마대사는 「유엔」의 중국대표권 문제토의에서 『중공이

국제 사회에서 건설적 역할을 하게 되는 데 다른 나라 못지 않게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역설함으로써 중공을 승인하거나 「유엔」회원국으로서 받아들일 용의가 있음을 시사했다.

이와같은 미국의 움직임은 7억 5천만의 인구를 가지고 있으며 핵적재 대륙간 유도탄을 개발하고 인공위성을 쏘아 올렸으며 외부적으로는 「아시아」, 「아프리카」의 공산 및 좌경국가를 군사적 및 경제적으로 돕고 있는 중공의 영향력을 어쩔 수 없이 현실적으로 인정하고 여기에 대처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 그러나 그러한 표면적인 이유 뒤에는 중공, 소분쟁을 이용하여 「아시아」에 진출하는 소련을 막기 위한 적중혼란책이라는 의도가 도사리고 있다.

소련은 인도와 「파키스탄」 등에 무기를 공급하고 있으며 69년에는 소련 해군이 인도항구 사용허가를 받았으며 소련 함정이 「말레이시아」 영해에까지 진입하기로 하는 한편 「싱가폴」, 「인도네시아」 등에 경제진출을 도모하고 있고 일본과는 「시베리아」 개발을 위해 공동투자를 중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경제, 군사적 진출과 중공의 전제를 위해 소련은 자유국가를 포함한 새로운 「아시아」 집단안보체제를 주장하고 있다. 이 구상은 69년 7월 「브레즈네프」 소련공산

당 제1서기에 의해 당 대회연설에서 밝혀졌으며 「필리핀」, 「인도네시아」 등의 지지를 얻고 있다.

한편 중공은 「동남아시아」 특히 「인도차이나」 3국 라오스·캄보디아·월남의 공산주의자 소위 인민해방전선의 공산활동을 적극 지원하여 이 지역의 공산주의 전도사로 자처하고 있다. 또한 지난 4월 7일 중공수상 주 은태가 북괴를 방문하는 등 적국의교를 벌임으로써 공산국가들의 친중공노선을 굳게 했다.

앞으로 「아시아」에 대한 미국의 역할을 줄이려는 「닉슨·독트린」에 변경이 없는 한 중공과 소련의 진출을 견제하기 위해서는 일본의 역할이 상대적으로 높아질 가능성이 많다.

작년 11월 「사토」 일본수상이 미국을 방문했을 때 미·일 양국 지도자들은 미국이 빠진 후 일본이 미국의 역할을 대행, 「아시아」 방위체제를 주도할 것에 합의본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일본은 「인도차이나」전쟁이 끝난 후 「아시아」 특히 월남북구를 떠맡아 미국의 부담을 줄

이는 반면 군사적인 진출의 가망성도 크다.

결국 금후 「아시아」지역에 있어서의 「닉슨·독트린」의 적용은 월남전을 비롯한 「아시아」의 비미국화와 일본의 대행 역할을 의미한다. 이러한 정책을 실천하기 위해 작년 6월 「닉슨」대통령은 「필리핀」, 「인도네시아」 태국, 인도, 「파키스탄」 등 5개국을 순방하고 지난 여름 「애그뉴」부통령이 한국을 비롯한 자유중국, 태국, 월남을 방문하면서 「닉슨·독트린」실천과 미군철수를 우려하고 있는 국가들을 설득시키려는 노력을 강화했다.

여태까지 미국의 개입으로 이해를 가지고 있었던 국가들에게는 미국의 후퇴가 중대한 위협이 됨을 잘 알고 있는 미국은 태평양 국가로서 대「아시아」방위공약을 성실히 수행하겠다고 약속하고 장비현대화 등 군사원조를 약속하고 있다.

그러나 「아시아」국가로서는 이 지역에서 일어나는 빠른 변화에 대처해야 할 독자적 방책을 강구하지 않으면 안 될 입장에 놓여 있다.

× × × ×

# 문제의 중공과 극동정세



## 나 필 성

<대한일보 외신부장>

### 1. 중공문제의 새물결

국제무대에서 스스로 그림을 가져왔던 문화 대혁명(67~69)시절 이래 침묵해 오던 중공은 70년에 들어서면서 소위 패기에 찬 외교활동을 벌려 「카나다」(10월 13일)와 「이탈리아」(11월 6일)로 부터 승인을 받는 수확을 올렸다.

이로써 중공을 승인한 나라 수는 모두 50여개 국이 되었다.

중공은 문혁(文革)기간 중 47명의 해외 주재 대사들 가운데 1명만 남기고 모두 본국으로 소환했다가 69년 제 9차 전국대표대회 이후 28명의 대사들을 임지로 귀임시켰다.

뿐만 아니라, 미국과 「소련수정주의」를 이른바 부력으로 타도해야 한다는 종래의 무력 강경입변도의 외교노선에서 우호관계 유지와 경제원조 등의 상당히 누그러진 유연외교로 탈바꿈하고 있는 것이 크게 눈에 띈다는 관측들이다.

조반외교(造反外交=소련식 수정주의 외

교노선을 혹독히 비난한 모택동, 임표의 강경외교노선)가 수정주의, 타도를 내세우고 있지만, 많은 경우에 있어 중공은 실리적인 목적에서 「이데올로기」를 넘어 수정주의 국가들과 외교를 맺기 시작했다.

그동안 중공은 「앙드레·베명꾸르」 「프랑스」 계획경제개발장관을 응중히 맞아 들였으며, 「탄자니아」, 「잠비아」, 「루마니아」, 「수단」 그리고 「브라자빌」, 「봉고」의 각료급 대표들을 영접했다.

특히 「탄자니아」와 「잠비아」 두 나라와는 「잠비아」 수도를 기점으로 「탄자니아」를 거쳐 해안에 이르는 진장 1천 6백 Km, 4억 「달러」이치의 철도건설을 위한 협정을 맺었다.

또 「수단」과는 무역협정을 맺었다. 이러한 일련의 유연외교공세는 「유엔」가입에의 거보를 깔구는 데 있다.

「카나다」의 중공 승인 방식이란 새로운 승인형태를 만들어 주목을 끌고 있다.

이 방식은 분단국가의 어느 쪽을 승인

할 때에 다른 쪽의 지위를 묵시적(默示的)으로 규정하는 하나의 선례가 될 것이 틀림없으며, 앞으로 중공 승인 및 분단국가의 승인에 많이 원용(援用)될 것으로 내다 보인다.

지금까지 중공을 승인한 55개 국들이 어떤 방식으로 승인했으며, 자유중국정부와는 어떠한 관계를 유지했는가를 살펴보면 대개 6가지로 나타나 있다.

중공은 1949년 10월 1일 정권수립 이래 외국과의 외교관계 수립에 대한 기본 태도로 자유중국과의 관계단절을 명시적인 조건으로 내세워 왔다.

그러나 일부 서방국가는 자유중국과 단교하지 않고도 승인, 수교를 했는데 그 갖가지 방식은 다음과 같다.

① 중공 성립 직후 무조건 승인=소련을 비롯한 공산주의 국가들이 취한 형태. 60년 진후 잇따라 독립한 좌경「아프리카」의 「브라자빌」, 「콩고」, 「기니아」, 「탄자니아」 등이 이 방식대로 수교했다. (그러나, 「유고」는 1949년 중공정권성립 후 곧 승인을 봉고했지만, 중공이 이에 회답을 보내지 않아 국교관계는 55년 까지 실현되지 못 했었다.)

② 자유중국 단교 후 승인=「스웨스」, 「놀웨이」, 「덴마크」, 「스위스」가 취한 것.

③ 자유중국과 외교관계를 가졌던 나

라가 이미 대만과의 단교를 선언하고 중공과 외교관계 수립의 희망을 밝혔을 때 중공이 이를 받아들인 형식(「파키스탄」, 「실론」)과 중공이 상대방 국가의 대만 단교를 인정하고 외교관계 수립협상이 개시에 동의한 형식(「네덜란드」)도 있었다.

④ 「프랑스」 방식=「프랑스」가 중공을 승인할 때 대만관계를 그대로 두고 있었다는 것은 주목할 만 하며, 서방측으로선 가장 유리한 것. 「프랑스」 중공 공동성명에는 대만정부의 지위나 영토권 주장에 대해 한 마디의 언급도 없었다.

⑤ 영국방식=「프랑스」방식과 비슷하나 차이점은 「프랑스」가 자유중국에 의해 단교됐음에 전후어 영국은 지금도 대만에 영사관을 두고 있다는 승인 후의 사실관계에서 찾을 수 있다.

⑥ 「캐나다」방식=「캐나다」는 중공을 승인하면서, 중공의 『대만에 대한 주권』에 대해 『단지 유익하다』고 성명하여 완전히 긍정하는 것도 부정하는 것도 아닌 태도를 취하여 새로운 중공승인 방식을 남겼고, 곧 이어 「이탈리아」가 이 방식을 본받았다.

중공외교는 이제 미·소(美蘇) 양국화 체제에 도전, 보다 강한 국제적 발언권을 가지는 정치적 대국이 되고자 하는 발돋움으로 해석될 수 있음과 아울러 중

공이 미·소에 접근, 평화공존을 찾고자 하는 것은 미·소 협조에 고립된 처지에서 빠져 나오려는 것이고 또한 미·소를 서로 견제시켜 자신의 국제적 지위를 확보하려는 속셈인 것으로 지적된다.

## 2. 중공과 일본의 접근

중공과 일본은 아직 외교관계가 수립되어 있지 않다. 그러나, 일본의 이른바 정경분리(政經分離)정책에 따라 1950년 초부터 광범위한 통상관계가 이루어져 있어, 접촉은 20여년 간이나 계속되어 오고 있는 터이다.

이 절음발이식 중공·일본관계를 정상화 시키려는 움직임이 중공 쪽에서 더 활발히 벌어지고 있는 한편 일본에서도 이에 맞장구를 치는 세력이 점차 늘고 있어 앞으로 극동안보에 중대한 변화를 몰고 올 것 같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유연외교로 세계 각처에 그의 촉각을 펼쳐 오고 있는 중공은 70년 10월 26일 주은래(周恩來)를 통해 『중공과 일본이 수교(修交)하면 중공은 일본과 불가침조약을 체결할 용의가 있다』는 태도를 나타냈다.

주(周)는 중공을 방문한 일본 사회당 사절단에게 이같이 제의했다고 보도했다.

이러 일본 여당인 자민당(自民黨)안의

은건파 의원들은 일본과 중공과의 관계를 개선, 결국에 가서는 서로의 외교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한 일련의 움직임을 보였다. 이같은 움직임은 이들이 회의를 열고 「일·중공 국교회복 촉진위원회」를 결성하였다.

「아시아」의 세력균형이 새로 이뤄질 것이라는 전망 가운데의 이러한 중공과 일본의 접근시도는 많은 관심을 모으고 있다.

중공과 일본은 서로의 접근이 불가파함을 전제로 상대방의 진심을 타진하는 「제스처」를 쓰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중공의 일본에 대한 일련의 외교공세는 일본에 대한 새로운 양상을 띄우면서 이른바 「경제대국」으로 자라 언제든지 「군사대국」으로 바뀔 수 있는 잠재역량을 가지게 된 일본에 대해 과거의 피해의식이 아직 생생한 가운데 일종의 공포심을 지니고 있음을 드러낸 것으로 볼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어디까지 일본의 힘을 너무 크게 평가한 탓이라고 할 수 있다 해도, 중공이 노리고 있는 일본에 대한 불가침조약 체결 제의 등의 「제스처」는 또한 「아시아」에서의 미국에 대신한 일본의 나타남에 관심을 쏟고 앞으로의 미국, 일본관계에 썩기를 막기 위한 것으로 해석될 구석도 남기고 있다 하겠다.

증공과 일본의 접근공작은 어떠한 형태로든지 간에 우리 한반도 안보에 연결되지 않는 것은 없을 것이다.

증공은 70년 11월 8일 이른바 평화공존 5개 원칙에 따라 어느 나라와도 기꺼이 외교관계 설치협상을 갖겠다는 증공정권의 입장을 재확인 했다.

어쨌든, 증공과 일본의 접근시도는 양성화 될 조짐이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쉽게 결론이 내려질 것 같지는 않다.

1962년 말 증공과 일본은 그 때까지 행해오던 통상거래 형태에서 또 다른 형태로 통상거래를 맺었는데, 이른바 각서무역이 그 것이다.

이 각서무역은 결국에 가선 증공과 일본이 공식적으로 경제 정치관계를 수립하는 한 방법이라고 규정되었다.

이 각서무역의 의의는 이 각서무역협정 체결 이전의 통상거래는 모두 개인기업에 의한 사적인 접촉이었던 것이 정부의 공식 뒷받침을 받게 됐다는 점에서 그 현저한 일본정부의 태도변화를 볼 수 있다는 것에 있다.

이러한 일본정부 태도 변화에 대해 세계는 돈벌이를 위해선 국가 신의마저 저버릴 수 있는 「이커노익·에니털」(경제동물)이라고 일본을 비난했다.

경제접촉 만으로 증공 일본의 관계가

만족스러운 것은 물론 아니다. 통상거래는 계속하면서도, 증공은 일본을 정치적으로 홀독하게 미워해 왔다.

1967년 「사토」 일본 수상이 자유중국과 「워싱턴」을 방문했을 때 증공의 일본 비난은 절정에 달했다.

일본이 방위산업을 늘이고, 자위대를 마구 강화하려는 계획을 발표하자, 증공은 옛 일본 군국주의가 되살아나고 있는 증거라고 맹렬히 공격했다.

증공과 일본은 마치 고양이와 개 사아 같지만, 서로가 경제적인 필요에 따라 무역거래를 해 오면서 접촉하고 있으니, 언젠가는 서로가 국교를 수립하려고 애 쓸 것이다.

「닉슨」집권 이래 이른바 「닉슨·독트린」에 따라 미국은 「아시아」에서의 개입을 줄여가고 있는 추세에 있다.

이 틈을 탄 증공과 일본의 상호접근 움직임은 여러가지 면에서 주목된다. 미국 개입은 적어질 수록 증공과 일본의 「아시아」에 대한 영향력은 상대적으로 커질 가능성 앞에 우리는 서 있다.

이러한 배경에서 증공은 이미 핵무기를 가진 것으로 알려졌고, 일본 또한 방위력 강화를 앞세운 군비확충에 열을 올리고 있으니, 그 가운데 있는 우리는 자주국방을 확립하면서, 증공·일본의 접근을 철저히 경계해야 함이 절대로 필요

하다.

### 3. 중공과 북괴의 재 밀착

중·소 이념분쟁에서 소련의 수정주의 노선에 공명, 중공과 소원한 관계에 있던 북괴는 70년에 들어 중공과 다시 가까워진 것으로 분석됐다.

66년 부터 악화되기 시작, 심한 의견 대립을 보인 이래 과거 어느 때 보다도 친근해지고 있다고 70년 3월 5일 「뉴욕타임즈」가 보도했다.

이들에게 우의의 정신을 불어 넣은 요인은 일본에 대한 그들의 공통적인 적대 의식과 자꾸 늘어나는 일본 군사력에 대한 그들의 우려라고 풀이 됐다.

70년 4월 5일 중공의 주 은래는 북괴 방문, 소위 유대강화를 강조했다.

그동안 중공·북괴관계는 문혁 이전의 중·소 이념분쟁과 관련, 중공의 소련에 대한 비난으로 벌어지게 되었고, 문혁중에는 홍위병들에 의한 김 일성에 대한 인신공격을 실은 대자보(大字報)까지 등장한 것으로 전해 졌었다.

이 악화된 관계를 청산한 것은 미국이 「아시아」에서 손을 떼기 시작하면서, 이때까지 「아시아」에서의 미국의 역할이 일본에 넘겨질 것이라는 공통된 견해에서, 한국동란 중에 맺어진 중공·북괴현행관계가 다시 부활했기 때문이라는 해

석이 일반적이다.

중공과 북괴의 재 밀착은 한반도 긴장에 더욱 위협스런 요인이 될 것이다.

북괴가 1950년 6월 25일 남침을 감행했을 때, 중공은 북괴를 여러가지로 도왔고, 마침내는 패주한 북괴를 구하기 위해 그의 병력을 파견하였었다.

전통적으로 결속해 온 이들 중공·북괴관계의 공고화는 일본 군사력팽창과 더불어 극동정세의 메를 수 없는 핵심이 되어가고 있다.

소련은 수정주의를 채택, 공존시대의 협상으로 기울어져, 2차전 때의 적국이었던 「서도이취」와도 불가침조약을 맺는 등 동서화해의 분위기를 조성하는 반면에, 중공은 여전히 무력혁명을 통한 공산적화를 부르짖고 있는 실정이다.

북괴가 이러한 중공과 다시 밀접한 관계를 가진다는 사실이 음미되어야겠다.

북괴가 중공의 후원을 입어, 「아시아」 군사력의 증추로 다시 얼굴을 내미는 일본에 대항한다는 명분으로 그들의 무력침략조성을 다시 보일 때, 극동은 불안의 와중으로 휩싸일 것이며, 한반도에서의 위기가 폭발점을 향해 출달음질 될 것이다.

어쨌든, 중공·북괴의 재 밀착 현상은 평화공존시대에 커다란 불안이며, 아무래도 반갑지 않은 일이다.

# ◇ 미 · 소 우주경쟁의 현황 ◇

## 심 승 택

(한국일보 과학부)

인간이 광활한 우주에 정식 도전, 무인 인공위성을 지구 궤도에 띄워 올린지도 어언 13년이 되었다.

1957년 1월 4일 인류 최초의 무인 인공위성 「스프트니크」 1호가 소련에 의해 쏘아 올려진 후 그동안 불꽃 튀기듯 치열했던 미소의 우주탐험 경쟁도 1969년 7월 16일 발사한 미국의 「아폴로」 11호가 사상 최초로 심비의 달을 탐험하고 돌아 오는 극적인 성공을 거두자 이제 그 내리막 길을 걷고 있는 감마저 없지 않다.

돈을 물쓰듯 우주개발분야에 투자하던 미국이 소련에 앞서서 인간의 달 탐험에 성공한 후 이제 그 이상 직접적으로 인류에게 어떤 이득을 가져다 주지 않는 우주공간에 「달려」를 날려 보낼 수 없다는 여론과 월남전쟁 혹은 핵 인종문제, 공해문제 등으로 해서 우주분야의 예산을 대폭 삭계하는가 하면 관심을 기울이지 않게 되었고 소련은 소련대로 달 탐험의 영광을 미국에 빼앗기고 허탈감에 빠져 있는 것

같이 화려한 우주 비행이 잠잠하여졌기 때문이다.

우리 인류에게 무한한 꿈을 안겨다 주었고 또 자신을 몰려 일으켰던 미·소의 우주탐험경쟁은 앞으로 어떻게 진척되어 갈 것인가.

최근 우주에 대한 관심은 확실히 저어진 것만은 사실이다.

1957년 10월 4일 소련의 무인인공위성 「스프트니크」 1호가 세계 최초로 지구궤도에 올려 놓아지자 당시 사람들은 사람이 만든 달이 지구 주위를 빙글빙글 돌고 있다는 생각에 현기증을 느낄 정도였다. 그리고 열광했다.

이와같은 우주의 현기증과 열광은 1969 7월 16일 미국이 발사한 3인승 유인우주선 「아폴로」 11호가 달을 탐험하고 돌아오는 극적인 우주 모험에 「피크」를 이루었다.

『이것은 한 인간에 있어서는 작은 한 발자욱이지만 인류를 위해선 거대한 발자욱이다』라는 유명한 말을 달에서 남긴 최초의 달사람 「닐·암스

트롱」 이후 1969년 11월 15일 제 2번 주자 「아폴로」 12호가 달을 탐방하고 돌아 오자 달 탐험은 별로 대단한 것 같이 생각하지 않게 되었다(우주로 부터의 인간의 관심이 둔갑해 진 것이다).

그러든 것이 지난 4월 12일 달로 향해 발사된 「아폴로」 13호가 우주공간에서 불의의 대 사고를 맞게 되자 흠어들었던 인류의 관심을 잠시나마 우주의 「아폴로」 13호로 불러 들였으나 아폴로 13호가 아슬아슬한 여러 죽음의 고비를 넘어 지구로 부사히 귀환하게 되자 미국의 여론은 대단히 비판적인 것이 되었다.

3인승 유인우주선 「아폴로」호를 발사, 달을 탐방하고 돌아오는데 드는 돈은 무려 3억 5천만 「달러」(약 1천 5억 원).

이와같이 많은 돈을 우주 공간에 뿌려, 실제로 얻어 갖고 오는 것이 무엇이나는 것이다.

그것도 귀중한 생명의 위험을 무릅쓰고 말이다.

한 두 번 달을 인간이 직접 탐험했으면 되었지 그 이상 바랄 것이 없다는 것이다. 그 이상의 것은 무인인공 위성을 갖고도 얼마든지 성과를 거둘

수 있지 않겠느냐는 생각에서다.

그리고 미국은 월남전쟁을 위해 많은 진비를 지출해야 했고 흑백인종분제와 심각해져만 가는 공허문제, 사회 복지사업 등을 위한 자금을 마련하기에 마빠야 했다.

이와같은 미국 내외적인 여러 문제로 해서 미국의 우주개발분야 예산은 계속 대폭 삭감되어만 갔다.

1965년 미 항공우주국(NASA)예산이 52억 「달러」에 달하던 것이 1971년 분은 33억 「달러」로 급격히 떨어져 나갔다.

계속되는 예산 삭감으로 해서 NASA는 웅대한 우주개발 계획을 대폭 수정하지 않으면 안 되게 되었다.

「아폴로」 11호에서 20호까지 10개의 달 탐험 우주선을 띄워올릴 예정이었던 NASA는 이미 1개를 취소했는가 하면 경우에 따라서는 앞으로 3개를 더 취소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 실정이다.

미국은 「아폴로」 14호까지는 인간이 달에 머무르는 시간을 조금씩 늘려 11호와 12호가 행한 것과 같이 달표면 「샘플」을 채취하고 달표면을 관찰하느라 월진제, 자력계, 방사능 측정기의 기기를 달에 설치, 달자료를 수집하는데

주력한다.

15호부터는 달표면에서 굴릴 수 있는 차량을 갖고 가서 16킬로미터 범위를 자유로 돌아 다니며 달을 보다 자세히 조사하게 된다.

미국은 또한 1972년부터 「포스트·아폴로」(아폴로 이후)계획에 의해 지구궤도에 12~20명이 30일 이상 장시간 머물 수 있는 우주정착장을 만들고 1980년대엔 이를 발판으로 화성에 인간을 보내려는 계획을 마련한바 있다.

이와함께 미국은 1972년부터는 목성을 탐정하기 위해 무인 인공위성을 발사할 계획을 짜고 있었다.

그리고 「포스트·아폴로」계획과 함께 달엔 지구인의 기지가 건설될 것이 전망되었다.

달 기지는 1970년대 15~30일간 달에 머물며 전체를 관측할 소규모의 천문대가 설치된다.

1980년대엔 지구에서 보급물자의 지원을 받아 달에 인간이 머무를 수 있는 반영구 시설이 건설된다.

1990년대에는 달에서 인간이 살아가는데 필요한 물, 산소 등을 자급자족할 수 있는 소규모 영구시설이 갖추어지고 이렇게 해서 서기 2천년 경엔 인

간이 달에 영주할 수 있는 「호텔」이 들어서고, 달 관광이 수지를 맞추게 될 것이란 것이 미국의 의욕찬 우주계획을 놓고 우주전문가와 미래학자들의 달 개척 전망이었다. 이들의 설명을 들면 인간이 들어설 위치는 달의 북극과 남극이 될 것이라는 것.

1970년대에 달에 이미 건설되기 시작할 달 기지는 먼저 천체를 관측할 천문대와 지구의 태풍과 한발, 그날그날의 일기를 정확히 장기 예보해 줄 관상대를 비롯하여 특수급속 처리를 위한 연구소, 생활의 조건을 밝혀낼 생물학 및 의학연구소가 들어서게 된다는 것이다.

이들 연구소엔 30일 정도 머물며 우주와 지구를 관측하고 과학적인 실험을 하게 될 것이다.

이같은 달 기지의 규모가 점점 확장, 인간이 살아 가는데 필요한 모든 것을 지구로부터 지원받게 될 우주기지가 1980년대에 건설될 우주기지다.

1990년대엔 인간이 생명활동을 할 수 있는 물과 산소 등을 자급자족할 수 있는 공장이 들어서게 되고 이들 공장은 규모가 차차 커져 서기 2천년 경엔 「클로렐라」같은 식물을 길러내서 땅을 만들어 인간이 필요한 모든 것을

◇ 미·소 우주경쟁의 현황 ◇

달에서 얻어내게 될 것이다.

서기 2천년, 21세기에 들어서면 이렇게 해서 달은 지금 지구의 남극과 북극지방에 나가 활동하는 과학자 7백 여명을 뛰어 넘는 약 1천 여명이 활약하게 될 것이라고 미국 「마살」 유인 우주선 「센터」 소장인 「폰·브라운」 박사는 전망했다.

그것이 미국의 우주개발분야 예산의 대폭적인 감축으로 이와같은 화려한 꿈은 모두 현실적으로 깨진 것 같다. 현재 NASA는 한때 42만명까지 고용하고 있던 직원을 14만 5천명선으로 줄였는가 하면 NASA와 계약을 맺고 있던 많은 하청업체들이 일거리가 없어진 NASA에 그대로 늘어붙어 있을 수가 없어 전업을 하고 있는가 하면 많은 이론학자들이 해직되어 직장을 잃는 사태가 쏟아져 나오게 되었다.

우주선을 정확한 길로 안내해 줄 고급기술자들로 1백 75명으로부터 1백 25명의 최저선으로 감원되었다.

그런가 하면 금년 10월로 예정되었던 「아폴로」14호의 발사를 일단 12월로 연기했다가 다시 1971년 1월 말로 연기해 버렸다.

「아폴로」14호 발사의 연기에는 물론 그럴 만한 이유가 있다.

미국의 유인우주 계획은 사고의 원인이 밝혀지고 이에 대한 대책이 서지 않는한 다음의 유인우주선 발사는 있을 수 없다는 것이 NASA의 기본 원칙으로 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고장을 일으킨 「아폴로」13호가 우주선 제작상의 결함으로 해서 일어났기 때문에 자연 우주선의 개조가 따라야 하는데 그러려면 상당한 시간적 여유를 가져야 한다는 것이다.

유인우주선 분야에서 미국이 이와같은 어려움을 안고 있는가 하면 동시에 이미 발표했던 대 우주순방계획을 포함한 태양계 탐험계획에 있어서도 상당한 계획의 취소 및 연기가 예상되고 있다.

미국은 「애그뉴」 부통령을 비롯한 소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1969년 말 미 「닉슨」 대통령은 유인우주비행 계속 우주정거장건설, 화성의 유인비행 대신 무인인공위성을 통한 정찰 계속 등의 의욕에 찬 우주계획을 발표한 바 있었다.

이에 따르면 미국은 「아폴로」19호까지 달 탐험을 계속한 뒤 1972년 「아폴로」응용계획으로 실험적인 우주정거장을 발사하고 1975년에는 12명까지 수용할 수 있는 대형 우주정거장을 건

설한다. 이와 함께 지상과 우주정거장을 연결하는 우주「버스」(스페이스 샷틀)를 개발하고 1976년에 시험 발사한다.

미국은 화성정복이 12년의 오랜 기간과 6백 40억 달러의 예산, 수십만명의 인원을 필요로 한다는 점에서 뚜렷한 목표를 내세우지 못했으나 그 대신 무인 인공위성을 통해서 태양계 혹성의 탐험을 계속 할 것을 다짐했었다.

그 결과 1975년 화성에 연착륙하는 「바이킹」인공위성 2개를 발사한다(당초는 1972년 계획).

그리고 1970년대 후반에 한 개의 무인 인공위성을 이용 북성·토성·천왕성·해왕성·명왕성 등 다섯 개의 태양계 혹성을 관측하는 때 우주순방계획(그랜드 투어)을 착수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한편 달 정복 경쟁에서 미국에 패배한 소련은 그동안 네 개의 유인「소유즈」우주선과 잇따른 「코스모스」무인 인공위성 발사로 우주정거장 건설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1969년 10월 11일 「소유즈」6호에 이어 12일에 7호 13일에는 8호를 발사하여 세 유인우주선이 서로 접근, 초보

적이거나 우주정거장 건설을 시도했다. 여기에서 주목할 것은 최초로 우주 공간에서 실시한 우주용접의 실현이다.

금년에 접어들어 소련은 6월 2일 2인승 유인우주선 「소유즈」9호를 발사하여 약 18일간에 걸친 세계 최장시간의 우주비행 기록을 세웠다.

이전까지의 장기비행 기록은 1965년 12월에 발사된 미국의 「제미니」7호에 의한 약 14일간이었다.

이와 함께 소련은 계속적으로 다목적 무인 인공위성 「코스모스」를 쏘아 올렸다.

소련은 미국이 소련에 앞서 유인 달 탐험을 이룩하자 유인 달 탐험은 지나친 모험이며 따라서 소련은 달 탐험을 포기한다고 선언한 바 있다.

이와같은 선언은 무인 인공위성을 통해 태양계 혹성 탐험을 계속하겠다는 의사표시이기도 했다.

모든 우주탐험 계획이 그렇듯 소련이 태양계 혹성 탐험을 비롯한 그밖의 어떤 우주계획이 모두 비밀의 장막에 둘러싸여 어떠한 속셈을 하고 있는지는 자세히 알 수 없으나 미국에 앞질러 무인 인공위성의 금성 연착륙을 했듯이 그밖의 혹성에서도 같은 성과를

얻기 위해 부단한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예측할 수 있겠다.

이와같은 소련의 야심은 최근에 나타난 미·소의 인공위성 발사수를 비교 검토하면 쉽게 들어 날 수 있겠다.

「아폴로」11호의 인간 달 착륙을 정점으로 그 활동이 급격히 줄어들고 있는 미국과는 대조적으로 소련의 최근의 우주선 발사 수는 대단히 활발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미국의 일부에서는 1950년대 후반의 쓰라린 기억들, 다시 말해서 「미사일」의 「캡」이나 선수를 친 인공위성발사로 해서 「소프트닉」의 교라는 새로운 용어가 탄생할 정도의 국제정치면에서 겪었던 갖 가지 불행이 다시 닥쳐올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할 정도다.

이와같은 예측을 낳게 한 것은 1966년부터 1969년 사이에 미 소가 발사한 우주선이나 인공위성의 총 숫자를 비교하고 그 경향을 분석한 결과에서 엿볼 수 있겠다.

미국의 「제미니」계획이 한창이던 1966년 미국은 74개의 우주선을 띄워 올렸으나 소련은 불과 44개 밖에 미치지 못했다.

미국은 소련을 거의 배에 가깝게 앞

저르고 있었다.

그러던 것이 1967년에 들어서면서 내리막 길을 걷기 시작했다.

이해 미국은 62개, 소련은 66개로 소련이 1958년 이래 처음 우주선 발사 숫자에서 미국을 앞지르기 시작했고 1968년 미국의 우주예산이 삭감되면서 미국은 그해에 50개, 소련은 74개로 폭이 심해졌다.

이와같은 경향은 1969년에 더욱 심해져 미국 41개, 소련 70개로 더 큰 차를 나타낸 것이다.

지난 4년동안 미국은 총 2백 54개, 소련은 2백 17개를 띄워 올려 그 차는 별것 아닌 것 같이 보이지만 보다 중요한 점은 숫자 보다도 앞에서 지적했듯이 그 경향이다.

NASA는 1966년 34개, 1967년 20개 1968년 22개, 1969년 24개로 발사 수가 각각 줄어들고 군사 위성마저 1966년 35개가 발사된 후 계속 줄어들고 있는 실정이다.

미국방성 방위연구 책임자 「존포스터」씨는 상원우주항공분과 위원회에서 소련은 미국을 앞지르기에 혈안이 되어 있고 가능한 분야에는 최우선권이 주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소련의 우주 계획은 광범위하며 특히 군사위성은

미국의 2배가 넘게 방사되고 있다. 작년엔 심한 곤경에 처했던 소련은 이 문제를 극복했으며 그들의 노력이 줄어들 징조는 조금도 없다고 증언, 미국의 우주계획에 깊은 우려를 표명한 바 있다.

지금까지 소련은 사실상 그들이 쏟아낸 인공위성 숫자에 해당하는 만큼 커다란 업적은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소련은 지구궤도를 선회하는 우주선 분야에선 미국을 훨씬 앞지르고 있음이 분명함을 미루어 생각할 때 「스프르니크」호와 같은 성과를 또한 한번 꿈꾸고 있지 않다고 장담할 수 없는 일이다.

이렇게 된다면 미국은 지금까지의 생각을 고쳐잡아 또 한 번의 미·소 우주개발경쟁이 벌어지게 되겠지만 실제로 미국은 우주개발의 예산 삭감이 잠정조치이지 계속적으로 우주개발분야의 예산을 삭감할 수는 없게 될 것이다.

그것은 인공위성을 이용한 기술응용 위성, 다시 말해서 통신위성같은 계획은 실제적으로 커다란 이익을 지상에 떨어뜨려 주고 있기 때문이다.

1964년 8월 미국을 비롯 영국·프랑

스·캐나다·서독·일본 등 19 개국 대표가 한 자리에 모여 통신위성 이용에 관한 국제 간의 협약을 체결, 탄생한 국제상업통신위성기구 (인텔세트=INTELSET)는 1968년 7월 현재의 결산을 보면 연합투자액은 1억 3백만 「달러」에 이르렀고 위원국들은 이익금에서 3천 3백만 「달러」씩의 이익분배를 받았다.

미국을 대표하는 통신위성회사 「콤사트」의 전망에 따르면 우주통신위성은 당분간 연간 약 50 「퍼센트」씩의 이익 증가를 보게 될 것으로 낙관하고 있다.

이와같은 인공통신위성 이용의 성과에 따라 미·소는 자연 응용기술위성 개발에 새로운 관심을 보여 보다 성능이 우수한 것을 개발하기에 힘을 기울이고 있다.

응용기술위성은 통신위성 말고도 현재 기상위성, 항해위성, 천문위성 등이 활약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인공위성을 통해서 지구의 지하자원을 찾아내는 지구자원개발위성(ERTS)을 실용화할 예정이다.

미 항공우주국은 금년 안으로 지구자원개발위성을 지구궤도에 올려 놓을 계획을 짜고 있는데 이 지구자원개발

위성은 3대의 「텔레TV카메라」, 1대의 적외선 분광주사장치와 「컴퓨터」를 갖고 올라 바다와 육지의 석유를 포함하는 각종 광물자원, 바다의 고기메의 종류와 양 및 이동상태 농작물의 작황은 물론 공해원을 포착 수록했다가 지구국 상공을 통과할 때 정보를 정확하게 알려 줄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다.

지구 자원개발위성은 이밖에 교통량의 측정, 1센티미터 정도의 오차를 갖는 정밀한 지도작성, 하천 호수의 흐름은 양 측정, 지하수의 매장지대 발견, 자연재해정보 등 광범위하게 이용할 예정이다.

미국이 1958년 1월 31일 「익스프로터」1호 인공위성을 지구궤도에 올려놓은 이후 12년 8개월 동안 통신·기상 등 실용위성 계획을 성공시켜 왔지만 지구 자원개발위성 만큼 이용가치가 크고 실용적인 것도 없다.

지구 자원개발위성은 현재 TRW회사 및 「제너럴」전기회사에 의해 2개가 개발되고 있는데 소요될 경비는 약 1억~2억 「달러」로 보고 있다.

그러나 지도측정 한 가지 만으로도 연간 약 1억 5천만 「달러」가 절약되는 경제효과가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미 항공우주국의 「폰·브라운」박사는 지구 자원개발위성을 잘만 이용하게 되면 연간 약 8백 30억 「달러」의 엄청난 이익을 취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바야흐로 우주에 쏟은 막대한 투자가 열매를 맺기 시작, 지상으로 그 이익을 떨어뜨려 주고 있다 하겠다.

한편 이와같은 실용위성 말고도 미소는 상대방의 전력을 탐지해 내기 위한 군사위성을 오래 전부터 계속 쏘아 올려왔다.

앞으로도 계속 쏘아 올려질 군사위성은 보다 정밀하고 임무가 방해해질 것이다.

미사일기지의 탐침은 물론 군사이동모든 통신의 수록을 비롯해서 중국엔 인공위성을 방해 적의 「미사일」을 격추하고 또 「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될 전망이다.

물론 우주개발을 군사적인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금하는 국제협약이 되어 있지만 우주개발자체나 군사적인 면과 밀접한 연관성을 맺고 있는 만큼 이와같은 일이 있을 수 없다고만은 생각할 수 없는 일이다.

소련이 대형 우주정착장을 지구궤도에 설치하려는 움직임도 다분히 군사적인 면과 연관성을 갖는 것으로서 방의 우주 및 군사전문가들은 보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긴 하나 앞으로의 미·소 우주개발경쟁은 당분간 놀랄만한 진전은 없을 것 같다.

# 미국의 「아시아」 철수계획

— 해롤란 논문을 중심으로 —



임 동 수

<서울신문 외신부장>

전후의 세계에 있어서 미국처럼 군사 외교정책을 한 나라는 없습니다. 2차 대전으로 기진맥진한 동맹국(영국, 프랑스, 소련 등)은 물론 구적국(舊敵國) (독일, 일본 등)에까지 원조를 해 주었습니다. 그 원조의 덕택으로 이들 나라는 공산주의자의 위협으로부터 스스로를 지킬 수 있었으며, 또 경제적으로도 재기(再起)했습니다. 그 결과 미국이 얻은 것은 무엇입니까? 세계적인 반미(反美) 감정과 국내 발언입니다. 만약 공산주의의 위협이 심각한 것이 아니었다면 또 위협을 받고 있는 나라가 자기의 힘으로 대항할 능력이 있다면, 나아가서 이들 나라가 공산화 되더라도 미국의 안전과 번영이 장기에 걸쳐 보장된다면 미국은 벌써 옛날에 이 수저 타산이 맞지 않는 정책을 포기했을 것입니다. 그것을 할 수 없는데 미국의 고민이 있었습니다.

월남전은 적어도 전략적으로는 전혀 그릇된 전쟁이었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전쟁을 길게 끌어서 이로운 것은 없습니다. 하물며 만리이국의 원정작전에 있어서는 더욱 그렇습니다. 미국이 아무리 강대하더라도 이 전략의 원칙에 어긋난 전쟁을 한 결과는 마침내 그 「아시아」 전략을 근본적으로 바꾸지 않을 수 없게 될 것입니다. 그 원인은 앞에서 말한 반미 감정의 대두보다도 국내의 반전(反戰), 염전(厭戰) 기분이 훨씬 비중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닉슨·독트린」은 말하자면 이러한 모순을 해소하려는 것이며 정치적, 전략적으로는 타당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 「닉슨」 대통령은 그가 대통령이 되기 전인 1967년 가을 미국의 「아시아」에 있어서의 장래에 대한 그의 생각을 정리하여 그것을 『월남 이후의 「아시아」』란 제목의 논문으로 「포린·어페어즈」지에 발표했습니다. 이 논문은 미국의 「아시아」 정책에 관한 여러가지 측면에 언급하고 있지만 초점은 안전보장 문제에 집중되고 있었습니다. 「닉슨」은 이 논문에서 「월남전이 남긴 유산의 하나는 미국 자신이 앞으로 또 다시

## <미국의 「아시아」 철수 계획>

똑 같은 개입을 똑같은 기법에 서서 똑같이 하는 것을 극도로 기피하는 태도로 나타날 것은 거의 확실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그 뒤 「닉슨·독트린」으로 발전한 것은 다 아는 사실이지만 그것이 처음으로 공개된 것이 이 논문이었습니다. 「닉슨」은 그 뒤 대통령이 되어 이러한 생각을 1969년 7월의 「관」섬 기자회견에서 설명했으며, 지난 2월 의회에 보낸 외교교서 속에서 가장 명확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교서에서 「닉슨」 대통령은 「아시아」정책에 관해 다음 세 가지 점을 강조했습니다.

① 미국은 그 모든 조약상의 공약을 지킬 것이다.

② 어느 핵 보유국이 우리의 동맹국의 자유나 그 생존이 우리의 안전보장과 그 지역 전체의 안전보장의 시활적(死活的)으로 중요하다고 우리가 생각하는 나라의 자유를 위협하는 일이 생긴다면 우리는 방패를 제공할 것이다.

③ 그 밖의 형태의 침략이 있는 경우엔 원조가 요청되고 그것이 적절하다면 우리는 군사, 경제원조를 제공할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지위(自衛)를 위한 인원공급이라는 제일의적(第一義的)인 책임은 직접 위협을 받는 나라가 부담할 것을 기대할 것이다.

한국이 이러한 「닉슨·독트린」의 예외가 될 수 없다면 지난 5월 한국조야(朝野)에 커다란 충격을 주었던 주한 미군의 긴급통고는 마땅히 「예상된 충격」이어야 했으며, 69년 3월의 「포코스·레티나」 작전은 바로 주한 미군 긴급 내지는 철수에 대비한 일단의 유사시의 대량 공수작전이었다고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닉슨·독트린」에 관한 이야기(이 글의 서론이 되겠습니다만)는 이쯤하고 본론(本論)으로 넘어 가겠습니다.

극동통으로 알려진 미국의 「저널리스트 리처드·헤들란」씨는 일본 시시통신사(時事通信社) 발행의 영문 계간지 Pacific Community 11월호에 기고한 「미국과 「아시아」— 70년대를 위한 제안」이란 제목의 논문에서 「아시아」로부터의 「미군」 및 「미군기지」 철수계획을 다음과 같이 요약하고 있습니다.

① 미국은 앞으로 5년 이내에 「아시아」지역으로부터 적정부대와 육상기지에 있는 공군부대의 전 병력을 철수시킬 것이다.

② 미국의 지상부대 및 공군부대는 「괌」, 「마리아나」 군도 및 「유엔」 「신탁통치령」에 걸쳐 있는 서태평양 방위 기지군(基地群)까지 후퇴할 것이다.

③ 「아시아」에 잔류하는 미군은 소수의 군사고문 병참전문가 및 연락장교에 국한될 것이다.

④ 미국 해군부대는 계속 서태평양의 국제 수역에서의 작전을 계속하고 일본, 「필리핀」, 「싱가포르」에 있는 제 기지를 사용할 것이다.

⑤ 월남 및 「라오스」로부터는 1972년 말까지 미군을 철수시킨다. 그 밖에 인접국(隣接國)은 미군을 계속 주둔시키거나 더욱 증강할 수도 있다.

⑥ 한국에 있는 미군은 1972년 말까지 철수할 것이다.

⑦ 태국에 있는 미군은 1973년 6월 또는 동년 말(同年末)까지 철수할 것이다.

⑧ 대만(臺灣)에 있는 미군의 소부대는 1973년 말까지 철수할 것이다.

⑨ 1974년 미국, 「필리핀」 간의 기지협정이 폐기될 것이다.

⑩ 일본에 있는 주요 기지는 한국에서 월남에 이르는 군사행동의 병참지원에 중요하며 1974년 말까지 사용될 것이다.

⑪ 「오끼나와」에 있는 기지군(基地群)은 1975년 말까지는 철거될 것이다.

이 「아시아」로부터의 미군 및 미군기지 철수계획의 「청사진」은 물론 공식적인 것은 아니며 한 「저널리스트」의 논문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논문이 우리의 주목을 끄는 것은 그것이 공식적으로 발표된 「닉슨·독트린」의 노선에 따라 구상되고 있는데다가 이 논문에는 「해롤란」 제안에 대한 「아시아」 각국의 반응을 타진하려는 의도가 숨어있는 것이 아닌가 의심되리 만큼 그 내용이 「닉슨」 정부의 「아시아」철수계획의 「청사진」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보다도 이 논문이 제시한 「아시아」로부터의 미군 및 미군기지철수의 청사진이 이미 현실적으로 일부 실증되었으며 또 실증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필리핀」에서는 「해롤란」씨가 그의 논문 속에서 예견(豫見)하고 있는 사실이 그뒤 실제로 일어났습니다. 미국 국방성이 지난 7월 하순 「필리핀」에 있는 미군의 현 병력 2만7천 명을 8천6백명 감축하여 1만8천4백명으로 줄이되 그중 6천 명은 현 회계년도에 철수시킨다고 발표한 것입니다.

그러면 문제의 「해롤란」 논문의 내용 일부를 다음에 소개하겠습니다.

『(전략) 미국은 1972년 말까지는 전체 미군을 월남으로부터 철수시킨다고 발표한다. 월남화 계획은 이미 이 방향으로 추진되고 있지만 이러한 최종 기한을 설정한다면 월남정부는 좋은 심든간에 정계(政界)와 군부는 앞으로 2년 안에 질서있는 것

## <미국의 「아시아」 철수계획>

으로 만들 것을 독촉 당하게 된다. 이것은 과거 5년 간에 미국이 투입한 막대한 군사, 정치, 경제원조를 가산하면 이론(異論)의 여지없이 충분히 여유있는 기한(期限)이다.

월남으로부터의 전면철수는 월맹과 「베트콩」을 협상으로 끌어 들이기 위한 시도로 간주할 필요는 없다. 만약 공산측이 미국과의 정치적 해결을 원한다면 그것은 환영된다. 그러나 그렇지 않을 경우는 미국은 철수하고, 남과 북이 그들 사이의 차이를 전장(戰場)이든 협상 「테이블」에서든 어느 쪽으로든 해결하도록 맡길 뿐이다. 미국이 이미 직접 전쟁 참가국이 아닌 이상 「파리」회담의 미국 대표단은 철수하고, 따라서 그 뒤의 협상은 어떤 것이든 월남 자신의 것이 된다. 「사이공」에 대한 미국의 군사, 경제원조는 계속 제공되지만 그것은 「하노이」에 대한 중공과 소련의 원조가 계속 제공될 것으로 예상되는 것과 같은 형식이 된다(중략).

「라오스」에서는 미국의 준군사 요원(準軍事要員)이 1972년 말까지 철수할 것이다. 「와싱턴」의 역대정권이 주장한 바에 따르면 이들 요원의 임무는 월남전과 직접되어 있다. 미국은 월남으로부터 손을 떼는데 따라 「라오스」로부터도 손을 떼고 분쟁의 수습을 「라오스」인과 그 인접국에 맡길 것이다.

태국에서는 미군은 「인도차이나」 제국에 있어서의 작전을 직접 지원하고 있다. 이 미군은 그 활동을 완료하고 기저가 불필요해 지는 대로 1973년 6월 내지 연말까지는 후퇴할 것이다.

일단 동남「아시아」의 본토에서 떠나면 미군은 이미 「인도차이나」에서의 작전지원을 위해 「필리핀」에 기저를 가지고 있을 필요가 없어질 것이다. 미국과 「필리핀」의 경제관계의 대부분을 지배하고 반 식민지적 관계의 상징이 되고 있는 「로렐·랑그레」 협정이 1974년에 실효하게 되어 있다. 「필리핀」의 「내셔널리즘」에 미루어 이 협정은 갱신(更新)되지 않을 것이다. 이 협정의 실효(失効)는 「필리핀」의 미군기지 반대의 고조(高潮)와 더불어 1974년을 미국이 철수하고 그리고 「필리핀」과의 관계를 새로운 기반 위에서 발족시키는 절호의 기회로 만들 것이다.

북쪽에서는 미군은 1972년 말까지는 한국에서 철수할 것이다. 이것은 결국 미군이 「유엔」의 깃발아래 한국에 22년간 주둔했음을 뜻한다. 한국에 미군을 붙잡아 둘 군사적 이유는 하나도 없다. 한국은 「아시아」의 소국(小國) 가운데 가장 우수한 육군을 길러냈다. 그리고 중공과 소련이 손을 댈치지 않는 한 자기 힘으로 북괴의

침략으로부터 나라를 지킬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 한국은 공군의 증강과 지상군의 약간의 현대화를 필요로 하고 있다. 미국은 미군의 감축에 따라 이러한 필요를 적극적으로 충족시켜 줘야 한다. 미군이 한국으로부터 철수하면 아마도 미국장성을 사령관으로 하는 「유엔」군 사령부는 해체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중략).

대만(台灣)은 타국에 비해 비교적 소규모의 미군 수비대는 1973년 말까지는 철수할 것이다. 그렇게 되면 월남전의 관련작전에 대한 미군의 지원은 완료될 것이다. 과거 20년 동안에 공여된 훈련과 장비에 비추어 자유중국군은 중공으로부터의 통상무기에 의한 공격으로부터 대만을 지킬 수 있을 것이다.

일본에 있는 미군의 대 기지는 한국에서 월남에 이르는 군사작전을 위해 없어서는 안 될 보급상의 지원을 제공하고 있다. 따라서 이들 기지는 1974년 말까지 계속 사용되어야 한다. 일본 기지는 「아시아」 제국에 있는 기지들 가운데 가장 규모가 크기 때문에 이것을 전부 폐쇄하려면 아마도 그만큼 오랜 시간이 걸릴 것이다. 시간이 오래 걸리면 일본이 통상무기에 의한 일본의 방위를 완전히 담당할 수 있을 때까지 자위대(自衛隊), 특히 공군력과 해군력을 증강하는 시간적 여유를 갖게 될 것이다.

끝으로 핵심기지로 마지막으로 철거되는 것은 「오끼나와」의 거대한 시설이 될 것이다. 미국은 1975년 말까지는 여기서 철수할 것이다. 미국은 까다로운 행정상 및 재정상의 세목에 합의가 이루어지면 1972년 중에 「오끼나와」를 일본에 반환한 것에 동의했다. 그러나 미국은 단계적 철수가 완료될 때까지 「오끼나와」 기지를 「아시아」의 기타지역으로부터의 후퇴를 준비하고 관리하는 주요 보급지구로 사용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게다가 현재 「오끼나와」에 있는 방대한 무기, 탄약을 수용하는 새로운 시설을 다른 장소에 만들려면 5년이 걸린다.

이상 포괄적인 제안의 주안(主眼)은 미군이 「아시아」로부터 후퇴하는 것이 「아시아」를 포기하는 것은 아니다(중략).

물론, 이 제안은 「아시아」 전역에 걸친 반미(反美) 「내셔널리즘」의 구체적 목표를 제거해 줄 것이다. 외국 군대의 주둔에 아무리 타당한 이유가 있더라도 그리고 쌍방이 마찰을 일으키지 않도록 아무리 신경을 쓰더라도 스스로의 주권하의 영토에 오랜 기간 외국 군대가 존재하는 것을 기꺼이 허락한 나라는 없다(중략).

중공의 눈에는 미군의 후퇴는 외부로부터의 커다란 위협이라는 외관(外觀)이 제거되는 것으로 비칠 것이다. 미국 전략군(戰略軍)의 지원을 받는 「아시아」 국가들의

집단 안전보장 체제는 있을 수 있는 중공의 침략을 저지하는데 있어 지금까지와 같은 정도의 방위력을 가질 것이다. 그러나 실제로 그렇다고 생각하지만 이 동맹은 공격적이기 보다는 오히려 방위적인 것으로 비칠 것이다. 따라서 북평(北平)으로 하여금 미국과 중공의 여러 이웃 나라에의 적의(敵意)를 완화시키게 될 것이다(후략).

이상 「해불란」 논문에서 우리는 다분히 비현실적이며 안이(安易)한 판단 내지 평가를 쉽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 첫째는 미군의 철수가 자국이 되어 「아시아」 국가들 자신에 의한 집단 안전보장 체제의 조적이 촉진되고 자력(自力)에 의한 「침투공작」의 방지 및 이와 싸우는 전의(戰意)가 고취되리라는 판단입니다. 이 논문은 「아시아」 국가들에게는 미군이 철수하면 자기 힘으로 침략에 대항할 수 있는 힘이 있다고 보고 그 한 예로서 한국이 지난 20년 동안에 북괴의 무력침략에 대항할 수 있는 충분한 힘을 보유하게 되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의 경우는 어쨌든 「아시아」의 여러 나라는 지리적 조건 뿐 아니라 정치, 경제, 문화 등 모든 면에서 극단적으로 다른 다양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다양성을 가진 「아시아」 제국에 대해 미군의 철수에 따르는 동일한 반응을 기대한다는 것이 과연 현실적인 것이라고 할 수 있을지 의문이 아닐 수 없습니다. 물론 「아시아」인이 스스로를 지킨다는 정신은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기 위해서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합니다. 군사면에서의 자립은 전전한 경제적 기반 없이는 달성할 수 없습니다. 「아시아」에서 지금 당장 그 능력을 가진 나라는 일본 뿐입니다. 「아시아」의 집단적인 자조(自助)도 강대국과 직접 결부되지 않는 한 불가능한 것이 현실입니다.

둘째는 미군의 「아시아」로부터의 철수는 중공의 눈에는 커다란 위협이 제거된 것으로 비치게 되어 이것이 미국이나 「아시아」 제국에 대한 중공의 적의(敵意)를 감소시켜 줄 것이라는 평가입니다. 이러한 안이(安易)한 평가는 지난 20년 동안 중공의 위협을 받아 왔고 지금도 받고 있는 「아시아」 국가들은 물론 미국 내의 지각있는 인사들을 설득하기도 어려운 것 입니다.

미군이 「아시아」로부터 철수한다고 해서 「아시아」 제국에 대한 중공의 위협이 현재보다 감소된다는 보장은 전혀 없으니 말입니다. 물론 중공의 「아시아」 정책 속에는 미군의 「아시아」 주둔에 따르는 위협에 대항하려는 요소도 적지 않았지만 그것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미국에도 없을 것입니다.

중공이 노리는 것은 바로 「아시아」 지역을 지배하는 것이며, 미군의 존재가 이러한 중공의 목적에 방해가 되기 때문에 미군의 「아시아」 주둔을 비난해 온 것이 오히려 진상(眞相) 이기 때문입니다. 「해틀란」씨는 본말(本末)을 전도(顛倒)하고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현재 중공이 미군의 존재를 중공에 대한 위협이라고 비난하고 있으니까 미군을 철수시키면 중공의 이웃 나라들에 대한 정치적, 군사적 위협이 감소하고 중공이 평화공존노선으로 전환한다고 생각하는 것은 중공과 「아시아」의 복잡한 정세를 너무나 모르는 순진하고 안이(安易)한 생각이라고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차제(此際)에 미국의 극동봉으로 알려진 인사들 가운데 이처럼 안이한 중공관(中共觀)을 가진 일부 인사들이 있다는 것을 명심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캐나다」, 「이탈리아」를 비롯 서방국가들 간에 대중공(對中共) 접근의 움직임이 두드러지고 이들 틈탄 중공의 적극외교, 추파공세가 주목을 끌고 있는 작금(昨今)입니다. 「인도차이나」 정세를 배경으로 한 중공과 북괴의 재 접근이 북평(北平)을 기축으로 평양(平壤), 「하노이」를 연결하는 반미(反美) 통일전선의 강화로 나타나 중공의 커나란 그림자가 한반도(韓半島)에 펼쳐온 오늘의 현실을 생각할 때 우리는 미국의 중공접근의 움직임 뒤에 이러한 일부의 안이한 중공관이 작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경계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일부 비현실적인 판단과 평가를 떠나서 「해틀란」 논문은 미국이 생각하고 있는 1975년까지의 「아시아」정책의 일단(一端)을 제시하고 있는 것이든지도 모릅니다. 미국은 지금까지 우리가 생각하고, 믿어온 과거의 미국은 이미 아니라는 것을 이 논문은 경고해 주고 있다고 봐야겠습니다.

고 금 소 담

알렉산더 대왕에게 당신의 절난점은 무엇이라고 묻는다면 그는 대답하기를 전세계를 나의 군대의 발굽 밑에 휘어 잡았노라고 말하리라. 소크라테스에게 당신이 한 일이 무엇이라고 묻는다면 그는 사람으로 하여금 가장 사람으로서 적당한 모습이 무엇인가를 말하였노라고 할 것이다. 사람의 영혼의 가치라는 것은 높이 올라가는 점에 있는것이 아니라 오히려 올바르게 행동하는 점에 있다. 그것이야말로 참된 학문이다.

<몽테뉴>

# 「낮세르」이후의 중동

특히 「북아프리카」연방의 태동을 중심으로



---

김 병 무  
<한국일보 기자>

◇ 사라진 「아랍」인의 태양 「낮세르」. 북 「아프리카」연방 결성은 「하나의 아랍국가」를 건설하려던 그의 소망이 맺은 첫 열매다.

## 신념의 정치인 「나세르」

흔히 역사는 탁월한 지도자의 그림자에 지나지 않는다고 말한다. 적게는 한 교을을 다스린 영주로부터 크게는 한 민족, 국가를 통치하는 군주에 이르기 까지 지도자의 이념과 사상 또는 이를 실현하는 권력작용의 양태에 따라 역사는 각기 다른 측면을 지니게 되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볼 때 「가말 압델 나세르」는 분명 진후 세계사의 한 저류를 기록한 위대한 지도자의 한 사람이었다. 오늘날 우리가 「나세르」 이후(포스트·나세르)의 중동을 말하는 까닭은 곧 그의 죽음이 역사의 분수령을 기른다는 것을 의미하며 그가 일전에 펼쳐놓은 구상들이 그의 후계자들에 의해 어떻게 마무리될 것인가 관심을 놓고 있음을 반증하는 것이다.

「나세르」야 말로 1억의 「아랍」민족에게 막대한 자부심을 일깨워준 『정신적 태양』이었다. 52년 부패한 「파루크」왕정을 타도하여 3천만 「이집트」국민에게 근대화 의 여명을 밝혀준 「나세르」가 열강의 모진 압력에 맞서 「수에즈」운하 국유화를 단행함으로써 「아랍」제국에 자주화의 불길을 올린 것은 크게 기록될 사실이다.

따라서 「나세르」라는 정치적 거인의 요절은 많은 과제를 미해결의 상태로 남

겨두고 있다. 이른바 『펜 아라비즘』(범「아랍」주의)의 기치 아래 하나로 단결된 아랍 민족 국가를 건설하려던 웅대한 꿈이 남아있고 그가 「아랍」세계 안의 「매」파들을 억누르고 수락, 실현을 보게 된 중동 평화협상은 쌍방이 서로 말을 나누어 보기도 전에 중단되어 있다. 그가 영도했던 아랍 내부에 있어서도 상극과 대립 속에 내일을 예측할 수 없는 상태다. 「나세르」가 남긴 마지막 업적이자 그의 사인이 되었던 「요르단」 내전은 일단 수습되는 듯 했으나 휴전협정을 맺은 정부군과 「칼레스타인」 게릴라들은 결집하면 총격을 나누고 있어 어느 때 다시 대규모 내전으로 번질지 예측하기 어렵다. 이러한 상황에 놓인 「아랍」세계가 오늘날 당면하고 있는 고민은 「나세르」에 의해 뿌려진 씨앗들을 거두어 들일만큼 고도의 정치적 경륜을 갖춘 정치가가 없다는 데 있다. 그것은 세계평화의 지렛대 노릇을 하고 있는 중동 평화협상의 추이를 지켜보는 강대국들의 고민이기도 하다. 「나세르」가 「로저스」 중동평화안을 수락한 것은 결코 자의에 의한 것이 아니라 고요 알려져 있지만 그가 적어도 자제를 할 수 있는 정치적 도량이 있는 사람인 것은 사실이었다.

「나세르」가 잔지 석달째 접어들면서 북 「아프리카」 연방제 「아랍」세계는 비록

변용된 체제로나마 질서를 회복해서 「낫세르」가 구상한 노선을 밟아가는 징후가 차츰 나타나고 있다. 「낫세르」 사후 권력쟁탈전이 가열될 것으로 예상된 아랍 공화국은 재빨리 「낫세르」의 혁명동지였던 「안와르·사다트」를 대통령으로, 친 소파의 거두 「알리 사브리」를 부통령으로 하는 지도체제를 확립했다. 뿐만 아니라 「아랍」 공화국은 「리비아」와 「수단」과 함께 지난 8일 북「아프리카」연방의 결성을 발표함으로써 「낫세르」가 생전에 달성하지 못한 「아랍」권 통합의 제 1보를 디딘 느낌이다.

그러면 이들 세 나라가 「낫세르」가 죽은 후 서둘러서 연방 결성을 공포한 것은 무슨 연유일까? 움직여버들은 이것이 「낫세르」 이후 「아랍」세계의 리더십을 둘러싼 압축에 대한 선제조치의 하나일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표면상으로 드러난 사실로 보면 「낫세르」가 69년 12월 9일 「수단」의 수도 「카르툼」에서 「수단」의 강자 「니마이리」와 「리비아」 수상 「가다피」등 삼자가 만난 자리에서 3국통합에 원칙적 합의를 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낫세르」가 가고 없는 이제 그와 맞먹는 권위를 행사할 만한 복보적 지도자가 없는 이상 「사다트」 「니마이리」 「가다피」가 단합함으로써 「아랍」세계의

패권을 확보해 주자는데 있는 것으로 관측하고 있는 편이 지배적이다. 그래서 저 새로 탄생될 북「아프리카」연방 3개국이 어떠한 형태로 결속될 것인지 뚜렷하게 밝혀진 바 없다.

북「아프리카」연방의 탄생은 대 「이스라엘」협상에 압력 가할듯 중동의 세력 균형을 중요시할 가능성도 있다. 「아랍」의 입장에서 보면 「이스라엘」과 평화는 협상이든 결말을 내려야 한다. 현재 「아랍」측과 「이스라엘」은 세계여론에 밀리어 휴전에 들어갔으나 협상의 문은 닫힌 채 2차례의 유예기간을 보내고 있지 않은가? 협상이든 전쟁이든 승부를 결정하는 결매적 요소는 바로 힘이다. 서방 「움저어버」들은 이들 3국이 경제적 상호 협력관계를 벗어나 군사적 통합의 가능성은 한결같이 배제하고 있으나 3국의 통합 「이스라엘」과의 협상에 잠재적 압력으로 작용할 공산은 얼마든지 있다. 「프랑스」가 「리비아」에 공급을 약속한 신에 「미라주」 전폭기 1백 10대가 만일의 경우 「아랍」 공화국에 가담, 「이스라엘」을 강타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는 있다. 설사 「리비아」 국적의 전폭기가 직접 출격을 안 한다 해도 이상 3국의 밀착화로 「수단」과 「리비아」가 「아랍」공화국에 후방 기지를 제공하게 된다면 「이스라엘」군의 작전 반경은 훨씬 확대되고 만다. 더구

나 최근 「바트」당 내 「마르크스」주의 세력을 축출하고 집권한 「시리아」의 「아사드」 정권이 이 연방에 가입할 뜻을 밝히고 있는 것은 주목거리다. 「시리아」는 「요르단」 「이라크」 등과 아울러 「아랍」 동부전선을 형성하는 국가로서 지금까지 「낫세르」가 이끄는 사회주의 세력과 맞서 「아랍」의 지배권을 다룬 좌파사회주의 세력의 총 본산이었다. 이 두 대립되는 세력이 공교롭게도 「낫세르」 죽음 이후에 손을 맞잡게 된다면 「이스라엘」은 화전(和戰) 양면에서 크게 압력을 받게 될 것이 뻔하다.

국력으로 볼 때 이 세 나라의 통합체는 「아랍」권 전연적의 50 퍼센트와 인구의 51 퍼센트를 차지할 뿐 아니라 병력은 전체의 44 퍼센트, GNP는 37 퍼센트를 기록하는 대국이다. 아랍공화국의 입장에서 보면 자국의 식량탄을 막대한 생산고를 올리고 있는 「수단」의 밑에 의존할 수 있으며 「리비아」로부터 더욱 많은 경제원조를 얻을 수 있게 된다. 많은 석유자원을 가진 「리비아」는 지금까지 「아랍」공화국은 물론 「요르단」 「레바논」 등 제국에 연 2억 달러 상당의 경제원조를 해 왔으며 「요르단」 내전 이래 「후세인」 정부에 원조를 중단함으로써 내전 종식에 압력을 가하기로 했다.

북「아프리카」연방의 출범은 한 말로 말

해서 안으로는 「낫세르」사후 「아랍」세계 내부에서 일기 시작한 등요를 막고 지도 체제를 굳히는 한편 밖으로는 화전양면에서 「이스라엘」에 대해 압력을 「가증시킨 것이라 할 수 있다. 정치적 통합 앞선 실리의 악수 북「아프리카」연방을 발족시키려던 당초의 동기는 이러한 정치적 산술보다는 중동의 석유 생산국들을 조합형식으로라도 한데 묶어 「유럽」제국이나 미국에 대한 흥정의 몫을 높이자는 데 있었다고 주장하는 이도 있다. 그것은 「이스라엘」을 패배시키기 위해 「낫세르」 자신의 솔하게 많은 모임을 갖고 「아랍」세계의 단결을 꾀했으나 번번히 뜻을 이루지 못한데 대한 편법이었던지도 모른다.

「낫세르」생전에 그의 가장 친근한 서방측 인사였으며 「이집트」혁명 직후 공화국으로서 출범한 「이집트」의 정부조직에 직접 간여한 바 있는 「마일즈 코플랜드」씨는 「낫세르」가 현실적으로 전략을 수정한 때를 69년으로 보고 전략의 초점을 미국의 고립화에 두고 있었다고 주장한다. 당시 「낫세르」는 20억 달러 이상의 자본을 중동의 석유에 투입하고 있는 미국을 아랍민족이 단합해서 고립시키는데 성공하면 「이스라엘」과 미국을 연결하고 있는 밀착된 관계가 붕괴될 것이라는 속셈을 가졌다고 보는 것이다.

북「아프리카」연방 탄생의 움직임과 아울러 「시리아」에 무혈 쿠데타가 일어나 우파정권이 들어선 것도 「낫세르」 사후에 일어난 큰 사태변동의 하나이다.

「누레딘·아타시」 대통령을 축출하고 스스로 수상에 오른 「아사드」는 군인이면서도 매우 냉정하고 현실주의적 정세관에 밝은 사람이다. 그는 「바트」 당 내 좌파의 거두인 「살라 자디드」 등과 격파 세력이 추구하는 교조주의적 「아랍」 통일론에 반기를 들었고 「이스라엘」과 평화적 협상을 주장하는 인물이다. 「요르단」 내전 때에도 그는 「팔레스타인」 게릴라에게 무조건 무제한 원조를 해야 한다는 좌파 세력의 기로를 꺾었고 이것이 발단이 되어 오랜 암흑 끝에 그가 실권을 잡기에 이르렀던 것이다. 「아사드」가 집권 후 「아랍」 공화국과 손을 맞잡을 것을 공언한 것은 「시리아」가 중동평화 협상은 무조건 반대한다는 중전의 입장

을 바꾸었다는 점에서 환영할 만하다. 이에 뒤이어 「후세인」 「요르단」 왕이 「팔레스타인」 국가 창건을 위해 「아랍」 국 정상회담 소집을 제의한 것도 주의를 끈다.

중동분규의 밑바닥에는 살 권리를 요구하는 「이스라엘」인들의 요구와 빼앗긴 땅을 되찾겠다는 「아랍」 피난민들의 절구가 상충됨에 따라 비롯된 것일진대 어떤 형태로든 1백50만 「아랍」피난민의 정착이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이다. 생전 「낫세르」가 「이스라엘」과 전쟁을 수행할 때나 협상을 벌일 때 항상 그를 전제한 것은 바로 이들 「팔레스타인」세력이었던 것이다.

이러한 모든 움직임은 거목 「낫세르」가 쓰러진 뒤 「아랍」 세계가 그가 살아서 정해진 방향을 쫓아 전진하고 있는 증좌로 볼 것인가? 단정을 내리기엔 많은 시간이 필요할 것 같다.

### 고 금 소 담

견망은 심리적으로 볼 때 진퇴 양난의 증거를 의미한다. 그러나 모든 문제는 반드시 해결책이 있다는 것을 굳게 믿으며 살아야 한다. 어려운 문제일 수록 먼저 조용히 행동해야 한다. 긴장은 사고력의 흐름을 막아버린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사람의 두뇌는 긴장된 상태에서는 원만한 길을 찾지 못하고 만다. 어려운 문제일 수록 오히려 쉽게 해결하려고 해야 한다. 지나치게 긴장한 태도가 늘 문제 해결의 가장 큰 장애물이라는 것을 알 필요가 있다.

<노 마 필>

# 캄보디아 사태 진전과 월남전 전망



이 남 규

<조선일보 의신부 차장>

미·월연합군의 캄보디아작전을 계기로 어떤 전환이 있을 것 같은 월남전이 다시 교착상태에 빠졌다. 연합군과 공산군은 그 어느 쪽도 새로운 공세를 취하지 않고 있는 가운데, 월남의 주요지역은 우기를 맞아 전투는 소강상태를 유지하고 있다.

한편 파리회담은 「데이비드·브루스」 미국측 수석대표가 부임함으로써 다시 본 궤도에 올랐으나, 아직도 평화를 위한 새로운 진전이 있을 징후는 보이지 않는다. 이제 라오스와 캄보디아를 합쳐 인도차이나 반도 전체를 무대로 하게 된 월남전은 다시 인내의 싸움으로 돌아간 것 같다.

한 때 세상을 들끓게 했던 캄보디아 작전은 음년 6월 30일 그 작전에 참가했

던 모든 미 지상군이 월남으로 돌아감으로써 일단 끝을 맺었다. 이 작전이 성공했으나에 대해서는 아직도 의논의 여지가 있으나, 대체로 군사적인 측면에서는 기대했던 성과를 달성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 같다. 작전 기간, 또는 그 후의 월남전 상황이 그것을 말해 주고 있는 것이다.

캄보디아작전은 월남-캄보디아 국경 지대에 산재한 공산군의 이른바 성역에 대해 실시되었다. 이 작전에는 미 제 1공중기동사단과 제 25보병사단을 주축으로 한 3만 1천명의 미 지상군과 월남정부군 4만 3천명이 투입되었다. 이것은 당시 월남에서 연합군이 차출할 수 있었던 최대의 병력이었다.

「닉슨」미국대통령은 이 작전이 월남전

에서의 실패를 되풀이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두 가지 제한을 설정했다. 작전구역은 국경선에서 35킬로미터 이내로 국한하고, 작전기간을 60일로 한정하는 것이다. 그리고 작전의 목표를 성역 내의 공산군기지를 파괴하는 것으로 명시했다.

그 결과는 “인친상륙작전 이래의 최대 승리”로 끝났다. 물론 이와 같은 평가는 군사적인 측면에 대한 것이고, 그 정치적인 성과는 좀더 시일을 두고 보아야 한다. 어쨌든 공산군이 캄보디아작전 기간 중, 또는 그 이후에 월남에서 한 번도 대대적인 공세를 취하지 못했다는 사실은 캄보디아작전이 많은 비판에도 불구하고 군사적인 면에서 승리했음을 말해주고 있다.

그러나 그와 함께 캄보디아작전은 미국 내에서 커다란 분열을 일으켰다. 반전론자들은 「닉슨」대통령의 캄보디아작전을 전쟁의 확대로 보고 격렬한 반전운동을 시작했다. 이들은 월남에서 미군을 즉시 철수시킬 것을 요구했다. 그리고 이 반전론자들의 움직임은 어느 정도 성과를 얻었다. 미국 상원 내의 반전세력은 6월 30일 이후 캄보디아 내 미군작전에 대한 자금지출을 금지한다는 이른바 「쿠퍼—처치」 결의안을 통과시키기에 이른 것이다.

그러나 이와 같은 반전론자들의 움직임은 「닉슨」대통령의 의도를 고의로 곡한 것이다. 「닉슨」대통령의 일관된 월남정책은 작년 11월의 연설에서 지적했듯이 월남에서 미군을 철수하고, 월남정부군으로 하여금 전투임무를 맡게 하는 이른바 월남화정책이다. 캄보디아작전도 바로 이 월남화계획의 일부로 단행되었던 것이다.

「닉슨」대통령은 캄보디아작전을 명령하기 2주 전, 전국 라디오—텔레비전 방송을 통해 주월미군의 15만명 철수계획을 발표했다. 이 계획은 그의 월남계획이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다는 명백한 증거로 이해 되었으며, 미국 내외에서 대체로 호의적인 반응을 일으켰다. 그리고 오는 11월에 중간선거를 치루어야 하는 「닉슨」대통령은 그런 반응을 필요로 했다.

그러나 「닉슨」대통령 자신이 지적했듯이 주월미군의 철수에는 세 가지 선행조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① 파리협상의 진전, ② 공산군의 전투규모의 축소, ③ 월남정부군의 강화 등이다. 이 세 가지 조건 중 그 어느 것도 15만의 주월미군의 철수를 가능케 할 만한 조건에 이르지 못했다. 「닉슨」대통령은 철군계획을 발표하면서, 월남 정부군의 전투력강화를 그 이유로 들었으나, 현지 야전사

평관들의 의견은 다르다. 이들은 만약 내년 봄까지 「닉슨」대통령의 약속대로 15만명의 미군이 철수하게 된다면, 월남의 안전은 심각한 위협을 받게 된다고 주장했다.

미국 내의에서 격렬한 반대가 일 것을 예상하면서도 「닉슨」대통령이 미 지상군과 월남 정부군의 캄보디아 진격을 명령한 이유는 바로 여기 있다. 그는 주월 미군을 계획대로 철수시키기도 월남의 안전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은 오랫동안 공산군의 보급기지가 되어온 캄보디아의 성역을 파괴하는 수 밖에 없다고 판단한 것 같다.

공산군이 월남에서 압도적으로 우세한 연합군에 대항하여 이처럼 버틸 수 있었던 것은 성역의 존재 때문이었다. 공산군은 연합군의 추격으로 위급한 지경에 빠질 때마다 성역으로 피신했고, 또 거기서 훈련과 보급을 받아 전투력을 강화했다. 이같은 성역은 월맹, 라오스 등지에도 있었다. 그러나 끝까지 연합군의 지상 또는 공중공격으로부터 안전했던 것은 캄보디아 내의 성역 뿐이었다.

캄보디아의 성역은 「시아누크」공의 비호 아래 베트콩의 주요한 작전기지 노릇을 했다. 유명한 67년의 구정공세에서도 주로 캄보디아에 기지를 둔 공산군의 활약, 사이공시를 위협했다. 특히 「시아누

크빌」(나중에 콩포솜으로 개칭) 항구를 통한 해상보급로는 공산군의 가장 중요한 보급로가 되어 있었다.

미국은 오래 전부터 이 성역을 공격할 기회를 찾았으나, 「시아누크」공의 좌경적인 중립주의 때문에 뜻을 이루지 못했다. 「시아누크」공을 축출하고 우경적인 중립정책을 내건 「론놀」장군의 새 캄보디아정부는 미국에게 더할 나위 없는 기회를 제공했다. 공산주의자들의 위협 아래 놓여 있던 「론놀」정부는 성역제거라는 점에서 미국과 공통의 이익을 발견했던 것이다.

「론놀」장군의 기대도 어느 정도 이루어졌다. 한 때 그 운명이 경계에 달려 있던 「론놀」정부는 자체를 방위할 수 있는 시간을 얻었다. 「론놀」정부는 아직도 외부의 원조를 필요로 하고 있지만, 공산군의 공격은 충분히 물리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론놀」정부의 안정은 앞으로 월남정세에 커다란 영향을 끼칠 수 있다. 만약 「론놀」정부가 쓰러지고, 다시 「시아누크」공이 집권한다면 캄보디아는 대대적인 공산군의 기지가 될 것이 명백하기 때문이다. 미국이 캄보디아 사태에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고 개입하고 있는 것이 이 때문이다.

「론놀」정부가 강화되고, 캄보디아 성

력이 완전히 봉쇄된다면, 미국은 여유있게 월남전을 수행할 수 있다. 공산군은 전처럼 해상을 통한 손쉬운 보급로가 아니라, 미군의 공습에 노출된 험한 타오스의 육상보급로를 사용하지 않을 수 없게 된다. 그렇게 되면 공산군의 보급능력은 반 이하로 격감될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이미 이와 같은 추산이 틀림이 없다는 징후가 나타나고 있다. 캄보디아작전 이후 공산군의 공세는 크게 저하되었다. 공산군이 그나마 공세를 펼 수 있는 지역은 캄보디아작전의 영향을 받지 않은 북부지역 뿐이다. 공산군은 이 지역을 중심으로 때때로 공세를 펴고 있지만, 그 규모는 전에 비해 상당히 떨어져 있다.

미군 소식통들은 공산군이 이와같은 새로운 상황에 대비하여 그들의 부대를 분산시키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공산군은 많은 희생이 따르는 대부대작전보다는 소규모 게릴라전법을 다시 사용

하고 있는 것 같다. 이것은 전장에서 이니셔티브를 질 수는 없으나, 장기전에는 견딜 수 있는 체제다.

한편 미국은 그동안 빈자리로 있던 파리 평화회담의 미국측 수석대표로 「메이비드 브루스」씨를 임명했다. 「메이비드」대표는 “평범위한 재량권”을 가진 것으로 보도되고 있으나, 그의 임명으로 파리 회담에 어떤 돌파구가 마련될 징후는 보이지 않는다. 오히려 「메이비드」대표의 임명은 미국이 그동안 그 자리를 빈자리로 남겨 놓아 협상의 열의를 보이지 않았다는 비난을 면하기 위한 조치로 해석되고 있다.

결국 미국은 전쟁과 협상 양면에서 장기전에 대비하고 있는 것이다. 공산측도 마찬가지다. 불리한 위치에 빠진 공산측이 선뜻 협상에 응할 리는 없다. 공산측은 시간을 끌면서 인내의 싸움을 벌이면서, 다시 구정공세와 같은 대공세로 그들의 우세를 과시할 수 있을 때까지 현재의 상태를 계속 유지하려 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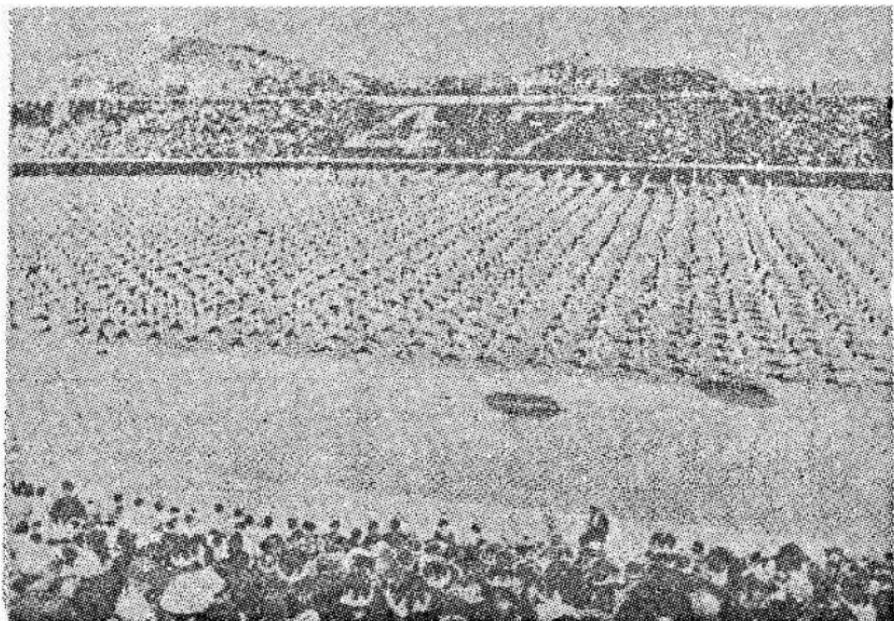
#### 박 대통령 문언록에서

하늘은 위업을 남긴 민족에게 먼저 어려운 시련을 주었고 이러한 시련을 자기 스스로의 힘으로 극복해 나갈 수 있는 민족만이 축복과 번영을 누릴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민족 중흥의 도정에 가로 놓인 시련을 우리의 힘으로 극복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 태권도의 올바른 인식 (2)

—태권도의 일반사항—

김 병 문 <태권도 6단>



<전국 체전에서 태권도 마스게임 광경>

태권도는 우리 나라에서 시작되고 우리 나라에서 발전되어 이제 세계 만방에 보급된 민족무술이다. 우리민족은 삼국시대부터 청소년들로 하여금 자진하여 국방을

담당케 하였으니, 삼국을 통일한 신라 화랑도들이 나라를 위하고 그들의 심신단련을 목적으로 명산 대천을 찾아 수련하던 여러가지 무예 중 주로 발판을 쓰던 「택견」이라는 무술이 무인들 간에 널리 보급되어 있었다는 사실은 여러가지 역사적 문헌으로 증명되었었다. 이러한 우리민족 고유무술이 고려시대를 거쳐 계속 널리 성행하다가 이조에 이르러 무인을 경시하는 사조로 대중보급이 되지 못하고 그 명맥만을 면면히 유지해 오다가 설상가상으로 왜정 36년간을 그대들의 민족문화 말살정책에 눌려 그 빛을 보지 못하고 있다가 해방이 되면서 다시 활발히 보급되기 시작하였다. 한 때 빛을 보지 못하고 일반에게 널리 알려지지 않았던 이 무술은 혹자는 중국 무술이다, 혹은 서양 것이다 라는 논쟁을 벌여가며 여러가지 명칭으로 계속 보급되어 오던 중 특히 한국군에서 집단적으로 수련 발전시키고 체계적인 형(型: PATTERN)과 기술이 완성되어 오늘의 태권도가 되었고, 1955년 4월 1일 가칭 태권도 명칭 제정위원회에서 손 보다 발을 많이 쓴다는 이유와 신라시대 「택견」이라는 이름을 모방하여 태권도가 탄장일치로 가결되어 오늘날 명칭이 태권도로 통일되었고 그로부터 눈부신 발전을 거듭, 전 세계에 보급되기 시작하여 미국, 말레이시아, 독일, 월남 등 46개국에 보급되었다. 특히 월남전에서의 한국군 태권도는 실전에 큰 효과를 보았을 뿐 아니라, 민사 심리전에도 많은 도움을 주었다. 현재 월남에는 20만이 넘는 수련생이 태극기 아래에서 한국군 교관에게 지도를 받고 있는 것이다. 이제 태권도는 한국의 자랑스러운 국기화 일뿐 아니라 국군의 자랑스러운 특기이기도 한 것이다. 필자는 지난호 태권도의 사적고찰을 이어 일반사항인 기본사항과 형, 대련, 심사 등을 간단히 소개하고자 한다.

기 본 사 항

가. 공격 및 막기부위

아무리 기술이 좋다하더라도 상대방에게 큰 타격이나 아픔을 주는 위력을 갖지 못한다면 태권의 진가를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공격부위라 하면 상대방에 접촉되는 어떠한 부분 또는 면(面)을 말함인데 모든 힘과 충격은 이를 통하여 상대에 전달된다. 몸에 전달되는 부분, 혹은 면을 공격부위라고 하고 이론상 힘을 집중시킬

수 있는 부분은 모두 공격부위라고 생각할 수 있으나 힘을 용이하게 집중시킬 수 있고 단련할수 있는 17개의 부분에 사용된다. 그리고 대부분의 공격부위는 막기부위가 된다. 그런데 이 무기는 다른 무기와는 달리 기성품은 살 수 없는 것이고 다만, 각 개인의 확고한 결의와 끊임없는 연마에서 만이 얻어지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수기의 사용부위는 정권, 이권, 유권, 평권, 장권, 지권(指拳), 수도, 역수도, 관수(貫手), 반달손, 팔꿈치, 팔목, 손집개, 손등, 장권바탕, 손목등, 품손, 모지권, 수도바탕, 모지바탕이 사용된다. 족기(足技)로서는 앞발꿈치, 뒷발꿈치, 족도, 무릎, 발등, 발뒷축, 발등, 발끝, 무릎 등이 사용된다.

나. 급소(急所) 감수성이 있는 부분 혹은 공격에 대하여 약한 부분을 태권도에서는 급소라 칭한다.

인중이나 명치 관자놀이 등은 대단히 단련하기 어려운 부분인고로 외부로부터의 타격에 대하여 받은 상처나 아픔은 몸의 다른 부분에 비하여 훨씬 심하고 치명적일 것이다. 급소의 총 수는 660개나 된다고하나 태권도에서는 신체의 정중선에 36, 몸 양 옆에 103, 도합 139개소를 이용하나 공격부위와 급소와는 기술의 측정에 따라 좌우되는 것이다. 적절한 공격부위로 정확히 급소를 공격하였을 적에 졸도, 실신, 시력, 청력능력상실, 기타 일시적으로 잠들게 한다든지 3일 혹은 3개월 후 죽게 되는 것은 2차적 쇼크로서 동맥유 간장세포의 파멸 등으로 기인된 것이다.

## 다. 태권도의 힘의 원리

### (1) 시간과 속도(Velocity & Time)

태권도에서 흔히 격파를 볼 수 있는데 이 격파는 곧 태권도의 위력을 보이는 방법의 일종으로 생각한다. 태권도의 힘은 질량, 시간, 속도에 기인되는데 힘이 아무리 크다 하더라도 속도가 없다면 미는 결과가 될 것이다. 또한 접촉된 부분이 크면 클수록 힘의 위력은 약해지는 것이다. 그러기 때문에 태권도의 힘은 적은 부분에 가장 빠른 속도를 집중시킬 때 순간적 쇼크를 줄 수 있는 힘이 되는 것이다. 「뉴우튼」의 힘의 제 2원칙이 곧 태권도의 힘의 이론이 되는 것이다.

$$MV_2 - MV_1 = \int_{+1}^{+2} \underbrace{M}_{\text{M: 질량}} \underbrace{+1+2}_{\text{시간}} \underbrace{F}_{\text{F: 힘}} \underbrace{V_1, V_2}_{\text{속도}}$$

만약, 우리가 접시를 땅에 떨어뜨리면 떨어진 접시는 가속도에 의거, 순간적으로 땅에 닿을 때 깨진 것이다. 이것을 위의 공식에 적용해 볼 때 V1은 땅에 떨어지기 전의 접시가 되고 t1은 접시가 V1 V2로서 땅에 떨어지는 시간이다. t2은 접시가 땅에 닿는 순간이며, t1 t2의 시간은 순간적으로 힘이 증가되는 움직임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F = \frac{mv1}{t}$  힘은 시간에 비례하고 속도에 반비례한다.

### (2) 힘의 집중(Concentration Force)

태권도의 힘에 기인해서 목표의 급소를 적게 잡아야 한다. 힘의 집중이 적으면 적을 수록 강해지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사람이 눈 위를 설 때 넓은 신을 신고는 설 수가 있으나 작은 신발로는 빠지는 것과 같다. 칼을 던져서 나무에 꽂을 수는 있으나 큰 물체는 불가능한 것과 같다. 이것을 공식으로 풀어보면

$$S = \frac{F}{A} \begin{cases} S: \text{Vertical Stress} \\ F: \text{External Vertical Force} \\ A: \text{Impact AREA} \end{cases}$$

### (3) 균형(Equilibrium)

태권도에서 몸의 균형은 곧 힘의 요소가 되는 것이다. 지렛대의 원리도 그 기계의 중심 균형으로 인해 큰 힘을 내는 원리가 되는 것이다.

### (4) 호흡조절(Breath Contro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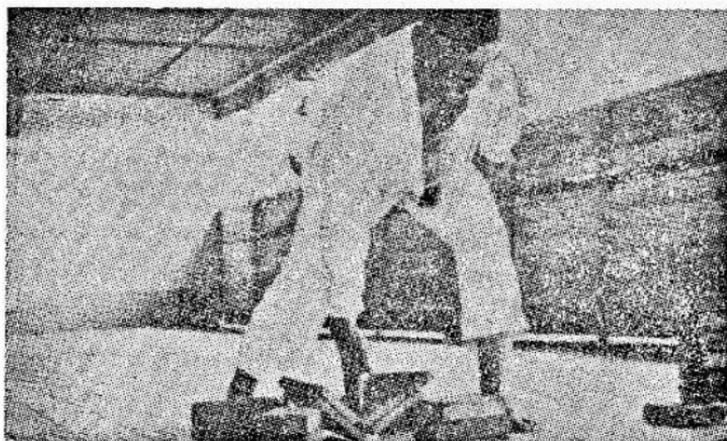
호흡과 힘은 기계적으로 일치되어야 한다. 호흡의 조절과 뛰는 발이 일치하지 않으면 마라톤에서 곧 지치는 것과 같다. 태권도에서는 힘의 요소의 하나로 호흡에 크게 좌우된다. 모든 몸의 급소는 호흡이(공기가 들어오는 순간) 들어올 때 약해 지는 것이고 그 반대로 내뿜을 때 강해지는 것이다. 그러기 때문에 공격의 경우는 상대방에 접근하게 되므로 호흡을 밖으로 내쉬어야 하고 기타의 경우에 호흡을 들어쉬어 기술적 조절이 필요하다.

### (5) 정신통일

힘의 원리도 우리 몸의 정신적인 통일이 필요하다. 분산된 정신에 힘이 강할 수 없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 (6) 수기(手技)

공격은 찌르기, 때리기, 찌르기 3가지로 이루어 지는데 이 삼자가 상호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까닭에 명확한 선을 긋기는 어려운 것이다. 그러나 각각 목적과 방법이 다른 것 만은 사실이다.



### 〈관수로써 2부송판 2매를 격파하는 장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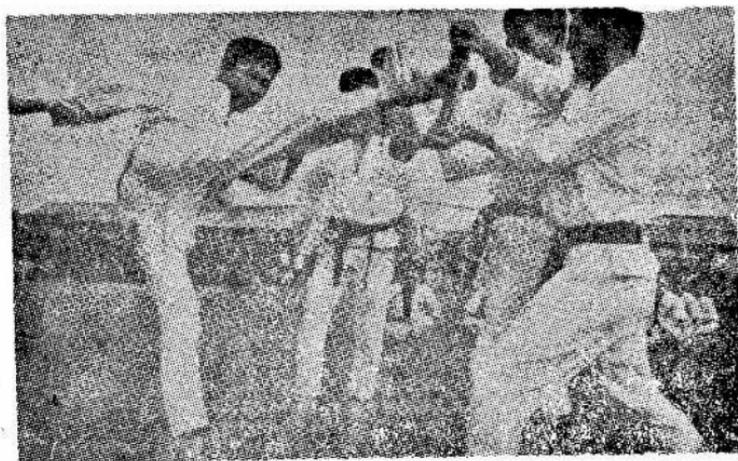
즉 찌르기는 공격부위를 완전히 돌림으로써 외부의 상처 보다도 내부에 타격을 주자는데 그의 목적이 있는가 하면 찢기는 공격부위를 적게 돌려 급소를 찢고 들어가는 것이다. 그리고 때리기는 공격부위를 거의 돌리지 않음으로써 급소의 근육이나 뼈를 부수는데 또한 중점을 준 것이다.

공격은 인체의 상단, 중단, 하단에 대하여 이루어 지는데 수련상 모든 가상적 목표는 공격하는 사람이 서 있을 때 표준한다. 수기공격에서 공통된 원칙으로는 동작의 시초에 허리와 하복부를 갑자기 틀며 공격부위가 목표에 닿는 순간 하복부에 힘을 주며 공격하는 부위는 공격목표에 닿자마자 빠른 속도로 당겨야 한다.

### (7) 족기(足技 : Foot Techniques)

족기는 실로 태권도의 자랑거리며 다른 어느 무도에서도 보기 어려운 기술이라 하겠다.

사실상 큰 위력은 발에서 나오는 것이며, 수기의 3배가 되는 것이다. 그러기 때문에 오늘날 사도를 태권도라고 부르는 이유도 여기에 있는 것이다. 족기는 공격과 방어로 구분된다. 공격으론 차 부수기, 차 찌르기, 차 누르기로 대별하는데 일반적 원칙으로서서는 서 있는 자세 다리의 무릎에서 나오는 탄력성을 최대한으로 이용하며 차자



<돌려 차기로 송편을 격파하는 장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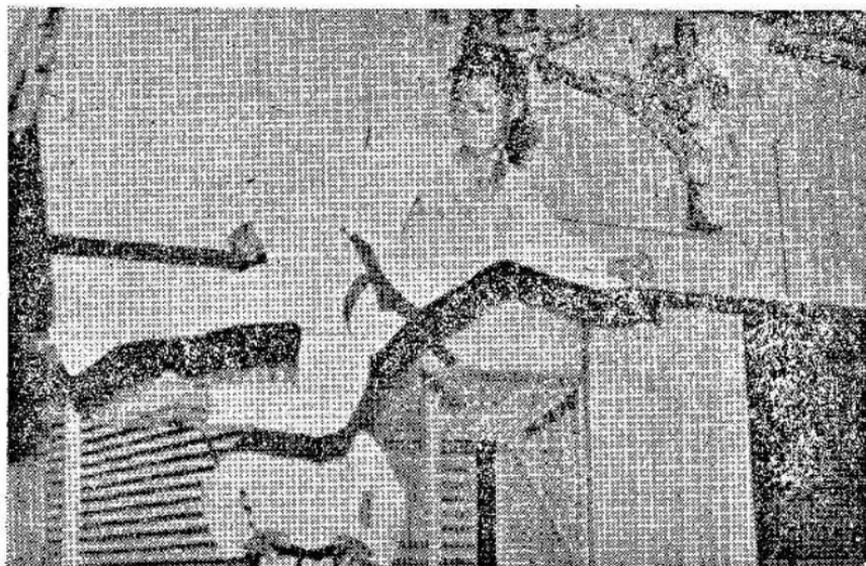
마자 찬 발을 거둠으로써 다음 동작의 신속을 기하고 상대방으로부터 붙잡히는 것을 방지한다. 또한 체중은 순간적으로 한 다리로부터 다른 다리로 옮겨야 하고 서 있는 발로 균형이 잡혀야 한다.

#### (8) 방어기(Blocking)

수기 족기의 방어에서 주 방어가 이루어지나 피하기 혹은 장애물 이용의 방어도 있다. 주로 막기는 손으로 이루어지나 손의 사용이 불가능시 발로 이용되는 것이다. 수기의 일반적 방어기론 장권, 안팔목뼈, 바깥팔목뼈, 등팔목뼈 또는 정권으로 이용된다. 족기로는 차올리기, 반달차기, 도로차기, 차 멈추기, 걸쳐차기 그리고 걸어차기 등이 있다. 방어에 있어서 피하기가 강조되는 이유는 단지 방어가 손상을 적게 입는다는 것 만이 아니라 상대방하고 충분한 간격을 둠으로써 발을 마음대로 사용할 자는 데도 있다. 따라서 피하기의 성패 여부는 체중의 이동에 있다. 그런데 체중은 각 방향에 대하여 기민하고 적시적절하여 융통성 있게 옮겨져야 한다. 체중의 이동은 자른발 옮겨 디디기, 자른발 미끄럼발 돌기뛰기 그리고 낮추기 등으로 이루어진다.

## (9) 보조기구

단련에 사용되는 단련땡은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큰 땡은 차고 찌르는데 공히 사용되거나 작은 땡은 뛰며 슥이뛰기 또 뛰며 물러차기에 사용된다. 단련땡은 고정 또는 이동 역할을 하는 고로 어떠한 시기나 방향에서도 적시에 숫질을 공격하는 연습 이외에도 발의 단련과 뛰며 차는 기술을 향상시키는데 대단히 좋다. 기타 보조기구로 단련그네, 막기를, 단련줄, 아령, 단련공, 목마, 단지, 모래통, 발목틀, 서기를, 거울 등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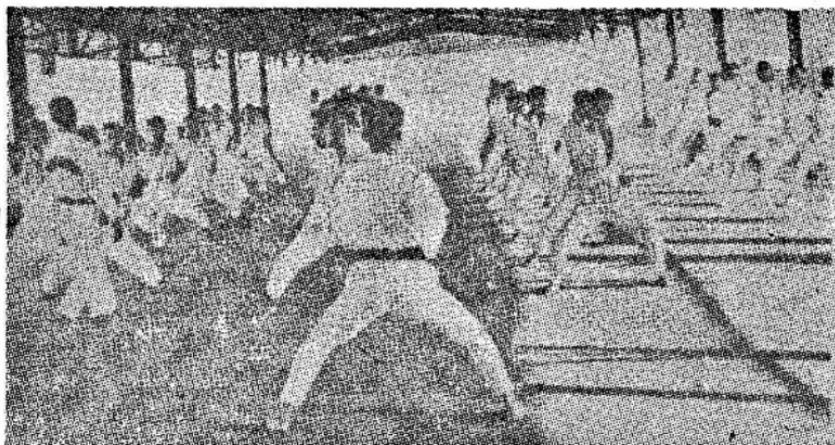


<땡을 차는 연습>

형(型 : PATTERN)

형은 태권도에 있어 가장 근원이 되는 것이며 실제에 있어서 상대방의 공격을 저

수공권으로서 여하히 방어하며 여하히 공격하면[합리적이며 효과적인가의 원칙적인 방법을 단독 동작으로서 연무선을 보행하며 수련하는 것인데 오늘날과 같이 발전된 대련방법이 있기 전까지는 실제 상대를 놓고 대련하기는 어려웠던 까닭에 상대방 없이 혼자서 연습할 수 있도록 공방의 필요한 여러 동작을 이론에 맞도록 엮은 것을 형(型)이라 한다. 따라서 형은 여러가지 상황하에 수 명의 적을 조직적으로 상대할 수 있도록 공격과 방어의 동작을 과학적으로 연결한 하나의 표본이다. 형을 연습함으로써 여러가지 기본동작을 혼합 수련하고 대련의 기술을 향상시키며, 융통성 있는 동작을 기르고 중심의 이동방법, 근육단련, 호흡조절을 익숙하게 시킬 뿐 아니라 기본 수련에서 습득할 수 없는 어떠한 특수한 기술을 연마할 수 있다. 대부분의 형은 수 세기 동안 여러 태권도 대가들에 의하여 창안되고 발전된 것이기 때문에 그 수가 많을 뿐 아니라 각각 특징을 가지고 있다. 이것을 대별하면 소림유, 소령유, 창현유 등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어떠한 형이 되었든지 그 기본원리 원칙은 같은 것이다. 모든 형은 시작한 지점에서 끝나야 하고 힘을 넣을 때는 넣고, 뺄 때는 빼어, 움직이어야 하며 거리의 조정, 시선의 정확, 호흡조정은 공통된 착안점이다. 중국이나 일본에서 하고 있는 재래식 형을 보면 기본형, 병안형의 기본이 되는 형이 있고 경민형으로론 모조산, 공상군, 단권 공방형, 장권 공방형, 태조권형, 파괴형, 밧사이형, 완수, 진토, 노하이, 명경, 二十四보 등이 있고 강웅형으로론 철기형, 기마, 십수, 세산, 자은, 진태삼진, 십산씨, 엔전, 十八, 三十六, 팔기, 태극, 소진사이, 후아, 국론후아, 운수, 공전, 신파, 하후아, 二十八보 등이 있다. 현재 국군에서 하고 있는 창현류는 순수한 우리 한국의 형으로 육군 소장 출신인 최 홍희 장군(현 국제 태권도 연맹 총재)이 창안한 것으로 동남아 일대와 미국을 위시하여 전 구라파 일대에서 각광을 받고 있다. 창현류의 특징은 가볍고 무거운 동작 그리고 빠르고 느린 동작을 혼합함으로써 몸이 가벼운 사람도 무거운 동작을 할 수 있는 반면 몸이 무거운 사람도 가벼운 동작을 할 수 있도록 한것과 죽기를 광범위하게 사용한다에 있다. 그리고 각 형의 이름이나 동작의 수 또는 연무선은 역사적 인물들의 이름이나 호를 따고 또한 그 시대에 일어난 사실을 상징한 것이다. 그 종류는 23개가 있는데 전지형, 단군형, 원효형, 윤곡, 중군형, 퇴계형, 화랑형, 충무형, 판계형, 포은형, 계백형, 유신형, 충장형, 을지형, 삼일형, 최영형, 고당형, 세종형, 통일형, 서산형, 의협형, 문무형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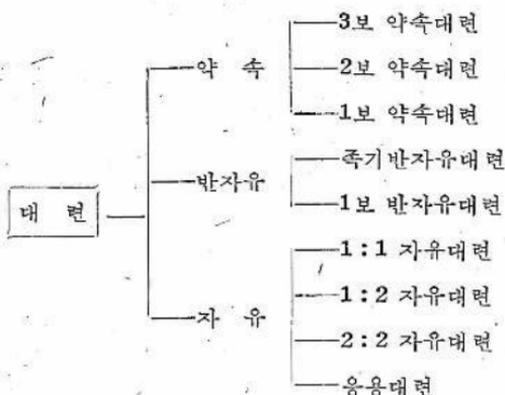


<형을 수련하는 장면>

### 대련(對鍊 : SPARING)

대련은 실제로 움직이는 상대방에 대하여 여러가지 변화된 상황하에서 형 또는 기본수련에서 채득한 공격과 방어 기술의 사실상 적용하는 것이다. 따라서 형이나 기본동작하고는 불가분의 관계가 있을 뿐 아니라 감투정신과 용기를 북돋우고 눈을 민첩하게 단련하여 상대방의 전술 또는 움직임을 간파하는 능력을 기르고 공격부위와 막기부위를 단련하고 자신의 기술이나 힘을 테스트하며, 형 혹은 기본수련에서 얻을 수 없는 기타 동작을 습득하는 등 실로 태권도의 중요한 요소의 하나이다. 대련은 일반적으로 약속대련, 반자유대련, 자유대련의 3가지로 구분된다.

대련은 문자 그대로 타인을 상대로 하는 만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며 또 그려야만 한다. 무엇보다도 태권도의 본 정신을 일시로도 망각하지 않을 것이며 공방에만 정신을 몰두해서는 안 된다. 야심을 포기할 것이며 공을 급히 끝내지 말고 순서를 밟아 연습되어야 한다. 거리의 조정, 기압, 중심의 이동, 시선, 호흡조정, 체의신축 등은 대련시 8대 요소라고 할 수 있다.



심사(審査 : Testing)

심사는 태권도 수련의 단계적 성과를 분석평가하여 개인의 기술 승급 승단의 기록

구분	순서	급 · 단	형의 구분
급	1	8급~7급	천지~단군
	2	7"~6"	단군~도산
	3	6"~5"	도산~원효
	4	5"~4"	원효~율곡
	5	4"~3"	율곡~중군
	6	3"~2"	중군~퇴계
	7	2"~1"	화량
단	8	1단~2단	충무~관계
	9	2"~3"	관계~포은
	10	2"~3"	포은~계백
	11	4"~5"	계백~유신
	12	5단 이상	유신~통일

을 주기 위한데 있다. 일반적으로 분기에 1회 승급심사를 보나 2개월마다 보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1급에서는 최소 6개월이 되어야 1단(段) Degree의 심사를 볼 자격을 얻는다. 단별심사 최저 기간년도를 보면 1단에서 2단은 2년, 2단에서 3단은 2년, 3단에서 4단은 3년, 4단에서 5단 공히 3년이 되어야 한다. 5단에서 6단 이상은 기간에 구애됨이 없이 심사위원회에서 결정하는 예가 많다. 채점방법은 형, 대련, 격파를 구분하여 총점이 90점 이상일 때 3계급, 80점 이상일 때 2계급 80점 이하일 때 1계급이 승급 가능하나 각 수련관별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있다. 단은 1단 승단이 되며 2단은 승단이 불가능하다. 급단별 형의 기준과 착안사항을 보면 앞 페이지 도표와 같다.

착안사항은 동작의 정확성, 중심의 이동, 힘의 집중, 시선, 호흡조정, 기압절 거리조정 기타 미와 율동으로 구분한다.

대련의 기준을 보면 아래와 같다.

순	서	급 · 단	대 련 구 분
1		8급~7급	3보 약속대련
2		6"~5"	1,2보 약속대련
3		4,3,2"	1보 및 자유대련
4		1 "	자유대련
5		1단~3단	자유대련
6		4"~5"	응용대련
7		5단 이상	응용대련 및 이론 발표

착안점은 일반적으로 정확한 공격, 정확한 방어, 거리조정, 힘의 강약, 유도 및 허접 발견 공격부위 선택, 특기기술 기타 무도정신을 들 수 있다.

격파(Power Check)의 기준은

순	서	급 · 단	격 파 물	비 고
1		8급~5급	없음	
2		4"~3"	정권 기와 8매	

3	2 급	족기송판 1매
4	1 급	특기격파 1매
5	1 단	정권 10매, 수도벽돌 1, 180° 회전 축송판 1
6	2 단	360° 회전축송판 1매
7	3 단	특기격파
8	4 단	특기격파 및 장애물 격파
9	5 단이상	장검, 단검 사용법 및 이론 발표

착안점으론 정확한 자세, 속도 격파력, 힘의 집중, 호흡조정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본부 군수국 군원파>

<고 급 소 담>

육체상의 고통—즉, 어디가 아프다던지 할 경우는 어떠한가?  
 사람이 견디기 어려운 고통은 없다. 고통은 심하면 짧고 지속적인 고통은 가벼운 법이다.  
 너무 고통이 심하면 그 고통이 사람을 업어 갈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스스로 꺼져버리는 것이 고통의 결말이다.  
 우리는 어떤 신체상의 고통을 피할 수도 없고 없애는 방법도 없다.  
 하지만 참으로 모든 고통이 가벼워지는 것 만은 사실이다.  
 옛날의 성인들은 일부러 고통을 찾아 고통과 맞섰다.  
 전쟁 때 이쪽이 도망치는걸 보면 적은 한층 기세를 얻어 추격해 온다.  
 고통도 우리가 그 앞에서 몸을 떨면 우리를 잡아 누르려고 한다.  
 그러나 우리가 이에 저항한다면 고통은 드디어 항복하고 마는 것이다.  
 힘을 주면 육체는 강해진다. 영혼에도 힘을 주어야 한다.

<동태뉴>

# 세계의 제트 여객기 소개



## 이 상 일

### <보잉-707>

세계 최초의 본격적 대형 제트 여객기.  
팬 아메리칸 항공회사의 요구설계에  
의하여 개발되었다.

북대서양에의 최초 취항은 코멧트기에  
의하여 그 첫 기록을 세웠으나 실질상  
제트기에 의한 정기운항은 이 보잉 707  
이 최초가 된다.

보잉 707의 조비행은 1957년 12월 24  
일,

조취항은 1958년 10월 26일로 되어 있  
다.

이 보잉 707은 종사가 장래의 여객수  
증에 대한 예측과 전략목표기에 대한 공  
중급유를 목적으로 하여 자체 개발한 36  
7-80기를 근간으로 하여 개발한 것으로,  
균용으로는 이와 같은 KC-135가 있다.

보잉 707은 최대 이륙중량과 동체의 길

이 및 장착엔진에 의하여 -120, -220,  
-320, -420 등 각 씨리즈 및 펜·엔진을  
장착하는 B-씨리즈, 화물기의 C-씨리즈  
가 있으며

현재는 -320 B 혹은 -320 애프트형이  
주체로 되어 있다. (-420 RR콘웨어를 장  
착하고 있음)

기체 구조도 개발 시점에서 보면 파히  
뒤지는 바가 없는 전형을 보여주고 있는  
것으로서, 동체가 굽고, 상하 화물 적재  
실이 넓어 화물 적재량이 비교적 많으며  
동체의 길이와 엔진의 선택범위가 넓어  
고객의 어떤 요구에도 쉽게 할 수가  
있어, 세계 도처에서 이 기종이 많이 사  
용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팬 아메리칸사와 같은 강대한 고객의  
발주와 보잉사의 적극적인 정책에 의하  
여 라이벌 적인 DC-8을 가볍게 물리치  
고 넓은 판로를 개척하였다.

<보잉-720>

보잉-707을 개발, 중거리형으로 개량한 개량기트씨 콘베어 880과 당시 그 출현이 예상되고 있던 DC-9(현재의 DC-9과 다르다) 혹은 코멧트 4C 등과 대항하여 경쟁 개발된 비행기로서 준비행 1959년 11월,

보잉-720은 보잉-707의 -120형의 동체를 축소시켰고, 동시에 날개 폭도 약간 좁으며, 연료 적재량도 적게 한 것인데 내측 엔진과 동체와의 중간에 후퇴각을 더해 2단의 후퇴각을 갖게 하였고 「크록·후랩」은 전날개 폭에 걸쳐 장비되어 있다.

당초 JT3C-6 엔진을 장착하고 있었는데, 예상 보다는 엔진의 성능이 충분히 발휘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보잉 707과 같이 방향타가 전유압작동을 하는 것이 아닌데다가 동체의 길이가 짧아 방향안정이 좋지 못해 그리 평이 좋지 않았다.

그러나 1960년 10월 6일 준비행한 -720 B는 엔진을 타보-웨의 JT-3D형으로 바꿔 달고, 방향타를 전유압작동식으로 개량, 수직미익의 증적 등으로 중거리용 여객기로서의 흠이 없었다.

그러나 경제성이 높은 퀘 엔진의 보급과 여객수요의 확대로서 생산은 144대로

중지 되었다.

<보잉-727>

1956년 중래 프로펠라기로 운항하고 있던 중 단거리 노선의 제트화를 목표로 개발 시작된 기종으로, 특이한 미부 3발 형식의 T형 미익배치를 채용코 있다.

고속도와 이착륙 성능의 향상으로 82도의 후퇴각과 평균 10%의 얇은 날개 주익 전후 가장자리에 강력한 요양력장치를 갖추고 있는 외에 지상정류시간의 단축에 의한 가동을 향상, 자 실내에 APU를 갖추고 있다.

또한 타 기종과의 공통화도 고려하고 있어서 720과의 공통부품은 30%에 달하고 있다.

동체 상반부, 조종석 등은 707과 727과 전연 동일한 크기의 것을 사용하고 있어서 부품의 공통화와 운항의 공통성을 갖고 있다.

그러나 자세한 점으로서는 전연 다른 점도 적지 않고 케미칼 금속 접촉제 하 니캄 구조 등이 풍부하게 쓰여 있어서 조종기면은 전유압작동과 관련을 갖는 등 현대적인 비행기로서의 조건을 갖추고 있다.

1963년 2월 9일 준비행, 1964년 2월 10일에 첫 취항을 개시 하였다.

727에는 동체의 길이에 의하여 -100 및

200의 씨리즈가 있으며 -100에는 여객형 외에 통상 화물형 및 화·객 급속 전환형(QC형)의 3종류가 있다.

-200은 -100의 동체를 약 6m 연장한 것으로서 항속성능 및 이착륙성능은 저하하였으나 「베이로드」는 대폭 증가되어 채산성이 향상되었다.

따라서 727-200의 정원은 보잉회사의 일련의 제트 여객기 중에서 747, 707-320에 대하여 세번 째의 크기를 자랑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엔진이 동체 미부에 집중적으로 장비되어 있는 관계로 승객이 많을수록 중심점이 전방에 이동한다는 결함을 갖고 있어서, 이것은 경제성에 따른 좌석배치와 C형 혹은 QC 형의 기체에 있어서 특히 현저히 나타 나고 있다.

따라서 -200에는 C형은 여하간 QC형은 지금으로서 제작되어 있지 않다. 그러나 고속도와 뛰어난 이착륙 성능, 베이로드가 높은 점 정확하고 있는 JT 8D엔진의 높은 신뢰성 또는 동급기가 없는 점이 다행으로 727의 발주기수는 많고 미국의 제트 여객기 중에서 최고 판매 실적을 보이고 있어, 이후에도 더욱 발주가 활발할 것으로 예상되며 총 발주기수는 적어도 1000기를 돌파할 것으로 보인다.

<보잉-737>

중 단거리용의 727에 계속하여 개발된 순 단거리용 기로서 727이 단거리용이라고 해서 차차 대형화, 장거리화하여 가고 있는 중간에 개량되어 나온 기종이다.

선행된 DC-9와 BAC-111의 대항한 기종인 것이다.

생산개시는 1965년 2월 19일, 준비행 1967년 4월 9일,

첫 취항 1967. 8. 8이다.

-737은 727과 같이 동체 길이에 의하여 -100과 -200의 두 「씨리즈」가 있으며 -200은 -100보다도 동체가 약 1.8m 길며 생산은 전연 -200에 집중되고 있다.

동체는 727과 같은 형태로 707씨리즈와의 공통화물 도모하여 상하부분의 크기가 다를 뿐 상상부분은 707과 일관된 굵기로서 두 줄의 좌석배치가 되어 있고 대형기 모양의 기분을 주며, 파렛트의 탑재가 가능하다.

또한 엔진을 위시하여 모든 계통 등에 727과 같은 형태를 취하고 있다.

엔진은 727에서 익하면에 내려 장착하고 있는 형식을 취하고 있다.

이 밖에 조종계통은 727에서 경험을 쌓은 전유압가동 방식을 채용, 방향타는 「트림·태후트」나 「콘트롤 태후트」를 갖

주요 있지 않으며, 착륙장치는 각실 도어를 생략하여 차를 자체가 각실 도어를 결합하는 동시에 브레이크의 냉각을 완전히 하여 단거리 노선의 운항에 적당하다.

또한 최대 이륙중량과 최대 착륙중량과의 차를 적게하여 연료 등 급방출계통을 생략하는 동시에 단거리 구간의 비행이 가능 하도록 고려되고 있다.

<보잉-747>

잠보 제트라고 알려져 있는 초대형 제트 여객기다.

정확히 말하면 미 공군의 C-5A의 개발경쟁에 참패한 보잉회사가 다시 버클라스의 DC-8의 공세를 받고, 그 위에 707의 확장화가 다리의 길이의 관계로 불가능한 것으로 알고 편 아메리칸 회사가 DC-8에 기울어진 것을 급격히 만회했기 때문에 개발된 것이라고 전해지며, 이때문에 편 아메리칸사를 위시하여, 미국 내의 항공회사가 일단 발주는 했으나 시기 상조라는 인상은 씻지 못하고 있다.

이 때문에 에어 버스의 구상이 비교적 빨리 결말이 지어 졌다고 한다.

어쨌든 장래의 여객 수요의 예측과 운항비의 저감, 교통량의 절감 등을 고려하여 개발하였음에는 의문의 여지가 없는 것이다.

보잉회사로서는 이러한 거대한 비행기

를 생산함에 있어서 적극 중량의 증대를 경제치 않으면 안되는 것이므로 중량부터 손쉬운 방법을 쓰고 있으며, 따라서 구조적인 면에 있어서나 재료면에 있어서나 그리 신선한 인상은 주지 않으며, 다만 707 또는 그 아류의 대형화한 것으로 보아 무방할 것이다.

공기역학상 고속비행에 대비하여 주익 후퇴각은 지금까지의 것 보다 최대의 37°로 되어 있어 이에 의하여 이착륙에서 발생되기 쉬운 익단 또는 엔진 포트가 접지하기 쉽기 때문에 상반각과 이례적으로 7°가 주어져 있다.

보잉회사의 일련의 제트기에 대하여 의식에 2.5°의 각을 더하게 하여 그 특색을 두드러지게 하고 있다.

새로운 기제이기에 장비하는 제 계통은 새로운 것이 사용되고 있으며 대형화에 따르는 실내 통신계통, 관성유도의 항법 장비 및 현재 장비되어 있지 않더라도 인공위성을 이용한 VHF의 통신장비를 장착할 준비가 되어 있다.

현재는 여객형 만으로 장래는 화물전용칸을 장치한 화물전용기 747-F 및 화객 혼용의 747C가 계획되고 있다.

운항개시 직후 엔진고장파 이착륙시간이 초대형이기 때문에 지연되는 등 화재가 끊이지 않고 계속되었으나 대개의 항공회사에서 이 기종을 발주 세계적으로

취항시켜 그 운항이 본격적인 궤도에 접어들고 있다.

### <더글라스 DC-8>

보잉 707등 세계의 대형 제트 수송기의 세력에 맞서 더글라스 회사가 만든 최초의 제트 여객기이다.

계획 개시는 1952년경으로 생산발표는 1955년 6월 7일.

초비행 1958. 5. 20.

초취항 1958. 6. 7일 이다.

DC-8은 당초 -10에서 -40까지의 4기종을 갖추고 있다.

이들은 각각 크기와 외형, 내부 제 계통을 꼭 같이 하고, 다만 엔진 종류와 이착륙 중량, 연료 탱크 용량 등으로 구분되고, 707과 같은 동체 길이에 의한 구분은 없다.

(-40만 RR콘웨이, 기타는 P & W JT 3C 또는 JT 4A를 장착)

그러나 이들의 각 시리즈는 707의 동급기에 비하여 속도, 항속능력 등이 약간 떨어지기 때문에 JT-3D 펌 엔진의 실용화에 따라서 이를 장착하고 주익 전면을 4% 연장, 익면적 및 전연 후퇴각을 더함과 동시에 날개 두께를 감소시켜 저항을 최대로 줄이게 한 -50이 완성되어 이제까지의 열세를 만회하게 되었다.

이리하여 -50은 명실공히 707-320B를

능가하여 장거리용에 제 1급의 제트여객기로 등장케 되었다.

-50시리즈에는 -51, -52, -53, -54F, -55, -55F의 6종이 있으며 각각 최대 중량이 다른 뿐 크기와 외형은 대략 같다.

DC-8은 공기역학적으로는 「스팬」방향에 익형을 서서히 변화시킴과 동시에 공기저항을 최대로 감소시키도록 되어 있다

또한 엔진을 장착한 파이론도 날개와의 길항작용이 가장 적게 되도록 설계되어 있다.

이 이외에 구성재료와 기체 구조 등도 대단히 새로운 구상하에 디자인 되어 있어서 707에 비하면 현대화된 기체라고 할 수 있겠다.

그러나 동체가 707에 비해 가늘고 「베이로드」가 적고 최대 속도가 느린 점 실내가 비좁고 쾌적성이 약간 떨어지는 점이 DC-8의 결점이 되고 있다.

DC-8은 -5D으로 일단의 한계에 달하였으나, 그후의 여객증가와 장거리성능의 향상이 바람직하게 예상되기 때문에 여가서 새로운 -60 시리즈가 등장 되었다.

### <더글라스 DC-9>

DC-8에 계속하여 생산하고 있는 단거리용 쌍발 제트기로서 생산개시 1963.4 초비행 1965. 2. 25. 초취항 1965.11.8. 이다.

## <세계의 제트 여객기 소개>

발표 당시는 현재의 쌍발 제트기 기본 형이었던 「리어 제트」 방식과 T형 미익을 채용, 크기와 외형이 모두 BAC-111과 흡사하였기 때문에 새로운 인상은 적고 평가는 반드시 높은 편은 아니었으나, 더글라스의 명성과 설계의 양호성, 엔진의 신뢰성 등으로 차차 주문이 쇄하여 현재 보잉 737과 BAC-111을 능가하여 가장 많은 발주기수를 기록하고 있으며, 단거리용기의 베스트 셀러로 등장하고 있다.

설계의 최대목표는 간소화와 신뢰성의 향상에 있으며 복잡한 기구, 장비는 주력 피하고 구조등, 제 계통도 종래의 기체에 쓰여지던 신뢰성이 높은 것을 장착 사용하고 있다.

그 결과 극히 신뢰성이 높고 정비가 용이한 점으로 호명을 받고 있어서 베스트·셀러의 한 원인이 되고 있다.

DC-9에는 날개와 동체의 길이에 의하여 -10에서 -40까지의 4 씨리즈가 있으며 현재는 -30이 그 주역을 담당하고 있다.

최초의 -10은 극히 간소한 구조, 계통을 가진 것으로서 승객은 80명, -30은 -10의 익폭 및 동체를 연장하여 승객을 110명 탑승시킬 수 있는 것으로서 익면 전후면에 고양력 장치를 추가 장비하고 있다.

-40은 SAS의 주문에 의하여 -30의 동체를 더욱 연장하고 재석을 125로한 것으로서, 활주로 길이에 제한없는 노선용으로 개량한 것이다.

-20은 반대로 -10의 동체와 -30의 날개와를 조합한 것으로서 짧은 활주로를 가지는 노선 또는 고지에서의 운항에 적당히 개발된 것이다.

또한 이러한 기체에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화물기 혹은 급속전환형(RC 배킷·체인지)등이 장착되어 있다.

## <맥도넬 더글라스 DC-10>

더글라스회사의 DC씨리즈 여객기의 최신행식으로써 1970년 7월 23일 틀아웃.

DC-10은 소위 에어 버스기로서, 에어 버스 그것의 정의는 분명치 않으나, 잠보기 정도로 승객 수가 많지 않고 항속거리도 길지 않은 기체를 말하는 것 같다.

DC-10은 이와 대응한 로키트L-1011과 같은 모양으로 3기의 환 엔진(2기는 날개, 1기는 미부)을 장착하고 있으며 DC-10의 경우 【미부의 엔진은 수직미익의 하방에 장착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보잉 747에 뒤이은 초대형기의 일종이기는 하나 내용은 잠보기 보다는 일종진 보된 것으로서 소위 727 CD-9등의 제 2세대의 여객기에 대하여 제 3세대의 여객기라고 말할 수 있다.

각 장비는 일층 자동화가 철저히 되었고, 완전자동착륙을 목표로 각 계통의 개량 개발 및 장비가 일부 장착되어 있다.

또한 많은 여객에게 단시간에 서비스를 할 수 있는 방안과 긴급탈출에 대비, 객실 장비도 충분하고 그 구조 기능이 충분히 고려되어 있다. DC-10에는 단거리용의 -10과 장거리용의 -20 -30등이 있는데 -30은 익폭이 약간 넓은 외에는 별 변화가 없고, -20 및 -30이 동체중앙부에 주익을 추가 장비하고 있는데 특징을 찾아 볼 수 있다.

(이것은 최대 이륙중량이 큰 반면 각부의 구조를 변경치 않고 있기 때문이다)

주문기수는 한때 L-1011과 비슷하던 것이 그후 증가되어 현재 237기에 달하고 있다.

### <록키트 L-1011 「트라이스타」>

DC-10과 동등하던 「에어·버스」기로서 록키트사로서는 최초의 제트여객기이다.

아메리칸 항공사의 요구 설계에 의하여 개발된 것이기 때문에 DC-10과 크기도 외형도 모두 비슷하다.

1011은 DC-10보다도 출발 속도가 빠르나 최대의 고객인 TWA의 발주에 의

했기 때문에 그리 큰 성과를 얻지 못하고 있는 형편이다.

1011에는 단거리용의 -1과 장거리용의 -8.1이 있다.

-8.1은 그 크기와 중량이 대형화 되어 있으며, 착륙장치는 6개의 주익에 의하고 있다.

발주 대수는 -1편에 집중되어 있고 현재 192가 발주 생산 중에 있다.

외형이 흡사한 것은 물론 내용적으로도 DC-10과 같으나 하나의 요구설계에 대하여 같은 기술수준에서 본다면 동일기체가 제조된다는 전형적인 예를 여기서 볼 수 있겠다.

### <콘베어 880>

대형 제트 여객기의 생산에서 보잉·더글라스 양 항공회사에 뒤진 콘베어항공회사가 그 맹점이라고 할 수 있는 중거리기로서 종래의 프로펠러기에 대신하여 운항할 것을 목표로 개발한 중형 제트 여객기이다.

1952년 4월 생산 발표, 1959년 1월 27일 초비행, 1961년 5월 15일 초취항에 나섰다.

그간 설계변경의 요구가 있어 그 개발에 시간적인 지연을 초래하고 있다.

# < 특 집 I >

정병강군을 지향하고 있는 우리 군에게는 무엇보다도 질서와 조화가 잡힌 환경 속에서 창의적인 노력을 기울일 수 있는 생산적인 사생활이 요구되고 있다.

## 정병강군의 의로써의 군인의 생활

### 창의성 있는 실천적 자기관리 생활과

어

효 선

△ 아동문학가 V

나는 행인지 불행인지 군대 경험이 없다. 그래 그런지 군에 대해서도 별 관심이 없다. 계급장은 보아도 모르고, 사단이니 군단이니 여단이니 하는 것의 병력이 얼마인지 여태까지 모른다.

일정 때 얘기다. 한 번 싸움터에 나가면 「살아 돌아오지 않겠다」는 군가를 불렀고, 일본의 무사도는 벗꽃처럼 피었다가 깨끗이 저버리는 것이라고 가르쳤다.

이래서, 군인으로 가는 날은 곧 죽는 날이라고 생각하게 되었다. 이렇게 잔뜩 겁을 집어먹고는 전쟁(제2차 대전)이 열린 끝까지만 바랐다. 그래야 내가 안 갈 테니까.

정병 검사 통지서를 받거든 그날부터는 밥을 굶으라는 이도 있었다. 전날 밤에 설사약을 먹으라는 이도 있었다. 될 수만 있으면 전쟁터에 안 가는 것이 장땡이라는 생각들이었다.

징병 검사 통지서를 받았을 때 나는 위궤양으로 한 열흘째 링겔 주사만 맞고 누워 있었다. 처음에는 어떻게 할까 하다가, 오히려 잘 되었다 싶어 인력거를 타고 검사장으로 갔다.

오래 배를 앓다가 열흘이나 먹지 못하고 누워있었으니 얼굴엔 병색이 박히고 벗은 몸은 내 눈으로도 바로 볼 수가 없었다.

관정판이 울었다.

『넌 무슨 병이나?』

『밥을 못 먹는 병입니다.』

다 죽어가는 소리로 바로 대지를 앓았다.

『너 같은 건 죽어 버려라.』

이렇게 소리를 지르고는, 서류를 뒤적거리더니,

『병중……』

이 소리에 신이 나서,

『병중……』

라고 큰 소리로 복창을 했다. 그때의 일이다.

한 학교에 다니고 한 동네에 사는 친구 B가 한 방에서 차례를 기다리고 있었다. 이 친구는 그 관에도 영어를 힘써 배우던 터라, 조그마한 책 한 권을 펴보고 있었다.

방을 지키는지 우리를 지키는지, 군인

하나가 문간에 서 있었는데, 이 자가 눈을 부릅뜨고 손가락질을 하며,

『거기 책 읽는 놈이 누구냐?』

이리 가지고 나왔.』

하고 소리를 질렀다.

B는 비연하게 책을 들고 나갔다.

그자가 받아 주루룩 펴 보더니,

『이건 영어책이 아니냐, 왜 이런 걸 보느냐.』

무슨 일을 빌듯이 쏘아보고 더 크게 소리를 질렀다.

『아닙니다. 그 책은 영어가 아니고 독일어입니다.』

물론 들터낸 것이다. 군인은 꼭 누그러지며, 오히려 무안하여,

『뭐라구, 독일어라구……』

하며, 다시 죽 훑어보고는

『가지고 들어가—.』

하고 내주었다. B가 그때 용케 들터대지 못했다면(무슨 벌이든지 받았을 것이다. B는 지금 변호사로서 이름을 날리고 있다.

B는 그 때, 을중 합격이었다.

그러니까, 1945년 7월엔가 입영(입대)했다. 나는 병이 나아서 용산까지 따라 갔었다. B가 입대한 지 한 달만에 해방이 되었다. B는 병영 안에서 8·15를 맞았고, 두 달만엔가 군복에다 군화를

신고 돌아왔다.

그때는 양화점도 없던 터라, 그 군화가 이저나 탐이 나던지 이런 줄 알았던면, 나도 입영을 할 걸 그랬다고 후회했었다.

이때 나는 국민학교 교원으로 있었다. 징병 나이는 벌써 지냈는데, 이번에는 제2국민병인가로 신체검사를 받아야 했다. 제1을중이었다. 그러나, 교원은 입대가 보류되어 가고 싶어도 갈 수가 없었다.

51년 1·4 후퇴 때 일이다. 가족과 함께 이불보따리를 지고 천안을 지나다가, 거벽에 군인 뗏이 서서 지나가는 청년을 검문하고 국민방위군에 입대해야 한다면서 붙들어 세웠다. 피난길에서 어떻게 가족을 버리고 가겠느냐고 사정을 했지만, 듣지 않았다. 일단 방위군 본부까지는 가야 한데서, 이불 보따리를 벗어주고 길에서 가족과 헤어졌다.

방위군을 따라 간 곳은 이튿날 보니까 천안 경찰서 유치장이었다.

새벽에 주먹밥 한 덩이씩을 주었다. 배는 고팠지만, 길에서 헤어질 가족이 누집 광에라도 들어앉았는지 궁금하고, 앞으로 다시 만나게 될지도 모르는 일이라 서글픈 마음을 가라앉힐 수가 없었다.

들고 앉았던 주먹밥은 자꾸 넘겨다 보는 열 사람에게 주랴 하니까, 냉큼 받는다. 물 한 모금 못 먹은 빈 속으로 길을 떠났다. 삼, 사십명의 강행군이었다. 방위군이 앞뒤에서 호위했다.

점심 때가 되었다. 모두들 배가 고프다고 마른 찜을 삼켰다. 어느 산 하나를 넘었는데, 갑자기 우리 일행이 썩 흩어졌다. 이게 웬일일까 하고 어리둥절해서 둘러 보니까, 식빵 조각이다, 가루우유통이다, 밀가루 부대대를 들고 모였다.

그 자리가 미군이 있다가 후퇴한 자리라는 것이다. 먹던 것을 내버리고 간 것이다. 모르는 청년이 식빵 한 쪽을 베어 주었다. 양에 차질 않아 치사스럽지만, 손을 내밀었더니, 대꾸도 않고 걸신이 둘러 혼자 뜯어 먹는다.

(알았다. 다음에는 나도 달려 가서 썩서 배리라.)

다시 걸었다. 미군이 진쳤던 자리는 나오지 않았다.

어디쯤 갔는지, 아낙네가 김이 무럭무럭 나는 것을 이끄는 두렁길을 쫓아 나온다. 우리가 지나가기 전에 그것들을 팔 생각이었던가 보다.

간신이 태어 와서인 것을 내려놓자, 우우 덩벼들어 저마다 집어 들었다. 뜨

끈끈한 천 고구마였다.

나는 돈을 내고 사 먹는 줄만 알았다.

나는 돈이 없어서 가까이 가져도 못했는데, 그렇다면 나도 한 개쯤 집어 볼까 하니, 벌써 빈 광주리요 임차는 영영우는 것이었다.

(알았다. 다음에는 나도 달려 들어 집으리라.)

다시 걸었다. 얼마를 가니까 마을이 나타나고 장사들이 몇몇 있었다.

또 우루루 물러가 집었다. 이번에는 수수엿 한 조각을 집었다(도둑이 따보 없구나! 배 고프면 빌 수 없구나!).

나는 생의 처음으로 도둑질을 했던 것이다.

저녁 어스레해서야 방위군본부라는 간판이 걸린 번사무소같은 건물 앞에 닿았다.

『다 왔다. 곧 신체 검사를 한다.』 하더니 바깥에 세워 놓은 채, 군인 몇이 나와서는,

『병 있는 사람은 저리 서요.』 해놓고는, 병 없다는 사람 이름을 적는다. 뒤에 병있다고 나선 사람은 대 여섯명이었다. 병 없다는 사람을 안으로 데리고 들어가지도 않으니, 아무 설비가 없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 병 있다는 사람들 뒤에 일론 대셨다.

『이게 병있는 것들야. 나 따라와.』 안으로 따라 들어갔다.

의자에 앉더니, 청진기라도 들듯이 하나를 부르더니 맨손으로 진찰을 한다.

『어디가 아프지?』

『폐가 나뉘니다.』

『거짓말 말았, 눈에 보이는 걸 말했』 하고 소리를 지른다. 내 차례가 되었다.

『난 맹장 수술한지가 얼마 안 되어 걸음을 통 못 걸읍니다.』

『왜 못 걸어?』

『맹기고 아파서……』

『어디 봐』

나는 허리춤을 끄르고 배를 내어 보았다. 맹장 수술한 자리가 길다랗게 나 있다.

『좋아. 갓!』

저리로 가서 기다리라는 줄 알았더니, 돌아가라는 것이었다.

무슨 증명을 해 줘야 하지 않겠느냐고 졸라서 인찰지에는 죽일 귀대증인가 뭔가를 얻어가려고 나왔을 때는 달이 없어 지알이고 사람의 기척도 없었다. 어디로 간단 말인가? 마을로 가서 아가 같이 온 사람을 찾았다. 그 사람들은 내일 또 어디로 간다고 했다.

그 집에서 끼어 자고 이튿날 온 길을 되짚어 저녁 때 가족과 헤어지던 자리에

이르렀다.

물 길어가는 여인에게,

『혹시, 이 동네에 아이 업은 젊은이와  
마나님이 어디로 갔는지 아세요? 여  
기서 어저께 헤어졌는데……』하니,

『네에, 바로 저기 저 집에 가보세요』  
이렇게 해서 스물네시간만에 우리는  
다시 만났다.

아침부터 저녁 때까지 걸어 왔으면서,  
배가 땡기어 걸음을 못 건는다고 들려낸  
용기도 용기려니와, 순순히 국민방위군  
을 갔던들 문경 서재에 앉아 죽은 귀신  
이 되었을는지도 모른다고 생각하니, 컷  
째 다행이요, 가족을 만난 것은 둘째 다행  
이었다.

그 때의 약점을 잡아 죽인 것이긴 하  
지만, 이를 숨기고 싶지는 않다. 일제  
시대의 B의 얘기나, 1.4 후퇴 후의 내  
얘기는 모두가 자기 관리가 아닐까?

군대생활뿐 아니라, 모든 일에 있어  
서 요령을 얻어야 그 일을 잘 해 낼 수  
있는 것이다. 특히 군대생활에서는 요령  
이 제일이라는 말을 여러 번 들어 왔다.

요령이란, 요긴하고 으뜸되는 줄거리  
라 풀이한다. 이러한 풀이보다는, 눈치  
(센스)요, 기저(위트)일 것 같다.

상관은 때로 좀 무리한, 불가능한 명

령을 내리는 일이 있다 한다. 이를테면,  
맨손으로 땅을 파라든지, 나무를 자라라  
든지, 쥐를 잡아오라는 따위다. 이런 경  
우에 삼이 없어서, 톱이 없어서, 덮이 없  
어서 못하겠다는 말을 할 수도 없고,  
그런 이유도 통하지도 않는단다. 그러므  
로, 얼른 떠오르는 좋은 생각이 필요하  
다. 그 생각이 그 일을 해결해 주는 것  
이다.

이래서, 군대에는 불가능이 없다고 한  
다. 그러나, 요령은 속임수가 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부대에서 외출증 없이 어  
떻게 나왔다가 취침시간 전에 담을 넘  
어 들어가다가, 들쳐서 영창 신세를 졌  
다는 얘기를 들었다. 무사히 나올 수 있  
었다면 무사히 들어갈 수도 있어야 하  
지 않겠는가! 처음부터 담을 넘어 들어  
갈 생각으로 나왔다면, 이 사람은 센스  
도 위트도 없는 답답한 사람이랄 수 밖  
에 없다.

부하된 사람으로서는 상관의 명령을  
수행해 냄으로써 마음이 괴롭지 않은군  
대생활이 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학  
업을 중단하고 간 사람들은, 조금이라도  
여가가 있으면 공부를 하는 자기 시간을  
갖도록 노력했으면 한다.

군인의 생활철학과

여가선용

황

△ 금

인 V 찬

① 보리밭

1·4후퇴에서 간신히 수복한 강릉에서 보리밭이라는 시 동인지를 내게 된 것이다.

동인지의 제호가 그렇듯이 이 동인지에 실리는 작품들도 모두 향토적이며, 또한 조용한 심정들로 그려진 작품들이었다.

동인 구성으로는 교사들과 군인들 그

리고 몇몇 학생들로 되어 있었다. 보리밭이라는 이름이 지나치게 향토성이 아니냐고 말하는 사람도 있었고, 또한 저급 젊은이들이 전선에서 땀과 피를 흘리고 있는 이 마당에 그렇게 소극적이고 향토성만 담은 작품을 써서 무엇하겠느냐고 하는 사람도 있었다. 그뿐 아니라 지금은 조국이 전쟁을 완수하기 위하여 전력을 다하고 있는데 우리들의 작품도 거기에 호응해야 할 것이 아니냐고 하는 사람도 있었다.

그러나 그 의견들을 물리치고 그대로 보리밭이라는 제호를 쓰게 된 데는 몇 가지의 힘이 있었다.

동인으로 있던 한 장교가 한 말이 큰 힘이 된 것이었다.

그는 말하기를 일선에서 포연과 포성만을 벗삼던 사람을 위로하고 그들을 즐겁게 하는 것은 결코 포성이요, 포연이 아니라 한 포기 꽃인 것이다.

거칠어진 마음을 달래는 것은 또 다시 거칠은 것이 아니라 그것은 한없이 부드럽고 정다운 것이라야 되는 법이다. 그렇기 때문에 일선에서 오래간만에 휴가로 돌아오면 다시 전쟁영화를 보고 즐기는 것이 아니라 유치원 아이들의 재롱을 즐겨하고 그들과 같이 놀기를 희망하는 것이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면 항상 거친 것만 보고 있는 사람들은 또 다

## 특집 1. 생활인으로서의 군인의 사생활

시 거친 것에서 마음의 위로와 안정을 얻는 것이 아니라 그와는 정 반대의 상태에서 마음의 위안을 받게 되는 것이다.

우리는 지금 전쟁을 하고 있는 나라의 국민이다.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을 조용하게 어루만져 주는 그런 예술행동이 필요할 것이다.

그러니까 동인지 제호를 보리밭으로 하고 작품도 살풍경한 내용의 것 보다는 조용하고 맑으며 사색적인 작품 활동을 하자고 했다. 그때 그의 말 대로 작품을 조용하면서 사색적인 내용을 담은 그런 계열을 쓰기를 했다.

우리들의 작품 활동은 그리 대단하지는 않았지만 그런 대로 보리밭을 냈고 또한 각 사단에서 발간하는 신문에 여러편의 작품을 실리기도 했다.

한결같이 거친 마음을 어루만져 주는 아저랑이 같은 작품들이었다. 우리들이 한 동인 행위가 얼마나 큰 효과를 건우었느냐 하는 문제는 별 문제로 하고 전쟁 당시에 한 작은 도시에서 몇 사람이 모여 거칠어져 가는 우리 겨레의 마음을 단 한 사람에게라도 편하고 고운 마음을 잠시라도 가지게 했다면 그것으로 우리는 만족해야 했을 것이다.

그러나 문제는 여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생활 주위가 어지러워지면 그것을 깨끗하게 해야 할 의무가 바로 우

리들에게 있고, 생활 주위가 거칠어지면 우리도 따라 거칠어 질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안도와 명안을 구하려는 노력이 있어야 할 것이다.

우리는 그 당시 비록 대단치는 않았지만 그래도 생활 주위에는 아랑곳 없이 자기들의 정서는 자기들의 노력으로 순화시켜 보겠다는 그 노력을 스스로 기쁘게 생각하는 바이다.

모든 사람은 모두 생활인인 것이다. 직업인이기 전에 생활인인 것이다. 그러므로 생활인으로서 할 일을 해야 되는 것이다.

정서를 다스리고 감정을 잠재우며 저성을 발군하고, 이것이 생활인들이 가져야 할 자세가 아닌가고 나는 생각한다.

### ② 바이어린을 켜든 노인

지금으로부터 약 30년 전의 일이다. 내가 동경에 가서 학교를 다니고 있을 때 일이었다.

오랫동안 작은 아파트에 있다가 그것이 마음에 들지 않아 「고이시가와」에 가서 전세집을 한 칸 빌렸다. 그리 크지는 않았지만 그런대로 아담하고 깨끗한 집이었다.

집 주인의 말에 의하면 돈이 없어 집을 세 놓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없어서 방을 세 놓는 것이라고 했다.

그집의 식구라고는 60이 넘어 보이는 노인과 한 50이나 되었을 안노인 그리고 외딸이 있었다.

그들은 무척 즐거운 생활을 했다고 나는 생각했다. 생활이 넉넉한 편은 아닌 것 같았지만 그런대로 식생활에는 근심이 있는 것 같지 않았다. 그 후에 안일이지만 그에게는 아들이 하나 있었는데 중국 전쟁에서 전사했다는 것이다.

이층집 옆으로 나무를 심어 온통 집 전체가 숲으로 덮여 있었고 마당에는 가지 가지의 풀, 꽃들이 계절을 따라 피곤 했다.

그뿐 아니라 마당 가에는 무화과 나무 십 여그루가 서 있어 가을이면 무화과 열매를 마음대로 따 먹는 것이다. 주인 노인은 날마다 꽃 가꾸기를 일삼고 있었다.

나는 그 집 노인과는 아주 가까운 주객이 되고 있었다. 그는 내게 가지가지의 이야기를 들려 주기도 했고 인생에 대한 진실한 충고도 자주 해 주었다. 독서를 즐기는 노인이라 대단히 유식한 말을 했다. 그때 그 노인이 날마다 읽고 있던 책은 「채근담」이었다.

나는 시간만 있으면 그 노인에게서 인생의 에지를 배우곤 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다. 그 노인이 바이얼린을 켜는 것이다. 그때 그가 켜던 곡은 「G선상의

아리아」였다. 비록 높기는 했지만 그 바이얼린을 켜는 솜씨는 대단했던 것이다.

나는 정신을 잃고 그 노인의 바이얼린 독주를 듣고 있었다.

그의 독주가 끝난 후 나는 그 노인에게 언제부터 바이얼린을 켜기 시작했느냐고 물었다.

그 노인은 그때야 자기의 지나온 일을 자세히 들려주었다. 그는 육군 장교로 노·일전쟁에 참가했다는 것도 알게 되었다.

그는 결국 중령으로 제대는 했지만 군대생활은 상당히 오래 했다고 말했다.

그리고 자기가 바이얼린을 배우게 된 것은 단조로운 군인 생활에서 약간의 변화를 갖기 위해서였다고 했다. 언제나 단조로운 생활을 반복하고 있으니 거기에서 오는 생활의 '열증을 주체할 수 없어 그것을 면해 보려고 독서도 했고 꽃도 가꾸고 악기도 다루어 보았다는 것이다. 영내에 있을 때는 군인으로서의 충실을 다 해야 하지만 일단 퇴영하게 되면 생활인으로서의 할 일을 다 해야 하는 것이라고 했다.

한 가정의 주인이고 한 여자의 남편이며 또한 아이들의 아버지가 되어 있으면서 그것을 망각하면 생활인으로서 생활을 잃는 것이고 한 가정이 가정에 충실하지 못한다면 그는 군인으로서도 훌륭

## 특집 1. 생활인으로서의 군인의 사생활

한 군인이 될 수 없는 것이라고 했다.

모든 사람은 직업을 갖는데 그것은 보다 훌륭한 생활을 하기 위해서 갖는 것이며, 직업에 충실하다는 것은 생활에 충실하기 위함인 것이라고 했다.

자기는 군에 있으면서 집에 돌아오면 생활인으로서의 할 일을 다 하려고 했다는 것이다.

단조로운 직업인이거나 그와 같은 일을 하는 사람은 그 단조로운 일로 인해서 권태스러운 것을 다른 취미로 전환시켜야 한다고 했다.

그래 생활에 맛을 알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직업 외에 보다 색다른 취미를 갖게 마련이라고 했다. 정치가가 그림을 그리거나 과학자가 음악을 한다거나 군인이 시를 쓴다거나 하는 것, 모두 생활인으로서의 자세를 말하는 것이다.

그런 생각으로 바이얼린을 배운 것이 이제와서는 하나의 생활이요, 그 생활이 나의 짧은 인생을 어느면에서 도와주고 있는 것이다. 사람은 부질없이 낮잠만 잘 것이 아니라 자기를 위로할 수 있는 취미를 갖는 것이다.

나는 그 노인의 바이얼린 독주를 잊지 못한다. 한평생을 악기로 늙은 사람도 인생이 늙게 되면 따라서 기술도 늙고 예저도 늙어 보잘것 없이 되어 버리고 마는데 이것은, 업으로 한 것도 아니고 단

지 무료함을 면키 위해 여가를 틈타 배운 습씨가 기울어져 가는 인생을 오히려 위로해 주고 있는 것이다.

세월이 흘렀지만 나는 지금도 그 노인의 생활 태도와 이치에 벗어나지 않은 이야기 들을 잊지 못한다.

그리고 나도 그의 생활 태도를 배우려고 했고 또 나와 가까운 사람들에게는 그 노인의 태도와 이야기를 자주 들려 주기도 했던 것이다.

### ③ 꽃 발

자연과 인생이라는 수상집이 있다. 그것은 일본이 남은 세계적인 소설가 「덕부 노화」가 쓴 수상집인 것이다.

그는 「덕부 소봉」의 동생이며 진실한 기독교 신자인 것이다. 나는 그의 수상집 자연과 인생을 시간만 있으면 읽곤 했다. 그러니까 그 책을 몇 번은 읽은 것같이 생각된다.

나는 학생시절에 좋아서 열심히 읽던 책이 한정되어 있었다. 세계적인 명저는 여기서 말 할 필요도 없었지만 당시 학생들을 매혹시키던 일본인들의 저서도 적지 않았다.

그 중에서는 「신의 연구」라거나 「사랑과 인식의 출발」같은 것은 학생들 중에서 가장 많이 읽은 책들이다.

그러나 나는 「길 건너 차량」의 수상을

많이 읽었다. 그의 그 병든 것 같은 문장이며 향수적인 사고는 나를 무척 좋아하게 했던 것이다. 그래 나는 그의 수상 짙은 모조리 읽고 때와 장소에 따라서는 그의 글에 취하기도 하고 울기도 했다.

지금 생각하면 그렇지도 않을 것들은 그때에는 그리도 취해 읽었던 것이다. 그리고 자연과 인생은 그야말로 인생의 교훈 같아서 무척 어진 영혼을 위로해 주었다.

나는 그 책을 읽다가 「꽃밭」이라는 글을 발견하고 몇 번이고 몇 번이고 읽은 일이 있다.

그 글은 다른 것이 아니라 생활에 지친 사람들에게 주는 좋은 교훈이었다.

자기는 틈만 있으면 집 앞에 있는 가난한 꽃밭을 배만진다는 이야기다. 한 마리의 고양이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꽃밭을 배만져면 어느새 꽃밭은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마음 속에 있다는 것이다.

인생은 백년을 살아도 짧지만 하고 욕망은 천년 위에도 쌓인다는 것이다. 자기가 가꾸는 꽃밭에 아름다운 꽃이 피면 자기는 그 꽃의 이름을 자기 마음 대로 짓는다는 것이다.

그러면 지금까지 이 땅에 없던 꽃이 또 하나 새로 생기게 된다는 것이다. 그 꽃은 땅에서 피는 것이 아니라 바로

자기의 마음에서 된다는 것이다.

꽃을 가꾸는 사람이 자기 마음의 꽃밭이 없으면 그 허무한 인생을 어떻게 살 수 있겠느냐는 것이다. 그래 자기는 마음의 꽃밭을 위해 생활의 여유를 꽃 꾸미기에 바치고 그것이 마음 속에서 필 때 한 없는 인생의 희열을 느낀다는 것이다.

나는 이 글을 읽으며 몇 가지 나름로 생각을 가지곤 했다.

비단 꽃밭 만이 아닐 것이다. 그것은 직업으로서가 아니라 생활의 휴식으로서 고단한 인생을 위로할 수 있을 것이라면 그것은 모두가 마음의 꽃밭이 아니겠느냐는 것이다.

독서 속에서 인생을 쉬게 하면 그것도 마음의 꽃밭일 것이요, 자기가 바이얼린을 켜면서 마음의 위안을 받을 수 있다면 그것도 마음의 꽃밭일 것이다.

인생은 한 없이 고단하고 피로하다고 누가 말했다. 그렇게 고단한 인생을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 그것을 면하기 위해 인생에게는 많은 취미라는 것이 생기게 마련인 것이다. 그것이 없으면 인생은 위로받을 수 없는 것이다. 「아인슈타인」이 바이얼린을 공부할 한것도 그런 의미에서일 것이요, 「하이네」가 시를 쓴 것도 그런 의미였을 것이다.

그 뿐 아니라, 시간의 여유만 있으면 음악을 듣는 사람도 있다.

## 특집 1. 생활인으로서의 군인의 사생활

가발렐리아 누치카나 중의 간주곡이며 오랜저 향기를 바람에 날리고, 이런 것을 듣고 있으면 한 없는 희열을 느끼게 되는 것이다. 그야말로 마음의 꽃밭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다.

어찌 그뿐이겠는가 향수에 [지쳐 병이 된 그 마음을 달래며 작곡했다는 신세계 작곡자 자신이 울면서 저취했다는 곡, 그런 것을 듣고 있으면 새로운 꽃밭을 마음에 두는 것이리라.

이런 마음의 꽃밭을 얻는 것은 술을 마시고 잠기로 여가를 일삼는 것과는 다를 것이다.

그러나 내 친구 중 한 사람은 꽃을 심을 수 있는 땅이 없었기 때문에 꽃이나 나무를 땅에 심지 않고 화분에 심기 시작한 것이다.

특히 사보맹 종류를 수집하기 시작했는데 지금은 수 십종의 사보맹을 수집했다.

그는 직장에서 일이 끝나는 대로 꽃가꾸는 일의 시간을 할애하고 있다. 가지가지의 사보맹을 바라보고 있으면 승화된 생활의 경지에 도달하는 느낌을 갖게 되는 것이라고 한다.

그것을 그렇게 모으기 위하여 상당한 금전도 들었고 시간과 힘도 들었지만 대신 그는 생활인으로서 갖기 어려운 보람을 맛보고 있는 것이며 지금은 그것

이 오히려 부업이 되어 수입도 심심하지 않을 정도로 수입 된다고 한다.

수입이 문제가 아니라, 생활인으로서 잡념 아닌 다른 곳에 마음을 두고 거기에 정성을 드리고 마음을 가꾼다는 것은 누구나 본받아야 할 일이 아닌가 생각한다.

나는 옛날 중국의 도인들처럼 산중에 혼자 앉아 바람과 달이나 노래하며 살 때도 아니요. 또한 직업 외에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될 수 없다.

가정을 위해 보상하며 또한 본인의 정서의 순화를 돕고 내일의 보람이 될 수 있는 취미를 가져야 할 것이다. 백제의 장군 [계백]처럼 출전 직전에 칼을 들어 가족을 멸하고 그때서야 거칠 것이 없다 하고 전선에 대하는 태도는, 나는 환영할 수가 없는 일이다. 하기야 가정을 돌보지 않고 나라를 위한다는 점은 크게 알아야 할 일이지만 내게 팔린 가족이라고 해서 그들의 생명까지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닌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의 가정은 공동보금자리가 되어야 할 것이다.

어느 사람의 무묘한 공간을 매꾸기 위하여 배운 마이얼린이 이제는 하나의 교양이 된 것과 같이, 그렇게 하던지 또는 취미로 시작한 수집이 생활의 도움을 주는 것이 되듯이 하여간 우리들은 생활인으로서 취미를 가져야 할 것이다.

내핍(耐乏) 생활과 질서(秩序) 생활

인간성회복(人間性恢復) 운동과 관련하여

김 차 영

(중앙통신 문화부장)

이 땅의 허리가 끊기고 털벗고 매마른 산천에 조국근대화(國近大化)의 구령이 매아리치지도 오래이다. GNP가 가파르게 크라브의 상승경사(上昇傾斜)를 치닫고 있음을 매스컴들은 보도로 증명하고 있다.

「소비(消費)가 미덕(美德)이다」, 「중진국(中進國)으로의 도약단계(跳躍段階)이다」 등등 꽤 낯설면서 짜릿한 말들이 모두 이 나라의 급속한 경제성장을 고무하고 찬양하는데 쓰여지고 있다.

우리는 도시(都市)에 숲을 이워가는 빌딩 군(群)을 보고 놀라지 않을 수 없다. 미래의 지평선을 향하여 한없이 떨어 나가고 있는 하이웨이망(網)을 보고 심미적(審美的)인 감탄을 아낄 수가 없다. 보(淤)가 풀린 듯 홍수를 이루는 자동차의 물결——확실히 우리들의 방막에 접어드는 영상(映像)들에는 이렇게 큰 변화가 일고 있음을 실감할 수가 있다.

그러나 한편 이러한 외형적인 변화들, 시각적으로 바빠진 여러 현상들에 못지 않게 우리의 내면세계(內面世界)에도 큰 변화가 일고 있다는 엄연한 사실을 간과할 수가 없다.

가치관(價値觀)의 도착(倒錯)

지금 우리 사회에는 배금주의(拜金主義)가 뽐배하고 있다. 물질만능주의(物質萬能主義)가 결순도 판지 않고 판을 치고 있다. 거기에 봉건적인 관료주의, 출세주의까지 믹스되어 견잡을 수 없는 혼란상의 범벅을 연출하고 있다.

이렇게 급격히 밀어 닥치는 사조(思潮)들은 이 나라의 모든 기존질서를 속속들이 갈아엎고는 추세에 있다. 이로 해서 우리의 전통적인 사회의 윤리기준(倫理基準)은 분별 없이 털어뜨려지고 있는 것이다. 그뿐이랴 나아가서는 사회구조적인 면에서까지 위협을 받고, 여러

## 록집 1. 생활인으로서의 군인의 사생활

분야에 걸쳐 혼선과 부작용을 빚게 하는 실정이다.

종래의 인간을 위주로 한 인간들이 추구하던 모든 가치관은 이제 심각한 도전에 직면하고 있다. 우리의 행복(幸福)에 대한 가치관은 물론 성애(性愛)에 대한 가치관, 심지어 이웃과 지기(知己) 등에 대한 일체의 순수한 관념들은 개인주의, 이기주의에 의해서 도착(倒錯)되어 감을 면할 수 없는 한계(限界)에 까지 이르게 하고 있다. 실로 인간 내면의 세계, 정신적인 세계에 대한 일대 진동(震動)이며 위기감(危機感)의 조성이 아닐 수 없다.

결론적으로 불 배 불신시대(不信時代)의 놀라운 풍조가 이 사회에 미망하고 있음을 짐작할 수가 있다. 이러한 상황은 이른바 「제2의 경제」론에 함축되어 있듯이 비 인간화(非人間化) 경향에서의 인간성(人間性) 되찾기 운동을 벌이지 않을 수 없는 이슈로 등장시키게 한다.

이 심각한 문제를 제어하기 위해 우리의 철학자, 사회학자, 성직자, 교육자, 문학자, 과학자, 예술가, 저널리스트 등 일군의 지성인들이 결코 수수방관만 하고 있던 것은 아니었다. 새로운 인간상(新人間像)과 상실된 인간성의 회복운동(恢復運動) 즉 인간화(人間化)의 탐색을 위한 캠페인은 쉴 사이 없이 벌어졌고,

계속되었던 것이다. 그 수 많은 학술대회, 세미나르, 심포지움 등은 직접 혹은 간접으로 이 휴우머니티의 문제와 대결치 않은 적이 거의 없었다.

왜냐하면 그들이 주제(主題)로 취급하는 모든 문제가 그 저변(底邊)에서는 언제 어디서나 이 문제와 근원적으로 상충되고 있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그들은 자기들의 학구나 탐구를 위해서 이 휴우머니티의 문제는 최소한 넘어서야 했고, 절대로 초극(超克)하지 않으면 안 되는 명제가 되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 문제를 돌파하지 못할 때 그들에게는 머무름(停滯)만이 있을 뿐이다. 그들이 육구하는 전진(前進)과는 거리가 먼 제자리 걸음만이 있을 따름이다.

그런데 이러한 논리는 거창한 조국근대화 과정에 있어서도 적용에 예외(例外)일 수는 없다. 정신적인 뒷받침 즉 휴우머니즘의 뒷받침이 없는 조국 근대화는 방향감각이 애매하기 때문에 의미가 희박하고, 빛을 잃게 된다. 결국은 「잘 살자」는 것이 조국근대화의 목표이고 이념(理念)이며, 철학이기 때문이다

배금주의, 물질만능주의, 개인주의 또는 이기주의는 개개인의 물질생활에서의 고생을 덜게 할 수는 있을런지 모르나 집단적인 사회적인 공동연대체(共同連帶體)로서의 민족적인, 국가적인 「잘 살아

보자]는 숙제의 문제해결은 될 수가 없을 것이다. 여기서 우리는 이성적(理性的)이고, 윤리적(倫理的)이며, 과학적(科學的)이고, 합리성(合理性)을 띤 변화된 새 시대에 적용될 수 있는 새로운 인간상의 정형화(定型化)를 서둘러야 하는 것이다.

### 인간화(人間化)의 운동

우리 사회의 구성원 하나 하나가 개체로서가 아니라 복합구성체의 전형(典型)으로서 「잘 살자」할 때, 거기엔 이를 포괄하는 규제(規制) 즉 최대공약수적인 질서(秩序)가 필요한 것이다.

이 질서의 기저(基底)는 모럴인 것이다. 그런데 지금 위에서 여러가지 언급한 바 있듯이 오늘날까지 우리를 규제하여 온 이 모럴의 전통적인 명분이 무너져 가고 있다. 그 모럴은 유교적(儒敎的)이고, 가부장적(家父長的)이고, 비현대적(非現代的)이기 때문에 낡았고 통제력을 잃었다고 주장된다. 그에 따라 우리 사회는 인간성 상실의 비인간화 경향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말았다. 문제는 이것이 곧 서구화(西歐化)로 착각되고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이러한 사회의 병폐를 교정(矯正)하는 방법은 인간성 되찾기 운동, 인간성 회복운동, 비인간화 추방운동의 수

단을 쓰지 않을 수 없다는 결론이 나온다. 이 과정은 따지고 보면 근대화 운동에 못지 않는, 생각하기에 따라서는 그에 선행 또는 병행되는 조건으로서의 중요한 의의를 지니고 있다고도 할 것이다.

그럼 인간이란 무엇인가? 이 질문에 선뜻 자신을 갖고 만족할 정의를 내릴 사람도 그리 많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나 얼핏 소박한 생각대로 「인간이란 결국 인간만이 자기존재나 또는 살아간다는 삶의 의미, 그리고 가치와 목적을 물어볼 수 있는 존재라고도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런 까닭에 어느 사회가 인간을 더 인간답게 대접해 주느냐 하는 문제는 실질적으로 인간의 가치를 다루는 척도(尺度)가 될 수도 있을 것이다. 따라서 어떻게 인간의 가치를 존도(寸度)하여 주는 그러한 시대가 빨리 당도한다면 당도할 수록 인류의 행복을 보장하는 폭(幅)은 넓어진다는 논리가 성립된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의 현실은 어떠한가? 통털어 물질문명예로의 사회제도나 가치관의 급격한 변화는 급기야 한 마디로 발전시대의 혼탁을 여지없이 초래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 인간으로 하여금 본래의 인간성이나 특성(特性)을 상실케 하고 기계화시키고 있는 것이다. 과거에는 인류

## 특집 1. 생활인으로서의 군인의 사생활

에게 위대한 업적으로 찬양되었던 물질 문명이 오늘날은 인간을 비인간화하고 있는 이율배반(二律背反)의 아이러니한 현실을 돋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그럼 비인간화 즉 인간성을 상실한데 대한 진단은, 병폐는 어떻게 내려지고 있는지 한번 들여보자. 미국의 저명한 미생물학자 「르네 두보스」씨는 『현대의 위기는 자연으로부터의 인간소외(人間疎外)』라고 보았다. 또 미국의 사회학자 「T. D. 라이스만」교수는 『오늘의 사회는 실력주의(實力主義)사회』라고 지적하였다. 그는 『현대문명이 한 가지 문제를 해결하면 새로운 두 가지 이상의 문제가 등장하는 격』이라고 과학기술 및 물질문명 시대의 모순을 직관하였다. 우리나라의 신학박사 김 재준(金在俊) 박사는 통털어 오늘날의 인간성 상실은 신(神)과 사회에서 소외되어 자아(自我)를 잃은 사람을 가르킨다. 자아란 자유가 있을 때 존재하며 인간성은 자유 속에서 찾아야 한다 (“인간화와 종교의 역할”세미나)고 말하였다. 실존주의 철학자 「키에르케고르」도 『심리(心理), 도덕(道德), 행동적(行動的)인 세 단계에서 자유를 갖을 때 올바른 존재자로서의 인간은 가치가 있다』고 강조했다.

우리 현실을 보다 직접적으로 꿰뚫어본 박 준희(朴俊熙—梨大)교수는 『오랜동안

봉건적 유교문화가 중심이 되어 온 우리나라는 어딜 가나 근대화를 외치지만 근대화가 이루어져 있지 못한은 물론, 이루어 지기도 어렵다. 결국 잘 살자는 슬로건이요, 철학이며, 그 의식은 『인간주의(人間主義)』라고 할 수 있는데, 인간주의의 본질인 지(知)·정(情)·의(意)가 조화되어 있지를 앎고 우리 나라에서는 유독 지(知)만이 발전하고 있다』고 말하였다. 그는 『한국에서도 ① 가족제도의 붕괴 ② 가치 의식의 변화 ③ 도시화(都市化)와 대중화(大衆化) 그리고 조직화(組織化)에 따르는 행동형(行動型)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인간화” 세미나)고 우리사회의 비인간화 요인들을 들었다.

또 지 명관(池明觀—德成女大) 교수는 『오늘날 비인간화가 촉진되는 이유는 국내의 불안, 국가안보(國家安保)에 대한 요청, 경제적인 난관 등이다.』 “과학 시대의 인간화” 세미나라고 말하였다. 그는 『이러한 인간의 생존 자체를 위협하는 상황 속에서 인간화에 대한 강조에는 생각들이 미치지 못하는 점이 많다』고 체념적인 시사를 하고 있다.

한편 김 대환(金大煥—梨大) 교수도 『인간이 자유라고 생각하는 모든 분야가 실은 자유가 아니고 부자연한 면을 많이 지니고 있다. …인간의 행동이 자기의

행동이라고 생각하나 현실은 자기의 것이 아니고 남이나 또는 어떤 조작 그리고 관리의 기술이나 강제적인 [수단을 통하여 조종과 유도를 받고 있다. 이러한 과정 속에서 생기는 인간소외와 인간경시(人間輕視)는 좌절감(坐折感), 낙후감(落後感)만을 조장한다.』 (“비인간화 그 사회적 측면”)고 풀이 하였다.

### 비인간화(非人間化) 추방안

서울 물리대(文理大)가 마련했던 「인간론(人間論) 심포지움」에서 김 태길(金泰吉 - 서울文理大) 교수는 우리 국민들의 전통적 행동양식(가족주의, 이저 보다 감정선행, 외관적 형식존중)과 상충되는 외래적 행동양식으로 ①관능 내지 순간적 쾌락주의 ②배금주의 ③이기주의를 들었다.

그는 이러한 외래의 행동양식은 우리 국민들의 관념과 행동을 유리(遊離)시킴으로써 인격(人格)의 부재(不在)현상을 가져오고, 생활의 괴리(乖離)로 안정을 잃게 하는 기본적 요인이라고 분석하였다.

이것은 운화일반이 위선(僞善)에 차고 불신의 풍조를 조성하여 협동단결(協同團結)을 저해하는 작용으로 나타난다는 것이다. 특히 지나친 이기주의는 경쟁을 격화시켜 사회전체를 불안에 몰아넣고,

지나친 배금주의는 부익부(富益富), 빈익빈(貧益貧)의 현상을 일으켜 평화를 잃게 하는 것이다. 이 사실은 빈자(貧者) 뿐 만이 아니라, 있는 부자(富者)에게도 불행을 안겨다 준다. 까닭은 가장 평화를 필요로 하는 사람은 없는 자 보다는도 있는 자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러한 경향이 심화(深化)될 때는 인간의 비인간화 현상이 일어나고 인간은 자기상실을 가져와 결국 목적과 자유를 잃게 된다. 새로운 인간상의 가치체계(價値體系)는 관념 뿐 아니라 행동이 인간적으로 정상(正常)을 이어야 한다. 물질적인 가치가 올바른 제 위치를 차지하고 가족주의적(家族主義的)인 사랑이 사회에도 적용되어야 한다. 다시 말해서 감성(感性)이 인간애(人間愛)로 승화(昇華)시키는 새로운 인격의 형성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전 항(前項)에서 인용한 바 김 대환 교수는 현대를 ①기술과 과학이 압도하는 사회 ②조직과 관리(管理) 속에 압도되는 인간 ③사회변화와 진폭(振幅)이 폭심한 시대 ④정보산업에 조종되는 문화 ⑤핵(核)무기의 전능에 가까운 파괴력에 의한 인간 의지(人間意志)가 통제될 받고 있는 시대라고 분류 하였다. 그는 인간성 회복을 위해서는 이러한 난관들이 모두 극복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 특집 1. 생활인으로서의 군인의 사생활

지 명관 교수도 오늘의 비인간화의 범  
람은 인간화에 대한 자각(自覺)의 결여  
에서 크게 비롯된 까닭에 실존주의 철학  
자들이 말하는 본래적(本來的)인 인간에  
대한 자각과 그것에 도달하여야겠다는  
열망이 없다면 비인간화 현상은 방지  
되는 수 밖에 판 도리가 없다고 말하고  
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비인간화 작용에  
또하나 간과할 수 없는 거대한 촉매제(觸  
媒體), 대중(大衆) 매카니즘 즉 정보산업  
(情報産業)인 「매스·미디어」의 존재를  
잊을 수 없다.

사실 「매스컴」이 몰아치는 불결은 그  
사회의 주류를 형성하는 여론(輿論)을  
조작하고, 놀라운 영향력을 발휘한다.  
그 힘 앞에 하나 하나 사회구성 분자인  
인간은 너무나 미약한 존재이다. 그들은  
부지부식간(不知不識間)에 「매스컴」이  
이끄는 방향에 쫓아 행동반경을 작정하  
게 된다. 여기에는 자기의사라는 것은  
하나도 개제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 개  
인적인, 독자적인 사유(思惟)에 의한 행  
동이 아니라, 거지반 「매스컴」의 조작(造  
作) 속에 자기가 매몰되어 간다.

현대사회의 「매스·미디어」는 모든 사  
회의 기능(機能)을 포함하고 있는 것이  
다. 매스컴의 영향력은 극대화(極大化)  
하여 전 지구적 현상이 되었다. 우리는

『월남전쟁을 국지전쟁(局地戰爭)으로 제  
한시켰다.』고 말한 「택루현」의 매스컴론  
을 다시 한번 음미해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매스컴」의 거대한 힘은 날이  
갈수록 인간에게 그 영향력을 가중시켰  
고 일대 정보산업으로서 구조화하여 인  
간을 「상실(喪失)된 책」으로 만들고 말  
았다. 모든 것을 폭포하여 대중화하고,  
소음의 시대를 연출하여 고전적인 인간  
형을 말살하는데 도움을 주고 있다. 따  
라서 「매스컴」은 앞으로 그 거대한 영향  
력을 인간의 복원(復元)문제와 구제의식  
으로 둘러잡아 비인간화 추방에 앞장서  
서 종합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  
이다.

### 내핍(耐乏)과 질서(秩序)

나는 이제 주어진 본론으로 돌아왔다  
군대라는 특수사회의 체험을 전연 가  
져 본 일이 없는 나로서는 군대사회에  
대하여 용해할 자격을 갖지 못했다. 따  
라서 나는 지금껏 일반적인 이야기들 하  
여 왔고, 군대가 아닌 일반 사회적인 이  
야기로 또한 끝을 맺을려는 것이다. 양  
해를 바란다

위에서 말한 인본주의(人本主義)에 관  
한 여러가지 견해, 즉 물질문명은 어제  
까지는 인류에 위대한 업적이었으나 오  
늘날의 과학기술 만능시대는 배금, 물

질, 개인, 이기주의 등을 족출시켜 현대를 불신시대화 하고, 인간성 상실에서 인간성회복 운동을 벌이지 않으면 안 되게끔 만들었고, 비인간화에서 인간화「캠페인」을 벌이지 않으면 사회전체가 파멸적인 좌초를 면할 수 없는 한계에까지 이르게 하였다는 점을 강조하였던 것이다.

그리고 조국근대화를 수행하는 마당에 있어서 무엇보다도 필요한 것은 정신적인 인간성적인, 뒷받침과 근대화가 병행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었다. 오랜 역사와 시대를 통하여 이 나라의 사회를 규제하여온 전통적인 사회윤리의 기준이 무너지려는 변화의 현시점에 있어서, 병든 사회를 어떻게 하면 바로잡고, 건전한 사회가 지니고, 형유할 명량한 평화와, 내일의 번영을 축복받게 할 수 있을까 하는 문제를 여러분과 함께 생각해 보았던 것이다.

다시 말해서 불신시대를 공신시대(公信時代)로 복원시키자, 상실된 인간성을 되찾아 보자, 실의(失意)와 소의(蔑外)가 물고온 비인간성에서 인간성을 정상으로 회복시켜 보자, 등등 일체의 휴머니티에 관한 문제는 그 기초적인 질서를 잃은데서 불거져 나온 문제들인 까닭에, 우리에게 안정을 갖다 줄 수 있는 길로서, 우리는 무질서 상태로 떨어질

현대사회에서, 우리의 질서를 되찾자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전형적 인간상을 정형화 해야 한다. 그 신인간상은 이성적이고, 윤리적이며, 과학적이고 합리성을 띤 변화된 새시대에 적용될 수 있는 시민적인 이상형(理想型)이야 하겠다는 것을 거듭 주장한다.

이러한 신인간상의 모델이 복합수적으로 승(乘)해져서 사회구성의 주류를 차지할 때, 그때는 스스로 이 사회의 방향이 설정될 것이며, 역사상 처음으로 조국 근대화의 과업이 명실공히 성공적으로 이 땅에서 수행되어 내일의 복지사회가 실현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기 위하여 우리가 당면한 문제는 아직도 「소비가 미덕」이기 전에 그 복된 번영을 누리기 위한 「내핍이 미덕」이다 하는 과거나 현재 그대르의 구호와 단계적 의식의 자각을 인식하게 될 것임을 나는 믿어 의심치 않는다.

까닭에 내핍은 우리의 내일을 위한 합목적성(合目的性)이 아니라 아직도 오늘을 살기 위한 당위적(當爲的)인 숙명이라 함이 피차간(彼此間) 마음에 부담이 안 될 것으로 믿어 본다.

# 군대생활과

## 사회생활

— 군대생활은 사회생활의 중요한 밑거름 —

이 한 철

(국제문제연구소원)

우리들이 흔히 쓰는 옛말에 사내 아이를 낳으면 서울에 보내라는 말이 있다. 이 말에는 그야말로 많은 뜻들이 담겨져 있다고 해석되는데 그것은 사나이로 태어나서 큰 출세를 하려면 서울에 가야만 출세가 빠르다는 것을 뜻한다고 풀이된다.

요사이 같이 교통수단이 발달되어 관광호 열차나, 3~4시간이면 서울·부산 간을 달릴 수 있는 고속버스 시대와는

달리 옛날 사람들이 서울에 한번 가려면 오랜 시일이 걸렸던 것이다. 하루 백리(40Km) 걷는 강행군으로 간다 해도 서울·부산 간은 최소 15일 내지 20일이 소요되었을 것이고 저 북쪽의 함경북도 사람들은 더 많은 시일이 걸렸을 것이다.

물질문명이 고도로 발달된 오늘날의 세계에서 사는 현대인들은 누구나가 시간을 아주 귀중한 것으로 알고 있고 “시간은 바로 돈이다”라는 말을 자주 쓰고 있다. 그래서 현대인인 우리들은 대개 옛날 사람들이 서울까지 가는데 몇 일씩 따분하게 고생하면서 걸어 갔어야 했을 그 당시의 사정을 아주 비능률적으로 생각한다.

그렇기 때문에 요즈음은 누구나가 자기 목표 달성에 꼭 필요한 것 외의 시간 낭비는 전혀 자기에게 이득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어디 불일이 있으면 가장 빠른 교통수단을 이용하게 된다.

“남아출생상경(男兒出生上京)” 설을 만들어 낸 옛 조상들의 뜻을 다시 한번 우리들이 되새겨 볼 때 그 선구자들은 단순히 서울에만 가면 누구나가 성공할 수 있는 여건과 기회 포착이 용이하다고 강조한 것만이 아니라 서울가기 이전이나 서울에 가서도 인간사회생활에 적응할 수 있는 인격완성 여부가 인생 승패를 판가름 한다는 뜻도 포함되어 있다고

해석되어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누구나를 막론하고 자기가 태어난 고향에서만 살고 자기의 가풍과 향토 풍습대로만 최선의 것으로 알고 산다면 타지역의 넓은 외계를 모르기 때문에 자연 포부가 적어지고 야망이 적은 인간형으로서 겨우 부모들의 생업을 계승하는 것이 고작인 인생과정을 밟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 볼 때 이 말을 지어낸 옛 성인들의 참다운 뜻은 입신 출세면에 가장 그 여건과 기회 포착이 용이한 서울무대에서 청운의 뜻을 품고 상경한 우리나라의 청년들이 모여서 인생희망의 큰 판가름 싸움을 시작하기 이전에 입신출세에 필요한 온갖 구비조건을 깨우치게 하고 체득케 하도록 강조한 것이 아닐까?

그것은 바로 아무리 청운의 뜻을 품고 서울(출세의 대결장)에 갈 망정 그들 청년들이 자기 가정과 자기 고향에서만 배운종지 못한 습성을 개선하지 못하면 성공하지 못하며,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질중에서 좋은 점은 계속기르고 나쁜 점은 과감하게 지칭하면서 새로운 지식과 견문을 넓혀가면서 자기 인간개선을 완성하는 자만이 성공할 수 있다는 뜻으로 풀이되어야 하겠다.

이렇게 해석해 볼 때 아마도 옛날에도

현재와 마찬가지로 입신출세해서 성공한 사람들은 타향살이 기간 동안의 그 경험이야 말로 다른 무엇으로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경험으로 달게 느끼고 자기 자신을 사회생활에 적용시키는 가장 좋은 기회로 삼았으며 인간개조의 수양기간으로서 유효적절하게 활용했을 것이다.

반면 이와같은 시일을 고난의 과정으로, 따분한 여정으로 그리고 자기가 소망하는 성공목표에 조금도 도움이 되지 않으며, 전혀 불필요한 시간낭비였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이었다면 그들은 서울이라는 무대 위에 그대로 앉혀봐도 결코 다른 사람을 누르고 성공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자기소망의 청사진을 영원히 실현시킬 수 없었을 것이고 평생 낙오병신세를 면치 못했을 것이다.

“남아출생상경”설을 이렇게 풀이해 볼 때 우리들의 군내 복무생활을 단순히 헌법 34조에 규정된 국방의무 조항을 준수하기 위해서 그리고 규단의 경우, 병역기피자가 되어서 범법자가 되고 불안과 공포 그리고 평생동안 연속되는 후유증 때문에 할 수 없이 한다는 생각을 한다면 그것은 어리석은 짓이 되고 말 것이다.

그것은 마치 옛 사람들이 서울 가는 도중의 여정생활을 피롭고 고난에 찬 경험으로만 느끼게 되고 그 과정이 자기, 타세

## 특집 1. 생활인으로서의 군인의 사생활

와는 아무런 상관도 없는 것으로 해석한 결과 결과적으로 자기 인생을 실패한 것과 무엇이 다를 바 있겠는가.

사람들마다 자기 생각 여하에 따라 다르겠지만 나로서는 군 복무기간 동안의 여러가지 경험이야 말로 어디에서나 쉽사리 배울 수 없는 아주 고귀한 것이었다고 하는 생각은 지금도 변함이 없다. 내가 군 복무생활에서 얻는 여러가지의 경험들은 지금까지 나는 인격완성에 꽤 많은 분야를 차지한 것이 사실이며 만일 군복무를 하지 않았더라면 어떤 분야에서서는 영원히 체득하지 못하고 말았을 일들도 많았으리라고 느껴진다.

군에 입대하게 되면 자연 여러 지방을 다니게 되게 마련이다. 대개의 경우 사람들은 꼭 필요한 용무가 없는 한 한가로히 여러 지방을 여행한다는 것이 매우 어려운 일이다. 부대이동, 기동훈련, 공부출장 등 군에서는 공사간에 자연적으로 여러 지방으로 가게 되는데 이것이 전문을 넓히고 그 고을 마다의 지방특색과 인심 등을 파악하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해 주는 것이다. 내가 있던 중대원중에 김 모 사병은 자기 고향 마갈을 한발자욱도 나가보지 못한 문맹자로서 처음 휴가 때 자기집까지 가는 길목을 잘 모른다고 해서 할 수 없이 다른 병사가 데려다 주었는데 휴가 귀대시에는 혼자서

거뜰히 부대까지 찾아온 중대원들이 반가워 한 일이 지금도 생각이 난다.

사람이란 누구나를 막론하고 자기 정든 고향을 떠나서 타향살이를 해 보면 언제나 자기 고향과 비교를 하게 마련이고 이것은 곧 자기 고향의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산 교훈이 되는 것이다.

둘째로 병생활에 있어 우리들에게 큰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은 바로 대인관계를 지극하게 된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군대생활에는 전국 방방곡곡에서 모인 여러 계층의 젊은이들이 모이기 때문에 그들 전우 중에서 좋은 성격의 인간관계를 본받아서 자기의 것으로 만듦으로써 앞날의 큰 밑천으로 만들어야 한다. 군대생활 기간 동안 일반 사회생활에서는 거의 불가능하게 생각하던 어려운 일들도 끝까지 밀고 나가면서 그 시련을 극복하게끔 강요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들에게 매우 어려운 고비들을 추진할 수 있는 지구력이 싹트므로 인내력이 강해지게 된다.

이와같은 지구력과 인내력은 사회생활에서 어려운 일들을 추진해 나갈 때 매우 중요한 자산의 하나로 되는 것이다.

사람이 출세를 할려면 다른 사람들을 봉술할 줄 알아야 한다.

군대생활이 계급으로서 이루어지고 있고 명령에는 절대 복종하게끔 되어 있어

상관은 무조건 명령과 지시만 하면 통솔이 가능한 것 같이 생각되지만 여러 지휘관들이 부하들을 잘 이끌어 나가고 유능한 통솔력을 가진 상관들의 지휘통솔법을 잘 연구해 보면 그것은 결코 강압적인 방법이 아니고 인화적인 방법으로 부하들이 스스로 명령과 규범을 준수하게끔 하는 기술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 군대조직이란 극히 융통성이 있는 조직이며 특히 전시에는 융통성 있는 작전 지휘 없이는 결코 전쟁승리를 보장할 수 없는 것이다. 많은 인원으로 구성되어 있고 규모가 큰 부대조직들이 전·평시를 막론하고 대 부대 이동이나 기동훈련 등 부대 작전 수행 시에 적용되는 제반 융통성을 배움으로써 자기의 가정생활 규모나 자기의 사업을 꾸릴 때 이 융통성이 적절히 적용될 때는 반사가 실패 없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을 것이다.

외국인들이 평하는 한국인상은 개개인은 다 똑똑하고 영리하고 박식하고 예의 범절이 밝아서 어느 나라 국민들 보다는도 매우 수준이 높은 사람들이지만 한 가지 흠으로서 단결심과 협동심이 부족하기 때문에 집단적인 행동 시에는 약점이 자주 노출된다고 평하고들 있다.

군대 조직사회에서 언제나 강조되고 있는 것은 각개 병사의 개인능력 보다는도 그 부대 전체의 단결되고 통합된 역량 발휘

즉 협동심을 중요시 하고 있는 것이다. 이와같은 협동심을 함양함으로써 장차 가정의 단결은 물론 자기 고장, 지역사회 개발과 나아가서 온 나라 전체가 한 개로 뭉쳐 강한 국력을 발휘할 수 있는 밑바침이 되는 것이다.

군대조직은 그 사람의 취미와 기호까지도 변경시키는 무서운 적응성을 요구하고 있다.

어떤 사람들은 어릴 때부터의 편식을 취하는 습관 때문에 자기 구미에 맞지 않는 음식을 먹지 못 하는 사람들도 있다.

마늘, 파, 고춧가루 등 자극성 있는 조미료나 생선, 심지어 고기까지 먹지 못하던 사람들도 일단 군에 입대하게 되면 2~3일이 못 가서 먹지 않을 수 없게 된다. 이렇게 볼 때 약간의 강제성과 무자비성이 적용되는 군대조직이야말로 표준화 인간을 만들어 내기 위한 용광로 구실도 하게 되는 것이다.

그 외에도 군대생활 동안에 우리들이 얻을 수 있는 일들은 해야될 수 없이 많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수호하고 나라의 영구적인 번영을 위해서 싸우고 있다는 사명감을 깨닫게 될 때 그 군인이야말로 주체의식이 확립되어 있고 공과사를 구분할 줄 아는 숭고한 애국심이 함양되어 있게 마련이다.

## 록집 1. 생활인으로서의 군인의 사생활

군대생활에서 우리들은 고락이 무엇이 더 봉사정신과 희생정신이 무엇이며 상과 하의 계급의식을 인식할 수 있게 될 뿐만 아니라 제대 후의 결혼관 나저 이 시기에 확고하게 수립할 수 있는 것이다.

사람들은 하루 하루의 자기 생활환경 속에서 오는 변화를 잘 느끼지 못 한다. 그러면서도 시간이 경과하고 난 뒤에 옛날의 그것과 비교해 볼 때 우리들은 비로소 그간의 변화를 뚜렷이 느낄 수가 있는 것이다.

군대생활을 몇 개월 하다가 첫번 휴가로 시골 자기 집에 다녀온 병사들은 누구나 자기 동네가 그렇게 좁아 보이고 자기 집 처마가 그렇게도 낮게 보이는게 이상하다고들 이야기 한다. 왜 그렇게 느껴지는 것일까, 그것은 그간 짧은 시간 내에 많은 사물들, 타향에서 본 도시와 웅장한 건물들 그리고 자기가 살던 고장에서는 전혀 볼 수 없는 많은 것들을 보았기 때문이 아닐까. 다시 말해서 그 병사의 시야가 굉장히 넓어졌기 때문인 것이다. 이와같은 현상이 때로는 불행을 초래하는 원인으로 등장하여 제대병들이 자기 고향에 귀가치 않고 화려한 대 도시에 몰려와서 뚜렷한 직업도 없이 물량아로 저락되는 지난날의 예도 더러는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러나 먼 앞날을 바라보며 자기가 군

복무생활에서 보고 느낀 여러가지 일을 자기 인격개선과 자질 향상에 귀중한 재산으로 여기고 저내는 군인이라면 의무세계에 비교해 봐서 낙후해 보이는 자기 집과 자기 마을을 재건하기 위해서 군복무기간 동안의 온갖 경험을 최대한 발휘함으로써 최종적인 인생 성공을 기할 수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처음 구절 중에서 이야기한 바와 같이 자기 집을 떠난 나그네가 인생 승부의 결판장인 서울에 가기 이전까지의 여정에서 누가 더 많이 인간세파를 헤치면서 용감하게 자신있게 싸울 수 있는가 그 지력인 밀거름을 누가 더 많이 준비했는가에 따라서 승부는 결정된다는 것을 다시 강조해야겠다.

군대생활 과정이 우리 인간생활의 전과정 중에서 어떠한 위치를 차지 하고 있는지를 알아보자. 군복무에 들어가기 전에는 대체로 가정이란 온실의 비호 밑에서 학업에 열중하게 된다고 보아야 할 때 학교에서 배우는 기초교육 과정 역시 원칙적인 것이요. 전혀 실무 체득이 없는 순수한 무경험자의 위치를 벗어날 수 없는 위치에 있다고 병해야 할 것이다. 이런 젊은 이들이 그대로 막바로 사회전선에 던져졌다고 할 때 대부분의 젊은이들은 시련을 뚫고 나가기가 벅할 것이며 낙오되거나 실패를 당하는 젊은이들이

많아질 것이다. 그러나 군복무기간 중에 앞으로 사회인으로서의 생활기틀에 필요한 제반 경험들을 체득했다고 할 것 같으면 그보다도 더 다행한 일은 없을 것이다.

이렇게 볼 때 군복무기간이란 우리 인생 생활과정에 있어 배놓을 수 없는 필수적인 단계이며 이 과정을 거치지 않고 그대로 사회에 진출한다는 것이 얼마나 비효율적인 것이며 이 과정이야말로 어느 교육기관이나 가정에서는 돈 주고도 받을 수 없는 귀중하고도 산 교육이라 할 수 있겠다.

다만 이 과정을 겪는 기간 동안이 자기 목표 달성에 전혀 무관한 사업이며 지루

하게 느끼고 피로워 하며, 소중한 온갖 경험들을 자기의 뼈와 살로 만들지 못하는 젊은 이가 있다면 그는 바로 출세를 위해 서울에 자기가 급하여 측저술을 써서 날라간 청년이 끝내 결어오면서 모든 시련을 겪은 동료들에게 패배를 당한 것과 무엇이 다르겠는가.

그렇기 때문에 모든 군인들은 군복무 생활을 단순히 한 번은 업어야 한다는 의무감으로만 느끼는 보편적인 생활태도를 지양하고 현재의 이 군복무생활이 곧 내일의 사회생활을 위한 귀중한 밑거름이 된다는 것을 다시 한 번 각성해야겠다.

### 고 금 소 답

▲ 나는 약속한 시간을 5분쯤 늦은 것을 대단히 얕게 생각하는 사람을 경멸한다. 5분 사이에 1개 중대가 보급을 못받아 전멸할 수도 있는 것이다.

그러나 나는 약속한 시간 5분전에 오는것도 경멸한다.

그는 5분이란 시간을 낭비하고 있는 것이다.

<윌링턴>

▲ 진실로 중요한 것은 우리가 무슨 일을 당했을 때 깊이 생각해서 선악을 결정 한다는 점이 아니다.

선악의 선택을 그때의 생각에 맡긴다는 것은 위험한 일이다.

선은 생각에서 온다기 보다 습관에서 온다. 생각하지 않고 즉시 선을 행할 수 있는 습관! 이 습관이 평소애 뒷받침이 되어 있을 것이 가장 중요하다.

<칼힐티>



# 나의 애송시

박 경 수

## 【시 1】

○……낯 들길

아침 바다

저녁 노을 강

멀어서 지금은 하늘 아득한,

있을까 아

그 모래벌의 아침 발자국

혼자서 흔들리던

하얀 들 풀 꽃

바다로 날아가던 죄그만

철새

그 저녁 울음 울던

풀버리지 울음,

가을 봄 겨울 여름

혼자 거닐던

있을까 아 되몰아 와

생각하는 햇볕,

쌓여서 출렁이던 금빛

옛날을,

우리러 끝도 없던

파란 하늘에,  
 피워 보던 아침 꿈 모란  
 흰구름 피워보던  
 어릴적 노을 장미 꿈…….

이것은 시인 박 두진씨의 「옛날에…」라는 제목의 시다.

「옛날에」라는 그 시의 제목에서부터 나는 어릴적에의 추억을 돌이키고픈 강한 집념같은 것이 느껴지곤 한다.

그것은 어쩔 이 세상 그 어느 것 보다도 더 아늑하고 소박하고 구수한 내 나름대로의 향수일는지도 모른다.

사람은 누구나 끝없는 미래에의 소망을 간직하고 산다.

어릴 때의 꿈이 무엇인가 황홀한 세계, 아름다운 세계만을 동경하는 막연한 그리움 같은 것이라면 좀 더 자라서 어른이 되고 난 후의 소망은 조금은 서럽고 조금은 달작지근한, 그렇지만 철저히 나를 계산한 슬픈 것이라 할 수 있겠다.

때문에 우리는 자주 무지개같은 아련한 옛날을 생각하게 되는 걸게다.

시인이 말한 「어릴 때 경험한 아름답고 순수한 일들은 저워버릴 수도 잊혀질 수도 없는 인생의 큰 행복일 것이다.

애절하면서도 환희롭고 안다까우면서도 나만 혼자 간직한 것 같은 자랑스러움을 안저다 주고 그리고 못전디게 한다.

결국 인생은 어떤 순수한 체험, 특히 정서적인 체험을 토대로 해서 생각할 때 가던 갈 수록, 인생을 경험하면 경험할 수록 어릴 때의 세계에서 떠나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어릴 때의 세계로 되돌아가는 회귀작용을 하는 것이다.』라는 시작편 때문에 나는 이 시가 더욱 좋아졌는지 모르겠다.

정말 그렇다.

느닷없이 다시 맛보고 싶어지는 어린 시절의 추억.

그 사과처럼 달콤하고 싱싱한 향기는 누구나 갖고 있는 아름답고 순수한 옛날 얘기가 아닐까.



【시 2】

○……엄마가 섬 그늘에  
굴따러 가면  
아기는 혼자 남아  
집을 보다가  
바다가 불러주는  
자장노래에  
스르르 팔을 베고  
잠이 듭니다…….

국민학교 시절,

국어 교과서에서 이 동시를 배운 것 같다.

제목이나 작자 이름은 잘 생각이 나지 않지만, 그때 키가 자그마한 꼽솔머리 여자 선생님이 낭랑한 음성으로 노래하듯이 시를 읊어주던 일이 기억난다.

그 여자선생님의 낭랑한 목소리가 좋았던지, 아니면 어린 마음에도 이 시가 풍겨 주는 배릿한 바닷내음이 좋았는지 나는 이 동시와 10여년이라는 기인 세월을 친해왔다.

지금도 나는 문득 문득 이 동시를 마음 속에 떠올리곤 한다.

그러면 금방 가슴 한 가득히 펼쳐지는 그림같은 섬나라.

옛날 얘기처럼 아스레한 파도소리, 소라의 합창, 미역 따는 해녀들의 힘찬 휘파람 소리, 아이가 불어대는 소라고동, 비누거품처럼 하얗게 일어나는 파도가 바위에 부딪치는 소리,

그런 것 들이 모두 아름다운 회음이 되어 쿵쿵대며 가슴을 울려오는 것이다.

향긋한 바다냄새가 물씬물씬 풍겨오는 바닷가—.

섬 그늘 돌밭에서 따뜻한 정담을 나누며 줄을 캐는 아낙네.



그에겐 홀로 밤에 남겨 두고 온 아기가 있다.

도시의 아기들처럼, 엄마가 자장가를 불러주지 않아도 섬 아기는 바다가 불러주는 자장가를 듣고 숨사탕처럼 단고 포근한 잠에 빠져드는 것이다.

기적을 울리는 화려한 장난감, 기차와 눈이 예쁜 커다란 인형과 초콜릿과 우유로 만들어진 맛있는 비스킷이 없어도 섬 아기는 엄마를 울리지 않는다.

나는 이 한 폭의 풍경화처럼 귀엽고 예쁜 동시를, 아기를 토닥 토닥 등 두드려 잠 재울 때 노래하듯 읊고 싶다.

【시 3】

○……바람도 쉬어 녀고

구름이라도 쉬어 녀는 고개

산진(山陳)이 해동청(海東靑) 보라매라도

다 쉬어 녀는 고봉(高峰) 장성령 고개

그 너머 임이 왔다 하면

나는 한번도 아니 쉬어 녀으리라….

<작자 미상>

작자가 알려지지 않은 이 옛시조를 나는 즐겨 읊조리곤 한다.

하구많은 아름다운 시와 유명한 외국 시인의 번역시를 두고 하필이면……? 하는 사람도 있을법하지만 그것은 그것대로 좋고 이것은 또 이것대로의 구수하고 무게있는 매력이 있자 않은가.

사실 「숫꽃」과 「미니스커트」가 난무하는 시대에 시조를 읊는다는 것은 안 어울리는 모습이라고도 할 수 있을테지만 나는 이것 말고도 장쪽도·릴케·바이런을 사랑하기도 하는 것이다.



본래는 아버지께서 이 시조를 좋아하셨다.

이 시조 외에도 아버지께서 좋아하시는 시가 또 하나 있다.

“소나무 자욱한 곳을 찾아 주인 안 계신가 물었더니,

아이 하는 대답이, 약 캐러 갔나 봐요.

이 산중 어느 골에 계실테지만

구름이 아득하니 찾을길 없소이다.”

아버지께서는 아침 산책 때 당나라 시인 가도(賈島)의 이 시를 읊으시며 「더니」(강아지)를 데리고 산길을 오르실다.

지금은 출근시간이 바빠 엄두도 못내지만 전에는 빠지지 않고 나도 아버지를 따라 새벽산책을 했었다.

그때마다 그 새벽의 생그러운 공기를 가르고 「더니」는 앙징맞게 멍 멍 거리며 앞서 달리고 아버지는 천천히 산을 올리시며 그 시조를 읊으시곤 하셨다.

그 뒤로 나는 아버지의 이 애송시가 그만 좋아져 버렸다.

산은 어머니의 품 속같은 것.

고향같은 것.

그런 까닭인지 이 시조를 읊으면 웬지 가슴 빼근한 향수같은 것이 느껴진다.

도회지의 혼잡 속에서 사노라니 그런 것이 더 그리워지기만 하는가 보다.

#### 【시 4】

○……앵도로 붉은 입술

웃음 띄어 잡든 아가.

다가앉아 굽어 보며

떠날 줄 잊은 열애(熱愛).

어머니 눈동자 잠긴 별빛

그 빛의 모를 일이외다…….



어린 중학교 애들까지 선 자리에서 한 두 편쯤 외워 낸다는 「하이네」나 「포우」의 시 한 구절도 알지 못하는 내가 특별히 애송하는 시라는게 따로 있을리 없고, 그저 어쩔수 없이 이 시가 마음에 당기는 것은 노룩 노룩하게 구어져 나온 호떡을 보고 식욕이 당기는 것과 똑 같은 이치가 아닌가 생각된다.

누가 지은 무슨 제목의 시인지도 모르면서 난 이 아름다운 시키에 가슴 울렁거리는 즐거움을 맛보곤 한다.

그 혼한 미사여구를 앞뒤에 장식하지 않고도 이렇듯 읽는이를 감격시키는 시인의 솜씨가 부럽다.

친구와의 가벼운 트러블로 울적해 있을 때, 여행 후 사정없이 찾아드는 고통감으로 허탈할 때, 그와의 신경전이 길어져 한껏 괴로워 있을 때, 봄비가 촉촉이 뿌려진 매끄러운 길이 까맣없이 저주스러워질 때, 평행으로 줄이어 서 있는 수은등이 초라해 보여 공연히 짜증스러울 때, 난 남의 시선일랑은 아랑곳 없이 소리내어 이 시를 읊어보곤 한다.

어쩔 시끄러기가 더 이어질 것만 같은 아쉬움이 있는 채로 이 구절만을 아주 열심히 외어대는 것이다.

이전 그대로 엄마와 아가를 소재로 한 아름다운 한 쪽의 그림이다.

노을이 황금빛으로 길어져 가면, 노을을 등에 진채 다정한 애기를 나눌 젊은 엄마와 아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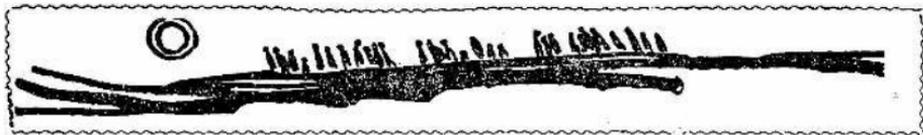
사랑하는 남편을 보듯, 그렇게 사랑으로 충만된 빛나는 눈으로 하루 하루 아기의 눈 속의 별을 헤어나가는 엄마의 지순저미(至純至美)한 사랑으로 아기는 물먹은 풀이 자라듯 무럭무럭 커간다.

엄마의 숨결과 체온을 나눠갖고……

엄마와 아기의 숨소리가 정말 들리는 것 같은 아름다운 시가 아닌가.

## [시 5]

○……어느날 아침 일찍 잠을 깬 뉘이는



서툰 말씨로 종알거린다.

『산이 이불 덮고 자네』 창밖을 손짓하면서.

검푸른 머리를 하늘로 추켜든

산은 정말 잠옷 자락을

무릎 아래까지 휘감고 있다.

『구름일까, 안개일까?』

『아니야. 이불이야』 愿이는 대꾸한다.

『그래. 산이 주워서 이불을 덮었나 봐.』

나는 아침 저녁 그저 무심히

봉우리와 언덕을 바위와 나무를

어찌다가 보았을 뿐.

아니 있는 것이 절로 비쳐와

보였을 뿐. 보기 위한 여유로는

본 적이 없다.

굴레 쓴 지루한 나날

관심 밖으로 밖으로

모든 것이 벗어나 밀려가고 있을 때

愿이는 다시 산을 향해 종알거린다.

조감지 손을 흔든다.

산은 모르는 척 천천히 이불을 개킨다…….



인 태성씨의 「어느날 아침」이라는 제목의 시다.

그저 무심히 보이는 것이기 때문에 보았을 뿐인 아침 안개에 덮힌 산풍경을 시 속의 원이는 놀라운 시선으로 보고 감탄하고 있다.

어린이들은 가끔 날카로운 관찰력으로 어른들을 놀라게 하곤 한다.

어른들이 미처 느끼지 못하는 세계.

어른들이 막연히 그저 동경만 하고 있는 세계에 어린이들은 예민한 감수성과 무서운 실천력으로 순하게 빠져들기도 하고 용감히 부딪쳐 가기도 한다.

시인이 이 시에서 읊었듯이 자연이 아름답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은 이 세상에 거의 없다.

다만 느끼지를 못하고 있을 뿐이다.

그저 번잡한 생활 속에서 아름다운 자연으로 눈을 돌릴 수 있는 여유가 생활인에게서 없을 따름이다.

그러나 「여유가 없기 때문」이라는 한 마디의 이유만으로 아름다움을 보는 눈을 감아버린다면 생활이라는 것이 너무 적막하게만 느껴지지 않을까.

이런때서 우리는 어린이들의 눈을 통해 새삼스러운 아름다움을 발견하는 환희를 맛보고 싶어지는 것이다.

## 고 금 소 담

어떤 집에서 딸을 시집 보내면서 “시집가서는 말 존대를 잘 하여야 하느니라”고 일러 보냈다.

이 색씨는 시집에 가서 말을 조심해 쓰는데 한 번은 종아지가 나와서 뛰는 것을 보고 『종아지님이 머치님을 쓰시고 마당에서 뛰시니까 강아지님이 보시시고 짖으십니다』 하더니 밥상을 들고 방에 들어가다가 시아버지가 누워 있는 것을 보고 『밥상님을 모시고 내 발님이 들어가오니 아버지님 대갈님을 치시오』 하더라나.



# 시련을 겪는—

## 공산권 경제위기

이

동

호

<공산주의 문제 연구위원>

### (1)

1955년 「흐루시초프」가 이단자 「티토」와 연서하여 「벨그라드」선언을 발표한 이후 세계 공산주의 운동은 사실상 행동 통일을 기하기가 어렵게 되었고 이념적 분열과 동요가 일어나기 시작했다.

「벨그라드」선언은 각국 공산당의 평등권과 불간섭의 원리를 골자로 하는 까닭에 각국 공산당은 소련의 통제권을 어느 정도 벗어나서 독립적인 노선을 표방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이와같은 공산권 내에서의 내부적인 분열은 이후 점점 극대화 되고 중·소 분쟁과 체코슬로바키아에 대한 무력침공 등은 그 중에서도 가장 현저한 실례가 되었다고 볼 수 있다.

특히 69년 이후 공산권 내의 분열 양상은 종전에 볼 수 없던 새로운 형태로 발전하고 있으며 이 새로운 분열 양상은 일종의 할거주의적 성격을 갖는 점에서 종전의 분열양상과 구별되는 것이다. 그 이전의 열염은 각국 공산당이 소련의 통

제권을 벗어나서 개별노선을 표방함으로써 조성되었음에 반해서 할거주의적 분열은 다수 공산국가가 집결해서 독자적인 노선을 택하게 됨으로써 시작되었다. 그러나 종전까지의 할거주의적 경향은 이해관계를 같이 하는 공산국가의 이합집산의 성격을 벗어나지 않는 것으로서 이 집단적 성격은 없었으나 이제는 이러한 집단이 독자적 이념을 형성하는 수준에 이른 것이다.

1969년 3월 유고슬라비아에서 개최된 제 9차 전당대회, 4월에 북경에서 개최된 9전 대회, 6월에 모스크바에서 개최된 세계공산당 대회 그리고 지난 11월의 북괴 공산당 제 5차 대회 등 근배에 와서 유례없는 각국의 공산당 대회 등에서 이러한 경향을 발견할 수 있는 것이다.

유고슬라비아의 당 대회를 통해서 그들은 1950년 이후로 발전시켜 온 자립주의 노선을 재 확인하고 『생산수단을 노

동자가 선거하는 자치기관에 이양함으로써 새로운 국가주의적 계급사회의 발생을 저지할 것』을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이념은 유고슬라비아에 국한되지 않고 체코슬로바키아의 경제개혁에 영향을 미치고 더욱 나아가 소련블럭 자체에까지 침투하고 있는 것이다.

중공도 9전 대회를 통하여 동구의 알바니아와 아프리카의 여러 공산당을 이끌고 소위 반미, 반일, 통일전선을 형성하면서 소련에 대항하는 세력구축을 시도하고 있음은 세삼스럽게 언급할 필요가 없으나 주목할 점은 소위 「모택동」 사상을 중공의 이념으로 국한하지 않고 세계 공산주의 운동의 주도적 이념으로 확대 해석하려는 태도인 것이다.

또 작년 6월의 모스크바 세계 공산당 대회는 유고슬라비아, 알바니아 이외에도 아시아 16개 국이 참가 거부함으로써 세계 4,590만 공산당원 중 2,150만의 공산당원만을 대표하게 된 것이다. 대회에 참가한 각국 대표도 모스크바의 권위를 종전과 같이 인정하려 들지 않았으며 특히 공산권 내의 위성국가는 물론 서구의 공산당은 주권과 자치를 존중하는 새로운 형태의 공산당 상호관계의 형성을 요구하였다.

공산권 내에서 신성불가침의 절대권을 누렸던 소련은 이제 세계 공산주의를 영

도하는 능력을 상실해 가고 있으며, 다만 미세한 보유군사력에 의하여 현상을 유지하고 있을 뿐 이념적으로는 이미 유일한 지도성을 상실하고 있다. 체코슬로바키아의 부력점령은 어떠한 구실하에서나 모든 공산당에게 소련의 입장을 이해시키는데 실패했고 이와 반대로 「벨라드」와 북경은 소규모의 모스크바로 변해가고 있다.

우리는 이렇게 할거주의화 혹은 다극화 되어 가는 공산권 내부 변화의 배경에는 전체 공산국가들이 당면하고 있는 경제적 위기가 가장 큰 요인이 되고 있으며, 최근 독·소 불가침 조약의 체결과 전 유럽 안보회의 개척을 위한 노력이나 「코메콘」체제의 붕괴를 억제하려는 온갖 노력도 소련이 「코뎀」이나 「EEC」와 대결하여 세계공산국가에 대한 경제적 결속을 강화하여 공산권의 분열을 방지하면서도 자국의 이익을 확보하고 공산권 내에서의 중추적 위치를 유지해 보려는 절망적인 노력의 표현이라 볼 수 있는 것이다.

소련 공산당이 「코민포름」을 통하여 부르짖던 모든 공약의 대부분이 하나의 망상에 불과하며 스스로 경제이론을 수정하고 그들이 내 세운 경제정책이 세계 공산당을 희생시킨 기초 위에 자기 만의 변명을 추구하는 것임을 스스로 폭로하

여야만 하게 될 것이다.

일찍 소련 공산당은 『공산주의 국가에  
서는 인간에 의한 인간의 착취와 탄압은  
소멸되고 노동자는 그 운명의 지배자가  
된다』고 하였으나 공산당의 가혹한 지배  
하에서 일반 노동자는 노예생활과 같은  
상태에서 혹사 당할 뿐이고, 토지는 이를  
경작하는 자에게 준다는 공약은 노동자  
의 집단농장, 인민공사 등의 수용을  
통하여 오히려 인민이 토지의 예속물로  
전변되었다.

자본주의의 부정부 상태는 소멸되고 집  
단화는 경제를 계획에 따라서 원활히 발  
전시킨다는 공언과는 달리 「관리파잉」은  
결국 평시에 있어서도 암시장이 판을 치  
는 무정부 상태로 전락시켰을 뿐이다.  
공산주의 국가의 어디를 가 보아도 대규  
모의 암시장이 있어 공산주의 경제체제  
의 무능을 보충해 주고 있다.

「호루시초프」는 개인 소유의 젖소가 코  
르호즈(소련 집단농장)의 젖소 보다 훨  
씬 많은 젖을 산출하는 것을 보고 개인  
소유의 젖소를 코르호즈에 집어넣었더니  
공유로 변하는 순간부터 착유량이 감소  
되어 젖소는 반공주의자라고 결론을 내  
렸다고 한다. 경제의 각 부문이 각각 생  
산증가를 파시하고 있으나 일부에서는  
계획량을 초과하면 다른 부문에서는 그  
만큼 재료가 결핍되어 생산량이 감소된

다. “앙드레 필립” 사회경제하에서 가  
격 수준을 정할 때 결국은 자본주의 국  
가에서 밀수입한 상품의 가격에 의해서  
정할 밖에 다른 도리가 없음을 시인한  
적도 있다.

상급 중앙 계획기관에서 수립한 경제제  
획을 실천해 온지 50년 이상이 지난 근  
래에 와서 「리베르만」은 자유경쟁은 생  
산을 수요에 적응시키는데 필요하다는  
가 이윤의 효용 때문이라는 등 자유주의  
경제 질서의 상식을 주장하여 위대한 예  
언자라고 칭찬을 받고 있는 것 등은 참  
으로 어이없는 일이라 하겠다.

또 『공산주의 지도하에서 생산력은 자  
본주의를 훨씬 능가한다. 공산주의는 자  
본주의가 그 내부적 모순에 의해서 정지  
한 생산력을 새로운 수준으로 높이기 위  
하여 역사가 보낸 찬사』라는 등의 선전  
을 되풀이 했다.

1956년 소련은, 모든 시민에 충분한  
밀가루 공급을 할 수 있다고 자랑했으며  
10년이 지난 1966년에 과연 소련은 밀가  
루 자유판매를 실시했다. 그러나 이것은  
자기나라에서 생산한 밀가루가 아니라  
자유우방 여러 나라에서 소련 시민의 기  
아를 보다 못해 제공한 식량원조를 판매  
한 것이었다.

그러나 중공업과 군수공업에 있어서  
는 공산주의자들은 그들의 공약을 지키

고 있다. 생산력의 저위에도 불구하고 막대한 자본과 노동력을 투입한 결과 생산이 증가하였다. 그래서 소련은 세계에서 일류급의 군사적 강국이 되었다.

그러나 10년간에 수차의 경제개발계획을 강행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을 따르지는 못 하고 있다. 중공업에 있어서도 소련의 생산은 미국의 반 정도다. 필수 소비재 생산은 30%, 사치성 소비재는 3%이다. 미국이 소련과 같은 수준이 되려면 자동차의 95%, 포장도로의 95%, 주택의 70%, 발전소의 40%, 6천만대의 텔레비드를 파괴해야 하는 한편 감옥의 수는 100배로 늘려야 하는 것이다.

민중들의 생활수준은 미증유의 비율로 향상된다는 말과는 달리 시베리아 벌판에서, 중국대륙의 광야에서 혹은 동구나 북한의 강제 노동수용소에서 대다수의 노동자들은 노예처럼 혹사 당하고 있을 뿐이다.

## (2)

1962년 소련의 「카르코프」 대학의 「리베르만」교수가 「이윤론(利潤論)」을 발표함으로써 시작된 사회주의 경제개혁이 소련과 특히 「코메콘(Comecon)」체재의 지도국가적 입장에 있는 동독을 비롯한 동부유럽 여러나라를 휩쓸기 시작했다.

65년에는 불가리아, 체코, 폴란드, 향

가리서 본격적인 경제개혁에 착수하였고 「코메콘」에 가입하지 않고 있던 유일한 동구 사회주의 국가였던 유고는 처음부터 독자적인 경제체제를 발전시켜 왔다.

이와같은 동구의 경제개혁은 나라에 따라 「뉴앙스」의 차이는 있으나 기업활동의 자유화에 중점을 두는 점에서는 공통적이며 「코시진」소련 수상이 65년 9월 당 중앙위원 총회에서 제안한 경제개혁 안도 역시 같은 성격의 것이었다.

주지하다시피 사회주의 계획경제체제는 자본주의와는 달리 가격의 등락을 통해서 수요와 공급을 조절하는 시장기구가 존재하지 않고 이에 대신하는 것으로서 재화의 생산에서부터 판매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갖가지 지표가 상급 계획기관에서 낙하산식으로 현장의 기업에까지 전달되는 것이며 경제활동의 제반 조절기능을 중앙기관에서 집중적으로 장악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국민경제의 각 부분이나 수많은 개별기업(個別企業) 상호간의 원로 제품의 수급관계를 계획당국의 일방적인 지표에 의하여 기계적으로 조절 일치시킨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일이고 이 때문에 어떤 기업에서는 다른 관련기업으로부터 원로, 시설자재의 저기공급의 차질로 제품생산이 곤란한가 하면, 어떤

## ☆ 시련을 겪는 공산권 경제위기 —

기업은 생산과잉으로 막대한 재화(滯貨)를 조출해 내는 사례가 허다하여 가용자원의 합리적 배분과 이용 및 생산성의 향상을 곤란케 하여 계획목표의 달성에 많은 차질을 가져왔고 한편 재료를 받은 현장의 기업측은 목표의 달성물에만 급급한 나머지 품질개선이라든가 소비성향 등에는 거의 관심을 둘 수 없었다.

사회주의 계획경제가 빚어낸 갖가지 차질과 불합리, 비능률, 관료적 경영의 낭비와 부패, 그밖에 창의성이 결여된 기계적 획일주의 등 허다한 유통과정경화증은 사회주의 경제에 새로운 돌파구를 모색하지 않을 수 없게 하였는데 마침내 62년 「리베르만」 교수는 새로운 방식에 의한 사회주의 계획경제의 본질적인 재질개선을 주장하기에 이른 것이다.

이후 이 이론은 소련 경제계를 휩쓸고 동구의 여러 나라를 풍미했으며 마침내 소련을 비롯한 공산권 경제위기의 유일한 돌파구가 되었다.

### ( 3 )

원래 공산주의 국가는 일국 사회주의 건설과 일국 계획경제를 목표로 하는 만큼 봉쇄적이고 국가주의적 성격이 농후했으며 공산세계의 중주국을 자처하고 있던 2차 대전 후 소련의 동구 위성국가들에 대한 정책도 이와같은 특성을 그대로

로 나타냈던 것이다.

제 2차 대전 후 냉전 격화로 동서간의 경제적 단층이 표면화 하여져자, 미국이 서구 여러 나라에 대해서 제공한 「마샬」 계획에 의한 경제원조에 힘입어 급속한 복구와 성장을 계속하는 것과는 정반대로 소련은 「마샬」계획과 어떤 형식으로든지 연결을 맺으려 했던 폴란드를 비롯한 위성국가를 억압하여 공산권 내의 자급정책을 강행하려고 했을 뿐만 아니라 패전국에 대한 배상금 수탈의 형식으로 무역에 의한 수입액의 3·4배에 달하며 당시 소련 국민소득의 약 4%에 달하는 수탈을 동구 위성국가들에 대하여 감행했던 것이다.

이 시기의 소련은 자국경제의 진화복구에 여념이 없어 동구의 구적국으로부터 생산시설의 철거나 다액의 배상 부과에 의하여 동구 여러 나라의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켜 왔고 한편 전후에 특히 헝가리, 루마니아, 불가리아 등지에서 많이 설립된 소련과의 합병기업 조차도 실권이 소련에 쥐어져 있어 내정간섭의 대개체가 되었을 뿐이다.

이러한 소련의 정책에 반발한 서구 자유국가는 대공산권 무역금지 조치를 취했으며 소위 「코프」이 성립되었다.

그러자 당시 소련 외상 「모로토프」의 제창에 의하여 「마샬」계획과 「코프」에

대항하기 위한 「코메콘」을 형성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다.

「코메콘」은 소련의 국가주의가 노골적으로 저배된 전후의 초기 단계를 거쳐서 1국 단위의 자급자족적 계획경제가 시도된 적도 있으나 「스탈린」 사후와 시기를 같이 하여 국제적 분업과 전문화를 바탕으로 하는 새로운 협력관계를 수립하려는 온갖 노력을 다하면서 오늘에 이르렀으나 결국 소련 중심의 위성국 경제 수탈의 성격을 탈피하지 못하고 동구 여러 나라는 직접 서방과의 경제관계 발전을

통해 그들의 독자적 이익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게 된 것이다.

공산권 내에서 이념적인 할거주의 경향의 대동과 함께 「코메콘」이 직면한 붕괴 위기는 결국 공산 제국주의의 장래를 암시하는 것으로서 그들 스스로의 모순을 해결하기 위하여 도입한 수정주의적 경제이론은 자유화 물결을 끌어드리는 매개체 역할을 겸하지 않을 수 없게 함으로써 내부에서 부터 공산주의의 구조적 붕괴가 가까웠음을 시사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다.

고 금 소 담

◆ 와싱턴에서 뉴욕으로 향하는 밤차 속에서 나는 국회의원인 한 친구를 만났다. 그 친구는 자기 선거구로 연설을 하러 가는 길이었다.

그가 연설을 해야 할 선거구의 어떤 단체는 매우 그에게 악감정을 품고 있다고도 말하는 것이었다.

『그럼, 당신은 매우 거북하겠소.』

『하지만, 그들이 나를 뽑았으니 그들이 요청하면 나는 그들 앞에 가서 연설하는 것이 나의 의무죠.』

『그런데 당신의 기색을 보니 조금도 걱정하는 기색은 없구려?』

『걱정하면 필 합니까? 흥분한 끝에 도리어 일을 그르치기 쉽지요.』

『당신은 그런 긴장된 분위기를 해결할 무슨 비결이라도 있나요?』

『비결이라던 꼭 한 가지만 알고 있지요?』

국회의원은 말을 이었다.

『어떤 경우에 있어서도 마음을 터놓고 침착하고 우의적인 태도와 신념을 지니고 최선을 다 하는 것이지요 그렇게 하면 웬만한 일은 다 올바르게 해결이 되더군요?』

나는 그 친구가 그에게 적의를 품고 있는 사람들 앞에서도 조금도 초조하거나 긴장하지 않고 그의 우의와 성의에 의한 신념으로써 일을 잘 해결할 것이 눈에 보이는 듯 했다.

<노만 필>

# 최근 북괴의 외교정책



## 조 성 직

### <공산주의 문제연구소>

#### (1)

북괴 김 일성의 눈에 비친 모든 세계관, 정치관이 그러하듯 그의 외교정책의 원칙도 역시 「남북한 적화통일」의 달성을 위한 불변의 홍제에서 출발하고 있음은 재언을 불요한다.

특히 국제 공산당의 충실한 주구로서 공산권 내에서조차도 가장 호전적이며, 유일사상 체계의 확립을 통한 우상화 정책으로 일인독제의 철저한 지배체제를 확립해 놓고 있는 북괴 김 일성은 「스탈린」시대의 망령을 아직도 불식하지 못하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오직 한 반도에 있어 소위 공산주의 혁명의 완수를 최종 목표로 온갖 외교정책적 홍제를 꾸미고 있음은 적동하는 최근의 국제정치하에서도 변함이 없다.

북괴 김 일성은 일찍 소위 노동당의 당면목표를 「전국적 범위에서 반제, 반봉건 민주혁명(공산혁명)의 과업을 완수

하는데 있다」고 주장했다. 그가 소위 북괴 노동당의 혁명과업으로 제시한 두 가지 과제는,

첫째, 북한을 「공산혁명 기지」로 건설하는 일,

둘째, 한국을 자유진영으로부터 분리시켜 남북한 전역의 공산통일을 실현하는 일,

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 두 가지 과제 즉 공산혁명과업을 완수하는 구체적 방법으로서 소위 「반제투쟁」 「반미 구국투쟁」을 주장해 왔던 것이다.

이러한 소위 「반미 투쟁」을 통한 공산혁명의 완수로 궁극적 남북한 적화통일을 달성하겠다는 김 일성의 집념이야말로 모든 북괴 대내외정책의 원천인 것이며 이러한 그의 집요한 홍제는 지금 이 순간에도 변함없는 정책으로 구현되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북괴의 외교정책을 이와 같이 그들의 종국적 목표달성의 한 수단으로서 이해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 (2)

그런데 「반제 투쟁」 혹은 「반미 구국 투쟁」이란 주로 주한 미군을 철수할 것을 비롯해서 한·미간의 우호 내지 동맹 관계의 폐지 등 한국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모든 미국세력을 추방해야 한다는 것이고 「반봉건」은 북녘에서와 같은 토지 개혁 등 소위 「민주개혁(사회주의적 개혁)」을 실시해서 모든 재산을 국유화 내지 사회주의화 함으로써 한국 내에서 공산혁명을 성취할 기초를 정립하고 나아가서 한국 내에서 공산주의 운동을 합법화 해서 결국 공산혁명을 이룩해야 한다는 것이다.

한국에서 이와 같은 반미 용공정치가 실현되자면 혁신정권(실은 공산당)이 수립되어야 할 것이고 또 이러한 용공정권은 결국 민주주의 선거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혁명의 과정을 통해서만 수립될 수 있다고 보고 있어 「남조선 혁명」이라고 부르고 있으며 북괴가 현 단계에서 남한혁명의 성격을 소위 「프롤레타리아」 사회주의 혁명으로 보지 않고 「반제 반봉건 민주혁명」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한국민들을 기만하기 위한 술책인 것이다.

북괴는 남한혁명을 남한주민이 주동적 역할을 담당할 것을 바라고 있으나 그들

이 혁명의 주력군으로 간주하고 있는 노동계급은 아직 혁명사상으로 교양 조직화되지 못한데다가 공산당이 불법화되고 있을 뿐 아니라 한국민들은 전통적으로 반공의식이 완강하기 때문에 사회주의 혁명을 내세우면 이에 호응하는 세력이 미약한 반면 이에 반대하는 세력이 압도적으로 우세하여 결국 그러한 혁명은 승리할 수 없다고 보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현 단계에서는 한국에 대하여 반미감정을 호소 선동한다면 한국 내에서 광범한 사회계층이 호응할 것으로 보고 있으며 농민들은 북괴식 토지개혁을 원하고 또한 민족자본가, 지식층, 학생 등이 이에 호응하리라는 착각에서 북괴는 당면문제로서 소위 「반제, 반봉건, 민주혁명」의 슬로건을 표방하여 한국민들의 통일 열망에 영합하려고 해왔던 것이다.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는 하나의 지원적 수단으로서 그들의 외교정책을 반미 반제투쟁의 국제적 전개와, 그들이 망상하고 있는 한국 내의 공산주의 동조세력의 조성을 위한 국제적 여건을 조성하는데 두고 있는 것이다.

또 그들은 북한에서 먼저 사회주의 혁명을 완성한 다음 즉 이른바 민주기지를 구축한 다음 이러한 혁명세력을 남한에 까지 밀고 와서 공산주의 혁명을 완성한

다는 기본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먼저 북한 내에서 「민주기지」역량을 강화하고 남한 내의 「혁명세력」을 성숙시킨 다음 국제정세를 유리하게 전개하여 마침내 결정적 시기를 포착하여 전면 남침을 감행하려고 획책하고 있으며, 북한 내의 역량강화 준비는 이제 완전히 끝났음을 지난 북괴 5차 전당대회에서 김 일성은 선언했던 것이다. 즉 김 일성은 지난 11월 2일부터 평양에서 개최된 제 5차 전당대회에서 전 인민의 무장화와 전 지역의 요새화를 달성하여 한국 내의 「혁명세력」이 요청한다면 언제라도 이를 지원할 만반의 준비가 끝났다고 호언 장담했던 것이다.

그럼 이제 남은 문제는 남한 혁명세력의 성숙과 국제정세의 유리한 전개를 통해 결정적 시기를 포착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그들의 당면과제는 간첩침투와 후방지역 교란 작전을 강화시키는 한편 외교활동의 강화에 있는 것이다.

전술한 바와 같이 북괴 외교정책의 근본목적은 국제공산주의 운동의 일환으로 세계공산화에 기여하는데 있다.

따라서 북괴는 국제공산주의 전략전술에 그와 대외정책을 부종시키고 한편으로는 남한 내 혁명세력의 성숙을 기해서 결정적 시기를 포착하여 전면남침을 감행하여 한국의 적화통일을 달성하고 국

동의 적화통일을 달성함으로써 중국적으로 세계를 공산화하는데 기여하려고 하고 있다.

따라서 북괴 외교노선의 독자성은 처음부터 존재할 수 없는 것이며 소련, 중공을 비롯한 공산제국과 정치, 경제, 문화, 군사적 관계의 긴밀화가. 관건으로 되어 있으며 유엔대책에 따라 중립국과의 관계설정 및 경제적 측면에서 자유진영과의 경제교류강화를 적극 추진하고 있는 것이다.

북괴의 대공산권 외교원칙은 형식상 상호평등, 호혜의 원칙을 표명하고 있으나 실제적으로는 소련 및 중공에 항상 종속되어 있는 것이다.

북괴는 8.15해방 후 소련군대의 힘에 의해서 수립 유지되어 왔을 뿐 아니라 공산위성국에 대한 철저한 스탈린화 정책으로 후전 후까지는 대소 일변도 정책을 취해 왔으며 이는 또한 강제적인 성격을 띠우고 구속되어온 정책이기도 했다.

그러나 6.25사변을 통하여 중공의 참전으로 그 영향력이 강화되어가는 한편 1956년 2월 소련공산당 대회에서 스탈린 격화와 평화공존론을 정식화함에 대하여 중공은 불만을 품게 되어 중소분쟁의 씨가 되었으며 위성국은 소련의 예속화정책에서 이탈하려는 소동이 전개되었다.

이러한 공산권 내의 동요와 더불어 중공은 내부 혼란을 수습하여 소련의 주도권에 도전하기 시작하고 북괴에 대한 영향력을 강화시켜 나갔던 것이다.

북괴는 전후 복구와 경제건설 및 군사적 지원의 필요성에 의해서 소련, 중공의 두 붉은 상전에 매달려 구걸 외교를 실시하여 왔는데 56년에 비롯된 중·소분쟁이 격화되어 이념문제가 국가관계로 확대되고 무력충돌 사태로 발전되는 과정에서 그 줄타기 외교는 용납되지 않았던 것이다.

중·소분쟁이 표면화되어 적극적 항쟁기에 이르기 전인 1962년까지 북괴는 사회주의 진영의 통일단결을 표방하고 중립적 태도를 취해왔으나 중·소대립이 격화되어 공산권이 양분되고 소련의 지원 거부와 압력 및 강력한 대내부쟁, 개인 우상화정책의 필요성 등 중공과의 이념적 동일성으로 인하여 1963년초~1964년까지 북괴는 중공노선을 적극 추종하면서 소련을 신랄하게 비난하고 북괴에 대한 소련의 압력과 약탈정책을 폭로하여 왔다.

그 결과 소련은 북괴에 대한 경제, 군사 지원을 전면 중지하게 되자 북괴는 자주국방건설을 표방하며, 군수산업과 전쟁 준비에 광분한 나머지 7개년 계획이 파탄되고 말았다.

이 7개년 계획의 실패는 김 일성 정권의 붕괴에 직접적되는 심각한 문제일 뿐 아니라 월남전에서 보는 바와 같이 현 대전에 있어서의 북괴의 안보문제는 중공의 군사력보다도 소련의 안전보장의 필요성 때문에 1965년 이래 친선노선으로 전환해 왔으며, 1966년 8월 12일에는 소위 자주성을 선언하여 그의 외교노선 전환의 합리화를 꾀했던 것이다.

그러나 북괴의 자주성 선언이란 상전 선택의 자주성에 불과한 것으로서 친선노선으로의 전환은 필연적으로 중공과의 관계악화를 초래시키고 말았던 것이다.

중공은 김 일성을 공산주의의 가면을 쓴 「부르조아」 분자라느니 인민의 고통을 빨아먹는 살쥔 돼지라느니 하는 인신 공격과 함께 북괴에 대한 정치적 군사적 압력을 가하게 되고 쌍방관계는 극도로 악화되었던 것이다.

북괴의 대중공관계 악화는 대남적화통일을 위한 도발정책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이며 대내 공동투쟁노선에 위배되는 것으로 관계개선의 명분을 모색하던 중, 중공의 문화혁명이 수습된 것을 기회로 지난 69년 10월 1일 중공창건 20주년 기념행사에 최 용건이 참석한 것을 기하여 셋방간 해빙의 기회를 마련하였다. 이에 따라 지난 4.5~

7간 중공수상 주 은래가 평양을 방문하여 쌍방관계 개선을 촉진시켰다.

그러나 북괴의 중공접근은 필연적으로 대소관계의 악화를 초래시키게 되었다. 북괴는 65년 이래 소련의 「경제 기술 군사지원」에 의해서 7개년 계획을 3년간 연장하고 어느정도 성과를 보일 전망이 보였는데 대소관계의 악화는 북괴의 대내외 정책면에 막대한 영향을 끼치게 되었으며 마침내 금년의 5차 전당대회에서 3년 연장된 7개년 계획이 결국 실패하였으며 새로운 6개년 경제 개발계획에 착수하지 않을 수 없음을 감일성이 천명하였다.

북괴는 전쟁준비의 조속한 완료를 위하여 소련으로부터의 경제원조, 군사원조가 절실하게 필요했으며 「브레즈네프」와 「코시긴」이 이를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경제개발 7개년 계획을 기한 내에 달성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기대하였다.

이러한 이유가 바로 이념적인 면에서 소련의 평화공존 노선과 수정주의적 경향을 배격하면서도 북괴가 소련과 접근하려는 외교정책을 추구해온 이유인 것이다.

그러므로 북괴로서는 소련으로부터 이러한 원조를 기대할 수 없는 이상 구배하여 중공과의 우호관계를 해쳐가면서 소련에 접근할 아무런 이유도 찾을 수 없

었던 것이다. 이러한 제반 사정이 문화혁명 이후 중공의 적극적 유엔외교의 전개에 호응하여 그리고 「닉슨·독트린」에 의한 아시아 자유수호를 위한 일본의 비중의 증대로 중공과 북괴가 받게 된 압력에 대응하여 소위 「반미·반일 통일전선」의 형성을 통해 이 두 나라가 접근하게 된 이유인 것이다.

지난 8·15 25주년 기념식에 참석했던 「수스토프」는, 소련이 제창해온 「부레즈네프·독트린」과 관련된 아시아에 있어서도 마치「전 유럽 안보회의」에 상당하는 「아시아 집단안보」체제의 형성을 종용하는 언설을 했으나 북괴는 이를 완전히 무시하고 보도조차 하지 않았던 것을 생각할 때 북괴의 친공접근 경향의 뚜렷한 증거를 찾아볼 수 있는 것이다.

특히 일본의 자위력 강화를 위한 노력과 아시아 및 세계정치에의 적극적 참여에 대하여 북괴는 그들의 남침에 의한 적화통일 달성에 중대한 장애요소로써 인식하고 있으며, 과거 온갖 수단을 동원하여 재일 조정련계 조직을 통한 한일 국교 정상화 반대운동을 전개하도록 획책해 온 것을 생각할 때, 북괴의 입장은 중공의 이해와 일치하고 있는 것이다.

왜냐하면, 북괴와 마찬가지로 중공도

또한 아시아 적화에 있어 일본의 존재는 가장 큰 반동집단이며, 「제국주의 세력」의 본거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이다.

핵 무산을 아시아 전역에 펼치고 있을 뿐 아니라 아시아, 아프리카 지역의 신흥국가들에 영향력을 강화하면서 이들을 결속시켜 이념분쟁으로 대결상태에 있는 소련의 수정주의를 타파하고 전세계의 자유주의 국가에 대항해서 세계 공산화혁명을 전쟁을 포함한 모든 수단을 총동원하여 달성하고자 할겠다는 중국의 입장을 북괴는 전폭적으로 추정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6.25 사변을 통해 피로 맺은 전우로서 현재 영구적 군사동맹을 체결하고

있는 중공에 접근하여 보다 많은 군사원조와 경제원조를 획득함으로써 새로운 경제개발 6개년 계획을 기간 내에 달성하고 나아가서 새로운 남침준비를 보다 조속히 끝내어 반도를 기어히 적화 통일하고자 할겠다는 김 일성의 망상은 과연 어느 정도 실효를 볼런지 알 수 없으나 적어도 모택동이 북경에 도사리고 있는 한 김 일성의 이러한 정책에 큰 변화는 없을 것이다.

우리는 이러한 가장 위험한 호전적 공산국가들 눈 앞에 두고 반공정신의 강화와 국방력 신장에 온갖 노력을 경주하여 이들의 도발야욕을 분쇄해야 할 것이다.

### 고 금 소 담

당신은 배가 고프면 먹을것을 찾으리라. 음식은 주린 배를 채워주고 동시에 뱃속을 편안케 해준다.

그러나 우리는 음식에만 주리는것이 아니다. 그 이상으로 마음속에도 늘 주림이 있다. 당신이 빈민하고 헤매는 것은 마음속에 주림이 있는 증거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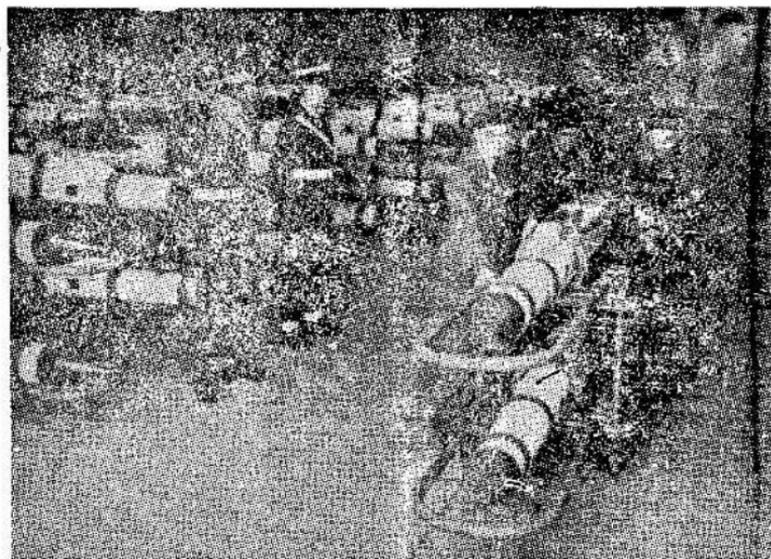
무엇인가 불안한 당신의 마음——그것은 무엇인가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즉? 마음의 평안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사람들은 배가 고프면 무슨것을 해서라도 먹을것을 찾으면서 마음이 고프는데 대해서는 양식을 못찾고 있다.

술집으로 가서 알코홀로 마음의 허전함을 채워보려 하지만 잠시는 위로가 될지 모르나 그 결과는 한층 허무감이 울 뿐이다.

당신이 아무리 저식이 있고 똑똑한 사람이라도 자기의 힘만으로는 되지 않는다. 이때야말로 사람은 신의 품안으로 가야 한다.

<벨리 그래픽>



## 오늘의 항공병기와 그 전망

### —통상병기와 미사일—

윤 범 중 역

#### 통상병기

군용기가 전투를 목적으로 해서 만들어져 사용되고 있는 한, 꼭 병기에 의하여 무장되고 있다.

즉 그가 목적으로 하는 이유는 단

지 비행하는데만 있는 것이 아니고, 병기를 사용하여 공중에서 공격하는 것이다.

병기가 없는 군용기는(그것이 정찰, 관측이나, 수송이라든가 하는 특수한 용법은 제외하고) 군용기로서의 가치를 인정받지 못할 것이다.

초기의 항공기는 오로지 공중을 날으는 것에만 목적이 있었다.

현재에도 스포츠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비행 그 자체를 목표로 하고 있겠으나 실용기에서는 공중을 날으는 것은 하나의 수단이다.

마치 여객기가 하늘을 날으면서 여객을 원거리에 수송하는 것이 목적으로 되어 있는 것과 같이, 군용기에서는 병기를 상대에 투입하는 것이 최종의 목적이 된다.

이런 뜻에서 비행기 그 자체는 병기를 날으는 목표에 발생하기 위해

서의 출발점에 불과하다.

따라서 군용기는 병기를 이해하지 않고서는 말 할 수는 없는 것이다.

병기에 대한 관심을 제외했을 때, 군용기는 그 목적을 잊어버리게 되는 것이다.

어떠한 우수한 전투기, 폭격기도, 그가 가진 병기가 뒤져서는 하등의 가치도 없다.

그리고 병기 그 자체는 비행기 자체와는 또한 각기 다른 특성이나 문제를 가지고 있으며 그 종류도 각기 다대하다.

일반적으로 유도 미사일(GM)이 만능인 것 처럼 보이는 현재이지만, 공격용 병기, 특히 전술공격에 사용되는 항공기로서 통상형의 폭탄, 무(無)유도탄의 로켓탄, 기관포, 기관총의 역할이나 효과는 거의 이전과 다름 없는 중요성을 지니고 있다.

예를 들면 현재 중(中)고고도에서 투하하는 750~1,000파운드(340~450kg) 다용도 폭탄(GP bomb)이나, 저고도에서 사용하는 1,000파운드 제동 폭탄(Retarded bomb)등은 어느 것이나 비행장의 활주로, 연료집적소, 건물 등의 고

정(정지)목표에 대한 기본적인 공격 병기이며, 이보다 우수한 것은 현실적으로는 생각되지 못하고 있다.

차량, 전차, 야전용 화포(火砲)에서 지상에 있는 항공기, 행동 중의 군대, 선박과 같은 이동 목표에는 로켓탄이 가장 많이 사용된다.

간단한 방비를 하고 있는 진지 등이나 밀림 속에 숨어져 있는 부대에 대해서도 로켓탄의 효과는 크다 할 것이다.

그러나 저공에서의 공격에는 로켓탄보다도 기관포가 오히려 효과적인 경우가 있다.

## ◇ 오늘의 항공병기와 그 전망 ◇

고도 2,000미터 이하에서의 대지공격을 하는 경우나, 거리 800~1,000미터에서의 공대공 전투에서는 이전부터 있었던 기관포가 오히려 효과적인 병기라고 할 수 있다.

확실히 강하공격을 위한 대지 로켓탄의 위력이나 다수의 로켓탄을 발사하여 그 탄막에 상대를 휘몰아 넣는 대(對)폭격기 전투는 가장 확실한 것으로 평가를 받고 있다.

그러나 대지 로켓 공격의 경우에는 목표에 대하여 직선적으로 강하하기 때문에 지상의 대공 포화를 받을 가능성도 높아진다.

따라서 초 저공에서 발사하면 명중률이 저하하여 공격의 효과가 적어진다.

특히 즐을 갖고 있는 차량이나 부대에 대해서는 기관포를 소사하는 것이 유효한 경우가 훨씬 많다.

또한 상대가 기동성이 큰 전투기 등의 경우는 언제나 가장 확실한 공격병기는 기관포라고 할 수 있다.

네이팜탄이나 소이탄은 직점의 공격이라고 하기 보다는 상대의 행동을 방해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율이 많다고 할 수 있다.

소이탄은 다른 폭탄 만큼 파괴력이 없기 때문이다.

물론 네이팜탄은 소이탄이 화염에 의

하여 극히 효과적으로 직접 불타게 하는 목표도 있으며, 사용목적에 적절한 점도 있으나, 상대방도 당연히 그 공격을 받을 것을 미리 생각하고 있으므로, 가급적 효과를 죽이기 위한 배치를 하고 있다.

네이팜탄은 지상에 떨어진 후 화염의 퍼지는 것이 비행방향에 따라서 직선적으로 되기 때문에 어떤 경우는 상대에 따라서 피해가 가장 적을 수가 있으며 업체(掩體)등에 의하여 화염을 방지할 수가 있다.

단지 심리적인 효과가 큰 것과, 제압할 수 있는 범위도 크므로, 상대의 행동을 구속하기에는 조건이 좋다.

대인공격등에 사용할 때는 파편폭탄이 효과적인 경우가 많다.

여하튼 파괴한 후 네이팜탄 공격을 하든가 파편폭탄과 혼용해서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인 것 같다.

### 목표에 맞는 폭탄을

어떠한 형의 폭탄을 사용하는가 하는 것은 투하하는 조건이나 목표에 의하여 결정된다.

이 선택을 잘못한다면 여하히 우수한 공격기라 할지라도, 여하히 숙련한 승무원이라 할지라도 허탕에 그치는 공격일 경우가 많다.

전차나 콩크리트로 만든 포진(砲陣)에 대인 살상용의 폭탄을 명중시켜도, 하등의 뜻도 없으며 습지대에 산재해 있는 게릴라부대에 대형의 폭탄을 투하시켜 보았던들 불발탄이 될 뿐 귀한 손실탄을 가져올 뿐이다.

제 2차대전의 미트웨이해전(海戰)에서 일본의 공격기가 폭탄장치와 어뢰장치와의 전환에 시간을 소비하여, 이 동안 미군의 공격에 의하여 대패한 사실은 오늘날 전사에 뚜렷이 남아있는 사실이며 공격병기의 선택이 그 얼마나 중요한가를 말해 주고 있다.

폭탄 그 자체의 종류나 크기 외에 형을 나누는 또 하나의 요소가 신표관(信管)이다.

보통 목표물에 격돌하는 충격에 의하여 혼자서 폭발하는 것이 즉각신표관(Impact Fuse)이다.

충격에서 폭발하기 까지 극히 짧은 시간 밖에 걸리지 않는 방식을 취하고, 화약의 연소폭발을 사용하는 것을 화전신표관(火箭信管 - Pyrotechnic Fuse)라고도 한다.

제 2차대전 당시부터 폭격 후 장시간 있은 후 폭발하는 장연기신표관(長延期信管)도 사용되어 왔다.

이것은 보통 시계장치가 되어 있는 것이다. 같은 장연기신표관으로서 산(酸)의

분해작용을 이용하여 폭발을 극단으로 늦추는 방법이 개발되었다.

또한 근접신표관(近接信管-Proximity Fuse)이 개발되어 목표의 가장 가까운 거리에 달했을 때 폭발되는 방법도 강구하였다.

미리 조종해 놓으면 지상에서 일정한 고도에 달하였을 때 폭발시킬 수 있다.

여기에는 음파나 전파를 사용하여 탐프라 효과를 응용하여 작동시키는 것도 있다.

현재 이 근접신표관은 통상 VT(Variable Time) Fuse라고 부르고 있다.

이 VT신표관은 폭탄 뿐만 아니라 로케트탄이나 유도미사일에도 보통 사용되어 빛이나 적외선을 응용하는 것도 있다.

이들은 자유낙하의 폭탄이지만, 이에 대하여 제동폭탄이라고 하는 종류가 있다. 폭탄의 미부에 에어 불레키와 같은 것을 장치하여 낙하의 속도와 탄도를 컨트롤하는 것이다.

제동폭탄이 고안된 이유는 크게 보아 들로 나눌 수 있다.

하나는 저공비행을 하면서 폭탄을 투하하던 그 폭발로서 비행기 자신이 위험한 것이다. 또 하나는 고속으로 떨어진 폭탄의 탄도가 홀라트되기 때문에 폭탄이 지상에 충돌하여 스킵한다든가 목표의 조준점이 어려운 때가 있다.

## ◇ 오늘의 항공병기와 그 전망 ◇

일반적으로 말해서 폭탄은 지상에 충돌하는 각도가 수직이 되었으면 하는 것이다.

이점 통상의 자유낙하폭탄에 우산과 같이 펼쳐지는 장치를 하면 저공에서도 지상으로 수직으로 낙하시킬 수 있으며 이 제동에 의하여 비행기가 일정한 안정권을 이탈하여 폭발하는 것이 된다.

탄도는 급각도에서 목표 직전에 투하하는 것이 용이하다.

제동장치는 고도 70~170m 정도에서의 투하가 유효한 것으로 되어 있다. 중동의 아랍제국과 이스라엘의 전쟁에서 이스라엘의 공격기가 극히 커다란 효과를 거두었으나, 이 이유는 커다란 것에, 이스라엘군이 낙하산 제동장치를 하여 제동폭탄에 의하여 저공에서 정확한 공격을 행하여, 극히 높은 명중률을 가진 데 원인이 있다고 한다.

이런 경우는 물론 촉발신관(觸發信管)이 사용된다.

### 대인용(對人)에서

#### 요새용(要塞用)까지

제동폭탄에 의한 공격이라는 것은 반대로, 저공고속 공격에 의하여 폭탄이 스키프하는 성질을 이용하여, 전차, 장갑차, 전조물, 선박 등을 공격하는 방법도 취해지고 있다.

이것은 상방(上方)에서 공격하는 것 보다는 목표에 대한 명중률이 높으며, 수평방향에서의 공격에 대하여 의외의 약점이 있어서, 파괴하기 쉬운 특성을 포착한 것이다.

인원 살상용에는 파편폭탄, 불폭탄, CBU(Cluster Bomb Unit)등, 작은 파편이나 탄자(彈子)의 살포도(撒布度)의 커다란 것을 사용하며, 두껍게 방어되고 있는 구축물 등에는 철갑탄을 사용하는 것이 상식이다.

베트남 등의 실전의 경험에서는 예를 들면 엄체로써 싸여져 있는 대공미사일 진지는 VT신관이 붙은 파편폭탄이나, CBU에 의하여 인원을 제압하는 것이 유효하다고 한다.

보통 다목적(GP) 폭탄으로 250파운드, 500파운드, 750파운드, 1,000파운드 등의 폭탄(중량에는 꼬리부분의 장치를 제외함)이 사용되어 전술 항공부대의 전투목적기가 폭탄을 장치하여 대기하는 경우에도, 이들의 폭탄이 선택된다.

750파운드 이상의 폭탄은, 요새지, 진지, 전조물 등의 견고한 목표용으로서 야전에는 500파운드 이하의 소형폭탄이 좋다고 알려져 있다.

그러나 이들도 모든점에 꼭 들어 맞는다고는 할 수 없다.

베트남 전쟁에서도 미군은 게릴라의

거점공격용에 대형폭탄을 잘 사용하고 있다.

이것은 제릴라 부대가 공격을 피하기 위해 3m 이상의 지하호를 만들고 있기 때문이다.

미군은 지하거점을 공격하기 위해 1,000~2,000파운드(450~900kg)의 대형 폭탄에 지연신관을 조합(組合)하여 사용, 저층 깊은 곳에서 커다란 진동을 주어서 목표를 파괴하는 방법을 취하였다.

반대로 「팍」도나 오끼나와, 가테나기지에서 베트남, 라오스, 캄보디아 등에 향하여 폭격에 발진하는 B-52 폭격기가 250~500파운드(113~225kg)의 소형폭탄을 실는 경우가 많다.

이것은 단일의 목표를 파괴하는 것이 아니고 일정한 넓은 범위를 지역폭격에 의하여 제압하여, 행동을 제약하기 위해서이다.

폭탄이라고 하는 것은 목적이나 목표의 종류에 의하여 선정되므로 그것을 실고 가는 기체의 크기라든가 실고 나니는 양(量)과는 직접의 관련이 없는 것이다.

여기서 초음속기에는 특별한 종류의 폭탄이 필요하게 된다.

특히 저공에서 고속비행을 하면 기체 밖에 장착한 폭탄은 공기의 마찰에 의하여 온도가 상승하여, 약간의 충격에도 폭발한다든가 신관에 이상을 가져오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고온형(高溫型)의 폭탄이 필요하다.

또한 고속비행 중에는 폭탄이나 베이 팰탄을 투하하면 항공기나 폭탄 제동장치에 의하여 난기류(亂氣流) 때문에 자기가 투하한 폭탄이 반대로 비행기에 부딪치는 경우도 있다.

이를 막기 위해서는 탄가(彈架)에서 화약에 의한 하향으로 사출한다든가 탄가를 복식으로 하여 적정한 자세로서 낙하시키는 방법을 취한다.

물론 폭탄 그 자체도 고속투하에 적합한 외형이나 꼬리에 배치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 효과적인 폭격을 행하는 것은 비행기 그 자체 이상으로 우선 목표공격에 적합한 폭탄의 사용이 전제가 돼 있다.

또한 폭탄이나, 폭격조준기, 투탄방법 등이 적당하지 않으면 전투폭격기의 속도가 빨라질수록 오히려 효과를 감소시킬 가능성이 있어, 장애가 되기도 한다고 한다.

비행기는 폭탄을 투하하기 위해서 의 정쟁이라고 하는 이유는 이 점에서도 인식하지 않으면 안 된다.

### 소 목표에는 로케트탄

이동하는 목표라든가 한정된 소목표를 공격하기 위해서는 대저 로케트탄의 사

## ◇ 오늘의 항공병기와 그 전망 ◇

용이 적합하다.

고속으로 발사되어, 자체의 추진력에 의하여 목표에 직진하는 로켓탄은 조준도 정확하며, 파괴력도 관통력도 크다. 대지 공격용으로써 사용되고 있는 것은 세계적으로 5인치급(120~130mm)과 2.75인치급(68~70mm), 그와 37mm급의 3종류가 있다.

5인치·로켓탄은 폭약량이 가장 많으며, 파괴력이 크나, 2.75인치급의 로켓탄외의 보통은 속도가 크며, 관철력이 있기 때문에 어느 쪽을 주로 사용하는가에 대해서는 각국마다 다소의 견해 차이가 있을 것이나, 최근에 대잠수함용 등에는 5인치급의 것을 사용하여, 대전차 공격에는 2.75인치 등이나 68mm 로켓탄을 사용하는 것이 주류가 되어 왔다.

이것은 탄도특성이나, 비상(飛翔)속도 등의 문제 이외에 적은 구경(口徑)의 경량탄을 사용하여, 진고다니는 수를 증가한다는 목적도 있다.

37mm급의 소형 로켓탄은 주로 대인 살상용으로 이용된다.

보통 로켓탄은 고속에 의한 관철력이 주목표인 것이지만, 이 소형 로켓탄에서는 파편효과도 생각되고 있으며, 기관포나 파편폭탄 대신에 사용된다.

대 게릴라 용의 헬리콥터 등에 사용하

여, 소형의 로켓탄을 다수 발사하는 것이다.

또한 중간적인 구경으로서는 50mm급의 로켓탄도 또한 각국에서 사용되고 있다.

로켓 공격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로켓탄 그 자체보다도 이를 실고가서 발사하기 위한 수단이다.

아음속기의 시대에는 날개의 아랫 부분에 줄지어 장착하던 되었지만 초음속의 전투폭격기 등에는 저항이 커서 문제가 되며, 또한 장비에도 시간이 걸려 불편하므로 현재에는 특별장치(폭탄을 포토에 집어 넣는다)를 하여 주의하여 장착한다.

이 포토는 대별하여 2종류로 나눌 수 있다.

하나는 불탄사의 마트라 RL/100, RL/150 등과 같은 몇 차례의 재사용 가능한 수단이며, 또 하나는 RL/116, 미국의 LAU-10 등과 같이 로켓탄을 발사한 후에는 절단해버리는 수단을 취하고 있다. 어느 것이나 각기 특징이 있으며, 어느 하나 만이 좋다고는 할 수 없으나 발사 후에 이탈, 특히 그 후에 공중전 등의 가능성이 있으면, 당연히 잘라 버리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은 재사용 가능한 수단을 사용해도 똑 같게 된다.

사용 후 버리는 형식의 수단에서는 보

통 선단(先端)의 캡 뚜껑은 발사직전에 찢라 버린다.

단지 저속의 헬리콥터 등에 사용되는 경우에는 뚜껑의 사용은 필요 없으므로 그대로 사용한다.

로켓탄의 발사는 일제 발사해도 수발 또는 단발에도 조종석의 스위치로써 선택할 수 있는 것이 보통이다.

공대공의 로켓탄은 속도나 탄도 특성의 관계에서 2.75인치의 조립식 로켓탄을 사용하는 것이 세계적으로 공통점이라고 할 수 있다.

이것도 란차장비나, 발사탄수(彈數)의 선택과는 대지 로켓탄의 경우와 똑 같이 생각된다.

### 지금도 유효한 기관포

기관포(총)는 제 2차대전 후의 공대공 미사일의 발달에 의하여 한 때 기를 펴지 못했던 것이 실제로는 현재에도 더욱 중요한 항공기 탑재병기로서 그 지위를 확보하고 있다.

기관포(총)는 항공기에 있어서는 가장 옛날의 병기라고 할 수 있다.

제 1차대전 직후 부터 당시의 전투기에 장치하였던 기관총을 가장 파괴력이 있는 대구경(大口徑)포로 교환하려고 여러가지로 연구되어, 제 2차대전의 발발 전에는 대구경 기관포가 실용화되어 왔

다.

한국 전란 후에 공대공 미사일이 실용 장비되어 한 때는 기관포가 시대에 뒤떨어진 병기로서 생각되어 왔으나, 새로이 그 가치를 인식시켜, 전술 병기로서 평가되었던 것은 베트남 전쟁을 시초로 해서 최근의 전투에서였다.

공대공 미사일이 예상한 것만큼 높은 명중률을 얻을 수 없는 것은 특히 대(對) 미그 전투기와 같은 대(對) 소형 전투기 전투에 있어서 명백히 되었다.

상대기와 일정한 거리 내에 접근하면 미사일의 운동성 등의 관계에서 명중이 기대할 수 없으며 또는 발사, 뒤따르기가 불가능하게 된다.

실제의 전투에서는 적과 아방의 식별이 의외로 곤란하며, 무어라해도 눈으로 확인해야 될 일이 생기며, 가급적 근접하여 공격개시를 하는 경우가 많다.

또한 공대공 미사일은 F-4 팬텀Ⅱ의 6~8발은 별도로 하고 통상 2~4발 밖에 장착 못하는 것이 보통이다.

장착탄 수는 적어도 단시간으로 전탄(全彈)을 발사하였을 때, 무방비 상태로 될 경우 기관포의 필요성이 절실했다.

F-4 팬텀Ⅱ는 같은 문제가 있다. 팬텀은 최초 기관장 포비는 없었다.

그 직접적인 이유는 미사일의 유행 수(携行數)가 많다는 것 외에, 당초 해군

## ◇ 오늘의 항공병기와 그 전망 ◇

의 함재용 전투기로서 개발되었기 때문에 항공모함에서의 폭발의 위험을 피하기 위해, 발칸포와 같은 모터기관포 같은 것을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공군이 이 비행기의 우수성에 착안하여 통일기종으로서 채용한 후에도 기내용적 등의 관계에서, F-4C, D형이 다같이 기관포 장치가 없었다.

그러나 베트남 전에서의 경험은 공대공 전투기용에도, 대지제압 공격용에도 기관포의 장비가 필요하여 발칸포를 외부에 장착하게 되었다.

해병대용의 비행기에도 똑 같다.

또한 신형의 F-4E에서는 기수를 연장, 대개조하여 발칸포를 달게 되며, 공군기도 급후 이와 같은 형이 중심이 될 것이다.

### 포탄의 위력과

#### 탄수(彈數)의 비교

기관포의 구경으로서는 중구경(中口徑)의 20mm급이 좋으나, 또는 30mm급 이상의 구경이 좋으나에 대해서는 전부터 여러가지로 논의된 바 있다.

구라파 제국은 영·불의 아덴 DEEA 포, 서서의 에리콘포와 30mm가 주류이며, 미국은 해군의 Mr 12, 공군의 M-39, 그리고 신형의 M-16 발칸포와 20mm가 주로 되어 있다.

소련은 이전 부터 공대공용에 누델만 NR-23(23mm), 대지 공격용에 NS-2(37mm)를 사용하고 있었으나 최근에는 30mm의 점용용으로 통일한 것 같다.

기관포의 위력으로 말하면 30mm이상의 것이 1발로서 확실한 파괴력이 있다.

특히 증장갑의 전차, 장갑차 등 지상목표를 공격할 때는 30mm포는 극히 커다란 위력을 발휘한다.

탄약의 중량이 크고, 유행탄수가 적은 것이 결점이지만 기관포의 위력은 목표까지의 거리가 멀어지면 급격히 저하함으로써 유효한 공대공, 공대지의 사정거리는 750m 이내로 돼 있으며, 이 거리 내에서의 사격 가능시간을 생각하면 탄수는 적어도 1발로써 효과가 있는 것이 좋을 것이라는 것이 영·불 등의 주장이다.

반대로 미국의 방식으로는 단시간에 유효한 공격을 하려면 발사 탄수를 증가하는 것이 유리하며, 20mm포를 다수 장비하여, 다량의 탄약을 짐중시키는 것이 유리하다고 생각하고 있다.

특히 발칸포와 같이, 6개의 포신을 회전시켜 매분 4,000~6,000발의 발사속도를 얻을 경우에는 탄환이 동일 개소에 명중하므로, 30mm포 보다도 커다란 파괴력을 갖는다는 특색이 있다.

기관포는 발사 속도의 커다란 항공용에서는 20mm나 30mm도 1분이 대량

80kg의 중량이 있으나, 그 6배의 위력이 있는 M-61발칸포는 중량 120kg정도이므로 훨씬 유리하다.

기관포 그 자체의 중량, 용적은 구경에 의하여 그다지 변하지 않지만 (대전차 공격전용의 30~37mm포면 중량은 커다라지지만) 탄약의 용적, 중량에는 대차가 있다.

전투기의 탄약 유행 수라고 하는 것은 의외로 적으며 30mm아덴/DEFA포에서는 1문당 100~150발이 한도이므로, 2문장비의 기체로서 250발전후, 4문장비에 서는 400발정도 탑재하면 딱 찬다.

이에 대하여 20mm기관포는 1문당 150~200발, 4문 장비기는 600발 이상을 가지고 있다.

20mm의 M-39를 2문 밖에 실지 않고 있는 F-5에는 1문당 285발을 탑재하고 있다.

이것이 M-61발칸포의 경우에는 F-104가 600-750발, 미사일 장비의 팽대한 F-4E는 약 650발을 유행할 수 있다.

F-105는 최대 1,029발이 들어간다.

반대로 유행 탄수의 적은 것은 소련기로서 구형의 미그 15는 37mm포탄이 40발, 23mm포탄은 2문이며 합계 160발 밖에 없다.

미그 -17도 같으며 유행 탄수가 적은 것과, 37mm포의 발사속도는 늦은 것이

문제되고 있으며, 최근에는 30mm포로 바뀌었다.

유행 탄수의 점으로 말하면 공대공의 전투를 위해서는 20mm포의 우위는 당연하다.

속도도 빠르므로 탄도 특성도 20mm포가 더 좋을 것이다.

구라파 제국은 대지공격을 주로 생각하여 대구경을 취택하며, 미국은 필요한 경우에는 로켓탄을 사용하려고 공대공 전투에 유리한 20mm포를 주력으로 하였다.

단지 미국에서도 30mm포의 파괴력의 큰 것을 고려하여 유의하고 있으며, F-14, F-15용에 25mm의 발칸포를 쓰고 싶어하는 결론에 이르고 있다.

## COIN용의 「미니건」

더욱 구경이 적은 것에는 12.7mm 이하의 기관총이 있다.

위력이 적고 시대에 뒤지긴 했으나 소구경으로서 유행 탄수가 많은 기관총은 지상공격의 대인용 소사(對人用掃射) 병기로서, 또한 가치가 있을 것이다.

무엇 보다도 유리한 것은 유행 탄수의 많은 점이다.

구형의 F-86을 보아도 F형은 12.7mm 총 6정으로 최대 1,800발, 이에 비하여 20mm의 M-39를 4문 장치한 H형은 힘

## ◇ 오늘의 항공병기와 그 전망 ◇

계 600발, M-24를 4문 장비한 K형은  
합계 528발 밖에 실지 못한다. 기왕에  
위력이 없었던 대 게릴라용의 소형  
의 군용기에서는 7.62mm의 기관총을  
사용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는 것이 최근  
의 경향이다.

7.62mm에서는 소이탄과 같은 특수탄  
을 사용할 수는 없으나 대인용에는 충분  
한 관철편, 살상력이 있으며, 똑 같은  
용적, 중량은 1정당 500~600발을 유행  
할 수 있으므로 Coin용의 기체에는 유  
리하다.

영국의 BAC 167 스트라이크 마스타  
등은 그와 같이 무장하고 있다.

똑 같은 7.62mm에도 미국이 베트남  
전으로 해서 개발한 「미니건」은 발칸형  
의 회전식 기총으로 발사속도가 극히 크  
며 제압력이나 파괴력이 높은 것이 특징  
이다.

현재 대 게릴라용의 장비로서는 세스  
나 A-37에서 헬리콥터에 이르기 까지  
「미니건」을 채용하는 경향에 있다.

이것을 뜻도 형식으로 한 「매니건·뫏  
토」는 어떠한 기체도 간단하게 Coin용  
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세계적인 주목  
을 끌고 있다.

「미니건」과 같은 Coin 공격용의 장비  
로서, 3연 총신으로 한 경량화(輕量化)  
발칸포는 헬리콥터용에 편리하다고 한

다. 이것은 중량이나 발사속도가 적당하  
므로 12.7mm이나 20mm의 중구경포도  
소형기나 헬리콥터로서 사용할 수 있다.

또 하나의 헬리콥터용 내지 공격 장비는  
40mm의 XM-129의 기탄투사기이다.

이것은 40mm의 파편탄을 마치 수류  
탄과 같이 주위에 뿌려서, 일정지역을  
제압하는 방법이다.

폭탄과 기관포의 중간에 위치한 공격  
병기로서 금후 주목을 끌게 될 것이다.

## 미 사 일

### ◇ 공대공·AAM ◇

적외선(赤外線)과 레이더 유도

AAM은 적외선 유도방식(Infrared  
Guidance System)과 레이더 유도방식  
(Radar Guided System)으로 대별된다.

적외선 방식은 항공기 엔진 등에서 방  
사되는 열선의 적외선 스펙트럼을 자동적  
으로 탐지하여 뒤따르는 방식은 발사하  
고 나서는 모기(母機)의 지령에는 일체  
다다르지 못한다.

즉 타력(他力)에 의한 것이며, 따라서  
이것을 Passive homing(뒤따르는) 방식  
이라고도 한다.

공대공(AAM)의 사이드와인이나 켈  
콘의 G.D.G., 소련의 애틀, 영국의 후

이아스트리크 레트롭, 일본의 AAM-1 등이 IR (Infra-red) 방식이다.

이에 대하여 레이더 방식은 목표에서 반사되어 오는 모기의 레이더 전파를 미사일 자신이 탐지하면서 목표에 접근하므로 Semiactive Homing이라고 한다.

이 부류에 속하는 것은 켈론 A, E, F 핵켈론, 스페로-Ⅲ, 불란서의 R 511 등이다.

그리고 IR, 세미 액티브 2의 형을 갖추고 있는 것에다가 소련의 알카리·앗슈, 탄두부를 환장(換裝)한 것 만으로 양용(兩用) 할 수 있는 R. 530(불란서)이 있다.

IR의 구조는 탄체(彈體) 앞 쪽에 텔레스코프가 항상 목표기의 적외선을 같은 각도에서 포착하여, 적외선 검지기(赤外線檢知器)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텔레스코프에는 자이로가 연동하여 목표기가 이동하여 적외선의 입사각(入射角)이 변화하면 거기 따라서 미사일의 진행방향을 컨트롤 한다.

그러나 목표기가 미사일에 근접하였다고 느껴질 때 연속적으로 급각도(急角度)로 이동했을 때 밀라와 자이로가 엉뚱한 반응을 일으켜 미사일이 탄체가 꺾어지거나 실속하는 경우가 있다.

이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미사일의 항법장치에는 연구가 가해져야 하며, 미사

일의 항법장치에는 연구가 거듭되어 수정장치가 변화각도를 갖게 되었다.

IR 방식의 AAM은 목표가 비행을 정지하지 않는 이상, 적외선을 집요하게 트레이스 해 가고 있다.

이때로는 요격기의 레이더에 포착된 목표기는 탈출의 찬스가 없는 것으로 보여진다.

목표기의 바로 뒤에서 발사되어, 목표기가 하등의 방어방법을 고려하지 않는 이상적인 케이스에서는, 명중확률은 100%에 가깝다.

### 만능이 아닌 IR방식

그러나 IR 미사일에는 IR 방식이 되므로 숙명적인 약점이 있으며, 또한 탄생 시에는 생각하지 않았던 작전행동 상의 애로나, 상대측이 안출한 방어방법 때문에 결코 「만능」이라고는 할 수 없다.

1958년 금문, 마조도를 위요한 항공전에서 처음으로 IR·AAM가 실전에 참가 하였다.

AAM를 보유한 F-86은 초기의 조우전에서는 중공 측의 MIG-15, 17을 손쉽게 격추하여, 절대적인 위력을 발휘했다.

그러나 중공 측도 곧 대응책을 강구하여 미사일이 발사된 것을 탐지하고서는 태양을 향하여 한 방을 쏘면 명중하기 직전에, 미사일 MIG-15가 태양을 잃어가

## ◇ 오늘의 항공병기와 그 전망 ◇

는 선에서 살짝 이탈한다.

재론할 필요없이 태양이 발하는 열선(赤外線)은 MIG기의 엔진과는 비교가 안 된다.

IR·AAM는 당연히 보다 커다란 열원을 향하여 날아간다.

물론 모기가 태양과의 선에서 떨어져서 발사하면 명중하지만 몇 번 이상 계속하면 미사일이 목표를 향하여 진행할지는 자국들이 최대의 기밀로 하고 있다.

각도의 문제는 IR·AAM는 숙명적인 약점이 있으며 정면에서 적을 조우하였을 때는 목표기의 진행방향에 열선이 없는 이상, 미사일을 발사하여도 효과가 없는 것은 당연하며, 바로 뒤에서 조준하는 것이 이상적인 위치이지만 언제나 목표가 적합한 위치에 있다고는 생각할 수 없다.

또한 모기를 목표의 후방으로 돌아가게 하는 것도 마하2 정도의 고속기의 경우, 일단 조우하고서는 어렵다.

상대 역시 필사적으로 도주할 것이며 반대로 공격해오는 쪽이 많기 때문이다.

이런 것들을 생각했을 때, 추방에서 발사할 수 있는 IR·AAM가 발달하여, 목표에 대한 각도는 차차로 넓어져 간다. 물론 어떤 AAM를 몇 도 각에서 발사하였는지는 명확하지 않으나, 사이드

와인더 보다, 후기에 개발된 켈콘이 광범위의 행동이 되는 것은 확실하다.

구름 속에서 IR 미사일이 불리한 것은 잘 알려져 있는 사실이다.

구름의 입자에 의하여 열선이 확산되어 미사일이 목표를 보기 어렵다.

추적된 측은 가까운 구름에 들어가면 한 번의 위기는 모면할 수 있다.

이런 자연조건 외에 근년 적극적인 IR 미사일이 열선을 구하고 있으므로 엔진의 열선에 대신하는 열원이 있으면 미사일은 그쪽으로 돌진한다.

이것이 즉 「오토리」 전법이며, 강렬한 섬광을 발하는 터미를 기외후방(機外後方)으로 방출하여, 미사일을 터미 쪽으로 밀어 제친다.

AAM에 있어서 폭격기는 즉 고양이가 앞에 쥐 격으로 밤이 되고 있었으나, 폭격기에는 이와 같은 터미를 적재하는 케이로드의 여유도 있으며, IR 미사일에 있어서 폭격기도 이전 처럼 쉬운 밤이 되진 않는다.

이와 같이 생각하면 IR·AAM는 사라지지 않을 뿐 차차 신 기종이 개발되고 있는 이유를 살펴 볼 필요가 있다.

우선, 미사일 구조가 간단하며, 단기도 싸다.

따라서 똑 같은 케이로드에 비하여 유효행탄수가 늘어난다.

그리고 레이더 유도방식 교유의 제한을 IR 방식을 받지 않기 때문이다.

### 레이더 유도의 특질

레이더의 유도는 AAM은 모기의 FCS(화기 관제장치)의 CW 레이더에서 발하는 비무가 목표에서 반사하여 모기로 돌아오는 레이더의 특성을 이용하고 있다.

미사일 자체의 레이더가 트러킹하는 것은 아니고, 반사빔을 트러킹하기 위해 세미·액티브라고 불리운다.

세미·액티브 AAM은 IR 방식의 약점을 매꾸기 위해 개발한 것인 만큼 IR·AAM의 결점을 카바하는 이점이 있다.

하나는 전천후성과 전방향성이며, 또 하나는 렌지·인포메이션이다.

적외선 탐지방식이 구름에 약한 것은 전술한 바도 있거니와, 세미·액티브는 천후에 좌우된 적이 없다.

그리고, 레이더에 탐지되는 방향, 즉 모기의 전방에 목표가 있기만 하면 정면이거나, 측면, 후면에 관계없으며, 공격찬스는 IR에 비하여 비약적으로 많아졌다.

세미·액티브에는 모기가 코스를 미리 설정해 주는 확실성이 있다.

즉 목표가 방향을 바꾼다 하더라도 모기의 파일롯트가 반사빔을 보게해주므로

이보다 확실한 사격은 없다고 한다.

그러나 유도해 줄 레이더·빔이 미사일 발사 후에 없어지면, 공격 측의 접근을 자기(自機)의 레이더에서 탐지한 목표기가 방해 전자파를 내서, 모기의 레이더가 맹목이 되어, 미사일 자신이 선택 능력이 없으므로 목표를 찾지 못한 미사일은 저리멸렬이 되고 만다.

이 방해 전자파공작, ECM(Electronic Counter Measures)가 레이더·호밍 AAM의 최대의 강적이다.

가령 목표기의 레이더를 피하여, 후방, 측방에서 접근해도 최근은 공격 측의 레이더 전파 그 자체에 감응하여, 레이더에 포착되고 경보장치가, 폭격기 뿐만 아니라, 전투기에도 보급되고 있다.

공격 측이 ECM로 방해되는 확율은 더욱 높아지고 있다.

공격 측의 레이더 주파수가 정확히 모르지만 FCS의 파장은, 각국마다 X밴드의 범위 내에서, 몇 개의 방해파(妨害波)를 내면, 어느 것이나 파장이 부딪쳐, FCM가 성공 한다.

### AAM의 약점

이와 같이 IR·세미액티브의 추미방식(追尾方式)에 의한 약점 외에, 공대공 미사일에 따르는 숙명적인 약점도 있다.

IR 방식은 그 첫째는 미사일의 운동

## ◇ 오늘의 항공병기와 그 전망 ◇

성이다.

AAM은 폭격기를 주목표로 하여 발달해 왔으나, 최근에는 전술폭격기의 집념이 후퇴하여 행동이 가벼운 전투폭격기로 변해가고 있다.

선회율이 좋은 전투폭격기는 적의 요격기와 조우하여도 그 속도와 선회성(旋回性)이 좋으므로 두려울 것이 없다.

비행기에 비하여 운동성이 열등한 미사일은 급격히 선회하면 절손(切損)되거나 실속, 또는 역방향(逆方向)으로 나르거나 추락하기도 한다.

이 때문에, AIM-9 사이드와인더에서 AIM 켈론, 마트라 R.511와 같은 IR·AAM도 탄체의 직경이 차차로 커져 다른 형태로 되었다.

명중되는 것이 전제인 통상탄과 달라 미사일은, 목표의 근처를 통과해도 폭발, 목표를 격추시킨다.

이 때문에 콘택트·휴즈 외에, 근접신관의 일종인 VT신관을 장치, 작열탄두(炸裂彈頭)에는 통상화약 뿐 아니라 아주 작은 작열물질이 수천개씩이나 꼭 들어 있어 상하 30도 정도의 각도에 확산시킨다.

핵 켈론은 또 다시 폭발범위를 넓히기 위해 고안된 것이며, 「맞지 않아도 떨어뜨린다」는 것은 미사일의 커다란 이점이다.

그러나 범위가 넓다 해도 한도가 있는 법이며, 마하 2의 전투기와 마하 3의 미사일이 정면에서 부딪치는 때의 상대속도는 마하 5이다. 0.5초가 달라지면 100m를 떨어지게 됨으로 타이밍이 극히 어렵다.

또한 AAM은 저공에서의 사용에 난점이 있다.

### AAM의 장래

미사일은 무어니 해도 쓰기가 불편한 것으로 생각된다.

사실상 베트남전에서는 미사일보다 기관총, 포의 경우가 명중율이 좋지 않느냐 하는 견해도 있으며 중동전쟁에서도 미사일이 보급되면서도 기관총, 포가 실전의 반 이상이 사용된 것으로 보아 짐작이 간다.

그러나 급후의 운용기는 특수한 목적을 갖는 것을 제외하고는 더욱 고속화한다.

공격의 기회는 적어질 뿐 근거리엔 접근하지 않으면 쓸 수 없는 기관총, 포보다는 미사일이 장래의 근간이 됨은 틀림없다.

따라서 AAM의 약점을 보강하는 연구가 계속되고 있으며, IR, 세미·액티브의 양자를 휴행(F-4E는 AIM-7E스패로-4발, AIM-4D 켈론 4발 또는 AIM-9

## ◇ 오늘의 항공병기와 그 천망 ◇

B사이드 와인더 4발)하며, 각기 장점을 살려, 약점을 보강하는 방법을 취하고 있다.

그리고, 한 발의 AAM가 양자를 겸용하여, 세미·액티브로서 목표에 근접하여, 최종단계에는 IR로 전환하는 방법이나 최종단계는 대(對)ECM장치를 가진 미사일 자신의 액티브·호밍에 의한 F-14, F-15용의 웨닉스가 개발되고 있다.

호밍·시스템 뿐 아니라 탄체의 개량도 운동성, 사정의 양면에서 진행되고 있다.

전자는 운동성을 극단으로 향상시켜, 사정은 짧으나 Dog Fight 성능이 있는 미사일의 요구에서, 미공군이 F-15용에 개발하고 있는 「Dog Fighter」(사정 300내저 3000m), 미해군의 F-14가 장비할 예정의 「키크·탄계획」 미사일 등이다.

반대로 적이 알아차리기 전에 발사할 수 있는 장거리 사정의 AAM는 미공군의 F-111을 위해 개발된 AIM-54A 웨닉스(사정 74km이상)이다.

### ◇ 공대지·(ASM) ◇

원거리에서 확실하게

AAM가 기종의 미사일화 하면, ASM의 특징으로서는 다음의 두가지가 있다.

첫째는 장거리 사정이다. 또 하나는 전략목표에 사용되는 예가 많다.

둘째는 핵이 사용되기 쉽다는 것이다. 폭격기에서 적지 상공까지 침입하여, 폭탄을 뿌리는 재래의 공격에는 대공포화, 요격기와의 교전하는 등의 위험이 크게 수반되고 있었다.

이 위험을 적게 하기 위해서 목표의 아주 먼 거리에서 폭탄을 「발사」하려고 하는 것이 ASM의 본래의 목적이다.

미사일은 폭탄에 비하여 케이로트거출 중량이 점유하는 비율이 극히 적다.

재언할 필요없이 함법장치나 연료에 중량을 뺏기므로 ASM를 야전에 사용해서는 효과가 적다. 한발이라도 다대한 영향을 주는 전략목표에 전문적으로 사용되는 것은 당연하며, 그렇게 하면 핵으로 장비해도 경제적으로도 유리하다.

ASM는 장거리를 날으기 위해서, 그 유도장치는 판성유도가 일반적이다.

미리 데이터를 받은 미사일은, 발사 후에는 속에 장치된 판성장치에 의하여 목표물에 향한다.

판성유도방식을 취하는 ASM는 미국의 AGM-28B, AGM-79A, 소련의 캄갈, 영국의 브루·스틸이 있다.

### ◇ 목표는 정확한 조준 ◇

ASM 자체의 약점은 중량이 커지는

◇ 오늘의 항공병기와 그 전망 ◇

것이며, 폭탄을 줄지어 놓으면, 탄두베 이로드가 적어진다.

특히 데이터를 미리 부여해 놓는 편입 유도가 커져 무거워지는 단점이 있다.

특히 ASM은 어떤 유도장치라도, 장거리 사정이면 그럴수록 콘트롤은 미묘해진다. 핵탄두 ASM은 이 결점을 카바하는 뜻을 가지고 있다.

ASM의 속도는 거의가 음속 전후이며 발견된 되면 요격기의 기총으로도 격추시킬 수 있다고 하며 조준의 부정확한 것도 있으며, 장거리의 구르칭·미사일의 위력은 그다지 높히 평가되지 않고 있다.

「정확한 조준」은, ASM의 최대 목적으로 되어 있으며, 갖가지 방법이 생각되고 있다.

그 하나는 TV유도, 탄두부분에 텔레비 카메라를 비치하고, 영상을 모건의 브라운관에 보내진다.

이 방법은 모기(母機)가 멀리 떠러져 있어도 미사일이 목적지에 근접함에 따라 조준은 보다 정확해진다.

스프렌즈 TV나, 야간공격용의 저공저행도용 카메라도 외국에서 개발에 착수하고 있으며, 장래 유망한 유도방식이라고 말할 수 있다.

— 박 대통령 문언록에서 —

· 지금 우리에게 가장 긴급하고도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는 바로 이 정신무장과 기술무장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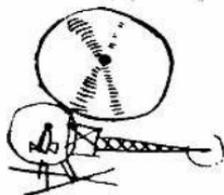
의욕을 가진 사람과 능력을 가진 사람이 필요할 것이다.

· 우리가 살고 있는 오늘의 세계는 변화의 시대이며, 발전의 시대이며, 동시에 경쟁의 시대이다.

· 우리는 희생되는 한이 있어도 다음 세대에는 훌륭한 유산을 물려주기 위해 우리가 가지고 있는 힘과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송두리째 바쳐야 한다.

· 국방을 위해서는 친선도 후방도 없다. 아니 오히려 적선이 건재하려면 후방이 더욱 건강하지 않으면 안 된다.

김  
정  
석



## 월남 항공전 분석

—국지전에서의 기종선정과 그 평가—

월남의 항공전은 두 가지로 대별할 수 있다.

즉 17도선 이남 지역에서의 항공전과 17도선 이북 월맹지역에 대한 소위 북쪽인 것이다.

17도선 이남의 월남지역에서의 작전은 어느 것이 우군인지 조차 식별해 내기 어려운 악천후와 지리적 조건 아래서 수행되고 있는 지상작전에 대한 긴밀한 협동작전으로 요약할 수 있다.

한편 월맹지역에 대한 작전은 한편으로는 핵전쟁으로서의 확대를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소련·중공의 동태를 감안하면서 일반 민간(월맹지역)의 피해를 최소한으로 줄이면서 군사적인 효과를 극대화시키지 않으면 안 될 전략공격

인 것이다.

월남전 수행에 있어서 그 어느 경우를 불문하고 연합군 측이 절대적으로 우세한 공중세력을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미그기에 의한 도전은 문제시 되고 있지 않으나 그들이 저대공 미사일을 포함한 각종 고성능 고사화기로 그들의 방공체계를 강화하고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 항공전에서 본 월남전

1961년부터 64년에 걸친 기간은 육군이나 공군 할 것 없이 모두가 게릴라전에 대한 전술 및 장비의 연구와 실험의

## ★ 월남 항공전 분석 ★

기간으로, 본질적으로는 완전한 지상권으로 공군의 임무가 그리 중요시 되지 않았었다.

그러나 전쟁의 가열로 전술공군의 건설·전개가 진행되었다.

1961년 11월, 미군함전 당시의 규모는 겨우 2백 여명의 미 공군 코맨드부대의 더글라스 B-26과 노스아메리칸 T-28 몇 대로 비엔 호아에 기지를 정했던 것이다.

그들은 코인전(COIN전. 경무장 정찰)을 수행하는 최초의 파일럿들로서 그들의 작전은 월남의 삼각주 지역에 한정된 것이었다.

이들은 또한 육군의 헬리콥터가 착륙하기 직전 대저공격이 주임무였다.

1962년 1월 탄손 누트에 TACS(전술항공관제 시스템)가 건설 되었다.

이것은 AOC(항공작전센터)와 ASJC(항공지원작전센터)로 구성되어, 전자는 탄손 누트에, 후자는 4개의 월남군단사령부 소재지에 각기 두게 되었다.

1964년부터 17도선 이북의 월맹지역에 대한 제트정찰을 비롯한 제반 공중 작전이 시작되어, 동년 6월 비을틴에 기지를 둔 F-100이 공산군의 배공진저에 대한 공격이 있었다.

이것이 동남 아시아에 있어서의 전술공격임무에 제트기가 사용된 최초의 작전으로 간주되고 있다.

8월 동킹만 사신을 제거로 해군기가 북부월맹 공산진저의 목표에 대하여 공격을 시작하였다.

1964년 초 미군기는 육군의 고정익기, 회전익기 등을 포함하여 약 660여대, 공군이 약 120대(그중 전투기는 30여대), 월남 공군이 약 220대로 작전임무를 수행했고, 동년 말에는 공군기의 수가 급증하여 당시의 배로 늘어나게 되었다.

1964년까지는 산발적인 게릴라전에 대한 지상전투의 지원정도로써 그 작전체제를 이룩하였으나, 1965년부터 월남전이 본격화 되기 시작함에 따라 그 작전체제의 변화가 시작되었다.

따라서 1961년부터 64년까지를 제1기로 한다면, 이후부터 1968년 11월 1일의 북복정지까지를 제 2기라 할 수 있는데, 특히 제 2기에 속하는 기간 중에 특히 주목할 만한 많은 전례가 이룩되었다.

### 작 전 기 종

상술한 바와 같이 월남지역 내의 대게릴라전과 월맹 공산지역에 대한 전략공격은 그 양상을 달리 하기 때문에 참가기종도 다양하며, 또 내륙교통이 불편하고 이들이 베트콩에 의해 차단, 두절되기 일수여서 전술수종이 불가피했고, 이

러한 작전지역 수송에 항공기가 대폭적으로 이용되어, 그 참가기종의 복잡성을 더하게 되었다.

정찰기를 비롯하여 다용도기, 전략수송기, 헬리콥터 등을 포함하여 육·해·공군 소속 항공기 약 80여종이 작전에 투입되었다.

특히 이의 증강과정에 있어서는 신형기의 생산·개발에 의하지 않고, 기존 항공기와 당시 이미 생산단계에 있던 항공기를 용도에 따라 개량하여 사용했기 때문에 신형에서부터 구형에 이르기까지 실로 잡다하기 이를테 없다.

이중 월남전 수행에 적합한 A-1 스카이 배이다는 비록 구식기 이기는 하지만 현재 그 가치로 보아 그 재생산의 경향을 보이고 있는 것 같다.

월남전에 참가하고 있는 기종은 다음과 같다.

◎ 전투기(8종)

F-4, F-5, F-8, F-100, F-102, F-104, F-105, F-111

◎ 공격기(8종)

A-1, A-3, A-4, A-6, A-7, A-37 AC-47, AC-130

◎ 폭격기(3종)

B-26, B-52, B-57

◎ 정찰·감시·경계 기타 기종(20종)

RF-4, RF-8, RF-101, RA-3, RA-5C, RB-57, RB-66, SR-71, O-1, O-2, OV-1, OV-10, E-1, E-2, EF-10, EA-1, EA-3, E-A6, EC-121, EC-135

◎ 수송·급유기(15종)

C-1, C-2, C-7, C-9, C-47, C-118, C-123, C-129, C-133, C-135, C-140, C-141, KA-3, KC-130, KC-135

◎ 다용도기 및 기타 기종(12종)

U-1, U-3, U-6, U-8, U-10, UH-16, HC-130 SP-5, P-2, P-3, T-28, T-39,

◎ 헬리콥터(13종)

OH-6, OH-13, UH-1, UH-2, UH-34, UH-43, CH-37, CH-46, CH-47, CH-53, CH-54, HH-3 HH-43

총 79종

작 전 부 대

작전부대는 제7공군, 제13공군, 제7함대를 주력으로 일부 전략공군 부대와 해병대 및 육군의 항공부대가 있다.

제7공군(사령부 탄손 누트)은 당초 제13공군에 속해 있던 제2항공사단이 1966년 3월 증편되어 태평양 공군에 직속하

## ★ 월남 항공전 분석 ★

고, 그 사령관은 MACV(재월남군사원 주사령부)와 공군담당부사령관을 겸하고 월남에서의 작전실시와 작전중에 있는 미군기 뿐만 아니라 연합군측 항공기에 대한 일체의 통제를 가하고 있다.

제7공군에는 두 개의 작전센터가 있다.

하나는 TACC(Tactical Air Control Center)로 월남에 있는 모든 항공기의 비행을 모니터링하며, 전술항공작전실시에 관하여 모든 통제 및 조종을 하고 있다.

다른 하나는 TOC(Tactical Operation Center)로 월맹상공에 대한 공군항공작전의 실시 및 해군의 북쪽협력과 그 조종을 담당하고 있다.

제7공군의 지휘하에 있는 부대로서는 전술전투 5개 비행단 및 전술정찰비행단, 특수전비행단, 전술지원비행대 등이 있다.

제13공군(사령부 비올빈 클라크 기지)은 전술전투기 3개 비행단(F-105, F-4)을 주력으로 하는 약 300여대를 태국의 7개 기지에 분산, 전개시키고 월맹공격 및 일부 라오스 내의 호지명 통로에 대한 공산군 남하 저지·소탕작전에 참가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 작전도 전술한 바 제7공군의 통제하에 들어간다.

제7, 13공군을 주력으로 하고, 전략

공군, 수송공군 등의 작전기를 포함하여 월남전에 참가한 미 공군기는 약 1,500여대로 추산된다.

해군의 항공작전 참가 부대로서는 제7함대 소속의 제77기동부대(TF-77)로서 공격용 항모 5척, 함재기 약 480여대를 보유하고 있다.

5척의 항모 중 3척은 항시 등킹만의 북위 17도선상에 머물러 북쪽에 참가하고 있다(이선을 양키 스테이션이라 한다).

또한 월남 해역을 1척이 배속되어 있으나(락시 스테이션) 1966년 8월 이래 배치가 폐지되었다.

양키·스테이션에서의 항모는 약 한 달을 주기로 그 배치를 바꾸며, 비올빈의 미해군 기지로 입부는 일본에 회항한다.

이 공격항모에는 함재기가 약 70~100여대가 탑재되어 있다.

예를 들어 원자력항공모함 엔터플라이즈호(60,000톤)를 본다면, 전투비행대(F-4) 2개 대대, 공격비행대(각대 A-4 2개 대대 및 A-6 1개 대대) 제 3개 대대, 정찰공격비행대(RA-5C) 1개 대대, 조기경보대(E-2) 1개 대대 및 헬리콥터 UH-2 약 3대, 함재수송기 C-2가 그것이다.

또한 에섹스급의 공격항모(33,000톤)는 A-6A 공격기를 빼고, F-4 대신 F-8D, 또는 E, RA-5C 대신 RF-8G, E-2A 대신 E-1B를 탑재하고 있다.

이들 기종들은 월남전이 시작된 이래  
 꽤 다양한 변화를 보이고 있으며, 당초  
 A-1과 A-3이 주력이었던 공격대가 점차  
 A-7 콜세어 II와 A-6 인터루드로 되었  
 다.

현재 미국방예산의 삭감과 더불어 이  
 들 공격항공모함의 성격과 그 의의 및  
 필요성에 대해 많은 논의가 일고 있다.

공격항모는 세계 각지 해상에 배치되  
 어 그 전략 핵 공격력으로써 억제전략에  
 대단히 중요한 지위를 차지하고 있는 바,  
 미사일 특히 포라리스 미사일 체제가 완  
 비됨에 따라 그 전략적 가치가 상대적으로  
 감소되어, 월남전에서 기동성 있는  
 「떠오르는 항공기지」로서의 새로운 성격  
 부여와 함께 그 의의가 부각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해병대는 제 1, 3 양 해병사단이 월남  
 북부지역에서 작전을 하고 있는데, 이것  
 을 지원하기 위해서 제1해병 항공단이  
 파견되어 있다.

이 해병항공단은 2개 항공대로 구성되  
 어 있다.

전투기(F-4, F-8) 4개 비행대,

공격기(A-4, A-6) 5개 비행대를 기  
 간으로 하여 정찰기, 수송기 및 헬리콥  
 터 11개 비행대를 합하여 약 400여대가  
 이 항공단에 소속하고 있다.

이는 또한 해병사단의 작전지원 외에

육군의 지상작전지원임무도 아울러 수행  
 하며, 북쪽에도 참가하고 있다.

육군은 제1항공 수송여단을 주축으로  
 제1기병사단(공수기동) 및 각 사단 고유  
 의, 주로 헬리콥터로 이루어진 약 2,000  
 여대를 보유하고 있다.

월남에 있어서는 헬리콥터가 지상의  
 트럭에 대신하여 모든 주요 작전임무를  
 수행하고 있어, 마치 지상부대의 발과  
 같은 역할을 하고 있다.

육군기로서는 고정익기종 정찰기 OV-  
 1 보호크와 수송기 C-7 카티브가 있다.

OV-1은 1962년 중반 월남에 배속되어  
 제73항공 수색중대(기지 봉타우)에 편입  
 되었으며, 제1기갑사단 고유의 보유기  
 를 합하여 약 30대가 있다.

MACV의 J-2의 정보수집반에서 운용  
 하여 눈부신 성과를 거두고 있기도 하다.

이는 또한 월남전이 본격화하기 이전  
 부터 투입되어 피난민 수송을 비롯하여  
 미곡과 물자의 수송을 도맡아 왔으며,  
 1966년 4월 공군과 협정에 의해, 현재는  
 공군기로 전지수송에 쓰이고 있다.

### 항공지원 작전

케릴라전이란 일정한 전장이 없는 싸  
 움으로 저을 일일이 수색하여, 그 소탕

★ 월남 항공전 분석 ★

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프랑스는 일찍 인지전쟁 당시 트럭으로 작전을 수행하다 공산군의 퇴각로 차단과 교란, 공격으로 전멸한 적이 많았다.

따라서 프랑스는 이러한 교훈을 되살려, 아마 세계 최초로, 알제리아 전쟁에서는 대부분 헬리콥터에 의해 작전을 수행하여 큰 전적을 올렸다.

그러나 이와 대조적으로, 내국은 월남전 참전 당초부터 하늘을 작전기지로 이용하였다.

기밀라전과 수색·정찰

월남전에 있어서, 그 정보수집의 대부분이 항공정찰에 의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이 이외의 방법은, 본래 상황이 착잡한데다가 입수한 정보가 극히 확률이 낮고 시간적으로도 뒤진 경우가 많아 판단을 흐리게 하는 경우가 많음을 부정할 수 없다.

그렇다고 하여 항공정찰이 용이한 것만은 아니다.

우선 지형이 복잡한데다 정글이 많고 전기·우기로 나뉘어져 있는 일기는 악천후인 경우가 많아 실제비행에 애를 먹

고 있다.

미국은 공군 최대의 정찰부대로 제460전술정찰비행단 사령부를 탄슨 뉴트기지에 두고 있다.

6개 비행대로 형성되어 있으며 보유기종도 9종류에 이른다.

주로 정찰임무는 RF-4C(2개 비행대)와 RF-101(1개 비행대)에 의하여 비교적 고고도에서 정찰임무를 수행하고 있다.

주간에는 주로 RF-101이 야간에는 RF-4C가 사용되고 있으며, E-47(3개 비행대) 외에 적외선 정찰을 위해 RB-57(1개 파견대), 목측정찰에 RB-66, A-1 등이 있다.

이제까지 대기밀라전 수행에 있어서 공군이 입수한 정보가 실제 작전부대에 이르기까지는 시간적으로나 계통적으로나 지연되어, 작전에 실효성을 잃는 수가 많음에 비추어, 육군은 그 자체로 O-101U, OV-1을 운용하고 있다.

이 OV-1은 1964년부터 특수 레이더가 붙은 B형 및 적외선 정찰용의 C형이 개발되어 제73항공수색중대에 소속하고 있다.

이의 운용은 MACV J-2(제2부)의 정보수집반의 통제를 받고 있으며, 가동률 84%라는 수준을 향시 유지하고 있다.

이 OV-1은 적외선 정찰이 가능하여

야간에도 작전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즉시 레이다를 장착한 B형의 출현으로 베트남들에게는 가장 무서운 비행기로 알려지고 있으며, 이를 격추시키는데 상급 5만 피아스타(약 340발)를 결고 있다.

### FAC에 의한 수색

월남전과 같은 특수전에 있어서는, 전술공군의 고속 또는 대형기에 의한 정찰보다는 대 기릴라전에 있어서 FAC의 역할이 더욱 크다.

따라서 월남의 4개 성을 214개의 목적지정찰구역으로 나누고 이를 FAC의 책임 작전구역으로 할당하고 있다.

FAC는 O-1기를 타고 담당구역을 항상 비행하면서 감시하고 있다.

### 지상진과 FAC의 역할

공작합동작전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육군과 공군이 자기 독립되어 각자대로의 작전체제를 갖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지상진류지원단의 지원 요청과 비행활동 및 작전이 일체되기가 꼭 어려운 경우가 많다.

월남에 있어서의 모든 전술항공지원

통제는 제7공군사령부가 관장하고 있으며 그 예하에 TACC가 설치 운용되고 있다.

여기에 DASC(Direct Air Support Center)가 소속하며, 다낭, 비엔호아, 플레이쿠, 니아트랑, 칸토 등 전국 5개소에 설치되어 있다.

여기에 육군과 공군에서 자기 계획 담당장교를 파견하고 있다.

월남에서의 근접항공지원 및 저지작전은 민간피해를 최대한으로 막기 위해 극히 제한되고 있다.

따라서 교전중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격목표가 선정되었다해도 꼭 해당지역 성장의 승인을 얻어야만 작전을 실시할 수 있게 되어 있다.

공격은 계획목표에 대한 것과 긴급목표에 대한 것이 있다.

대개의 경우 그 비율이 반 반인 것이 보통이나, 실제적으로는 긴급목표의 경우가 많아 약 전체목표의 6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계획목표의 경우,

육군부대로부터 요청이 있으면 FAC에 의해 이것이 공군에 인계되어 작전 계획으로서 매일의 비행계획에 포함된다.

긴급목표의 경우,

요청에 의하여 DASC는 TACC에 대해 지상에서 긴급대기중에 있는 항공기

## ★ 월남 항공전 분석 ★

의 출격을 지시하고, 작전임무를 부여한다.

FAC가 목표를 발견하면 우선 성장에게 승인을 요청하고, 해당지역에서 최근에 있는 DASC에 연락하여, 성장으로부터의 승인과 함께 DASC는 즉각 목표 공격을 위한 작전을 지시하게 된다.

FAC는 항상 공격 현태와 무전연락을 취하여 공격목표 상공으로 유도하고, 이를 2.75밀리 로켓트 또는 연막산호탄으로 알려 주게 된다.

미 공군은 월남의 TACC를 개량하여 미 공수성을 부여하고, 세계 어느 지역에서 분쟁이 일어나는 즉시 작전을 전개하여 전술공군의 지휘통제가 가능하도록 407L 계획으로 그 개발을 진행시키고 있다.

또한 장차 미 본토방공의 AWACS와 같은 방법으로 공중에서의 지휘통제를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 케산 공방전과 B-52

1968년 1월부터 4월에 걸쳐 계속되었던 케산 공방전은 월남에서의 지상전 중 최대의 격전이었다.

당시 케산을 방어하고 있던 약 5,000여의 해병대 병력이 약 2개 사단을 상회하

는 월맹군에 완전 포위되어 맹공격을 받아, 제2의 다옌·비엔푸(1955년 프랑스군이 월맹군에 완전 포위되어 '전멸당한 격전'이라고 불리울 정도로 치열하였다.

이때, 해군 및 해병대는 F-4, A-4, A-6를, 공군은 F-4, F-100, B-52, B-57로,

해군은 출격 5,337회에 7,941톤 해병대 6,873회에 13,724톤의 폭탄을 투하했고,

공군은 12,239회에 73,765톤의 폭탄을 투하했다.

공군이 투하한 73,765톤의 폭탄중 59,542톤이 B-52D에 의해 투하되었다.

당시 케산 지구는 고도 약 600~1,200 피트 사이로 구름이 짙차 있었는데다가, 비행장 마저 격의 공격으로 사용이 불가능하게 되었던 것이다.

B-52D는 1월 21일부터 3월 31일까지 463회의 미션을 수행하여 59,542톤이란 거대한 양의 폭탄세례를 퍼부었던 것이다.

오키나와 및 태국의 기지에서 4대 또는 13대로 편대를 짜서 하루 평균 4회 출격하였던 것이다.

폭격은 보통 고도 20,000 내지 30,000 피트에서 레이다 조준에 의하여 투하하는데, 대인용으로 250파운드 폭탄이, 동군, 터널 및 기타 위장된 진지에 대해

서는 500파운드 및 750파운드의 폭탄이 투하되었다.

월남에서의 공수작전

월남의 비행장

전투가 한참 치열해 지고 있을 당시 월남에서는 미 육·해·공군기에 월남공군기 약 300대, 소수의 호주항공기 및 대한민국 육군기를 합하여 약 4,500여대가 작전에 투입되었다.

이들이 사용한 기지로는 후에, 다낭, 휴라이, 퀴논, 캄란, 탄손 누트, 봉타우, 비엔호아 등지의 활주로였고, 진술수송기가 작륙할 수 있는 비행장 만도 135개 소나 되었고, 정글을 불도우저로 밀어 신설한 비행장이 300여개소에 이르렀다.

월남의 비행장들은 당초 제트기가 작륙할 수 있는 데로서는 탄손 누트, 다낭, 비엔호아의 3개처뿐이었고, 그나마도 베트콩의 공격에 대해 전혀 무방비 상태였다.

1965년 비엔호아 기지가 베트콩의 박격포 공격을 받아 순식간에 28대의 항공기를 잃은 적이 있다.

(비엔호아에서는 이와 경우는 좀 다르지만, 지상에서 작업중 폭탄 사고로 항공기 40여대가 고스란히 녹아 버렸다.

월남의 특징 중의 하나는 지상교통 연락망이 공산 게릴라들에 의해 수시로 단절되기 때문에, 육상수송은 거의 없고 공중수송의 방편으로 모든 인원, 물자의 수송이 행해지고 있는 것이다.

공수의 비율은 전체 수송량의 75%를 점하고 있는 것이다.

케산 전투가 계속되고 있을 당시 적에게 완전 포위되어 고립된 아군에게 보급품 수송을 위해 C-7, C-123, C-130, 등이 사용되었다.

수송기에 의한 작전이 실시되기 전 진 폭기들이 해당 구역을 말끔히 쓸어버린 다음, 안전히 작륙하여 보급품을 내려 놓고 요수리품 및 부상자를 신고 귀환하게 되는데, 소요시간은 3분에 불과하였다.

이나마도 전투가 가열됨에 따라 불가능하여, 당해지역 상공을 초저공으로 비행하면서 낙하산으로 보급품을 투하하였다.

1월 22일부터 4월 7일까지 공군이 이런 방법으로 수송, 투하한 보급품 만도 12,437톤에 달하며 이중 약 65%가 작륙 불가능으로 인한 것이었다.

★ 월남 항공전 분석 ★

작전중 미군의 손실은 공군의 C-130 1대, C-123 3대 해병대의 C-130 1대였다.

대월맹 항공작전

북폭이 처음으로 실시되기는 1964년 8월 통킹만 사건의 보복조치로 이루어졌으나,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은 1965년 2월 7일, 항모 레인저 호와 헬콥크 및 코랄시호에서 발진한 A-4, F-8 등 49대에 의한 동호이 공격에서부터 일 것이다.

연이어 8일에 미 공군의 F-100 4대와 월남공군기 A-1 2대가 각각 동호이와 쩐린에 출격하였다.

두 말할 필요도 없이, 북폭의 목적은 공산세력의 확대와 그 침투남하의 저지에 있는 것으로, 당시 해로를 통하여 보급품을 원조하고 있던 소련이나 육로를 이용하는 중국의 자원을 감안하여 북폭이 실시되었던 것이다.

당시 미 통합참모본부는 공격계획의 기초로서 작전목표를 427개소로 정하고 그중 국방장관이 폭격을 권고한 것이 359개소, 다시 이중에서 국방장관이 승인한 즉, 폭격을 허가한 목표가 302개소였다고 보도된 바 있다.

이처럼 결정된 작전목표는 하와이에

있는 태평양공군사령부에서 최종 선정되어 육·해군에 배당되어 공격이 이루어졌던 것이다.

공격에 참가한 부대로는 태국에 기지를 두고 있는 제13공군, 통킹만 양키·스테이션에 배치되어 있는 제7함대의 제77기동부대를 주력으로 한 것이었다.

또한 그 공격진입루우트를 살펴보면, 첫째는 태국으로부터 라오스를 통과하여 월맹의 북서부 깊숙히 진입하고, 다시 라오스의 국경선 상에서 공중급유를 받아 돌아오는 경우(소요시간 3시간 반)

둘째는 태국으로부터 동쪽으로 곧장 비행하여 일차 통킹만에서 공중급유를 받고, 하노이·하이퐁 지구 등으로 진입하는 경우(왕복 소요시간 3시간)

셋째는 다낭, 캄란 등지에서 발진하여 통킹만 상에서 공중급유를 받은 다음 월맹의 동·남부를 공격하고 돌아오는 경우로서 소요시간 2시간 반이 걸린다.

모두 왕복 2회에 걸쳐 공중급유를 받게 된다.

이들 북폭을 위한 경계 관계에 공군의 우둔 기지에서 EC-121이, 해군은 탐재기 E-2 및 다낭 기지에서 EC-121이 담당하고 있다.

이들은 공산군의 대공포화를 피하여 해안에 연하여 날으면서 레이더에 의해 적의 저대공 미사일기지와 그 위치, 요

적 임무를 떠고 도전해 오는 미그기들의 동태와 목표물예의 유도 공격, 추락기의 구출작전에도 나서고 있다.

### 월맹의 방공망

월맹은 현재 소련으로부터 공급받은 지대공 미사일 SA-2에 의한 방공망을 띄고 있다.

출격 전투기에 대한 이들의 피해는 당초 5~6%까지 상승되었으나 미기측의 전술과 ECM의 완비에 의하여 2% 이하로 감소되었다.

숙련된 조종사들은 미사일의 발사를 보고, 즉각 기동하여 이를 완전히 피할 수 있다고 한다.

당초 미군기들은 ECM의 장비가 없었으나, 그동안 끊임없는 개량 개발로 어느 전투기에도 간단한 경보장치가 되어 있다고 한다.

한편 공격편대들은 ECM을 완전히 장비한 RB-66이나 F-105를 패스파이더(선도기)로 하여, 4대에 1대 꼴로 동반시키는 방법을 취하는 수가 있다고 한다.

해군의 A-6은 고도의 전자장비를 갖추고 있어 특히 야간 악천후에 있어서의 공격에 적합하다.

현재 ECM은 북쪽의 산물로서 그 가

치와 의의가 극히 증시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전자장비나 레이더에 의한 피격률의 감소와 함께 아직까지 문제점으로 남아 있는 것은 대공포화의 피해를 어떻게 감소시키느냐 하는 것이다.

따라서 방공은 각종 병기와의 완전 조합에 의한 총화적인 체계확립으로 이루어야 할 것이다.

### 북쪽의 효과

북쪽의 결과 월맹이 입은 피해는 1967년 말까지

(1) 파괴된 고정목표 약 1,900—

이중 교량 약 50,

주요철도기지, 석유저유시설, 발전소 약 50

(2) 차량 약 4,100량

(3) 추정 약 7,900척

(4) 철도차량 약 1,400량

(5) 주발진 능력 85%

(6) 수리 및 방공피해인원 50만인이라고 외신이 보도하고 있다.

### 월남전과 금후의 기종선정 문제

여기에 대한 문제로 일찌기 외지에 실

★ 월남 항공전 분석 ★

턴바 있는 제2 항공사단 부단장(작전담당) 조지·B·시무러 준장의 의견을 참고로 인용한다.

이것이 장차 미국 항공기의 개발 경향과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라고 생각함은 지나친 속단에 속하는 것이지만, 그러나 월남전을 실제 경험한 그의 의견은 역 중요한 뜻을 내포하고 있는 것으로 믿는다.

1. 단지 1기종의 만능 전술기를 제작하는 것은 실제적이 못 될 뿐만 아니라 비경제적이다.

적어도 1970년대의 공군력을 정예화 하는에는 4종류의 기종이 필요하다.

또 모든 이것은 쌍발이 아니면 안 될 것이다.

2. 4종류의 기종이라 함은

- (1) 중장비를 장착할 수 있는 주간 전폭기

쌍발 제트기로서 장비 전광을 장착하고도 아음속을 낼 수 있어야 한다.

또한 내공화기인 대하여 그 취약성을 배제하기 위하여 주요 콤포넌트 및 부분을 엔진 상부에 모으고 셀프·시일링·탱크를 가질 것.

발칸포를 장착하고 F-105형의 급강하 성능과 개량 레저 제기를 가질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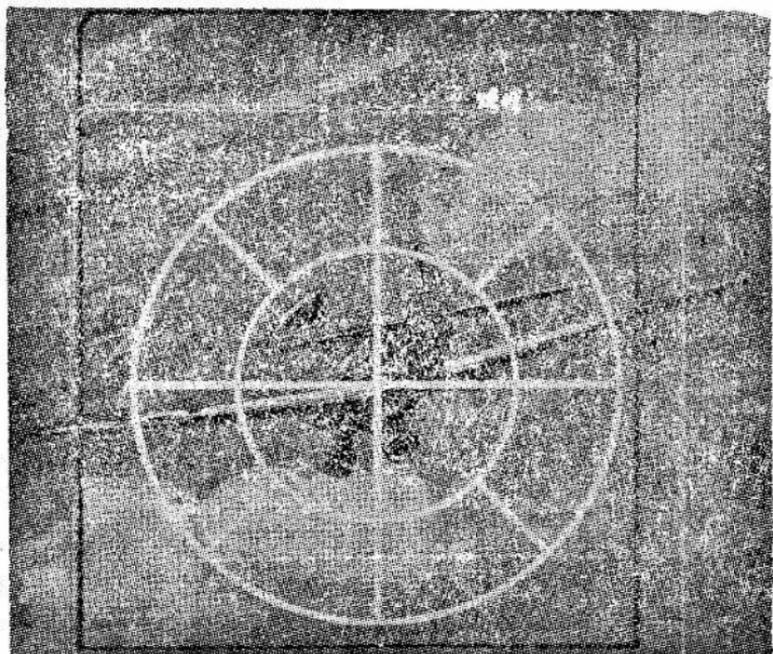
높은 고속과 난시간의 초음속능력을 갖되 전천후성은 필요없다.

- (2) 복잡한 전자장비를 갖춘 전천후 전술 폭격기
- (3) 고성능 제공 전투기
- (4) FAC용의 COIN기(경무장 정찰기)

쌍발로서 엔진의 신뢰도가 높고, 고속의 것으로 약간의 화력을 보유할 수 있을 것.

박 대통령 문언록에서

자유는, 자의나 망종이 아니며, 자율이요 자치이다. 진정한 민족의 자유를 위하여 개인은 봉사해야 한다. 이 봉사의 정신은 민족에 대한 뜨거운 사랑, 민주주의와 자유에 대한 사랑없이는 발휘될 수 없다.



## 조준(照準)·공격시스템

### 이 종 덕

제2차 세계대전 때는 화기(火器)라고 하면, 대소 각종 구경(各種口徑)의 기관총(20mm. 이상의 대구경의 것은 기관포라고 부르고 있다)만이 그 전부이며, 대전 말기에 등장한 로켓탄 등은 탑재 병기로서의 용법도 정해지지 않은 채 끝나고 말았다.

이것은 로켓탄이 기관총보다 파괴력이 커지며, 폭탄보다 탄도의 명중정도

가 비교적 좋으므로 대지목표 또는 대함선 공격 등에 효과적인 특성을 갖고 양자의 보조적 병기로써 이용되어 온 것에 불과하다.

또한 사정 조준기만 하더라도 OPL(광학식 전영조준기) 정도의 고정기총용이 주역이며, 선회기총에 있어서는 재래식과 기본적으로는 동일한 조성(照星) 조

문(照門)형식이 널리 이용되었었다.

특히 단순한 감각으로서 Me210/410이나 B-17에서 사용(試用)되어 B-29에서 취급된 원격조작방식(遠隔操作方式)의 선회기총용 조준기가 빛내고 있으며 B-36이후의 폭격기의 병기로서 완성화한 정도의 것이다.

이 「리모콘」 조준기는 제 2차 세계대전 후 고속화의 길을 걷는 군용기에 있어서 유해저항의 감소와, 고고도비행 때 문에의 기밀실(氣密室)의 구성을 용이하게 한 점에서 특별한 가치가 있다.

이것을 실용화 하기까지 이끈 보잉의 공적은 크게 평가해서 좋을 것이다.

그러나 이것도 살펴보면 OPL과 같은 전기형상식의 고정기총용 조준기를 선회기총용으로 했을 뿐의 것이며, 거기까지의 조성(照星) 조문(照門)이나 조종석에서 길게 내다보는 조준기에 비하면 훨씬 발전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더욱 조준기라고 하는 것은 조준경(照準鏡)의 광학축(光學軸)과 멀리 떨어진 기총군(機銃群)의 사축을 일치시킨체 보다 빠른 레스폰스로 동작시키는 메카니즘으로서 이 특성은 현재의 레이더나 레이자를 사용하여 조준 사격하는 방식에도 거의 그대로 답습되고 있는 까닭에 당시에 있어서 기술적 가치는 크다고 볼 수 있다.

암야(暗夜)나 구름 위에서의 폭격에 녹트비존이나 레이더가 사용되기 시작할 때 전말기에는 고정기총용의 사격조준기로서도, 레이더에 의한 목표산정(目標算定)이 행해지기 시작해 실패로서 모스카트-NF. 36이나 He219A-5/R1 등의 야간전투기가 있다.

어느것이나 비교적 쓰기 쉬운 장파장(長波長)의 레이더 펄스를 사용한 것으로는 분해능력이 약으며, 장단파의 전파로서는 큰 전력이 나오지 않으므로 유효거리가 적으므로 지상에서의 유도나 서치라이트의 지원을 받아서, 침입한 적기를 격추하는 것이 고작이라고 한다.

태평양 전역(戰域)에서 P-61 부락크 위드가 야간에 해상에서 일본의 비행기를 공격한 실례도 있으나 확실히 격추한 것이 어느정도 있었는지는 아직 확실치 않다.

물론 목표의 포착에는 효과가 있으며 근거리까지 접근하면, 일본기의 편대는 아방측 간의 공중접촉을 피하기 위해서 편대의 등을 켜고 있었으므로 포화발명 중시카기는 용의하였을 것이다.

그러나 기술적으로 보아 당시의 탑재 레이더 조준기는 작금의 FCS(화기관제장치)에 포함되어 있는 레이더 시스템에 비교할 것은 못되었다.

여하튼 부족한 점이 많기는 하였으나

제2차대전 중의 말기에 있어서, 레이단에 의한 조준같은 것으로서 기총을 쏘며, 폭격목표를 노린 것 등, 원격조작에 의한 동력총파가 실용하게 된 것. 기총과 폭탄, 어뢰 등 외에, 로켓탄이 기재병기(機載兵器)로써 실전에 등장하고 있었던 것은 사실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오랫동안 기재화기와 레이더의 발달은 한편으로는 각기 독주하며 다른 쪽으로는 융합병기로서 변천을 계속했다.

## 근대적 FCS의 등장

제2차대전 중의 전자병기는 모든 것에 대하여 진공관에 의지하고 있었으나 그 래도 메탈·주부나 GT관, 육탄·주부 그리고 미니쥬아관까지 개발되었다.

전후의 1952년, 트랜지스터가 실용기에 들어가서는 에렉트리닉스·메이커를 업선하여 기재용 전자기기(機載用電子機器)의 소형 경량화를 급속히 추진하였다.

물론, 소형 경량화하여야만 무조건 좋다는 것은 아니고, 소형화 함으로써 회로소자(回路素子)의 집적도를 높혀, 그 결과로서 군용기에 인간 이외의 두뇌를 탑재하려고 하는 것이 목적이다.

최근 유행하는 IC나, 또한 C를 수개에서 수십 개를 포함시킨 LSI를 남게

하고 나아가서 집적도(集積度)를 트랜지스터에 비하여 수천배로 비약시켰다.

소릿트·스테인트(고체電子素子)에 의하여, 기재전자장치는 팽대(膨大)한, 용적, 중량을 갖지 않고서도, 가장 신불한 사격용 레이더 이외에 목표에 관한 정보를 계산 처리하여, 화기에 발사의 지령을 하기 위해서 컴퓨터 까지도 포함하게 되어 전투의 형태도 바꾸어졌음을 알 수 있다.

에렉트리닉스·터바이스의 폭발적인 발전은 로켓탄의 속에다 집어넣어 명중정도(命中精度)를 높혀서 위력을 결정적으로 할 것을 성립시켜 여기에 유도미사일이 탄생하게 된다.

이 유도방식에는 코멘드·가이덴스, 빔·라이팅, 호밍의 세 가지 방법이 있으나, 각기 목적에 따라서 AAM, ASM로 사용되며, 또한 SAM과 SSA를 포함하여, 현재의 군비의 주역으로서의 자리를 차지하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미사일 특히 항공기 탑재용의 미사일에는 많은 결점도 없지 않다.

단순히 값이 비싸다는 것 뿐 아니라 전투의 조건에 따라서 그 사용이나 효과에 많은 제약을 받는 것은 사실이다.

특히 국지적인 성질을 띠고 있는 작금의 전쟁에서는 재래형의 기총이나 폭탄

이 널리 사용되는 경향이 있다고 할 수 있다.

호밍 · 미사일과 같은 비상체자선에 접촉(接敵)에 필요한 장치를 구비하고 있는 것은 발사의 타이밍만 잘 마치면, 목적을 달성할 수 있으나 그 이외의 미사일(코멘드방식이나 빔 · 라이팅, 거기에 세미 · 액티브 · 호밍의 경우를 포함)이나 기총, 폭탄(베이팜 등을 포함)의 화력을 효과적으로 적의 심장부에 때리기 위해서는, 목표의 포착에서 타격을 가하기 까지, 일련의 동작을 정확히 처리하는 제어장치가 필요하다.

이와같이 해서 근대적인 FCS의 등장 이 필연적으로 요구되어 왔다.

### 전천 후에서도 패속

FCS를 넓은 뜻에서 말하면 스카이스파와 같은 대공화기나 테리아와 같은 함대공 미사일의 관제 시스템으로 포함되나, 여기에서는 군용기의 주로 소형 고정익기(小型固定翼機)의 공대공, 공대지의 기총, 로켓, 폭탄과 같은 공격관제장치(攻擊管制裝置)에 한정된다.

이 경우 공격해야 할 타겟은 고속 이동하는 항공기와, 정지(靜止) 또는 저속이동(低速移動)하는 지상 및 함선의 두 가지로 구분된다.

대(對)항공기 전투에 있어서의 사격 허용시간은 정면반항(正面反航)에서 접근한다고 가정하면, 상호가 1,000km/r 정도의 속도를 가지고 있으면 목표물 인식하고서 교차되기까지의 시간은 불과 18초 이내이다.

이 순간에 적이라는 것을 확인해야 하고, 화기(기총 · 로켓 등)의 안전장치의 해제, 효과적인 공격을 할 수 있겠끔 하는 조치, 수정, 조준 그리고 사격—그야말로 눈부신 동작이 요구된다.

이런 일들이 사전에 예측하고 있었다면 모르거니와, 불시에 조우하였을 경우에는 불가능에 가까운 것이다.

속도면도 보다 더 고속화되고 있으므로 인간의 오감(五感)만에 의한 판단과, 응답조작(應答操作)으로서는 더욱 무리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대지목표 또는 대함선공격의 경우는 상대는 조용하게 서 있거나 또는 극히 저속이므로, 이쪽에서 속도를 늦추면, 시간을 길게 잡을 수가 있다.

그러나 그렇게 하면 상대의 정확한 반격을 받게 되며 위험이 크다.

이 경우에 공격측의 고속성은 어느 경우보다도 방어효과가 크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예를 들면 야구의 공이 급스피트로 올 때 투수가 때리기 힘든 것과 같은 이론

이다.

요컨대 공격속력은 타케트의 여하에 따른 것이 아니며, 기동성의 용서하는 범위에서 최대가 아니면 안 된다는 것이다.

FCS가 전투, 공격용의 항공기에 따라 불가결한 요소인 제일의 이유는 여기에 있다.

다음 FCS가 필수인 장비품인 제 2의 요소는 시계가 전연 효과가 없거나 또는 그에 가까운 조건하에 있어서의 지원이다.

암야에는 물론이며, 주간에도 호우(豪雨), 안개 등의 경우, 상대를 공격하기에는 전자적인 포착 이외에 다른 수단은 없다.

보통의 강우량 이하이면 육안에 의한 시계가 레이더나 적외선으로 탐지하는 것 보다 월등하나, 호우의 상태에 나쁘면 레이더, 적외선에 의한 감도가 월등하다.

적외선 탐지방식은 모든 상태에서 레이더 보다 떨어지는 것으로 보이나, 강우량에 관계없이 거의 일정한 감도가 얻어지는 것은 커다란 장점이며, 응답출력이 곧 컴퓨터나 디스플레이를 움직이는 신호원(信號源)이 되는 점이 월등하다.

그러한 뜻에서 말하면 14mm 이하의

강우면 육안이 가장 우수한 것 같으나 시각감이 움직이는 것만으로, 전기의 감도가 없으므로 장지를 움직일 수 없다는 것에 대하여는 주의를 하지 않으면 안 된다.

## 사격조준 시스템

초기의 FCS, 다시 말해 F-86F나 F-100에 장비하고 있는 MA-3에서는 기수에 고정된 레이더와, 간단한 메이타 처리용 컴퓨터로 구성되어 있다.

이 FCS는 AFG-30 레이더장치와, 렌저 사보, A-4조준기로 돼 있으며, 레이더가 목표를 포착하였을 때는 조준기의 추미표시등(追尾表示燈)이 점화되어, 조종사에 경고하며, A-4조준기의 컴퓨터 속에 있는 자이로기구가 동작하여 신호전류를 일으켜, 조종석 전면에 놓아진 사이드·백트면의 광학적인 조준상을 투영한다.

이것이 각(角)이나, 풍력, 목표속도, 대기밀도, 풍향속도 등을 자동 보정(補正)하여 목표의 미래 위치에 조준상을 이동하므로, 조종사는 조준상(照準像)중에 목표를 집어 넣을 수 있게 조종하면 탄환은 목표의 미래 위치에 향하여 명중하게 된다.

조준상은 목표거리에 의하여 크기가

달라지며 가장 적당한 공격위치를 나타냄으로 상(像)이 가장 작아졌을 때 발사하면 좋다.

이 공격은 공대공과 공대지의 기총사격, 공대지의 로켓공격, 폭격의 어느 경우에도 사용할 수 있으며, 레이더의 주파수는  $9,300\text{MHz} \pm 300\text{MHz}$ , 유효거리리는  $0.1 \sim 1.5\text{mm}$ , 기속은  $600\text{kt}$  까지, 상대속도  $1,500\text{kt}$  까지, 사격가능거리는 기총으로  $600 \sim 6,000$ 피트, 로켓으로서,  $3000 \sim 4,800$ 피트의 범위이다.

이와 같은 종류의 FCS레이더는 기수에 고정되어 있으므로 기수방향의 메인·빔만이 포착망으로 되며, 물론 스크우프도 없다.

다시 말해 광학식 조준기를 전자식으로 고친 것과 같다.

주간의 목시공격용(目視攻擊用)과 같은 것이다.

그러나 자동보정(自動補正)을 가능케 할 수 있는 요소는 많으며, 간단하기는 하지만 목표를 추미(追尾) 제산하는 컴퓨터 기구를 가지고 있으므로 조준은 정확하다.

특히 사격이나 로켓 공격으로 탄도 특성(彈道特性)과 관련이 있는 거리 측정이 정확하며, 발사시기를 지시해 주는 것은 명중정도(命中精度)를 크게 향상시

켰다.

그후의 발전한 FCS에 있어서도 목시 사격(目視射擊)이나 폭격에 있어서는 원리적으로 이 방식이 답습되고 있으며 컴퓨터의 계산체원이 늘어나 수정이 보다 정밀하며, 거리측정의 오차가 보다 적어졌다는 것이다.

최근 대지공격용으로써 실용화 되고 있는 레자 조준기도 빔폭이 극히 좁아서 거리측정이 제법 정확하게 될 수 있도록 발전 하였으므로 원리적으로는 동일하다고 할 수 있다.

결국 육안에 의한 인식과 뒤를 따르는 것이 기본으로 되어 있는 공대공의 전투나 지상목표, 함선 등에 대한 전술공격의 기본형은 이 종류의 조준장치에 의하고 있는 필연성에서라고 할 수 있다.

### 자동식의 전천후 공격

목표를 육안으로 확인할 수 없는 전천후 상배에서의 공격이나 상대의 미부총좌( 꼬리부분에 총구멍)가 있어 뒤를 따르기에 불가능한 경우 공격에는 총틀코스를 이용하여 파괴효과가 큰 로켓탄에 의한 공격이 필요하게 된다.

이 전천후하에서의 색적(적을 찾는 것), 목표식별, 자동조준, 공격을 가능

케 하는 장치가 전천후 전투기용 FCS이며 F-86D에 사용된 E-4 등이 그 대표적인 것이다.

이 FCS는 주파수 8750-9250마력, 출력 159KW, 최대 탐지거리 30NM능력을 갖는 APG-37레이다와 유니버설 컴퓨터, 거기에 표시용 스크우프를 이용 또한 L-5, 오프파일롯트와 연동기구를 가지고 있는 것이다.

미리 목표에서 15~20NM의 위치까지 유도될 요격전투기는 최대 좌우 64°, 상하 6도에 의하여 목표를 스크우프상에 발견한다.

그때로 접촉(接敵)을 계속하여, 15NM 이내의 위치에 달한 후, 수동조작에 의하여 목표를 록크·온 하면 나중에 레이다와 컴퓨터에 의한 자동추미(自動追尾)와 자동계산이 된다.

이때 레이다는 코니칼, 스캔니에 의하여 뒤를 따르며 컴퓨터는 목표까지의 거리, 위치, 각, 속도 변화율을 계산하여 미태 위치에 의한 발사지점을 산출하여 이것을 스크우프상의 스티어링·도트에 의하여 표시하여 파일롯트의 유도를 행한다.

이 조준에 들어가는 동안 적파아방의 식별장치(IFF)를 동작시켜서 목표의 식별을 한다.

이것은 미리 설정한 주파수를 수신하던 동시에 발진하는 송신기를 장치해서

레이다·펄스를 작동하면 뒤따르는 측의 스크린에는 굉장히 밝은 점이 나타나야 방추임을 나타내어 요기로 하여금 공격하지 않게 한다.

여하튼 자동추미가 행해지면 조종사는 스티어링·로트가 조준범위에 들어가게끔 기체를 조종하는 것으로서 끝난다.

거리의 자동추정에 의하여 발사 25초 전이 되면 링은 수축을 시작하여 발사가능의 체제가 되며 발사 4.5초 전에 최종의 페이스에 들어간다.

최후의 링은 최저위치에 있는 로켓탄의 자동발사거나 목표까지의 거리 260야아드의 접근을 표시하며 이탈지시 신호가 난다.

조종사는 여기부터 이탈조작을 하기만 하면 된다.

이 자동반식에서는 사용되는 레이다의 주파수가 높으며 펄스폭도 좁은 것을 극히 짧은 반복되는 주기와 많은 스캔니로 최종조준을 하므로 목표의 해상력(解像力)도 높아져 거리측정의 정도도 0.1% ±14%미터 정도가 된다.

이것은 거리 1,000m에서 15m이내의 오차라고 한다.

물론 목표는 레이다 스크우프상에 확인하는 것만으로 기상조건에는 관계없이 공격이 가능하며 기체조작도 거의가 자

동적으로 행해진다.

이 종류의 기구가 전천후 로켓공격용의 FCS에서는 기본의 방법으로 되어 있다.

여기에 세미·액티브, 호밍용의 일미에타와 미사일 콘트롤용의 컴퓨터를 같이 합하여 스크루프 상에도 그 표시를 하게 한 것이 최근의 전천후 요격기용의 FCS라고 생각하면 좋다.

F-100에 장비되고 있는 MG-10 F-105용의 MA-1 등이 그것이다.

이와 같은 전천후용 레이다와 산정장치(算定裝置)는 발견, 식별, 추미가 전면 자동적으로 행해져 로켓 또는 미사일의 사용을 선정하는 것밖으로의 조작으로서 조준, 발사는 자동적으로 행해지나 필요에 따라서 수동조작도 할 수 있게 되어 있다.

이들의 FCS에서는 (E-4의 경우도 같음) 속도, 풍력, 기압, 고도, 비행자세 등의 정보를 얻어 공격코스를 산정하여 스크루프 상에 표시자동장치와 연결하여 기체를 움직이는 기능 외에 대저레이다 탐핑, 레이다항법, 비콘식별 등에도 사용된다.

### HUD의 필요성

전천후 공격용 FCS는 극히 발전한 수

색, 조준장치이지만, 이것은 육안공격을 생각하지 않는 방식이므로 실제의 전투기나 전투 폭격기의 장비로서는 결합점이 있다.

레이다 추미(追尾)와 컴퓨터에 의한 계산은 원칙적으로 목표기가 직진(直進)하든가, 직진에 가까운 전투태세가 아닌 성립하지 않으며, 운동이 심한 경우에는, 미래위치의 계산에 커다란 오차를 일으키고 만다.

또한 조준사는 기내의 레이다·스크루프를 주시하고 있으므로 지형이 복잡한 저공에서의 사용은 곤란하며 위험도 많다.

이때문에 현재의 전투기는 공대공의 대전전투기는 원칙적으로 복시조건(目視條件)으로 행하며 사용병기도 기관포나 적외선 호밍의 공대공 미사일을 사용한다.

거기서 레이다·스크루프와 동시에, 복시조준용의 오프티칼·사이트를 비치하고 있다. 원리적으로는 MA-3와 같은 것이지만 전천후용의 컴퓨터와 연동해 있으므로 수정제원(修正諸元)도 많으며 로켓탄 발산시에는 트리거를 끌고 추미를 계속하면 최적위치에서 자동발사가 되는 점이 상위하다.

F-104, F-105등에 장비하고 있는, 나살 F-15A, R-14 등은 이런 방식이다.

적외선 탐자, 조준장치를 갖고 있는 경

우는 오프티칼·사이드 위에 동그렇게 투영되어 방향을 일으키게 되어 있다.

목시조준에 의하여 목표기를 추적하는 경우나, 대저공격을 행하는 경우에는 조종사는 원칙으로 광학(光學)사이트를 통하여 목표를 주시하고 있다.

이 조종석 계기나, 레이다·스코우프를 보는 여유는 거의 없다.

특히 저공에서의 기동이나, 복잡한 지형을 회피하면서의 대저공격, 방어포화를 뿌리면서의 공격에서는 기내를 보는 여유는 거의 없다.

공격제원의 수정량이나 목표까지의 거리정보는 당연 사이트상에 투영되지만 이외에 비행을 위해서 필요한 제원도 조종사에 인식되는 것이 가장 유리한 것만은 사실이다.

방향, 고도, 속도 등의 데이터에서 최근의 초음속 공격기의 극히 크리티칼한 대저공격 조건에서는 필수인 정보라고 할 수 있다.

또 하나 전투·공격기의 주의를 경계하면서 행하는 항법이나, 저공·고속에서의 장거리 비행, 기상조건이 나쁜 때의 이착륙 등, 기내에 주의하지 않아도, 필요한 제원이 인식되는 것은 확실히 알 수 없다.

이 목적에서 광학 사이트에 필요한 데

이타를 투영시켜, 조종사가 아래를 보지 않더라도 안전, 확실한 비행조작을 행할 수 있게 생각된 것이 최근 유행되고 있는 헛트·압·데이스프레이(HUD)이다.

현재 이미 저공 공격용의 기체나 전투 폭격기에 필수인 장비라고 생각하기에 이르렀다.

## HDD의 개발

원칙적인 그 자체는 비교적 간단하며 투영 그 자체는 목시조준기의 조준상을 투영시키는 것과 대차 없다.

문제는 오히려 필요한 데이터가 어디까지 정리하여 신불, 기호 등으로 변환시켜 투영하느냐에 있다.

긴요한 것 이외의 표시는 오히려 조종사의 인식을 혼란하게 하며, 시계를 제한하는 등 유해하기 때문이다.

기체의 자세나 항법 데이터를 표시하는데 있어서 커다란 이점(利點)이 있는 것은 관성항법장치의 실용화이다.

종래의 에어·데이터에 대신하여 관성항법장치에서 얻어지는 정보는, 기상컴퓨터에 의한 처리를 손쉽게, 정확한 것으로 같았다.

또한 컴퓨터도, 종래의 아나로그·시스템에서, 디지털·컴퓨터의 계수처리에 의하여 수량표시가 가능하게 된 것도

HUD를 실용화 하기 위해 커다란 힘이 되었던 것을 부정할 수 없다.

현재 HUD를 실용화하고 있는 기체는 모든 관성항법장치와 돔프라장치, 테지 날 컴퓨터를 장비한 기체이다.

이 군용 목적에서 발달한 HUD가, 민간 여객기 등의 비행, 이착륙을 위해서 보조장치로서, 현재 서서히 채용되고 있는 것도, 특기할만한 일이다.

교룡이 혼잡한 공역에서의 비행, 카메라 II, III 조건에 의한 이착륙 등에서 조종사가 전망을 주시하고 있는 것만으로 필요한 메이타가 인식되어, 비행할 수 있는 커다란 이점이 있기 때문이다.

또한 역행하는 방법으로서 전천후 공격기로 비행기 내의 스코우프 등을 주시하면서 외계의 상황을 인식할 수 있는 헛트·다운·메이스프레이(HDD) 방식도, 특징이 있는 생각이라고 할 수 있다.

전천후나 야간의 공격에서는 어느 것이나 외주(外周)에 대한 인식은 곤란하므로 완전히 부라인드의 상황에서도 충분한 비행이나 공격이 가능하도록, 조작을 보조하는 메이타나, 경고기구를 집중

해 주는 것이 유효하다고 생각하는 방법이다.

이것은 종래의 전천후 공격시스템에 관성항법장치의 메이타나, 에어메·이타, 적의선, 기타의 감지메이타를 보태는 것으로 가장 철저한 것으로는 텔레비전까지도 첨가했다.

민간기로 말하면

현재 개발중의 보잉 2707-300의 조종석에 EADI(전자식 자세 지시기)는 텔레비전을 이용하여, 외계와의 상대인식(相對認識)을 시키는 헛트·다운·메이스프레이 방식이라고 볼 수 있다.

군용의 탐지, 조준장치로서는 현재 헬리콥터용에 개발되고 있는 야간용 암시(夜間用暗視) 텔레비전장치(설치위치에서 말하면, 헛트·암이 되지만), 정찰, 공격용의 로라이트 레펠·텔레비전장치 등이, 눈으로서는 불가능한 외계(外界, 지상)상태를 인식시켜, 수색이나, 공격을 행하는 방식으로서, 똑같은 경향에 속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 × ×

# 미사일의 역사 (3)

## 문 정 식

ICBM이 액체로켓에서 고체로켓 중심으로 이행하는 것이 오늘날에 와서는 의심할 여지없는 사실로 되어 있다.

ICBM이라는 무기의 가장 큰 특징은 8,000킬로미터를 비행하는데 불과 20~30분 밖에 안걸리는 것인데, 만약 발사준비에 오랜 시간을 잡아 먹는다고 하면 전술한 바와 같은 고속이라는 장점도 그다지 뜻이 없어진다.

현재 그린랜드와 알래스카에 건설되고 또한 스코트랜드에도 예정되고 있는 BMEWS(탄도미사일 조기 경보망)이라는 경보조직이 적국이 발사한 ICBM때를 캐치한다고 하면, 그래서 부터 아방의 목표지점 상공까지는 약 15분의 여유 밖에는 없는 것이다.

오늘날 ICBM의 정밀도는 일반적으로 상대국의 ICBM 지하 발사기지를 완전히 파괴시킬 만큼 향상되었기 때문에 BMEWS가 탐지하고서 15분 이내에 아방기지에서 ICBM이 발사되지 않는다면 발사도 해보지 못하고 ICBM기지가 무참

하게 파괴되어 버릴지 모를 일이다.

액체로켓의 ICBM일 경우에는 15분 이내에 발사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액체산소를 그때서 부터 집어넣게 되기 때문이다.

그래가지고는 곤란하기 때문에 3기 1조의 ICBM 가운데 1막만은 언제나 발사할 수 있도록 한 방법으로서 3기를 윤번제로 정비해가는 것이 계획되어 있는데 이것은 아무래도 골치 아픈 일이며 시간이 걸리는 일이다.

고체로켓 ICBM의 요구가 이런데서 출발한 것임은 말 할 것도 없다.

액체로켓의 장점은 첫째로 연소의 제어를 정확히 할 수 있는 것이다.

둘째로는 연소를 장시간 끌 수 있다는 것이며 재시동도 가능하다.

그러나 치명적 결함은 정비에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것이며 구조나 취급에 있어서 복잡하다는 것이다.

그런데 고체로켓은 그와 반대다.

취급은 간단하고 정비하는데도 그렇게

손이 가지 않으나 연소 제어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정확한 발사가 곤란하다.

고체로켓트는 그날의 온도나 습도나 연소속도에 변화가 일어나기 때문이다.

그때도 기술이 진보함에 따라 서서히 이같은 결점이 극복되어 정확한 초속을 얻는 방법도 고안되었고 장시간 연소시킬 수도 있게 되었다.

### 기술은 순환한다

초기의 로켓트는 거의 모두가 고체로켓트였다. 그러던 것이 고다야드라던가 최근에는 폰·부라운이 액체로켓트의 실용의 길을 개척하였다.

특히 1/2호는 장거리(당시의)탄도미사일을 액체로켓트로 실현한 점으로 중요한 의의를 갖는다.

그때까지는 의문시 되어 왔던 액체로켓트의 실용성을 이것으로 실증한 것이다. 그 당시 부터 제 2차 세계대전 후 15년경 까지 상당히 장기간에 걸쳐 액체로켓트 만능시대가 찾아왔다.

장거리 미사일에는 액체로켓트만이 쓰여진다고 오랫동안 생각되어 왔던 것인데 이것이 다시 역전하여 고체로켓트를 다시 보게 될 시대가 찾아왔다.

이리하여 속속 고체로켓트의 전략탄도미사일이 생겨나게 되자 아무래도 고체로켓트 쪽이 병기로서는 본격적인 것이라

고 모두가 생각하게 되었다.

이 지론은 과연 적중한 것으로서 고체로켓트가 덩치도 작고 값도 싸게 먹히 예를 들면 ICBM 미니트맨은 아틀라스에 비해서 10분의 가격 밖에는 안 된다고 한다.

그렇기 때문에 액체로켓트는 고체로켓트로 자꾸만 교체되게 되었다.

예컨대 근거리 탄도유도탄 코프벌은 고체로켓트인 씨켄트로 교체되었다.

중거리 유도탄 레드·스톤은 거의 같은 사정의 고체로켓트인 퍼어싱으로 바꾸워 지고 있다.

ICBM에서는 액체로켓트인 쏘어나 쥬피타는 벌써 생산이 중지되었으며 고체로켓트인 폴라리스만을 생산하고 있다.

원래 병기로써 ICBM을 사용할 경우에 모두가 정확한 기준으로 발사될 필요는 없다고 본다.

오히려 대량 무차별하게 적극 상공에 식 폭발하는 편이 효과가 묻지 모른다. 따라서 어느 정도의 정확성을 확보한 후에는 고체로켓트 쪽이 편리하다는 것은 당연한 이론이라 할 것이다.

그러나 모든 로켓트가 전부 고체로켓트로 이행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

액체로켓트에는 액체로켓트로서의 장

은 점이 있다.

에컨테 금성로켓트와 같이 정확성이 최대한으로 요구될 경우에는 액체로켓트가 훨씬 유리하다.

그리고 액체로켓트에 있어서는 저장 가능한 연료를 개발하고 있다.

### 원수폭의 위력

진술한 바와 같은 숫자로 장거리 전략탄도 미사일의 수를 합계 한다면 미국은 1965년 경에 약 1,400발이 갖추어질 것이니 이런 점에서 볼 때 미국이 소련보다 우세함을 입증할 수 있다.

한 때의 여론이었던 「미사일·캡」 논쟁은 1957년 10월 4일 소련이 처음으로 인공위성을 발사한 이래 미국 의회를 떠들썩 하게 만들었다.

그러나 지금에 와서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것은 미국의 담당자들이 미사일·캡은 이미 해소된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미사일의 캡을 깨주기 위해서는 정도의 향상과 신뢰성의 향상, 그리고 어느 일정한 한도 이상의 수의 미사일 정비의 세 가지가 충족되면 되는 것인데 전호에서 기술한 바와 같이 정도의 점에 있어서는 ICBM에 필요한 정도는 이미 달성되었으며 지구적 규모에서 생각하는 한은 정도를 이 이상 향상시킬 필요는

없는 것이다.

신뢰성이라는 점에서는, 신뢰성이 100%로 되는 것이 최종의 목표인데 병기로 시 생각하는 한 어느 퍼센테이지 이상이면 실용상 지장이 없다.

가령 아트라스의 발사를 보거나 플라리스의 발사를 보더라도 그 신뢰성은 수년 전과 비교해 볼 때 비약적으로 향상하고 있다.

그러므로 병기로서의 실용성은 거의 만족할 만한 정도가 되었다고 해도 좋을 것이다. 그렇다면 문제가 되는 것은 일정량의 수를 갖추는 것인데 1965년경까지는 1,400발이 정비된다는 사실을 어떻게 생각하면 될 것인가?

여기에 관해서 참고가 되는 것은 1965년 5월에 미국 의회에서 행해진 소위 수폭전쟁 공청회라 할 것이다.

이 공청회에서는 어느 가상일에 미국에 263발의 수폭이 투하된다는 것을 전제로 하여 수폭이 큰 것은 10메가톤에서 적은 것은 1메가톤까지 있으며 그 총계는 1,400메가톤이다. 그리고 미국내 뿐만 아니라 구라파, 아시아지구의 미국 진진기지에도 폭탄이 투하되어 여기에 대해서 미국에서도 보복폭격이 감행되어서 합계 4,000메가톤의 수폭이 하루 사이에 지구 상공에서 폭발하였다고 가정해서 계산을 진행시켰다.

## ★ 미사일의 역사

이때 산출된 가옥파괴나 사상자 숫자에 관한 증언을 열거하면 다음과 같다. 「주목해 줄 것은 1,180만호의 가옥이 대파되어 쓰지 못하게 되는 사실이다. 또한 810만호는 반파정도의 손해를 입어 대수리를 하지 않으면 안될 것이다. 그리고 150만호는 그대로 살면서 수리할 정도의 손해를 입을 것이다」 또한 이와같이 폭풍피해를 입은 구역 외에서도 약 50만호는 1시간 후에 배서 3,000렌트겐 이상의 오염을 받아 수 년간은 살 수 없게 되며 그 밖에도 작고 얇은 방사선 때문에 210만호가 1년가량 1,040만호가 2개월 1,170만호가 2주일 동안 살 수 없게 된다고 한다. 다시 말해서 합계 4,000만호 이상이 크거나 작거나 그 어떠한 피해를 입어서 어느 기간동안 살 수 없게 된다는 것이다. 4,000만호라고 하면 미국 전 주택의 반수가 된다. 불과 263발의 수폭으로 전 주거의 반이 이와같은 피해를 입는다는 것이 명백해진 것이다.

사상자 수로 말하면 2,300만명이 그 날 증으로 죽고 2,590만명이 중상을 입은 다음 죽고, 또한 2,000 만명의 부상자가 생겨 날 것이라고 추산했다.

### 우주시대로 돌입

우주개발이 정식으로 일정에 오르는

1955년 7월 29일 당시 미국의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인공위성 발사를 성명한 날부터다.

그 당시 육군은 폰·부라운이 중심이 되어 V<sub>2</sub>호로부터 발전시킨 레드·스톤의 개발을 촉진시켜 겨우 윤곽은 잡을만할 때였다.

레드·스톤은 1953년 8월 20일에 최초의 시험발사가 있었고 다음 해 1954년 1월 27일에 제 2회의 시험발사가 있었다.

이와 같이 겨우 실용성이 확인된 상태의 레드·스톤을 육군은 인공위성 발사용으로 사용할 것을 강력히 주장했다.

벵가아드 계획이 결정된 뒤에도 육군은 레드·스톤의 사용을 단념치 않고 1956년 9월 20일에 레드·스톤 위에 고체로켓을 2단으로 부착시킨 로켓 발사를 실시하였다.

이 로켓은 38킬로그램의 탑재물을 날고 5,300 킬로미터를 날았다.

만약 또 한단을 더 달아서 4단으로 하면 인공위성을 궤도에 진입시킬 수가 있다고 육군 담당자들은 생각하고 있었다. 그러나 그 허가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즉 이와 같은 비행시험은 그 이상 하지 않도록 명령이 내려졌다.

### 레드·스톤 부활

그 때로부터 거의 일년 쯤 지난 1957

년 10월 4일에 소련 최초의 인공위성이 발사되었다.

그리고 뒤이어 11월 3일 라이카 견을 태운 스포트닉 2호가 궤도에 올랐다.

그 중량도 508킬로그램이나 되는 것이었다.

소련이 인공위성 발사에 관해서 발표한 것은 미국 보다 훨씬 뒤의 일이다.

그 개수로 말하더라도 국제지구 관측년 기간 중 1개정도 발사한다고 하는 표현으로 막연한 것이었다.

그런데 실제 발사되고 보니 불과 10킬로그램 밖에 안 되는 미국 뱅가아드 위성 에 비해서 스포트닉 1호만 하더라도 83.6킬로그램이나 되었다.

그리하여 이 사실을 어떻게 하느냐가 문제였다.

결국 레드·스톤이 다시금 빛을 보게 되었다.

레드·스톤을 사용해서 인공위성을 발사하도록 하라는 지령이 내렸다.

1957년 12월 6일, 시험용 뱅가아드의 발사가 케이프·케나베달에서 행해졌다.

뱅가아드는 저상 빛 피이트까지 상승하자 그대로 낙하하여 검은 연기만 내뿜었다.

계속해서 1959년 1월 31일, 레드·스톤을 제 1단으로 한 4단 로켓, 쥘피타-C형 로켓을 사용해서 엑스푸로라 1호가

발사되었다.

그 중량은 14킬로그램이었는데 미국 최초의 인공위성은 이렇게 보조적 역할의 레드·스톤에 의해서 발사되었다.

실은 그 뒤에도 레드·스톤은 또 새로운 구실을 제시하였다.

즉 그 직후에 폰·부라운과 육군은 인간로켓트를 레드·스톤을 사용해서 발사하겠다고 요청한 것이다.

1958년 봄 의회에서 폰·부라운이 증언하기를 레드·스톤을 사용해서 실시 명령이 떨어진지 1년 이내에 인간을 우주공간에 발사해 보이겠다고 말했다.

그런데 당시 NACA 측, 현재 NASA의 차관 유·드라이덴 박사는 『그것은 대포로 여성을 발사하는 이상의 가치도 없다』는 말로서 이것에 반대하였다.

폰·부라운은 여기에 대해서 『혹자는 이것을 곡예비행 정도로 생각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1954년 우리들이 작은 인공위성을 레드·스톤을 사용해서 발사한다고 한 때도 그런 말들이 있지 않았는가?』라고만 말하였다.

### 부라운 박사의 역할

생각해 보면 미국의 우주개발 면에서는 부라운 박사는 언제나 미국의 공저를 구하는 역할만 담당해온 것 같다.

그 첫번은 인공위성 발사이며 둘째번

은 인간로켓트의 발사였다.

결국 인간로켓트도 레드·스톤을 사용하였으며 레드·스톤 로켓트의 62번째 것이 그 위에 「후피덤 7호」 캡슐을 달고 아란·세퍼어드 중령을 우주공간으로 보내고 무사히 귀환시킨 것이다.

세번째도 이미 닦아 온 것이다.

그것은 폰·부라운이 연구하고 있는 새턴·로켓트가 미국의 급후 우주개발의 주역을 맡으려고 하고 있기 때문이다.

원래 아트라스타든가 유티타·쏘어 등의 로켓트는 군용으로 계획된 것이다.

지구의 크기는 반경 약 6,400킬로미터이고 뉴욕과 모스크바 같은 8,000킬로미터에 불과하다.

그러나 10,000킬로미터 이상의 사정을 갖는 로켓트는 불필요한 것이며 그 탑재량도 최대한 3톤 까지도 필요가 없다.

즉 지구적 규모에서 생각하는 한 그 이상 크기의 로켓트는 불필요한 것인데 이 로켓트를 사용하는 것이라면 우주개발에는 한도가 있는 것이다.

현재 발사되고 있는 인공위성 가운데 가장 큰 것은 1961년 1월 31일 발사된 사모스위성으로 약 1.8톤, 그 다음이 1960년 5월 24일 발사된 미다스위성으로 1.6톤인데 이것은 쌍방이 다 아트라스를 발사로켓트로 사용한 것이다.

즉 아트라스를 발사로켓트로서 사용하

였을 경우의 최대한의 인공위성 중량은 커서 2톤 정도로 머문다는 결과가 된다.

지구상공을 도는 인공위성의 경우는 그것으로 좋을지 모른다.

그러나 이것으로 달 주변에 달로켓트를 진입시킬려고 한다면 탑재량은 기껏해서 200킬로그램 정도로 되어 버린다. 달에 착륙한 만한 로켓트는 쉽게 생각할 수 없는 것이 되며 우주개발 장애에 어떤 한계가 생겨 버린다.

장래의 우주 개발의 가능성을 풍부히 하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대형 우주로켓트의 개발이 급선무라 한 것이다.

그리고 현재 미국이 기대를 걸고 개발하고 있는 대형로켓트는 새턴 즉 추력 85톤의 로켓트 여덟 개를 묶음으로 해서 제 1단 로켓트로서 사용하는 것인데 여기에 또 또한 폰·부라운 박사가 참가하고 있는 것이다.

## 인공위성의 성과

전술한 바와 같은 까닭으로 우주개발에는 대형로켓트 개발이 무엇 보다도 중요한 것이 되는데 그것이 정만 문제가 되는 것은 앞으로의 일로서 지금까지는 군용로켓트에서도 상당한 성과를 올렸다.

그러면 먼저 1957년 10월 4일 이래 미·소 양국이 어떤 인공위성을 발사하

였으며 어떠한 성과를 올렸는가를 개관해 보기로 한다.

1961년 5월 21일까지 미국과 소련에서 발사한 인공위성과 우주로켓의 총수는 55개이다. 그 중에서 인공위성이 50개, 인공혹성이 4개, 달에 도달한 로켓이 하나이다.

국가별로 보면 인공위성은 미국이 38개, 소련이 12개, 인공혹성은 두 나라가 똑같이 2개씩이고 달에 도달한 것은 소련이다.

현재 아직도 상공을 돌고 있는 인공위성은 미국이 22개, 소련이 1개, 오늘날 아직도 신호를 보내고 있는 것은 미국이 10개, 소련이 1개 있다.

저상에서 볼 때 잘 보이는 것은 중량에는 관계없이 표면적이 큰 것이 좋은데 그 필두는 미국의 에코라고 하겠다.

1960년 8월 12일, 발사된 것으로 직경이 30미터나 되기 때문에 밝기도 마이너스 2 등이어서 육안으로 잘 보인다.

그러나 중량은 불과 62.3킬로그램 즉 지구위성이기 때문에 안은 텅텅 비어서 표면의 알루미늄판 프라스틱 구의 무게가 62.3킬로그램이라는 것이다.

그 다음으로 잘 보이는 것은 엑스푸로터 9호인데 1961년 2월 16일에 와플프스섬에서 발사되었는데 이것의 발사에는 스카울이라는 4단 고체로켓이 처음으로

로 등장하였다.

이것도 지구위성으로서 직경이 6미터 무게는 불과 6.8킬로그램 밖에 안되는 것이다.

### 군사용 인공위성

발사된 인공위성을 용도별로 보면 다음과 같다.

1957년에서 1958년에 걸친 1년반 가량은 국제지구관측년의 기간이기도 하고 해서 두 나라가 다 국제지구관측년다운 연구용 인공위성을 발사한 바 있다.

그 가운데서 1958년 12월 18일에 발사된 아트라스·스코아위성만이 통신을 목적으로 한 군용 위성이었다.

1959년에 들어서 국제지구관측년이 끝남과 더불어 미국에서는 군사용 위성 수가 점차로 늘어났다.

1959년 중에 미국은 10개의 인공위성을 발사하였는데 그 중에 6개는 디스카버러 인공위성 즉, 공군이 태평양의 번덴버그 기지에서 정남을 향해서 발사한 군사목적의 인공위성이었다.

1960년에 들어서서 군사 위성은 그 종류가 많아졌다.

보기에 따라서는 실용위성이라고도 말할 수 있는데 구름을 촬영하는 기상관측용의 타이로스 등이 발사되었다.

1960년에 미국이 발사한 인공위성 총

수 15개 가운데서 순수한 평화목적을 위한 것은 에코 1호와 전리층을 조사하는 엑스푸로러 8호 두 개다.

1961년에 들어서서 5월 21일 까지 미국은 8개의 인공위성을 발사하고 있는데 상대적으로 연구용 인공위성이 증가하여 엑스푸로러 9, 10, 11호의 세 개가 연구용으로써 발사되었다.

즉, 1959년 이래 우주의 군사개발면이 상당히 농도가 깊어져 1960년에는 태반이 군사위성이었는데 1961년에 이르러 약간 그 비중이 감소되었다

우주공간의 군사이용에서 생각되는 것은 우선 첫째로 비밀통신용이다.

이것에는 명칭이 여러가지가 있으나 극 궤도를 도는 것, 적도 상에서 상대적으로 지구의 일정지점 상공에 정지하여 있는 것, 쿠리에 처럼 빙글빙글 돌면서 일정한 지점에서 정보를 발하면서 가는 것 같은 여러가지가 있다.

그것들 가운데 지금 상공을 날고 있는 것은 쿠리에 뿐인데 그 밖에 준비되어 있는 것으로는 스테이아, 테쿠리, 아드벤 같은 것이 있다.

항태위성이라고 하는 것은 하늘을 날오는 전파의 등대 역할을 해서 플라리스 잠수함이나 ALBM탄재 폭격기가 자기 위치를 정확히 알도록 계획된 것인데 예정대로 간다면 0.2마일 가량의 오차로

자기 위치를 알 수 있다고 한다.

ICBM을 탐지하는 미다스 혹은 지상 탐정용의 사모스는 군사용 위성으로서는 가장 중요한 것일 것이다.

사모스의 지상촬영 성능은 명확하지는 않지만 지상의 10미터 가량의 크기의 물체는 식별할 수 있다고 생각된다.

만약 이 인공위성의 일부라도 회수할 수 있게 된다면 보다 더 세세한 것까지 분별할 수 있어 탐정위성으로서 U-2기와 바꿀 만한 성능을 발휘할 수가 있을 지도 모른다.

실은 디스카버러 위성이 되풀이 해서 회수 실험을 하고 있는 것은 이 사모스와 의 관련이 있기 때문이라고도 생각된다.

디스카버러 위성은 1960년 8월 10일 최초로 양상 회수에 성공하였는데 이것은 소련 우주선 위성 회수에 앞서기 8일이며 1일간 상공을 돌린 다음 회수한 것인데 11월 12일에는 디스카버러 18호를 발사해서 3일간 상공을 돌린 뒤 회수에 성공하였다.

기상위성은 문자 그대로 기상을 조사하는 것인데 평화목적으로도 군사목적으로도 사용 될 수 있는 것이다.

### 인공혹성의 비교

이러한 군사목적에 우주를 개발하고 있는 한 그렇게 큰 로케트는 필요가 없

다.

전술한 바와 같이 사모스나 미다스 정도의 군용위성이 커다란 편의 한도이기 때문에 아트라스 정도의 로켓트가 있으면 충분하다.

그러나 그 이상의 우주개발이라면 이것으로는 부족하다.

이제까지 발사된 미국과 소련의 인공위성을 비교해 보기로 한다.

최초로 인공혹성을 발사한 것은 소련이었다.

1959년 1월 2일 소련의 우주로켓트 1호가 발사되어 달 근처를 통과해서 지구와 화성과의 사이의 궤도를 달리는 인공혹성이 되었다.

그 무게는 1,472킬로그램인데 그 중에서 계기부분의 중량은 361.3킬로그램이었다. 그것에 2개월 늦게 미국 최초의 인공혹성이 발사되었다.

이름은 파이오니어 4호이고 무게는 6.1킬로그램이었다.

문제는 성능이기 때문에 중량의 대소는 비교 기준이 되지 않을지 모르나 만약 통신기 같은 것의 기술수준이 같다고 하면 중량의 차는 그대로 성능의 차가 되기 때문에 역시 중량의 차를 중시하지 않을 수 없다.

그 후에 인공혹성은 아니지만 소련은 1959년 9월 12일 달 로켓트 2호를 발사

하였다.

그 중량은 1,511킬로그램으로 그 가운데 계측기 부분의 중량은 390.2킬로그램이었다.

10월 4일에는 달 이면 촬영에 성공한 우주로켓트 3호 즉 자동혹성간 스테이션이 발사되었다.

궤도에 오른 총 중량은 1,553킬로그램이고 스테이션 자체의 중량은 278.5킬로그램이며 그밖에 로켓트 최종단계도 156.5킬로그램의 계측기계가 실려져 있었다.

1961년에 들어서서 3월 11일에 미국은 파이오니어 5호를 발사하였다.

그 무게는 43킬로그램이었고 태양전지를 실은 이 인공혹성은 3,600만킬로미터의 원거리에서의 통신에 성공하였다.

이것은 지구와 금성의 궤도 중간을 지나가는 인공혹성이 되었다.

약 1년 뒤에 소련이 금성로켓트를 발사하였다.

즉 1961년 2월 12일의 일이다.

이 금성로켓트는 그 중량이 643.5킬로그램으로 이것은 1959년 1월 2일에 발사된 우주로켓트 1호의 계기부분중량 361.3킬로그램에 필적하는 것이니 2년 동안에 소련의 우주개발용 로켓트는 대형이 된 셈이다.

금성로켓트는 2월 27일 이후 신호를

포착할 수 없게 되었는데 금성에 접근 하리라는 5월 20일 전후에는 영국의 조 드레프뱅크에 있는 전파망원경이 금성 로케트로 부터의 발신을 같은 전파를 포착 하였다고 보고하였다.

어쨌든 이들 우주로케트나 금성로케트를 보면 우주개발을 위해서는 군 전용 로케트를 실용화 시킬 필요가 있음을 알 수 있다.

### 대형 로케트 개발

인간위성의 경우도 그러하다.

소련이 4월 12일에 인간위성에 성공한 데 대해서 미국은 5월 5일에 인간로케트에 성공하였다.

공개면에 있어서 미국이 조금 뒤졌다 고 하는 것이 전체의 역량을 평정하는 기준이 될 수는 없거니와 미국도 본격적인 대형 로케트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 대형 로케트 개발에 대한 최초의 성공이 지난 10월 27일 케이프 케나베탈에서 이루어졌다.

즉 이날 8개의 엔진으로 추진되는 162 피이트 높이의 거대한 새턴 로케트는 최고시속 3천 9백마일 고도 90마일로 대서양 상공을 2백 20마일이나 비행한 것이다.

이 새턴 로케트의 엔진은 1.4초 간에 3천마력에 상당하는 추진력을 발휘 하였다.

이와 같은 추진력은 지금까지 미국의 가장 강력한 로케트인 아틀라스의 약 4배가 되며 소련이 최근까지 사용한 최대 로케트의 추진력 보다 2배나 강력한 힘을 가진 것이다.

462톤은 중량을 가진 새턴 로케트는 처음에는 대단히 천천히 상승하였고 다음에 3백톤의 연료가 내연실로 통과하자 연도를 내었다.

동 로케트는 처음에는 상승하였다가 다음에 고향을 그리며 대서양 위를 날아 8분 후에 해상에 낙하하였다.

동 로케트는 비행 중 백오십 중에 달하는 비행정보를 케이프 케나베탈의 통제실로 무전송신 하였다.

미국 항공우주국장 제임스 E 웨브씨는 새턴 로케트의 비행을 일컬어서 미국의 우주제국을 과시하는 훌륭한 시위이며 동시에 지난 5월 25일 케네디 대통령이 수립한 계획을 수행하는데 있어서 필요로 되는 중적재물을 발사하는데 있어서의 「우리들의 실력증강에 대한 이정표」라고 말하였다.

동 계획은 1970년 까지 많은 미국사람을 달에 보냈다가 귀환 시키기로 되어 있는 것이다.

< 특 집 II >

병영생활

명랑화와

자기완성

합리적 생활태

도와 병영생활

— 김 은 우 —

대학교수 28년 동안에 수 많은 제자들이 군에 입대할 때 찾아 와서 인사를 하며 좋은 충고를 해 달라고 부탁을 한다.

그럴 적마다 나는 그들에게 한결같이 강조한 말이 있다.

삼 남매 중에 두 아들들이 모두 군대 복무를 끝마치고 돌아 왔다. 맏아들은 육군이고 막내아들은 공군이였다.

애들이 군에 갈 때도 내가 한 말이 생각난다.

대학 강의실에서 강의할 때 흔히 하던 식의 말이 아니였다.

간결하고도 진실하고 절박하고 솔직한 내용의 말이 아니고서는 그들에게 뼈 속으로 살 속으로 그리고 혈관 속으로 스며들지 않는다.

그러면 그런 이야기들은 어떠한 것이 있을까.

나는 우선 그들에게 현대 독일의 유명한 작가(소설가)로 현재 세계적으로 이름을 떨치고 있는 「E. M. 레마르크(E. M. Remarque)」의 이야기를 들려준다.

병영생활은 자기완성을 위한 인격도야의 도장이 되어야 할 것이며 「정병강군」과 「임전태세확립」의 기초를 구축하는 기본이 되어야 한다.

이제까지 부단한 노력과 심혈을 기울여 시도해온 바 있는 병영생활, 특히 내무생활 명랑화는 어떠한 이유에서 강조되는 것인가.

## 특집II · 병영생활 명랑화와 자기완성

「레마르크」가 제 1차 대전 후에 전쟁소설문학으로 이름이 알려지게 된 것은 그가 1919년 전쟁이 끝나고 그 후 10년이 지나서 1929년에 「서부전선 이상 없다」라는 처녀작의 소설을 불과 28세 때 써 내고 부러웠다.

그리고 현재 가장 무거운 전쟁소설로서 「개선문」이 있다.

그러면 「레마르크」는 어떻게 나이 어린 청년으로 전쟁소설가가 되었는가.

그는 한 평범한 청소년으로서 17세 때 군대에 입대하게 되었다. 누구나 잘 작할 수 있듯이 제 1차 세계대전은 독일군에 의해서 처음 시작되었기 때문에 그때 당시 독일군의 규율이나 훈련방법은 현재 우리나라 군대의 그것에 비교가 안 되리 만큼 엄하고 치열한 것이었다.

물론 죽느냐 사느냐의 확률도 그 어느 때 보다 위험한 것이었음을 우리는 잘 안다.

「레마르크」는 군대에 들어 가셔도 다른 병사들 처럼 좋은 위치에 배속되어 있지도 않았다. 말하자면 군인으로서는 약간 실망하지 않을 수 없는 일을 맡았던 것이다.

취사장에 취사부와 같은 것이었다. 남들은 총을 메고 군인으로서 낭만과 보람을 느낄 수 있는 영웅적 활동을 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었지만 「레마르크」는

쉽게 말해서 부엌배기 노릇을 되풀이하고 있었다.

군인으로서의 슬픈 일일지 모른다. 보통 젊은이 같으면 『젠장 나는 어쩌다 제수가 없어서 밤낮 부엌에서 남자가 행주 치마를 두르고 밥을 짓고 반찬을 하고 물을 매게 됐는지 모르겠다』면서 자포자기하는 태도를 갖기가 일쑤이고 심술 부리는 병사가 되기가 일쑤일 줄 안다.

기기가 제일 하등 병졸이니 이는 마치 최하 동물처럼 무수히 많은 상관들에게 신술곳은 구박도 적지 않게 받지 않았을까 싶다.

이런 것들을 어렵고 고생스럽고 불합리하다고만 생각하면 군대생활이란 일종의 인간생활에서 단절되는 것으로 생각하기 쉽다.

그런데 「레마르크」는 어떻게 생각했는가.

그는 이 기회를 자기 생(生)에서 들도 없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했다.

사람이란 제아무리 머리가 좋고 약고 생각대로 못 할 것이 없이 무엇이나 할 수 있는 것처럼 뽐배기가 일쑤이고 심지어는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도 그까짓 것 사람의 생각으로 다 헤아려 볼 수 있고 이 세상에 아무런 잔란체 하는 것도 자기 생각이나 관념으로 머리 속에서 따

저 볼 때는 한 개의 우스운 것, 아무 것도 아닌 것 등등 마음껏 까놓고 관념의 회룡을 하던 바로 그 인간(자기 자신을 포함해서)을 한 번 시험해 보자는 결심을 했다.

과연 내 머리가 나의 육체보다 우수한가 아니면 나의 육체는 정신에다 비교하면 아무 것도 아닌가.

얼마나 나 자신이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엄격한 규율과 강한 훈련생활에 견디어 낼 수 있는가.

사람이 한 번 나시 한 번 죽는데 현재 우리가 가장 확실하게 믿을 수 있는 것은 과연 무엇인가.

철학이론인가.

종교신앙인가.

어떤 「이베올로기」나 주의와 사상인가.

과연 전쟁터에서 생사의 기로에 선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인간은 이런 때 어떤 것인가.

인간의 실체는 과연 무엇인가.

애국심이란 무엇인가.

말로 만의 애국심과 실제로의 애국심은 어떻게 다른가.

사람들이 보통 때는 죽겠다 살겠다 하며 가장 중요한 것처럼 떠들고 있는 사랑이란 과연 어떤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가.

우정은 무엇이고 증오와 시기와 질투는 무엇인가.

권위는 결국 무엇인가.

진리란 전쟁터에서 어떻게 인식되어지고 있는가.

도대체 인생의 죽음은 무엇을 의미하며 또 삶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사람들이 행복, 행복하고 끝없는 추구를 하고 있지만 그 행복이란 과연 어떤 것일까.

하여든 사람이 생명을 걸고 전쟁터에 서기 위해 병영생활을 하게 된다는 것은 필장히 좋은 기회다.

모든 것을 정말 알 수 있는 유일무이한 기회이다.

이 기회를 나는 놓치지 말고 아끼고 귀하게 최선을 다해서 보람있고 값있게 써야겠다.

우선은 나 자신이라는 인간을 새롭게 발견하고 또 다른 인간모습 전체를 적나라하게 알 수 있으며 인생철학을 생각으로나 관념 만으로가 아니라 몸으로 직접 체험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을 즐겁게 생각하고 「레마르크」는 마치 인생대학에 신입생과 같이 흥분하면서 입영하였던 것이다.

이런 마음의 자세와 정신적 자세를 갖고 입영하게 된 「레마르크」에게는 불안

과 공포가 있을 수 없으며 혐오와 증오가 있을 수 없을 뿐 만이 아니라 어떤 단일한 도피구나 회피하는 이유와 구실을 찾으려고 초조하지도 않았다.

그에게는 모든 것이 기대되는 호기심과 최선을 다 하겠다는 성심성의로 차 있었다.

그는 그렇기 때문에 상관의 한 마디 말도 놓치지 않고 그 의미를 찾으려고 노력했으며 같은 전우들의 말까지도 하나도 놓치지 않고 귀중한 인생공부의 자료로 받아들였다.

결코 지루하지 않았다. 결코 피로할 줄 몰랐다.

사람이란 무슨 일을 하거나 뚜렷한 목표가 서 있을 때는 아무리 어려운 일이라 하더라도 능히 견디어 낼 수 있을 뿐 만이 아니라 오히려 마음 속에서는 여유까지도 가질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특히 그가 확실히 깨달은 것은 『모든 인간이란 누구나 다 죽는다』라는 절대적인 진리이고, 그 다음에 둘째로 확실한 사실이고 진리인 것은 『그런데 나라는 인간은 아직 안 죽고 살아 있다』라는 사실이다.

그러니까 누구에게나 죽지 않고 살아 있다는 사실은 얼마 간의 생의 유예를 받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이제 나의 생명이 남아 있는 동안 죽기 전에 나는 도대체 어떤 값 있고 의미 있고 보람 있는 일을 할 수 있느냐를 생각하고 결단하는 것이 모든 인생철학의 최고 목표라는 것도 깨닫게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된 셈이다.

「레마르크」는 바로 이러한 실리적 과정을 겪어서 군대에 들어왔기 때문에 그는 무서운 군대 규율과 엄격한 군대 계급 사회 속에서도 그 속에 숨겨져 있는 따뜻하고 은밀하고 명랑하고 「유머러스」한 인간미를 찾아 볼 수 있었다 하겠다.

18세의 소년 학도병으로 「파울 보이버」라는 이름을 가진 작품 중의 주인공 이름은 곧 「레마르크」 자신을 대신하는 인물이었으며; 그가 치른 뼈저린 전쟁 체험은 그대로 「서부전선 이상 없다」라는 소설작품으로 나타났다.

그는 그 소설 바로 첫 머리로 들어가 기 전에 책 표지 안쪽에다,

『이 책은 고발도 아니고, 고백도 아닙니다. 이것은——설사 유탄에서는 피해 왔다 하더라도——전쟁에 의하여 파괴된 한 세대에 관해 보고하려는 시도에 불과한 것이다.』

라고 썼다.

「레마르크」는 「서부전선 이상 없다」라는 작품에서 시작해서 모두 전쟁문학 작품 여덟 편을 일생동안 만들어내었다.

1. 서부전선 이상 없다.
2. 돌아오는 길
3. 세 사람의 전우
4. 이웃을 사랑하라
5. 개선문
6. 생명의 불꽃
7. 사랑할 때와 죽을 때
8. 검은 오벨리스크

한 18세 소년 학도병이 군대에 입영할 때 그 어린 가슴에 마음먹기에 달려서 끔찍하고 인간의 비극이라던 전쟁은 끔찍스러운 것으로나 비극적인 것으로만 끝나지 않고 그 이상의 어떤 더 귀중한 의미와 가치를 가져오게 된다는 사실을 나는 나의 제자나 자식에게 군대 입영에 앞서서 깨달아 주기를 바라고 일러 준다.

확실히 군대란 인간이 옛날 부터 가지고 있는, 인간이 만들어 낸 하나의 인간적이고 너무도 인간적인 낭만의 상징이고 표적이다.

그 속에는 「헤로이스틱」한 영웅주의의 낭만도 있지만 감상적인 「센치멘탈」한 낭만도 있고 「휴우머니스틱」한 낭만도 곁들여 있다.

명령의 즐거움도 있지만 복종의 즐거움과 쾌감도 있는 법이다.

「세디스틱」한 쾌감도 있지만 「마조히스틱」한 쾌감도 이에 못지 않게 있다.

「노말」과 「양노말」이 용케 조화되는 곳도 군대이며 「조리」와 「부조리」가 묘하게 대조적인 「하아모니」를 이루게 되는 것도 군대다.

왜냐하면 인간 바로 그 자체가 이러한 모순을 다 함께 지니고 있는 묘하고 신비스런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고 동시에 언제나 생과 사의 경계선을 뚜렷하게 실감하고 있기 때문에 논리의 모순보다도 더 진실한 생의 진리를 알게 되는 것이라 하겠다.

또 한 가지 군대에서 새롭게 느낄 수 있는 새로운 사실은 밖에서와는 달리 인간의 육체가 지니고 있는 직감(直感)과 예감(豫感) 또는 영감(靈感)이 얼마나 무서우리 만큼 예민한가를 깨닫게 되고 또 그런 제 5차원의 감각이 자기도 모르게 발달한다는 사실이다.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 지금까지는 무시하거나 경시해 버렸던 우리 자신의 육체적인 기능이 정신적인 것이 상으로 더 예리하게 진실과 허위를 적감적으로 판단하고 알아낸다는 것이다.

백 마디, 천 마디 말 보다도 더 효력 있고 중요한 작용과 영향을 사람에게 주는 것이 곧 그 인간 됨됨의 태도와 인상과 표정과 하나 하나의 행동자체인 것이다.

그러기 때문에 말 잘하고 말 많이 하

는 지휘관이 반드시 좋은 지휘관이고 부하에게 존경을 받고 있는 훌륭한 지휘관이 아니다.

말을 잘 못하고 말이 적다고 해서 훌륭한 지휘관이 못 된다는 법이 없다. 오히려 말이 적기 때문에 더 존경받는 수가 많다.

왜 그러냐 하면 군대 안에서는 사람들을 말 안 하고도 무엇이 진실한 것이고 거짓된 것임을 곧 직감적으로 육체적으로 느끼고 깨닫게 되기 때문이다.

정말 그 인간이 어떤 인간인가를 알 수 있는 길은 언제나 마지막 단계나 결박한 정세에서 그의 표정과 태도와 결단과 행동을 보는 것이다.

군대야 말로 인간이 자기 일생 중에서

가장 진실되고 믿을 수 있는 귀중한 친구나 선배나 상관을 인간적으로 만날 수 있는 장소이며 시간이다.

군대 속이 이렇게 귀중한 곳이라는 것을 알고 그것을 기대하고 들어갈 때 그 군대생활은 근본적으로 의미와 가치를 다르게 하고 자기 앞에 주어진 좋은 기회가 되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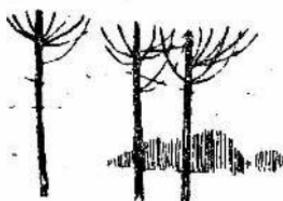
사람이 정말 될 수 있고 사람을 정말 만날 수 있는 기간과 장소가 병영생활이라면 그 속에서 겪는 군대구울과 계급과 명령과 훈련은 참다운 의미에서 인간을 제 발견하고 자기를 제 발견해서 새롭게 형성해 나갈 수 있는 하나의 좋은 인간대학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더 강조하는 바이다.

혼란 없는 안정 속에

중단 없는 전진을!

# 병영생활과 자기미화

—병영은 곧 사회의 연장이다—



## 유 용 대

<현대 경제일보 주필>

### <국가 안전과 민주주의>

요즘 우리나라에는 내년의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여·야간에 국가안보문제를 중심으로 한 논쟁이 크게 벌어지고 있다. 즉 신민당의 대통령후보자가 내가 당선되면 예비군은 철폐한다는 발언을 하자 이것이 파문을 일으킨 것이다. 김일성을 피수로 한 복귀가 남침을 위한 전쟁준비를 완료 했다고 밝히고 있는 때에 후방의 내 고장 내 직장을 사수하기 위해 만들어진 예비군을 없앤다고 했으므로 이는 간단한 일이 아니라고 여당과 정부는 판단 분석한 것이다. 그뿐 아니라, 최근 생포된 남파부장간첩은 예비군 때문에 복귀가 매우 근심을 하고 있다는

것을 자백한 바 있다.

또 많은 지식층의 인사들도 이런 때에 예비군을 없앤다는 것은 부모한 발언이라고 지적하기에 이르렀다. 여론이 나빠진 것이다. 그래서 신민당은 없앤다는 발언을 고쳐서 대안을 내게 되었다. 결국 이렇게 해서 지금의 예비군 임무수행보다 약간 수월한 내용으로 고친 대신 예산이 몇 십배나 늘어난 것에 그친 것이다. 더 말할나위없이 예비군에 복무하는 동안 직장을 가졌거나 아니면 장사를 하는 사람들은 그만큼 사생활에 마이너스를 가져오고 또 귀찮게 여기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니까 바로 그 기피하고 불만으로 여기는 예비군 해당자들의 심리

를 이용해서 선거때 동정공감 표를 얻으려는 것이 지금의 예비군 논쟁의 발단임은 확실하다.

언론자유가 보장된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선거작전상 유리하다고 생각되었을 때 군중심리를 이용하기 위한 「아지프로」가 조직화에 갖가지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는 것은 흔히 있는 일이다. 심지어 탄압을 하면 더욱 유리하다는 정치풍토를 미리 계산해서 나를 잡아가지고까지 뱃장을 부리는데까지 선거운동이 분수를 넘고 있는 것이 오늘 우리나라 현실이다. 여기에 우리는 예비군 논쟁에 끼어들어 의견을 말하기 보나 국가안보문제가 선거도구로 이용될 수 있느냐 하는 문제를 아니 생각할 수 없다. 물론 안보 문제는 전혀 정치문제화 할 수 없다는 논리는 아니다. 최근의 안보는 국제적으로 집단안보로서 더욱 높고 큰 차원(次元)에서 다루어지고 있는 만큼 오히려 정치성이나 사회성 또는 국제성을 질게 지니고 있다 할 수 있다. 그러나 지금 우리의 국내정세가 북괴의 남침위협 아래 놓여있을 뿐 아니라 정치, 경제, 사회의 제도상의 체제가 공산주의 처럼 자유구속과 독재체제에서 오로지 전쟁준비에 전력을 경주하고 있는 내핍일방의 긴장되고 단결된 생활환경에 비하면 사치방관, 무사안일로 말미암아 허점이 많다.

이런 본질적인 「갯」을 그런대로 보완하고 싸우며 건설하는 분위기를 조성하는데는 기본적인 국가안보를 흔들리게 하는 정치적 이용은 삼가해야 할 것이다.

여기에 민주주의에 대한 회의(懷疑)가 있다. 민주주의는 다수결의 원칙에 입각해서 모든 업무를 처리한다. 그러기 때문에 무슨 수단으로서나 그 다수를 확보하기 위해 총동원된다. 천재도 한 표, 정신병자도 한 표, 애국자도 한 표, 반역자도 한 표, 속이고 있는 한 고정 간첩도 한 표——이것이 민주주의이다.

그러나 현재로서는 이보다 더 나은 방법이 없기 때문에 차선(次善)의 방법으로 오늘의 다수결이 채택되고 있다. 그러기 때문에 일찌기 자유당 때는 사사오입(四拾五入) 개헌파동이던 기상천외의 사건도 파생했던 것이다.

### <병영에서 무엇을 할 것인가>

군인이 군대에 들어가서 정해진 복무를 하는 동안은 기계와 같이 자동적으로 움직일 뿐, 무엇을 할 것인가를 생각할 여지가 없다. 그러나 군대조직이라 해서 먼 나라로 떨어진 사회에 살고 있는 것은 아니다. 조국의 영토 안에서 조국을 지키기 위해 무기를 사용하는 집단이며, 다만 이 집단은 명명부족을 지

상으로 하는 죽음과 삶의 한계에서 국민이 해야 할 병역의무를 완수하는 것이 특징이다.

20년이 걸려야 만들어지는 한 사람의 강정으로 하여금 조국의 국방에 얼마나 보탬있게 몸을 바칠 수 있느냐를 실험하는 엄숙한 과정이 곧 군대이며, 그 군대의 보금자리가 병영이다. 따라서 병영은 인간이 어느정도 전쟁 「매카니즘」에 적응할 수 있는지를 「테스트」하고 또 해야 하는 숙명적인 「체널」이다.

그래서 징병제도가 실시된 것이겠다. 이웃 일본은 경제대국(大國)인가 하던 너무 지나치게 돈만 노리는 나라이기 때문에 국제사회에서는 「경제동물」(Economic Animal)이라고 까지 악평을 받고 있으나 그들은 징병제도가 없다. 「평화헌법」이라 해서 전쟁 반대 즉 무장반대의 기본이념을 반영한 헌법 때문에 징병제도가 없다. 그 대신 지원병형식으로 사실상 군대가 형성되고 있으며 그들의 보안대가 가진 화력(火力)은 우리나라 보다 월등히 높다고 한다. 다만 그러나 제도상 징병이 없으므로 해서 젊은이들에게는 병역의무가 없는 것이다. 군대를 모르는 청년이라 다만 「엔조이」만 추구하게 된다. 게다가 국민들의 소득이 높아서 잘 산다. 하나까 징병에 염증이 난 사람들이 보면 부러운 환경이라 할 것이

다. 그러나 일본의 재무장은 눈앞에 다가선 것이다. 서독도 마찬가지이다.

이에 비해 우리의 환경은 불행히도 김일성이 전무후무한 악질공산주의 피수가 피피집단을 만들어 항상 남침을 노리고 있기 때문에 전 국민이 무장하지 않고서는 마을 놓고 생활할 수 없게끔 국방부답이 크다. 하기야 이스라엘의 경우도 우리에게 못지 않게 국민개병(皆兵)의 무장을 하고 또 경제건설을 해야 하는 점이 우리와 비슷하다.

이제 세계는 「유엔」을 통해 냉전을 조절하고 흡수해서 열전방지를 하느냐 아니면 「유엔」마저 허수아비가 되고 드디어 열전을 향해 돌진하는 인류파국의 운명에 빠지느냐의 기로에 서 있다는 인상이다. 우리는 이러한 세계정세와 북괴남침의 위협이나 국내사정 사이에서 경제건설 또한 세계적인 고도성장을 해내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환경 속에서 우리 군대는 또한 막강을 자랑하고 멀리 월남전선에까지 가서 방공전쟁에 가담하고 있는 것이다.

<민족 분열을 막는 「엘리트」가 되자>

병영은 하나의 「단순생산 의사회」이다. 그러기 때문에 잡념을 잊어야 한다. 오직 국토방위에 필요한 군대의 사명을 다 하는데만 전심전력 하면 되는

것이다. 그러기 때문에 이 사회에서는 소위 「확대재생산」의 과정이 없다. 자기 일기도 못쓰는 문맹(文盲)자와 대학 졸업자가 한 조직체 안에서 운명을 함께 하는 전우끼리의 사회이다. 동시에 그런 조직 사회에서는 문필적 은인이 존재할 수 없다. 만약 같은 군대조직 분자가 분열한다면 그 군대는 전쟁에 패배한다. 또한 군대에서의 존재가치마저 상실한다. 이것이 군대의 특징이자 사명이다. 그러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사회가 불신 「不信」과 분열(分裂)로 서로가 헐뜯고 비방하고 모함하는 양상을 마구 들어 내고 있는 때다. 그런 현상은 결코 건전(健全)사회라 할 수 없다. 따라서 이러한 사회를 개조하는 「엘리트」는 바로 군대에서 전쟁 교육을 받고 나온 조직된 젊은이들이 아닐 수 없다.

이런 생각을 병영단에서 해야 한다고 하던 지나친 소방이라 할 것인가. 아니다. 물론 일반사회는 복잡 다기한 복수 사회이다. 군대처럼 지휘관에 절대 복종하지 않는다.

민주주의를 잘못 해석해서 각자가 제멋대로 놀아나는 것이라고 과시하는 현상이 없지 않다. 그런 바탕에서 제대군인이 끼어있어 봤자 속절없다. 오히려 군인 자신이 하루바삐 그 자유스러운 「마음대로」의 사회에 용해(溶解)되기를 바

라는 나머지 아무도 제멋대로의 사회 질서를 타할 사람은 없게 될지 모른다. 바로 이런 역조(歷調)현상을 바로잡기 위해 나서주기를 바라고 싶다.

내가 써야 할 글이 이런 것이 어서는 아니 될는지 모르지만 나는 군대란 존재가 평화시대에도 필요한 이유를 생각할 때 이런 생각을 않을 수 없다. 백만대군을 조직 편성하고 있는 이상 그 위대하고도 막강한 최대 최고의 조직을 다만 전쟁기술 훈련으로만 그칠 수는 없기 때문이다. 다만 병역의무는 모든 국민이 다같이 지냈기 때문에 별로 특별한 존재로서의 의식구분이 없다는 것을 들 수 있겠다. 그러나 실상은 그 특별한 존재가 아니고 보통이란데서 오히려 대중화의 존재가치가 있지 않을까. 대중 속의 군대, 사회 연장으로로서의 군대, 국가민족의 분열을 막아내는 군대—그런 군대 이기를 바랄 수 있는 것이 아닌가.

다수로 형성된 조직분자는 일단 그 직에서 벗어나서 하나하나의 개인으로 돌아갔을 때 스스로 바람도 없음을 발견한다. 그러기 때문에 군대를 나오자마자 병영에서 생각하는 모든 상념(想念)은 꿈으로 돌아간다. 이 점이 중요하다. 그러나 여기서 그 꿈을 현실화 시키는 「모멘트」를 각자 놓여진 위치에서 소생시키는 방법을 생각하자는 것이다.

# 상하조직 속의 휴머니즘



(특히 상사가 부하를 다루기 위해)

## △ 군대의 상하조직

군대는 국가 사회의 안녕과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존재하는 조직체이다. 사회의 어떤 단체나 그 행위를 효과적으로 이끌어 나가려면 그 단체의 성원이 한결같이 협조하여야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일부가 생사와 연결되는 군대에 있어서는 협조의 문제가 다른 어느 단체보다도 심각하게 다루어 진다.

이 협조의 절대적인 필요성은 군 단이 가지는 독특한 명령과 복종이라는 규범을 낳게 한다.

명령과 복종이라는 주종관계가 가장 효과적으로 이루어지려면 또한 사회제중 제도가 엄격해야 된다.

군대사회가 민간사회와 현저하게 다른 점은 ① 복종을 해야 하는 조직, ② 엄격한 사회제중제도——제급에 관한 것이 상세하게 공식적으로 구분되어 있고 이의 위반에 대한 벌칙이 설정되어 있는 점 ③ 전통에 입각한 행위의 강조와 자발적행위의 제약을 들 수 있다.

군대가 전통사회라는 점도 결국 군대사회가 엄격한 제급제도에 의하여서만 통제된다는 특징에서 파생되는 것이다.

종래의 군대는 보수적이며 군기 유지에 있어서는 특제적 방법을 써온 경향이 매우 농후했는데 그 원인은 나라와 시대에 따라 달랐다.

군이라는 하나의 조직체가 건전하게 존속하기 위하여서는 군대규율이 엄격하

게 유지되어야 하는데 과거에는 이 군대가 전통적인방법에 의하여서만 유지되었고 또한 전통적방법에 의했기 때문에 공통술이 독제적으로 흐르게 되었다.

그러나 군대의 파괴력이 격증되고 전락전술이 이에 수반하여 급변되며 막대한 상비군의 유지가 강요되는 현대에 있어서는 기술혁명이라든가 조직의 혁명 등으로 군대의 성격이 크게 달라졌다.

화력이 약하고 빌집편대가 전투의 주요방식이 되어 있던 과거의 군대에 있어서는 직접적이고도 엄격한 훈계만 가지면 능히 부하를 통수할 수 있었다.

그러나 무기가 발달하고 그 파괴력이 증강된 현대전투에 있어서는 각 부대간 그리고 개인과 개인 간의 폭이 넓어졌기 때문에 전투행위가 일단 벌어지면 각 부대나 각 개인은 독단활용의 여지를 최대한으로 발휘하지 않으면 안 되게 되었다.

미국의 예이지만 에이스(ACE)가 되려면 물론 고도의 비행술이라든가 사격술이 필요하고 전투시에 정식 지휘계통의 일원으로써 엄격한 명령에 의한 기동력도 필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개인의 자발적인 노력과 왕성한 사기인 것이다.

뿐만 아니라 이들은 또한 개인의 자주적인 사고력과 행위를 고도로 활용하여야 한다.

미 공군의 『신훈련 예규』는 군대에 있어서의 개인의 중요성을 다음과 같이 역설하고 있다.

즉 전세대에 있어서는 군대의 성원은 합법적인 명령에 복종만 하면 되었으나 현대에서는 군대성원의 개개인은 그가 예속하는 부대의 복지를 위하여 자발적으로 예속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한 예속은 만약 지휘관의 명령이 충분히 수행될 수 없는 경우일지라도 견고한 단체행위를 지속시킬 수 있는 원동력이 될 수 있는 것이다.

그러한 예속성을 우리는 군대정신이라고 부른다.

상관의 권위를 인정한다는 것은 개인의 행동의 자유를 포기한다든가 개인은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것을 뜻하는 것이 아니다.

개개인의 적극적인 협조가 요구되며 단체성원을 완성된 인격체로서 존중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진정한 규율이란 어떤 개인이 타인에게 명령을 내리는 것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군인을 훈육한다든가 명령에 복종시키려면 다만 맹목적인 복종만을 요구하여서는 안 된다.

하급자에게 가급적이면 명령에 앞서 설명을 한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

전체주의체제의 특징은 개인의 개성을 탈살하는 것이며, 민주주의체제의 그것은 개성을 최고도로 발전시키는 것이다.

홍망의 위기에 처하여 거의 통제력을 잃었던 대영제국의 군대가 용맹하게 싸워 이길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의 이러한 목적의식에 입각한 자발적인 예속이 없었던들 불가능 하였을 것이다.

평등이라든가 기회균등에 대한 대중의 요구는 사회의 산업화와 정비례하여 증대되어 왔으며 사회에 있어서의 생활수준의 향상은 군대생활의 불편에 대한 내구력을 약화시켰다.

산업화된 도시방식은 전세기보다 더 강하게 군대에 스며들어 가기때문에 군인들은 이제는 맹목적인 행동을 꺼려하고 지휘관으로부터 각종의 설명을 얻거나 기대한다.

사회관계, 개인적 지도력, 물질적 이익, 이념의 고취, 정의, 전쟁목적의 타당성 등은 이제는 모두 군대사기의 형성요소이다.

군의 질서유지가 지배적인 방법에서 조종적이며 설득의 방법으로 바뀌었다는 것은 바꾸어 말하면 군 질서의 유지는 「군대관리」라는 기술을 통하여 이루어지게 되었다는 말과 같은 뜻이다.

그런데 이것은 결코 군 운영에 있어서 계급 또는 권한의 소재를 무시하여도 좋

다는. 말은 아니다.

오히려 군 관리의 목적은 군 운영에 관한 기술적인 면이라든가 부대원의 상호관계를 잘 통제하여 부대 전원이 일정한 결정사항을 수행함에 있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고 기풍을 조성하는데 있다.

군 조직은 개개인이 어떤 직무를 수행하는데 있어서 의례히 상관의 명령을 받도록 편성되어 있다.

그러나 부대의 성원이 자발적으로 결단성있게 직무를 수행하느냐 안 하느냐의 문제는 군의 조직기술과 관리기술에 달려있는 것이다.

군 운용에 있어서도 이제는 지휘보다도 통솔이 더 중요시 되는 것도 바로 이러한 관계 때문인 것이다.

따라서 군기에 영향을 주는 요소는 자존심, 효율, 모우티브, 생산력, 충성심, 사기와 단결심, 임무의 이해 등이라고 할 수 있다.

전술단위에 있어서의 장교도 이제는 호령만을 하는 장교가 되어서는 안 된다. 이제는 그들은 예하의 각 전문적 기술자를 조정하는 초급 관리인적인 입장에 서야 한다.

군기가 지배형식으로만 유지되면 시기에는 장교는 단지 지배자로서의 장교와 피지배자로서의 부하 사이에는 엄격한

계급적 등차가 있다는 점 만을 부하들에게 인식만 시키면 그 것으로 족하였다.

그러나 오늘날의 통솔자는 전단이라는 가법적인 제재에 의존하지 않고서도 부하를 이끌 수 있다는 자기의 역량을 알기 위하여 끊임 없이 자기의 기술과 능력을 부하들에게 시위하여야 한다.

장교는 자기 부하의 능력과 효율과 충성에 대하여 신뢰심을 가져야 한다.

이러한 것은 장교들에게 무거운 책임을 부과시키는 것과 같다.

즉, 장교는 일상 자기 부하들에게 자기를 신뢰할 수 있도록 자기의 능력이 충분함을 인식시켜야 한다.

장교는 자기 부하들에게 프라이드를 주고 자존심을 가지게 하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

군대가 사람의 집단인 만큼 그 구성원은 다양다색 할 수 밖에 없다.

인간이 각자 얼굴이 같지 않은 것처럼 성격, 지능, 체격, 소질 등 신체적, 정신적 모든 면에 개인차가 있으며 또 이 개인차는 무시할 수 없을 만큼 큰 것이다.

이와 같은 개인차의 원칙은 아주 기본적인 것임에도 불구하고 상사들의 인식이 충분히 되어 있지 못할 수 있다.

상사는 부하들의 노력을 구해서 임무를 달성하는 리더이므로 부하 개개인

에 관한 충분한 지식과 이해가 없이는 자기의 기능을 잘 발휘할 수 없다.

부하들의 협력을 얻기 위하여서는 부하들과 함께 일하며 그들의 인격의 다이나믹한 표현과 행동을 분석하고 해석할 줄 알아야 한다.

불신과 대립이 생기는 근본적인 원인은 인간상호간의 이해부족에 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상사로서는 먼저 부하들 알아야 하는 것이 중요한 일이지만 무엇을 얼마나 알면 될까, 부하들의 동기나 행동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심리학적 원리를 전반적으로 알아야 한다.

인간의 행동은 개인과 환경의 함수인데 군대도 이것이 적용된다.

그러므로 인간행동을 이해하려면 곧 그 인간의 인격과 환경을 다 알아야 한다.

물론 이것은 용이한 일은 아니다.

인간만큼 복잡한 유기체는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상사로서는 이 난관을 극복하지 않고서는 만족스러운 부하통솔을 바랄 수 없다.

그렇다고 심리학의 대가가 되어야 한다는 뜻은 아니다.

기본적인 원리를 이해하고 실천해야 한다는 것 뿐이다.

부하를 이해하기 위하여서는 병영 내에서의 행동은 물론 사적인 가정생활에 관한 정보까지도 가져야 한다.

왜냐하면 병영에서의 행동변화의 주요 원인은 대부분 병영의 활동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이다.

병영내생활과 병영의 생활을 분리하여 생각하는 것은 잘못이다.

부하의 행동은 하나의 전체로서의 인간행동인 것이다.

그러므로 그의 행동은 환경별로 분리시켜서는 이해할 수 없는 것이다.

위에서 병영의 활동까지 아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나 우리가 아무리 부하들의 병영의 활동에 대한 정보를 갖는다 해도 그것 만으로는 큰 도움이 될 수 없다.

얼핏 모순된 이야기같지만 실은 그들의 현재의 행동은 그 대부분이 이미 습관화 된 행동이기 때문이다.

행동습관의 대부분은 8세 이전 또는 유아기에 발달된다.

그러므로 부하를 궁극적으로 이해하려면 그로 하여금 현재의 모든 인격적 특징을 지니게 한 흥미, 교육적 배경, 유아기 및 아동기 경험, 육구, 태도 등에 관한 다각적인 생활사를 알 필요가 있는 것이다.

이렇게 될 때 비로소 그에게서 기대할

수 있는 능력의 한계와 그의 동기를 만족시키거나 강화시킬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 발견될 수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이 해서 개개의 부하를 알고 또 각 부하간의 특징적 차를 발견할 수 있다면 그는 상사로서의 최대의 무기를 갖춘 셈이 된다.

그리고 매일 부하들과 친밀하게 대담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단 한 마디라도 좋다. 부하들이 작업상의 문제 뿐만 아니라 개인적인 문제까지도 상사와 의논하고 싶은 마음을 가질 만큼 감정적으로 서로 가까워져야 한다.

즉 친근감을 주어야 한다.

특히 신병과는 단시일 내에 친숙해 지도록 더욱 마음을 써야 한다.

짧은 대담 만으로 부하에 관해서 충분히 알 수 없을 때는 인사기록카드 등을 통해서라도 부하 개개인에 대한 가능한 모든 정보를 얻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대부분의 학생들은 선생님이 자기 이름을 알고 있으면 굉장히 기뻐한다.

마찬가지로 부하들은 상사가 자기 이름을 기억하여 주고 여러가지로 염려하여 줄 때 더욱 친근해질 수 있는 것이다.

감정적으로 접근될 수록 그만큼 진심으로 부터의 협동정신이 발휘되는 것이다.

상사가 부하와 친근해지는 방법은 한마디로 말해서 그들과 가까이 지내고 그들을 알고 이해하는 것이다.

너무 냉담하고 위선 만을 고집해서 부하들이 상사를 제쳐놓아버려도 안 되고. 좀 친근해짐에 따라 상사로서의 권위를 너무 상실해 버려도 문제이다.

부하를 아는 방법에는 관찰 및 경청이 있다.

상사가 부하의 행동을 해석할 때는 주관적 편견이나 선입관에 억매이지 않고 완전히 객관적으로 할 수 있는 노력을 해야 한다.

사실만을 관찰하고 어떠한 추측 등이 개입되어서는 안 된다.

경청하는 것은 하나의 특수한 기술이다. 상사로서의 기본적 자질을 갖추려면 경청하는 기술을 습득해야 한다.

상사가 부하들의 말을 듣는다는 것은 아주 간단한 일로 보이지만 실은 가장 어려운 문제인 것이다.

인간은 누구나 자기표현을 하고 싶어 하는 욕구를 가지고 있다.

우리가 남에게 충고하고 싶어 하고 설교하고 싶어하는 것은 그것이 자기표현의 욕구를 만족시키기 때문이다.

즉 우리는 자기존재를 나타내고 싶어 하는데 이러한 경향성은 내개 무의식적으로 작용한다.

상사는 부하들의 숨겨져 있는 주된 동기를 아는 것이 그를 통솔함에 있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를 깨달아야 한다.

부하들은 상사에게 험사러 마음을 털어놓지 않는다.

특히 뜻이 맞는 친구들에게만 마음을 털어놓듯이 상사와의 상호신뢰가 두텁지 않을 때는 마음을 개방하지 않는다.

또 부하가 아무리 의논하고 싶어도 상사가 무관심하고 열심히 경청해 주지 않을 때에는 불신하게 되고 진정으로 이야기 하지 않게 된다.

그러므로 열심히 경청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재인식하여야 할 것이다.

#### ◇ 훌륭한 부하가 되려면

가장 훌륭한 부하는 가장 훌륭한 상사가 될 자격이 있는 사람이다.

이것을 바꾸어 말하면 『가장 훌륭한 상사는 일적이 가장 훌륭한 부하로서 군무한 일이 있는 사람이다』라고 할 수 있다.

순조롭게 떨어나갈 자격이 있는 군인이라는 것은 지배욕이라는 과도한 욕망을 갖지 않고 개성을 성장시키고 또한 자기선전도 하지 않고 동료의 욕도 하지 않는다.

즉 언제나 꾸준하고 초조하지 않고 공정하고 낭비를 피하고 또 맹목적이거나

저절적이 아닌 군인은 승진할 수 있다.

서두르지 않고, 무리한 것을 하지 않고, 언제나 같은 베이스로 언제나 유모어와 근면을 가지고 일한다.

『언제나 변함없는 인간이 된다는 것은 하나의 위대한 일이다』라고 로마시대의 철학자 「세네카」가 말했지만 확실히 언제 만나도 구김살 없이 행동하는 인간은 위대한 사람이라 할 수 있다.

사람은 평생 최고 목표인 자기의 인간 완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는데 이것은 군인도 예외가 아니다.

인간적으로 수량이 되어있는 사람은 설사 느린 것 같지만 어쩐지 속이 깊어 보인다.

군인은 늘 어떤 희망을 가져야 한다. 희망이 있는데 반드시 발전이 있다.

발전은 노력을 필요로 함으로 희망에 불탄다는 것은 노력을 계속한다는 것과 일치된다.

노력하고 있는 사람은 군의 일도 원만히 처리할 수 있고 또 근무시간 외의 자유시간에도 희망을 위하여 또 그것과 연관되는 자기 발전을 위하여 군의 일에 관련되는 연구 등에 쓰게 된다.

그리고 그 노력의 결과가 스스로 어떤 일의 전문가적인 존재가 되고 주위에서도 높이 평가되는 것이다.

따라서 자기도 노력하는데 흥미를 갖

게 되고 더욱 더 일에 정진하고 마침내는 명실공히 전문가적인 지위를 확보하게 되는 것이다.

군대생활은 험악한 상태를 전제로 한다.

그럴 때 아무런 희망도 갖지 않으면 위축되고 결국 그릇판단해서 운명을 재촉하게 된다.

또 자기의 힘을 믿는다는 것은 자기의 인생을 명랑하게 하고 희망에 넘친 인생을 보낸다는 순환적인 작용을 해 준다.

또 자기 신뢰는 자기의 인생에 대하여 침착이라는 것을 준다.

그러나 자기 신뢰가 자기 과신에 빠지면 침착은 고사하고 그 반대의 허장성세의 성격이 되 버리므로 이점 자기 신뢰가 자기 과신이 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거듭 말하지만 군대의 기본구성이 인간이기 때문에 상하조직의 화합과 단결은 화목한 분위기에서 찾을 수 있다.

수신 계가 치국 평천하라는 격언이 있지만 상하조직의 화목 없이는 훌륭한 군대가 성립될 수 없다.

훌륭한 군대에는 명장도 많이 있어야 하지만 규율이 엄하면서도 화목한 기풍이 넘쳐흐르는 사병들로 조직되어야 한다.

그러려면 휴우머니즘이 팽배한 조직으로 일상근무를 게을리 하지 않는 훌륭한 군대가 되어 질 것이다.

## <군 종 코 너>

- 정신교육의 성과판단
- 정신교육의 교안
- 믿음의 실제적 가치
- 정신교육의 목표
- 정신교육과 병행해야 할 문제들
- 네 자신을 알라
- 참된친구
- 정신교육의 방법 비판



### 정 신 교 육 의 성 과 판 단

군  
부  
김  
득  
중



태세 완비 및 전력강화의 굳건한 토대가 된다는 사실은 어느 누구도 부정할 수 없다. 태평양 전쟁 당시 패배일로물 건고 있던 일본군이 그 유명한 가미가제 특공대, 즉 신부우 독고다이(神風特攻隊)로서 연합군을 공포 속으로 몰아넣던 일본군의 강한 정신자세는 군 정신자세의 귀감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더구나 그 특공대가 전적으로 지원에 의해 시각된 것이었음을 보건데 비록 패하기는 했어도 그 조그만 일본이 강대국을 향해 그토록 강했던 이유의 한 면을 우리는 엿볼 수 있다. 또한 아랍제국과 이스라엘 간의 그 유명한 6일전쟁에서도 병력로나 국력으로나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약했던 이스라엘이 그렇게도 쉽게 아랍제국을 제압한 것은 한 마디로 이스라엘군의 강력한 정신자세에 있었다고 말할 수 있다. 우리는 그 사실을 전쟁돌발

#### 1. 정신교육의 중요성

군인의 정신자세 확립이야말로 전투

소식이 전해졌을 때 미국 안에 유학 중이던 대부분의 아랍 청년들은 쟁여나 그들의 조국으로부터 소집령장이라도 나올까 보아서 자취없이 숨어버린 반면에 수많은 이스라엘 청년들은 자기의 조국으로 돌아가 전쟁에 참여하기 위해 비행장으로 물러들었다는 입화에서 찾아볼 수가 있다.

국가와 민족 의식에 뿌리박은 이같은 굳건한 정신자세야말로 무엇보다도 강력한 전력의 아닐 수 없다. 이런 점에서 보건데 군의 강력한 전투훈련과 함께 철저한 정신교육은 강군을 이루는 2대 요소라 아니 할 수 없다. 그런고로 무엇보다도 군정신교육은 사고예방을 위해 문제사병선도나 하는 소극적 태도에서 떠나 확고한 정신자세 확립과 건전한 인격형성을 위한 적극적 방향으로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 2. 벽고지 장병들의 정신상태

준전시상태의 체제를 이루고 있는 현 상황에서 마땅히 확고한 군정신자세 확립으로 막강의 전력을 형성해야 할 공군의 제 1선 벽고지 장병들의 정신상태는 적지 아니 해이되어 있음을 부정할 길이 없다. 우선 잘못된 복무자세부터 지적할 수 있다. 사병은 사병대로 군복무의 의무감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연환을 충족시키기 위해 날짜 가기만을 바라며 나날을 허비함으로써 수동적, 소극적, 도피

적 사고방식에 젖어가고 있고, 적지않은 하사관들은 군복무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자기 자신의 이익에 만 사로잡혀 대의(大義)보다는 소의(小義)에 살고, 있고 간혹 어떤 장교들은 연장복무 및 장기복무에 대한 후회와 불만으로 자포자기 상태에 있고 여러가지로 장병의 모범적 위치에 서야 함에도 아무런 지도적 역할을 발휘하지 못한 채 근무의욕을 잃어가고 있기도 하다.

마음으로는 벽고지 생활에 대한 불만과 벽고지 근무를 하게 되는 특기에 대한 불만에 사로잡혀 있는 점이다.

물론 벽고지이기에 어쩔 수 없이 당하게 되는 핸디캡이 한 두 가지가 아닌진 사실이다.

예를 들면 도시 및 가족, 친지로부터의 격리감과 소외감, 교통의 불편, 외출, 휴가 혜택의 제한, 식생활의 불편, 건강장애, 겨울추위, 과중한 경계임무 등등이 그러할 것이다. 어느 면에서나 벽고지 장병들이 더 많은 애로점을 갖고 더 많은 수고를 하고 있는게 사실일지도 모른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현 정세와 상황을 올바르게 생각할 때, 안일한 사고방식에 젖어 불평불만을 함으로써 본연의 임무 수행을 소홀히 하거나 강력한 전투태세완비를 약화시켜서는 안 된다. 오히려 남보다도 더욱 막중한 책임을 맡아

## <군중코너>

있다는 인식과 긍지로서 더욱 더 확고한 정신자세를 갖추도록 힘써야 할 것이다.

### 3. 벽고지 장병들의 문제점

그런데 특수한 벽고지에서 당하는 여타가치 애로점들을 스스로 극복하지 못하고, 또 자신을 거기에 적절히 순응시키지 못함으로써 많은 사고와 문제점들이 나타나고 있다.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본다면, 특히 무단이탈, 미귀영, 폭음 폭행 불평불만, 군무비반 등등이다. 물론 이상의 문제점들과 사고들이 벽고지 안에서만 볼 수 있는 현상은 아니고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사고이기도 하지만 특별히 벽고지의 애로점들을 생각해 볼 때 이런 문제들은 그 애로점들을 극복하지 못해서 나타나게 되는 직접적 결과로 볼 수 있는 것이다.

더구나 이런 문제들의 요인은 주로 장병들의 정신상태에서 오는 것이 대부분이다. 즉 좀더 확고한 정신자세, 강력한 정신풀력, 그리고 올바른 판단력의 결여로 생겨나는 것들이다. 그러므로 이런 사고들을 보더라도 정신교육을 통한 정신자세 확립이 그 무엇보다도 요구된다고 할 것이다.

### 4. 정신교육의 목표

벽고지 장병들의 정신상태와 문제점들을 생각할 때 군 정신교육은 최소한도 다음의 세 가지 목표를 달성함으로써 장

병의 건전한 인격형성과 군인으로서의 확고한 정신자세를 확립할 수 있다고 생각된다.

① 책임의식의 고취: 우선 자기 자신에 대한 책임부터 질 수 있어야 한다. 거기엔 자신을 제어할 수 있는 인격의 힘이 어느 정도 필요하다. 극복을 입었다고 해서, 또 특수한 근무지역에 있다고 해서 자신을 분잡아 매두고 있는 양심과 인격의 사슬을 끊어버려 자신을 방종에 내어맡기거나 또는 자신을 너무 학대하는 등 자신을 다스리지 못함으로써 사고를 일으키고 자기의 성격을 그릇된 방향으로 이끌지 않도록 우선 자기 자신에 대해 책임을 질 수 있겠끔 해야 한다.

다음으론 자기가 맡은 군무, 임무, 직책에 대한 책임이다. 비록 그것이 초소경비이건, 청소이건, 스코우프를 지키는 일이건 아니던 레이다를 정비하는 일이건 그것이 자기의 임무일 때, 그것에 책임을 지고 성실하게 수행하는 정신이 필요하다. 군인 각자가 자기 일에 충실하고 자기 임무에 책임을 다할 때, 군 전체의 책임이 완수되는 것임을 인식해야 한다.

조그만 부속품 하나의 잘못으로 비행기가 떨어지고, 레이다가 고장남으로서 군본연의 임무를 못하게 됨을 생각할 때 아무 것도 아닌 것 같고, 있으나 마나한

것 같은 자기 하나의 임무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재삼 인식해야 한다.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 공군 본연의 방공임무가 “완전무결”하게 성취될 것이기 때문이다.

② 공동의식의 고취: 군에서는 장병 한 사람 한 사람이 중요하기는 하다. 그러나 그 하나는 전체의 일원이지, 결코 독립된 하나가 아님을 망각해선 안 된다. 내가 있듯이, 나의 옆에는 나의 전우가 있음을 알아야 한다. 그래서 “나”보다는 “우리”를 생각할 수 있어야 한다. 전우애도 “우리” 의식에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기에 자신 만을 생각하는 개인주의적, 이기주의적 사고방식은 근절되어야만 한다. 그런 사고방식이 근절되지 않는 한 인화단결이란 말은 헛구호에 그칠 것이며, 인화단결이 되지 못하는 한 군의 전력이 강화될 수는 없는 것이다. 너 나아가 우리는 국가와 민족의 일원임을 자각해야 한다. 한 가정이 몰락했을 때, 그 가정을 다시 살리기 위해선 가족 한 사람, 한 사람이 밟고 나서야 한다. 마찬가지로 국가와 민족이 위기에 처했을 때,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선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특히 오늘날과 같이 복귀의 침입 위험이 있을 때엔 국토방위의 중책을 받고 있는 군인이 몸바쳐 국가와 민족을 수호해야 할

것이다. 비록 국가와 민족이 내게 커다란 혜택을 주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그리고 내가 국가와 민족으로부터 커다란 보답과 보상을 받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국가와 겨레의 자식으로서, 오늘의 나를 있게 해 준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최선의 봉사물, 최선의 희생물 할 수 있는 마음 자세가 필요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보다 확고한 국가정신, 민족의식이 우리 인격에 깊이 뿌리박아야 할 것이다.

③ 적극적 긍정적 사고방식의 고취: 우리의 생활주변, 우리부대의 형편 등을 생각해 볼 때, 담당한 것이 너무 많고 비판적이며 절망적인 사실들이 너무 많은 것 같다. 그래서 흔히 불평불만이 입에 오르내린다. 그러는 중에 많은 장병들은 비판적인, 소극적인, 부정적인, 도피적 사고방식에 젖어버려 지휘관의 부대운영방침이나 통솔에 대해서도 참여보다는 도피, 협조보다는 불평을 하기가 일쑤이다. 그러나 비단 군 생활에서만 아니라 일반 사회에 있어서도 비판적, 부정적, 소극적 사고방식 만이 지배하는 한, 그 사전에는 진보, 발전, 창조, 건설, 개선이란 말이 없기 마련이다. 그러기에 자신의 올바른 인격 성장을 위해서나 부대의 건전한 운영통솔을 위해서도 적극적, 긍정적 사고방식을 갖고 참여하고 협조하고 이해하는 일이 중요하다.

또한 피동적인 자세에서 “국가가, 그리고 부대가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해 준단 말인가?”하는 생각에 몰두할 것이 아니라 능동적인 자세로서 “나는 과연 국가와 민족을 위하여 그리고 지금 내가 속해 있는 이 부대를 위하여 무엇을 했나?” 하는 질문을 자신에게 던져보아야 할 것이다. 군 복무자체도 이런 적극적, 긍정적 사고방식을 갖고 입할 때, 즉 군 복무 기간이 자기 발전의 장애나 자기 일생의 마이너스 기간이라고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대신, 오히려 자기 신체의 단련기간이요 자기 인격의 수련기간이라고 적극적으로 생각할 때, 군 자체의 막강한 전력 형성 뿐만 아니라 각 개인의 올바른 인격 형성을 위해서도 크나큰 보람이 될 것이다.

### 5. 정신교육의 방법론

위에서 말한 정신교육의 세 가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정신교육의 방법은 주로 다음과 같은 세 가지가 아닐까 한다.

① Counseling (Psychoterophy): 사교사병이나 문제사병 그리고 특수한 문제로 인해 고민하는 장병들을 개인 상담하면서 Case by Case로 선도하며 정신교육시키는 방법이다. 그러나 범위로 보아 극히 제한적이며 또한 특히 상담자가 내담자를 찾아 상담하는 경우 레포(Rapport) 형성이 힘든 문제점이 있다.

② 토론(Person to Person Discussing Method): 내부반장이나 직장 등에서 개인적으로나 그루우프 별로 만나 서로 토론함으로써 의사소통을 하고, 그러면서 그들의 문제나 그들의 정신자세에 대해, 또는 부대운영 방침에 대해 실풍시키며 지도하는 방법이다. Informal한 시기와 장소라는 점에서 분위기가 부드러울 수 있고 따라서 효과도 적지 않은 방법이다.

③ 집단교육: 상담과 토론은 대상의 범위가 좁으므로 그 방법만을 가지고선 많은 장병의 정신교육은 불가능하다. 따라서 많은 장병을 집단적으로 집합시켜 실시하는 교육의 기회가 있게 되는데 여기선 주로 일방적인 교육이 되게 마련이며 간혹 행사적인, 훈련적인 인상이 있어 장병들의 호감과 효과가 의문시되는 문제점이 있다. 강제적 집합이란 그 자체에 대한 장병들의 반응이 그리 좋을리가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군이라는 특수성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필요한 방법이 아닐 수 없다.

### 6. 성과 판단과 그 결론

정신교육 그 자체가 정신, 인격, 인간 내부의 심리적 성향 등 눈에 안 보이는 면을 다루는 것이기에 정신교육의 성과가 얼마나 큰지 그때 그때 숫자로 나타낼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다. 즉 정신교

육의 결과나 성과를 외적으로 측정하기는 곤란하다. 그러나 정신교육 그 자체가 인격성장이나 정신지도, 성격지도를 하는 것이기에 그것 자체가 성과일 수 있다. 비록 인간개조는 못할 망정 인격지도나 성격선도는 그것대로 그것 만큼의 성과를 갖는 것이기 때문이다. 고로 문제는 성과가 아니라 효과의 정도일 것이다.

아무리 교육의 목표와 방법이 훌륭하다고 하더라도 정신교육 담당의 주체인 군종장교의 권위와 실력이 전제되지 않는 한 그 효과는 기대되기 어렵다. 그런데 군종장교의 권위문제는 당사자 자신의 문제만이 아니라 부대 분위기 및 지휘관의 영향이 많기에 지휘관의 적극적 관심과 배려가 요구된다. 군 사회가 명령과 계급의 사회이기에 계급도 낮고 명령권한도 없는 군종장교의 권위와 지위는 지휘관이 확보해 주어야 한다. 적어도 그 지휘관이 정신교육의 효과를 기대한다면 말이다. 그리고 정신교육 자체에 지휘관 자신이 직접 그리고 상당한 관심을 갖고 참여해야 된다. 더구나 벽고지장병들이 정신교육을 통해서 해결되는 것 보다는 지휘관의 폭있는 부대운영이나 통솔도 많이 좌우되기에 지휘관의 관심이 참여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또 다른 하나는 군종장교의 실력문제와 함

계 성실성 및 책임의식의 문제이다. 성실성과 책임의식을 갖고 교안을 작성하고, 또 그것을 가지고 성의를 다해 장병의 정신지도와 인격지도를 위해 노력하는 태도가 필요하다. 효과면에 대한 회의와 의무감에 젖은 부대행사적 사고방식으로 교육에 임함으로써 교육의 효과가 교육자로부터 피교육자에게 전달되기도 전에 말소되는 경우가 생기게 될지도 모르기 때문이다.

그러나 군 장병의 정신교육이 정신자세 및 전력강화에 미치는 영향과 그 필요성 및 중요성을 재삼 인식함으로써 결코 정신교육의 효과를 과소평가하지 말고 지휘관과 군종장교의 합심협력으로 전투태세완비에 완벽을 기해야 할 것이다. 군인은 총으로 싸우기 이전에 정신으로 싸운다. 그리고 군 장비보다는 군의 정신자세가 승부의 전제조건이라는 말을 기억해야 할 것이다.



정  
신  
교  
육  
의  
교  
안

군  
중  
백  
승  
진



1967년 6월 5일 시작되어 6월 10일  
끝난 저 유명한 6일전쟁은 온 세계가 다  
아는 전쟁이었다. 당시의 전쟁을 승리  
로 이끌도록 주도하여온 당시의 참모총장  
Rabin 소장이 6월 28일, Hebrew 대학에  
서 명예박사 학위를 수여 받는 식장연설  
에서 말하기를 “전쟁이란 본질적으로 엄  
격하고 비참한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겪은 이번 전쟁에서 우리는  
인간적인 동포애와, 전우애와 정신적 위  
대성은 물론 우리의 영웅심과 용기를 아  
낌없이 장엄하게 나타내었다. 이번의 6

일전쟁에서 정신력은 결정적인 무기였  
다. 이 모든 정신력은 국민 정신으로부  
터 솟아나와 정신으로 돌아 간다”고 말  
하였다.

Rabin 소장이 이스라엘의 결정적인 승  
리를 자기들의 위대한 국민정신에 두었  
다는 사실은 실로 의미있는 일이라고 본  
다. 70년대의 한국이 처한 상황은 내외  
적으로 적지 않은 문제와 위기를 내포하  
고 있는 차제에 조국의 부름을 받고 푸  
른 유니폼을 입고 공군의 대열에 서  
있는 우리들의 정신적인 자세는 그 어느  
때 보다도 그 중요도가 깊은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다. -

이러한 때 공군의 기본훈련을 책임지  
고 있는 항교로서 정신교육에 관한 계속  
적인 연구와 창의적인 시도를 계속한다  
는 것은 그 실 뜻있는 일이라 생각한다.

먼저 정신교육에 관한 내용을 말하기  
전에 반드시 시정하고 지나가야 될 것은  
정신교육을 무슨 특별한 것으로 생각하  
여 일반교육에서부터 분리하려는 사고유  
형(思考類型)을 조속히 벗어 버려야 하  
겠다. 이러한 사고방식은 인간을 볼 때  
정신과 육체를 아울러 가진 종합적인 존  
재로 보지 않고 정신과 육체를 따로 따  
로 분리하여 생각하는 이원적(二元的)인  
사고방식과 같으며 그러한 사고는 결국  
큰 오류를 범하기 때문이다. 인간을 볼

때 정신과 육체를 가진 전인적인 면에서 볼 때 전체적인 인간을 파악할 수 있는 것과 같이 군의 교육문제도 정신교육과 일반교육으로 분리해서 생각한다든지 분리해서 교육을 실시하려 한다면 이는 항상 시행착오를 면치 못할 것이다. 즉 제식훈련이나 총검술은 군인의 기본 동작이나 무술을 익히는 외형적인 교육 그것만이 아니고 이것이 하나의 훌륭한 정신교육, 즉 군인의 내형(內型)을 조성하는 정신교육으로 승화시킬 수 있고 또 그때야만 한다는 사실을 교관이나 피교육자 모두 자각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가령 사격훈련이면 단순히 사격의 기술을 높이는 기계훈련이나 기능훈련 그것만이 아니고 이것이 곧 훌륭한 정신교육의 성격을 띠 수 있고 또 그때야만 하겠다. 군대의 교육일 수록 부적의식이 선명해야 되는 것은 재언을 필요로 하지 않으나 모든 훈련 하나 하나에 분명한 목적이 있을 때 이것은 곧 정신교육으로 나 연결시킬 수 있다는 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면 정신교육의 내용은 어떠한 것이어야 하겠는가?

어떤 교육이든지 일련의 교육행위가 이루어 지려면 그에 필요한 요소가 있어야 하듯이 정신교육의 성공적인 결과를 위해서는 첫째로 정신교육에 합당하고 유

능한 교관이 있어야 하고, 둘째로 교육대상, 즉 정신교육을 받아 들일 수용적 자세를 지닌 피교육자와, 셋째 교육자와 피교육자들 연결시킬 수 있는 교육내용 즉 정신교육 교안 이외에 교육 시설 등이 갖추어져 있어야 한다. 이상의 것을 교육 환경이라 말한다면 상기의 교육 환경 중 첫째와 둘째의 것을 제 1차적인 정신교육의 내용이라 생각할 수 있고, 그 셋째의 것을 2차적인 교육내용이라 생각할 수 있다. 아무리 2차적인 교육내용 즉 정신교육의 교안이 훌륭하게 준비되었다. 하더라도 제 1차적인 교육내용이 좋지 않으면 효과적인 정신교육은 기대할 수가 없다.

### 1. 1차적인 교육내용

교관, 구대장, 훈육관, 내부반장, 기간장병 등 교육자적 위치에 설 수 있는 모든 자가 여기에 속한다. 정신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려면 1차적인 교육내용에 속하는 모든 사람들의 철저한 사명감이 고조되어야 한다. 말 한 마디에 행동 하나 하나에 자세 하나 하나, 생활 하나 하나가 곧 피교육자의 정신에 지대한 영향을 끼친다는 것은 두 말할 여지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1차적인 교육내용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교관들의 사기 진작과 교관 생활에 대한 깨끗한 자부심, 자기 직책의 중요성과 상관으로부터의 인정감

내지 개인 생활에 대한 안정감 등이 수반되어야 알찬 정신교육의 내용이 조성되는 것이다. 육구 불만으로 가득 차 있는 혼욕판이나, 열등의식에 사로잡혀 있는 교관이나, 내부반장 또는 자기 사명에 대한 자각과 자부심을 느낄 수 없는 환경 등은 정신교육에 지대한 영향을 끼친다. 때문에 정신교육의 알찬 내용을 위해서는 상기한 교관들의 내용을 충실히 할 수 있는 모든 뒷받침들이 이루어져야 하겠다.

2. 2차적인 교육내용

그러면 2차적인 정신교육의 내용은 어떠한 것이어야 될 것인가?

가. 군인 생활에 대한 올바르게 확실한 의미(Meaning)를 줄 수 있는 내용이어야 한다.

오늘날 군에 들어와 복무하는 장병들치고 군 복무에 대한 심한 무의미성에 붙잡혀 있는 군인이 하나 둘이 아닌 것을 알 수 있다. 그들에게 군 생활 전반에 관한 바른 의미를 주지 않고 무조건 복종심과 애국심과 충성심 등을 강요한다 해서 그것이 벽혀 들어 갈리가 없다. 그들은 의미를 찾고 있는 것이다.

그들에게 의미를 주는 내용의 정신교육이 필요한 것이다.

나. 군인으로서의 사명감과 책임감을 더해 줄 수 있는 내용.

다. 군인으로서 싸움의 목적과 싸우는 대상을 분명히 하여 줄 수 있는 내용.

라. 조국이나 민족의 간성으로서 자신의 위치를 느낄 수 있게 하는 내용.

마. 자신의 생명을 겨레와 조국의 계단 위에 기꺼이 바칠 수 있는 사생관, 결단력, 용기를 가를 수 있는 내용.

바. 군의 조직과 질서 및 전우와의 윤리 및 집단 생활을 유지하는데 필요로 하는 일체의 정신적 자세를 교취 시킬 수 있는 내용.

이상의 내용을 담은 것은 정신교육의 좋은 교재가 될 만한 것으로

- (1) 군인복무규율
- (2) 군인의 길
- (3) 국민교육 현장
- (4) 성서(Bible)
- (5) 정훈독본(69년도 육본 간행)
- (6) 이념(70년 공본 정훈감실 발행)
- (7) 한국사, 세계사, 전쟁사
- (8) 마스크
- (9) 각종 간행물(전우지, 공군지, 주간 공군지 등)

이상의 것들 외에 물론 정신교육의 자료가 될 만한 것이 많으나 문제는 정신교육의 교재와 내용의 빈곤이 아니라 실천력과 생활력의 빈곤이 문제인 것이다. 아무리 좋은 정신교육의 양식이나 교안이 마련되었다 한들 그에 대한 구체적인 실

천이나 생활이 없다면 아무런 쓸모도 없는 것이다. 그러기 때문에 삼기와 같이 열거한 정신교육의 좋은 교재들을 실제로 생활화 할 줄 아는 군인들을 오늘의 우리 군이나 우리의 조국이 요청하고 있다고 본다.

민  
음  
의  
실  
제  
적  
가  
치

군  
중  
코  
너  
김  
선  
도



우리 생활 가운데 가장 크게 영향을 끼치고 있는 것이 있으니 곧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다. 흔히 “믿음”이란 어떤 추상적인 토론의 내용처럼 생각하는 사람이 있으나 실상은 이 “믿음”의 힘은 마치 “생각하는 힘” “사랑하는 힘”과 마

찬가지로 우리들의 생활 속에 기본적인 삶의 자료가 되어 있는 것이다. 우리는 이 “믿음”이 없이 하루도 살 수가 없는 것이다. 비근한 예로 아침에 버스를 타는 것도 믿음의 행위인 것이다. 운전수의 성명과 그의 운전경력을 몰라도 우리 생명을 그에게 맡기고 마음 놓고 타고 갈 수가 있는 것이다. 식당에 식사를 마음놓고 하는 것은 그 식사에 아무런 이상이 없이 만들어졌을 것이라는 요리사에 대한 믿음 때문에 아무런 의심 없이 먹을 수가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어떤 의미에서는 “믿음”을 가져라 하는 말은 잘못된 것이다. 우리는 이미 누구나 다 어떤 종류이든 믿음을 가지고 살고 있기 때문이다. 나는 믿음을 안 가진 비신자라고 하는 사람도 그의 생활 속에는 여러 모양으로 믿음의 표현들을 볼 수가 있는 것이다. “믿음”은 그의 생을 역동적(力動的)으로 움직이게 하는 파워가 되는 것이다. 전쟁과 평화도 그 어느 것을 강하게 믿고 있느냐에 따라서 인류에게 파괴적인 영향과 건설적이며 창조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것이다. 1, 2차 세계대전도 전쟁으로 자기들의 국가나 민족의 문제들이 해결될 것이라고 믿었던 것 때문에 전 인류에게 파괴적인 영향을 끼치게 된 것이다. 고로 문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을 어떤 차원에

다 두면 어떻게 처리하느냐에 따라서 그들의 운명이 좌우되게 되는 것이다. 위대한 과학자 Einstein도 “믿음이 없는 과학자는 생각할 수도 없다”라고 한 말이 있다. 과학의 세계에서 어떤 가설(假設)(Hypothesis)을 세운 다음에 이에 여러 실험을 거쳐 어떤 과학적인 열매를 얻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보면 과학의 세계에서 하나의 믿음이 파이어니의 역할을 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다. 때문에 지성과 믿음은 서로 갈등을 이루고 있는 것이 아니라 지성이 지성의 구실을 하기 위해서는 언제나 “믿음”이라는 바탕 위에 서야만 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WLight 형체가 비행기를 발명하기까지는 먼저 그들은 인간도 날을 수 있을 것이라는 확신 즉 “믿음”을 가지고 모든 지성을 동원해서 만들어 낸 것이 비행기라고 하는 것이다. 최근 우리는 Vision이라는 말을 흔히 듣고 있다. 이 Vision이라는 낱말도 현실에서 증명되어질 수 없는 하나의 “바람”이요 믿음의 표현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이다. 구약에도 “Vision이 없는 민족은 망한다”라고 하였다. 이 세상에서 제일 가난한 사람은 재물이나 권세가 없는 사람이 아니라 그의 가슴 속에 미래에 대한 희망이 없고 Vision이 없는 사람이라 할 것이다. 현대인들은 그가 가지고 있는

지성을 가지고 그 속에서 어떤 내적인 힘이 생성되기를 바라고 있다. 그러나 이 지성만 가지고서는 어떤 다이내믹한 파우어를 이트키기가 어려운 것이다. 여기에는 지성의 한계를 넘어서는 “믿음”이 있어야만 된다는 것이다. 마태 17장 20절에도 “너희가 만일 믿음이 한 겨자씨 만큼만 있으면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기라. 하여도 옮길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라고 하였다. 이는 “믿음”이 가지는 놀라운 힘을 말해주는 말씀인 것이다.

지성의 힘은 한계성을 지니고 있을 뿐 아니라 때로는 부정적이며 소극적이 될 때가 많은 것이다. 신학(神學)이라고 하는 것도 그리스천이 가진 믿음의 경험을 이성적으로 해석하는데 지나지 않는 것이다. 이성적 설명이 끝 믿음을 생성할 수는 없는 것이다. 건전한 종교는 반드시 지성의 요소가 있어야만 한다. 그러나 이같은 지성을 통한 “앎”만 가지고서는 “믿음”을 대신할 수는 없는 것이다. 우리 기독교는 끝없는 가능성과 그의 의미 그리고 실망하지 않는 생명 안에서의 “믿음”을 선언하는 것이다. 우리들의 인격의 깊은 곳에 끊임 없는 믿음의 샘을 가졌을 때 우리는 힘의 원천을 소유하게 되는 것이다. 믿음의 힘이 없이 무엇을 하려고 하는 것은 마치 자기

가 탄 배에서 입으로 바람을 내어 배를 물고 가려고 하는 사람과 마찬가지로 할 것이다.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무한하신 가능성을 받아드리는 믿음을 가질 때 우리들의 생애는 장조가 있고 영원과 절부된 미래를 향해 전진하는 용기를 가지게 되는 것이다. 때문에 믿음은 추상적인 내용이 될 수 없고 가장 실제적이며 없어서는 아니 될 생의 다이나믹한 자료라고 하는 것이다.

## 정신교육의 목표

군  
목  
김  
갑  
태



영국의 사학가 토인비는 말하기를 “일국의 흥망은 외적의 충검에 의해서 보다

더 내부적인 정신자세에 의하여 이루어진다.”고 하였다. 중세 최강군을 자랑하던 로마의 대군도 의세에 의해서가 아니라, 내부적 군인정신의 부패에서 일조 일석에 멸망하고 만 사실은 너무도 잘 알려져 있고 있는 이야기이다. 최근 이스라엘과 아랍 공화국 간의 유명한 6일전쟁에서 이스라엘군의 강직한 군인정신을 통하여 우리는 나라와 민족을 지키는 군인정신이 바로 그 나라의 운명을 좌우하는 중차대한 근본 요소임을 잘 알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정신무장 없는 국방을 생각할 수 없고, 정신교육 없는 강한 군인을 기대할 수 없는 현실에서 자못 군의 정신교육문제는 각급 지휘관들의 심각하고 중차대한 관심사인 동시에 임전태세 완비와 정병강군의 가장 근본이 되는 요소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런데, 이와 같이 중대한 정신교육이란 여타 일반 교육과 같이 단순하게 지식이나 기술을 부여하기 위한 교육이 아니요, 인간의 사상이나 감정, 의식과 태도 등에 바람직한 변화를 가져오게 하는 의도적인 활동(Art)으로 하나의 Moral Education(주:1)인 것이다.

주:1 ① The Encyclopedia American Co.

② Japanese English Dictionary

③ Korean English Dictionary에

정신교육=도덕교육으로 되어 있음

이 Moral에는 공중도덕과 개인도덕이 있는데 공중도덕에는 희생정신, 복종심, 봉사정신, 협동정신, 충성심, 효도 등이요, 개인도덕에는 신앙, 용기, 겸소, 인내, 성실, 겸손, 정직, 청렴결백, 예절, 진실 등으로 구분이 되어져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군의 정신교육이란 곧 이 Moral에 대한 교육이라고 정의할 수 있는 것이다.

어떠한 교육이든지 교육에 있어서는 먼저 최고의 이념이 설정되고 이 이념을 달성하기 위한 목표가 세워지면 이 목표를 충족시킬 수 있는 교육방안이 성립됨과 동시에 이 교육방안을 구현할 수 있는 세부 실천계획(교안)이 짜여지는 것이다. 이러한 단계적인 과정에서 마지막으로 교육이 실시가 되고 실시된 후에 이를 Test하고 평가하여 모순된 점이 발견되는 대로 다시 검토하여 실시하는 순환적인 과정을 통하여 최고의 교육이념을 완성하는 타당성 있는 원리로 볼 때, 공군의 정신교육 목표를 색다른 분야에서 모색한다든지 구상한다는 것은 어리석은 추구에 그치고 말 것이다.

이러한 논리로 볼 때, 공군의 정신교육완성이란 곧 도덕심 교취의 완성이라

고 볼 수 있으며 공군이 요구하는 바, 정신교육의 최고의 목표는 공군의 교육이념에서 발취하여 볼 때,

- 첫째, 충성심 (교육이념 1)
  - 둘째, 반공 신념 함양(교육이념 2)
  - 셋째, 인간 관계 함양(교육이념 3)
- 이라고 규결되는 것이다.

정신교육과 병행되어야 할 문제들

정신교육의 효과를 저해하는 요소

군목 김두중



정신교육과 병행해서, 정신교육의 효과 및 목표 달성을 저해하는 요소들을 발견하여 제거하는 일도 그것 자체로서 정신교육의 목표가 될 수도 있겠지만 여기서서는 일반적으로 교육 전반에 참여하

고 있는 모든 교육 담당자들 및 전 훈육관이 다 같이 관심을 가져야 할 문제, 즉 정진교육의 전제조건이랄까 아니면 그 기초작업에 해당되는 것들을 개괄적으로 다음과 같이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생각해 보고자 한다. 첫째는 군대사회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심어주는 일이고, 둘째는 군 사회 안에서 건전한 인간관계를 확립시키는 일이다.

## 1. 군대사회에 대한

### 올바른 인식

보통 군대사회를 가리켜서 특수사회라는 말을 하지만 그것이 일반사회나 보통 사회와는 아주 체제나 성격상 다르다는 의미에서 유별난 사회를 뜻하는 것은 아닐 것이다. 물론 군사회(軍社會)가 획일성을 요구하는 Uniform의 세계인 점에서 그리고 자기의 이익을 추구하는 Die Geminschaft가 아니라 국가와 민족이라는 대의(大義) 위에 조직된 일종의 Die Gemeinschaft란 점에서 군 사회의 특수성을 찾아 볼 수도 있겠으나, 여하간 군 사회와 일반사회를 구분시키려는 이원론적(二元論的) 사고방식은 그들이 모두 인간의 사회란 점을, 그리고 한 인간의 일생에서 연속적으로 경험해야 된다는 점을 도외시하는데서 오는 것이기에 그릇된 것이라고 아니 할 수 없다.

강제성이니 타율(他律)이니 혹은 계급과 명령사회이니 하는 말도 결코 군 사회의 특수성을 가리키는 말만은 아니다. 일반사회에 있어서도 능력과 직책에 따라 엄연히 계급이 엄존해 있는 것을 부정할 수 없으며 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그 계급과 직책에 상응하는 책임 문제로 명령과 지시가 따르고 있음을 부정할 수가 없다.

만인평등을 믿는 인간들의 사회이지만 군대사회나 일반사회나를 막론하고 어떠한 목표와 과업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자연적으로 업무분담과 책임의 한계 등을 논하는 가운데 직책의 차이에서 오는 계급과, 또한 계급에서 생겨나는 지시나 명령이 있게 되는데 그건 결코 인간의 차별이라든가 인격의 구분과는 의미가 다른 것임을 알아야 한다. 그것은 수단이지 결코 목적이 아니기 때문이다.

이와같이 거시적으로 내다 볼 때, 군 사회나 일반사회나 그 기본적인 인간관계의 원리는 같은 것이지 결코 이원론적으로 구분할 것이 아니다. 바로 이 점에서 우리는 일반사회 생활과 군대생활과의 연속성(Continuity)을 인정하고 인식해야만 한다. 만약 우리가 군대사회와 일반사회를 완전히 연관성이 별로 없는 별개의 것으로 구분하는 이원론을 버리지 않는다면 이 연속성을 인정할 수 없

## <군중코너>

게 되는데, 이렇게 연속성을 인식하지 못하는 데서 군 생활의 병폐인 “말짱 헛것”식 사고방식이 배양되어 군에서는 아무리 일을 열심히 잘 해도 말짱 헛것이 라고 생각해 버리고 만다. 이런 사고 방식을 따른다면 군대생활이란 기대할 것이 하나도 없는 희망이 없는 생활이고 따라서 내 일생을 위해서는 크나큰 마이너스 기간이요, 내 성공으로 나가는 길을 가로막고 있는 장애물로만 생각하게 된다. 뿐만 아니라 그런 사고방식 때문에 참여의식을 가진 자발적이고도 적극적인 복무자세는 기대하기가 힘들고 다만 “무사 안일주의”의 온상이 될 뿐이다. 이와같은 사고방식에서 생겨나는 나태와 태만, 비판주의와 도피주의, 불평과 불만 등의 부정적 생활 태도는 장병의 정신무장 뿐만 아니라 한 사람의 인간으로서의 건전한 정신생활을 위해서 크나큰 병폐가 아닐 수 없는 것이다.

다음으로는 군대사회 안에서 합리성과 타당성을 인정하고 추구하는 일이다. 군대사회와 일반사회를 별개의 것으로 갈라놓는 이원론적 사고방식에서 자연적으로 군 사회의 특수성을 교집하게 되고, 따라서 일반사회에서는 있을 수 없는 불합리한 부조리한 일들을 “군대니까...” 하는 단서를 붙여 당연지사로 용납하려는 경향이 있다. 그 결과 “무조건식(無

條件式)” 사고방식이, 그리고 무리한, 글자 그대로 이치에도 맞지 않는 일들이 군대라는 이름을 팔아 타당화되고 있다. 그러나 군대사회가 고도의 조직과 제도, 엄격한 규정을 자랑하는 사회라면 거기에 따라 일반사회에 못지 않은, 아니 그보다 훨씬 더 합리성과 타당성이 인정되고 추구되어야 할 것이나. 이같은 합리성과 타당성이 인식되어야 장병 한 사람 한 사람이 마음으로부터 군대사회에 순복하게 되며, 따라서 건전한 군 생활 자세를 확립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명령과 지시 그리고 형벌이나 소위 기함에도 그 나름대로의 합리성과 타당성이 있어야 한다. 군대니까 하라하면 하고, 무조건 복종해야 한다는 이런 무리하고 불합리한 사고방식이 아니라 명령에 복종해야 할 타당한 이유가 인식되어야 하며 그때야 마음으로부터 복종하게 되고 따라서 타당하고 정당한 그 명령에 복종치 않아 당하게 되는 형벌이나 기함에는 그것대로의 합리성과 타당성이 있음으로써 불필요한 불평불만이 없게 된다.

합리성과 타당성이 군 생활을 지배할 때 거기엔 상하 이웃 간의 상호 이해가 따르게 되고 그 결과 굳은 결속이 생기게 되며, 그것이 강한 정신무장의 토대가 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군 생활에서 비합리적 요소, 부조리한

요소 등을 제거함으로써 인화단결 및 강한 정신적 결속을 가져올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 2. 건전한 인간관계 확립

군 복무 생활에서 뿐만 아니라 특히 군인이 되는 과정인 군의 교육 과정에서 상하 이웃 간의 건전한 인간 관계는 정신무장 및 군의 사기에 지대한 영향을 준다는걸 우리는 부정할 수 없을 것이다. 군의 교육도, 진정한 의미에서 교육이라고 할진대 교육자와 피교육자 간의 레포(Rapport) 형성은 무엇보다도 먼저 이루어져야 하는데 특히 정신교육에 있어서는 그것의 중요성을 새삼스레 말할 나위도 없다. 그런데 이 레포 형성을 저해하는 기본요소가 바로 교육 담당자와 피교육자 간의 “비인간적 관계”요. 피교육자에 대한 “비인격적 대우”이다. 그것이 특히 언어와 행동에 있어 그러하다. 그런데 지나친 욕설, 과도한 구타 등은 그것 자체가 비인간적, 비도덕적일 뿐만 아니라 교육이란 목표를 놓고 생각해 볼 때 비교육적이라고 말하지 않을 수 없다. 한 때는 강한 규제와 심한 구타 등이 교육의 과정에서 없어서는 안 될 필요불가결의 요소로 생각되어지기도 했으나 교육의 발전을 언급하지 않더라도 그 전 이미 지나간 시대의 것이며, 무능한

교육자가 자신의 무능을 가리기 위한 방편으로 사용된 구실일 뿐이다. 오히려 사기를 저하시키고 인화단결 및 굳은 정신적 결속을 파괴하는 이런 “비인간적 관계”를 제거함으로써 보다 나은 정신교육의 성과를 기대할 수 있어야 될 것이다.

이상과 같은 두 가지의 기초작업이 먼저 이루어지거나 아니면 최소한도 정신교육과 함께 병행되어야만 장병의 군복무자세를 확립시키고, 정신무장을 강화하고, 의욕적이며 자발적인 군 복무생활을 정립(定立)시키는 일이 보다 효과적으로 성취될 수 있을 것이다.

참 된 친 구	군 복 김 갑 태
	요 한 독 음 15 : 13 < 15

며칠 전 이름난 모 영화 배우의 아내 되는 사람이 음독 자살을 기도했다가 미

## <군중코너>

수에 그치고 응급 치료를 받은 후 퇴실  
아났습니다. 그가 병실에 찾아온 기자들  
에게 음독의 이유를 모두 말하는 중에  
“세상 사람들이 모두 우리를 호화스럽고  
명성 높은 연예계의 찬란한 별토만 바라  
보기 때문에 평소애 것처럼 가까이 지내  
던 이웃이나 친구들이 점점 멀리 떨어져  
가고 심지어는 한 집에 사는 남편조차  
임에 쫓기다보니 나 자신의 주위에 증  
대한 사건이 발생해도 제대로 상의조차  
할 사람도 없고 의지할 곳조차 없는, 고  
독 속에서 혼자만의 괴로움을 지탱할  
수가 없어 드디어 약을 먹고 말았다.”고  
합니다. 언뜻 생각할 때 잘 남독이 가지  
않는 말 같으나 우리 주변의 현실들은  
온갖 발달된 문명의 혜택과 고도화된 향  
락의 생활 속에서 따뜻한 안정과 참된  
우정들이 소멸되어 가고 있는 무서운 현  
실을 부인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저 유명한 까뮤의 단편 「요나」의 주인  
공은 것처럼 호화찬란한 생활 속에서 진  
정한 대화의 상대자를 발견치 못한 채  
고독해 하다가 마지막에 그가 평소 애겨  
쓰던 화관을 끌어 얹은 채 자살을 하고  
갑니다. 그가 죽을 때 그 화관 한 가운  
데에 써 놓은 깨알처럼 작은 그의 유서  
는 **Solidaire**(집단, 대중)라고 하는 말  
인지 **Solitaire**(고독)이라고 하는 말인  
지 분간하기 어려운 단어였습니다.

이 집단화되고 대중화된 현대 문명  
속에서 당해야만 하는 고독! 모든 사람  
들이 극도의 이기심 때문에 너와 나와의  
따뜻하고 참된 대화를 상실한 채 회의와  
불신 속에서 외로움과 마주서서 인생을  
아프게 살아가고 있는 미묘한 모순들을  
우리는 피부로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서양 격언 중에 “이 세상을 친구가 없이  
살아가는 사람은 마치 황막한 벌판을  
외로이 걸어가는 나그네와 같다.”고 한  
말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불신과  
고독의 인생 항로에서도 참된 친구가 있  
다면 그는 결코 외롭거나 고달프지 않게  
삶의 벌판을 값있고 보람되게 즐거운 인  
생을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의미에 있어서 내 주변에서 맞  
이할 수 있는 참된 친구를 소개하기에  
앞서 어떠한 관계를 맺어야만 진정한 우  
정을 나눌 수 있는 친구인가? 하는 참  
된 친구로서의 구비 조건을 몇 가지만  
소개하고자 합니다.

첫째로, 참된 친구란 이해 관계가 초  
월된 친구라야 한다는 말입니다. 주관  
을 뒹겨 보고, 자로 잰어 보고, 계산서  
에 통계 숫자를 맞추어 보고 나서 자신  
에게 이로울 때 가까이 하고 해로울 때  
모르는체 해 버리는 친구를 우리는 참된  
친구라고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옛 이  
야기에 이러한 사실이 있었다고 합니다.

매일같이 친구들과 세를 이루어 놀러다니는 아들에게 참된 친구를 사귀어야 한다는 깊은 교훈을 주고 싶어 하는 아버지가 하루는 우리에게 있는 도야지 한 마리를 잡아 거적에 싸서 마치 송장처럼 지게에 걸머지고 그 아들과 함께 깊은 밤중에 그 아들의 친구들 집을 모조리 찾아 다니며 하는 말이 「아들놈이 어찌다 실수를 해서 사람을 죽였는데 좀 도와달라」고 간청을 했습니다. 온 밤을 지새우며 그 아들의 친구집을 찾아 다니며 통사정을 했으나 누구 한 사람 동정해 주거나 염려해 주는 이 없이 냉정하게 거절하였던 것입니다. 드디어, 그 아버지는 하나밖에 없는 그의 친구 집에 찾아가서 똑같은 사연으로 말을 하자, 이 아버지 친구는 잠옷 바람으로 뛰어나오면서, “어찌다 자네가 이런 실수를 저질렀는가? 자네 일이 곧 내일인데 어서 들어오게나. 자세한 사연이나 들어보고 좋도록 처리 하세나.” 라고 말하면서 자기 일처럼 염려하고 도우려 하자, 그 아버지는 사실을 말하고 지게에 매고 갔던 도야지를 풀어 잔치를 베풀어 음식을 나누면서 그 아들에게 참된 친구란 비록 한 사람이라도, 이처럼 이해 관계가 초월된 두터운 우정이 있어야 된다는 감명 깊은 교훈을 주었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33년 간의 인류 구속의 대업을 정리하시고

Jerusalem성에 영광으로 입성하실 때는 개신장군과 같은 환영을 받으셨던 것입니다. 환영 가도에 둘러선 우리들이 자기들의 걸음을 벗어 길가에 펼쳐 깔고 손에 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라고 찬양과 경배를 드리며 환영하던 그 사람들이 불리한 입장에 있는 예수님께서 빌라도의 법정에서 재판받을 때는 그 환영하던 그 손과 그 주먹을 흔들며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고함을 쳤던 것입니다. 우리는 그 비겁한 함성과 배신을 지금도 생생하게 저주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에게 이로우려 때 아쉽하고 불리한 때 배신해 버리는 인류의 비겁성이 바로 이 황막한 삶의 벌판에서 마음의 등불이 될 수 있는 참된 친구를 상실해야만 하는 쓰라린 소치라고 말할 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 참된 친구란 이해관계가 초월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으로는 바른 말을 해 주는 사람이 참된 친구입니다. 사람은 때로 빼놓아질 때가 있고 실수할 때도 있습니다. 이럴 때 옆에서 바른 길을 잡아 주는 사람이 필요한 것입니다. 비행사가 실수로 항로를 잃었거나 돌풍에 말렸을 때 대단히 위험한 처지에 놓이게 되는 것입니다. 이때 그는 관제사의 유도를 올라보 받아야만 무사히 항로를 찾아 목

적지에 도달할 수 있는 것입니다. 현대 신학자인 Karl Barth는 「Christian과 Non Christian의 차이점이란 다만 Christian은 교회에 나와 무릎을 꿇는데 있다」라고 말하였습니다. 과연 사람이 실수를 저질렀을 때나 범죄를 저질렀을 때 겸허한 자세로 자신을 돌아보고 살피는 것은 마치 잘못된 항해를 하고 있는 함대가 나침반을 바라보고 방향을 올바르게 조정하는 것과 동일하게 중대한 일인 것입니다. 하는 일마다 칭찬하고 되어드리는 일마다 찬사만 드리는 것은 아부나 아첨은 될 수 있을 지언정 결코 대사를 올바르게 보는 공평정대한 판단이나 조언이라고 말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참된 친구란 올바른 말을 주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참된 친구는 언제나 변함이 없는 친구가 참된 친구입니다. 평생을 맹세한 부부가 변하여 서로 갈라서며 애인이 변심했다고 Dynamite를 배에 깔고 폭사하는가 하면 변심한 애인을 인질로 끌고 가면서 총격전을 벌이다가 경찰에 잡혀 갔습니다. 세상 인심이 사정과 때를 따라 둔갑을 하는 모순과 부조리의 소용돌이 속에서 우리는 때와 형편에 구애됨이 없이 언제나 변함이 없는 진정한 우정을 아쉬워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의 대 정치가이며 대 전략가

인 동시에 유명한 웅변가이던 시이저의 경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가 마지막 원로원에서 정적들의 예리한 칼 끝에 찢려 피를 흘리며 비틀거리다가 최후로 그에게 돌도 없이 친한, 피를 두고 우정을 맹세했던 부르티스에게 닥아서면서 도움을 청하자 부르티스는 날카로운 칼을 뽑아 시이저의 심장을 깊이 찌르고 말았던 것입니다. 시이저가 마지막 쓰러지면서 남긴 “부르티스 너 마저!?”라는 애처롭고 비통한 이 한 마디의 낱말은 후세의 사람들에게 이 세상에 변함이 없는 참된 친구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하는 뜻깊은 교훈을 남기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황막한 삶의 벌판에 이해관계가 초월되고, 실수와 좌절감에 번민할 때 따뜻하고 올바른 교훈을 주며 때와 형편에 구애됨이 없이 영원토록 변함이 없이 뜨거운 우정을 나눌 수 있는 참된 친구가 누구입니까? 열 손가락을 손 꼽아 헤아려 보고 이 사람 저 사람 전주어 보아도 진정한 의미에 있어서 참된 친구가 될만한 사람이 이 세상에 그 누구라고 자신있게 지적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오늘 본문에 있는 요한복음 15장 13~15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 나를 위하여 목숨까지 버릴 나의 참된 친구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분과 함께 우정의 대화를 나눌 때 아무리 어려운 문제

에 불착하거나 어떠한 괴로움에 번민한  
다손 치더라도 결코 불안하거나 초조하  
지 않고 고독하지 않습니다.

이분과 참된 우정은 교제하는 생활은  
바로 이 세상 삶에서 가장 보람되고 울  
바른 길을 자신있게 그리고 후회없이 몇  
몇하게 살아가는 값진 길입니다. 이 참  
된 친구는 애오라지 예수 그리스도이십  
니다.

너  
자  
신  
을  
알  
라

균  
목  
김

△ 시편 73 : 22 ~ 23 V

춘

태



인가? 하는 반성과 자신을 발견하는 것  
이 가장 긴급한 문제인데 이것과는 멀리  
한국 교회가 어떠한가 국내의 정세가 어  
떠하다느니 하는 제 3차 4차적인 문제들  
만 모두가 말하고 있는 형편이 아닌가  
한다. 「노자」는 말하기를 자신을 아는 것  
이 하나님을 아는 첫 계단이라고 하였고,  
「아삽」은 나는 우매무지하며 짐승같다고  
한 자신의 발견이 나의 발견이 되어야  
하겠다. 시편 73 : 22~23을 보면 「아삽」  
은

첫째로 자신의 지식적 부족함을 알았  
다. 『인간의 총명이 하나님의 미려한 것  
만 못하다』고(고전 2 : 25) 말씀하였다.  
그러므로 바울은 계속하여 『말하기를 만  
일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한 것이  
라』고(고전 8 : 2) 말했다. 만일 아는 것  
이 있다면 내가 모르는 것을 아는 것이  
아는 첫계단이 될 것이다. 만일 아는 것  
이 있다면 부분적으로 아는 것이요, 거  
울로 보는 것같이 회미하게 알 뿐이다.  
소경이 코끼리를 만져보고 다리를 만져  
본 사람은 기둥같다고 할 것이고 배를  
만져본 사람은 바람벽같다고 할 것이고  
코를 만져본 사람은 구렁이 같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자기가 경험한 지식울  
즉 부분울 전체화 할 때 이것은 무지가  
되고 독신이 되는 것이다. 전체를 시인

오늘날 사회에 여러가지 혼란한 '때'를  
당하여 내 자신이 이 혼란한 현실에 대  
하여 얼마나 책임감을 느끼며 부족한 것

한 부분을 주장해야 한다. 의견이 다르다고 반대할 것이 아니라 내가 보지 못하는 면을 다른 사람이 본다는 사실을 긍정해야 한다. 내가 주장하는 보수 정통도 전체를 시인한 부분을 주장해야지 부분을 전체화 할 때 역측이 되고 독신이 되고 만다. 그리스도가 탄생했지만 제사장, 서기관, 바리새교인들이 정말 기다리던 메시야 그리스도가 탄생하였다고 자기들이 아는 지식을 가지고 판단해서 긍정적인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고 도리어 신을 모독한다고 십자가에 죽였다. 이렇게 분명한 사실이 정반대의 판단으로 나타났다는 사실은 인간의 지식이 얼마나 불완전한가를 말해 준다. 할진대 내 아는 것을 안다는 전부로 여기고 교만하여져서 마음의 창문을 닫고 새로운 지식을 받아들이지 않고 고집함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인가. 우리는 좀 더 현대감각에 민감하여 그 시대 시대에 하나님께서 어떤 계시로 우리를 가르치는지 깨달아야 하지 않겠는가?

물체는 자신의 인격적 부족을 알았다. 「아삽」은 자신을 짐승같다는 파격적인 말로 표현했다. 영국에 「코니슨」은 자신을 역설하는데 모든 과오를 범한다고 하였거니와 과연 못한 나를 바로 알아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이다. 나의 인격적 부족을 모르고 나 잘났다고 자처할

때 넘어지기 쉽고 하나님 앞에 비림 받는다. 「바울」은 만일 누가 아무 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 라고(갈 6:3) 말했다. 나 잘났다고 과신하는데서 세계역사는 때때로 고역을 치분 일이 많다. 내가 잘났고 그러므로 내 힘이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고 하는 광신적인 폭군이 때때로 나와 세계를 불의 지옥으로 몰아 넣은 때가 많았다. 성 도마스 아퀴나스는 너 자신이 모든 인류 중에서 가장 적은 자라고 깊이 느끼기까지는 완전하게 향했다고 생각지 말라고 한 것이다. 「바울」은 내가 만삭되지 못한 자라고 자신의 부족한 의식이 강할 때 비로소 주의 온전하신 인격을 사모하게 되는 것이다.

세례로는 자신의 신앙적 부족을 알았다. 내가 대체적으로 하나님 앞에 죄인된 믿음의 부족한 사람임을 시인한다. 그러나 부족한 자신임을 알고 살 때 보다는 망각하고 살 때가 많다. 내 부족을 망각하고 살 때 남을 비판하게 되고 업수가 여기저기 되어 싸움이 생긴다. 「이사야」가 성전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나타났다. 소인같으면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봤다고 떠들지 모르겠으나 그러나 그는 「화로 다 망하게 되었도다.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라」고 했다. 빛 속에서 자신의 부족함을 발견했다.

부족함을 깨닫는다는 것은 빛 속에 사는 증거다. 그러므로 「바울」도 흠 없는 의인으로 자칭했으나 다메섹 도상에서 그리스도의 빛에 접한 후로는 나를 죄인 중 죄인의 죄수라고 했다. 「존·번연」은 일평생 죄인 죄수라고 하는 강한 의식을 가지고 있을 때 은총이 넘쳤다고 했고 「다윗」도 죄인 중에 잉태하고 모친의 잉태할 때부터 죄 중에 있었다고 했다. 오늘날 사회를 볼 때 어디서부터 혼란이 오느냐? 하면 모른다고 하는 사람 때문에, 못났다고 하는 사람 때문에, 잘못 믿는다고 하는 사람 때문인가 아니라 잘 알고 잘나고 잘 믿는다고 하는 나로 인한 현상이다. 나만이 나라를 사랑한다는 애국자가 많아질 때 나라가 어지럽고, 잘 믿는다고 하는 사람이 교회에 많아질 때 교회가 시끄러워 진다. 은혜 많이 받고 기도 많이 했다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내 부족을 바로 깨닫고 모든 사람 앞에 겸손한 자이다. 그러나 도리어 높혀져서 내 말이 아니면 구원이 없다는 독선주의자가 되어 버리면 웬 말인가? 내 말과 같지 않으면 이단이니 삼단이니 하고 교만한 태도는 잘 믿는 자의 태도가 아니다. 코라스를 들을 때마다 느끼는 소감이다. 같이 합창을 할 때 언제나 화음을 망치는 것은 못하는 사람 때문이 아니라 잘 하는 사람의 특출난 음성 때문에 화음

이 안 된다. 내가 부르는 음성이 내 귀에서 들리지 않는, 즉 다른 사람과 조화될 음성을 내야만이 병코라스가 된다. 그러므로 내가 후 아는 것이 있으되 모르는 자와 같이 하고, 내가 후 잘난 것이 있으되 못난 자와 같이 하고, 내가 후 잘 믿는 것이 있으되 못 믿는 자와 같이 하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스라엘 영도자가 되라고 할 때 나는 본래 말이 능치 못하다고 겸손히 사양했고 「사무엘」이 「사울」에게 왕이 되라고 할 때 이스라엘 지파 중에 가장 적은 벤야민이며 가장 약한 자라고 겸손했다. 하나님께서는 이와같이 부족한 자신을 바로 깨닫고 겸손한 미덕을 보일 때 그를 불러 주시고 구원의 손길을 베푸시능 것이다. 인생의 황금시대를 자랑하는 청년기는 어느 때보다도 야심이 크고 프라이드가 높아 되지 못한 것을 된 줄로 알고 허세하기 쉽다. 우리는 청년 「아삽」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의 빛으로 우매무지하고 짐승같은 나의 부족을 바로 알아 구원을 위한 인저전설을 그리스도의 터 위에서 완성키 위해 부단한 반성과 새 가치를 창조키 위한 노력이 있어야 한다.

× × ×

정신교육의  
방법  
비판

군  
중  
코  
너  
정  
수  
영



정신교육의 방법은 어떤 것이 있으며, 그것들은 어떤 장·단점들을 지니고 있는가를 살펴보자. 즉 그 방법은 공식적(Formal) 방법과, 비공식적(Informal) 방법으로 분류된다.

공식적 방법이 소위 “인격교육”이라 불리우는, 한 곳에 집합시켜 놓고 구술 강연을 중심으로 하는 방법이 있고, 그 다음 “동질 그루우프별 교육”이 있다.

비공식적 방법에는 “개인상담”, “시청각교육”, “문서교육”, “질문지교육”에 가지를 포함시킨다.

이하에서 위에 열거한 방법에 관해서 경험을 토대로, 공식적 방법에 속한 “인격교육”은 부대 훈련 전이나 점호시간을 이용하든지 또는 지시된 명명서에 의해서 분기별 도의교육을 실시하는 때에 지정된 장소에 집합시키고 구술강연을 주로 한다.

물론 동원이 용이하고 교육시간을 절약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이 방법을 주로 많이 이용하고 있다.

그러나 이 방법은 다수를 한꺼번에 취급하기 때문에 각 개인별로 정상상을 참작할 수 없는 것이 큰 단점이다. 뿐만 아니라 “집합”이라는 강제성 때문에 오히려 심리적 반발을 살 우려가 크고 또한 강연자의 일방적 행위이기 때문에 주입식 교육이 되어 피동적일 뿐 능동적이고 자발적인 참여 의식이 희박해서 많은 능률을 기대하기가 어렵다.

그 다음 등장된 방법이 “동질 그루우프별 교육”이다. 종교별, 계급별, 내무반별, 직장별 기타 동질 취향의 그루우프별로 대화를 나누며 교육을 실시하는 것이다. 이 방법은 공동 관심사를 취급하기 때문에 대화의 주제 선택이 용이하고 가족적 분위기를 이룰 수 있다는 잇점들이 있다. 하지만 스케줄을 상의 시간이 많이 소모되고 강연자의 시간과 에너지가 일방적으로 너무 많이 소모된다

는 단점들이 내포되어 있다.

그 다음 비공식적 방법으로서 “개인상담”을 많이 이용한다. 상담엔 지시적 방법과 비지시적 방법이 있으나 군이란 특별한 사회에서는 절충적 방법이 효과적이며라는 경험자들의 고백이었다.

이 방법은 각 개인의 사례를 신중히 다룰 수 있으며 개인의 비밀을 보장할 수 있다는 잇점이 있다. 그러나 제한된 조수의 균중요원으로서 수 백, 수 천의 장병들을 다 만난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또 군 사회라는 특성 때문에 내포형성이 용이치 못하다.

“시청과 교육”은 영화감상, Chart 등 실물교육을 통해서 제시된 한 문제에 관심을 집중시킨 후 디스커션 또는 세미나를 이용하여 자기자신의 사상을 개발, 형성시키는 방법이다.

이 방법은 입체적인 효과를 지니며 주의를 집중시키기 용이하나 현 실정으로 준비에 애로가 크다.

“문서교육”은 정훈내용을 유인물에 아필하게 Print 해서 각 개인에게 배부하는 방법으로서 뜻있는 센텐스를 간단히 전달할 수 있으며, 아름답고 간결한 문

장으로 개인의 심층에 깊이 인식시키며 한 곳에 집합시키는 등의 번잡을 피하고 장병들의 여가를 선용시킬 뿐만 아니라 말처럼 흘러가 버리지 않고 손에 머물러 있어 다시 읽힐 수도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그만큼 정신적 자원과 시설 등의 현실적 여건이 용이치 않다는 어려운 점들이 있다.

그 다음 “질문지교육” 방법이다. 객관화된 테스트에 의거하여 개인의 성향, 적성, 성숙도, 성벽 등을 밝혀서 개인의 장·단점 및 지양성을 알려주고 적절한 대책을 피차 논의하므로 개인의 인격을 지도하는 방법이다.

모든 인간은 자신의 장·단점 및 성향에 대하여 깊은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객관화된 표준에 의거하여 개인의 습성에 대한 개선의 고무도가 높다는 잇점이 있다. 하지만 객관화된 자료의 보급이 용이치 않다.

× × ×

벽고지 장병들을 위하여 효과적인 정신교육 방법은 대체로 위에 열거한 방법들을 적기적소에 활용하는 길일 것이다.



## 진 주

정 성 환 역

마을 사람들은 그 커다란 진주에 관하여 이야기를 주고 받고 있다. —어떻게 그것이 발견되고 또 그것을 잃게 되었는가를 고기잡이 「끼노」에 대해서, 그에 아내 「후아나」에 대해서, 그리고 그들의 어린애 「쥘요며또」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있다.

그리고 이 이야기는 하도 여러번 되풀이 되어 왔기에 모든 사람들 마음에 깊이 사무친 여러 이야기와 마찬가지로 이 이야기에 좋고 나쁜 것, 짐고 흰 것 그리고 선하고 악한 것 뿐, 그밖에 아무것도 개제되고 있지 않다.

만일 이 이야기가 우화라고 한다면 누구라도 그 자신의 의미를 이 이야기 속에 찾아 가질 수 있을 것이고 그 자신의 인생을 읽을 수 있을 것이다.

하여튼 그 마을에서는 흔히 입에 오르고 있다.

「끼노」는 어스름 속에서 눈을 떴다. 아직도 별은 반짝이고 있었으나 동쪽하늘 아래에선 어슴푸레 동이 트기 시작했다.

수탉이 얼마 동안 벋을 땃땃이 세우고 있었다.

일찍 일어난 돼지들은 이미 일어나 작은 나무가지와 조각 사이를 헐새 없이 뒤적거리며 혹시 먹을 것이 떨어져 있거나 앓을까 하고 뒤짓기 시작했다. 선인장덤불에 둘러싸인 초가집 바깥에는 이름모를 새들의 한 무리가 마구 날개치며 재재거리고 있었다.

「끼노」는 잠에서 깨어나자 네모지게 흰히 밝아오는 문쪽으로 먼저 시선을 돌린 다음 「꼬요며또」가 잠자고 있는 해머크(그물로 만든 그네 침대)에 시선을 옮겼다.

그는 마지막으로 자기 옆에 있는 명석 위에서 잠자고 있는 아내 「후아나」에게로 머리를 돌렸다. 그녀는 푸른 쇼올로 코와 가슴과 그리고 작은 등성을 감싸고 있었다.

「후아나」도 눈을 뜨고 있었다.

「끼노」는 그가 눈을 떴을 때 아내의 눈이 아직도 잠에 잠겨 있는 걸 본 일이 없다고 생각했다.

「후아나」의 까만 두 눈은 언제나 반짝이는 작은 별과도 같았다.

그가 잠에서 깨어났을 때에 「후아나」는 언제나 쳐다보던 그 눈초리로 그를 쳐다보고 있었다.

아침해가 떠오르자 햇빛이 초가집 터진 들바구니에서 길다랗게 새어 들어 집안이 훈훈한 기분에 가득찼다.

그리고 그 햇살의 한 줄기가 「꼬요며또」가 잠자고 있는 해머크를 매달고 있는 밧줄 위에 비치고 있었다.

물론, 그들의 눈은 해머크가 걸려있는베로 쏠려 갔다. 한 마리의 조그만 무엇이 꿈틀거리고 있었던 것이다.

「끼노」와 「후아나」는 그 자리에 얼어 붙고 말았다.

지붕의 대들보에 매어달린 해머크의 밧줄을 따라 한 마리의 전갈이 퉁퉁히 기어 내려오고 있었다.

바늘과 같은 날카로운 꼬리를 뒤로 추켜 세우고 있었다.

눈깜박할 사이에 덤벼들 수 있었던 것이다. 그때 「끼노」는 손을 펴서 그것을 잡으려고 했으나 전갈은 그의 손가락 사이를 슬쩍 빠져 어린애 어깨 위에서 떨어져 그곳에 내리 앉아 날카로운 바늘로 쿡 찔렀다.

어린애 울음소리에 이웃 사람들이 모여 들었다.

이쪽 저쪽의 초가집에서 사람들이 뛰어 나왔다. — 「끼노」의 형인 「후안·토마스」와 그의 뚱뚱보 아내 「아폴리니아」, 거기에 그들의 네 아이들이 모여들어 드나들 문을 막고 서 있고 그 뒤에선 다른 사람들이 집안을 들여다 보려고 버둥거리며, 조그마한 사내 아이들은 들여다 보려고 어른들의 사타구니 사이를 헤치며 기어 나왔다.

그리고 앞에 있던 사람들은 뒷 사람들에게 말을 전했다 —.

『전갈이야, 전갈에 물렸단다.』

상처를 힘껏 빨던 「후아나」는 『의사를……의사를 불러와 주세요.』하고 말했다. 이 말이 덩불을 타리 뒤의 조그마한 울 안에 가득히 모여 있던 이웃 사람들에게로 옮겨 갔다.

사람들은 제각기 입 밖에 내며 중얼거렸다.

『「후아나」가 의사를 불러 달라고 하고 있는데요.』 의사를 부른다는 것은 놀라운 일, 아니 중대한 일이었다. 의사를 데리고 온다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인 것이다.

의사는 이 오두막집 부락에 온 일이라곤 한 번도 없었다.

들집이나 회칠한 집에 살고 있는 마을의 부자집 사람들을 돌보는 데도 고작인데 어찌 이 가난한 부락에까지 나올 리 있겠는가?

『의사는 오지 않을꺼야.』 마당에 서 있는 사람들이 말했다.

『의사는 올 리 없을꺼야.』 문 입구에 서 있던 사람들도 말했다.

「끼노」도 그렇게 생각되었다.

『의사는 오질 않을 걸.』

「끼노」는 「후아나」에게 말했다.

「후아나」는 「끼노」의 얼굴을 뻔히 쳐다 보았다.

그 눈은 암사자의 눈매 처럼 냉랭했다. 이것은 「후아나」의 첫 아이 — 「후아나」의 세계를 송두리째 차지한 전부였다. 「끼노」는 그녀의 결의를 보았다.

「후아나」는 아기를 안고 의사의 집으로 나섰다. 이웃 사람들도 그들 뒤를 줄줄 따라 나섰다.

이 일은 이웃 전체의 큰 사건이었다. 그들은 마을 중심을 향하여 빠른 걸음의 중요한 행진을 시작했다.

선두엔 「후아나」와 「끼노」, 그 뒤에 「후안·토마스」와 「아폴리니아」가 따랐다.

「아폴리니아」는 열심히 걷는 바람에 큼직한 배가 가볍게 흔들리고 있었다. 그 뒤 양쪽 측면에 애들을 거느리고 동네 사람들이 줄줄이 뒤따르고 있었다.

누런 햇볕을 등 뒤에 받아 그들의 시꺼먼 그림자는 그들 앞 쪽으로 길다랗게 던져

치고 있었다. 그들은 자기네들 그림자를 밟으며 걸어 나갔다.

재빨리 달리던 이 행렬은 마침내 그 의사의 집, 벽으로 둘러싸인 커다란 대문 앞에 다달았다. 대문 앞에선 물 튀기는 소리, 새장 안의 새들의 제제거림, 길다란 빗자루로 들깨를 쓸고 있는 소리가 들려왔다. 「끼노」는 그 순간 머뭇거렸다.

이 의사는 그의 동족이 아니었다.

이 의사는 근 사백년 동안이나 「끼노」의 동족을 속이고 굶기고 약탈하고, 멸시한 그리고 무섭게 해쳐오던 종족의 한 사람이었다. 「끼노」가 대문에 매달아 놓은 쇠꼬리 타종을 울린 조금 후 콰직한 대문이 비죽이 열렸다.

대문에서 얼굴을 내밀고 「끼노」를 쳐다 본 사나이는 「끼노」와 같은 종족의 사나이었다.

「끼노」는 그에게 무뚝뚝한 사투리로 말했다.

『어린애가 말이요. 첫 애인데…전갈에 물렸어요.』 끼노는 말했다.

『아부래도 치료에 쓸씨있는 분에게 보여야 하겠어요.』

대문이 조금 닫혔다. 그 사환은 사투리로 말하길 거부했다.

『잠깐 기다려요.』 그는 말했다.

『여주어 보아야 하니깐요.』 이렇게 말하자 그는 대문을 닫고 빗장을 질렀다.

눈부시게 쬐이는 햇별은 하얀 담 뒤로 한뼘음이 뒤 사람들의 그림자를 새까맣게 던지고 있었다.

『뭐야?』하고 의사는 물었다.

『한 인디안이 어린애를, 어린애를 메리고 왔습니다. 전갈에 물렸거나 봐요.』

『인디안 새끼들이 벌레에 물린 것까지 내가 치료해야 한단 말인가? 나는 의사야, 수의는 아니란 말이야.』

『네. 그렇습죠. 주인님』 사환은 말했다.

『그런데 돈이라도 좀 갖고 있단 말인가?』 의사는 물었다.

『아니, 놈들에게 부순 돈이 있겠어. 나—— 나 뿐이야, 이 세상에서 공짜로 부러 먹으려고 하는 건—— 나는 이제 진력이 났어. 돈이나 있는지 알아 보고 와.』 하고 의사는 말했다.

대문 있는대로 돌아오자, 사환은 대문을 살며시 열고 밖에서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을 바라다 보았다.

이번에는 사투리로 말을 건넸다.

『치료비를 갖고 왔어요?』

「끼노」는 모포 아래 어느 남 모를 곳에 손을 밀어 넣었다. 그리하여 여러 곱으로  
접힌 하나의 종이봉지를 끄집어 내었다. 그는 접은 것을 하나 하나 벗기고 마지막에  
꺼낸 것은 조그맣고 끝이 훤한 여덟 개의 진주 알이었다.

사환은 그 종이에 산 진주를 받아 들자 다시 문을 닫았으나, 이번에는 곧 되돌아  
나왔다. 그리고 겨우 그 종이를 내밀 정도로 문을 열었다.

『선생님께서 외출하셨소.』 그는 말했다. 『중환자한테 왕진을 나갔소.』 이렇게 말  
하자 그는 부끄러운 듯 얼른 문을 닫아버리고 말았다.

이제야 치욕의 파도는 떠러온 모든 사람들 마음을 휩쓸었다. 사람들은 차츰 사라  
져 갔다. 떠러왔던 거지들도 다시 교회당 제단 있는 데로 되돌아 갔다.

떠나시는 사람들도 어디론지 가버리고 말았다. 그리고 동네 사람들도 「끼노」가  
받은 공공연한 치욕을 차마 볼 수가 없어서 하나 둘 떠나가는 것이었다.

「끼노」는 「후아나」와 더불어 그냥 그 자리에 오래도록 서 있었다.

이윽고 그는 애원하기 위하여 벗었던 모자를 천천히 머리 위로 가져다 썼다. 그리  
자 그는 주먹을 쳐들고 대문을 부시져라 두드렸다.

그는 갈라진 손가락 사이에 흘러내리는 선혈을 놀란 듯 내려다 보고 있었다.

아침은 아직 일렀으나 어렴풋한 신기루가 서고 있었다.

「끼노」와 「후아나」는 천천히 바닷가로 내려오자 「끼노」는 키누 있는 데로 다가왔다.

이 한 척의 키누야말로 그가 이 세상에서 갖고 있는 귀중한 물건의 하나였다.

그것은 매우 오래된 것이었다.

「끼노」의 할아버지가 「냐야리트」에서 가져온 것을 「끼노」의 아버지에게 주었던 것  
인데, 그것이 이처럼 「끼노」의 손에 돌아오게 된 것이었다.

그에게 있어서 이것은 하나의 재산인 동시에 식량의 근원이기도 하였다.

왜냐하면 키누 한 척만 있으면 남자는 아내를 맞이해도 먹여 살릴 수 있다는 걸  
보증할 수 있기 때문이었다.

이것은 또한 기아에 대한 보루였던 것이다. 그리고 「끼노」는 매년 이 키누를 자  
기 부친한테서 물려받은 비범으로 단단한 조개같은 석고로 다시 바르고 했다. 그는  
키누 옆에 다가오자 언제나 하다시피 뱃머리를 부드럽게 어루 만졌다.

그러자 그는 잠수용의 들맹이와 마구니와 그리고 두 개의 밧줄을 키누 옆 모래사  
장 위에 놓았다.

그 다음 그는 모포를 접어 뱃머리에 깔았다.

「후아노」는 모포 위에다 「쥬요머도」를 얹히고 따가운 햇볕이 내려 쪼이지 않게끔 자기 쇼울을 그 위에 덮었다.

「쥬요머도」는 이제 잠잠해졌으나 어깨의 부풀음이 목 위 귀 밑까지 연해 있었으며 얼굴은 부어 열이 가지지 않았다. 「후아나」는 물가에 다가가자 그냥 얇은 물 가운데로 들어갔다.

그리고 갈색의 해초를 얼마큼 끊어 모아 그것을 편편하게 만들어 어린애의 부풀어 오른 어깨에다 붙였다.

「끼노」는 두 개의 밧줄을 갖고 있었다. 한줄엔 문직한 돌이 매어 있었고 다른 밧줄에는 바구니가 매달려 있었다.

그는 바지와 셔츠를 벗어 버리고 모자를 키누의 밑바닥에 놓았다.

해면은 기름처럼 반들반들 했다.

그는 한 손에 돌을 들고 다른 한 손에는 바구니를 들고 서둘러서 밧전에서 발을 미끌어지게 하자 돌은 그의 몸을 물 밑으로 가져갔다.

「끼노」는 무슨 비밀의 영감이나 받아 가진 듯 물 밑 깊숙이 들어갔다.

바구니 속에 던져진 하나 하나의 조개가 진주를 품고 있는지도 모를 일이었다. 머리 위 키누 안에서는 「후아나」가 「쥬요머도」의 부어오른 어깨에 요행을 바라며 억지로라도 행운을 잡으려고, 하나님의 손에서 행운을 잡아 채려고, 얼굴을 엄숙히 하고, 온 몸을 정숙히 하고, 마법의 기도를 연상 올리고 있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자랑과 젊음과 힘에 넘치는 「끼노」는 유유히 물 속에 잠겨 가장 큰 조개를 고르고 있었다.

바다 밑의 고요함이 망해가 뉘자 굴 조개는 모조리 그 입을 딱 다물고 말았다.

그의 바른편 조금 외딴 곳에 부서진 바위의 작은 돌 언덕이 있었고 따기에는 아직도 어린 굴들이 덮여져 있었다.

「끼노」는 그 언덕 앞으로 움직여 나아 갔다. 그때였다. 바로 옆 불쭙 튀어나온 바위 밑에 일련의 굴과는 동떨어진 외딴 곳에 하나의 커다란 굴이 홀로 누워 있는 것을 발견했다.

쑥 내민 바위틈이 이 높은 굴을 보호하고 있었기 때문에 조개는 입을 조금 벌리고 있었다.

그때 그 입술과 같이 생긴 근육 사이에서 한가닥의 어슴푸레한 빛을 「끼노」가 보았다고 느끼자 조개는 얼른 그 입을 닫아 버리고 말았다.

「끼노」의 심장은 무거운 리듬을 울리며 간절히 바라는 진주의 멜로디가 날카롭게 컷가에 울려 왔다.

그는 천천히 그 손을 잡아헤자 그것을 가슴에 꼭 껴안았다.

그는 발을 휘저어 무게들의 고리에서 빠져 나오자 그의 몸은 곧장 수면으로 속 떨어 올라 새까만 머리칼이 햇빛에 반짝 빛났다. 그는 키누의 땃진 위로 손을 뻗혀 손을 댈 때 밑에 잤다 놀았다.

「후아나」의 관심은 「끼노」에게로 쏠렸다. 그녀는 쇼울을 덮어씌운 「꼬요머또」의 머리 위에 손을 얹었다.

『열어보세요.』

「후아나」는 부드럽게 말했다.

「끼노」는 나이프를 찢질가에다 재치있게 쑥 밀어 넣었다.

나이프에서 근육이 단단히 쪼여드는 반응을 느낄 수 있었다.

그는 지렛대를 움직일 때처럼 칼날을 움직이자 꼭 닫혀 있던 근육이 떨어지고 조개는 돌로 갈라졌다.

「끼노」가 입술 모양으로 꿈틀거리는 살을 제쳤을 때 과연 그 속에는 큼직하고 완전한 진주가 은빛 같이 눈부신 빛을 내었다. 그야말로 세계 제일의 커다란 진주였다.

「끼노」가 죽어가는 살 속에서 진주를 집어내어 그것을 손바닥에 얹고 굴러 보았으나 그것은 그야말로 완전한 꼭션을 가진 아름다운 진주였다.

「후아나」가 「끼노」있는데로 다가와서 그의 손 안의 진주를 눈여겨 들여다 보았다. 의사집의 대문을 부서져라 내려친 바로 그 손이었다.

그리고 씻어진 매듭살을 바닷물로 희백색으로 변해 있었다.

「후아나」의 시선은 본능적으로 아버지의 담요 위에 누워 있는 「꼬요머또」에게로 돌아갔다.

그리고 찢질하던 해초를 들어 올려 어린애의 어깨를 만져 보았다.

『「끼노」』하고 그녀는 소리높이 외쳤다.

진주에서 시선을 옮긴 그의 눈에는 어린애 어깨의 부증기가 가라 앉은 것이 눈에 띄었다. 어린아이의 몸에서 독이 빠져가고 있다는 증거였다.

그러자 「끼노」의 주먹은 진주를 꼭 움켜 쥐었다.

복바쳐 오르는 걱정에 사르잡히고 말았다.

그는 머리를 쳐들자 함성을 고래고래 질렀다. 눈을 부릅뜨고 울부짖는 그의 몸은 호느낌에 꺾어졌다.

다른 키누에 타고 있던 사나이들은 깜짝 놀라 얼굴을 쳐 들었다.

그러자 노를 세차게 저으며 곧장 「끼노」의 키누를 향해 저어 오고 있었다.

소문이란 무서운 것이었다.

아이들이 그것을 굶어모아 그 소문을 알리려 쓴살같이 날아가기 보다 또는 여인네들이 담장 너머로 그것을 들고 다니는 것 보다도 더욱 빠르게 그 소문은 퍼져 가는 것만 같았다.

「끼노」나 「후아나」나 그리고 다른 어부들이 「끼노」의 초가집에 닿기도 전에 마을의 새로운 신경은 그 소문에 흥분되어 뒤흔들리고 있었다.

「끼노」가 세계 제일의 진주를 발견했다는 것을 조그마한 아이들이 툴떡거리며 뛰어와 알리기도 전에 어머니들은 이미 알고 있었다.

소문이 초가집 부락을 한번 휩쓸고 지나가자 이번에는 거품이 이는 파도가 되어 들집이니 회칠한 집들이 날아선 마을을 씻었다.

소문이 마을을 거닐고 있던 사제의 귀에 전해지자 그의 두 눈엔 그 어떤 생각에 잠긴 빛이 감돌았고 교회에 필요한 수리를 생각나게 했다.

그 진주가 얼마나 가치있는 것일까 하고 생각했다.

그리고 「끼노」의 갓난애기에게 세례를 해 주었던가, 그리고 그에게 결혼식을 올려 주었던가 하고 생각하기도 했다.

소문이 장사꾼들의 귀에 들어오자 그들은 이내 잘 팔리지 않는 남자 옷을 쳐다보았다.

이 소문이 의사의 귀에 전해왔을 때 그는 마침 어떤 부인과 마주앉아 있었다. 이 부인의 병은 노쇠증이었지만 부인도 의사도 그것을 알려고도 하질 않았다.

그리고 「끼노」가 누구인가 알게 되자, 의사의 얼굴은 곳곳해지며 동시에 빈틈없는 태도로 변했다.

『그는 나의 환자야.』 의사는 계속하여 『나는 전갈에 물린 그의 어린애를 치료하고 있어.』라고 말했다.

그러자 의사의 눈이 기름진 눈꺼풀 위에서 약간 움직이며 그는 「빠리」의 추억에 잠겨 버리고 말았다.

「빠리」에서 살고 있던 그의 방은 크고 호화로운 방이라고 생각되었고 그와 동거생활을 한 일이 있던 그 인상 나쁜 여인도 지금은 젊고 최칠한 미녀와 같이 생각되었다.

사실은 이것과는 인연이 먼 여인이었지만 의사는 환자인 늙은 부인에게서 눈을 돌리자 자기는 「빠리」의 레스토랑에 자리잡고 사환이 막 포도주병을 열고 있는 장면을

머리 속에 그리고 있었다.

교회 앞에 있는 거지들에게도 재빨리 소문이 전해오자 그들은 기쁨에 못이겨 걸걸 웃어댔다.

갑자기 행운아가 된 가난뱅이 만큼 인심좋은 자선가는 이 세상에 없다는 것을 그들은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오후가 되어 해가 반도의 산마루 위를 지나 바깥 바다 쪽으로 기울어 질 무렵 「끼노」와 「후아나」는 나란히 그들의 오막집에 웅크리고 앉아 있었다.

그리고 그 초가집엔 이웃 사람들이 가득 모여 들고 있었다.

「끼노」는 그 큰직한 진주를 손에 쥐고 있었는데 진주는 손 안에서 따뜻하게 살아 있었다.

그리하여 진주의 음악은 「우리집 노래」와 융합되어 서로의 감정을 더욱 아름답게 했다. 이웃 사람들은 「끼노」의 손안의 진주를 쳐다보며 어쩌면 저와 같은 행운이 사람에게 찾아올 수 있을까 하고 생각했다.

「후안·토마스」는 형제였기 때문에 「끼노」의 바른쪽에 웅크리고 앉아 『자넨 부자가 되었으니 뭘 할 작정인가?』하고 물었다.

「끼노」는 자기의 진주에 시선을 모으고 있었고, 「후아나」는 속 눈썹을 아래로 내려 감고 흥분이 남의 눈에 띄지 않게끔 쇼울로 얼굴을 가렸다.

진주의 백광 속에는 「끼노」가 이제까지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여 단념하여 온 여러 가지의 공상이 머리 속에 구상화되어 나타났다.

진주 속에 그는 「후아나」와 「꼬요퍼도」, 그리고 그 자신이 높은 계단 앞에 서기도 하며 부를을 꿰기도 하는 것을 보았다. 그리고 들은 자기네들의 비용으로 지금 결혼식을 올리고 있는 것이었다. 그는 부드럽게 속삭였다.

『우리들, 결혼식을 올립니다. 교회에서 만시오.』

진주 속에서 그는 세 사람의 옷 차림을 보았다.

「후아나」는 새로 맞춘 땃땃한 쇼울에 새 스커트, 그리고 그 긴 스커트 아래에서 「끼노」는 그녀의 신고 있는 신발을 보았다.

그것은 진주 속에 보였다.

환영이 그 속에 빛나고 있었다.

그 자신도 새로 지은 천옷을 몸에 걸치고 손에는 새보자——백고모자가 아니고 훌륭한 검은 증절모——그리고 구무도 신고 있었다.

그러나 「꼬요며도」는 하나 밖에 없는 그 미국서 온 파아란 세일러 복을 입고 언젠가 관광선이 강 어구에 들어 왔을 때 「끼노」는 빛나는 진주 속에서 보았다.

그는 말했다.

『우리는 새옷을 입을 거야.』 그러자 진주의 멜로디는 그의 컷전에 트럼펫트의 코러스 처럼 솟아 올랐다.

뒤 이어 회색진주의 어여쁜 표면에 「끼노」가 원하고 있었던 조그마한 물건이 떠올랐다.

일년 전에 잃어버린 손잡이 끝에 고리가 달린 쇠로 만든 새 작사리. 그 다음 그의 마음은 갑자기 비약했다.

라이플소총——큰 부자가 되었는데 왜 그걸 가져서 안 된단 말인가. 드디어 「끼노」는 진주 속의 「끼노」를 보았다.

그 「끼노」는 윈체스터 칼빈 총을 갖고 있었다.

그것은 약삭스럼고도 유쾌한 백일몽이었다.

이 환상에 그의 입술은 머뭇거리듯 움직였다.

『라이플! 라이플이야 글썄.』

집안에 뻑뻑히 모여 앉아 잠잠히 듣고 있던 동네 사람들은 그의 분명한 공상에 머리를 끄덕이였다.

그리고 뒤에 앉아 있던 한 사나이는 중얼거리듯 말하였다.

『라이플, 그는 라이플을 사고 말거야.』 그리고 진주의 음악은 「끼노」의 마음 속에서 의기양양하게 소리높이 울리고 있었다.

「후아나」도 눈을 쳐들었으나 그 눈은 「끼노」의 용기와 공상이 커다랗게 떠올랐다.

그리고 이제 전격과 같은 무서운 힘이 그에게 닥쳐오자 그 사년의 세계에는 또 하나의 세계가 보이였다.

진주 속에서 그는 「꼬요며도」가 학교의 조그마한 책상에 앉아 있는 모습을 보았다. 그것은 언젠가 한 번 활짝 열린 창문을 통하여 본 것과 같은 그런 모습이었다.

그리고 「꼬요며도」는 자켓트를 입고 하얀 켈러에다 넓다란 명주 넥타이를 매고 있었다. 더군다나 「꼬요며도」는 한 장의 넓직한 종이에다 글을 쓰고 있었다.

「끼노」는 사납게 이웃 사람들을 쳐다보며 『내 아들을 학교에 보내겠소.』 하고 말했다. 이웃 사람들은 입을 굳게 다문채 아무 말도 없었다.

「후아나」는 깊은 숨을 들이켰다.

그를 쳐다보는 그녀의 눈은 빛났다.

「후아나」는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하는 듯이 팔에 안고 있던 「프요며또」에게로 제빨리 시선을 옮겼다.

그러나 「끼노」의 얼굴은 예언에 빛나고 있었다.

『내 아들은 책을 퍼들고 입을 거야. 내 아들은 쓰는 법도 배우고 읽기도 할 거야. 그리고 계산도 할 수 있게 될 거야. 그러면 그놈이 알테니 우리도 자유의 몸이 될 거야. 이 애만 그 모든 것을 알게 되려는 그 애를 통하여 우리도 알게 될 거야.』 이렇게 말한 「끼노」는 진주 속에서 초가집과 모닥불 옆에 그 자신과 「후아나」가 쪼구리고 앉아 있고 「프요며또」는 커다란 책을 읽고 있는 장면을 보았다.

『진주가 이렇게 해 주는 거야.』라고 「끼노」는 말했다.

그러면 「끼노」는 그의 평생, 이처럼 한꺼번에 말을 많이 한 적은 없었다.

갑자기 그도 자기 잔소리가 무서워졌다. 그의 손은 진주를 움켜쥐고 그것에서 발산되는 빛을 가로 막았다.

「끼노」는 알지도 못 하면서 『나는...할테야.』라고 말하는 사나이가 무서워 하는 것과 꼭 같은 무서움을 느꼈다.

「끼노」의 시선은 팔끈 된 주먹으로 돌아 갔다. 그 대문을 내려치면 손가락 매듭은 딱지가 생겨 딱딱해졌다.

이제 어둠이 다가 왔다.

「후아나」가 아이를 업고 부채질을 하며 불을 피웠다.

조그마한 불꽃이 이웃 사람들 얼굴 위에 춤추었다.

그들은 저녁을 먹으러 가야 하는 걸 알고 있었지만 좀체로 일어서려고도 하지 않았다.

마을은 거의 어둑어둑해져 갔다.

그리고 「후아나」가 편 불이 벽에 그림자를 던지고 있을 때 사람들의 입에서 입으로 속삭임이 전해 왔다.

『신부님 오신다. — 사제님이 오셨다.』

그러자 사내들은 머리에 쓴 두건을 벗고 문 입구에서 한 발자국 물러섰다.

아낙네들은 쇼울을 얼굴에 끌어 올렸고 눈은 아래로 떨어 뜨리었다.

「끼노」와 그의 형 「후안·토마스」는 자리에서 일어섰다.

사제는 안으로 들어 왔다.

— 창백한 늙은이며 살갓도 희었으나 눈은 젊고 날카로웠다. 그는 이 사람들을 어

린애들이라고 보고 어린애와 같이 다루는 것이었다.

『끼노!』

그는 부드럽게 불렀다.

『그대는 위대한 신 어른——그리고 위대한 신 교부의 이름을 따서 지은 거야.』

그는 마치 속도를 올릴 때처럼 엄숙히 말했다.

『그대와 같은 이름의 그 분은 광야를 갈고 그대 동포의 마음을 누그럽게 했는데 그대는 그것을 알고 있는가? 이것은 책에 쓰여져 있는 말이야.』

『끼노』는 「후아나」의 허리에 얹혀 있는 「쑤요떠또」의 머리에 재빨리 시선을 던졌다. 그는 마음 속에서 말했다.

——언젠가는 이 애도 무슨 말이 책에 쓰여져 있는지 없는지를 알게 될 것이다.  
——진주의 음악은 어느 듯 「끼노」의 머리에선 사라졌고 이제 악마의 멜로디가 그리고 저의 음악이 가냘프게 천천히 울려왔다.

그러나 그건 희미하고 힘없고 약한 음악이었다.

『끼노』는 누가 이 노래를 가져왔는가를 알려고 주위 사람들을 쳐다보았다.

그러나 사제는 다시 입을 열었다.

『그대는 큰 재산, 거대한 진주를 발견했다는 말을 들었네.』

『끼노』가 손을 벌리고 진주를 내보이자 사제도 그 진주의 크기와 아름다움에 순간 입을 딱 벌렸다.

그리고 나서 그는 말했다.

『나의 아들이여, 나는 그대가 그대에게 이 보배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올리며 앞날의 지도를 비는 일을 잊지 말도록 바라네.』

『끼노』는 묵묵히 고개를 끄덕이고 있었으나 「후아나」는 조용히 말했다.

『알았습니다. 신부님, 그런데 저희들은 절혼식을 울디려고 합니다. 「끼노」는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녀는 확인을 받으려는 듯이 이웃 사람들을 쳐다보았다.

그들은 머리를 끄덕였다.

사제도 말했다.

『그대들의 처음 생각이 훌륭한 생각인 것을 알고 매우 반갑네, 나의 어린 것들이여! 그대들에게 신의 축복이 있기를……』 이렇게 말하자 그는 돌아서서 조용히 밖으로 나갔다.

사람들은 길을 비켜 주었다.

그러나 「끼노」의 손은 다시 진주를 움켜 쥐었다.

그는 의심하는 듯 주위를 두리번 거렸다. —진주의 음악에 날카롭게 대항하는 악마의 노래가 귓가에 울리고 있었다. 사제가 「끼노」의 집에서 떠나간 뒤 얼마 안 되어 「끼노」의 집을 향하여 다가오는 두 사람의 그림자가 보였다. 한 사람은 초롱을 들고 있었는데 그 빛이 땅바닥과 두 사람의 다리를 비치고 있었다. 그들은 「끼노」의 집 담을 울타리 열린 곳으로 들어와 입구 바로 가까이까지 다가왔다.

그러자 「끼노」는 한 사람은 마을의 의사며 다른 한 사람은 그날 아침 대문을 열어 주던 사환인 것을 알았다.

두 사람의 정체를 알았을 때 「끼노」의 바른 손의 잘라진 손가락 매듭이 갑자기 화끈거렸다.

의사는 입을 열었다.

『오늘 아침 자네가 왔을 때 나는 마침 집에 없었지. 그러나 이제 겨우 틈이 났으니 뭇 보다 먼저 어린애를 보러 온거야.』 「끼노」는 문 입구에 버틴채 서 있었다. 그의 검은 눈 속에서 증오의 분노가 불타고 있었으나 한편 공포를 느끼고 있었다.

수백년 동안에 걸친 복종이라는 것이 그의 몸 안에 깊이 새겨지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어린애는 거의 나왔어요.』

그는 무뚝뚝하게 말했다.

의사는 허죽 웃었으나 조금 행복할 눈까풀 안의 눈은 웃고 있지 않았다.

그는 말했다.

『이것 보게, 전갈에 찔리던 때로는 이상한 결과를 가져오는 거야. 보기에는 나은 것 같으면서도 그러다가 아무런 예고도 없이 버란간 독증이 닥쳐오는 거야.』 그는 입술을 오무려 그것이 얼마나 갑자기 닥쳐오는가를 보이기 위하여 낮은 터짐 소리를 내어 보이며 그 다음 초롱불이 비치고 있는 쪽으로 왕진용의 가방을 읊었다.

그는 「끼노」의 종족들은 어떠한 기술적 기계진 사랑하며 그것을 믿고 있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이다.

『때로는 말이야.』 의사는 명랑하지 못한 목소리로 끈끈하게 말했다.

『때로는 다리를 못 쓰게 되든지, 장님이 되든지 혹은 깎추가 되는 수도 있는 거야. 아니 전갈에 물린 상처쯤은 자네, 나는 잘 알고 있으니 얼마든지 고칠 수 있다는 말이야.』

「끼노」는 자기 의 분노와 증오가 차차 공포감으로 변해가는 것을 느꼈다.

아무 것도 모르는 그는 의사의 지식에 대하여 맞설 수는 없었다.

그의 종족들이 항상 함정에 빠졌던 그것과 같이 그도 역시 함정에 걸리고 말았던 것이다.

그는 「쵸오며또」의 생명이나 건전함을 걸어서까지 버틸 수가 없었다.

그리하여 의사와 그의 종을 자기의 초가집에 들어가게 했다.

그가 안으로 들어 갔을 때 「후아나」는 문간에서 일어서 뒤로 물러서며 쇼울에 달린 레스로 어린애의 얼굴을 덮었다.

그리고 의사는 그녀의 걸음으로 다가서며 그의 손을 내밀었다.

그러자 그녀는 어린애를 꼭 껴안으면서 흠추는 불 그림자를 얼굴에 받으면서 서 있는 「끼노」의 얼굴을 쳐다보았다. 「끼노」가 고개를 끄덕이자 비로소 그녀는 의사에게 어린애를 안겨주었다.

「불을 들어.」

의사가 이렇게 말하자 사환은 초롱을 높이 쳐들었다. 의사는 어린애 어깨의 상처를 잠깐 들여다 보았다.

그는 잠시 동안 생각하는 기색이더니 어린애의 눈까풀을 뒤집어 올려 눈동자를 눈여겨 보았다.

그는 머리를 끄덕끄덕 했다.

그 동안 「쵸오며또」는 마구 몸부림치고 있었다.

『역시 내가 생각한 그대로야.』 그는 말했다. 『독은 몸 안에 들고 있어. 오래지 않아 반응이 올 거야. 와서 보게나!』

그는 눈까풀을 아래로 비틀어 보였다.

『자, 보게나 파랗게 되어 있잖나?』

「끼노」는 근심스러운 표정을 지으며 들여다 보았다.

정말 조금 푸른 빛이었다.

그러나 그는 그것이 정말 푸른기를 띤 것인지 아닌지를 분명히는 모르고 있었다. 그러나 함정은 이미 마련되고 있었다. 그는 되나 안 되나, 모험할 수는 없었다. 『독을 풀어야 하니까 뉘를 먹여 보도록 하지.』 의사는 이렇게 말하고 나서 어린애를 「끼노」에게 넘겨 주었다. 의사는 하얀 가루약이 들어 있는 조그만 약병과 젤리틴의 교갑을 꺼내어 가루약을 그 교갑에 넣고 뚜껑을 달고 매우 재치있는 솜씨로 치료를 했다.

의사는 약을 먹이고 나서 『독은 한 시간 이내에 돌아올 것 같은데 약기운으로 아픔

은 없어질 거야. 하여튼 한 시간 후에 다시 돌아오지, 아마 늦지 않아서 살릴 것 같애.』 그는 김숙이 숨을 쉬고 오막집 밖으로 나가자 사환은 초롱을 들고 그의 뒤를 따라 나섰다.

「후아나」는 어련에 위에다 쇼을을 걸치고 불안과 공포에 잠겨 어린애를 응시했다.

「끼노」는 그녀의 옆으로 다가오자 쇼을을 기워 울리고 어린애를 가만히 응시했다. 그는 눈동자를 들여다 보려고 손을 움직였다. 그제서야 진주론 아직도 손 안에 쥐고 있었다는 것을 알았다. 그러자 그는 벽 옆의 상자있는 베로 가서 닝마 한 조각을 그 상자에서 꺼집어 냈다. 그는 그 닝마조각에 진주를 싸가지고 초가집 한쪽 구석으로 갔다.

그리고 흙 바닥에 손가락으로 조그마한 구멍을 파고 그 구멍에 진주를 넣어 흙을 덮고 그 장소를 감추었다.

그런 다음 「후아나」가 웅크리고 앉아 있는 화로가에 가서 어린애 얼굴을 들여다 보았다.

「끼노」가 식사를 마치고 담배를 맡고 있을 때 「후아나」는 날카롭게 의했다.

『「끼노」!』—

그는 그녀가 있는 쪽을 힐끗 쳐다 보았으나 그녀의 눈이 멀고 있는 기색을 보자 얼른 일어나서 그녀에게로 다가왔다. 그는 그녀의 머리 위에서 내려다 보았으나 불빛은 몹시도 희미했다.

그래서 그는 불쏘시개 더미를 아궁이에 발로 차 넣어 불꽃을 일게 하고 비로소 「꼬요미또」의 얼굴을 볼 수 있었다. 어련에 얼굴을 화끈 붉어졌고 목구멍은 할딱거리고 있었다.

그리고 입술에선 진한 침이 흐르고 있었다. 윗 입술 근육이 경련을 일으켜서 어련애는 방금 증태에 빠져 있었다.

「끼노」는 아내 옆에 무릎을 꿇고 앉았다. 『여시 의사는 알고 있었구만……』 그는 이렇게 말했으며 이것은 자기 아내에겐 물론 자기 자신에게도 타이른 말이였다.

「후아나」에 팔에 안긴 어련애는 도하며 몸부림치며 피트와했다.

이제 「끼노」의 마음 속은 불안에 싸여 있었다.

어련애가 증태에 빠졌다는 소문이 초가집들 사이에 재빨리도 짝 퍼지고 동네 사람들이 많이 몰려와서 서로들 걱정하고 있을 때 의사는 하인을 데리고 급히 서둘러 「끼노」의 집으로 들어왔다. 그는 어련애를 받아들자 이곳 저곳을 살펴보고 머리를 만져

보았다.

『기어이 독이 풀았구로.』 그는 말했다.

『그러나 내가 이 독을 없애 보이지, 하여튼 최선을 다 해보지.』 그는 물을 떠오게 하고 컵에다 암모니아를 세 방울 떨어뜨렸다.

그 다음 어린이에 입을 들추어 벌리게 하고 그것을 부어 넣었다.

이 바람에 어린이는 침을 튀기며 찌를 듯한 소리를 내어질렀다.

『후아나』는 도깨비에 홀린 듯한 눈초리로 어린이를 지켜보고 있었다. 의사는 치료 들 하면서 몇 마디 말했다.

『내가 전갈의 독에 대해서 잘 알고 있어서 다행이었어, 그렇지 않았더라면——』 이렇게 말하자 그는 어깨를 으쓱하여 보이며 어떻게 되고 말았을까 하는 것을 보여 주었다.

그러나 「끼노」는 의심하고 있었다. 그는 의사의 옆에 제쳐놓은 왕진가방과 그리고 그 속에 있는 하얀 가루약 병에서 눈을 빼지 않았다.

차츰 경련도 가라앉고 어린이는 의사의 손 아래서 축 늘어져 있었다.

드디어 「쵸요며도」는 깊이 한숨을 쉬며 토하는데 지친셈인지 새근새근 잠들어 갔다. 의사는 어린이를 「후아나」의 팔에 안겼다.

『이젠 괜찮아.』 그는 말했다.

『나는 싸움에 이겼어.』 이 말에 「후아나」는 존경하는 눈초리로 그를 쳐다 보았다.

그리고 나자 의사는 가방을 닫으면서 말했다.

『이 치료비는 언제 지불해 주겠어?』 그의 목소리는 부드럽게 들리기조차 했다.

『진주를 팔면 곧 지불합죠.』 「끼노」는 말했다.

『진주를 갖고 있어? 좋은 진주인가?』

의사는 흥미있게 물었다.

그러자 모여든 사람들이 일제히 입을 열었다.

『세계 제일의 진주를 발견했다우.』

그들이 부르짖듯 말하자 엄지손가락과 둘째 손가락으로 동그라미를 그리며 그것이 얼마나 큰 진주였던가를 보여 주었다.

『「끼노」는 부자가 될 거예요.』 그들은 떠들며 말했다.

『여태까지 아무도 보지 못 했던 진주니까요.』 의사는 놀란 듯한 얼굴표정을 지었다.

『그건 초문인 걸, 그래 진주를 어디 안전한 곳에 보관해 두었는가? 나의 금고에

넣어 출까?』

「끼노」는 눈을 떴어 뜨렸으나 뺨은 팽팽하게 긴장되고 있었다.

『잘 간수해 놓았소.』 그는 말했다.

『내일 잘게 되면 약 값을 치루어 드리기로 하죠.』 의사는 어깨를 움추렸으나 그의 촉촉한 눈은 「끼노」의 눈에서 좀체로 떠날 줄 몰랐다.

진주가 이 집안 어디에 파묻혀 있을 것이라고 그는 알고 있었기 때문에 「끼노」는 자기가 파묻은 장소에 눈조리를 던질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이다.

『랄기 전에 누가 훔치거나 하면 커다란 수치니까 말아야.』 이렇게 말하자 그는 「끼노」의 시선이 저도 모르게 초가집주석 기둥옆 흠바닥 쪽으로 쏠려 지는 것을 보았다.

의사가 가버리고 동네 사람들도 집으로 돌아갔다.

바닷가를 부드럽게 어루만지는 잔잔한 파도소리가 들려오고 개 짖는 소리, 초가집 지붕 위를 스치는 산들 바람소리가 들려왔다.

「끼노」는 자리에서 일어나 입구로 걸어 나갔다. 바로 그때였다. 이상한 인기척 소리가 들려왔다. 그는 조심스럽게 주위를 살폈다.

그리고 진주를 파묻은 기둥 옆 그 장소를 파헤쳤다.

그리하여 그것을 자기 잠자리 거적 있는데로 옮겨 가만히 파묻었다.

그러나 모닥불가에 앉아 있던 「후아나」는 의심하는 눈조리로 그를 쳐다보고 있었는데 그가 진주를 옮겨 파 묻고 나자 「후아나」는 몰랐다.

『누구를 무시위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잠자리 거적 위에 나란히 누워 차츰 잠에 잠기어져 갈 무렵 오막사리집 한 구석에서 가려운 발걸음 소리가 들려왔다. 그 다음에는 숨을 죽인 거의 들을 수 없을 만큼 나직한 목구멍 울리는 소리가 들려왔다.

「끼노」는 숨을 죽이고 귀를 기울였다. 그리고 집안에 침입해 온 거무스름한 무엇이 이것 또한 숨을 죽이고 있는 것을 알았다.

잠깐 동안 초가집 안에서는 아무런 소리도 일어나지 않고 그야말로 잠잠했다.

「끼노」는 착각해서 오는 소리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후아나」의 손은 경교라도 하는 듯이 그의 몸 위로 뻗었다.

그러자 그 소리가 다시 들려왔다.

그것은 마른 땅 위를 스치는 발걸음 소리였고 흙을 파 헤치는 손가락 소리였다. 「끼노」의 가슴 속에선 격렬한 공포가 물결쳤다. 그리고 늘 그랬듯이 공포와 더불어 적분이 솟아 올랐다.

「끼노」의 손은 절차로 가슴패기로 살살 기어 들어갔다.

거기엔 끈에 매달린 잭·나이프가 있었다. 그는 성난 고양이 처럼 벌떡 일어나자 오막집 한 구석에 있다고 생각한 그 그림자를 향하여 침을 뱉으며 뛰어 들었다. 그는 자기의 칼이 옷에 닿는 것을 느끼자 칼을 쑥 쥘렀으나 그때 그의 머리는 번개불에 얻어 맞아 터지는 듯한 아픔을 느꼈다.

그러자 문 입구 쪽에 나즈막하기는 하나 당황하는 종종 걸음소리가 들려왔으나 그것도 곧 잠잠해졌다.

「끼노」는 이마에서 뜨거운 피가 흘러 내리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다.

그리고 「후아나」가 자기를 부르고 있는 소리도 들을 수가 있었다.

『「끼노」! 「끼노」! 그의 목소리에는 공포의 울림이 감돌고 있었다.

그러자 분노가 재빨리 밀려 온 것과 같이 냉정히 또한 재빨리 그에게로 달려왔다. 그는 말했다.

『나는 괜찮다. 그놈은 도망쳤어.』

「후아나」는 쇼운의 것을 물에 적서 「끼노」의 상처 생긴 이마에서 피를 닦아 주었다.

『아무렇지도 않아.』 「끼노」는 이렇게 말했으나 그의 눈과 목소리는 거칠고 싸늘하며 내려 달린 증오는 심해져 갔다. 이제 「후아나」의 마음 속에 점점 커져 온 긴장은 마침내 참을 수 없이, 얼굴에까지 뚫어 올라 그녀의 입술은 가늘게 다물어졌다.

『이전 불길해요.』

「후아나」는 거칠은 목소리로 말했다.

『이 진주는 마치 죄를 범하는 것 같군요! 우리들을 망치고 말 거예요.』

「후아나」의 찢는 듯한 목소리는 높아졌다. 『이런것 내버려요 「끼노」, 돌로 깨 버립시다. 파묻어 버려요. 잊어버리고 말시다. 그렇잖으면 바다에 던져 버리든지 이것이 재난을 가져왔으니 말이죠. 「끼노」! 여보, 우리들은 다 망하고 말 거예요.』 이렇게 말한 「후아나」의 입술과 눈은 불빛이 어리어 공포의 빛을 띠고 있었다.

그러나 「끼노」의 얼굴은 쌀쌀했다. 그리고 그의 마음과 의지도 움직이지 않았다. 『이전 우리에게 두 번 다시 없는 기회야.』 그는 말했다. 『우리들의 애들은 학교에 보내야 하는 거야. 「꼬요떠또」만은 우리들을 가두고 있는 항아리에서 빠져나가야 하는 거야.』

『진주로 우리들은 모조리 망칠 거예요.』

「후아나」는 부르짖었다.

『우리들의 아들마저.』

『조용히 해요.』

「끼노」는 말했다.

『더 말하지 마세요. 아침에는 진주를 팔테니까요. 그러면 재난도 없어질 것이고 좋은 결과만 남게 되는거요. 이제 조용히 해요 여보!』

그는 거무스레한 눈을 흘겨 조그마한 불을 노려보았다.

그리고 그때 처음으로 칼을 아직껏 손에 잡고 있는 것을 깨닫고 칼날을 쳐들어 유심히 쳐다보자, 한 가닥의 빛줄이 묻어 있는 것을 보았다. 그 순간 그는 마지애다 칼날을 닦는 것 같았지만 그는 땅바닥에 칼을 썩 쥘러, 깨끗이 닦았다.

새벽은 다가왔다.

「끼노」는 잠자리 거적대기를 거둬 올리고 진주를 파냈다.

그리고 그것을 자기 앞에다 놓고 응시했다. 조그마한 촛불이 비쳐 번쩍이며 율이나는 진주의 아름다움, 그 아름다움에 그의 머리는 현혹되고 말았다.

참으로 형용하기 어려운 아름다움.

그 부드러움, 그것만이 갖는 음악이 흘러오고 있었다——.

희망과 환희, 미래와 안전과 위안을 보증하는 음악.

그 따스한 빛은 질병에 대한 귀중한 약음, 그리고 모욕에 대한 답을 약속하는 것이었다.

그리고, 또한 굶주림에 대한 문을 닫는 것이었다.……그들은 희망에 넘쳐 이날을 맞이했다.

조그마한 마을에는 「끼노」가 그날 자기의 진주를 팔 것이라는 소문이 아침 일찍부터 온 마을에 널리 퍼져 있었다.

「끼노」의 행열이 가까와 온다는 소식을 듣고 진주상인들은 제각기 조그맣고 어두운 가게에서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뚱뚱하고 느릿보 같은 사나이가 앉아 있는 상점 앞에 「끼노」가 다달았을 때 그 사나이는 『야, 안녕하시우?』하고 인사를 불렀다. 『무슨 용무신지요?』

「끼노」의 눈은 바깥의 찬란한 햇빛에 눈이 부셨기에 어스름한 가게 안을 가만히 들여다 보았다.

그러나 이 진주장수는 눈을 매눈처럼 매섭게 뜨고선 깜박거리지도 않았으나 얼큰한 반가이 맞이하는 듯 부드러운 웃음을 띠고 있었다.

그리고 책상 위에선 바른손으로 전시간부터 놀리던 동전을 갖고 몰래 연습하고 있었다.

『나는 진주를 하나 갖고 있는걸쇼.』

「끼노」는 이렇게 말했다.

그러자 「후안·토마스」는 그의 옆에서 약간 징중한 태도로 콧소리쳤다.

따라온 이웃 사람들은 입구에서 집안을 들여다보며 사내아이들은 창문 빛장에 일열로 매어달려 안을 들여다 보았다.

몇몇 어린애들은 손발로 기어들며 「끼노」의 발 가까이에서 그 광경을 바라보고 있었다.

『진주 한 개를요?』라고 그 중매인은 말했다.

『많이 가지고 오는 사람도 때때로 있는데 하여튼 한 번 보거나 합시다. 잘 보고 나서 좋은 값을 정하도록 하죠.』

그러면서도 그의 손가락은 연상 동전을 만지작거리고 있었다.

이제 「끼노」는 본능적으로 자기 자신의 극적효과를 알고 있었다.

그는 천천히 가죽주머니를 꺼내자 부드럽고 더러운 사슴가죽 안에서 가만히 진주를 들어내어 그 큼직한 진주를 까만 비로드를 깔 진주쟁반에 내려 굴렸다. 장사꾼은 그 진주를 집어서 자기 눈 앞에 추켜들자 그것을 빙빙 돌리며 들여다 보았다.

「끼노」가 숨을 죽이자 이웃 사람들도 같이 숨을 죽였으며 속삭임이 군중 사이로 흘러 나갔다.

『지금 보고 있는 중이야. 아직 값은 부르지 않았어——. 값을 정하는때까지는 오지 않았어.』

이제 진주중매인의 손은 하나의 인격이 되고 말았다.

손이 그 큰 진주를 쟁반에 도로 던지자 들쭉 손가락으로 모욕이나 하듯이 푹푹 찌르며 마치 불쌍히나 여기듯 또 한편 멸시하는 듯한 웃음을 띠고 있었다.

『미안하지만.』

이렇게 말하자 그는 이 불운은 자기 탓이 아니라고 보여주는 듯 어깨를 약간 움추려 보였다.

『이건 굉장한 값어치가 있는 진주라요.』 「끼노」는 말했다.

중매인은 손가락으로 진주를 부기자 진주는 뚝뚝 굴러가다가 비로드쟁반의 구석에서 가볍게 되돌아 튀어나왔다.

『당신도 플즈골드라는 황금과 비슷한 색깔의 광물이 있는 것을 들은 적이 있겠지

2.』라고 중매인은 말했다.

『이 진주는 꼭 플즈골드란 말이요. 너무 크단 말이요. 대관절 누가 사겠어요. 이런 것은 시장가치가 없는거죠. 이진 골동품에 지나지 않아요. 참 안 띄었지만 당신은 이것을 가치있는 거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이진 한낱 골동품에 지나지 않는단 말이요.』

이 말을 듣자 「끼노」의 얼굴은 어쩔 줄 몰라 당황하여 근심하는 표정을 지었다.

『이진 세계 제일의 진주야.』 그는 큰 소리로 부르짖었다.

『이런 진주를 본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렇기는 커녕.』

상인은 말했다.

『이진 너무 큰데다가 모양이 흉하단 말이요. 글세 골동품으로선 흥미가 있지만요. 어디 박물관 같은데선 조개수집 안에 넣을는지 모르겠지만, 글세, 일천 페소(Peso=스페인의 화폐단위) 같으면 내지요.』

「끼노」의 얼굴은 갑자기 어두어 지며 험악해졌다.

『오만 페소의 가치는 있어요.』 그는 말했다.

『당신도 알고 있을테지요. 나를 속일 작정이오?』

상인이 부른 값을 듣자 군중들 사이에 낮으막한 불평의 소리가 흘러나오는 것들을 들 수가 있었다. 상인은 다소 불안하게 몸이 떨리는 것을 느꼈다.

『나를 나무라지는 마시오.』

그는 재빨리 변명했다.

『나는 단지 감정하는 사람에 지나지 않으니까 다른 사람에게 물어보세요. 다른 가게에 가서 이 진주를 보여보세요. 아니 그것 보다 그 사람들을 이리로 오게 하는 것이 낫겠지요. 그러면 서로 싸고 있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을테니까요. 애……보오이!』 하고 그는 불렀다.

뒷문에서 사환아이가 나왔다.

얼마 후 세 사람의 진주 상인들은 입구에 보여선 군중들을 해치고 방에 들어왔다. 진주 상인들은 서로 얼핏 쳐다보는 일도 없었고 진주에는 눈초리를 던지질 않았다. 책상 뒤에서 있던 사나이가 말했다.

『나는 이 진주에 값을 붙였어. 그런데 임자는 그 값이 정당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단 말이야, 잠깐 이걸——이 물건을 감정해 값을 붙여주게, 알겠어?』 그는 「끼노」에게 말했다.

『내가 부른 값을 말하지 않았어요, 알겠오?』

첫째의 마르고 심술궂게 생긴 증매인은 이런 진주를 처음 보는 것 같았다. 그는 진주를 집어들자 엄지 손가락과 둘째 손가락 사이에서 제빨리 빙빙 돌리고 있었으나 곧 경멸이나 하듯이 갱반위에 꼭 집어 던졌다.

『나는 이 흥정에 응하지 않겠어.』

그는 쌀쌀하게 말했다.

『나는 도저히 값을 붙일 수가 없는 걸, 난 이런 것 필요 없어, 이진 진주가 아니고 피물이야.』

이번에는 수줍고 부드러운 음성을 가진 자그마한 둘째번 상인이 진주를 집어 들고 면밀히 감정했다.

그는 호주머니에서 렌즈를 꺼집어 내자 그것을 확대하여 검사하고 있었다.

그러자 그는 가볍게 비웃었다.

『이렇다면 모조품이 더 나올 걸.』 그는 말했다.

『난 이런 걸 알고 있어, 이것은 말랑말랑하여 분필과 같은 거야, 두 서너달 지나면 색깔도 없어지고 죽고마는 거야, 자 보시지요!』 그는 이렇게 말하고 「끼노」에게 렌즈를 내어주며 그 사용법을 가르쳐 주었다.

「끼노」는 아직껏 확대된 진주의 표면을 본 일이 없었기에 그 이상한 표면에 그는 깜짝 놀랐다.

셋째번 상인은 「끼노」의 손에서 진주를 받아 쥐었다.

『나의 단골손님중에 이런 것을 좋아하는 분이 있는데.』 그는 말했다.

『오백 페소면 내지. 아마 단골손님에게선 육백 페소는 받을 수 있을 것 같으니까.』

「끼노」는 제빨리 손을 내밀자 그의 손으로부터 진주를 잡아챘다.

그는 그것을 사슴가죽에 싸서 샤쓰 안에 밀어 넣었다.

책상 뒤에 앉아 있던 사나이는 말했다.

『역시 내가 바보야, 허지만 나의 처음 값은 그대로 주지. 일천 페소는 드리죠. 자 어떻게 하겠요?』

「끼노」가 진주를 집어넣는 것을 보고 그는 물었다.

『나를 속일려고?』

「끼노」는 사납게 소리쳤다.

『내 진주는 여기서는 팔지 않겠어. 나는 서울이라도 가지고 가겠어.』

이제 증매인들은 서로 힐끗 쳐다 보았다. 그들은 너무 지나치게 흥정했다고 생각했다. 이 실패에 대하여 전주한테서 야단을 받을 것을 그들은 괜히 알고 있었다. 그

래서 책상머리에 앉아 있던 그 사나이는 즉시 이렇게 말했다.

『자, 그러면 일천오백 배소까진 내지요.』

그러나 끼노는 균증을 헤치코 밖으로 나갔다.

사람들의 수군거리는 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고 그의 컷전에서 분노의 피가 마구 날뛰고 있었기에 그는 사람의 물결을 밀어 헤치며 성큼성큼 걸어 나갔다.

『후아나』도 그의 뒤를 따라 종종 뛰어 나갔다.

『끼노』가 서울로 떠나기로 결심했던 저녁에 그는 자기집 아궁이 돌 밑에 진주를 파묻고 있었다.

『후아나』는 가만히 그를 쳐다 보고 있었다. 그리고 『후아나』는 『꼬요며또』의 몸을 씻어주고 젖을 먹이고 있을 때에도 그로부터 시선을 빼지 않고 있었다.

그리고 나서 『후아나』는 저녁밥인 옥수수 빵을 만들었다.

『후안·토마스』는 들어오자 『끼노』 옆에 웅크리고 앉아 오래동안 가만히 있었다.

『끼노』가 드디어 입을 열고 물었다.

『다른 방도가 있어야죠? 그놈들은 다 사기꾼이니까.』

『후안·토마스』는 정색으로 부집게 끄덕였다. 그도 『끼노』의 형이었기에 『끼노』는 형의 판단을 바라고 있었다.

『어려운 일이야.』 그는 말했다.

『우리들은 세상에 나서부터 관 속에 들어가게 될 때까지 에누리를 당하며 내내 속아만 왔지. 그런데도 우리는 살아 남았거든. 너는 그들 진주장수들에 뿐 아니라 모든 조적에 아니 모든 생활방식에 반항한 거야. 그래서 너의 일이 걱정된다는 거야.』

『늬주릴 이외에 무슨 겁날 것이 있겠어요?』 『끼노』는 물었다. 그러나 『후안·토마스』는 조용히 머리를 흔들었다.

『우리들에겐 그것이 제일 무서운 거야. 하지만 실혹 네가 옳다고 한들 그리고 그 진주가 매우 가치있는 거라 한들 말이야. 그로써 승부는 끝났다고 생각하는가?』

『그건 무슨 말씀이죠?』

『나도 잘 모르겠다만.』

『후안·토마스』는 말했다.

『나는 네 일이 은근히 걱정이 되는데구나. 네게 걸어가겠다는 뜻은 처음 땅이야. 너는 가는 길도 모를 걸.』

『난 가겠어요, 곧 가겠어요.』 『끼노』는 말했다.

『그래, 좋아.』

『후안·토마스』는 동의했다.

『아무리 해도 너는 가고야 말겠, 하지만 나는 말이야 네가 서울까지 간들 별 수 없을 줄로 생각하는데 여기서 그래도 친구들도 있고 형인 나도 있지 않은가. 서울가면 아무도 없을 것이 아닌가 말이야.』

『그러면 어떻게 하란 말이요?』

『끼노』는 큰 소리로 외쳤다.

『여긴 이치에 맞지 않는 불쌍이 뿌리 깊게 박혀 있어요. 내 아들은 기회를 가져야 해요. 그러니까 그 놈들이 치고 덤비는 거죠. 나의 친구들은 나를 보호해 줄 걸요.』

『그것도 그 사람들이 그 때문에 위협이나 불쾌한 꼴을 당하지 않는 한 그럴 것이지만.』 『후안·토마스』는 말했다.

그는 곧 자리에서 일어서며 말했다.

『하나님을 믿고 가.』

그러자 『끼노』도 말했다.

『하나님을 믿고』

그러나 이 말 속에 이상야릇한 선뜻함을 느꼈기에 그는 얼굴을 쳐들지도 않았다.

『후안·토마스』가 돌아간 후에도 오랫동안 『끼노』는 거적 위에 앉은채 이 생각 저 생각에 잠겨 있었다. 일종의 무감각과 회미한 회색의 절망감이 그를 온통 지배하고 있었다. 어느 길이고 그 갈길을 딱 막고 있는 것 같이 보였다.

그의 머리 속에선 다만 적의 음악이 들려올 뿐이었다.

서울로 떠나기로 작정한 그날 저녁 『끼노』는 불의의 습격을 받고 쓸어졌다.

『『끼노』! 여보.』 『후아나』가 이렇게 부르짖자 그의 눈은 얼핏 그녀를 쳐다 보았다.

『『끼노』! 제발 들리세요?』

『응, 들려.』 그는 겨우 말했다.

『『끼노』, 이 진주는 불길해요. 우리들은 망치기 전에 이것을 없애버리고 말아요. 물에다 박살을 내고 말아요. 먼저 있던 그 바다에 내던지고 말아요. 『끼노』 이것은 불길한 것이예요, 악이에요.』

『후아나』가 이렇게 녀짜리고 있을 때 『끼노의』 눈엔 다시 빛이 되돌아와 두 눈은 매섭게 빛나며 근육은 굳어졌고 의지도 굳어져 갔다.

『난 싫어.』 「끼노」는 말했다.

『나는 이것과 싸우겠어, 나는 이기고 말겠어, 우리들은 운을 잡아야 해.』

이렇게 말하며 그는 주먹으로 거적을 내리쳤다.

『누구도 우리들로 부터 이 행운을 빼앗아 가지는 못한걸.』 그러자 그의 눈은 부드럽게 바뀌어 지너 조용히 「후아나」의 어깨에 손을 얹었다.

『나를 믿어 줘요.』 그는 말했다.

『나는 사내대장부야.』 이렇게 말하자 그의 얼굴은 교활한 표정을 지었다.

『내일 아침엔 우리들 키누를 타고 바다를 건너 산을 넘어 서울까지 가자. 그대의 들이서, 우리들은 속지 않을 거야, 나는 남자야.』

『「끼노」!』

「후아나」는 목원 소리로 말했다.

『나는 무서워요. 대장부도 죽는 수가 있죠. 자 그 진주를 도로 바다에 내던지세요』

『잠자코 있으라니까.』 그는 사납게 소리쳤다. 『나는 사내야. 잠자코 있어.』 그의 목소리는 명명하는 목소리였기에 「후아나」는 입을 다물고 말았다.

『좀 자도록 하자.』 그는 말했다.

『날이 새면 곧 떠나는 거야. 나하고 같이 가는 걸 설마 무서워하고 있지는 않겠지?』

『아뇨, 무서워 하지는 않아요.』

이 말을 듣자 그에게 쏠린 그의 눈은 부드럽고 따스했다.

그의 손은 그녀의 뺨을 어루만졌다.

『자 좀 자도록 하지.』 그는 말했다.

늦은 달은 칙 닭이 울 무렵에 떠올랐다. 「끼노」는 바로 가까이에서 무엇이 움직이고 있는 것을 느끼자 어둠 속에서 눈을 떴으나 그는 움직이지 않았다.

다만 눈으로 어둠 속을 더듬었을 뿐이었다. 그러자 조가집 틈에서 새어오는 가느다란 달빛에 비치어 자기에서 「후아나」가 살고머니 일어나는 것을 보았다.

그러자 「후아나」는 아궁이 있는대로 움직여 나갔다.

그녀는 매우 조심스럽게 동작을 하고 있었다. 그리고 아궁이의 돌을 움직였을 때에도 희미한 소리 밖엔 그에게 들리지 않았다. 그리고 나자 「후아나」는 그림자 처럼 문쪽을 향하여 미끄러져 나갔다.

그녀는 「꼬요며또」를 채워놓은 헤머크 옆에 잠깐 발견음을 멈추자 다음 순간 문입

구를 어둡게 막고 곧 사라지고 말았다.

「끼노」의 마음 속에 화가 치밀어 올랐다. 그는 벌떡 자리에서 일어나자 「후아나」와 같이 소리를 죽이며 뒤를 따랐다. 그는 종종 걸음으로 바닷가로 향하는 그녀의 발걸음 소리를 들었다.

가만 가만히 뒤를 밟아갔다.

그의 머리는 무서운 노여움에 불타고 있었다.

「후아나」는 덩불 길을 쏜살같이 빠져나가 바닷가로 달렸으나 조약돌 위를 버트적거렸다. 그러자 그 때 그가 뒤쫓아오는 소리를 듣고 불안간 쏜살같이 마구 달렸다.

손 안에 쥐었던 진주를 마침내 내어 던지려고 팔을 쳐들었을 때 그는 달려들어 그녀의 팔을 붙들고 그녀의 손에서 진주를 잡아챘다.

그는 주먹을 불끈 쥐어 「후아나」의 얼굴을 내려쳤다.

「후아나」는 자갈밭에 쓸려졌다.

그러자 이번에는 「후아나」의 옆구리를 발로 찼다.

회미한 달빛 속에 잔잔한 파도가 밀려와 「후아나」의 몸 위를 씻었다.

스커트가 등실 물에 뜨고 물이 빠져지자 그것이 그녀의 다리에 찰싹 들어붙는 것이 그의 눈에 띄었다.

「끼노」는 성난 이빨을 내어 보이며 「후아나」를 내려다 보고 있었다.

「끼노」는 뱀과 같이 소리를 지르며 「후아나」를 꾸짖었다.

「후아나」는 도살장에 끌려간 양과도 같이 별로 놀라지도 않은 눈을 크게 뜨고 그를 뚫히 쳐다 보았다.

「끼노」가 살의를 품고 있는 것을 그녀는 알았다.

그리고 그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한 「후아나」는 이를 달게 받아 저항하려고 하지도 않았고 항의하려고 생각지도 않았다. 그러자 분노는 그의 몸에서 사라지고 그 대신 막을 수 없는 증오감이 치밀어 올랐다.

그는 얼굴을 돌리자 해변가로 올라가 덩불길로 걸어 나갔다.

그의 감각은 격정으로 무감각하게 되고 말았다.

그는 자기에게로 달려오는 성난 소리를 듣자 칼을 뽑아 검은 그림자를 푹 찔렀다. 칼이 상대편의 갑소를 찌르는 것을 느꼈으나 그 때 그는 두 무릎을 굽히고 땅바닥에 쓸어지고 말았다.

육십에 가득 찬 손가락이 그의 옷을 꿰었다. 그리고 미치광이 같은 손가락이 그의 몸을 뒤졌다.

그의 손에서 두르르 굴러 떨어진 진주는 길바닥의 조약볼 밑에서 빛나고 있었다. 그것은 부드러운 달빛에 번득이고 있었다.

「후아나」는 바닷가의 바위틈에서 간신히 몸을 일으켰다.

얼굴은 아프고 열구리는 쿡쿡 쑤시었다. 「후아나」는 잠깐 무릎을 꿇고 정신을 가다듬었다.

물에 젖은 스커트는 몸에 찰싹 들어 붙어 있었다. 「끼노」에 대한 노여움은 전혀 없었다.

「후아나」는 무릎을 꿇은 채 다시 바다로 돌아가 끝장을 볼진가, 말진가 하고 생각하고 있을 때, 다시 달빛이 비추어 왔으며 그 때 「후아나」는 자기의 앞쪽 길에 두 개의 검은 그림자가 누워 있는 것을 보았다.

하나는 「끼노」였고 다른 하나는 낫모를 사람이었는데 그 목에서 시꺼멓고 번들 번들한 액체가 흐르고 있었다.

「끼노」는 깎아 뭉개 놓은 빈대처럼 팔과 다리를 휘적으며 힘없이 움직이고 입에선 무거운 증얼거림이 새어 나왔다.

그 순간 「후아나」는 모든 것이 영원히 사라지는 것을 느꼈다. 길바닥에 한 사나이가 죽어 있고 시꺼먼 「끼노」의 칼이 그 옆에 있는 것으로서 확신하게 되었다. 지금까지 「후아나」는 늘 전날 진주를 발견하기 그 이전의 평화를 도로 찾으려고 애써왔던 것이다.

그러나 이제는 그것마저 사라지고 말았다. 이제는 다시 살릴 길이 없었다. 그리고 이것을 깨닫자 「후아나」는 그 즉시 과거를 버리고 말았다.

이제는 자기네들을 살리는 것 이외에는 아무 것도 없었다.

이제 「후아나」의 아픔도 사라졌다. 그리고 그 느릿한 행동마저 재빨리 그녀는 죽은 사나이를 질질 끌어 길에서 덩불 속으로 밀어 넣었다.

「후아나」는 「끼노」옆으로 다가가자 젖은 자기의 스커트로 그의 얼굴을 닦아 주었다. 그는 차츰 의식을 회복하게 되자 신음하기 시작했다.

『그놈들이 진주를 빼앗아 갔어, 나는 진주를 잃어 버리고 말았어, 이제 이로써 끝장이 난 거야.』 그는 말했다.

『진주는 없어졌어.』 「후아나」는 앓는 애기를 달랠 때 처럼 그를 달랬다.

『조용히 해요!』 그녀는 말했다.

『진주는 여기 있어요. 길바닥에 떨어져 있거든요. 제말을 듣고 있나요? 여기에 진주가 있다니까요. 알겠어요? 신당은 사람을 죽였어요, 우리들은 도망을 가야 합니

다. 저 사람들이 우리를 잡으러 올거예요. 알겠어요? 날이 새기전에 도망을 가야 해요.』

며날 준비를 하기 위하여 「끼노」는 가뒀바로 내려갔고 「후아나」는 도망갈 준비를 서두르기 위해 집으로 달려갔다. 「끼노」는 비틀거리며 커누 있는데로 걸어갔다. 달빛은 구름사이로 다시 비치었다. 그 때 커누의 밑바닥에 큰 구멍이 뚫어진 것을 보았다. 그러자 거슬리는 분노가 치밀어 올랐고 이것이 그에게 행동하기 어려운 힘과 용기를 지어 주었다.

첫 닭이 울고 새벽이 가까와 왔다.

이날의 첫번째 연기가 초가집 벽에서 스며 나왔고 옥수수빵을 굽는 최초의 냄새가 대기 속에 떠올랐다.

「끼노」가 자기집을 향하여 달려갈 때 급히 서두르며 자기쪽으로 달려오는 그림자가 있었다. 그것은 「쑤요며도」를 칼에 안고 「끼노」의 어깨 담요를 손에 움켜쥐 「후아나」였다. 어린애는 놀람에 울부짖고 「후아나」의 눈은 무서움에 휘둥거리고 있었다. 「끼노」는 집이 타버리는 것을 보았으나 「후아나」에게 물어보지 않았다.

그는 알고 있었다.

그러나 「후아나」는 말했다.

『은 집안이 부리채 뿔쳐지고 당바닥도 파헤쳐지고 어린애의 해머크마저 뒤집혀졌어요. 그리고 내가 보고 있는데 그놈들은 밖에다 불을 질렀어요.』 불타는 집의 무서운 빛이 「끼노」의 얼굴을 뚜렷이 비쳤다.

『누가?』

그는 물었다.

『물라요.』 「후아나」도 말했다.

『검은 사내들이었어요.』 부락 사람들은 제각기 자기집에서 허겁지겁 뛰어 나오자 떨어지는 불뚱을 보고선 자기네들을 보존하기 위하여 그것을 짓밟곤 했다.

「끼노」는 갑자기 무서워졌다.

그 다음 저녁이 가까와 왔을 때 「후안·토마스」는 동생과 오래도록 이야기 했다.

『너는 어디로 갈 작정인가?』

『북쪽으로요.』 「끼노」는 말했다.

『북쪽에는 여러 마을이 있다니까요.』

『해변가를 피하도록 해라.』

「후안·토마스」는 말했다.

『놈들은 해안수색대를 만들고 있어, 마을의 그 놈들은 너를 찾을 거야, 너 아직도 진주를 가지고 있지?』

『갖고 있어요.』 「끼노」는 대답했다.

『나는 놓치지 않겠어요, 나는 이것을 무슨 선물로 주었어도 좋았을테지만 이것은 나의 불행이요 나의 생명이 되고 말았으니 놓치지 않겠어요.』

그의 눈은 험악하고 잔인하고 흑독하게 되었다. 「꼬요떠또」가 훌쩍훌쩍 흐느껴 울었으므로 「후아나」는 울음을 그치게 하고자 그 위에서 주문을 중얼거렸다.

『바람이 있어 다행이야.』

「후안·토마스」는 말했다.

『발자국이 남지 않을테니까.』

「끼노」의 일가는 달이 떠오르기 전 어둠을 틈타 고요히 형 「후안·토마스」의 집을 떠났다.

「후아나」는 「꼬요떠또」를 등에 업고 쇼올로 폭 달아 주었다.

어린애는 어머니 어깨에 뺨을 비스듬히 기대고 잠들어 있었다.

쇼올은 어린애를 감싸고 있었으나 그 끝은 「후아나」의 코를 덮어 불길한 반 공기에서 그녀를 막고 있었다.

「후안·토마스」는 동생을 두 번이나 껴안으며 양쪽 뺨에 키스를 했다.

『하느님을 믿고 가거라.』 그는 이렇게 말했다나 그것은 마치 생이별과도 같았다.

『너는 도저히 그 진주를 단념할 수 없겠느냐?』

『이 진주는 이제 나의 영혼이 되고 말았어요.』 「끼노」는 말했다.

『만일 이것을 포기한다면 나의 영혼을 잃게 될거요. 형님께게도 하느님의 축복이 있으시기를.』

「끼노」는 마을의 번두리를 요리조리 헤치며 지나갔다. 진로를 북쪽으로 잡아 별을 따라 북으로 발을 옮겼다.

마침내 수레바퀴 자국이 있는 모랫길을 발견했다.

이 길은 숲지대를 지나 「로레또」에 까지 통하고 있었고 「로레또」에는 성모 마리아를 안치해 둔 교회가 있었다. 「끼노」는 바람에 휩쓸린 모래를 발목에 느끼며 기뻐했다.

발자국이 남지 않을 것을 알았던 것이다. 희미한 별빛이 숲지대로 통하는 좁은 길

을 그를 위해 비춰 주고 있었다.

그리고 「끼노」는 뒤따라 오는 「후아나」의 둔한 발자국 소리를 들었다.

그는 소리도 내지않고 조용조용히 빠른 걸음으로 걸어 나갔으며 「후아나」도 뒤떨어지지 않으려고 재빠른 걸음으로 그의 뒤를 열심히 따라갔다.

「끼노」의 마음 속엔 까마득한 옛날부터 이어오던 무엇이 꿈틀거리고 있었다.

밤에 불어다니는 어둠과 악마에 대한 공포에서 그는 갑자기 흥분하는 것을 느꼈다. 무슨 동물적인 것이 그의 몸안에 꿈틀거리려 이것이 그를 조심성스럽고 빈틈없는 위험한 것으로 만들었다.

조상 대대로 옛적부터 그의 종족에게 전해오던 무엇이 그의 몸안에 약동하고 있었다.

바람은 등 뒤에서 불어오고 별은 그를 인도했다. 바람은 불고 덤불사이를 뒤 흔드는 가운데 「끼노」의 가족은 몇 시간이고, 몇 시간이고, 단조로히 자꾸만 걸어 나갔다.

그들은 누구하고도 만나지 않았으며 누구도 보지 않았다.

이윽고 그들 바른편 쪽에 이즈러지는 반달이 떠올랐고 달이 떠오르자 바람은 잔잔해지며 지상은 고요해졌다.

반세도록 그들은 건기만 했으며 결코 걸음을 늦추지 않았다.

한 번은 「코요테」가 잠을 깬으나 「후아나」가 그를 자기 앞으로 돌려 달래자 다시 그는 잠들고 말았다.

그러나 밤의 악마들은 그들에게 불어 다니고 있었다. 코요테(북미 대초원에 사는 늑대)가 덤불 속에서 부르짖고 있으며 울폐비는 그들 머리 위에서 찌르는 듯한 소리를 지르고 있었다.

그리고 한 번은 큰 짐승이 덤불을 짓밟으며 우르르 지나갔다.

그 때 「끼노」는 칼자루를 불끈 쥐고 방위태세를 갖추었다.

진주의 음악은 「끼노」의 머리 속에서 의기양양하게 울려 왔다.

그리고 그 밑에 「우리집의 노래」가 흐르고 있었다.

그들이 불안 속에 긴가의 그늘진 곳에 은신하고 있을 때 불길한 예감이 들었다. 「후아나」가 보따리 속에서 옥수수빵을 내어 「끼노」에게 주었다.

그는 빵을 입에 넣고 한 두번 우물거리다가 썩는 것 마저 멈추고 귀만 기울이고 있었다. 그는 불안에 싸여 초조했다. 「끼노」는 가지가 있는 나무 그늘 밑으로 기어 들어가 자기가 온 길 쪽을 살폈다.

그 때 사람들이 이 쪽을 향하여 움직이고 있는 것이 보아졌다. 추적자들이었다.

그는 은몸이 일시에 굳어져 갔다.

그는 머리를 낮게 수그리고 넘어선 나무가지 밑으로 그 쪽을 가만히 엿 보았다. 멀리 저 쪽에 세 그림자가 보였다.

두 사람은 걸고 있었고 한 사람은 말에 타고 있었다.

그러나 그는 그들의 정체를 알고 있었기에 공포의 소름이 온 몸에 끼쳤다.

이렇게 멀리 떨어져 있어도 걸고 있는 두 사람이 허리를 낮게 굽히고 천천히 걸어 오는 것이 보였다.

한 사람이 말을 멈추고 땅 위를 내려다 보자 나머지 한 사람도 그곳으로 다가와서 쳐다보곤 했다.

그들은 추적자들이며 어떠한 들산에서도 사냥개 발자취를 찾아낼 수 있는 그런 자들이었다.

그들은 사냥개들과도 같이 민감하였다. 혹은 그 길에서 「끼노」와 「후아나」는 수레바퀴 자취에서 발을 헛 딛었기 때문에 발자국을 남겼을지도 모른 일이었다.

그리고 그들 내륙에서 온 추적자들——저 사냥꾼들은 꺾어진 짙 한오리에서도 혹은 바람에 휩쓸린 모레디미의 사소한 무너짐에서도 발자국을 알아내어 추적할 수 있는 그런 자들이었다.

그들 뒤에서 말을 타고 오는 자도 검은 사나이였으며 코를 담요로 싸고 있었으나 안장에 가로놓인 타이플은 햇빛을 받아 번쩍이고 있었다.

해가 지고 이 산촌에도 밤이 깃들기 시작하자 그들 추적자들은 산골짜기 물웅덩이 있는 곳에 짐을 풀고 밤을 셀 준비를 하고 있었다.

「끼노」는 마지막 방법을 생각해 냈다. 그들을 죽이거나 우리가 죽게 되거나 하는 판이다.

「끼노」는 마지막 이야기를 「후아나」를 향하여 입을 열었다.

『만일 내가 그놈들한테 죽으면 말이오 가만히 누워 있어요. 그리고 놈들이 가 버리거든 「로레또」를 향하여 떠나도록 하오.』

그의 손목을 잡고 있던 「후아나」의 손은 약간 떨고 있었다.

『하나님의 은총이 있으시기들……』

그녀는 조용히 말했다.

그는 바삭 얼굴을 갖다대고 그녀를 뻗히 들여다 보고 그녀의 큰 두 눈을 눈여겨 바라다보았다.

그는 손으로 더듬어 어린애를 찾아내자 잠깐동안 손바닥을 「꼬요머또」의 머리 위

에 놓았다.

그런 다음 그 손을 쳐들어 「후아나」의 뺨을 쓰다듬었다.

「후아나」는 숨을 죽이고 있었다.

동굴 어구에서 「끼노」가 자기의 흰옷을 벗어 제치고 바위 틈을 그림자처럼 기어나갔다.

그는 몸을 움추리고 숨 소리마저 죽여 가며 추적자들이 잠자고 있는 곳을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다가갔다.

그가 낮으막한 종려나무 그늘에 몸을 웅크리고 은신할 수 있게 될 때 까지는 꽤 오랜 시간이 걸렸다.

그의 심장은 가슴 속에서 무섭게 고동쳤고 손과 얼굴은 땀에 축축히 젖어 있었다. 그는 몸을 웅크리자 긴장을 진정하기 위해 크게 천천히 심호흡을 했다.

이제 적으로부터 불과 이십 피이트의 지점까지 다가왔을 때 어린애의 울음소리 같은 것이 들려왔다.

그들은 긴장했다. 라이플을 끼고 누웠던 사나이도 일어나자 총의 공기에 탄약을 잠그는 소리가 딸그락 났다.

그때였다.

「끼노」는 번개와 같이 튀어들었다.

그 순간 총소리는 골짜기를 찢는 듯 하늘가에 울려갔다.

총구에서 발하는 섬광은 한 폭의 그림을 만들었다.

「끼노」의 칼은 라이플 총대를 잡았던 사나이의 목을 깊이 내려 절렸다.

그는 칼을 쭉 빼어내는 순간에도 총은 꺾 들어쥐고 있었다.

그의 힘과 움직임, 그리고 속도는 거의 기계와 같이 움직였다.

그는 몸을 빙 돌리자 앉아 있던 사나이의 머리를 마치 참외를 쪼개 듯이 내리치고 있었다.

셋째번 사나이도 게 걸음을 치며 도망치다 웅덩이에 미끌어 떨어지고 말았다.

연이어 그는 미치광이 마냥 낭떠러지를 기어 오르기 시작했다.

그는 얼치락 뿔치락하여 마구 엉켜진 야생의 포도덩굴을 헤치며 기어 올라오려고 발버둥치며 휘라고 지껄이며 툭툭툭툭 울고 있었다.

그러나 「끼노」의 마음은 강철같이 냉혹 무정했다.

그도 천천히 라이플총의 지렛대를 움직이고 총을 추켜들어 신중히 겨눈 다음 쏘아 제쳤다. 그의 추적자가 웅덩이에 굴러 떨어지는 것을 보자 「끼노」는 성큼성큼 걸어

나갔다.

그는 달빛 아래에 미친 듯 뻗고 있는 얼굴을 보자 다시 총을 겨누어 쏘 버렸다.

「라·파스」 마을에는 「끼노」와 「후아나」가 돌아왔다는 소문이 퍼졌다.

「끼노」는 「후아나」와 어깨를 나란히 하고 뜰과 퇴칠한 마을을 지나 초가집 마을로 영금성금 내려왔다.

불타버린 자기의 집 자리도 바라보지 않고 해변가와 경계를 짓고 있는 덤불지대를 빠져 나가 바닷가를 향하여 티빅티빅 걸어 내려갔다.

이윽고 바닷가에 다가오자 그들은 발을 멈추고 눈앞의 「멕시코」 만을 바라 보았다.

「끼노」는 손에 들었던 타이플을 땅에다 내려놓고 옷속을 뒤져 큼직한 진주를 손에 들었다.

그는 진주의 표면을 가만히 들여다 보았다.

그것은 회색빛이 감도는 계양의 흔적과도 같았다.

그리고 거기에 타오르는 불빛을 보았다. 그리고 진주의 표면에서 그는 웅덩이에서 죽어 넘어진 사나이의 미친 듯한 눈을 볼 수도 있었다.

그리고 또 진주의 표면에서 그는 머리를 맞아 조그마한 동굴 속에 누어 있는 「꼬요떠또」의 모습을 보았다.

진주는 보기 좋았다. 그것은 악성의 종양과도 같이 회색빛으로 보였다.

그리고 「끼노」는 진주의 음악을 들었다. 그것은 비틀어지고 미친 듯한 음악이었다.

그는 조용히 「후아나」 쪽으로 몸을 돌리자 그녀에게 그 진주를 내어 밀었다.

「후아나」는 그와 나란히 서 있었으나 어깨에는 아직도 보따리들 짊어지고 있었다.

「후아나」는 그 순간 그의 손안의 진주를 가만히 쳐다 보고 다시 「끼노」의 눈을 들여다 보며 조용히 말했다.

『저는 못하겠어요. 당신이……』

「끼노」는 팔을 뒤로 힘껏 돌리자 진주를 세차게 내어 던졌다.

「끼노」와 「후아나」는 진주가 저녁노을을 받아 번쩍번쩍 빛나며 날아가는 것을 응시하고 있었다.

바다물결 위 저 멀리 저 쪽에서 조그마한 빛깔이 솟아 오르는 것을 보았다.

그리고 두 사람은 그 자리에 서 있는 채 오래도록 그 곳을 물끄러미 바라다 보고 있었다.



## 이 반 · 제니쓰비츠의 하루

이 철 규 <역>

### A · 쫄제니친

수용소 본부 바라크 옆에 마련된 레일을 마치고 두들기는 요란한 기상신호 소리와 함께 또 하루가 새기 시작했다.

때로 끊겨져 들려오는 마치고 두들기는 소리가 두꺼운 창문을 통해 희미하게 들려 오다가 마침내 그것마저 사라져 버리고 말았다.

날씨가 워낙 추웠으므로 간수도 이를 오래 두드리고 싶지 않았던 것이다.

기상신호가 울려 퍼진 뒤에도 밖은 아직 한 밤중이나 다름 없었다.

슈우호프가 감방 안의 용변 통으로 가기 위해 자리에서 일어 났을 때, 사면은 아직 캄캄하고 수용소의 외등 하나와 똑 떨어져 있는 외곽지대의 외등 두 개를 합쳐 모두 세 개의 누른 거뿔거리는 불빛만이 창문으로 스며들 뿐이었다.

웬 일인지 아무도 바라크 밖으로 나가려 하지 않았으며, 막대기에 용변통을 쬐어

매고 나가야 할 당번들의 움직임도 없었다.

슈우호프는 아직 기상신호를 그대로 넘겨버린 일이 없이 언제나 신호에 따라 일어나곤 했다.

작업시간까지는 약 한 시간 반의 자유시간을 얻을 수 있었으므로 수용소 생활에 익숙해진 언제나 내 직으로 돈벌이를 할 수 있었다.

이들이 할 수 있는 내직이란 낡은 모자 안감으로 병어리 장갑용 가죽을 만들거나, 돈 많은 반장이 많은 펠트장화 더미 가운데서 자기 것을 골라내기 위하여 맨발로 언병매는 수고를 덜어 주도록 직접 그의 침대까지 갔다 주거나, 누구의 심부름을 하거나 마루를 쓸거나, 혹은 무엇인가를 돕기 위해 세면장을 한바퀴 돌아 나오는 일이다.

그 밖에 식탁에서 뚝배기를 산더미 같이 모아 가지고 나와 그릇 씻는 장소에까지 운반해 주는 식당의 일을 해 주면 잘 얻어 먹을 수는 있었지만 거기에는 지원자가 하도 많아 좀처럼 차례가 돌아오지 않는다. 이 일을 하다가 뚝배기 밑바닥에 음식 찌꺼기라도 남아 있으면 이들은 자기를 거두지 못하고 이를 훔아먹기 시작한다. 슈우호프에게는 수용소의 교감이며 그의 첫 반장이었던 꾸재민의 말이 머리에 팍 들어차 있었다. 꾸재민은 1943년 경에 여기 끌려온 뒤 이미 12년이라는 세월을 여기서 썩어 온 구렁이로써 던젠가 일선에서 압송되어 오는 도중 보충반원들에게 숲속 공터에 피어 놓은 모닥불 앞에서 이렇게 말한 적이 있다.

『여보게들 여기에는 원시림의 법률이 통용되고 있긴 하지만 역시 사람이 사는 곳이라네, 수용소에서 결국 자멸할 자가 있다면 그것은 뚝배기 밑바닥을 훔아 먹는놈, 또는 의무실에 기대를 거는 녀석들이나 누구에게 고자질 하러 다니는 족속들이란 말이다.』

밀고자에 대해서 그는 물론 거짓말을 하고 있었다. 밀고자들 만이 실은 동료의 희생으로 하여서이지만 자신의 안전을 꾀할 수 있었던 것이다. 슈우호프는 늘 기상신호에 따라 일어서곤 했으나 오늘은 일어나질 안 했다. 어제 저녁부터 그는 오한이 일어나고 뼈가 쭈시기도 하여 몸이 불편 하였다. 게다가 밤에도 몸을 덥히지 못했다. 그는 꿈 속에서 완전히 병이 들기도 하고 혹은 좀 나은 것 같은 환각을 느꼈었다. 아침이 타쳐 온다는 것은 조금도 반가운 일이 아니었다.

그래도 아침은 어김없이 닦쳐 왔다. 창문에는 얼음이 얼었고 천정과 벽이 맞닿은 곳곳에는 바라크 전체를 통해 하얀 거미줄 같은 서리가 끼었다. 참으로 허술한 바라크이다. 이런 속에 몸을 덥힐 장소가 있을 까닭이 없었다. 슈우호프는 일어나지 않았다.

그는 누비 이불과 솜든 옷옷을 머리위로부터 쪽 둘러쓰고 한 쪽 소매를 뒤집어 다른 쪽 소매깃에 집어넣은 누빈 내의에 두 발을 집어넣고 다락에 누어 있었다. 그는 보지 않아도 바라크 안과 반장이 있는 구석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짐작 할 수 있었다. 그러는 동안에도 복도에서는 일직닥번들이 여덟 바게쓰 용변통을 매고 안간힘을 쓰면서 밖으로 나가고 있었다. 이 작업은 노령자들에게 맡겨진 가벼운 노동으로 간주되지만 오물을 흘리지 않고 내어 가기란 여간 일이 아니었다. 이윽고 전조실에서 가져 온 펠트장화의 무머기를 마룻바닥에 내동댕이 치는 소리가 제75반 쪽에서 들려 왔다. 오늘은 우리반도 펠트장화를 갈리는 차례였다. 작업반장과 부반장은 조용히 장화를 신고 있었으나 다락은 삐걱 삐걱 소리를 내고 있었다. 부반장은 이제부터 빵 자르는 곳에 가고 반장은 본부 바라크에 있는 생산계획부로 갈 모양이다.

오늘은 생산계획부에 작업 담당자 앞으로 가게 되어 있는 단순한 그의 일과 때문에 만이 아니었다. 슈우호프는 이렇게 생각하였다. 오늘은 제104 작업반이 여태 하던 일을 그치고 (사회주의 생활 센터) 새로운 대상을물을 건설하는 일에 투입되느냐의 운명이 결정되는 날이다. 그런데 (사회주의 생활센터)란 텅빈 별판이었으며 무슨 일을 착수하기에 앞서 눈더미 위에 구멍을 뚫고 기둥을 세워야 하며 수인들이 도망을 하지 못하도록 철조망을 둘러야 했다.

틀림없이 그곳에는 오두막 하나 없어서 한 달 동안은 몸을 녀힐 곳이라곤 없을 모양이다. 더구나 별감도 시원치 않아 모닥불 조차 피우지 못할 것이다. 힘껏 일하는 도리 외엔 달리 할 일도 없겠다.

작업반장은 그것이 두려워 이제 교섭하러 떠나는 길이다. 행동이 날세지 못한 다른 작업반원들을 대신 거기에 보내자는 심산이었다. 물론 맨손으로 가서는 교섭이 이루어 질리가 없다. 작업 활당 주인에게 조금에 절인 베이콘을 반 카로리나, 어쩌면 한 카로리 쯤 가져다 줄 것이다.

밀려야 본전이니 의무실에 가 작업에서 살짝 빠지더라도 할까? 어쩐지 온몸이 젖어질 듯 쭈셔 온다.

그런데 오늘은 어느 간수 녀석이 당번일까?

당번이라—올지, 생각난다. 여의고 키 큰 그 검은 눈동자의 상사 이반·뿔도라의 차베겠구나! 인상은 꽤 날카롭게 생겨 먹었지만 사귀고 나면 간수들 중에 제일 무뎠던 편이어서 여지껏 누구를 영창에 쳐 넣는다거나, 구울담당판에게 끌고가는 일이 없었다. 그러니 조금 더 누어 있어도 괜찮겠지만 제 9동 바라크의 식당에 잠시 다녀와야겠다.

다락이 요동하기 시작했다. 두 명이 벌떡 자리에서 일어났다. 위에는 슈우호프의 이웃인 바티스트 알료슈카와 밑에는 예전 해군중령이었던 부이노프스키의 두 사람 자리가 있었다.

늙은 일직당원들은 용변통을 두 번에 나른 뒤, 머운 물을 가지러 서로 가지 앉으려고 계집들 처럼 수다스럽게 입씨름을 벌이고 있었다. 제20작업반의 전기용접공은.

『씨끄러워, 말성꾸러기들! 조용하지 못해!』라고 호통을 치면서 그들을 향해 펠트장화를 집어 던졌다.

펠트장화는 둔탁한 소리를 내고 마룻바닥에 떨어졌다. 입씨름은 푹 끊겼다. 열방에서는 부반장이 들릴락 말락한 소리로 중얼거렸다.

『바실리 포도리치! 양식제 개새끼들이 요술을 부렸구나! 구백 넷 중에서 세 개만 남았네 어느 놈 뭇에서 보충할까?』

그는 물론 나직하게 중얼 거렸지만 작업반원들은 모두가 그 소리를 듣고 숨을 죽이고 있었다. 저녁 때가 되면 누구의 뭇에서든지 베어 내야 할 판이다.

그때도 슈우호프는 튼밥이 굵어진 매트레스 위에 그때르 누어 있었다. 오한이 일어나 분이 떨리거나 뼈가 쑤시는 것 가운데 어느 하나라도 멈춰 췌으면 좋겠는데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라 죽을 지경이다.

바티스트 교도가 중얼 중얼 기도를 드리고 있는 동안 용변 보러 갔던 부이노프스키가 돌아와서는 마치 남의 불행을 즐겨하는 사람처럼 혼자말로 『좋다. 붉은 함대 수병들아! 모두들 기운을 차려라! 아야 영하 30도는 될거다!』라고 고함을 질렀다.

그러자 슈우호프는 의무실로 가기로 결심했다.

순간 권력자의 손이 그의 몸둥이에서 누비이불과 누빈 솜, 내의를 훌렁 벗겨 버렸다. 슈우호프는 얼굴에 썼던 누빈 솜 저고리를 벗기면서 일어났다. 내려다 보니 뒷다락과 머리를 나란히 배마른 따따린이 서 있다.

그는 번 의의 당직을 맡아 살머시 들어 온 모양이다.

『시제—854호!』

따따린은, 검은 옷 저고리 등에 쓰인 하얀 형집조각을 보고 그렇게 읽었다.

『작업 외에 3일간 영창!』

눌린 듯한 그의 독특한 목소리가 들리자 2백명이 자는 5십개의 빈대 투성이 다락이 들어 찬 어둠 킁킁한 바라크 안에서는 아직 몸을 일으키지 않은 사람들이 그제서야 굴뚝거리면서 황급히 옷을 좃어 입기 시작했다.

『무엇 때문입니까, 나리님?』

슈우호프는 그 이상 더 애처로울 수 없는 목소리로 물었다.

작업과 병행한 영창은 그래도 따뜻한 음식을 주며 생각할 여유도 없는 반 영창이다. 진짜 영창일 경우에는 작업도 시키지 않는다.

『어째서 기상신호에 따라 일어나지 않나? 여하튼 사령실로 가자.』

그는 성가신 듯이 이렇게 뇌까렸다. 따따린이나 슈우호프, 그리고 다른 자들도 영창이 무엇 때문에 있는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장황하게 이야기 할 필요도 없었다.

맹충 맹충하고 일그러진 따따린의 얼굴에는 아무런 표정도 없었다. 그가 두 번째 미끼를 찾으려고 그의 뒤로 돌아 보았을 때에는 이미 아래 위 다락에서 어떤 자는 등불 밑에서 왼쪽 무릎에 번호표가 달린 검은 솜바지에 다리를 집어 넣고 있거나 벌써 옷을 죄다 입고 옷깃으로 몸을 감싸면서 먼저 마당에 나와 따따린을 기다리기 위해 출입구 쪽으로 뛰어 나가고 있었다.

슈우호프로서는 다른 일로 영창에 간다면 몰라도 평소엔 언제나 그가 제일 먼저 일어나면서 그 일 때문에 영창에 간다는 사실에 울화가 치밀었다. 그러면서도 슈우호프는 본능적으로 그에게 용서를 빌면서 솜바지를 꿰어 입고(왼쪽 무릎위 역시 얼어빠진 형검조각에 이미 퇴색해 버렸지만 검은 조각로 시제-854란 번호표가 씌어 있었다) 누빈 솜 내의(여기에는 하나는 가슴에, 또 하나는 등에 각각 두 개의 같은 번호표가 붙어 있었다)를 입고는 마루 위의 벨트장화 무덤이 속에서 자기 것을 찾아낸 뒤 모자(역시 검은 형검조각에 같은 번호표가 붙어 있었다)를 집어 쓰고 따따린의 뒤를 따라 나섰다. 제104작업반원들은 슈우호프가 이끌려 가는 모양을 모두 물끄럼이 쳐다볼 뿐 아무도 이에 대해 말하는 사람이 없었다.

이야기 해 봐야 소용없는 노릇이기도 하지만 대관절 무어라고 이야기 할 것인가? 반장 간으면 어느 정도 그를 두둔할 수 있었지만 그는 이미 자리를 뜨고 난 뒤였다. 슈우호프 역시 누구에게 말을 걸어 따따린의 신경을 건드리는 따위의 일은 하지 않았다. 반원들이 경우가 있다면 그를 위해 아침식사를 남겨 둘 것이다. 두 사람은 이렇게 하여 밖으로 나가 버렸다.

- 아침 안개와 함께 매서운 추위로 숨이 막혔다. 멀리 망루에서 비치는 두 대의 커다란 조명등이 십자형으로 일대를 비치고 있었다. 수용소 구내의 것과 외곽에 있는 의등도 켜져 있었으며 그 숫자는 하도 많아서 별빛을 완전히 무색하게 만들 정도였다.

수인들은 용변 보러 나가거나, 취사장에 가거나, 어떤 자는 곡물을 개인 취사장에 맡기려고 취사장에 들리거나, 각자 자기 일을 보기 위해 벨트장화를 눈 위에 빼적 거

리면서 분주히 돌아 나왔다. 누구나 목을 어깨 사이에 움추리고 누빈 옷옷을 꼭 조여 입었지만 실제의 추위 보다 온 중일 이런 속 추위에 떨어야 하겠다고 생각하니 더 추운 것 같았다. 따따린은 비럽혀진 하늘색 병과표시에 붙은 낡은 의투를 걸치고 있었는데 그는 마치 이만한 추위가 그에게는 아무렇지도 않다는 듯 유유히 걸고 있었다.

그들은 수용소 안의 석조 감옥을 둘러싼 높다란 판자 울타리를 끼고 수용소 안의 빵 공장을 굽주린 수인들로부터 보호하는 철조망 결을 지나고 얼어붙은 레일이 굽은 철사로 기둥에 매어달린 본부 바라크 모퉁이를 또한 돌아서 엄청나게 낮은 기운을 가르키고 있는 서리에 파묻힌 온도계가 얼른 눈에 띄이지 않도록 외따로 떨어진 기둥 위에 매단 곳을 지나갔다. 슈우호프는 온도계의 우유 빛 유리관을 희미찬 눈초리로 들여다 보았다. 만약 그것이 41도를 가르키고 있다면 작업장에 나갈 필요가 없었다. 그러나 웬일인지 오늘은 그것이 40도까지도 내려가지 않고 있었다. 그들은 본부 바라크 속으로 들어가서 곰장 간수실로 갔다. 슈우호프가 이미 오는 도중에 깨닫기는 했지만 역시 그곳에 가보니 그를 영창에 넣으려는 것이 아니라 간수실의 마루담기만 하면 그만이었다. 이제는 따따린도 그를 용서한다고 말하면서 마루를 닦으라고 명령하였다.

원래가 간수실의 마루를 닦는 일은 수용소 밖으로 끌려 나가지 않은 특별죄수인 본부 당직자의 직접 책임으로 되어 있었다. 그러나 수용소 본부에서 오랫동안 끌려 먹은 그는 소령과 소내 규율 담당관과 압잡이 사무실에 드나들면서 때로는 그들에게 고자질이나 해 바치거나 간수들도 모르는 일을 엿 들을 수 있게 되는 동안 그가 한낱 간수들을 위해서 마루바닥을 닦는 따위의 친한 일을 할 수 없다고 생각되기 시작하였다. 그러므로 다른 수인 가운데서 마루닦는 사람을 뽑아 오게 되었던 것이다.

간수실에는 배치가가 벌겍게 달아 있었다. 두 명의 간수가 옷옷을 벗어 버리고 피적피한 속옷 바람으로 꼬리를 두고 있었으며, 또 한 사람의 간수는 털 의투의 허리를 졸라매고 펠트장화를 신은채 길다랗고 비좁은 의자에 드러누어 잠들어 있었다. 걸레가 담긴 바께쓰가 한편 모퉁이에 놓여져 있었다. 슈우호프는 그를 용서해준대 대해 따따린에게

『고맙습니다. 나리님? 앞으로 나시는 늦잠을 자지 않겠습니다.』라고 치하 하면서 기뻐하였다.

간수실의 규칙은 매우 단순하여 할 일을 마치면 말없이 자기 자리로 돌아가면 그 뿐이었다. 생산계획부에 드나드는 몇몇 작업반장들은 기둥 둘레에 모여들어 있었고 그들 가운데서 그중 짙어 보이는 소련방 영웅의 칭호를 가진자가 기둥에 기어 올라

가 온도계를 훔쳤다. 밑에서는 불평이 들려 왔다.

『숨을 죽 내어라 그러면 올라간다.』

『무슨 소리야! 올라가다니……고백도 하지 않는네』

슈우호프내 반장인 주린은 그 가운데 섞여있지 않았다. 바게쓰를 땅에 놓고 옷 소매에 손을 집어넣은 채 슈우호프는 이를 흥미있게 바라 보았다.

그러자 기둥에 매달렸던 자가 절절한 목소리로 말했다.

『27도 반이다. 글렀구나』

그는 확인 할 셈으로 다시 한 번 들여다 보고는 밑으로 뛰어 내렸다.

『이 온도계는 고장이야 언제나 틀리지 않아? 아무렴 수용소에서 똑똑한 놈은 걸어 돌리가 있나?』 누군가가 이렇게 소리쳤다.

작업반장들은 흩어졌다. 슈우호프는 우물가로 달려갔다. 귀걸이가 있기는 했으나 끈이 매어지지 않았으므로 귀는 추위에 따끔따끔 시려왔다. 우물 언저리에는 두터운 얼음이 깨어 있었으므로 바게쓰가 간신이 그 구멍으로 들어갔다. 바늘은 말뚝 처럼 꿰뚫어 얼어 붙어 있었다. 감각이 없어진 손으로 김이 서리는 바게쓰를 들고 간수실로 들어온 슈우호프가 얼음 처럼 차디 찬 불에 손을 담그니 손이 풀어 졌다.

따따린은 없었으나 네 명의 간수들은 꼬니와 잠을 버리고 한 자리에 모여 앉아 1월말에 일이 얼마나 그들에게 할당 될 것인지 대해서 입씨름을 벌이고 있었다(마을의 식량사정은 말이 아니었으나 간수들은 그들의 배급통장 기간이 오래전에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마을의 주민들과 별도로 곡물을 싣값에 얻을 수 있었다.)

『문을 꼭 닫지 못해? 망할 녀석같으니 찬 바람이 들어 오지 않아?』

『그들 가운데 누군가가 소리쳤다.

이른 새벽부터 펠트장화를 적셔 놓으면 이로울게 없다. 그렇다고 본부 건물에 달려간들 갈아 신을 신발이 있을 까닭이 없었다. 수용소 생활을 8년이나 하는 동안 슈우호프는 여러가지로 신발에 대해서 겪은 일이 많았다. 때로는 한 겨울 펠트장화없이 지나기도 했고 어떤 때는 구두를 지급받지 못하여 결신과 밑바닥에 타이어를 맨 신발을 신어서 보기로 했다. 그러나 지금은 신발사정이 조금 나아진 것 같았다. 슈우호프는 지난 10월에(부반장에 동을대고 세면장에 가서) 폭신한 밭새끼 들을 발에 싣아 넣어도 발이 놀아날 만한 튼튼하고 질긴 구두를 손에 넣을 수 있었다. 그로부터 한 1주일 동안 그는 마치 생일이나 맞은 사람처럼 구두 뒤굽치를 치켜들고 의기양양하게 걸어다녔다. 그러자 12월이 되니 펠트장화가 제때에 도착 하였으므로 얼어 죽지는 않게 되었다. 그런데 어떤 자식이 경리주인에게 펠트장화를 지급하되 수인

이 가진 구두는 반납하게 해야 한다고 붙여 넣었다. 두 쥘페의 구두를 수인이 갖는다는 것은 무질서를 의미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슈우호프는 그의 구두를 신고 한 겨울을 지나던가, 아니면 해빙기까지 펠트장화를 신고 위하여 그의 구두를 반납하던가의 양자 택일을 하지 않을 수 없게 꿈 되었다. 신퐁이나 다름 없는 구두에 기름칠을 하여 부드럽게 만들어 아껴 두었는데 그걸 빼앗기다니! 8년을 지나는 동안에는 이 구두 처럼 애지 중지한 물건이 없었다.

수인들이 벗어 놓은 한 무더기의 구두가 봄이 되니 제대로 입자에게 돌아갈리가 없었다.

슈우호프는 이제 결심한 바가 있었다. 그는 펠트장화를 남에게 벗어 이물 한 모퉁이에 세워놓고 발싸개를 속에 벗어 놓은 뒤(그는 영창으로 끌려가는 줄 알고 몹시 서두르는 가운데도 수지만은 잊어버리질 않아 펠트장화를 벗을 때 그속에 들었던 수저가 마루바닥에 떨어져 날카로운 금속성을 내었다) 걸레에 물을 담뿍 적시어 뿌리면서 간수들의 펠트장화 밑으로 기어 들어갔다.

『야! 이새끼 무얼 하는 거야!』

간수 하나가 깜짝 놀라면서 발을 의자 위에 치켜 올렸다.

『뭐 쌀이라고? 쌀은 규격이 다르니 그것과 비교할 수 없잖아?』

『이 밥통아 무엇 때문에 물을 그렇게 많이 퍼붓는 거야? 마루를 너처럼 닦는 놈은 생전 처음 보겠구나.』

『이렇게 하지 않고는 닦여지지 않습니다. 나리님 진흙이 마루 밑바닥에 걸어 있습니다.』

『넌 네 마누라가 마루 닦는 걸 구경도 못했나? 이 돼지새끼 같으니!』

슈우호프는 물이 칠칠 흘러 내리는 걸레를 손에 쥔 채 허리를 폈다. 그는 1943년 우스찌, 이즈미의 수용소에서 영양실조에 걸려 죽어갈 때 빠져버린 회멸건 이틀을 내 보이면서 벗적은 미소를 지어 보였다. 그때 그는 적의를 앓았으므로 뱃 속을 훑어 내려 텅빈 위장은 아무것도 받아 들이려고 하지 않아 거의 죽을 지경에 이르고 있었다. 그때 부터 그의 발음에는 언제나 「시」소리가 섞여 나왔다.

식당 건물 한 가운데는 기동인지 장대인지 분간하기 어려운 기둥이 늘어서 있고, 그 근처에는 슈우호프와 같은 반원인 웨추프프가 자리에 앉아서 그의 조반을 시켜주고 있었다. 그는 슈우호프 보다도 낮은 하급 반원이었다.

외관으로는 모두 평등한 것처럼 보였으나 실상은 매우 불평등한 차별대우를 하고 있었다. 부이노브 스키같은 자에게라면 폭배기를 지키는 따위의 일을 시킬 수 없을

것이며 슈우호프만 해도 일을 가려서 할 것이다. 밑에는 다시 그 밑바닥이 있는 법이다.

첸주코프는 슈우호프를 보자 한숨을 내쉬고 자리를 비켜 주었다.

『이제 다 식어빠졌어, 대신에 내가 먹으려고 했지. 영창에 틀어갓는 줄 알고 있었어.』

슈우호프가 두 개의 떡배기를 깨끗이 처치하여 그에게는 국물도 남겨주지 않았으리라는 것을 잘 아는 첸주코프는 지체 없이 자리를 떴다.

슈우호프는 펠트장화 속에서 수지를 끄집어 냈다. 이 손가락은 그에겐 귀중한 물건이어서 그는 이것을 지니고, 온 북방을 다니지 않은 곳이 없었다. 그는 손수 낚시선을 녹여 모래밭에 부어서 이를 만든 뒤 「우스찌·이즈마—1944」라고 새겨 넣었다.

자리에 앉은 다음 슈우호프는 면도질한 머리에서 모자를 벗고(아무리 추워도 모자를 쓴채 식사하고 싶지는 않았다). 오랜 동안에 가라앉아버린 수프를 휘저으면서 무엇이 얼마나 들어 있는지 부터 들여다 보았다. 이는 국 가마에서 처음 뜬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밑바닥에서 긁어 낸 것도 아닌 중간 썬에서 떠낸 국이었다. 첸주코프는 아마 슈우호프의 떡배기를 지키는 동안 감자 몇 조각을 건져 먹은 모양이다.

수프란 딱끈한 맛에 먹는건데 슈우호프가 지금 먹어야 할 수프는 이미 싸늘하게 식어져 있었다. 그래도 그는 수프를 천천히 떠 마시면서 신경을 온통 거기에 집중시켰다. 설사 지붕에 불이 붙는 일이 있어도 조급하게 굴 필요는 없었다. 자는 시간을 제외하고 수용자들에게는 아침 식사시간 10분, 점심시간 5분 저녁식사시간 5분을 스스로 즐길 수 있는 귀중한 시간으로 이용하는 것이다.

수프의 건덕지는 겨울 동안 무엇을 저장 했느냐에 따라 정해지느니 만치 매일 똑같은 것 뿐이다. 지난 겨울에는 홍당무를 소금에 절여 저장했었기 때문에 9월부터 금년 6월 까지는 순 홍당무 수프만을 먹었다. 금년에는 검은 양배추 뿐이었다. 수용소 생활에서 가장 배불리 먹을 수 있는 때는 6월이다. 이 달에는 야채의 공급이 일체 끊어지고 대신 낱알을 공급하게 되는 것이다.

반면에 가장 시장기를 느끼게 되는 때는 7월이어서 나물 건덕지 만을 수프에 썰어 넣게 된다. 작은 생선은 온통 가시 뿐이고 살고기는 온통 뼈에서 물러나 대가리와 썩지만이 남아 있을 따름이다. 살고기가 한 점도 붙어있지 않은 앙상한 가시뼈만 이빨로 썰어 대다가 슈우호프는 그 뼈속을 빨아 먹은 후 이를 식탁 위에 빨아 놓았다. 그는 어떤 생선이든 가리지 않았고, 그것이 생선의 아가미든 썩지든 또는 다른 것과 섞인 눈알이든 무엇이든지 닥치는대로 먹었지만 물고기의 커다란 눈알이 떡배기 안에

서 굴러다닐 때는 이를 먹지 않았다. 그러다가 반원 들에게 조롱을 받기도 했다.

슈우호프는 오늘 막사에 들리지 않았으므로 빵 배급을 받지 않아 이를 먹지 않았으니 결국 예측한 셈이 되었다. 빵은 나중에 따로 받을 수 있을테니 그때는 오히려 배불리 먹을 수 있게 된다.

두번째 요리는 마가라(잡탕의 일종)로 썬 죽이다. 이미 굳어져 냉어리가 되어 있었으므로 슈우호프는 조각을 내어 베어 먹었다. 마가라죽은 식어빠지기도 했지만 식기전에도 맛이 있다거나 근기있는 음식이 아니었다. 이는 풀포기에 지나지 않고 누른빛 나는 밀과 비슷하다. 이를 낱알 대신에 주게 된 것은 중국사람들에게서 배운 지식이라고들 말하고 있었다. 완전히 끊어진 상태에서 300그램의 무게를 갖고 있었으며, 죽 같지는 않지만 그럭저럭 죽의 대용품도 되어 수인들은 이에 대해 별로 불평이 없었다.

술가락을 혀로 핥은 뒤 이를 펠트장화의 제자리에 쟁겨넣은 슈우호프는 모자를 집어쓰고 의무실로 걸음을 옮겼다.

하늘은 여전히 어둡침침 했으며 수용소의 등불은 역시 발들을 무색케 하고 있었다. 두 대의 조명등은 여전히 넓직한 빛으로 수용소 일대를 교차하고 있었다. 이 수용소는 특별히 건설된 곳이기 때문에 그 경비원들은 막대한 양의 전선용 조명탄을 가지고 수 놓게 되어 있었다. 그러나 그 후에 로케트는 쏘아 올리지 못하게 되었다. 아마 가격이 너무 비싸게 먹히기 때문일 것이다.

기상신호가 울릴 때와 다름없는 밤이 있으나 이들 경험있는 사람의 눈은 작업 출동의 신호가 멀지 않아 울리리라는 것을 여려가지 사소한 징조로써 느낄 수 있었다. 호르모이의 조수는(식당 당직자인 호르모이는 자비로 조수를 두고 먹었다) 작업장에 나가지 못하는 환자들을 수용한 제6병동 환자들을 아침 식사에 부르려고 나섰다. 턱수염이 달린 늙은 화가는 번호표를 쓰기 위한 페인트와 붓을 얻으러 문화교양부로 향했다.

그런데 따따린은 성큼 성큼 빠른 걸음으로 다시 본부 바라크를 향해 길을 건너고 있었다. 외부에는 대체로 인적이 드물다. 아마 어디엔가 모두들 드러박혀서 나머지 달콤한 빛 분 동안 몸을 덮히고 있는 모양이다.

슈우호프는 재빨리 바라크 모퉁이에 몸을 숨겨 따따린을 피하였다. 그에게 다시 부탁드리면 다시 달려들 것이다. 방심은 절대 금물이다. 어떤 간수에게도 내가 홀로 있는 모양을 보여선 안 된다. 오직 군중들 가운데서만 나를 보게 해야 한다.

누구든 일을 시킬 사람을 물색하는 건지, 혹은 누구든 울분을 터뜨릴 대상을 찾고

있는지 모르니까 말이다. 수인이 간수를 만났을 때는 다섯 걸음 앞에서 모자를 벗어 들고 두 걸음 지나서 써야 한다는 지시문이 각 바라크에서 낭독된 일이 있다. 어떤 간수들은 마치 장님인 것처럼 주위의 일에 무관심한 자가 있는가 하면, 반대로 이를 고소하게 생각하는 자도 있다. 모자 때문에 얼마나 많은 수인들이 영창에 들어갔는지 모른다. 차라리 그럴바에야 구석진 곳에 몸을 피하는 편이 속 편하지 않겠는가?

따따린이 스쳐 지나 간 뒤 슈우호프는 의무실에 발을 들여 놓으려고 하다가, 문득 제7동의 키다리 라트비아 사람과 작업출동 전에 만나기로 약속했던 것이 생각났다. 그에게서 수제 담배 두 「킵」을 사기로 한 것이다. 이제까지 슈우호프는 그런걸 기억해 둘 마음의 여유를 가지지 못 했었다. 키다리 리트비아 사람은 어제 저녁에 차압을 받았으므로 내일 아침 짙은 벌써 담배가 동이 날 것이다. 그렇게 되면 새로 차압이 올 때까지 꼬박 한 달은 기다려야 했다. 그의 다갈색 수제 담배는 품질이 좋아 알맞게 독하고 향기로웠다.

속이 바짝 달아오른 슈우호프는 제7동 바라크에 돌아가야 할지 어떨는지 엉거주춤하여 발을 동동 굴렀다. 의무실까지는 얼마되지 않았으나 그는 의무실의 앞 층계에 접근하기가 두려웠다. 나의 발 밑에서 사뿐거리는 눈 밟는 소리가 들려 왔다.

늘 그렇지만 의무실은 복도에 발을 들여 놓기가 죄스러운 정도로 깨끗하였다. 벽돌도 하얀 에나멜로 칠해 겹고 비품들도 모두 흰 색깔이었다.

그러나 진단실은 죄다 잠겨 있었다.

의사들은 아직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다. 다만 숙직실에는 젊은 의무병 플라·브도부슈진이 깨끗한 책상 앞에 흰 카운을 입고 앉아서 무엇인가 쓰고 있었다.

그 밖에는 아무도 없었다.

슈우호프는 마치 상관 앞에서 하는 것처럼 모자를 벗어 들고, 쓸데없이 한눈을 팔지 않는다는 수용소의 관습에 따랐으나 끌라가 명행한 선을 따라 고른 간격을 두고 무엇인가 써 놓은 것을 보지 않았을 리가 없다.

슈우호프는 그것이 본직이 아니라 부업임을 알아차렸으나 그에겐 하등 관계없는 일이었다.

『실은... 니플라이, 세묘니치... 몸이 좀... 아픈 것 같습니다.』

슈우호프는 남의 물건을 훔치기라도 한듯 양심의 가책을 느끼면서 말했다.

브도부슈진은 침착하고 이글이글한 눈을 치켜보면서 알손을 멈추었다. 그는 흰 카운과 흰 캡을 쓰고 있었으나 번호표는 보이지 않았다.

『이렇게 늦어서 오면 어떻게지? 왜 어제 저녁 진작 오지 않았나? 아침에는 환자

를 받지 않을 줄 알고 있을텐데 작업면제자의 명부는 벌써 생산계획부로 보내버렸단 말이다.』

슈우호프는 이미 그런걸 다 알고있었다. 어제 저녁에 이야기했더라도 작업에서 면제되기란 그리 쉬운일이 아니라는 것도 모르는 바 아니었다.

『글세요. 플라... 어제 저녁 정작 필요할 때에는 그게 그다지 아프지 않았거든요.』

『어딜 꼬집어 아프다고 할 수는 없어요. 그저 온 몸이 찌브듯하게 쭈서와요.』 슈우호프는 치근치근 의무실에 드나드는 위인이 아니라는 걸 브도부슈겐도 잘 알고 있었다. 그의 권한으로는 두명의 수인을 작업에서 면제 시켜 줄 수 있어 이미 두 사람이 그 혜택을 받았음이 사실이었다. 책상 위의 초록색 유리판에는 두 사람의 이름이 적혀 있었고 밑에 줄이 그어져 있었다.

『좀더 일찍 서둘러야 할 걸 그랬어 점호 직전에 오면 어떻거나? 안 그래!』 브도부슈겐은 가계에 들들말린 체온계를 소독장에서 꼬집어 내어 소독약으로 닦은 뒤 체온을 재도록 슈우호프에게 주었다.

슈우호프는 의무실 한 편 모서리에 있는 벤취 끝머리에 미끄러져 내리지 않을 정도로 걸터 앉았다. 그는 이처럼 불편한 장소를 일부러 택한 것이 아니라 의무실이 그에게 매우 서벽서벽하고 그가 사소한 일 때문에 이곳에 왔음을 무의식 중에 보여주는 행동이었다.

의무실은 수용소의 한쪽 변두리에 외따로 떨어져 있었으므로 아무런 소음도 들리지 않았다. 수인들은 시계를 갖지 못하게 되어 있었으므로 시간은 그들을 대신하여 나리들만 알고 있으면 그만이었다. 이곳에는 쥐의 행패도 없었다. 쥐를 잡기 위해 숫 고양이들 한 마리 키워 이제는 모조리 잡아 없애버렸다.

슈우호프로서는 이처럼 깨끗하고 이처럼 조용한 방에서 5분동안이나 환한 등불 밑에 아무 일 없이 앉아 있는 것이 꼴과 같이 생각 되었다. 사방을 휘둘러 보았으나 아무것도 눈에 띄이지 않았다. 자기의 수빈 속 내의를 쳐다보니 가슴에 달린 번호표가 퇴색해 있었다. 끌려가기 전에 손질을 했어야 했다.

그는 맨손으로 얼굴 위를 더듬어 턱수염을 어루만져 보니 이전에 목욕한 뒤 열흘 이상이 경과되어 있었으므로 수염이 꽤 길었다. 그러나 걱정없다. 이삼일 뒤에 다시 목욕을 하니 그때 쥐기로 하지(이발소에서 순번을 기다리기도 귀찮은 일이다. 슈우호프가 매끈하게 다듬은들 누가 보아준다느냐).

×

×

×

알로슈까는 돌아왔다. 그 분한 눈은 모든 사람들을 잘 섬겨주고 있으나 돈벌이는

못하였다.

『엣다! 먹어라! 알료슈까』

슈우호프는 그에게 피자 한 개를 주었다. 알료슈까는 미소를 지으면서

『고맙습니다. 당신도 없으면서!』

『먹어라! 우리에게엔 없지만 우리는 언제나 돈벌이를 하고있다』라고 말하면서 자신은 칼바스(러시아의 햄일종) 한 쪽을 입에 넣었다. 그리고 잇발로 씹고 씹으면서 고기 냄새를 풍겼다. 거기서도 진짜 고기 국물이 짜여 나와 위장 속에 들어갔다. 이윽고 칼바스는 사라져 버렸다.

슈우호프는 그 나머지 일에 관해서는 내일 출동시까지 미루어 두기로 결정하고 머리로 부터 열고 세탁하지 않은 이불을 꼭 뒤집어 쓰고 다른 작업반들이 절호시간 차례를 기다리면서 슈우호프의 다락 사이에 배도한 수인들의 대화에 더 귀를 기울이지 않으면서 잠을 자기 시작했다.

슈우호프는 충분한 만족감 속에서 잠이 들었다. 오늘 낮 하루는 그에게 운이 많이 든 날이었다.

영창에도 들어가지 않고 「사회주의 생활센터」에로 그의 작업반을 몰아넣지도 않았으며, 게다가 더 많은 피자를 얻어 먹었고 또한 작업반장도 그에게 좋은 노동능률을 태어 주었다. 슈우호프는 즐겁게 벽을 쌓았으며 몸 수색시에 쇠줄도 발각 되지 않고, 책자리에에서 돈벌이한 돈으로 약간의 담배를 샀다. 그리고 병도 나지 않고 지평해 나갔던 것이다. 아무런 사고없이 거의 운이 좋은 하루가 또 넘어갔다.

이와 같은 그의 형기 시초에서 마지막 날까지 3,653일이었다.

그것도 운년이 끼어서 여분의 일이 덩으로 보태어졌다.

## 고금 소담

◇ 행동과 감정은 늘 같은 보조로 따라다닌다. 행동이 가면 감정도 가고 감정이 발동하면 행동도 발동한다.

그러므로 감정이 상했을 때라도 다른 유쾌한 행동을 시작하면 불유쾌했던 감정도 저절로 유쾌한 쪽으로 조절이 된다. 평화와 행복을 불러 들이는 마음씨를 준비하려면 먼저 유쾌하게 생각하고 행동하라. 늘 우리 앞에는 유쾌한 부분과 불유쾌한 부분과의 틀이 있는데 이왕이면 유쾌한 부분에 관심을 주면 된다.

<윌리엄 제임스>



## 「크로오드·큐우」

### 이 성 · 일 <역>

「크로오드·큐우」는 약 8년 전 파리에서 살고 있었다.

그는 처자가 있는 일꾼이었다.

집이 가난하였던 탓으로 별로 교육을 받은 바 없었으므로 제대로 읽고 쓰기를 할 수 없는 사람이었다.

그러나 그는 친분이 예민하고 재빠른 편이었고 총명하여서 항상 생각함이 깊었다. 어언 겨울이 왔다.

그것은 여러가지의 불행을 실고 그에게 다가왔다.

무직, 기아, 그 위에다 매일 땀 나무의 부족과 같은 것이 그것이었다.

그 때문에 그와 그의 아내나 그의 어린아이들도 똑 같은 기아와 추위에 허덕이지 않으면 안 되게 되었다.

그리하여 그는 끝내 남의 물건을 훔치게까지 된 것이다.

그가 무엇을 흠쳤는지 알 수 없으나 흠친 물결이 무엇이었던 간에 그 결과란 매 한 가지다.

그의 처자는 그로하여 겨우 사흘정도 생활고를 모면할 수 있는 땀과 따사로운 방신세를 질 수 있었으나 그는 그 일 때문에 5개년의 금고형에 처하게끔 되고 말았다.

그는 「크레르보오」에 압송되어 갔다.

옛 사원이었던 이 건물이 지금은 감옥으로 되어 있다.

수 많은 방은 그대로 감방으로 바뀌어졌다. 제탁으로 쓰던 대는 그대로 가새의 형구가 되었다.

그렇지만 세상사람들은 이를 가리켜 진보되었다고들 한다.

이처럼 신변의 어쩔 수 없는 사정으로 절도의 이름을 받은 「크로오드·유우」는 그 용모를 말한다면 넓적한 이마에는 상당히 조섬성 있게 면도된 흔적이 보여 있었고 검은 머리의 군데군데에는 서릿발이 보이었지만 깊이있게 가라앉은 눈배에는 온화하며 어딘가 확실하고 정직한 빛이 깃들어 있었다.

그 사지에는 과단성을 말하여 주는 또렷한 그 무엇이 비쳐 있었다.

그는 함부로 입을 여는 일이란 거의 없지만 그 속에도 스스로 대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승상의 마음을 갖게 하며 어딘지 모르게 그를 따르게 할 수 있는 위풍을 간직하고 있다.

그는 실로 친대시 할 수 없는 인품의 소유자였다.

사회는 그에게 무엇을 기대하고 있는가, 나는 그것을 응시하지 않으면 안 된다. 감옥의 작업장에는 그를 감시하는 형무관이 있다.

형무관은 자기의 직책을 잘 알고 있다.

그들은 작업장에서 노역에 당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대하여서는 형무관이었으며 그리고 그 죄수들에 대하여서는 옥쇄장이라는 것을 항상 잊지 않고 있다.

한쪽 손으로서는 죄수들에게 일거리에 대한 연장과 재료를 주었고 다른 한 편은 손으로는 죄수의 죄사슬을 걸고 있다.

그들이란 대체로 평생을 통하여 이치에 맞거나 안 맞거나 하는 일에 대하여서 조금도 물이켜 보려고 하지 않으며 자기가 생각하는 일에 대하여 남들이 어떻게 말하건 상관하지 않는다.

그것은 마음이 강인한 사람이라기 보다는 오히려 참혹한 인간이었으며 횡폭한 인간이었다. 제멋대로의 인간이었다.

그러나 그들이라고 하였자 같은 인간이다. 그들의 얘기들에 대하여서는 부드러운



그가 자유의 몸이 되어 있었을 때에는 매일 차기의 식량으로서 네 근의 빵을 취한 셈이다.

그렇지만 지금은 죄수로서 하루종일 일하고 겨우 한 근 반의 빵과 네 은스의 고기를 받을 따름이다.

그는 시종 배고프게 지냈었다.

그는 지금 어디에도 차지 않는 그 죄수밥을 먹었다.

쭈뼌은 어찌할 수가 없다. 그러나 이러한 때에는 번거로운 일이라도 체적을 받아 이 피로움을 잊으려고 다시 손익은 일터에로 나가려고 했다.

그 순간 어디서 본듯한 허약한 소년이 손에는 나이프를 들고, 먹으려다 만 죄수밥 한 그릇을 들고 어성어성 그가 있는 걸로 다가왔다.

그렇지만 그 소년은 어쩔지 머뭇거리며 곧장 말도 없이 서 있었다.

『너 무엇하러 온 거냐?』라고 「크로오드·유우」는 멧적게 물었다.

그러자 그 소년은 조심스런 표정으로

『당신을 도우려……』라고 대답했다.

『도움다니! 그건 무슨 말이냐?』

『잠수살 밥을 떨어뜨리고 싶어서, 나로서는 아무래도 다 먹을 수가 없기 때문에…』

소년의 이야기를 들은 「크로오드·유우」는 잠시동안 대꾸도 없이 그저 물끄러미 소년이 있는쪽을 바라보고 있더니 드디어 아무런 말도 없이 소년이 들고있던 밥을 집어 채어 두 등분으로 나누더니 그 반절을 그냥 쉼어 먹었다.

그 소년은 만족스런 표정으로 입가에 웃음을 지으며 말하였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금후로부터 매일 나의 밥을 반씩 떨어주시길 바랍니다.』

『네 이름은 무엇이나?』라고 「크로오드·유우」는 물었다.

『「아트방」입니다.』라고 소년은 대답했다.

『너는 무슨일로 이 감옥에 온거냐? 응!』

『나는 절도를 한 사람입니다.』

『응……나도 역시 그렇단다.』

나이로는 단지 설흔 여섯이지만 실제의 나이보담, 성숙하여 보이는 「크로오드·유우」와 실제는 스무살이지만 아무리 많이 본다고하여도 아직 열 일곱살을 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이 소년과는 이로부터 매일 낯을 대할 기회가 왔다.

그리하여 똑 같은 일이 두 사람 사이에는 되풀이 되었다.

날이 갈수록 두 사람 사이는 형제라기 보다 부자지간의 사이와 같은 깊은 정이 갖

들게 되었다.

같은 노력의, 같은 괴로움, 같은 절박에서 같은 운동, 그리하여 같은 동지로서 자  
고 켜다는 것은 어차피 두 사람의 친분을 두텁게 할 뿐이었다.

두 사람은 행복했다.

두 사람은 서로 서로가 자기의 생명을 의지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노역장의 형무관들이란 대체로 죄수들 한테에는 미움을 받고 있었다.

그런 탓으로 형무관들은 항상 「크로오드·유우」에게 부탁하고서는 자기들의 의견을  
실행하여 직책을 완수하곤 하였다. 감옥 내에 어떤 못 마땅한 일이라도 있으면 그럴  
때마다 「크로오드·유우」가 말하는 몇 마디의 충고가 열 사람의 옥쇄장이가 떠들어  
대며 위풍을 부리는 권위보다 훨씬 효과가 있었다.

형무관들은 그에게 이같은 세력이 있는 것을 자기들의 일 때문에 껴든 편리하게 생  
각하였으므로 그들은 모름지기 그런 형편을 좋게 생각했다.

그렇지만 그 중에도 한편으로는 막을 수 없는 질투와 반감들이 커져갔다.

「크로오드·유우」는 항상 소년 「아르방」에 대한 생각에 잠겨 있었다.

형무관들이 어떠한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인가에 대하여서는 생각할 여가도 없었다.  
어느 날 아침, 옥쇄장이가 예전과 같이 감방을 순시하며 걸고 있었다.

그때 옥쇄장이의 한 사람이 「크로오드·유우」와 함께 일하고 있는 「아르방」을 불러  
내어서 형무관 있는 데까지 오라고 했다.

「크로오드·유우」는 심상치 않게 생각하여 소년에게 말을 걸었다.

『너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

『난 아무 것도 모르겠는데요』

「아르방」은 이렇게 말하면서 일어서자 옥쇄장이의 뒤를 따라갔다.

「크로오드·유우」는 「아르방」이 돌아올 것을 가슴 조이며 기다렸다.

종일 기다렸다.

그렇지만 끝내 돌아오지 않았다.

밤이 되어도 끝끝내 소년의 모습이 보이지 않았으므로 그는 마음이 초조했었다. 그  
리하여 참아오던 인내를 끝내 깨뜨리고 옥쇄장이의 사나이에게 말을 걸었다.

『「아르방」은 병에라도 들어 누운거요?』

『아—니.』

『그럼 어째서 돌아오질 않나 말이야.』

『그에는 밤이 바뀌어졌어.』

옥쇄장이의 말을 듣고 「크로오드·규우」는 잠시동안 눈물을 흘리며 울었다.

그러나 다시 묻는 것이었다.

『대체 누구의 명령이야?……』

『××씨』

옥쇄장은 형무관의 이름을 말했다.

다음 날 저녁 그 형무관은 이전과 같이 순시를 하고 있었다.

「크로오드·규우」는 저쪽 편에서 형무관이 오는 것을 알고 일어났다.

그리하여 놀란듯이 썼던 모자를 벗고 회색 죄수복 윗도리의 단추를 주섬주섬 쥐어 채웠다.

이것이 감옥 내에서의 예의로서 옥쇄장이에 대하여 죄수들이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경계였다.

『「아르방」은 참달로 반이 바뀌어졌나요?』

「크로오드·규우」는 형무관이 자기의 앞을 지나려 할 때에 이처럼 물었다.

『그렇다.』라고 형무관은 대답했다.

『나는 「아르방」이 없어서는 살 수가 없어요. 아는 바와 같이 감옥 내에서 주는 식사란 나에게서는 통 부족해요. 「아르방」은 항상 자기의 식사를 나에게 나누어 주었지만 지금은 어떠하겠소. 당신의 힘으로 「아르방」을 이전과 같이 내가 있는 반에 돌아오게 하여 줄 수 없겠습니까?』

『안 되는 말이다. 일단 경정하여 놓은 일은 다시 고칠 수는 없어.』

『도대체 누구의 명령으로 그렇게 했단 말이오.』

『나 자신이야!』

『당신이……나의 생사에 대한 조건은 당신의 생각에 달려있소.』

『나란 인간은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이미 명령한 일을 다시 취소한 일은 없다.』

『내가 언제 당신의 원망을 살 수 있는 일을 했단 말이오.』

『원망이요 뭐고 없어』

『그렇다면 뭇 때문에 그 「아르방」을 나의 곁에서 빼어 간단 말이오.』라고 「크로오드·규우」는 원한에 찬 목소리로 외쳤다.

형무관은 그에 대하여서는 별다른 대꾸도 하지 않고.

『내가 빼어 놓았어.』라고 별로 관심이 없다는 듯 주절대며 벌리 가버리고 말았다.

· × · × · ×

「크로오드·규우」가 형무관에게 부탁하는 말이란 단, 두 마디 말에 국한되어 있

었다.

『제발 「아르방」을……』

형무관은 이 말을 들은채 만체 항상 어깨를 주춤 보이면서 가버리곤 했다.

형무관이 만약 「크로오드·규우」의 용모를 냉정하게 살펴 보았다면 그에게서 현저하게 변모하여진 모습을 발견하였음이 틀림없다.

둘리리에 있는 사람들이 오히려 그를 잘 알고 있었다.

「프라이엣트」라고 하는 한 죄수는 그가 어느 일요일날 감옥의 앞마당에 나와서 무슨 생각에 잠겨 이마에 두 손을 대고 머리를 숙인 채 몇 시간이고 앉아 있는 것을 보고

『내가 물어봐 줄테니 좀 기다려요.』

라고 농담을 걸었다.

1831년 10월25일의 일이었다.

형무관이 순시차로 왔을 때 「크로오드·규우」는 애써 형무관의 주의를 끌기 위하여 남하에 걸려있는 시계 유리를 그의로 깨뜨렸다.

그것은 그의 뜻한대로 형무관의 주의를 끌었다.

『그것을 깨뜨린 것은 남니다. 제발 나의 벗을 돌려 보내 주시오.』

그는 형무관의 앞을 질러 막으며 말했다.

『안돼!』

형무관의 대답이란 여진 그러했다.

『잘 생각하여 주십시오. 오늘은 10월25일입니다. 나는 당신에게 11월4일까지 여유를 드리겠으니 그때까지 대답을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는 결심한바 있는듯이 눈을 크게 뜨고 형무관의 낯짝을 응시하면서 말했다. 옥색 장이의 한 사람은 「크로오드·규우」는 형무관에 대하여 불온한 언사를 던졌기 때문에 특특히 징계실에 두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렇지만 형무관은 아무렇지도 않은 듯이 웃어 넘겼다.

『뭐, 징계실에까지 갈려들 필요는 없지만 단지 저런놈에 대하여서는 서로들 조심해야 해.』

그 다음 날 그는 이전과 같이 마당에 나와 침울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다.

「베루노오」라고 하는 한 사람의 죄수가 그것을 보고서 물었다.

『대단히 슬퍼하시는 일이 있으신 모양인데 무엇을 그처럼 골돌히 생각하고 있소』

『나는 저놈의 형무관 놈이 어떤 괴상한 짓을 하거나 앓을까 해서 그것이 어쩐지 두

러운 감이 드는군요.』

그가 형무관이 오는 때마다 「아르방」을 보내 달라고 하는 것은 그 뒤로도 며칠 계속 되었다.

그러나 효과는 조금도 보이질 않았다.

단지 얻어진 것이라곤 스물 네시간이나 징계실에 감금당한 일 뿐이었다.

11월4일이 되었다.

오랫동안 감옥살이를 하여온 「크로오드·유우」는 이런 일이 있는 다음 자기가 가지고 있는 물건을 조사하여 봤다.

먼도 한 자루, 「에밀」 한 권, 전부가 이것, 젊음, 사랑해야 할 여인, 즉 내 자식의 어머니의 소지품이었다.

그러나 생각나는 대로 일을 하는 것이나 읽고 싶은 책을 읽을 수도 없는 지금의 처지로서는 그와같은 물건을 갖고 있었대야 그에게는 조금도 도움이 되질 않았다. 그는 감방을 나와 오늘 이 새로운 거주자들에 의하여 더럽혀진 교사원의 내부물 어정어정 거닐었다.

어떤 감방의 앞에 간죽 거기에는 「프레라리」라는 죄수가 있었는데 방 안에서 그 창에 가로 세로 틀려있는 굵직한 철창을 눈여겨 보는 것을 보았다.

그리하여 그는 자기가 갖고 있던 한 자루의 면도칼을 그 죄수에게 제시하며 『이 면도로서 오늘밤 그 철창을 끊어 드리지요』라고 말하였지만 그 죄수는 농담인 줄만 알고 그저 웃어넘길 뿐이었다. 그도 그와 함께 농담을 주고 받으며 시간을 보냈다.

그날 「크로오드·유우」는 여느 때보다 배 이상 일하였다.

그것은 「브로이」의 「브렛쉴」라고 하는 상인에게서 털집모자를 꼭 워어달라는 부탁을 받았기 때문이다.

점심시간 전에 그는 무슨 핑계를 꾸며가지고 아테층에 있는 목수간에 갔다.

그때는 옥새장인들이 그곳에 없는 때였다. 그는 그 형편을 알아채리고 그곳에 간 것이다.

어데로 가든지 불임성이 좋은 그는 목수간에 갔어도 대환영을 받았다.

『누가 나에게 도끼를 줄 수 없소.』

『도끼요? 대체 무엇하자는 거요?』

『실은 오늘밤 형무관을 잡으려고 생각하고 있소.』

「크로오드·유우」는 숨기려고도 하지 않고 또 감추어 달라고도 하지 않고 이처럼

내어놓고 말하는 것이다.

그런즉 무슨 일을 하고 있던 죄수들은 이쪽에서도 저쪽에서도 여러 종류의 도끼를 가지고 와서 그에게 주려고 했다.

그는 그 중에서도 제일 작은 도끼 한 자루를 골라 쥐었다.

그리하여 윗도리 안에 감추어 가지고 재빨리 그곳을 떠나 나갔다.

그 작업장에는 이십 칠 판명의 죄수들이 있었다.

그렇지만 한 사람이라도 그의 제책을 고발하려는 사람도 없고 서로가 이 사건에 대하여 떠들썩하게 소문이 퍼질까 염려할 정도였다.

단지 자자 은빌히 바라는 것은 그날밤의 거사를 기다리고 있을 뿐이었다.

「크로오드·규우」는 자기의 일터에 돌아가는 길에 한 소년을 만났다.

금년에 겨우 열 여섯살이 되는 소년이지만 어딘지 모르게 우울한 모습으로 커다란 하품과 기지개를 하고 있었다.

그는 그 소년의 앞에 주십주십 다가서며 아이들 나이에 것처럼 몸이 무겁게 있었어야 쓰겠나, 여가가 있으면 무슨 책이든지 읽도록 하라고 극진하게 책하여 가르쳐 주었다.

그리하여 그가 그곳에서 떠날려는 때 그에게 소리치는 사나이가 있었다.

그는 「프아이엣트」였다.

『윗도리 안에 무엇을 갖고 있어?』

「프아이엣트」는 그의 아랫부부의 불쑥한 곳을 뚫어지게 보면서 이치럼 물었다.

『실은 오늘날 그 형무관을 잡아 죽이려고 도끼를 빌리어 온 거야. 그렇지만 어베 나에게 그런 눈치가 비치나요?』

「크로오드·규우」는 조금도 무섭게 생각함이 없이 자기의 생각을 송두리채 밝혀 말하였다. 그에 대하여 「프아이엣트」는

『보르겠어, 조금도 모르겠어』라고 대답했다.

일곱시에는 모든 죄수들이 각기 자기의 일자리에 당하게 된다.

그리하여 형무관들이 순시할 나을 때까지는 옥색장이들은 모두 다 제자리에 가 버리기 때문에 죄수들의 옆에는 한 사람도 남아있지 않은 것이 상례였다.

「크로오드·규우」의 일터에는 대단히 묘한 광경이 일어났다. 그것은 이곳 감옥이 생겨서 처음보는 일이었다.

그는 벌써 일어서서 그곳에 와 있는 여든 한 명의 죄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선언하였다.

『제군! 제군들은 모두다 나와 「아트방」이 형제와 같이 지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을 것이요. 나는 맨 처음에 그가 나를 위하여 자기의 밥을 나누어 준 것이 동기가 되어 그를 사랑했었소. 그리하여 뒤로는 그가 나를 생각하여 주었기 때문에 나는 그를 사랑했던 것이요. 지금에 와서 나는 내가 하는 일자리에서 얻어지는 빵은 있지만 그것은 너무나 양이 적은 탓으로 그것으로서는 도저히 나의 시장기는 가실 수 없소.

가명 「아트방」과 내가 함께 있다고 해서 형무원의 방해가 될 것은 조금도 없지 않소. 그렇지만 그는 우리 두 사람의 정으로 찢고 말았다고. 그리고도 그 이유를 들으면 단지 나를 괴롭히기 위한 수작에 불과한 대답을 하지 않소.

이는 그가 악인인 증거가 아니고 무어요. 나는 재상 재사 「아트방」의 복귀를 간청 하였으나 그는 끝내 들어주지 않았소. 나는 그에게 11월4일을 기하여 최후의 대답을 구하였던 것이요. 그렇지만 그날 나는 징계실에 있는 동안 그들의 재판관이 될 셈이요. 나는 단연 11월4일이 되면 그를 사형에 처할 것이라는 선언을 그에게 대하여 내 버렸소. 이로부터 두 시간 지나는 사이에 그는 이곳에 올 것이요. 나는 제군에게 말 하오. 나는 그를 잡아 죽이려 하오. 제군! 나의 이 기사에 대하여 무슨 의의가 있소?』

만장은 단지 침묵 속에 잠겼을 뿐이다.

『크로오드·유우』는 말을 계속하여 자기의 생각을 밝혔다.

『나는 할 수 없이 이 최후의 수단에 호소하게 된 거요. 아주 할 수 없는 사정 때문에 나 자신의 법률을 집행하지 않으면 안 되게 되었소. 나는 내가 만약 형무원의 생명을 빼앗게 된다면 나 자신도 그와 함께 멸망의 길을 걷게 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소. 그러나 그것은 바른 길이기 때문에 나는 생명을 바치는 것을 결코 잊지않고 있소. 나는 금번 이 기사를 결심하게 된 것은 하루 아침이나 하루저녁에 생겨진 것은 아니라고. 실로 두 달이나 서 달이나 걸려서 조용한 마음으로 곰곰히 생각한 위에 취해진 것이요. 만약 제군들 중에 나의 이 행동이 단지 잠깐동안에 일어난 분노의 감정에서 일어난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제발 이 자리에서 그 이치를 말해 주구려. 내가 행하려는 사형에 대하여 의의가 있는 분은 주저말고 속히 말하여 주시오.』

일등은 변함없이 물끄러미 듣는 듯이 조용했었으나 어느 한 구석에서 한 마디 소리가 들렸다.

『형무관을 죽여버리기 전에 「크로오드·유우」 당신은 형무원에게 그 심경이 달라질 만한 기회를 줄 필요가 없을까요?』라고 그 소리는 들려왔다.

『그렇다. 그에게 깊이 생각할 기회를 주자』라고 「크로오드·유우」는 대답했다.

그는 이렇게 되어 자기에게 갖고 있던 두 세 가지의 흥기를 전부 내어 놓았다.

그리하여 그것을 「아르방」이 없는 사이를 빌어 자기에게 가장 친절했던 다른 죄수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그가 자기의 물건으로서 남긴 것이란 한 자루의 털도칼 뿐이었다.

그리하여 그는 죄수들과 교대교대 뜨거운 포옹을 했다.

죄수들 중에는 서로 겨안고 뜨거운 눈물을 흘리는 사람들도 많았다.

그렇지만 그는 평소와 다름 없이 여러가지의 담화를 하면서 웃음에 흥겨워 코김으로 콧물을 끄는 등 아이들이 흔히 하는 손재주들 부리어 모여앉은 죄수들과 장난을 하기도 했다.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까지 남아 있었던 죄수의 이야기로 이런 말이 전해졌다.

『그는 너무나도 짓궂게 웃었기 때문에 그 놀랄만한 제책을 그만 내어버리고 만 것이 아닌가 하고 생각할 정도였다.』고...그렇지만 한 사람의 소년 죄수는 「크로오드·유우」가 있는 쪽을 눈여겨 보고 다음으로 일어날 거사를 상상하고서는 부들부들 몸을 떨고 있었다.

그는 그 모양을 보고서

『젊은 분, 것처럼 두려워 할 것은 없어. 단 1분간의 일이니까 말일세』라고 조용히 걱정하여 주듯이 말했다.

감옥 안의 일터는 길다랗게 생긴 방인데 양쪽 벽에 문이 있고 좌우 양 옆 창 밑으로 벽에 붙여 만든 긴 의자가 있고 중앙이 통로로 되어 있다.

형무관은 그 통로를 거닐며 양쪽에 늘어선 죄수들의 작업을 감시하며 다닌다.

「크로오드·유우」는 지금에야 작업에 당하였다.

시계 바늘이 아홉시 십 오분전에 왔을 때 그는 일어서자 드나드는 문쪽을 향하여 걸었다. 그는 아주 침착하였으며, 용모나 거동에 있어서 조금도 달라진 데를 찾을 수가 없었다.

다른 죄수들은 마음껏 숨도 쉬질 못하였다. 아홉시가 울렸다.

드나드는 문을 밀어제치며 형무관이 이전처럼 혼자서 들어왔다.

그 모습은 몹시 유쾌한듯 했으며 또 만족스럽게 보였다.

형무관은 자기의 몸에 집중된 죄수들의 무서운 눈초리에는 조금도 깨달음 없이 머리를 흔들며 무엇인가 입 속으로 중얼거리며 바쁜듯이 지나가려고 했다.

그때 형무관은 뒤에 따라오는 「크로오드·유우」의 말소리를 알아차리고 갑자기 뒤

돌아 왔다.

『너는 지금 이 시간에 무엇을 하고 있나 왜 자기자리에 있지 않아.』

그 소리는 바로 강아지라도 투기는 듯 하였다.

『여보세요 나는 당신에게 말씀 올릴 것이 좀 있습니다.』

그는 대단히 조심성 있는 말씨로 말했다.

『뭐냐?』

『「아르방」말이오』

『또 그말이야?』

『어느 때든지』

「크로오드·유우」의 말이 다시 나오는 것이 귀찮다는 듯이.

『그러던 자네, 짐제실에 24시간 정도로는 아직 부족한 모양인가』라고 그 형무관은 말 끝도 맺지 않고 가버리려고 했다.

그는 형무관의 뒤를 따르며 또 다시 애원했다.

『여보세요. 제발 나의 친구를 돌려보내 주십시오.』

『안돼. 안돼』

끝내 「크로오드·유우」는 마귀라 해도 그에게는 움직였을 것에 틀림 없었을 것이라고 생각한 듯이 한 가닥의 우렁찬 소리로 이치떨 말했다.

『여보세요. 제발 부탁드립니다. 「아르방」을 나에게 돌려주세요. 「아르방」만 돌려보내 주신다면 당신은 제가 얼마나 근면한 것인가를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당신은 내가 볼 때 자유의 몸이므로 남이 한 사람의 친구를 잃진 안 잃진 어느만큼 차이가 있을 것인가 하는데 대해서는 생각도 못할 것이요. 그러나 그 사람에게 단한 사람의 친구 밖에 없는 사람의 몸이 되어 본다면 어떨겠습니까. 당신은 잘 모릅니다.

「아르방」은 나에게 있어서는 실로 생명과 같은 처지라오. 당신은 당신이 생각하는대로 어디에든지 갈 수도 있고 올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나에게 있어서는 단지 「아르방」이라고 하는 한 사람의 친구가 있을 뿐이요. 제발 나에게 「아르방」을 돌려주십시오. 당신은 그 애가 나에게 식사를 나누어 주었다는 것을 알고 있을 거요. 지금 「크로오드·유우」라고 하는 한 죄수가 「아르방」이라고 하는 한 죄수가 내절에 두었다고 해서 당신에게 무슨 해가 있단 말이오. 당신이 단지 「그때!」라는 말씀만 들려 주신다면 나는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여보세요 나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선량한 당신에게 나의 회원이 전달되도록 비나이다.』

「크로오드·유우」는 스스로 감격에 넘쳐 그 이상 말을 못하였다.

그리하여 형무관이 대답을 기다리고 있었다.

『안돼. 안돼. 한 번 말한 일은 바꿀 수 없어. 귀찮은 놈이구나 가만히 못있어.』

형무관은 성난 표정으로 말했다. 그리고 빠른 걸음으로 저쪽에 있는 문쪽으로 건  
기 시작했다.

여든 한 명의 죄수들은 이 광경을 한결같이 숨을 죽이고 눈여겨 보고 있었다.

『크로이드·유우』는 형무관의 걸음으로 뛰어갔다.

두 사람의 몸동이가 서로 닿을 정도로 가까이 다가선서 또 조용히 묻는 것이었다.

『단 이 부탁 뿐입니다. 당신은 왜 나를 죽음의 길에까지 몰아 넣으려고 하시나요  
말해주세요. 당신은 왜 나와 「아트방」과의 사이를 찢어 놓는 거요 네?』

『벌써 다 이야기 하지 않았나. 단지 내가 그처럼 하고 싶어서 한 일인니까!』

형무관은 이처럼 대답하며 드나들 문을 열고 나가려고 했다.

그때 「크로이드·유우」는 감추어 갖고 있던 도끼를 휘두르기 시작했다고 보았을 때  
에는 한 마디의 외침도 없이 형무관은 방바닥 위에 쓰러지고 말았다.

그 머리곽은 그가 번개처럼 휘두른 세 차례의 도끼질에 형편 없이 찌히고 말았다.  
네 번째의 일격에는 그 얼굴마저 완전히 부서지고 말았다.

그는 미친듯이 이미 죽은 형무관의 시체 위에 또 다시 한바탕 도끼를 넣었다.

그리고 「크로이드·유우」는 도끼를 집어던지고 소리 높여 외쳤다.

『다음은 또 다른 한 사람을 죽이겠다.』

또 다른 한 사람이란 말할 것도 없이 자기 자신을 말함이다.

「크로이드·유우」는 아내의 소지품이었던 이전의 번도칼을 끄집어 내어 자기의 가  
슴에 깊이 찔렀다.

그렇지만 칼날이 얇고 가슴의 살결은 두터웠기 때문에 즉시 죽을 정도의 상처는 되  
지 못하였다.

그는 선열에 적시면서도 또 다시 죽은 형무관의 시체 위에 올라탄 채 쓰러지고 말  
았다.

두 사람 중에 어느쪽이 피해자며 어느쪽이 가해자인지 잠깐 보고서는 판단하기 어  
려울 지경이었다.

「크로이드·유우」는 실신 상태에서 깨었다. 주위를 휘둘러보고서 자기의 몸동이가  
침상 위에 놓여져 있는 것을 알았다. 주위에는 여러가지의 응급치료에 필요한 연장  
등이 있었다.

좌우에는 자선회의 간호부가 여러 명이 자기가 있는 쪽을 보고 있다.

한 사람의 서기는 말하는 것을 기록하려고 대기하고 있었다.

서기란 놈은 그가 소생하였다는 것을 확인하자 펜을 들고 한 걸음 앞으로 나왔다. 그리고는 무슨 까닭으로 이같은 일을 저질렀는가고 묻기 시작했다.

그는 다량의 출혈은 있었지만 면도칼이 그의 생명을 빼앗기에는 충분하지 않았으므로 상처는 그의 생명에 관계될 정도의 것은 아니었다.

그가 분노에 못 이겨 저지른 필사적인 싸움은 단지 형무관에게만 효과를 본 셈이다.

그러하여 심문은 시작되었다.

『너는 「크레르보오」감옥의 일터에서 형무관을 살해한 일이 있는가?』

『네, 있습니다.』

『무슨 까닭으로 너는 형무관을 살해했는고?』

『그것은 완전히 제가 죽었습니다.』

서기는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일일히 적어 넣었다.

그 사이에 그의 상처는 점점 나빠져갔다. 나중에는 체온이 점점 높아지기 시작하더니 허둥지둥 자리에 쓰러지고 말았다.

상처에서 오는 그의 고통이란 오랜 시간을 두고 계속되었다.

11월, 12월, 정월, 이월은 그 치료와 요양을 위한 시간으로 흘러갔다.

그 기간, 그의 머리맡에는 의사와 재판관들이 교대로 찾아왔다.

의사는 건강의 회복을 위하여, 재판관은 그의 내막을 조사하여 그를 단두대에 세울 이유를 만들기 위하여

1802년 3월16일의 일이다.

「크로오드·유우」의 상처도 완전히 나아서 본래의 건강상태가 되어서 심문에 답하기 위하여 「트로이이」의 법정에서 나갔다. 그가 법정에서 모습을 나타내자 만장은 물을 뿌린 것과 같이 정숙한 분위기 속에 한편의 감동이 흘러 넘쳤다.

그는 깨닫지 못한 채 수업을 깔고 낮을 감춤이 없이 태연히 서 있었다.

몸에는 예심수의 의복을 걸치고 있었다.

법정에는 억세게 생긴 병정들이 많이 우군거리고 그를 후위했다.

이처럼 많은 호위병을 파견한 것은 「크로오드·유우」의 사건으로 소환된 증인들이 모두가 죄수들이었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이 재판에는 하나의 곤란한 점이 생겼다.

여기에 것처럼 많은 증인을 불러 내었음에도 불구하고 증인인 그들 죄수들은 한결 같이 최종 진술을 거부했다.

모두들 굳게 입을 다물고 알고 있는 사실을 말하려고 하지 않았다.

재판관들이 제아무리 위협하여도 일체 무익한 일이었다.

그리하여 단지 최후로 「크로오드·유우」 자신이 증인들에게 진술을 청하였을 때만이 그들은 약간의 대답을 교대교대로 이 사건을 시종일관하여 공격한 발언을 했다.

그러나 그중에는 너무 오랜 시일이 경과했기 때문에 잊어버렸는지 그렇지 않으면 고의로 피고를 옹호하려고 그러는 것인지 상세한 내용을 밝히지 않는 때가 있었다.

그럴 때마다 그는 자기로써 그 빠진 사실에 대하여 보충하기도 했다.

방정식에 가득찬 부인들은 이 광경을 보고 눈물짓지 않은 사람이 없었다.

이때 재판소 급사가 죄수 「아르방」을 불러냈다.

「아르방」은 깊은 감격에 젖어 소리높이 울면서 들어왔지만

「크로오드·유우」의 곁에 닥아오자 자기의 몸을 그의 양팔에 쓰러뜨렸다.

그는 의연히 서서 재판관에게 대답하여 말했다.

『자기에게 지어진 식사를 굶주린 사람에게 나누어 준 죄수는 이 었니다.』

그러면서 「아르방」의 손을 붙잡고 손등에 키스를 했다.

증인은 모두 심문이 끝났다.

검사는 일어서 논고를 했다.

『배심원 여러분, 만약 법률이 이같은 극심한 악인을 처형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사회는 완전히 질서를 상실하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

이에 계속하여 검사의 논고는 상당히 오래 계속되었지만 그 논고가 완전히 끝나기도 전에 「크로오드·유우」의 변호인이 일어나서 명쾌하고 열렬한 어조로 변론을 했다.

다음은 「크로오드·유우」의 차례다.

그는 자기의 뜻을 진술하였다.

그 민첩한 판단에는 만장 놀라지 않는 사람이 없었다.

그 아무 것도 아닌 한 사람의 얼굴은 살인자라기 보다는 오히려 웅변가라고 하는 것이 격에 맞을 정도였다.

그는 조금도 숨기려 하지 않고 일체의 사실을 진술하려고 결심한 듯이 속일 없이 자생하게 그 진말을 진술하였다.

방청인 일동은 그의 응변에 감복했다.

변변히 책 읽을 줄도 모르는 이 사내가 그 누구든지 말하기 어려운 논점을 조금도 힘 안 들게 진술한데 대하여 그리고 재판관에 대하여 여러모로 경의를 잃지 않았다는 사실을…….

그는 검사가 그를 가리켜 아무런 이유도 없이 형무관을 살해하였다고 한테 대하여 처음 침착성을 깨뜨리고 소리높이 외쳤다.

『뭐라구요! 이유가 없어? 여기에 한 취한이 있다고 합시다. 그가 나를 때려눕히려고 했을 때 내가 그 이유로 그를 죽였다고 가정하여 보시오. 그때 당신은 이를 죽일 이유가 있다 해서 사형에 대신하여 징역을 가할 것이다.』

그렇지만 이 사람은 4년간이나 모든 수단을 다해 나를 중상하고 괴롭히고 있었소. 4년동안 나를 깔보고 모욕을 주어왔어요. 4년간, 매일 매시 나를 꾸짖고 나에게 대하여 예의를 잃을 일이란 이루 말할 수 없어요. 나는 대체 어떻게 하였으면 좋겠소. 당신은 나에게 이유가 없다고 말하고 있소. 그렇지만 나에게는 아내가 있었소. 나는 단지 이 아내가 있었기 때문에 도적질을 저질렀소. 그리고 그 사람은 내 아내에 대한 그릇된 소문을 퍼뜨려서 나를 괴롭혔소. 또 나에게 어린아이들이 있었소. 나는 단지 이 어린 자식들이 있었기 때문에 도적질을 하게 된 것이요. 그리고 그 사람은 내 자식에 대한 일들을 가지고 또 나를 괴롭혔어요. 내가 주립에 허먹일 때 다행히 한 친구가 생겨서 나에게 식사를 나누어 주었소. 그러나 그 사람은 나의 그 친구를 때웠아 갔답니다. 나는 이 친구를 돌려오기 위해 절절히 애원했답니다. 그는 끝내 듣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정계실에 나를 강금하고 말았습니다. 나는 이 사람에게 나의 고민을 호소하였지만 그는 이를 듣는 것이 시끄럽다 하여 영영 거절하고 말았습니다.

아! 나는 대체 어떻게 해야 했겠습니까? 나는 단연코 그의 생명을 때우고 말았습니다. 지금 당신은 내가 이 사람을 죽였다고 하여 나를 흠렬기와 같이 보고 나의 목을 자르고 있소. 당신은 이제 당신 자신의 목을 자를 것이요.』

배심원이 퇴정한 뒤 「크로오트·규우」에게는 사형이 내렸다.

그는 그날밤

『나는 이 세상의 35년을 걸어왔다』라고 말하면서 침착하게 저녁밥을 먹었다.

그가 조금도 상고할 의사가 없고 다른 사람들에게서서 충고를 받아도 좀처럼 듣지 않았지만 상처의 치료중 자기를 친절히 간호하여 준 간호부의 따뜻한 권고에 못이겨

끝내 상고할 것을 승낙했다.

이 간호부는 정성을 다하여 그에게 5프랑의 은화를 주었다.

그의 죄수동지들은 앞에서 말한 바와 같이 모두들 그에게 심복된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각각 백방으로 그를 이 감옥에서 도주시키려고 생각했다.

죄수의 어떤 사람은 환기용 구멍으로 그의 감방에 바늘이나 철사나 또는 문통에 썩었던 테두리 철판 등을 집어넣었다.

이같은 언장들이 완전히 갖추어져 있다면 그는 쇠고리를 끊고서 도망쳐 갈 수 있을 것이었다.

그렇지만 그는 그 물건들을 모두 다 옥쇄장에게 바치고 말았다.

1832년 6월 8일 즉 살인을 행해서부터 7개월과 4일을 경과한 뒤 재판소의 서기가 그를 찾아왔다.

그는 서기에 향하여 말했다.

『나의 생명은 이제 앞으로 한 시간 밖에 없소.』

이보다 먼저 그의 상고신청은 기각되었다.

그는 다시 말했다.

『지난밤은 잘 잤어. 오늘밤도 그와 마찬가지로 잘 자게 되겠지요』

교회사가 먼저 왔다. 그 뒤에 사형관이 따라왔다. 그는 교회사를 대단히 존경하여 그가 말하는 말을 귀를 기울여 일일이 들었다.

그리하여 자기에게 이전부터 종교상의 교양이 없었던 것을 후회도 하고 또 자기의 생애에 대하여 자기 스스로 뼈아프게 자책하는 것이었다.

사형집행관에 대하여도 그는 충분히 거동을 삼갔다.

그는 완전히 정신은 교회사에게, 육체는 집행관에게 각각 바친 것이다.

X

X

X

그는 지금 사형대의 밧줄에 묶이려 할 무렵 손에 쥐고 있던 5프랑의 은화를 내어서 교회사에게 주었다. 그러면서

『이걸 빈민에게…….』라고 말했다.

시계소리가 여덟시를 알릴 시각 그 맑고 고상하고 민첩한 「크로오드·규우」는 『이 세상을 떠났다.』



## 포울의 경우

—윌러·캐더—

이 호 영 역

포울은 그날 오후 자기의 여러가지 비행을 변명하기 위하여 핏츠버그 고등학교의 교원실로 출두하기로 되어 있었다.

그는 한 주일 전에 정학처분을 받아 아버지가 교장실을 방문하고 자기 아들놈에게는 어지간히 속을 썩히고 있다고 실토 하였던 것이다.

포울은 앞전히 미소를 띠고서 교원실로 들어왔다.

웃은 조금 작아져 있었고 발이 성근 외투깃의 황갈색 벨트 띠아 떨어져 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에게는 어딘지 멋들어진 메가 있었다.

단정하게 멘 검정 매듭넥타이에겐 오파알의 핀을 꽂고 단추구멍에는 붉은 카네이션을 꽂고 있었다.

선생들에게는 그 카네이션이 아무래도 정학처분을 당하고 있는 소년의 위우치는 정에 적합한 것이라고는 생각되지 않았다.

포울은 나이에 비해서 키가 크고 몹시 수척하여 어깨는 괴팍하게 높고 가슴패기는 좁았다.

그의 눈에는 어떤 히스테릭한 빛이 있는 것이 뚜렷이 드러나고 그 눈을 연신 의욕적, 연극적으로 움직여 소년으로서의 유난히 비위에 거슬렸다.

노동자가 비정상적으로 커서 마치 펠라도나 마취약을 사용하고 있는 것처럼 보였지만 그 마약으로서의 생기지 않는 유리모양의 반짝임이 빈득이고 있었다.

왜 여기 돌아왔느냐고 교장에게 질문 받았을 때, 그는 제법 공손하게 학교로 되돌아오구 싶어서입니다 라고 대답했다.

기실 이것은 거짓말이었다.

그러나 포울은 거짓말 하는 것에는 제법 익숙하여 분명히 마찰을 피하기 위해서는 절대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선생들은 자기 처벌의 이유를 진술하라고 요구하여 의견을 들었는데 그것에는 같은 증오와 억누를 수 없는 불만이 담겨 있어 이 사건이 평범치 않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었다.

질서의 파괴와 전방지다는 것이 그의 죄과 중에 들추어졌는데 그를 가르친 선생들은 누구나 이 사건의 실제의 원인은 거의 말로는 표현할 수가 없다고 느끼고 있었다. 사실인즉 그 원인은 이 소년이 히스테릭하고 반항적인 태도로 나왔다는 것이었다. 또 선생들에게 대하여 경멸감을 품고 그것을 숨긴다는 노력을 도무지 하지 않는다는 점에도 있었다.

어느 때 그가 칠판에 나가 어떤 문장의 일절의 대의를 적고 있었을 때 영어선생아브의 옆으로 다가가서 손목을 쥐어 가르쳐 주려고 했다.

그랬더니 포울은 몸을 떨고 뒤로 물러가 꽤 두 손을 뒤로 당기었다.

깜짝 놀란 여선생은 실사 그가 덤벼들었다 한들 이처럼 마음에 상처를 입고 당황하지는 않았으리라.

이 모욕은 무의식적인듯 하면서도 분명히 개인적이었으므로 잊혀질 수가 없었다.

이렇듯 방법은 다를지언정 여하간 그는 남녀를 불문하고 그를 알아보는 모든 선생에게 같은 본능적인 혐오의 감정을 품게 하고 있었던 것이다.

어떤 학과에서는 그는 매양 손으로 햇빛을 가리고 앉아 있었는데 어떤 학과에서는 일과 외우기를 하는 동안 시종 창밖만 보고 있었고 또 어떤 학과에서는 남을 웃기려고 점짓 하나 하나 강의에 재를 치거나 하였다.

이날 오후 선생들은 그의 모든 태도가 어깨를 으쓱하는 것이나 경박한 붉은 카비

이선의 꽃에 상징되어 있다고 느꼈다.

그리고 영어선생을 선두로 하여 사정없이 그를 닦아 세웠다.

그는 시종일관 열린 입술로부터 흰 이빨을 보이고 미소를 띠면서 견디고 있었다 그의 입술은 연신 푸득푸득 움직이고 있고 눈섭을 지켜드는 그 버릇은 끝까지 사람을 깔보는상 싫어서 알미운 생각이 들게 했다.

포올보다 나이 적은 소년이라도 이러한 책망을 받으면 기가 죽어 눈물을 쏟을 터이지만 그 입가에 띤 미소는 영 가실줄을 몰랐다.

다만 하나, 그가 불쾌하게 느끼고 있었다는 감정의 한 표시는 외투의 단추를 만져 작거리는 손끝이 신경질적으로 떨리고 있었다는 것과 모자를 쥐고 있는 반대편 손이 이따금 퍼득퍼득 움직이고 있었다는 것 뿐이었다.

포올은 줄곳 미소를 짓고 흰곰흰곰 사방을 둘러보고 사람들이 자기를 지켜보고 무엇을 탐지해 내려고 하는 기색을 항상 느끼고 있는듯이 보였다.

이 의식적인 표정은 워낙 소년다운 쾌활과는 동떨어져 있었기에 노상 거만과 「약삭빠름」의 탓으로 돌려지고 있었다.

이 심문이 진행되어 감에 따라서 여선생의 하나가 이 소년이 말한 건방진 말투를 되풀이 했다.

교장은 그에게 향하여 그것이 부인에게 대한 예절바른 말투라고 생각하느냐 하고 물었다.

포올은 가볍게 어깨를 으쓱하고 눈섭을 퍼뜩거리면서 대답했다.

『전 잘 모르겠습니다. 게다가 공손하게 하려거나 불손하게 굴려거나 생각지 않습니다. 어쩌면 그것은 조심성 없이 이야기를 하는 저의 타고난 버릇일 겁니다.』

그럼 그런 버릇을 없애는게 낫다구 생각하지 않느냐 하고 교장이 물었다.

포올은 피식 웃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고 대답했다. 이제 가도 좋아 하고 일러지자 그는 짐작계 절을 하고 나갔다.

그 절은 저 붉은 카베이션에 나타난 채먹지 않은 태도를 또 한번 보여지는 거나 다름 없었다.

선생들은 모두 희망을 잃고 있었다.

그리고 도화선생은 저 소년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다고 하여서 일종의 감정을 대변하고 또 덧붙여서,

『그애의 그 미소는 전적으로 거만한 태도에서 온 것이라고는 믿기지 않아요. 무엇이 붙어 있는게 아닐까요. 하나로는 저 애는 몸이 튼튼하지도 못하구, 저 애에게는

어디 명든데가 있어요.』

이 도화선생은 사람들이 포올의 흰 잇줄과 눈의 부자연스운 생기밖에 모르고 있다고 느끼게 되어 있었다.

어느 무더운날 오후 이 소년은 화판에 기대어 즐고 있었다.

그때 도화선생은 얼마나 하이얀 푸른 핏대가 두드러진 얼굴인가 하고 깨닫고 놀란 일이 있다.

눈 언저리에는 늙은이처럼 주름이 잡혀 있고 잠들어 있는 동안에도 입술을 퍼뜩퍼뜩 움직이고 있는 것이었다.

선생들은 거뜬하지 못한 불쾌한 기분으로 그 건물을 나섰다.

그런 조그마한 아이에게 복수심을 불태웠다는 것, 가혹한 언사로 이 감정을 나타내었다는 것. 그리고 도를 넘은 질척의 기분잡치는 장난을 하고 있는 양 서로서로 불 선동하였다는 것, 따위를 몹시 부끄럽게 여기고 있었다.

어느 선생은 장난꾸러기들이 동그랗게 원을 만들고 불쌍한 한걸의 고양이를 물아내고 있는 모양을 상기했을 정도였다.

한편 포올은 가극 파우스트 중의 『병정의 합창』을 휘파람 불면서 언덕을 달려 내려갔다.

때때로 뒤편 뒤를 돌아다 보면서 선생중의 누가 자기의 마음도 경쾌한 모습을 바라보고 있거나 않나 확인하는 것이었다.

벌써 오후도 상당히 늦어 그날 밤은 카네기·홀에서 장내 안내제의 당번이었으므로 그는 저녁식사를 하러 집으로 가지 않기로 마음먹었다.

컨서아트·홀에 이르니 아직 문이 열리지 않고 있었다.

바깥은 쌀쌀했다.

그는 언제나 이 시간이면 사람이 얼신거리지 않는 미술관으로 가 보려고 작정했다. 거기에는 파리가를 울긋불긋하게 그린 습작이 벗장과, 들뜬 파랑빛의 베니스풍 경이 한 두 장 걸려있어 쉼번이 그의 기분을 흐릿하게 해 주었다.

나이 많은 문지기 이외에는 화람에 아무도 없다는 것을 알고 기뻐했다.

이 문지기는 신문을 무릎 위에 놓고 방 한 구석에 앉아 있었는데 한쪽 눈에는 걸정 안대를 걸치고 다른 한 쪽 눈은 지긋이 감고 있었다.

포올은 거기를 독차지 하고서 휘파람을 불며 자신만만하게 걸어들었다.

얼마 있다가 그는 리코의 그림 양에 앉더니 넋을 잃고 들여다 보았다.

아차! 하고 정신을 차려 시계를 보니 일곱시를 넘어 있었다.

황급히 일어서더니 아래층으로 달려갔다.

조각실에서 밖을 내다보는 오거스터스·씨이저의 조상에는 얼굴을 찌프러 보이고 밀로의 비너스에는 그 옆을 지나갈 때 계단 위에서 알곳은 몸짓을 던지면서.

포올이 안내제의 탈의실에 이르렀을 때 여섯 명이나 되는 소년들이 이미 거기 와 있었다.

그는 부랴부랴 제복을 입었다.

도대체 몸에 딱 들어맞는 옷이라고는 몇 개 안 되었는데 포올은 그 옷이 자기에게 잘 맞는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땀은 땀에 꼭 끼고 끈은 옷웃이 그의 좁은 가슴을 두드러지게 눈에 띄게 하고 있었으므로 그것을 몹시 걱정하고 있었다.

언제나 옷을 잘 아입고 있을 동안 음악실로부터 악기의 줄을 맞추는 소리며, 호운을 준비하느라고 울리고 있는 소리를 들으면 언제나 그는 흥분했다.

그러나 오늘 저녁은 어찌된 영문인지 제정신이 아닌 것 같아서 그는 다른 소년들을 놀려대기도 하고 괴롭혀 주기도 했다.

그리고 나중에는 다른 소년들이 그에게 정신이 들었느냐고 매들어 그를 방바닥 위에 넘어뜨리고 그 위에 올라타는 판국에 이르렀다.

내리눌리는 통에 어느정도 흥분도 가시었으므로 그는 일찌기 들이닥친 손님들을 안내하기 위하여 극장의 현관으로 달려갔다.

그는 모범적인 안내원이었다.

점잖은 태도로 미소를 띄고서 총총걸음으로 그는 통로를 왕래했다.

어떠한 일이고 간에 귀찮아 죽겠다는 일은 없었다.

전언을 가지고 가거나 프로그램을 가져다 주거나 하여 흡사 그것이 생애의 최대의 기쁨인양 행동했다.

따라서 그의 담당석의 손님들은 모두 그가 자기들의 얼굴을 기억해 주고 있다고 느끼고 있었으므로 그는 정말 훌륭한 소년이라 생각되고 있을 정도였다.

관객이 만원이 되어옴에 따라서 그는 더욱더욱 활발해지고 신바람이 났다.

뺨이나 입술은 불그스름해졌다.

마치 이것이 일대 리셉션이어서 그가 손님을 대접하는 주인적인듯 싶었다.

마침 악사들이 나타나서 각기 자리를 잡았을 때였다.

영어선생이 어느 유명한 제조업자가 그 씨이즌을 즉 통하여 사고있는 좌석의 표를 가지고 나타났다.

그녀는 그 표를 포올에게 넘겨주었을 때 좀 어색한 표정을 지었다.

그리고 거드름 때는 태도도 보여 주었는데 그녀에는 바보같은 것을 하였다고 느꼈다.

포올은 잠시동안 놀라서 그녀를 바깥으로 쫓아버리고 싶은 감정이 솟구쳤다.

이런 훌륭한 인사들이며 화려한 분위기 속에 대관절 그녀는 무슨 용무가 있어 온 것일까? 보아하니 그녀는 단정한 옷차림을 하고 있지 않다.

그러한 복장으로 아래층에 앉아 있나니 필경 머리가 돌았다고 그는 생각했다.

그녀를 위하여 의자를 내리면서 아마 이 표는 누구의 호의로 보내진 것이려니 하고 생각을 다시했다.

그리고 자기와 마찬가지로 그녀에게도 여기 앉을 권리는 있겠지 하고 생각했다.

심포니가 시작하자 포올은 길게 안도의 한숨을 쉬고서 뒤의 한 좌석에 털썩 앉았다.

그리고 리코의 그림 앞에서처럼 또다시 눈을 잃었다.

심포니 그 자체가 특별히 포올에게 작용한 것이 아니라 악기의 맨 저음음이 울리기 시작했을 때 쉰 마음 속의 들뜬 것을 복돋아 주기 때문이었다.

아라비아의 어부가 발견한 향아리 속의 「마신」처럼 마음 속에서 꿈틀거리고 있던 것이 해방된 것 같았다.

그는 돌연 인생의 보미를 느꼈다.

오색빛이 눈앞에서 춤추고 천서아트·홀은 상상을 초월한 화려함으로 빛났다.

소프라노의 독창자가 나타나자 포올은 거기 배시꺼운 선생이 있다는 것도 잊어버리고 그러한 출연자가 노상 그에게 부여하는 특별한 도취 속에 잠겨어 있었다.

이 독창자는 꽃다운 청춘은 아니고 뜻밖에도 독일부인으로서 여러 아이의 어머니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새틴의 까운을 입고 보석을 박은 목걸이를 달고 여하한 결합도 포올에게 느끼게 하지 않는 저 형용하기 어려운 완성된 품격을 갖추고 있었다.

그리고 또 그녀 위에는 세계적인 찬사가 빛나고 있었다.

천서아트가 끝난 후 포올은 잔이 들때 까지 안절부절 못하는 비참한 감정에 피르움을 당하기가 일주였는데 오늘 밤은 특히 어느 때 보다 심하게 심증생겼다.

이러한 감정으로서서는 도저히 마음 편하게 있을 수 없다는 기분이 들었다. 정말 살아 있노라고 불리울 만한 유일한 것은 이 감미로운 흥분을 차마 흘쩍 버리지 못할 심정이었던 것이다.

마지막 연주가 행하여지는 동안 그는 가만히 빠져나와 탈의실에서 부리나케 옷을

같이 입더니 그 가수의 자동차가 기다리고 있는 옆문이 있는편으로 슬그머니 나갔다.

거기서 나오는 그녀를 보려고 보도를 빠른 걸음걸이로 왔다 갔다 하면서 기다리기 시작했다.

저 멀리에는 선리·호텔이 아름다운 비 속에 자욱하고 12층 건물의 창들은 마치 크리스머스·트리 밑에 놓여진 물이 환히 켜진 마분지로 만든 집모양 빛나고 있었다.

어떠한 유명한 배우나 가수라도 여기와 있을 동안은 거기 유숙하며, 거물급 제조업자들도 겨울동안은 이 호텔에 머무르고 있는 사람이 많았다.

포올은 가끔 이 호텔 근처를 헤매어 거기 출입하는 사람들을 지켜보면서 자기도 저기 들어가서 학교선생이며 하찮은 근심걱정으로부터 영원히 작별하고 싶다는 거센 욕망에 사로잡히곤 했던 것이다.

드디어 지휘자와 함께 아까의 가수가 나타났다.

지휘자는 그녀를 부축하여 마차에 태우고 독일말로 정중하게

『안녕히 주무세요』

하고 문을 닫았다.

그것이 포올에게 그녀는 지휘자의 옛적 애인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을 품게 했다.

포올은 늦지 않도록 달음질 치듯 하여 그 마차를 쫓아 갔으므로 가수가 내려 산고 모차를 쓰고 긴 연미복을 입은 흑인이 열어준 회전 유리문 저편으로 사라졌을 때 호텔 입구까지 이르러 있었다.

다음 순간 그 문이 다시 반쯤 열어서 포올은 자기도 안으로 들어간 듯한 기분이었다.

그녀 뒤를 따라서 계단을 올라가 따스하고 환한 건물 속으로 반짝반짝 빛나고 아늑하게 기분좋은 이국적인 열대의 세계로 들어가는 듯한 심정이었다.

그는 신문사의 일요일 부록판의 파아티의 사진에서 본 적이 있는 식당으로 운반되는 신비스러운 요리며 얼음이 든 여러 바케츠 속에 식혀어 있는 초록색 술병들이 생각났다.

그러나 난색없이 바람이 한바탕 불고 억세게 비가 뿌렸다.

그리고 포올은 자기가 아직도 바깥에 있고 자갈길의 진창 속에 서있는 것을 알자 깜짝 놀랐다.

비는 사정없이 구두 안으로 스며들어 오고 초라한 외투는 젖어서 몸에 찰싹 달라붙어 붙는다.

컨서어트·홀 앞의 등불은 꺼져 있었고 퍼붓는 비는 자기와 머리 위의 오렌지색

창문의 빛과의 사이에 드리인 막처럼 되어 내리 쏟아지고 있었다.

이것이야말로 그가 원하던 그대로였다.

크리스마스스의 판토마임의 동화적 세계마냥 분명히 눈앞에 있었다.

포올은 얼굴에 비를 맞으면서 캄캄한 밤 바깥에서 그것을 우렐어 보고 언제까지나 몸을 떨고 있는 그러한 운명이 자기에게 주어지고 있는 것일까 하고 생각해 보았다

그는 발을 돌려 차도로 향하여 마음 내키지 않는 걸음을 옮겼다.

여하한 공상의 세계, 동경의 세계에 잠겨 있어도 필경 그에게는 어느 때고 종말이 오지 않으면 안 되었다.

계단 위에 잠옷을 입고 서 있는 아버지, 변명이 안 되는 변명, 다급하여 임시변통으로 꾸며대어도 영락없이 발각되고 만다. 이층 자기 방의 저 진저리 나는 누런 벽지 기름 때가 묻은 플라쉬웃감의 칼라 넣는 실험이 딸린 패격거리는 옷장, 그리고 페인트 칠한 복재베드 위에는 죠오지·워싱턴과 존·칼빈의 초상화 그리고 포올이 모르는 그의 어머니가 붉은 털실로 만들어 준 『나의 세계양을 길러라』라는 성구를 적은 현판이 걸려 있다.

그로부터 반 시간 후, 포올은 「닉레이」가 행의 전차에서 내려 번화가를 피하여 한 골목길을 걸어 들어갔다.

거기는 고급 주택가로서 꼭 같은 모양의 집이 즐비하여 중류 실업가들이 많은 아이들을 데리고 키우고 있었다.

그 아이들은 모두 일요학교에 다니며 간략 교리문답을 공부하며 산수에 취미를 가지고 있었다.

또 그 가정은 모두 어수비수하여 그들이 살고 있는 이 모퉁이는 그 단조함에 있어 서도 흡사했다.

포올은 힘오의 감정으로 하여 몸을 후루루 떠는 일 없이는 코델리어가를 걸어 올라갈 수가 없었다.

그의 집은 점번란드 출신의 목사의 집 다음에 있었다.

오늘밤 그는 자기 집에 탁아감에 따라서 나쁜 패배감과 집에 돌아왔을 때 배양 느끼는 추잡과 평범 속에 영원히 가라앉아 버리는 듯한 절망감에 사로잡혔다.

그러나 지금은 흡사 그 구석지에 있는 무엇인가에 마침내 싸움이라도 건 것 같은 야릇한 안도감을 느꼈다.

하지만 끄나풀에 매어 있는 양 물만을 느끼고 살아온 이래로 아직 하루밖에 지나 있지 않았다.

즉 어제 오후 일이었다.

그는 평소대로 메니·엘드·카아슨 상회의 은행예금을 가지고 은행으로 심부름 보내어졌다.

다만 언제나와 다른 것은 예금잔고를 내어 받기 위하여 통장을 놓고 오도록 일러지고 있었다.

맡길 것은 수표로 천 달러 이상, 거기야 지폐로 약 천 달러였는데 그는 그것을 전부 통장에서 빼어 슬그머니 자기 호주머니로 옮겼다.

그는 그 은행에서 새로운 예금전표를 만들어 받았던 것이다.

제법 신경이 가라앉아 있어서 바로 사무실로 돌아와 자기 일을 마치고서는 그날 사한 구실을 만들어 내일 토요일 하루를 쉬겠다고 요청했다.

은행의 통장은 월요일이나 화요일이 아니면 돌아오지 않을 것을 알고 있었고 그라고 다음주에는 아버지도 시내에 있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지전몽치를 호주머니에 슬쩍 집어넣고 그날 밤 뉴우욕행의 밤차를 탈 때까지 그는 일순의 주저도 느끼지 않았다.

모든 계획이 얼마나 놀랍게 척척 쉬 진행되었던 것인가.

그리고 만사 형통하여 자기는 여기와 있다.

이쯤 되면 자기를 깨우는 사람도 없고 계단 위에서 있는 사람 그림자도 없을 것이다.

그는 창 밖을 소용돌이 치면서 퍼붓는 눈을 바라보고 있다가 잠들어 버렸다.

잠이 깨었을 때에는 오후 네시가 되어 있었다.

펼쩍 일어났다.

소중한 날의 하루가 벌써 거의 끝나려고 하고 있다.

옷차림을 하는데 거진 한 시간을 소비했다.

그리고는 자기 모습을 이모 저모로 거울에 향하여 비쳐 보았다.

모든게 완전무결했다.

그는 노상 자기가 그렇게 되기를 원하고 있던 바로 그때로의 경우로 되어 있었다 지층으로 내려가서 포운은 마차를 집어타고 오번가를 중앙공원 쪽으로 달리게 했다 눈은 좀 뜸해졌다.

겨울의 황혼 속을 마차며 장사치의 수레가 소리도 없이 이리저리 분주히 왕래하고 있었다.

모직의 머플러를 두른 소년들이 집집 입구의 계단의 눈을 삽으로 제거하고 있었다

한길을 가는 승합마차가 하얀길을 배경으로 아름다운 반점이 되어 있었다.

여기저기 모퉁이의 윈도우의 장식유리창 저쪽에서는 붓꽃이 한창으로 피어나 있었다.

그 유리창에는 눈조각이 붙었다가는 녹았다.

오랑캐꽃, 장미, 카네이션, 초롱꽃 따위가

눈 속에 이렇게도 부자연스럽게 다투어 피어나 있었으므로 어쩐지 한결 사랑스럽고 매력적으로 여겨졌다.

공원 그 자체가 어느 부대의 겨울경치 그대로의 아름다움이었다.

호텔로 돌아왔을 때에는 황혼 때의 뿌연도 가시어서 거리거리의 기색도 달라져 버렸다.

눈은 대서양으로부터의 미친듯 날뛰는 바람에 도전하여 폭풍 속을 두려움도 없이 더욱 더욱 빠르게 쏟아지고 있었다.

몇 10층의 호텔로부터도 못 창이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었다.

남북으로 달리는 한길에는 출창 마차의 긴 접정무리가 흘러 움직여 그것이 여기저기 동서로 향하는 말의 행렬과 교차하고 있었다.

호텔의 입구 근처에는 수 많은 택시가 무리지고 있었으므로 포술의 마부는 기다리치 않으면 안 되었다.

제복을 입은 뺨이들이 호텔 입구로부터 한길까지 보도에 같은 붉은 벨베트의 웅단을 왔다갔다 하여 보도에 처놓은 천막 안으로 달려서 들락날락 하고 있었다.

뒤에서도, 주위에서도, 안에서와 밖과 밖 왈차지절 하는 소리가 들리고 포술처럼 쾌락을 쫓고 있는 몇 천이라는 인간이 부산히 서성대고 있었다.

그리고 그의 주위 사방에는 황금이 만능이다 라는 번쩍번쩍 빛나는 확신이 솟아 있었다.

꿈을 실현하였다는 발작적인 기쁨에 소년은 이들 악붙고 어깨를 움츠렸다.

온갖 드라마의 자색, 온갖 로맨스의 이야기, 온갖 감각에 중요한 요소가 눈송이처럼 그의 주변을 방방 불고 있었다.

그는 폭풍 속의 나무다발처럼 불타오르고 있었다.

포술이 저녁식사를 하러 내려가니 오케스트라의 음악이 엘리베이터 밑에서 떠오르듯이 들려와 그를 맞이했다.

사람들이 우줄거리는 복도에 발을 들여놓자 그는 벽 가에 늘어있는 의자의 하나에 앉아서 숨을 크게 쉬었다.

등불, 사람들의 재잘거리는 소리, 향수냄음, 현란한 빛깔의 잡동산이 얼마동안

은 그는 그것에 못 배겨낼 상 싶었다.

그러나 그것도 일순에 지나지 않으며 이것이야말로 자기가 섞일 사람들이라고 자기에게 타일렸다.

홍사 자기만을 위하여 세워지고 사람들은 모든 마법의 궁정의 하나 하나의 방을 보고 돌아다니듯 독시실, 켄연실, 응결실을 순차로 느릿느릿 복도를 따라서 걸어다녔다.

식당에 이르렀을 때 그는 창가에 테이블에 앉았다.

탁상의 아름다운 꽃이며 하이얀 린넨, 갖가지 빛깔의 술잔, 부인들의 화려한 화장 풀크마개를 뿜는 가벼운 소리, 높게 낮게 오케스트라가 연주하는 「푸른 도나우」의 되풀이, 이런 것들이 모두 포올의 꿈을 배후적으로 눈부수게 넘쳐 흐르게 했던 것이었다.

그의 샴페인— 킵 속에 크림모양으로 거품이 이는 저 싸늘한 부글부글 끓는 저 귀중한 술—

이 장미색을 질게 하며 부어넣어졌을 때 포올은 세상에 정직한 사람이 있었느냐 싶었다.

이것이야말로 세상사람들이 악착같이 추구하고 있는 것, 모든 투쟁이 따르는 것이다.

그는 자기 과거의 현실성을 의심했다.

자기는 도대체 저 코델리어가와 같은 곳에 살은 일이 있었던가.

노끈한 듯한 실업가들이 이른 아침 자동차를 타고 출근하는 지역.

그러한 사람들—

노상 웃도리까지 내려드린 아이들의 머리채를 빗질해 주고 옷에서는 선내가 드럭드럭 나는 저 배시꺼운 사람들은 단지 기계에 달려있는 못에 불과한 것이라고 포올에게는 생각되었다.

코델리어가— 아아! 그것은 딴 시대, 딴 나라의 것이다.

자기는 즐창 이렇게 지내온 것이 아니었던가?

기억도 아득한 옛적부터 꼭 이처럼 아련히 빛나는 적물을 애수를 떠고 바라보며 엄지 손가락과 가운데 손가락 사이에 잔의 다리를 쥐고 천천히 빙빙 돌리며 밤마다 여기 이렇게 앉아 있던 것이 아닌가?

그에게는 분명 그렇다고 밖에 생각되지 않았다.

그는 도무지 수줍지도 괴롭지도 않았다.

이들 누구와 꼭 만나고 싶다는가 알고 싶다는가 하는 특별한 희망도 없었다.

그저 방관하고 추측하고 굉장한 야외극을 바라보는 권리만이 소망이었다.

다만 무대상의 소도구만이 그가 지향하는 바였다.

밤이 되어 오페라의 특별석에 있어도 조금도 쓸쓸하지가 않았다.

그는 마음이 들먹거리리는 불안으로부터도 강제된 적극이든가, 수위의 것으로부터 자기를 다르게 보이려고 하는 욕망으로부터도 그는 완전히 탈피할 수가 있었다.

지금이야 자기의 환경이 자기를 올바르게 설명해 준다고 믿고 있었다.

아무도 그가 입는 값비싼 자주빛 옷에 의심을 품지 않는다.

그는 다만 수동적으로 그것을 입고 있기만 하면 되었다.

여기서는 아무도 자기에게 창피를 주지는 못하리라는 것을 재확인 하기 위하여서는 그저 한 번 자기의 연미복에 힘짜 시선을 던지기만 하면 족했던 것이다.

그날 밤 그는 차마 이 으리으리한 거처방을 떠나 잠자리에 들기가 아까와서 탐창에서 휘몰아치는 폭풍을 인제까지나 바라보면서 즐곳 앉아 있었다.

잠자리에 들 때 짐실에는 등을 쉼대로 두었다.

하나로는 원채 겁이 많았기 때문이며 또 하나로는 혹시 밤중에 잠이 깨는 일이 있으면 베드 위에 누런 벽지나 위상톤이며 칼빈의 그림이 있거나 앓을까 라는 무서운 의심올 품는 그런 비참한 심정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였다.

일요일 아침 거리거리리는 온통 눈에 갇히어 있었다.

포울은 조반을 느지막히 먹었다.

오후에는 성미 거칠은 샌프란시스코 출신의 청년과 알게 되었다.

그는 예일대학 신입생으로서 일요일을 「한바탕 놀아나기」 위해서 왔다는 것이다.

그 청년이 포울에게 뉴우욕의 밤의 세계를 보여주겠노라고 제안해서 두 사람은 저녁식사 후 함께 호텔을 나섰다.

이튿날 일곱 7시까지 그들은 호텔로 돌아오지 않았다.

처음에는 샵케인 같은 신뢰가 넘치는 우정 가운데 출발한 것이었으나 엘리베이터 안에서의 작별시에는 이상하게 냉랭한 바 있었다.

그 신입생은 차를 놓치면 큰일이라고 바짝 정신을 차렸으며 포울은 잠자리에 들었다.

겨우 오후 두 시에 잠이 깨었다.

목이 바짝 타고 어쩔어쩔 하였으므로 펠을 눌러 얼음물과 커피 그리고 썬트버그 신문을 갖다 달라고 일렸다.

호텔의 관리인에게는 포움은 수상한대가 조금도 없었다.

그로 말하면 훔친 돈으로 영위하는 생활을 의젓하게 봄에 배게 하고 있었고 어느 모로나 남의 눈에 거슬리는 것을 하지 않았다.

그는 주로 귀와 눈의 탐욕을 구하여 지나친 것을 한다손 치더라도 타인에게 폐를 끼칠 정도는 못되었다.

제일 큰 즐거움은 자기 거룻탕, 겨울의 회색 황혼 속에 있는 일이었다.

조용히 꽃을 감상하고 의상을 즐기고 또 넓직한 긴 의자며 담배 릴의 인식을 즐기는 일이었다.

이렇게 자기가 평화스러운 감정을 맛보길란 지금까지 한 번도 없는상 싶었다.

허구한 날 하찮은 거짓말을 꾸며대지 않으면 안 되는 필요가 없어졌다는 것 만으로도 그의 자존심을 회복시켰다.

학교에 있어서 마치 흥겨워서 거짓말한 적은 절대로 없었다.

자기가 남에게 인정을 받고 존경을 받기 위하여 코렐리어가의 다른 소년들과는 유가 다르다고 주장하기 위하여 거짓말을 꾸며낸 것이었다.

지금은 의면치레의 거드름을 뭇 필요가 없었으므로, 또 친구인 배우가 결핍하면 말하곤 하던 「백역의 의상을 입는 것」이 가능하였으므로 전 보다도 한층 사내담고 정적해졌다고 느꼈다.

후회의 감정이 솟구치지 않았다는 것도 보아넘기지 못할 점이었다.

황금의 하루하루는 그림자 한결 멀구지 않고 지나갔다.

그 하루하루들 그는 별 수 있는대로 원전무결한 것으로 만들었다.

뉴우욕에 도착한지 8일째 만에 그는 핏츠버그신문에 사건의 전모가 드러나 있는 것을 발견했다.

거기에는 세상의 이목을 끌 만한 지방적 뉴우스가 최근 신통치 않아시인지 세세하게 함부로 쓰여져 있었다.

「데니·앤드·카슨」상사는 그 범인의 아이지가 도난당한 금액을 반환하여 주었으므로 회사로서는 고소할 생각은 없다는 성명을 내고 있었다.

캠벌랜드의 목사는 신문기자와의 회견에서 그 어머니 없는 소년을 아직도 선도하여 갱생시킬 희망이 있다고 명백히 하고 있었다.

포움의 일요학교 담임선생도 그 목적을 위하여서는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하고 있었다.

또 그 소년이 뉴우욕의 어느 호텔에서 모습을 보인 일이 있다는 풍문이 핏츠버그

에 다달아서 아버지가 그를 찾아내어 데려오기 위하여 이미 등부로 향하여 출발하였다는 것이었다.

포올은 방금 식사를 하러 옷을 갈아입기 위하여 들어온 참이었다.

무릎의 기운이 빠져나가 그는 턱색 의자에 파묻혀 두 손으로 머리를 끌어 안았다. 이쯤되면 감옥에 들어가는 것 보다 더 난처한 노릇이었다.

저 코텔리어가의 미지근한 물은 끝내 영영 그의 머리 위를 덮어버릴 것이다.

회색마냥 단조한 생활이 지금부터의 절망적인 구원 없는 세월동안 그의 앞에 전개되는 것이다.

일요일학교, 청년회, 누런 벽지를 바른 방, 축축히 젖은 접시 닦는 천, 그런 모든 것이 매시꺼울 정도로 생생하게 그에게 타쳐왔다.

오케스트라가 별안간 멎었을 때의 저 기분, 연극은 끝났다는 위축되는 듯한 저 기분에 사로잡혔다.

얼굴에는 보송보송 땀이 나기 시작했다. 그는 벌떡 일어나서 창백한 집짓스런 미소를 지으면서 사방을 둘러보고 거울에 비친 자기 모습에 웅크릴 하여 보았다.

통히 에습을 하지 않고 학교에 갈 때 그가 여러 번 느꼈듯이 무슨 기적이 일어난다 라는 엉뚱한 신념을 안고서 옷을 갈아입더니 휘파람을 불면서 엘레베이터 있는대로 복도를 총총히 걸려 내려갔다.

그가 식당에 들어가 음악의 선율이 들려온 순간 그의 기억은 여전히 순간을 즐기 고 그것에 의하여 흥분하고 그것을 흠족스럽게 여김으로써 환히 밝아졌다.

그의 신변에는 찬란한 광채, 즉 단지 극적인 부속물에 불과한 것이 다시, 그리고 최종적으로 그 힘을 찾았다.

그는 자기가 굴치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고 멋지게 그 결말을 지을 작정이었다.

그리고 어느 때 보다도 더 코텔리어가의 존재를 의심했던 것이다.

그리고 난생 처음 마구 포도주를 들이켰다.

결국 자기는 이들 운 좋은 사람들의 하나 였던 것이 아니던가.

그리고 자기는 아직도 멀쩡한 자기 자신이고 당연히 있을 곳에 있는 것은 아니던가? 그는 음악에 맞춰 초조하게 손가락으로 반주를 하였다.

그리고 주변을 두리번거리고 자기 행동은 보람있는 일이었다고 언거퍼 자기에게 일르는 것이었다.

바이올린의 억양, 포도주의 싸늘한 감미에 빠져 들어가면서 그는 더 빈틈없이 해치울 수 있었을텐데 하고 나쁜한 듯이 생각하고 있었다.

외국행의 배를 타고 지금 좁은 저러한 자기를 붙잡으려는 사람들로부터 벗어 날 수 있었을는지도 모른다.

그러나 세계의 저편은 너무도 멀어 불안스럽게 생각되었다.

이렇게 어물어물 하고 있을 수는 없다.

다시 한번 되풀이 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여도 그는 매일 꼭 같은 것을 해 치웠을 것이다.

그는 정답게 황금빛으로 뿌연 식당을 둘러보았다.

아아 과연 할만한 보람있는 일이다.

포울은 이튿날 아침 머리와 발에 심한 아픔을 느끼고 잠이 깨었다.

옷도 벗지 않고 침대 위에 몸을 내어던져 구두를 신은 채 잠들어 있었던 것이다.

사지가 납처럼 무거웠다.

혀와 목구멍은 까칠까칠 말라 있었다.

기진백진한 때 든가 신경이 긴장을 잃고 있을 때 외에는 아예 일어나지 않는 두뇌의 명석이 그를 불길하게도 엄습해 왔다.

그는 까딱하지 않고 누워서 눈을 감고 현실이 파도처럼 그의 위를 휩쓸어 가게 내버려 두었다.

아버지가 뉴우욕에 와 있다.

『어느 숙박소같은데 유숙하고 있다』 하고 그는 중얼거렸다.

집 앞의 발코니에서 보낸 술한 여름의 기억이 시키면 물같은 무게로 그에게 엄습해 왔다.

그에게는 백 달러도 남아 있지 않았다.

지금 그는 어느 때 보다도 절실히 황금이 만능이며 그가 몸서리나 하는 모든 것과 그가 간절히 원하는 모든 것과의 사이에서 있는 벽이라는 것을 알았다.

이 일에 결말을 지을 시기가 다가오고 있었다.

그는 뉴우욕에 온 맨 첫날에 그것을 생각하고 있었다.

생명의 줄을 끊는 방법도 준비하고 있었다.

그것은 지금 화장탁자 위에 놓여 있다.

어제밤 그가 식당으로부터 정신없이 돌아왔을 때 그는 그것을 꺼내 놓았던 것이다.

그러나 그 반짝이는 금속이 눈에 아팠다. 아무튼 그 외관이 비위에 거슬렸다.

그는 고통을 무릅쓰고 일어나 이리저리 걸었다.

이따금 속이 매스꺼워 못견딜 지경이었다. 온누리가 코렐리어가가 되어버린 것 같

은 느낌이였다.

여전한 과장된 우울이였다.

그러나 그레도 어찌된 영문인지 그는 아무 것도 두려워하고 있지 않았다.

마음은 전적으로 잠잠했다.

아마도 그는 마침내 저 으스스한 구석지를 들여다보고 그것을 간파했기 때문일지도 모른다.

그가 그 구석지에서 본 것은 과연 진저리나는 것이였다.

허지만 두고두고 오랫동안 두려워했던 만큼 진저리가 나는 것은 아니였다.

그는 인제사 모든 것을 속속들이 보아버렸다.

그는 인생을 최선을 다하여 살아왔으며 또 그가 살아보고 싶다고 원 하던 종류의 생활도 경험했다는 만족감이 그에게 있었다.

그는 반 시간이나 빨리 이 권총을 바라보면서 앉아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그는 이런 방법은 마땅치 않다고 자신에게 일렀다.

그리하여 그는 지층으로 내려가 택시를 타고 나룻터로 향하였다.

포울은 뉴우요오크에 이르자 기차를 내려 또 택시를 집어타고 시내를 빠져서 펜실 바니아 철도를 따라서 달리라고 운전수에게 일렀다.

눈은 철도 위에 수북했고 허허 벌판에는 바람이 불리어 깊이 쌓여 있었다.

다만 여기저기에 시들은 풀이나 잡초의 꼬치꼬치 마른 줄기가 기묘하게도 꺼렇게 눈 위에 떨어나와 있었다.

상당히 동떨어진 교외에서 포울은 자동차를 보내고 철도를 따라서 휘청휘청 걸어 갔다.

마음 속으로는 갖 가지 터무니 없을 것을 생각하면서, 그는 그날 아침에 본 모든 것을 현실적인 그림으로서 머리 속에 새겨가지고 있는 상 싶었다.

자기를 태운 두 대의 택시의 두 사람의 운전수의 얼굴모습, 옷웃에 꿇고 있는 빨간 카네이션을 사들인 이빨이 없는 노파, 차표를 팔아준 역원, 한 나룻배에 탔던 선객들까지 그는 생각해 내었다.

그의 마음은 눈앞에 들이닥친 중대한 사태에 항거할 수 없었다.

열심히 그리고 능란하게 이 영상들을 분류하거나 정리하기에 골몰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들은 그에게 사과의 추악함의 일부를 형성하고 있었고 머리 속의 고통의 일부가 되어 있기도 하였다.

또 헛바닥이 타는 듯한 격심한 고통의 일부기도 하였다.

그는 걸음을 옮기면서 허리를 굽혀 눈을 한 줌 입에 집어 넣었다.

그러나 그것 역시 따갑게 생각되었다.

조그마한 산허리에 이르러서 발을 멈추고 주저 앉았다.

거기는 20피트 받 밑을 철로가 횡단로를 빠져나가는 곳이었다.

옷속에 꽂은 카베이션이 추위에 고개를 숙이고 있음을 그는 보았다.

이제 그 빛나는 진한 붉음도 본래의 색을 잃고 있었다.

저 맨 첫날밤 쇼윈도우에서 본 모든 꽃들도 이미 훨씬 전에 이렇게 되어 있으려다  
고 문득 그 생각이 떠올랐다.

유리 밖을 향하여 으시되며 피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이 꽃들이 지닌 단  
하나의 장한 순간에 지나지 않았다.

세상을 움직이고 있는 일상 다반사에 거역한다는 것은 결국 끝장에 가서는 진다는  
것이 되는 것 같다.

옷에서 조심스레 카베이션의 꽃잎을 하나 따서 눈에 조그만 구멍을 만들고 그 속  
에 파묻었다.

그리고는 기력이 쇠하여 추위도 느끼지 않는 양 잠시 꾸벅꾸벅 졸았다.

기차가 다가오는 소리에 그는 잠이 깨었다.

벌떡 일어나 자기의 결심만을 상기하고 배를 놓친 것이나 아닌가 하고 두려워 했다.

그는 들이닥치는 기차를 응시하며 서 있었다.

이빨이 와들와들 떨리고 입술은 공포에 질린 미소를 띠고 이그러져 있었다.

그는 한 두 번 누가 자기를 지켜보고 있는 듯 싶어서 힐끗힐끗 비겁하게 소리 결눈  
질었다. 바로 그 순간이 오자 그는 경중 뛰었다.

떨어지면서 성급한 어리석음과 한 번 행하여 보지도 못하고 남기고 온 술한 것이  
무자비스러울 만큼 또렷이 마음에 떠올랐다.

그의 머리 속을 여느 때 보다 선명히 애드리어 바다의 푸름과 엘제리이 사막의 노  
랑빛이 번개처럼 번쩍여 지나갔다.

가슴패기에 무엇이 부딪치는 것 같았다.

몸동아리는 홀링 허공에 내어던져져 한없이 멀리 날래게 날아가면서 사지는 축늘  
어져 움직이지 않게 되었다.

그리고는 그림을 만들어 내는 육체의 맥카니즘이 부서져 번겨로운 환영은 어둠속  
에 사라졌다.

포울은 한량 없는 삼라만상의 계획 속으로 빠져 들어갔다.



◎.....오늘이 3월 6일 경칩——.

망속의 모든 벌레가 겨울잠에서 깨어나 새봄을 구가하며 대지위에 약 등하기 시작한다는 따사한 계절인데, 때아닌 영하 13도의 피변기온, 유럽 일대에선 영하 26도에 폭설까지 겹쳐 물경 1백년만에 처음 보는 최악의 한파였다나.....

◎.....역사는 돌고돈다.

공군 초창기에 정훈감실기구에 편집과를 두어 「공군」지의 전신 「코메트」지를 비롯하여 「공군위클리」등 기타 여러 정훈 간행물을 발간담당하였다.

그후 편제개편에 따라 2~3차 존폐되었다가 63년도에 제 3차로 탄생하여 어인 8년의 역사를 이어오다가 이번 군의 보다 강력한 정예화 정책에 따라 다시 해편되고 그 업무가 정훈과로 흡수되었다.

역사의 변천, 돌고 돌음을 절감한다.

오늘의 탄탄한 정훈편집을 이룩해 놓은 역대 편집과장과 최종 편집과장이었던 이 상민 중령님의 역량 많았던 지도와 공로를 높히 사고싶다.

◎.....대통령과 국회의원선거를 눈앞에 두고 정계에선 드디어 선거운동의 포문을 연것같다. 선거의 해로서 어수선한 틈을 타, 복귀들은 언제 어디서 재침의 방동을 벌릴지도 모를 일이다. 우리 이 중차대한 시기에 보다 철통같은 방위태세를 갖추고, 일단 유사시에는 적을 일격으로 분쇄, 전진 또 전진할 것을 다짐하자.

◎.....「생활인으로서의 군인의 사생활」과 「병영생활 명랑화외」자기완성」을 특집으로 엮었다. 자칫하면 군대의 생활을 한낱 타율적, 피동적인 것에만 의존하는 타성에 젖기 쉬운점을 바로잡아, 보다 적극적이며, 의욕적인 군인생활의 기틀을 굳혀보고싶어서였다.

◎.....이번호의 발간이 늦어졌다.

부득이 합병호로 엮었다. 지연 이유를 생각하고, 다음호부터는 보다 알찬내용으로 200면 이내로 간추려 정기간행물로서의 구실을 다 할 수 있도록 지원부서의 보다 적극적인 협조를 받도록 해보겠다. 접하여 독자 여러분의 옥고도 학습고대하면 서.....<준>



### 인도네시아 공군참모총장 공본예방

「스위토·스켄달」 인도네시아 공군참모총장이 지난 10월 29일 공군본부로 김두만 참모총장을 예방, 양국 공군의 우의를 더욱 돈독히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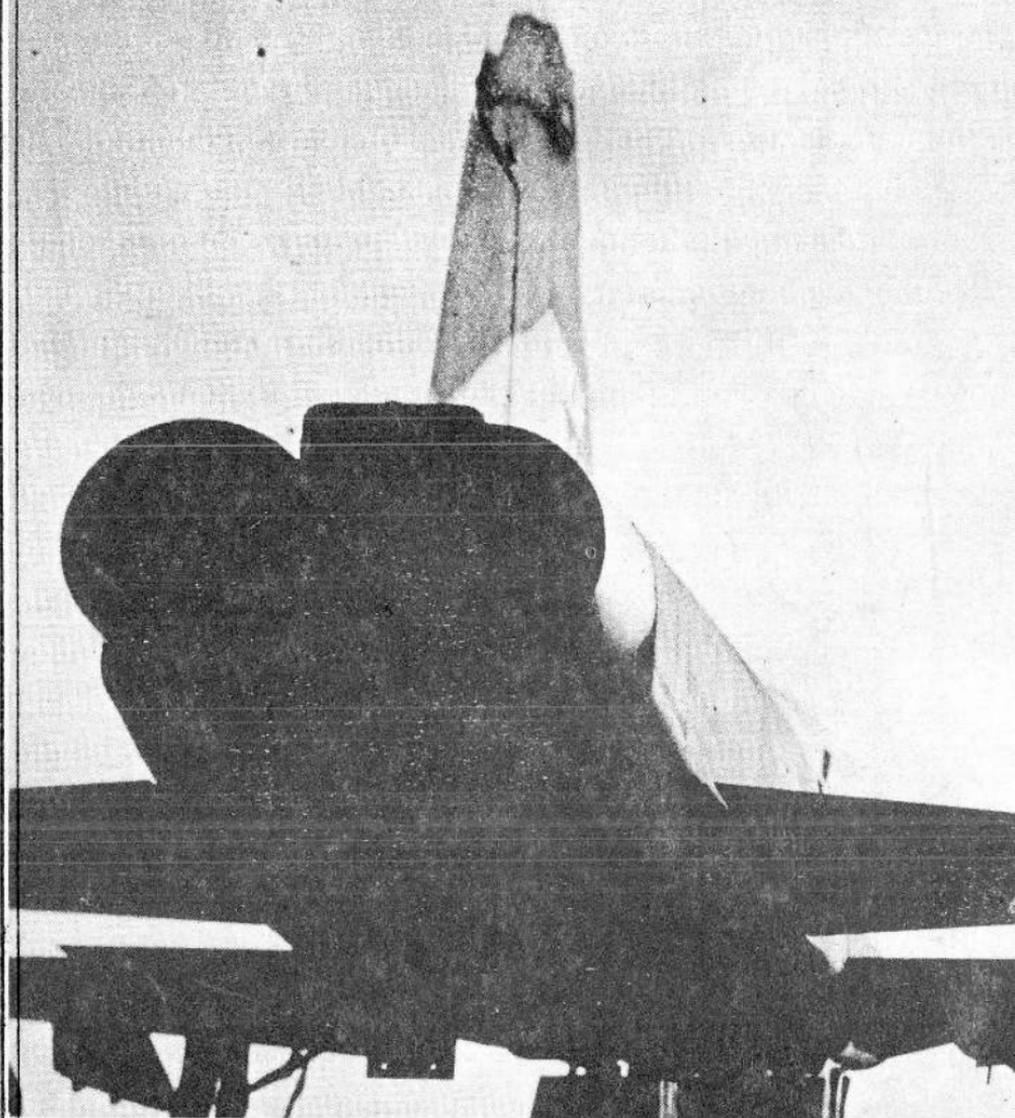
### 공군 아파트 입주식

재경지구 무주택 공군장교 가족을 위해 영등포구 대방동에 건립한 아파트 2동이 준공되어, 12월 4일, 김두만 참모총장을 비롯한 관계참모와 입주자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그 입주식을 가졌다.

# 자주 국방

자조정신

자립경제



정병강군



임전태세확립